all ways 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제6기(2027~2030)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보고서



인천광역시

PASS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책임연구원

이 선 정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유 미 선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 교수

CONTENT

제1장 서론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조사 특성 ····· 3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근거 및 배경 ····· 3
2. 제6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조사 수립 배경 및 특성 ····· 4

제2절 지역사회보장조사 조사 개요 ····· 6

1. 지역사회보장조사 방법 및 대상 ····· 6
2. 지역 현황 분석 ····· 7
3. 지역주민 욕구 조사 ····· 7
4. 지역주민 초점집단면접 ····· 17

제2장 인천시 지역사회보장 기초 현황

제1절 인천광역시의 사회경제 환경 ····· 21

1. 지리적 환경 ····· 21
2. 행정 및 재정 환경 ····· 22
3. 인구 · 사회환경 ····· 27
4. 산업 및 경제적 환경 ····· 36

제2절 사회보장 영역별 현황 ····· 38

1. 대상별 현황 ····· 38
2. 고용·노동 현황 ····· 54
3. 보건의료 ····· 59
4. 교육 ····· 65
5. 주거 ····· 70
6. 문화·여가 ····· 72
7. 환경 ····· 73



CONTENT

제3절 인천광역시 사회보장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 75
1.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현황 ····· 75
2. 노인복지시설 현황 ····· 75
3.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77
4. 영유아 관련 시설 현황 ····· 78
5.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 81
6. 교육시설 ····· 83

제3장 인천시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제1절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분석 ····· 87
1. 가구 일반현황 ····· 87
2.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분석 ····· 89
3. 사회복장 대상별 생활실태 ····· 303
4. 복지의식 및 욕구 ····· 322
5. 생활 여건 및 지역 불균형 ····· 346
제2절 인천시 10개 군·구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결과 ····· 355
1. 지역특성 및 현안 인식 ····· 355
2. 사회보장욕구 및 현안에 대한 실천, 대응 ····· 356
3. 민관협력 기반 복지전달체계 운영방식과 한계 ····· 358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359

제4장 인천시 사회보장조사 주요 특성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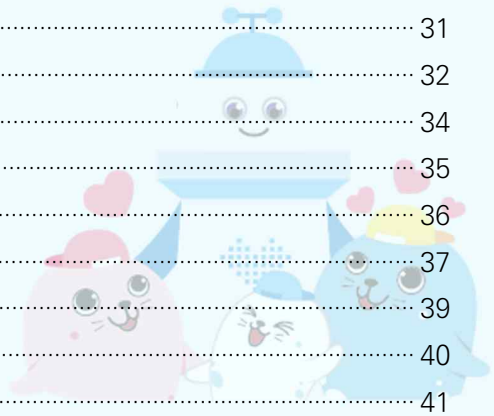
1. 인천시 복지 수요 주요 특성 ····· 363
2. 군·구별 주민 욕구 조사 주요 결과 ····· 368
3. 지역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 370

부록. 설문조사 질문지



CONTENT 표

[표 1-1]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이슈 및 논의 결과 ····· 6
[표 1-2] 지역사회보장조사 방법 및 대상 ····· 6
[표 1-3] 지역사회보장조사 구분 및 항목 ····· 7
[표 1-4] 표본 할당 ····· 8
[표 1-5] 군·구별 분석가구 ····· 10
[표 1-6]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조사 내용 ····· 10
[표 1-7] 5기 대비 6기 조사표 변경내용 ····· 11
[표 1-8]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 13
[표 1-9] 인천시 10개 군·구별 초점집단 면접 현황 ····· 17
[표 1-10] 인천시 10개 군·구별 초점집단 면접내용 ····· 17
[표 2-1] 인천광역시 면적 및 행정동 현황 ····· 22
[표 2-2] 특별·광역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 22
[표 2-3] 인천시 군·구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 23
[표 2-4] 특별·광역시 재정자립도 ····· 24
[표 2-5] 인천광역시 군·구별 재정자립도 ····· 25
[표 2-6]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예산변화 추이 ····· 25
[표 2-7] 분야별 사회복지 예산 변화추이(일반회계) ····· 26
[표 2-8] 인천시 일반회계 세입 현황 ····· 26
[표 2-9] 인천시 분야별 세출 현황 ····· 27
[표 2-10] 특별·광역시별 주민등록인구 변화추이 ····· 28
[표 2-11] 인천시 군·구별 주민등록인구 변화추이 ····· 29
[표 2-12] 특별·광역시별 주민의 평균연령 ····· 30
[표 2-13] 인천시 군·구별 주민의 평균연령 ····· 31
[표 2-14] 인천시 군·구별 5세 연령대별 분포 (2024년) ····· 32
[표 2-15] 인천시 군·구별 합계출생률 변화 ····· 34
[표 2-16] 전국 및 인천시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 현황 ····· 35
[표 2-17]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1인 가구 현황 ····· 36
[표 2-18] 인천시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37
[표 2-19]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영유아 인구의 변화 ····· 39
[표 2-20] 인천시 군·구별 아동 · 청소년 인구의 변화 ····· 40
[표 2-21]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고령인구 비율 현황 ····· 41
[표 2-22]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독거노인 가구 비율 현황 ····· 42



CONTENT 표

[표 2-23]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노인학대 유형 및 비율(2024년) ····· 43
[표 2-24]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등록장애인 현황 ····· 44
[표 2-25]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장애 정도에 따른 등록장애인 현황 ····· 44
[표 2-26]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등록외국인 현황 ····· 45
[표 2-27]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인구 1천 명당 외국인 현황 ····· 46
[표 2-28]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다문화 가구 현황 ····· 47
[표 2-29]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48
[표 2-30] 인천시 군·구별 저소득 가정의 수급률 변화 ····· 49
[표 2-31] 특별·광역시 기초연금 수급률 ····· 50
[표 2-32] 인천시 군·구별 기초연금 수급률 ····· 50
[표 2-33] 특별·광역시 장애인연금 수급률 ····· 51
[표 2-34]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연금 수급률 ····· 52
[표 2-35]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 현황(2024) ····· 53
[표 2-36] 특별·광역시 한부모 가구 현황 ····· 53
[표 2-37] 특별·광역시 경제활동 참가율 ····· 54
[표 2-38] 특별·광역시 고용률 ····· 55
[표 2-39] 전국과 인천시 실업률 ····· 56
[표 2-40] 특별·광역시 청년실업률 ····· 57
[표 2-41] 특별·광역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 ····· 57
[표 2-42]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 ····· 58
[표 2-43] 특별·광역시 경력단절 여성 비율의 변화 ····· 59
[표 2-44]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자살률 ····· 60
[표 2-45] 인천시 군·구별 스트레스 인지율 ····· 61
[표 2-46] 특별·광역시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 ····· 61
[표 2-47] 군·구별 주관적 건강 상태 인지율 ····· 62
[표 2-48] 전국과 인천시 군·구별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 63
[표 2-49]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 ····· 63
[표 2-50] 인천시 군·구별 미충족 의료율 ····· 64
[표 2-51]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초등학생 현황 ····· 65
[표 2-52]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재적 학생 현황 ····· 66
[표 2-53] 인천시 초·중·고 학업중단율 ····· 67
[표 2-54]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 ····· 68

CONTENT

표

[표 2-55] 인천시 군·구별 인구 1만 명당 평생교육 기관 수 ····· 68
[표 2-56] 인천시 군·구별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 69
[표 2-57] 인천시 군·구별 노후주택 비율 ····· 70
[표 2-58] 인천시 군·구별 빈집 비율 ····· 71
[표 2-59] 인천시 1인당 문화 관련 예산 ····· 72
[표 2-60]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 73
[표 2-61]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73
[표 2-62] 인천시 군·구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74
[표 2-63] 인천시 군·구별 사회복지시설 현황(2025.1) ····· 75
[표 2-64] 인천시 군·구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 76
[표 2-65]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77
[표 2-66]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2025.7) ····· 78
[표 2-67]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79
[표 2-68]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어린이집 현황(2024년) ····· 80
[표 2-69] 전국 및 군·구별 유치원 원아 현황 ····· 80
[표 2-70] 인천시 군·구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 82
[표 2-71] 인천시 군·구별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 82
[표 2-72] 인천시 학교 현황 ····· 83
[표 2-73] 인천시 군·구별 여성 및 가족 관련 시설 ····· 84
[표 3-1] 응답 가구의 특성 ····· 87
[표 3-2] 응답 가구의 가구주 특성 ····· 88
[표 3-3] 응답 가구의 가구원 특성 ····· 88
[표 3-4]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90
[표 3-5] 인천시 군·구별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91
[표 3-6] 돌봄 관련 어려움 해결 방법(1+2순위 기준) ····· 92
[표 3-7]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지원제도 만족도 ····· 93
[표 3-8] 인천시 군·구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1+2순위) ····· 95
[표 3-9]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95
[표 3-10] 인천시 군·구별 긴급돌봄서비스 이용경험 ····· 96
[표 3-11] 인천시 군·구별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 96
[표 3-12] 긴급돌봄서비스 인지 경로 ····· 97
[표 3-13] 긴급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 ····· 97

CONTENT 표

[표 3-14] 미취학 아동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 98
[표 3-15] 인천시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 99
[표 3-16]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00
[표 3-17] 인천시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01
[표 3-18]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 현황 ····· 104
[표 3-19]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 ····· 105
[표 3-20]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 105
[표 3-21]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 106
[표 3-22]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107
[표 3-23]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07
[표 3-24] 군·구별 미취학 아동 보육기관 이용 여부 및 주양육자 ····· 108
[표 3-25] 군·구별 미취학 아동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중복응답) ····· 109
[표 3-26] 군·구별 초등학교 취학 아동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 111
[표 3-27]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 자녀 유무 ····· 112
[표 3-28] 청소년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 113
[표 3-29] 인천시 군·구별 청소년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 114
[표 3-30] 청소년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15
[표 3-31] 군·구별 청소년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15
[표 3-32]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의 사회활동 도움 정도 및 필요도 ····· 119
[표 3-33] 군·구별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의 사회활동 참여 경험 ····· 120
[표 3-34] 군·구별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 도움 정도 ····· 121
[표 3-35] 군·구별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 필요도 ····· 121
[표 3-36] 군·구별 청소년 학원·과외·학습지 이용 경험 ····· 122
[표 3-37]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 현황 ····· 123
[표 3-38] 군·구별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인지여부 ····· 125
[표 3-39] 군·구별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 127
[표 3-40] 군·구별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 128
[표 3-41] 군·구별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129
[표 3-42]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30
[표 3-43] 군·구별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1+2순위) ····· 131
[표 3-44] 노인 돌봄 서비스별 지원의 중요성 ····· 133
[표 3-45] 군·구별 노인 돌봄 서비스별 지원의 중요성 ····· 134

CONTENT

표

[표 3-46]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 135
[표 3-47]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정도 ····· 137
[표 3-48]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 현황 ····· 140
[표 3-49]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인지여부 ····· 142
[표 3-50]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경험 ····· 143
[표 3-51]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 144
[표 3-52]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145
[표 3-53]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46
[표 3-54]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주로 돌보는 가족 및 돌보는 시간 ····· 147
[표 3-55] 군·구별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 인지 정도 ····· 149
[표 3-56] 거주지역의 노인 돌봄 서비스 평가 ····· 150
[표 3-57] 군·구별 거주지역의 노인 돌봄 서비스 평가 ····· 150
[표 3-58] 군·구별 노인 돌봄서비스 개선 사항(1+2순위) ····· 152
[표 3-59] 군·구별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1+2순위) ····· 153
[표 3-60]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 ····· 155
[표 3-61] 군·구별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 ····· 156
[표 3-62]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56
[표 3-63] 군·구별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58
[표 3-64]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164
[표 3-65] 군·구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 165
[표 3-66] 군·구별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경험 ····· 165
[표 3-67] 군·구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 166
[표 3-68] 군·구별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166
[표 3-69]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67
[표 3-70]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168
[표 3-71] 군·구별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 170
[표 3-72] 군·구별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이용경험 ····· 171
[표 3-73] 군·구별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172
[표 3-74] 군·구별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173
[표 3-75]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74
[표 3-76] 군·구별 장애로 인한 어려움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 인지 정도 ····· 175
[표 3-77] 거주지역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 평가 ····· 176

CONTENT 표

[표 3-78] 군·구별 거주지역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 평가 ····· 177
[표 3-79] 군·구별 거주지역 장애인 복지 분야 중점과제 ····· 179
[표 3-80]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179
[표 3-81]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180
[표 3-82]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82
[표 3-83]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82
[표 3-84]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185
[표 3-85] 인천시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 186
[표 3-86]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경험 ····· 187
[표 3-87]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187
[표 3-88]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188
[표 3-89] 정신건강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88
[표 3-90] 일상생활 관련 정서적 어려움 경험 여부 ····· 189
[표 3-91] 군·구별 일상생활 관련 정서적 어려움 경험 여부 ····· 190
[표 3-92] 군·구별 자살 생각 여부와 그 이유 ····· 191
[표 3-93]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와 이용현황 ····· 193
[표 3-94]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193
[표 3-95] 정신건강 외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194
[표 3-96] 신체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195
[표 3-97]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195
[표 3-98] 신체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96
[표 3-99]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96
[표 3-100] 신체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198
[표 3-101]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 199
[표 3-102]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199
[표 3-103]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00
[표 3-104] 본인 및 가구원 건강상태 ····· 200
[표 3-105] 군·구별 본인 및 가구원 건강상태 ····· 201
[표 3-106] 인천시 군·구별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 ····· 202
[표 3-107] 기초생활유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03
[표 3-108]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03
[표 3-109] 기초생활유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04

CONTENT

표

[표 3-110] 인천시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05
[표 3-111]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208
[표 3-112]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 209
[표 3-113]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210
[표 3-114]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210
[표 3-115]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211
[표 3-116] 기초생활유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12
[표 3-117] 사회보장서비스 인지여부와 신청현황 ····· 212
[표 3-118] 군·구별 사회보장서비스 인지 여부 ····· 213
[표 3-119] 군·구별 사회보장서비스 신청현황 ····· 214
[표 3-120] 군·구별 사회보장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214
[표 3-121] 사회보장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 ····· 215
[표 3-122]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16
[표 3-123] 인천시 군·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16
[표 3-124]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17
[표 3-125] 군·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17
[표 3-126] 가족/사회적 관계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 현황 ····· 219
[표 3-127] 군·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 220
[표 3-128] 군·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경험 ····· 220
[표 3-129] 군·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220
[표 3-130] 군·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221
[표 3-131]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21
[표 3-132] 사회활동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222
[표 3-133] 군·구별 사회활동 인지 여부 ····· 224
[표 3-134] 군·구별 사회활동 참여경험 ····· 224
[표 3-135] 군·구별 사회활동 이용 만족도 ····· 225
[표 3-136] 군·구별 사회활동 향후 이용 의향 ····· 226
[표 3-137]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226
[표 3-138] 보호·안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27
[표 3-139] 군·구별 보호·안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229
[표 3-140] 보호·안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30
[표 3-141] 군·구별 보호·안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33

CONTENT

표

[표 3-142] 군·구별 동거가족과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 239
[표 3-143] 군·구별 동거가족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 방법 ····· 241
[표 3-144]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성 ····· 241
[표 3-145] 군·구별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성 ····· 242
[표 3-146] 가족폭력 및 가족문제 해결 사회보장 서비스 인지여부 및 필요성 ····· 242
[표 3-147] 군·구별 가족폭력 및 가족문제 해결 사회보장 서비스 인지여부 ····· 244
[표 3-148] 군·구별 가족폭력 및 가족 문제 해결 사회보장 서비스 필요 정도 ····· 246
[표 3-149] 교육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47
[표 3-150] 군·구별 교육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48
[표 3-151] 교육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49
[표 3-152] 군·구별 교육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49
[표 3-153]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와 이용현황 ····· 252
[표 3-154] 인천시 군·구별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 253
[표 3-155] 군·구별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253
[표 3-156] 군·구별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254
[표 3-157] 군·구별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254
[표 3-158] 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55
[표 3-159] 참여를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1+2순위) ····· 256
[표 3-160] 고용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57
[표 3-161] 군·구별 고용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59
[표 3-162] 고용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60
[표 3-163] 군·구별 고용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61
[표 3-164]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 현황 ····· 266
[표 3-165] 군·구별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 267
[표 3-166] 군·구별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268
[표 3-167] 군·구별 고용 관련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268
[표 3-168] 군·구별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269
[표 3-169] 고용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70
[표 3-170] 고용 서비스 정책 필요성 ····· 272
[표 3-171] 군·구별 고용 서비스 정책 필요성 ····· 272
[표 3-172] 군·구별 주택 유형 ····· 273
[표 3-173] 군·구별 주택 위치 ····· 274

CONTENT

표

[표 3-174]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 275
[표 3-175] 냉 · 난방비 부담 정도 ····· 275
[표 3-176] 군·구별 냉난방비 부담정도 ····· 276
[표 3-177]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 278
[표 3-178] 군·구별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 279
[표 3-179] 군·구별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280
[표 3-180] 군·구별 주거 관련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281
[표 3-181] 군·구별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282
[표 3-182] 주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83
[표 3-183]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84
[표 3-184]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285
[표 3-185]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86
[표 3-186]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86
[표 3-187]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 288
[표 3-188]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 289
[표 3-189]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289
[표 3-190]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290
[표 3-191]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290
[표 3-192]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90
[표 3-193] 문화·여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92
[표 3-194]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93
[표 3-195] 문화·여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93
[표 3-196]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95
[표 3-197]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 300
[표 3-198]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 301
[표 3-199]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301
[표 3-200]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301
[표 3-201]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302
[표 3-202] 문화·여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302
[표 3-203] 혼자 지낸 기간 및 이유 ····· 304
[표 3-204] 도움 요청 사람/기관 ····· 305
[표 3-205] 군·구별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한 점(1+2순위) ·····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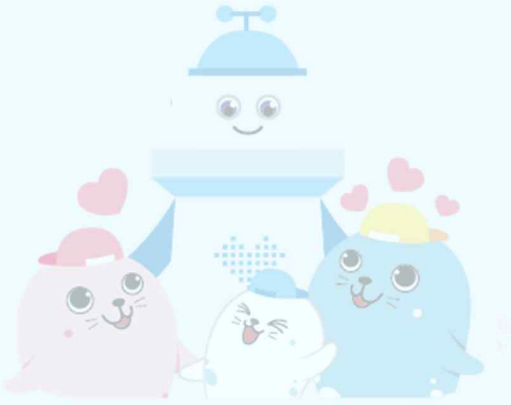
CONTENT 표

[표 3-206] 군·구별 1인 가구 지원 정책(1+2순위) ····· 308
[표 3-207] 군·구별 다문화 가구원 출신 국가 ····· 309
[표 3-208] 다문화 가구원의 한국에 온 목적 ····· 310
[표 3-209] 차별을 느낀 정도 ····· 311
[표 3-210] 군·구별 차별을 느낀 정도 ····· 312
[표 3-211] 다문화 가구원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운 점(1+2순위) ····· 313
[표 3-212] 서비스 필요 정도 ····· 314
[표 3-213] 군·구별 서비스 필요 정도 ····· 315
[표 3-214]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 317
[표 3-215] 군·구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인지여부 ····· 318
[표 3-216] 군·구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이용 경험 ····· 318
[표 3-217] 군·구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이용 만족도 ····· 319
[표 3-218] 군·구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향후 이용 의향 ····· 320
[표 3-219] 주요 다문화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321
[표 3-220] 전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정도 ····· 323
[표 3-221] 군·구별 전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정도 ····· 324
[표 3-222] 사회보장 정책의 시급성 ····· 326
[표 3-223] 인천시 군·구별 사회보장 정책의 시급성 ····· 327
[표 3-224] 시군·구의 노력 정도 ····· 328
[표 3-225] 군·구별 시군·구의 정책 노력 정도 ····· 329
[표 3-226]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현 방안 ····· 336
[표 3-227] 군·구별 복지정책 방향과 실현 방안 ····· 336
[표 3-228] 우선 지원 대상 ····· 338
[표 3-229] 군·구별 우선 지원 대상 ····· 339
[표 3-230] 군·구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1+2+3순위) ····· 341
[표 3-231] 주요 복지시설 인지 여부 ····· 342
[표 3-232] 군·구별 주요 복지시설 인지 여부 ····· 343
[표 3-233] 군·구별 주요 복지시설 이용 경험 ····· 343
[표 3-234] 군·구별 주요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344
[표 3-235] 군·구별 주요 복지시설 향후 이용 의향 ····· 345
[표 3-236] 주요 복지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 ····· 345
[표 3-237] 지역사회와 삶의 만족도 ····· 346

CONTENT

표

[표 3-238] 군·구별 지역사회와 삶의 만족도 ····· 347
[표 3-239] 군·구별 다른 군·구 대비 현재 거주지역 평가 ····· 347
[표 3-240] 지역 간 불균형 심각도 ····· 348
[표 3-241] 군·구별 지역 간 불균형 심각도 ····· 349
[표 3-242]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 ····· 351
[표 3-243] 군·구별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 ····· 352
[표 3-244] 임신/출산 경험 ····· 353
[표 3-245] 임신/출산 여건 ····· 354
[표 3-246] 군·구별 임신/출산 여건 ····· 354
[표 3-247] 10개 군·구 공통적으로 나타난 지역 특성 및 현안 인식 ····· 355
[표 3-248] 10개 군·구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회보장 욕구 및 현안에 대한 실천, 대응 ····· 356
[표 3-249] 10개 군·구 공통적으로 나타난 민관협력 기반 복지전달체계 운영방식과 한계 ····· 358
[표 3-250] 지역별 차별화된 민관협력 기반 복지전달체계 운영방식과 한계 ····· 358
[표 3-251] 10개 군·구 공통적으로 나타난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방안 ····· 359



CONTENT

그림

[그림 1-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 3
[그림 1-2] 지역사회보장조사 표본추출 과정 ····· 9
[그림 1-3] 예비조사(Pilot Survey) 진행 절차 ····· 12
[그림 1-4] 예비조사(Pilot Survey) 점검 사항 ····· 12
[그림 1-5] 실사 절차 ····· 13
[그림 1-6] 자료 검증 절차 ····· 15
[그림 1-7] IPA 결과 예시 ····· 16
[그림 2-1] 인천시 행정구역 및 개편 현황 ····· 21
[그림 2-2] 인천광역시 군·구별 재정자립도 변화 ····· 24
[그림 2-3] 인천시 인구변화 추이 ····· 28
[그림 2-4] 인천시 군·구별 주민등록인구 변화 추이 ····· 29
[그림 2-5] 특별·광역시별 주민의 평균연령 ····· 30
[그림 2-6] 인천광역시 5세 연령대별 인구 현황(2024년) ····· 32
[그림 2-7] 인천시 군·구별 합계출생률 변화 ····· 33
[그림 2-8] 인천시 군·구별 인구성장률 추이 ····· 34
[그림 2-9] 인천시 군·구별 영유아 인구변화 ····· 38
[그림 2-10] 인천시 군·구별 아동 · 청소년 인구의 변화 ····· 40
[그림 2-11] 전국과 인천광역시 실업률 변화 비교 ····· 56
[그림 2-12] 인천시 군·구별 초 · 중 · 고 학업중단율 ····· 67
[그림 2-13] 인천광역시 빈집 비율 ····· 71
[그림 3-1]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90
[그림 3-2]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지원제도 만족도 ····· 93
[그림 3-3]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 94
[그림 3-4]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96
[그림 3-5] 미취학 아동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 98
[그림 3-6]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00
[그림 3-7] 인천시 전체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IPA 결과 ····· 101
[그림 3-8]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IPA 결과 ····· 102
[그림 3-9]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 현황 ····· 104
[그림 3-10] 미취학 아동 보육기관 이용 여부 및 주양육자 ····· 108
[그림 3-11] 미취학 아동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 ····· 109
[그림 3-12] 초등학교 취학 아동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 110

CONTENT

그림

[그림 3-13]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 자녀 유무 ····· 112
[그림 3-14] 청소년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 113
[그림 3-15] 청소년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14
[그림 3-16] 인천시 청소년 돌봄의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 IPA ····· 116
[그림 3-17] 군·구별 인천시 전체 청소년 돌봄의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 IPA ····· 117
[그림 3-18]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의 사회활동 도움 정도 및 필요도 ····· 119
[그림 3-19] 청소년 학원·과외·학습지 이용경험 ····· 122
[그림 3-20]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인지여부와 이용현황 ····· 124
[그림 3-21]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 ····· 131
[그림 3-22] 노인 돌봄 서비스별 지원의 중요성 ····· 132
[그림 3-23]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정도 ····· 135
[그림 3-24] 인천시 전체 노인 돌봄 관련 IPA 결과 ····· 137
[그림 3-25] 군·구별 노인 돌봄 - 일상생활 관련 IPA 결과 ····· 138
[그림 3-26] 노인 돌봄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141
[그림 3-27]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주로 돌보는 가족 ····· 147
[그림 3-28]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인지 정도 ····· 148
[그림 3-29] 거주지역의 노인 돌봄 서비스 평가 ····· 149
[그림 3-30] 노인 돌봄서비스 개선 사항 ····· 151
[그림 3-31]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 ····· 153
[그림 3-32]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 ····· 154
[그림 3-33]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57
[그림 3-34] 인천시 전체 장애인 돌봄 관련 IPA 결과 ····· 159
[그림 3-35]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돌봄 - 일상생활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 160
[그림 3-36] 군·구별 장애인 돌봄 - 긴급 상황 대처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 161
[그림 3-37] 군·구별 장애인 돌봄 - 돌봄 부담 관련 IPA 결과 ····· 162
[그림 3-38]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164
[그림 3-39]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169
[그림 3-40] 장애로 인한 어려움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 인지 정도 ····· 175
[그림 3-41] 거주지역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평가 ····· 176
[그림 3-42] 거주지역 장애인 복지 분야 중점과제 ····· 178
[그림 3-43]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180
[그림 3-44]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81

CONTENT

그림

[그림 3-45] 정신건강 관련 IPA 결과 ····· 183
[그림 3-46] 인천시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IPA 결과 ····· 184
[그림 3-47]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185
[그림 3-48] 일상생활 관련 정서적 어려움 경험 여부 ····· 189
[그림 3-49] 자살 생각 여부와 그 이유 ····· 190
[그림 3-50] 우울과 자살 충동에 대한 전문가 상담 경험와 극복 방법 ····· 191
[그림 3-51]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와 이용현황 ····· 192
[그림 3-52] 신체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195
[그림 3-53] 신체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196
[그림 3-54] 인천시 전체 신체건강 관련 IPA 결과 ····· 197
[그림 3-55]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IPA 결과 ····· 197
[그림 3-56] 신체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198
[그림 3-57] 본인 및 가구원 건강상태 ····· 200
[그림 3-58]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 ····· 201
[그림 3-59] 기초생활유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02
[그림 3-60] 기초생활유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04
[그림 3-61] 인천시 전체 기초생활유지 관련 IPA 결과 ····· 205
[그림 3-62] 인천시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IPA 결과 ····· 206
[그림 3-63]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208
[그림 3-64] 사회보장서비스 인지여부와 신청현황 ····· 213
[그림 3-65]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16
[그림 3-66]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17
[그림 3-67] 인천시 전체 가족, 사회적 관계 관련 IPA 결과 ····· 218
[그림 3-68] 인천시 군·구별 가족, 사회적 관계 관련 IPA 결과 ····· 218
[그림 3-69] 가족/사회적 관계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219
[그림 3-70]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인지여부 및 참여현황 ····· 223
[그림 3-71] 보호·안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28
[그림 3-72] 보호·안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31
[그림 3-73] 인천시 전체 보호·안전 관련 IPA 결과 ····· 234
[그림 3-74] 군·구별 보호·안전-가족 내 안전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 235
[그림 3-75] 군·구별 보호·안전-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 236
[그림 3-76] 군·구별 보호·안전-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 237

CONTENT

그림

[그림 3-77] 군·구별 보호·안전-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 238
[그림 3-78] 동거가족과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 239
[그림 3-79] 동거가족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 방법 ····· 240
[그림 3-80] 가족폭력 및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 인지 여부 및 필요성 ····· 243
[그림 3-81] 교육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47
[그림 3-82] 교육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48
[그림 3-83] 인천시 전체 교육 관련 IPA 결과 ····· 250
[그림 3-84] 군·구별 교육 관련 IPA 결과 ····· 251
[그림 3-85]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와 이용현황 ····· 252
[그림 3-86] 참여를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 256
[그림 3-87] 고용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58
[그림 3-88] 고용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60
[그림 3-89] 인천시 전체 고용 관련 IPA 결과 ····· 262
[그림 3-90] 군·구별 고용- 취/창업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 263
[그림 3-91] 군·구별 고용 - 고용유지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 264
[그림 3-92]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 265
[그림 3-93] 고용 서비스 정책 필요성 ····· 271
[그림 3-94] 주택 유형 ····· 273
[그림 3-95]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 275
[그림 3-96] 냉난방비 부담정도 ····· 276
[그림 3-97]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 277
[그림 3-98]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84
[그림 3-99]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85
[그림 3-100] 인천시 전체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IPA 결과 ····· 287
[그림 3-101]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IPA 결과 ····· 288
[그림 3-102]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 289
[그림 3-103] 문화·여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291
[그림 3-104] 문화·여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294
[그림 3-105] 인천시 전체 문화·여가 관련 IPA 결과 ····· 296
[그림 3-106] 군·구별 문화·여가 - 문화·여가 관련 IPA 결과 ····· 297
[그림 3-107] 군·구별 문화·여가 - 체육활동 관련 IPA 결과 ····· 299
[그림 3-108]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 300

CONTENT

그림

[그림 3-109] 혼자 지낸 기간 및 이유 ····· 303
[그림 3-110] 도움 요청 사람/기관 ····· 305
[그림 3-111]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한 점 ····· 306
[그림 3-112] 1인 가구 지원 정책 ····· 308
[그림 3-113] 다문화 가구원 출신 국가 ····· 309
[그림 3-114] 다문화 가구원의 한국에 온 목적 ····· 310
[그림 3-115] 차별을 느낀 정도 ····· 311
[그림 3-116] 다문화 가구원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운 점 ····· 313
[그림 3-117] 서비스 필요 정도 ····· 314
[그림 3-118]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 316
[그림 3-119] 전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정도 ····· 322
[그림 3-120] 정책의 시급성 ····· 325
[그림 3-121] 시군·구의 노력 정도 ····· 328
[그림 3-122] 인천시 전체 복지의식 및 욕구 관련 IPA 결과 ····· 332
[그림 3-123]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현 방안 ····· 335
[그림 3-124] 우선 지원 대상 ····· 337
[그림 3-125]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 ····· 340
[그림 3-126] 주요 복지시설 인지 여부 ····· 342
[그림 3-127] 지역사회와 삶의 만족도 ····· 346
[그림 3-128] 지역간 불균형 심각도 ····· 348
[그림 3-129]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 ····· 350
[그림 3-130] 임신/출산 경험 ····· 353
[그림 3-131] 임신/출산 여건 ····· 354
[그림 3-132] 인천시 10개 군구 지역 특성 및 현안 인식 ····· 356
[그림 3-133] 인천시 10개 군·구 사회보장 욕구 및 현안에 대한 실천, 대응 ····· 357
[그림 3-134] 10개 군·구별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방안 ····· 359
[그림 4-1] 군·구별 정책 시급성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한 정책 ····· 371



제1장

제6기(2027~2030) 인천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보고서

서론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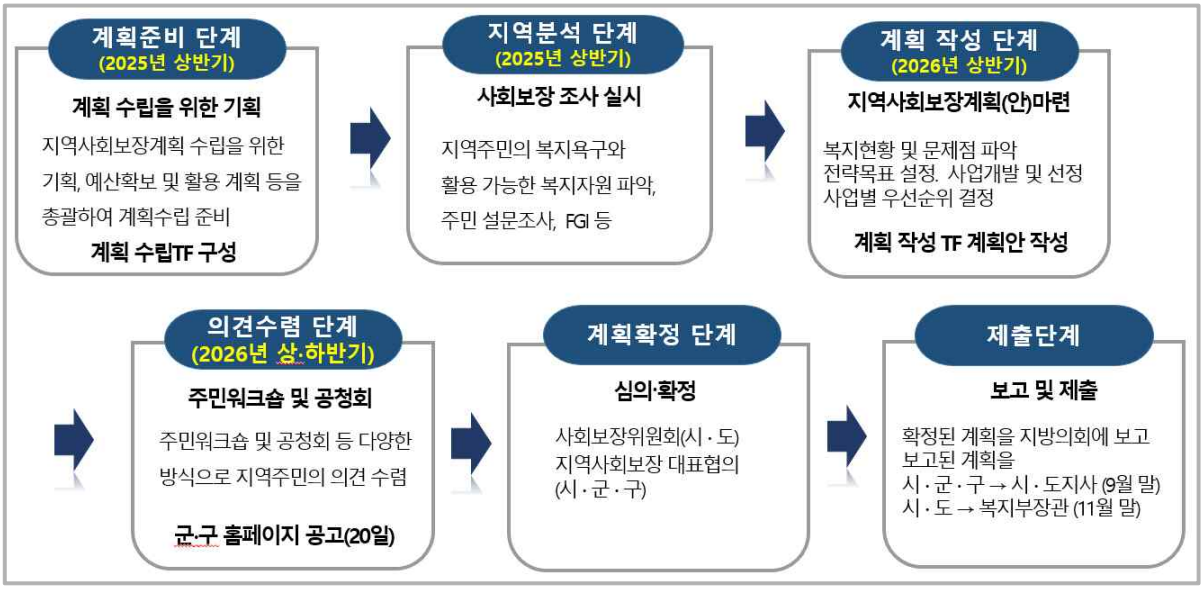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조사 특성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근거 및 배경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임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욕구와 자원 등 지역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단위별로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연차별계획과 이행,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2006년 제1기(2027~2010)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은 제6기(2027~2030) 기본계획 수립 예정임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 및 자원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계획수립을 수립함. 제4기(2019~2022)까지는 조사와 계획수립이 같은 해에 진행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주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5기부터는 조사와 계획수립 시기를 분리함
  - 제5기(2023~2026)부터는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 계획에 주민의 욕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분리하여 진행함

[그림 1-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출처 : 강혜규(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강의자료 참고로 연구자 수정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배경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분권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민간 참여 확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강화 및 지역복지 차원에서 주민의 복지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함
- 본 계획은 중앙 단위에서 수립하던 복지계획을 지역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 지역 중심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방의 권한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립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2001년 전국 15개 지자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협의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명시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실무협의체는 계획수립에 참여 하도록함[1)]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2. 제6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조사 수립 배경 및 특성

1)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수립 배경

□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 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령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의거 4년마다 수행하는 법정 조사임

- 지역주민욕구조사는 지자체 전반의 사회보장 관련 문제와 지역 주민 욕구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함(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침서)
- 시민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욕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경험 및 필요도, 관련 문제점과 심각성 등 지역 주민의 욕구 파악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자원 실태는 지역별 인구 · 사회적 특성, 산업 및 경제적 환경, 사회보장 영역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지역 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과 경제활동 및 상태, 생활 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 실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인식 및 욕구에 관한 사항,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으로 규정함(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7항).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토대로 향후 4년간(제6기(2027~2030)) 시민의 사회보장 욕구 충족 및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함

1)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5년 근거법이 사회복지사업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전환됨. 지역회복지에서 보장으로 전화되면서 계획수립 범위도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9. 19.〉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천시와 10개 군·구,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공동조사 방식의 통합조사를 수행

-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조사를 10개 군·구 공동조사 방식의 통합조사로 수행함. 10개 군·구를 동일한 기준으로 표집하고,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을 채택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지역 간 차이를 직접 비교함.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 및 불균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 기존의 통합조사 방식은 광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인구수에 따른 비례표집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조사 결과를 지역 간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는 10개 군·구별 표집 방식 및 조사자, 표집 대상을 동일한 수준으로 할당표집 함으로써 지역 간 직접 비교를 가능하게 설계함
- 공동조사 방식의 통합조사 실시는 10개 군·구의 사회보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욕구 파악을 위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임. 이를 통해 광역을 포함한 기초지자체 사회보장 정책의 효율성, 책임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2) 인천시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특성

□ 지역 주체가 지역사회보장조사 설계부터 표집, 조사에 함께 참여

- 조사 문항 설계부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표집까지 지역 담당자, 협의체 관계자와 연구진이 함께 논의하여 설문을 개발하고, 표집 계획을 수립함
- 지역 담당자(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담당 공무원)는 특수욕구계층에 대한 지역의 관계자 연계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 인천시와 10개 군·구 지역 특성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한 문항을 설계

-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욕구를 반영한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문항을 구성함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반영하여 1인 가구 대상 별도의 문항을 구성함
- 옹진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을 개발함

□ 2026년 6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을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

- 2026년 7월 인천시는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확대될 예정임. 현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 조정되고,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임(2024.5.2. 인천시 보도자료[2])
- 인천시와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수행을 위한 전체 회의를 통해 중구는 영종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동구는 제물포구 계획수립을 위해 중구(내륙)를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함.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구분해서 조사를 실시함

[표 1-1]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이슈 및 논의 결과

지역	이슈	논의 내용
동구	동구와 중구 일부 지역 포함 제물포구	- 동구 중심으로 조사
중구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분리	- 제물포구에 포함되는 지역과 영종구를 구분해서 조사
서구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	- 서해구와 검단구로 구분해서 조사

제2절 지역사회보장조사 조사 개요

1. 지역사회보장조사 방법 및 대상

□ 지역사회보장조사 방법 및 대상

- 지역의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 변화 파악을 위한 2차 자료 분석 : 통계청, 공동데이터 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 활용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survey) : 인천시 10개 군·구 환경 변화 및 욕구 파악을 위한 문항 개발. 인천시 지역별 인구 변화를 고려한 특수계층 맞춤형 문항 개발
-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구 및 동 협의체 위원, 복지정책 및 직접서비스 제공 공무원 등

[표 1-2] 지역사회보장조사 방법 및 대상

구분	범위(또는 대상)	방법	담당
지역현황 분석	전국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읍면동 비교	통계청, 공공데이터포탈,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2차 자료 분석	- 인천사회서비스원 책임 및 공동연구원 - 사회보장업무 담당공무원 부분 지원
지역주민 욕구조사	인천시 조사	입찰을 통한 조사업체 선정·수행 가구별 방문 조사	- 인천사회서비스원 책임 및 공동연구원 - 군·구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지역주민 초점집단 면접	구 및 동 협의체 위원, 복지정책 및 직접서비스 제공 공무원	군·구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3~8명 내외 참여자 인터뷰 실시	- 인천사회서비스원 책임 및 공동연구원 - 사회보장업무 담당공무원 부분 지원

2) [보도자료] 2024.5.2.'인천시, 시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자치구 출범 준비'

2. 지역 현황 분석

- 지역 현황 분석 범위는 사회보장(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을 적용하여 복지,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 여가, 환경, 인권 등 주민 생활 전반의 문제를 포괄함
- 인천시 10개 군·구뿐 아니라 전국 혹은 특별시, 광역시의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인천시 현 상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

[표 1-3] 지역사회보장조사 구분 및 항목

구분	항목
1. 인천시 지리적 · 행정적 현황	행정구역 및 면적, 조직 및 인력, 재정 현황
2. 인구사회 현황	주민등록 인구 변화 및 산업변화
3. 대상별 현황	영유아, 아동 ·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외국인 현황, 한부모, 노숙인
4. 영역별 현황	저소득, 고용/노동, 건강, 보호/안전, 교육, 문화 · 여가, 주거환경, 환경

3. 지역주민 욕구 조사

1) 조사 목적

- 지역사회보장조사 목적은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욕구와 인식 등 지역사회보장 실태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자료를 제공함
- 인천시 내 10개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 수준의 비교·분석자료 확보하여 지역 내는 물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표본설계

□ 모집단

- 모집단 정의 : 인천시 거주 주민

□ 표본크기 결정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주민 욕구 조사는 인천시 10개 군·구가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각 군·구별 특성 및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10개 군·구의 표본크기를 동일하게 설정함
- 10개 군·구별로 600가구 조사를 목표로 표집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구와 중구(내륙)가 통합되는 제물포구는 20가구를 추가 할당하여 총 6,020가구 조사를 진행함

□ 표본 할당

- 군·구별 일반가구 표본 할당은 2026년 행정구역 개편을 대비하여 영종구, 제물포구, 검단구, 서해구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지역인 중구는 영종구와 제물포구(중구 내륙)로 구분하고 서구는 검단구와 서해구

로 구분, 동구는 제물포구를 고려하여 동구와 중구(내륙)을 포함하여 할당함

- 미추홀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하여 할당함
- 옹진군은 7개 면별로 표본을 구분하여 할당함

● 가구별 할당은 일반 가구와 특수욕구계층 가구로 구분함

- 일반가구 중 1인 가구에 대한 별도 분석을 위해 50가구를 최소 할당함
- 노인, 아동 가구는 일반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할당하지 않음
- 특수욕구계층은 장애인, 저소득, 다문화 가구로 구분하여 할당함

[표 1-4] 표본 할당

(단위: 가구)

구분		일반가구		특수욕구계층			합계	
		전체	1인 가구	장애인	저소득	다문화		
전체		**2,980**	**520**	**1,000**	**1,000**	**520**	**6,020**	
중구(영종구)		300	50	100	100	50	600	
동구 (제물포구)	동구	200	30	60	60	30	380	620
	중구	100	30	40	40	30	240	
미추홀구	원도심	150	50	100	100	50	600	
	신도심	150						
연수구		300	50	100	100	50	600	
남동구		300	50	100	100	50	600	
부평구		300	50	100	100	50	600	
계양구		300	50	100	100	50	600	
서구	검단구	180	30	50	50	30	340	600
	서해구	100	30	50	50	30	260	
강화군		300	50	100	100	50	600	
옹진군		300	50	100	100	50	600	

□ 표본추출

● 일반가구는 확률 표집인 집계구[3] 방식을 활용함

-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가구 표본추출 과정은 [그림1-2]와 같으며, 인천시 10개 군·구를 동일한 과정으로 추출함
- 집계구 추출 → 집계구 내 가구 추출 → 추출 단위 가구 내 적격 가구주 및 가구원 추출로 확률 추출을 확보함
- 1차 추출 단위 집계구 선정 : 집계구별 10가구 조사, 인천시 10개 군·구의 총 집계구는 6,282개임. 일반가구는 총 2,980가구를 조사함에 따라 시도/동읍면부/주택유형 내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조사대상 집계구 298개를 추출함

3) 집계구 조사방식은 통계청의 집계구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선정된 집계구 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임. 집계구는 인구규모(최적 500명), 사회경제적 동질성(주택유형 등), 지리적 경계 등을 고려하여 통계청에서 구축한 최소 통계 집계 구역을 의미함(통계청 통계용어사전)

- 2차 추출 단위 표본가구 선정 : 추출된 각각의 집계구 내에서 표본 가구의 선정은 집계구 요도를 활용하며 중심값 가구를 시작으로 계통추출법으로 표본가구를 추출함
- 3차 추출 단위 가구 조사 : 적격 가구 내 가구주/가구주의 배우자 대상(부재시 가구원 중 성인 1인) 조사를 실시함

● 특수욕구계층 가구(장애인, 저소득, 다문화 가구)는 행정동(면)의 협조를 얻어 명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 표집함

- 확보된 명부는 읍·면·동별 세부주소로 정렬 후 계통 추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응답률을 고려할 때 시군별로 확보한 명부의 수가 대부분 3배수 내외이므로 실제는 전수조사 방식의 성격으로 조사를 진행함

[그림 1-2] 지역사회보장조사 표본추출 과정



□ 분석 가구

● 돌봄영역 및 소득영역 등의 분석은 전체 응답자 중 항목별 해당하는 대상을 선별하여 분석함. 이에 항목에 따라 중복분석 수행

- 예컨대, 일반가구에도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 1인 및 다문화 가구가 포함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분석항목에 따라 중복으로 계산될 수 있음

● 조사 가구는 총 6,020가구였으나 옹진군 아동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총 6,058가구임. 분석 대상은 중복을 포함하여 일반가구는 3,550가구, 특수욕구계층은 7,930가구임

- 최종 분석 가구는 중복을 포함하여 일반가구는 3,550가구, 특수욕구계층 가구는 총 7,930가구(아동 1,079가구, 노인 2,271가구, 장애인 1,148가구, 저소득 1,305가구, 1인 가구 1,623가구, 다문화 가구 504가구)가 분석됨

[표 1-5] 군·구별 분석가구

(단위: 가구)

구분		일반 가구	특수욕구계층(중복)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	1인 가구	다문화	계
전체		3,550	1,079	2,271	1,148	1,305	1,623	504	7,930
강화군		350	128	203	101	111	125	50	718
옹진군		400	75	353	86	135	180	31	860
중구(영종구)		350	101	214	130	106	214	50	815
동구 (제물포구)	동구	230	73	142	63	74	82	30	464
	중구	130	21	73	40	79	52	30	295
미추홀구	원도심	174	48	117	55	91	108	6	425
	신도심	176	73	94	66	50	79	46	408
연수구		350	105	176	145	134	125	50	735
남동구		350	128	218	113	137	176	50	822
부평구		350	114	259	104	113	134	50	774
계양구		350	121	182	116	145	194	51	809
서구	검단구	130	33	118	73	69	71	30	394
	서해구	210	59	122	56	61	83	30	411

3) 조사내용

□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조사 항목

- 가구 일반현황, 14개 사회보장 관련 욕구, 복지의식 및 욕구, 생활 여건 및 지역불균형,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등으로 구성함

[표 1-6]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조사 내용

조사 항목	세부 항목	
A. 가구 일반현황	- 총 가구원 수 - 가구원별 현황: 가구주와 관계, 성별, 출생년도,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기요양보험등급, 외국인 여부, 돌봄 필요 여부 - 맞벌이, 기초생활수급(생계 · 의료급여), 그 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여부, 거주기간(해당 군·구)	
B. 사회보장 관련 욕구	- 14개 사회보장 영역별 욕구현황: 돌봄서비스, 아동·청소년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정신건강,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보호 · 안전, 교육, 고용, 주거, 법률 및 권익보장, 문화 · 여가 · 사회보장 영역별 어려움 경험 정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사회보장 영역별 국가-지자체 사회보장(복지) 지원 ·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이용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C. 복지의식 및 욕구	- 사회보장 영역별 삶의 질 개선 정도 - 사회보장 영역별 정책 시급성, 노력정도 -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현 방안	- 우선 지원 대상 인식 - 역점 정책 분야 - 복지시설 인지, 이용 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D. 생활 여건 및 지역불균형	- 월평균 소득 및 생활비, 주관적 경제 상태 - 주거환경, 생활환경, 주관적 삶의 만족도 - 거주하는 지역 만족도 및 지역 불균형 인식	-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 - 임신/출산 경험, 도움요청 방법 인지 -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및 환경에 대한 인식
E. 1인가구	- 1인가구 기간 및 이유 - 도움 및 응급상황 지원가능한 지인이나 기관 - 1인가구 만족도, 주변환경 만족도	- 애로사항 - 관련제도 인식 - 필요 정책
F.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 출신국가 및 시점, 목적 - 한국어 수준 - 차별 경험	- 애로사항 - 서비스 필요 정도 - 다문화 시설 인지 및 경험

□ 5기 대비 6기 조사표 변경 내용

- 5기 대비 6기 조사표에서는 E. 코로나-19생활변화 영역이 삭제되고, E. 1인 가구 영역이 신설됨
-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돌봄 서비스 영역이 추가되며 14개 영역으로 확대됨

[표 1-7] 5기 대비 6기 조사표 변경내용

5기 조사표	6기 조사표	변경사항
A. 가구 일반현황	A. 가구 일반현황	- 가구원별 현황: 장기요양보험등급, 돌봄 필요 여부 문항 추가
B. 사회보장 관련 욕구	B. 사회보장 관련 욕구	- 사회보장영역을 13개에서 14개로 확대 - 공통 변경 문항 ·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비이용 사유, 이용 만족도 추가 · 돌봄 부담 경감 정도 제외
	B1. 돌봄 서비스	신설
B1. 아동·청소년 돌봄	B2. 아동·청소년 돌봄	- 미취학 아동의 보육기관 이용 여부와 낮시간 주양육자 문항 추가 - 미취학 아동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 문항 추가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 자녀 여부와 이유 문항 추가 - 청소년 어려움 경험 정도와 외부 지원 필요성 / 청소년의 사회활동 참여 경험, 도움 정도, 필요도 / 청소년의 과외학습 문항 추가 - 돌봄 서비스 인지, 비이용 사유, 향후 이용 의향 문항 추가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 문항 추가
B2. 노인 돌봄	B3. 노인 돌봄	- 어려움 경험 정도 및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문항 제외 -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문항 제외 - 서비스 지원의 중요성, 제공 정도 문항 추가 - 돌봄 서비스 항목 추가 / 돌봄 서비스의 인지 여부, 향후 이용 의향 문항 추가 / 돌봄 부담 경감정도 문항 제외 - 주 돌봄자, 시급한 개선 사항, 가장 필요한 돌봄 서비스 문항 추가
B3. 장애인 돌봄	B4. 장애인 돌봄	- 역점을 두어야 할 장애인 복지 분야 문항 추가
B4. 정신건강	B5. 정신건강	- 자살 사고 이유, 전문가와의 상담 여부, 극복 방법 문항 추가
B5. 신체건강	B6. 신체건강	- 주관적 건강 상태 문항의 대상이 본인에서 본인과 가구원으로 변경
B6. 기초생활 유지	B7. 기초생활 유지	- 서비스의 인지, 신청 경험, 비신청 사유, 이용 급여, 향후 신청 의향 문항 추가
B7. 가족 및 사회적 관계	B8.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인지여부, 참여경험, 비참여 사유, 참여 만족도, 향후 참여 의향 문항 추가
B8. 보호·안전	B9. 보호·안전	- 가족 내외부 안전의 어려움 항목 세분화,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유지/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항목 추가 - 동거가족과의 생활 관련 문항 추가 -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정도 문항 추가 - 가족 내 폭력 및 학대 발생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문항 추가 -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문항 제외/ 필요정도 문항 추가
B9. 교육	B10. 교육	-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항 추가
B10. 고용	B11. 고용	- 고용 서비스 정책의 필요도 문항 추가
B11. 주거	B12. 주거	- D에서 주택 유형 이동 - 주택 위치, 사용하는 에너지, 냉·난방비의 부담 정도 문항 추가 - 주거 내부 환경관련 어려움의 경험 정도와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문항 제외 - 주거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이용 의향 문항 제외
B12. 문화·여가	B13. 문화·여가	- 문화·여가 관련 어려움 항목,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항목 세분화
C. 정책 시급성 및 노력	C. 정책 시급성 및	- 사회보장 각 영역에서 전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정도 문항 추가

5기 조사표	6기 조사표	변경사항
체감도	노력체감도	- 1인 가구 정책 항목 추가 - 복지정책의 방향 및 대상별 지원 필요성 정도 문항 추가 -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 문항 추가 - 복지시설의 인지여부, 이용경험, 비이용 사유,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문항 추가
D. 생활 여건 및 지역 불균형	D. 생활 여건 및 지역불균형	- 주거형태 B12.주거로 이동 - 점유형태 및 임차료 문항 제거
E. 코로나-19생활변화	-	삭제
-	E. 1인 가구	신설
F.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F.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 한국어 수준 문항 추가 -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서 서비스 필요 정도로 변경 - 다문화 시설 및 지원 사업의 인지 및 이용경험,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문항 추가

□ 예비조사(Pilot Survey)

● 예비조사 진행 절차(Pilot Survey)

- 인지면접 방식으로 구성 체계, 응답자 이해도, 설문 오류, 신규 문항 응답 난이도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함
- 예비조사 조사원 간담회를 진행하여 실사 현장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설문 오류 사항을 수정한 후 조사표를 확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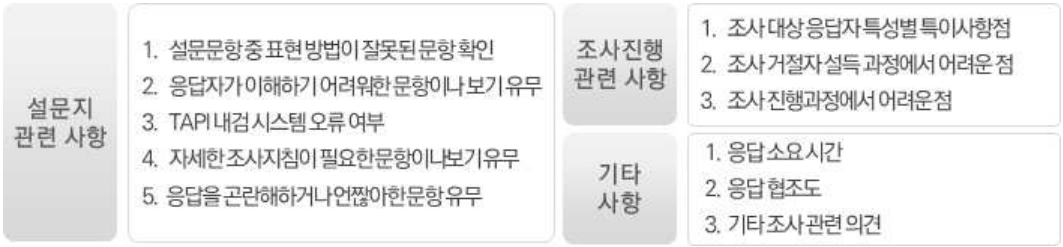
[그림 1-3] 예비조사(Pilot Survey) 진행 절차



● 예비조사(Pilot Survey) 개요

- 대상 가구 : 일반가구(아파트, 일반 집계구), 특수욕구계층(저소득, 장애인, 다문화 1인가구)
- 표본크기 : 일반가구 2개 집계구 총 10가구, 특수욕구계층 4개 가구 특성별 5가구씩 총 20가구
- 조사 방법 : Tablet PC를 활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TAPI)
- 예비조사 일정 : 2025년 8월 13일 ~ 8월 14일

[그림 1-4] 예비조사(Pilot Survey) 점검 사항



4)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지역주민 욕구조사는 약 2개월간 Tablet PC를 활용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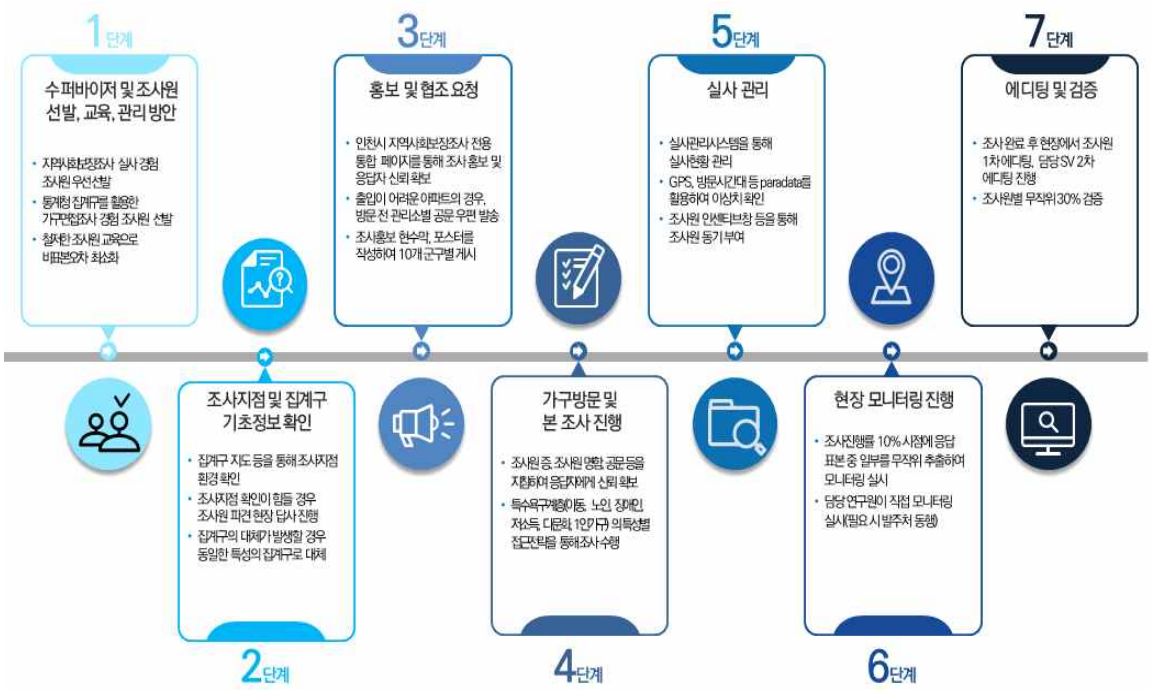
[표 1-8]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자료수집도구	-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조사 기간	- 2025년 8월 22일 ~ 10월 31일

□ 실사

- 지역주민 욕구조사의 실사절차는 [그림 1-5]와 같음

[그림 1-5] 실사 절차



- 수퍼바이저 및 조사원 선발, 교육, 관리 방안

- 수퍼바이저 교육 실시: 실사 전 조사원 교육에 앞서 한국갤럽 연구진이 수퍼바이저(실사 경험자) 대상으로 조사 개요, 조사 목적, 조사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조사원 선발 : 관련 분야 및 유사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우선 선발하여 조사에 투입함. 일반가구 조사원과 특수욕구계층 전담 조사원을 각각 선발함
- 조사원 교육 실시: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해 약 2시간의 교육을 실시함. Roll & Playing 면접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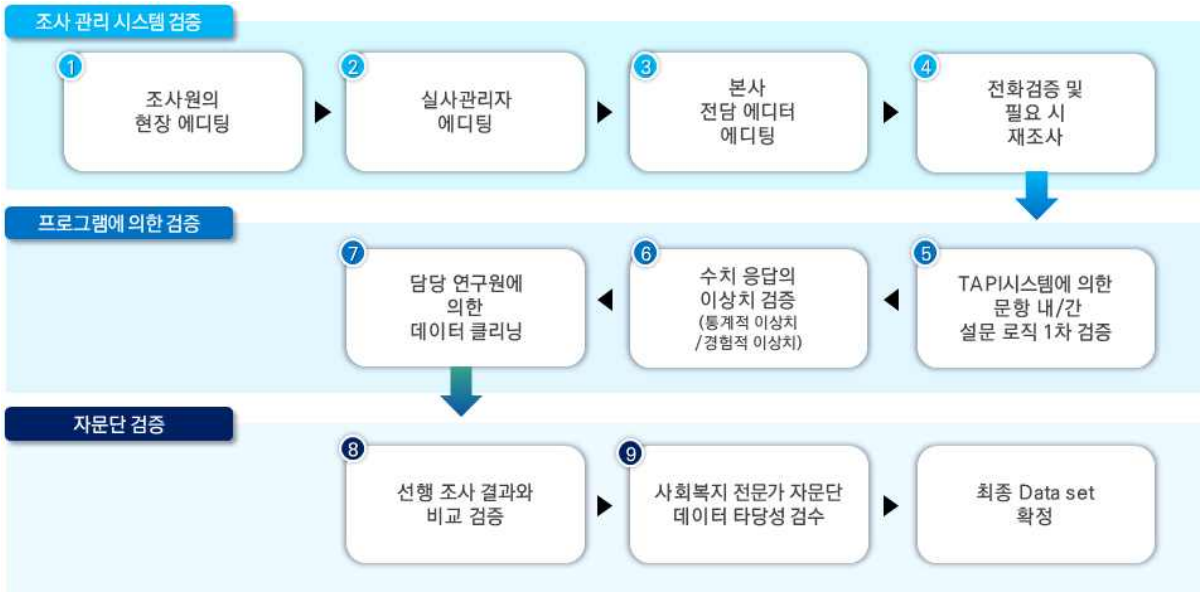
조사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문제점 사전 발견 및 대응을 통해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함

- 조사 지점 및 집계구 기초 정보 확인
  - 집계구 지도를 통해 조사 지점 환경을 확인하고, 조사 지점 확인이 힘들 경우는 조사원이 현장답사를 진행함
  - 집계구 대체가 필요할 경우는 연구진에 보고 후 동일한 특성으로 집계구를 대체함
- 홍보 및 협조 요청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한 후 조사를 진행했으며, 아파트 출입 통제가 철저한 신축아파트는 관리사무소 협조가 불가능할 시 추출된 집계구 내 유사한 환경의 집계구로 대체하여 조사를 진행함
- 가구 방문 및 본조사 진행
  - 1인 가구의 경우, 부재율이 높으므로, 조사 대상 부재 시 담당 조사원의 명함과 조사 협조 공문 등 관련 자료를 배부하였고, 조사 대상이 집에 머무를 확률이 높은 주말 시간대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 다문화 가구의 경우, 지역별 명단을 받아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가족센터를 통해 조사를 수행함. 특히 다문화 가구원이 아직 한국어가 서툰 경우가 많아서 번역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 모니터링 및 검증
  - 응답 표본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여 담당 연구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함
  - 조사원별 회수된 조사표 30%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전화로 현장 방문 여부, 주요항목 사실 여부를 검증함

□ 자료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자료검증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확정한 후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rogram으로 전산처리하였음
- 현장 검증
  - 실사 연구원은 수집된 자료의 누락 항목, 논리적 오류를 점검함
  - 조사 항목 중에서 기재가 누락 되었거나, 부실 기재된 문항이 발견되는 경우 응답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재검증함
- 프로그램에 의한 검증
  - TAPI시스템을 통해 논리적 오류, 이상치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오류를 통제함
  - 담당 연구원이 논리적 오류에 대한 검토를 위해 데이터 클리닝을 진행함
- 자문단 검증
  - 전문가 자문단에 의해 데이터 타당성 감수 후 최종 데이터를 확정함
- 조사결과 집계표 산출
  - 자료처리는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열(Row)에 따라 모든 백분율을 산출함
  - 조사결과 집계표는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가구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교차집계표 형식으로 제시함

[그림 1-6] 자료 검증 절차



5) 욕구조사 분석 방법

□ IPA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실행도 분석)

- 지역사회보장 정책 개입 욕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IPA 방법을 활용함
-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방법은 마케팅 분야에서 특정 제품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며, 사회복지학, 정책학, 행정학 분야에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음
- IPA 방법은 일반적으로 평균값을 통해 4사분면의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기법임

- 평균값을 통해 두 변수(중요도와 수행도)를 측정하는 경우 평균이 50점 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4사분면으로 강제로 나누어 분석하게 됨. 따라서 두 변수의 평균을 동시에 고려한 상대적인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타 영역과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동시에 가짐
- IPA 방법은 두 변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 중 주민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서비스)의 필요성 분석에 IPA 방법을 적용하여 정책적 개입(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실행)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함

- IPA 결과는 해당 영역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임. 다만, IPA 결과는 해당 영역 내에서의 상대적 비교에만 활용되어야 하며, 타 영역과의 비교 등 결과 해석은 지양해야 함.
- 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 서비스 필요 정도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영역 내에서의 정책 개입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애인복지서비스 영역의 정부 개입 우선순위와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의 정부 개입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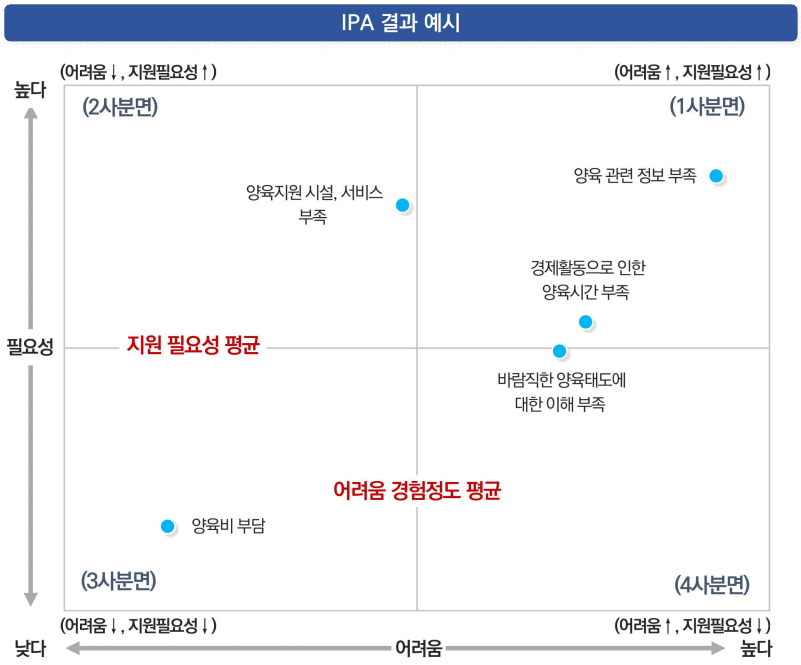
- IPA 방법 적용하여 전체 응답자(가구) 대상 분석, 지역 간 특성 파악과 비교를 위한 권역별 분석을 진행함

□ IPA 결과 예시([그림 1-7] 참조)

- x축: 생활에서 갖는 어려움 정도
  - 포인트가 왼쪽에 위치할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낮고, 오른쪽으로 위치할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 y축: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서비스)의 필요성 정도
  - 포인트가 아래에 위치할수록 지원의 필요성이 낮고, 위에 위치할수록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1사분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할수록 어려움 정도와 지원 필요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
  - 양육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와 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음
- 3사분면 왼쪽 하단에 위치할수록 어려움 정도와 지원 필요성 정도가 낮음을 의미
  -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정도와 지원 필요성이 가장 낮음
- 어려움 평균과 지원 필요성 평균을 나타내는 2개의 선은 응답 결과에 따라 위치가 좌우, 상하로 변경됨

[그림 1-7] IPA 결과 예시

(단위 : %)



4. 지역주민 초점집단면접

□ 조사의 필요성

- 인천시와 10개 군·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목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고자 함
- 양적조사(설문지)를 통해 파악하는 주민의 욕구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복지 현장과 정책 집행 주체인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함

□ 조사 개요

- 목적: 양적조사(설문지)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주민의 욕구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 현장과 정책 집행 주체인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함
- 기간 : 2025. 9~10
- 대상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 공무원 등 약 152명

[표 1-9] 인천시 10개 군·구별 초점집단 면접 현황

지역	진행 시기	장소	참석자	참석인원(명)
강화군	9.22(월)	군·구 협의체 회의실	군·구 협의체 위원 읍 · 면 · 동협의체 위원 복지서비스 제공 담당 공무원	15
옹진군	10.23(목), 11.3(월)	Zoom		9
중구	9.23(화)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모임방		14
동구	10.14(화)	동구청 평생학습관		19
미추홀구	10.22(수)	보건지소 프로그램실		15
연수구	9.26(금), 10.14(화)	연수구청 6층 회의실		15
남동구	9.29(월), 9.30(화)	남동구청 평생학습관 2층		13
부평구	9.15(월), 9.30(화), 10.15(수), 10.17(금)	부평구청 신관 5층 소회의실		23
계양구	10.13(월), 10.14(화), 10.16(목)	계양구청 2층 상담실		14
서구	9.16(화) 13:00, 9.17(수) 14:00	서구복지어울림센터		15

- 내용 : 지역의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 혹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 과제, 민관협력 방안, 군·구와 읍 · 면 · 동협의체 협력 활동 방안 등

[표 1-10] 인천시 10개 군·구별 초점집단 면접내용

구분		세부질문
공통질문	지역의 복지특성 및 정책 현황	• 우리 지역의 복지대상과 정책이 타 지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존재하는가? • 아울러 해당 구·군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요 복지 현안과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구분		세부질문
	복지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 방안	•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대상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가? •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인천시, 군·구, 지역 주민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가?
공무원	협의체의 역할과 협력	•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을 공무원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공무원이 협의체와 협력할 때 필요한 지원이나 역할은 무엇인가? • 협의체와의 협력 경험 중 잘된 점·아쉬운 점은 무엇은 무엇인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제안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시키고 싶은 사업이나 신규 과제는 무엇인가? • 공무원 입장에서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 • 협의체 활성화 사업 경험이 있는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제6기 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시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참여 방안은?
	인천시-구 협력	• 상급기관(시청 등)과의 협력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협의체-동협의체 협력	•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가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의 현황, 긍정적 효과와 보완점, 추진되지 못한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민관 협력 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실무적 변화와 공공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조건과 민간·공공의 역할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구-협의체 협력	• 구청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민관협력 방안, 그간의 개선 사례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군·구 협의체 담당자의 입장에서 행정과 협력 과정에서 경험한 한계와 개선이 필요한 것을 무엇인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제안	•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강화해야 할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향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참여 방안은?

□ 조사 및 분석 방법

● 면접조사 방법

- 양적조사를 통해 파악되지 않는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복지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구협의체 위원과 지역주민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 복지 현장에서 정책 집행 주체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
- 집단별 면접조사 수행을 위해 1그룹당 1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회 면접조사 시 소요 시간은 평균 2시간임
- 면담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녹취록으로 전사하고,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함
- 초점집단면접의 내용은 지역별 공통 내용과 지역별 차별화된 내용을 구분하여 분석함

● 분석방법

- 면접조사 내용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내용분석방법(Contents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함. 내용분석방법(Contents Analysis)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담긴 의미를 체계적이고 반복 가능한 절차를 통해 범주화·해석하는 연구 방법임(김영천, 2016). 연구자는 자료에 나타난 표현, 주제, 패턴을 분석하여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도출함

제2장

제6기(2027~2030) 인천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보고서

인천시 지역사회보장 기초 현황

제2장 인천시 지역사회보장 기초 현황

제1절 인천광역시의 사회경제 환경

1. 지리적 환경

□ 지리적 환경

- 인천시는 한국 영토의 서북부에 위치하는 광역시로 북쪽으로는 경기도 김포시, 동쪽으로는 서울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남쪽으로는 경기도 시흥시, 서쪽으로는 황해를 접하고 있음
- 인천시의 전체 면적은 2024년 기준 1,069.51㎢이며, 168개(689.8㎢)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128개 무인도와 40개 유인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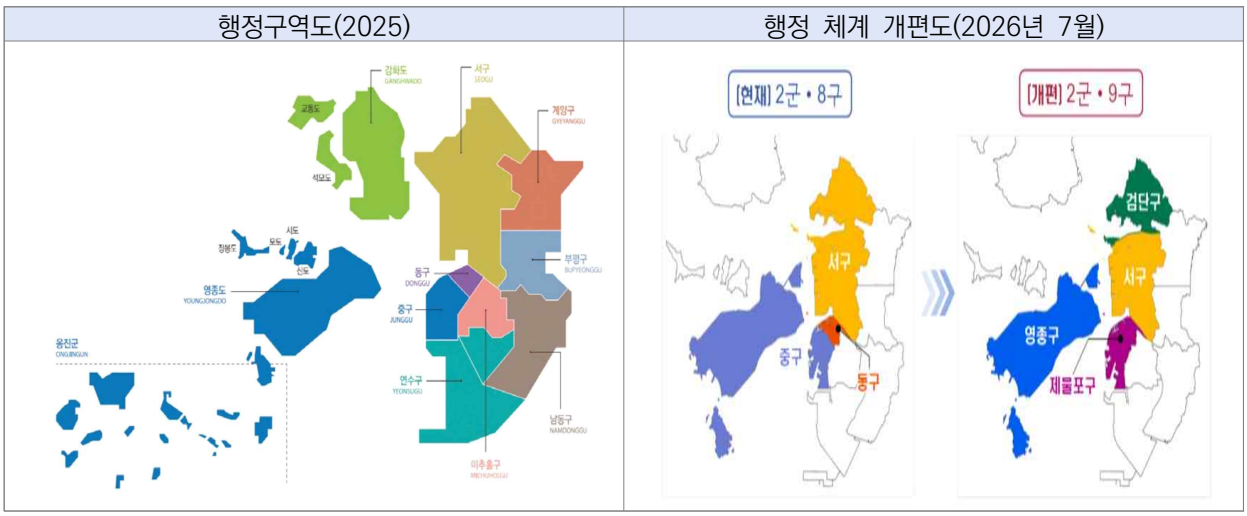
- 10개 군·구 면적을 보면, 강화군이 전체 면적의 38.47%로 가장 넓고, 옹진군 16.17%, 중구 13.13%, 서구 11.13%, 연수구 5.48%, 남동구 5.37%, 계양구 4.26%, 부평구 2.99%, 미추홀구 2.32%, 동구 0.68% 순임

□ 행정구역

- 인천시의 행정구역은 2025년 기준 8개 구와 2개 군으로 구성. 1개 읍과 19면, 136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7월 9개 구와 2개 군으로 확대 개편 예정임

- 2025년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는 서구 23개 행정동, 부평구 22개 행정동, 미추홀구 21개 행정동, 남동구 20개 행정동, 연수구 15개 행정동, 중구 12개 행정동, 계양구 12개 행정동, 동구 11개 행정동, 강화군 1개 읍과 12개 면, 옹진군 7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 7월 인천시는 9개 구와 2개 군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될 예정임. 중구는 영종도와 중구 내륙을 구분하여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분리되고, 동구는 중구 내륙과 통합하여 제물포구로 개편되고, 서구는 검단구와 서해구로 분리될 예정임

[그림 2-1] 인천시 행정구역 및 개편 현황



출처 : 인천광역시 2024 시정백서, 2025년 보도자료

[표 2-1] 인천광역시 면적 및 행정동 현황

구분	면적		군·구		읍·면·동				
	면적(㎢)	구성비(%)	군	구	총계	읍	면	동	
								행정동	법정동
인천시	1,069.51	100	2	8	156	1	19	136	136
중구	140.38	13.13	-	1	12	-	-	12	52
동구	7.25	0.68	-	1	11	-	-	11	7
미추홀구	24.84	2.32	-	1	21	-	-	21	7
연수구	58.6	5.48	-	1	15	-	-	15	6
남동구	57.45	5.37	-	1	20	-	-	20	11
부평구	32.01	2.99	-	1	22	-	-	22	9
계양구	45.56	4.26	-	1	12	-	-	12	23
서구	119.06	11.13	-	1	23	-	-	23	21
강화군	411.39	38.47	1	-	13	1	12	-	-
옹진군	172.97	16.17	1	-	7	-	7	-	-

출처 : 인천광역시 2024 시정백서

2. 행정 및 재정 환경

- 2024년 기준 특별·광역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가 509명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가장 많았고, 인천시가 416명으로 8개 특별·광역시 중 두 번째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많았음
  - 2020년 대비 2024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증가율은 인천시만 유일하게 1.7% 증가함. 인천시를 제외하고 7개 특별·광역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감소하였음

[표 2-2] 특별·광역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서울	517	500	492	511	509	-1.5
부산	417	403	391	394	392	-6.0
대구	388	374	374	372	369	-4.9
인천	409	401	394	414	416	1.7
광주	367	351	342	346	344	-6.3
대전	365	346	342	347	347	-5.0
울산	351	329	320	327	326	-7.1
세종	155	152	152	151	153	-1.3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
출처 : 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 https://laiis.go.kr/lips/nva/dataset/selectDatasetList.do

- 인천시 군·구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024년 기준 서구가 4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수구(426명), 남동구(379명), 부평구(369명), 미추홀구(353명) 순임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옹진군과 강화군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옹진군 31명, 강화군 89명). 이는 옹진군의 경우 주민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7개 면에서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임
  - 2020년 대비 2024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의 증가율은 중구(12.8%)가 가장 높았고, 서구(2.5%), 미추홀구(2.0%), 연수구(0.9%) 순으로 증가함. 이외 지역은 계양구(-9.8%), 남동구(-9.1%), 동구(-8.7%), 부평구(-3.1%), 옹진군(-3.1%), 강화군(-2.2%) 순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감소함

[표 2-3] 인천시 군·구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인천	409	401	394	414	416	1.7
중구	171	170	177	190	193	12.8
동구	103	97	93	96	94	-8.7
미추홀구	346	340	334	346	353	2.0
연수구	422	398	384	416	426	0.9
남동구	417	401	381	382	379	-9.1
부평구	381	358	345	368	369	-3.1
계양구	328	314	301	296	296	-9.8
서구	432	400	412	444	443	2.5
강화군	91	89	89	89	89	-2.2
옹진군	32	31	31	32	31	-3.1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4년 비율
출처 : 행정안전부 https://laiis.go.kr/lips/nya/dataset/selectDatasetList.do

1) 재정 현황

□ 재정자립도[4)]

-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도시의 삶의 질과 행정역량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임
-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2020년 54.0%에서 2025년 49.2%로 4.8%p 감소함. 특별·광역시 재정자립도 평균(48.6%)과 유사한 수준이나 인천시의 재정자립도 감소세가 뚜렷함
  - 2025년 서울(73.6%), 세종(54.3%)에 이어 인천(49.2%)이 3번째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함. 이는 수도권 내 경제·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것을 반영하나, 재정자립도의 하락세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4)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주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임.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함.

[표 2-4] 특별·광역시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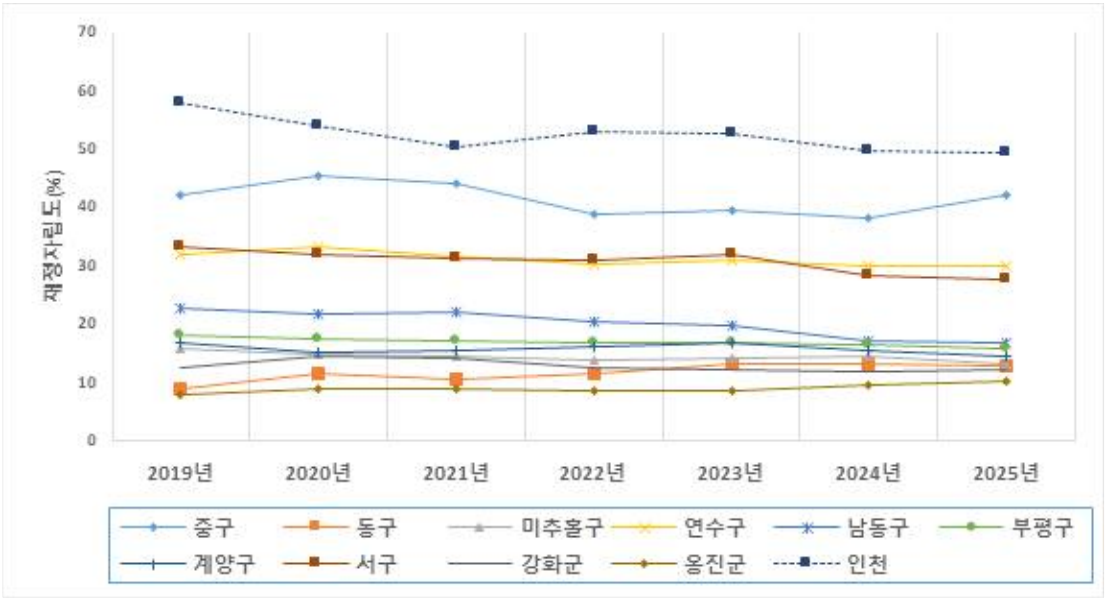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특·광역시	52.3	50.7	51.6	51.6	49.9	48.6
인천	54.0	50.3	52.8	52.4	49.6	49.2
서울	76.1	75.6	76.3	75.4	74.0	73.6
부산	49.2	46.1	46.9	46.0	45.1	42.7
대구	45.4	44.6	47.9	47.4	44.3	41.9
광주	41.1	40.8	41.1	42.3	40.7	39.8
대전	41.4	39.9	42.4	42.3	41.7	41.1
울산	51.6	49.6	48.7	49.8	46.3	46.1
세종	59.3	58.8	56.9	57.2	57.5	54.3

주 :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었으며, 개편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제시됨. 본 자료는 세입과목 개편 이후 자료 제시
출처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3 (2025. 9. 22.검색)

- 인천시 군·구별 재정자립도는 2025년 기준 중구가 4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수구 29.9%, 서구 27.5%, 남동구 16.8% 순이었음. 옹진군은 10.1%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강화군 12.0%, 동구 12.8%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옹진군의 전년 대비 재정자립도는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대비 2025년 재정자립도 증감률은 옹진군 20.2%, 동구 11.3%, 중구 8.2% 순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남동구 -17.6%, 서구 -11.3%, 계양구 -8.8%, 부평구 -5.4%, 강화군 -4.0%, 미추홀구 -3.6%, 연수구 -1.3% 순임

[그림 2-2] 인천광역시 군·구별 재정자립도 변화



[표 2-5] 인천광역시 군·구별 재정자립도

(단위: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률
인천시	52.8	52.4	49.6	49.2	-6.8
중구	38.9	39.5	38.1	42.1	8.2
동구	11.5	13.0	13.1	12.8	11.3
미추홀구	13.7	14.2	14.3	13.2	-3.6
연수구	30.3	30.9	29.8	29.9	-1.3
남동구	20.4	19.6	17.2	16.8	-17.6
부평구	16.6	16.9	16.4	15.7	-5.4
계양구	16.0	16.6	15.4	14.6	-8.8
서구	31.0	32.0	28.4	27.5	-11.3
강화군	12.5	12.3	11.9	12.0	-4.0
옹진군	8.4	8.7	9.6	10.1	20.2

주 :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었으며, 개편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제시됨. 본 자료는 세입과목 개편 이후 자료제시
출처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3(2025. 9. 22.검색)

2) 사회복지 예산

- 인천시의 사회복지 예산[5]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2020년 일반회계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2020년 39.7%에서 2025년 45.7%로 6.0%p 증가함
- 전년 대비 일반회계예산과 사회복지 예산 증감률을 비교했을 때, 일반회계예산보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6]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예산변화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인천시			전년 대비 증감률	
	일반회계예산	사회복지 예산	구성비	일반회계예산	사회복지 예산
2020년	80,690	32,064	39.7	12.4	15.6
2021년	85,864	34,540	40.2	6.4	7.7
2022년	93,264	37,669	40.3	8.6	9.1
2023년	100,425	42,841	42.7	7.7	13.7
2024년	107,030	48,329	45.2	6.6	12.8
2025년	111,583	51,196	45.7	4.3	5.9

출처 : 인천시, 2020~202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준 재정공시

5) 사회복지관련 재정은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지자체 예산의 산정기준은 당초예산과 통합회계로 구분할 수 있음. 당초예산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통합회계 예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 장의 재정현황은 당초예산을 기초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추경이나 보조금이 포함된 예산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인천시 사회복지 예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35.9%p 증가하여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특히 인천시는 고령화와 주거 문제 대응을 위해 노인과 주택 분야의 예산 확대에 집중하는 반면, 노동 분야 예산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었음
  - 2025년 기준 사회복지 예산에서 노인(37.4%)과 보육(22.7%)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다만 보육 분야의 점유비는 감소하였고, 노인 분야의 점유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가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확인함
  - 사회복지 예산 중 주택 분야 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86.6%p로 가장 높았으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정 지원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알 수 있음
  - 사회복지 예산 중 노동 분야 예산은 평균 31.2%p 감소함

[표 2-7] 분야별 사회복지 예산 변화추이(일반회계)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증감률
	예 산	점유비	예 산	점유비	예 산	점유비	예 산	점유비	
사회복지	3,766,900,950	100.0	4,284,055,332	100.0	4,832,898,781	100.0	5,119,629,641	100.0	35.9
기초생활보장	708,594,593	18.8	851,109,852	19.9	967,334,106	20.0	951,100,198	18.6	34.2
취약계층지원	313,883,984	8.3	356,038,805	8.3	395,449,962	8.2	431,897,836	8.4	37.6
보육	1,010,836,149	26.8	1,088,498,287	25.4	1,235,088,975	25.6	1,161,546,561	22.7	25.3
가족·여성							105,497,840	2.1	
노인	1,389,858,516	36.9	1,564,314,053	36.5	1,756,280,490	36.3	1,916,197,968	37.4	40.3
청소년							34,455,968	0.7	-
노 동	79,794,937	2.1	89,034,557	2.1	61,200,886	1.3	54,908,116	1.1	-31.2
보 훈	23,805,507	0.6	27,486,037	0.6	38,268,193	0.8	33,265,925	0.6	39.7
주 택	187,220,043	5.0	241,182,470	5.6	297,173,850	6.1	349,406,075	6.8	86.6
사회복지일반	52,907,221	1.4	66,391,271	1.5	82,102,319	1.7	81,353,531	1.6	53.8

출처 : 인천시, 2022~2025년 기능별 세출총괄
*평균 증감률: 2022년 대비 2025년 증감률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시 일반회계 세입은 매년 증가세를 보임. 2021년 대비 2022년 세입 증가율이 8.6%로 가장 높았고, 2024년 대비 2025년 세입 증가율이 4.3%로 가장 낮았음. 2021년 대비 2025년 세입은 5,719억 원 증가(약 30% 확대)하여 인천시 재정 규모의 확대를 보여줌

[표 2-8] 인천시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 억원)

세입재원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일반회계	85,864	93,264	8.6	100,425	7.7	107,030	6.6	111,583	4.3

출처 : 2025년 인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인천시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5년 세출 분야별 비중을 보면 사회복지(45.88%)가 가장 높으며, 공공행정(12.44%), 교통 및 물류(9.12%), 교육(8.01%), 공

공질서 및 안전(4.44%), 문화 및 관광(4.23%) 순이었음. 예비비를 제외하고, 과학기술(0.23%)과 국토 및 지역개발(0.37%) 분야 예산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출 합계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점차 비중도 증가함. 이러한 현황을 통해 사회보장에 대한 공공정책적 관심, 지방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사회복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2-9] 인천시 분야별 세출 현황

(단위: 억원, %)

세출분야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5,864	100%	93,264	100%	100,425	100%	107,030	100%	111,583	100%
일반공공행정	11,297	13.16%	12,242	13.13%	12,777	12.72%	13,194	12.33%	13,885	12.44%
공공질서 및 안전	4,408	5.13%	4,467	4.79%	4,791	4.77%	5,000	4.67%	4,956	4.44%
교 육	7,461	8.69%	8,058	8.64%	8,408	8.37%	8,595	8.03%	8,943	8.01%
문화 및 관광	3,817	4.45%	4,422	4.74%	4,400	4.38%	4,773	4.46%	4,722	4.23%
환경	3,190	3.72%	4,076	4.37%	5,057	5.04%	4,598	4.30%	3,215	2.88%
사회복지	34,540	40.23%	37,669	40.39%	42,841	42.66%	48,329	45.15%	51,196	45.88%
보 건	481	0.56%	601	0.64%	694	0.69%	777	0.73%	2,052	1.84%
농림해양수산	1,564	1.82%	1,900	2.04%	1,782	1.77%	1,839	1.72%	1,569	1.4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248	4.95%	3,499	3.75%	3,278	3.26%	2,764	2.58%	3,280	2.94%
교통 및 물류	7,686	8.95%	8,823	9.46%	8,650	8.61%	9,370	8.75%	10,174	9.12%
국토 및 지역개발	2,904	3.38%	3,029	3.25%	2,913	2.90%	3,360	3.14%	2,886	2.59%
과학기술	362	0.42%	433	0.46%	445	0.44%	373	0.35%	409	0.37%
예비비	297	0.35%	182	0.20%	335	0.33%	202	0.19%	261	0.23%
기 타	3,608	4.20%	3,861	4.14%	4,054	4.04%	3,856	3.60%	4,035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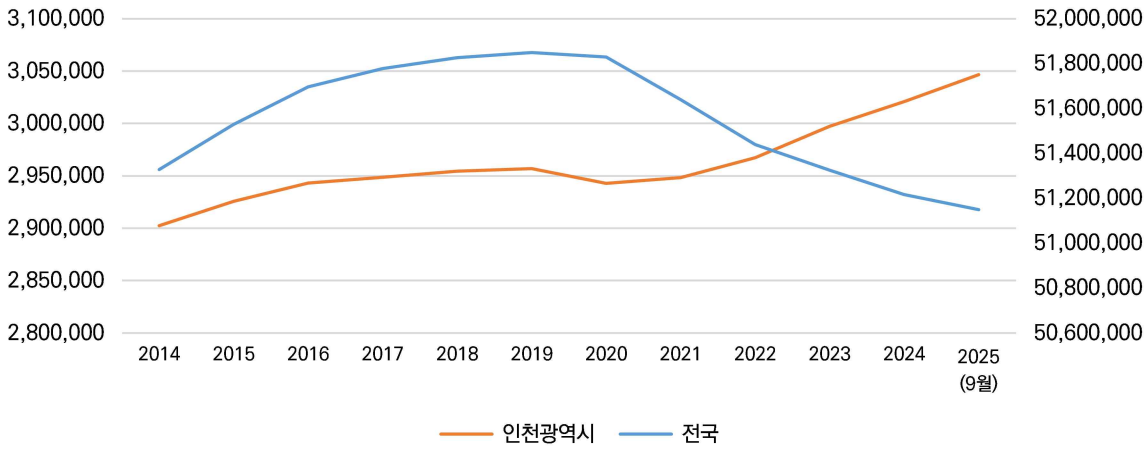
출처 : 2025년 인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3. 인구 · 사회환경

1) 주민등록인구 변화

- 2025년 기준 특별·광역시의 주민등록 인구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3개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증가하였으며 이외 지역은 모두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였음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9월 기준 전년대비 증가 인원이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음
  - 특별·광역시 주민등록인구는 2024년 대비 2025년(9월) 인천 25,744명, 대전 3,071명, 세종 1,545명 증가하였고, 부산(18,239명), 서울(12,328명), 광주(11,300명), 대구(7,257명), 울산(5,415명) 주민등록인구는 감소함. 5개 특별·광역시의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와 구월2지구 등 대형 공공택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됨

[그림 2-3] 인천시 인구변화 추이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https://kosis.kr)

[표 2-10] 특별·광역시별 주민등록인구 변화추이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전년 대비 증감
전국	51,829,023	51,638,809	51,439,038	51,325,329	51,217,221	51,149,546	-67,675
서울시	9,668,465	9,509,458	9,428,372	9,386,034	9,331,828	9,318,500	-13,328
부산시	3,391,946	3,350,380	3,317,812	3,293,362	3,266,598	3,248,359	-18,239
대구시	2,418,346	2,385,412	2,363,691	2,374,960	2,363,629	2,356,372	-7,257
인천시	2,942,828	2,948,375	2,967,314	2,997,410	3,021,010	3,046,754	25,744
광주시	1,450,062	1,441,611	1,431,050	1,419,237	1,408,422	1,397,122	-11,300
대전시	1,463,882	1,452,251	1,446,072	1,442,216	1,439,157	1,442,228	3,071
울산시	1,136,017	1,121,592	1,110,663	1,103,661	1,098,049	1,092,634	-5,415
세종시	355,831	371,895	383,591	386,525	390,685	392,230	1,545

주: 주민등록인구는 전국 지자체별 주민등록(거주자)이 되어있는 자의 인구(외국인 제외)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https://kosis.kr, 2025.11)

2) 군·구별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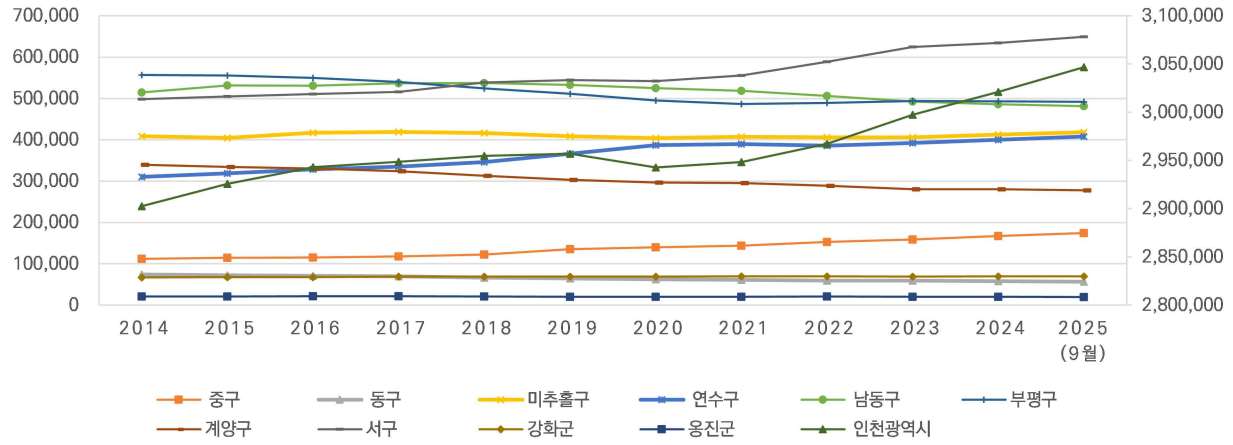
- 인천시의 2020년부터 2025년 주민등록인구 변화추이를 보면, 인천시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대비 2021년 0.2%, 2021년 대비 2022년 0.6%, 2022년 대비 2023년 1.0%, 2023년 대비 2024년 0.8%, 2024년 대비 2025년 0.9% 증가함
  - 2020년 대비 2025년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중구(25.0%)와 서구(19.7%), 연수구(5.3%), 미추홀구(3.5%), 강화군(0.7%) 순이었음

- 2020년 대비 2025년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동구(-9.2%), 남동구(-8.4%), 계양구(-6.4%), 옹진군(-3.8%), 부평구(-0.6%) 순으로 나타남

● 2025년 9월 기준 군·구별 주민등록인구는 서구(649,040명)가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491,820명), 남동구(481,212명), 미추홀구(418,425), 연수구(407,833명), 계양구(277,665명), 중구(174,663명) 순이었음

- 인천시 군·구 중 옹진군(19,668명)의 인구가 가장 적었고, 동구(56,764명), 강화군(69,664명) 순이었음

[그림 2-4] 인천시 군·구별 주민등록인구 변화 추이



[표 2-11] 인천시 군·구별 주민등록인구 변화추이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증감률
인천시	2,942,828	2,948,375	2,967,314	2,997,410	3,021,010	3,046,754	3.5
중구	139,729	143,633	152,931	158,958	167,113	174,663	25.0
동구	62,542	61,486	58,999	59,482	58,296	56,764	-9.2
미추홀구	404,343	407,464	406,004	405,995	412,274	418,425	3.5
연수구	387,450	389,644	385,796	392,416	400,213	407,833	5.3
남동구	525,354	518,272	506,181	492,415	486,225	481,212	-8.4
부평구	494,962	486,765	489,118	494,138	493,200	491,820	-0.6
계양구	296,750	295,696	288,856	280,266	280,227	277,665	-6.4
서구	542,040	555,380	589,013	624,358	634,064	649,040	19.7
강화군	69,203	69,693	69,803	69,005	69,402	69,664	0.7
옹진군	20,455	20,342	20,613	20,377	19,996	19,668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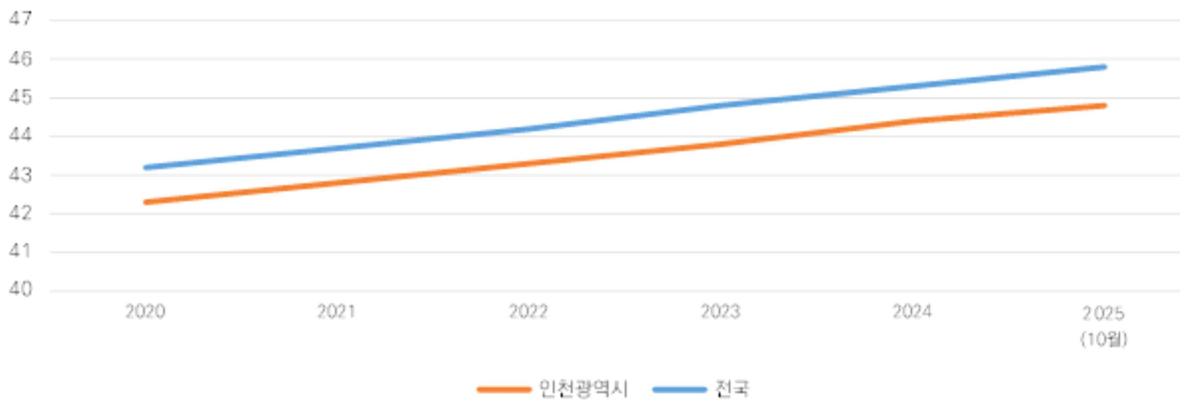
주: 주민등록인구는 전국 지자체별 주민등록(거주자)이 되어있는 자의 인구(외국인 제외)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5년 인구증감비율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https://kosis.kr, 2025.11)

3) 연령대별 인구변화

□ 특별·광역시별 평균연령

- 특별·광역시별 주민의 평균연령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지역의 평균연령이 증가하였음
  - 주민의 평균연령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2020년 대비 2025년 7.9%가 증가함. 이는 주민 1인당 평균연령이 3.3세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2020년 대비 2025년 주민의 평균연령 증가율은 대구(6.7%), 대전(6.0%), 인천(5.9%), 세종(5.9%), 부산(5.8%), 서울(4.9%) 순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2025년 10월 기준 인천시 주민의 평균연령(44.8세)은 전국 평균연령(45.8세)보다 1세 정도 낮지만, 평균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림 2-5] 특별·광역시별 주민의 평균연령



[표 2-12] 특별·광역시별 주민의 평균연령

(단위: 세)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0월)	증감률
전국	43.2	43.7	44.2	44.8	45.3	45.8	6.0
서울시	43.2	43.6	44.0	44.4	44.9	45.3	4.9
부산시	45.1	45.6	46.1	46.6	47.2	47.7	5.8
대구시	43.5	44.1	44.6	45.3	45.9	46.4	6.7
인천시	42.3	42.8	43.3	43.8	44.4	44.8	5.9
광주시	41.4	41.9	42.4	43.1	43.7	44.3	7.0
대전시	41.9	42.4	42.9	43.5	44.0	44.4	6.0
울산시	41.6	42.3	43.0	43.7	44.3	44.9	7.9
세종시	37.3	37.7	38.1	38.6	39.1	39.5	5.9

주 :1) 총인구에 대한 연령 평균
2)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5년 증감비율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5.11)

□ 인천시 군·구별 평균연령

- 2025년 10월 기준 인천시 군·구별 주민의 평균연령은 44.8세이며, 인천시 전체 평균연령보다 낮은 지역은 연수구(41.6세), 서구(42.0세), 중구(42.7세)였음
- 2025년 10월 기준 인천시 전체 평균연령보다 높은 지역은 강화군(55.8세), 옹진군(54.1세), 동구(50.0세), 계양구(46.9세), 미추홀구(46.0세), 남동구(45.9세), 부평구(45.9세) 순이었음
  - 옹진군이 강화군에 비해 평균연령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백령면, 연평면 등 군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기인함
- 2020년 대비 2025년 연령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남동구(9.3%), 계양구(9.1%), 옹진군(8.4%), 부평구(6.0%) 순으로 나타남

[표 2-13] 인천시 군·구별 주민의 평균연령

(단위: 세)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0월)	증감률
전국	43.2	43.7	44.2	44.8	45.3	45.8	6.0
인천	42.3	42.8	43.3	43.8	44.4	44.8	5.9
중구	41.7	42.0	42.2	42.4	42.5	42.7	2.3
동구	47.3	47.6	48.1	48.6	49.3	50.0	5.7
미추홀구	44.0	44.4	44.9	45.4	45.7	46.0	4.5
연수구	39.3	39.8	40.4	40.9	41.3	41.6	5.9
남동구	42.0	42.7	43.5	44.5	45.3	45.9	9.3
부평구	43.3	43.9	44.4	44.8	45.4	45.9	6.0
계양구	43.0	43.7	44.5	45.5	46.2	46.9	9.1
서구	40.2	40.6	40.8	41.1	41.6	42.0	4.5
강화군	52.8	53.4	54.0	54.7	55.3	55.8	5.7
옹진군	49.9	50.7	51.2	52.2	53.2	54.1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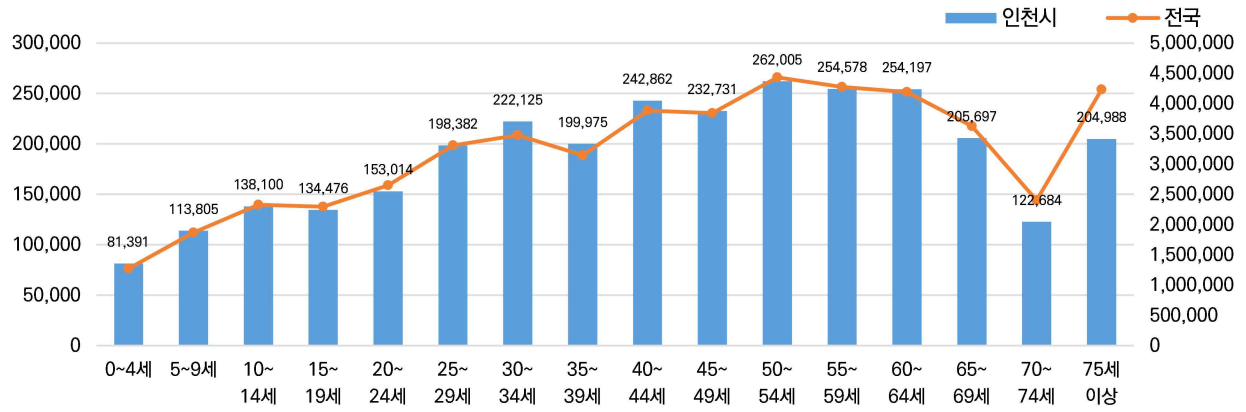
주 :1) 총인구에 대한 연령 평균
2)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5년 증감비율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025.11)

□ 5세 연령대별 인구 현황

- 5세 연령대별 인구분포는 2024년 전국 평균보다 인천시의 30~34세, 35~39세, 40~44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전국 평균보다 인천시의 70세 이상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인천시 군·구별 5세 연령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구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았고, 연수구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의 비중도 높게 나타남
  - 동구와 미추홀구는 중장년층과 중·고령층, 남동구와 부평구는 중장년층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계양구는 청년층과 50대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청년과 중·고령층의 일자리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서구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청장년과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강화군은 고령인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고, 청장년층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강화군에 청장년층의 유입을 위한 대안적 논의가 필요함

- 옹진군은 20~24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났는데, 이는 백령면, 연평면 등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옹진군은 중·고령층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2-6] 인천광역시 5세 연령대별 인구 현황(2024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표 2-14] 인천시 군·구별 5세 연령대별 분포 (2024년)

(단위: 세)

행정구역 (동읍면)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0 - 4세	2.7	3.2	1.8	2.5	3.3	2.0	2.4	1.9	3.6	1.8	1.4
5 - 9세	3.8	4.2	2.6	3.2	5.0	3.4	3.1	2.7	4.8	2.0	1.6
10 - 14세	4.6	4.8	3.5	3.8	6.0	4.7	3.8	3.7	5.4	2.9	2.2
15 - 19세	4.5	4.2	4.0	3.9	5.5	4.6	4.1	4.2	4.7	3.3	2.5
20 - 24세	5.1	5.0	4.4	5.4	5.5	5.1	4.9	5.2	4.9	3.1	5.5
25 - 29세	6.6	7.7	5.5	6.8	6.1	6.6	6.9	6.9	6.4	3.1	6.1
30 - 34세	7.4	8.6	5.7	7.4	6.8	6.8	8.1	7.4	7.8	3.6	4.7
35 - 39세	6.6	7.6	5.1	6.5	7.1	5.8	6.7	5.8	7.7	3.4	3.7
40 - 44세	8.0	8.8	7.1	7.8	8.9	7.7	7.5	6.8	9.2	4.8	4.6
45 - 49세	7.7	8.3	7.6	7.4	8.5	8.0	7.1	7.0	8.1	5.3	5.7
50 - 54세	8.7	8.3	8.7	8.5	8.9	9.0	8.6	9.2	8.6	7.1	6.8
55 - 59세	8.4	6.9	8.2	8.1	7.9	8.7	8.8	10.2	8.0	8.8	9.2
60 - 64세	8.4	6.4	8.7	8.2	7.5	8.7	9.0	10.8	7.4	11.8	12.3
65 - 69세	6.8	5.7	8.8	7.3	5.5	7.3	7.3	7.7	5.6	12.1	11.9
70 - 74세	4.1	3.8	6.3	4.7	2.9	4.5	4.4	4.0	3.1	8.4	7.6
75세 이상	6.8	6.5	12.0	8.4	4.7	7.1	7.2	6.6	4.7	18.4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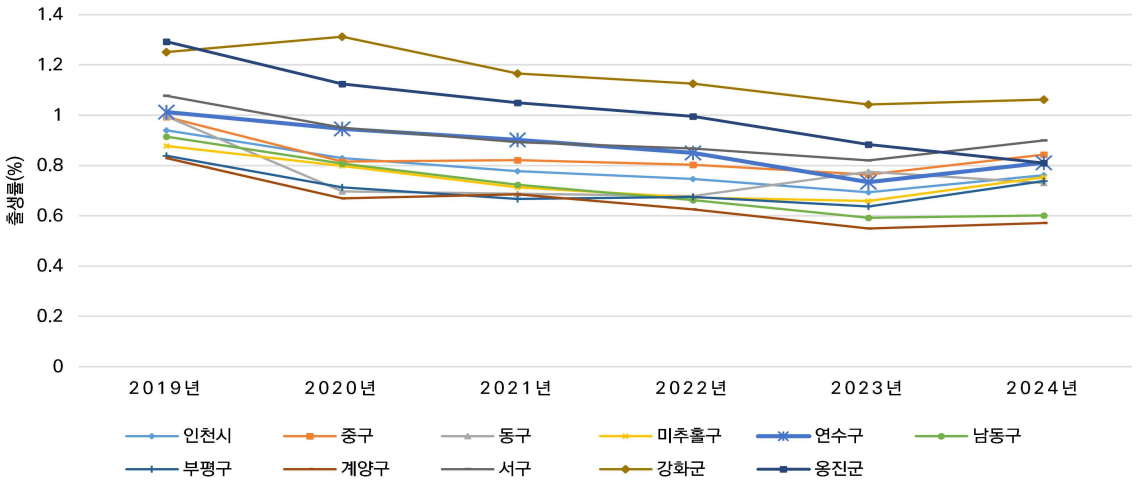
주) 전체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포함된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https://kosis.kr)

□ 합계출생률

- 합계출생률은 15~49세 가임기 여성 1인이 평균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낮은 합계출생률은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의미임
- 인천시 군·구별 합계출생률 평균은 2019년 0.94명, 2020년 0.83명, 2021년 0.78명, 2022년 0.75명, 2023년 0.69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 0.76명으로 증가함

- 중구, 연수구와 서구의 합계출생률 증가는 영종도,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의 결과로 해석됨
- 강화군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합계출생률이 감소하다가 2024년에 증가하였고, 옹진군의 합계출생률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감소함
- 동구의 합계출생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하다가 2023년 인천시 평균 합계출생률보다 높아졌다가, 2024년 다시 감소함
- 미추홀구와 남동구의 합계출생률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하다가 2024년 증가함

[그림 2-7] 인천시 군·구별 합계출생률 변화



- 2024년 기준 인천시에서 합계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화군(1.06명)이고, 합계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계양구(0.57명)로 나타남. 강화군과 계양구의 합계출산율은 약 0.49명 차이가 있음

- 인천시 군·구별 합계출생률은 강화군(1.06명), 서구(0.90명), 중구(0.84명), 연수구(0.81명), 옹진군(0.81명) 순임
- 2019년 대비 2020년 합계출생률은 동구(-29.9%)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계양구(-19.3%), 중구(-17.8%), 부평구(-15.0%), 옹진군(-13.0%) 순으로 나타남

[표 2-15] 인천시 군·구별 합계출생률 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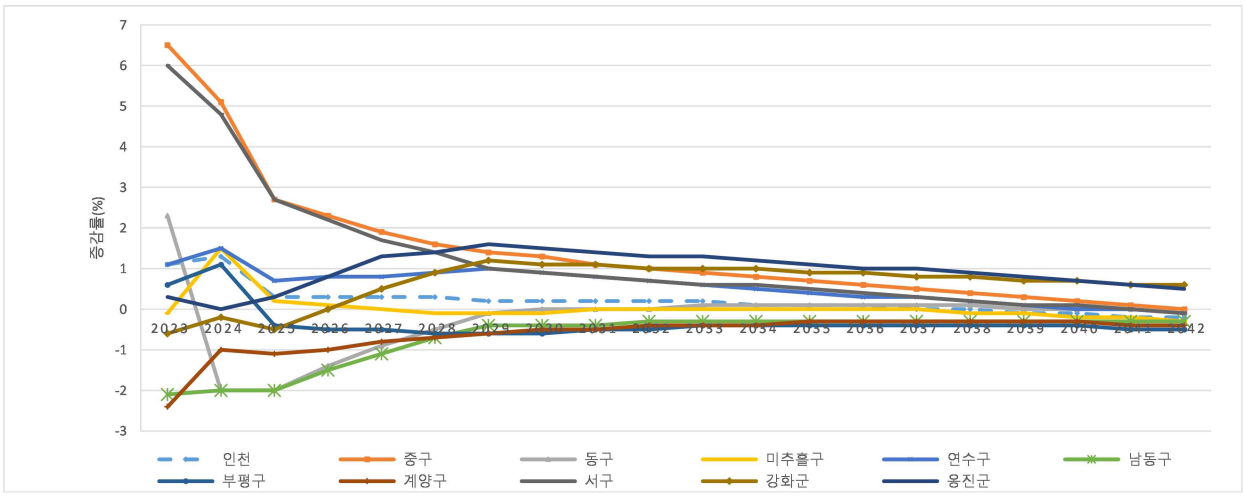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생률	출생률	증감률	출생률	증감률	출생률	증감률	출생률	증감률	출생률	증감률
인천시	0.94	0.83	-11.8	0.78	-6.2	0.75	-4.0	0.69	-7.1	0.76	9.8
중구	0.99	0.82	-17.8	0.82	0.7	0.80	-2.3	0.76	-4.9	0.84	10.3
동구	1.00	0.70	-29.9	0.69	-1.3	0.68	-1.3	0.78	14.1	0.73	-5.8
미추홀구	0.88	0.80	-9.1	0.71	-10.7	0.67	-5.6	0.66	-2.1	0.75	14.3
연수구	1.01	0.95	-6.6	0.90	-4.7	0.85	-5.8	0.73	-13.6	0.81	10.5
남동구	0.92	0.81	-11.7	0.72	-10.5	0.66	-8.3	0.59	-10.7	0.60	1.7
부평구	0.84	0.71	-15.0	0.67	-6.5	0.68	1.2	0.64	-5.6	0.74	15.9
계양구	0.83	0.67	-19.3	0.69	2.4	0.63	-8.6	0.55	-12.1	0.57	3.8
서구	1.08	0.95	-11.8	0.89	-6.0	0.87	-2.9	0.82	-5.4	0.90	9.8
강화군	1.25	1.31	4.9	1.17	-11.1	1.13	-3.4	1.04	-7.4	1.06	1.8
옹진군	1.29	1.13	-13.0	1.05	-6.7	1.00	-5.2	0.88	-11.2	0.81	-8.4

주 : 1) 합계출생률은 가임기 여성(15세~49세)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
2) 증감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https://kosis.kr)

□ 인구성장률

- 인구성장률(Population growth rate)은 특정 연도 간의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을 모두 포함한 연평균 증가율 또는 감소율을 말함. 인구성장률은 인구변화의 대표적인 지표로 총인구와 함께 국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이나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 수립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자료로 활용됨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인천시의 인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37년을 기점으로 강화군, 옹진군,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구성장률이 두드러지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인천광역시, 2024)

[그림 2-8] 인천시 군·구별 인구성장률 추이



□ 부양비

-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면서 부양의 대상인 아동·청소년과 노인의 인구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임
- 인천시의 총부양비는 2020년(35.7%)부터 2025년 9월(41.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0년 대비 2025년 전국 평균 총부양비 증가율(14.0%)보다 인천시 총부양비 증가율(16.5%)이 2.5%p 높았음. 전국보다 인천시의 인구구조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 전국적으로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석됨
  - 2020년 대비 2025년 전국 평균 노년 부양비는 32.8% 증가하였고, 인천시의 노년 부양비는 38.4% 증가함. 이를 통해 인천시의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복지,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표 2-16] 전국 및 인천시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 현황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9월)	증감률
총 부양비	전국	40.0	40.8	41.8	42.8	44.3	45.6	14.0
	인천시	35.7	36.6	37.6	38.7	40.2	41.6	16.5
유소년 부양비	전국	17.0	16.7	16.2	15.8	15.4	15.1	-11.2
	인천시	16.7	16.4	16.1	15.7	15.5	15.3	-8.4
노년 부양비	전국	22.9	24.1	25.5	27.1	28.9	30.4	32.8
	인천시	19.0	20.2	21.5	23.0	24.8	26.3	38.4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2025. 11.4.) 연령별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
주 : 증가율은 2020년 대비 2025년의 증가율을 나타냄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
총부양비 = (유소년인구+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100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생산가능인구×100
노년 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생산가능인구×100

□ 1인 가구[6)]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의 1인 가구 비율도 2020년 28.3%에서 2024년 32.5%로 증가함
  - 2020년 대비 2024년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4.4%p 증가하였고, 인천시의 1인 가구 비율은 4.2%p 증가함
  - 2024년 전국 1인 가구 비율(36.1%)보다 인천시의 1인 가구 비율(32.5%)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1인 가구 비율은 옹진군(48.5%)이 가장 높았고, 연수구(26.3%)가 가장 낮아 군·구별 편차를 나타냄

6) 1인 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함(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2호의2).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와는 달리 개인 단위로 가구가 정의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한 집, 혹은 아파트, 혹은 하나의 공간에 1인이 홀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시원이나 원룸, 오피스텔은 해당되어도 단체생활의 성격이 있는 회사나 기숙사 등은 해당되지 않음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1인 가구 비율은 옹진군 48.5%, 중구 41.7%, 미추홀구 37.2%, 남동구 34.4%, 동구 33.6%, 강화군 32.2%, 부평구 32.2%, 계양구 31.4%, 서구 28.4%, 연수구 26.3% 순이었음

[표 2-17]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1인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인 가구비율	1인 가구 수	1인 가구비율	1인 가구 수	1인 가구비율	1인 가구 수	1인 가구비율	1인 가구 수	1인 가구비율	1인 가구 수
전국	31.7	6,643,354	33.4	7,165,788	34.5	7,502,350	35.5	7,829,035	36.1	8,044,948
인천시	28.3	324,841	30.0	355,657	31.0	376,392	31.8	395,278	32.5	411,532
중구	38.8	23,101	39.8	24,802	40.6	27,236	41.1	29,156	41.7	31,408
동구	29.1	7,335	31.3	8,131	32.2	8,060	33.0	8,575	33.6	8,653
미추홀구	33.4	56,472	35.0	61,333	36.1	64,618	36.8	66,456	37.2	68,649
연수구	24.6	34,745	25.8	37,926	25.8	37,514	26.1	38,734	26.3	40,339
남동구	28.6	59,396	30.6	64,563	31.9	67,190	33.3	69,808	34.4	71,921
부평구	27.7	53,636	29.7	58,618	30.9	62,634	31.5	64,840	32.2	67,646
계양구	26.1	29,622	23.0	32,694	29.3	34,494	30.2	35,229	31.4	37,133
서구	24.3	48,799	26.0	54,576	27.0	60,913	28.0	68,510	28.4	71,412
강화군	29.1	8,095	30.6	8,764	31.2	9,127	31.5	9,254	32.2	9,578
옹진군	41.6	3,640	45.7	4,250	47.3	4,606	47.7	4,716	48.5	4,793

주 : 1) 1인 가구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2) 1인 가구 비율은 일반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 수 ÷일반 가구 수)×100
3) 집단 가구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출처 : 통계청, 1인 가구 비율(https://kosis.kr).

4. 산업 및 경제적 환경

- 2024년 대비 2025년 인천시의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모두 감소함
  - 2024년 대비 2025년 사업체 수는 11,025개 감소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41,934명 감소함
- 2024년 대비 2025년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며,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으로 나타남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024년 대비 2025년 사업체 수가 471개 증가함
  - 「운수 및 창고업」은 2024년 대비 2025년 사업체 수가 3,221개 감소함
- 2024년 대비 2025년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건설업」이며,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나타남
  - 「건설업」은 2024년 대비 2025년 종사자 수가 8,633명 증가함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24년 대비 2025년 종사자 수가 20,056명 감소함

[표 2-18] 인천시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개, 명)

행정구역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24년	2025년	증감	2024년	2025년	증감
인천시	317,133	306,108	-11,025	1,250,203	1,208,269	-41,934
A 농업·임업 및 어업	129	147	18	616	485	-131
B 광업	35	36	1	431	567	136
C 제조업	33,961	33,657	-304	252,668	253,606	938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16	446	30	4,486	4,403	-83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07	734	-73	7,796	7,661	-135
F 건설업	25,578	24,181	-1,397	84,237	92,870	8,633
G 도매 및 소매업	80,223	78,706	-1,517	171,334	172,776	1,442
H 운수 및 창고업	41,236	38,015	-3,221	97,207	96,036	-1,171
I 숙박 및 음식점업	42,097	41,888	-209	109,781	101,750	-8,031
J 정보통신업	4,704	3,749	-955	16,435	14,027	-2,408
K 금융 및 보험업	2,347	2,491	144	23,694	24,618	924
L 부동산업	15,081	14,124	-957	32,522	31,465	-1,057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961	8,347	-614	43,170	41,922	-1,248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66	7,937	471	66,073	57,530	-8,543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02	490	-12	44,887	40,912	-3,975
P 교육 서비스업	12,365	10,933	-1,432	82,746	77,194	-5,55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571	8,011	-560	145,972	125,916	-20,056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8,047	7,943	-104	21,088	19,659	-1,42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4,607	24,273	-334	45,060	44,872	-188

출처: 인천데이터포털, 인천시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24, 2025 (https://data.inche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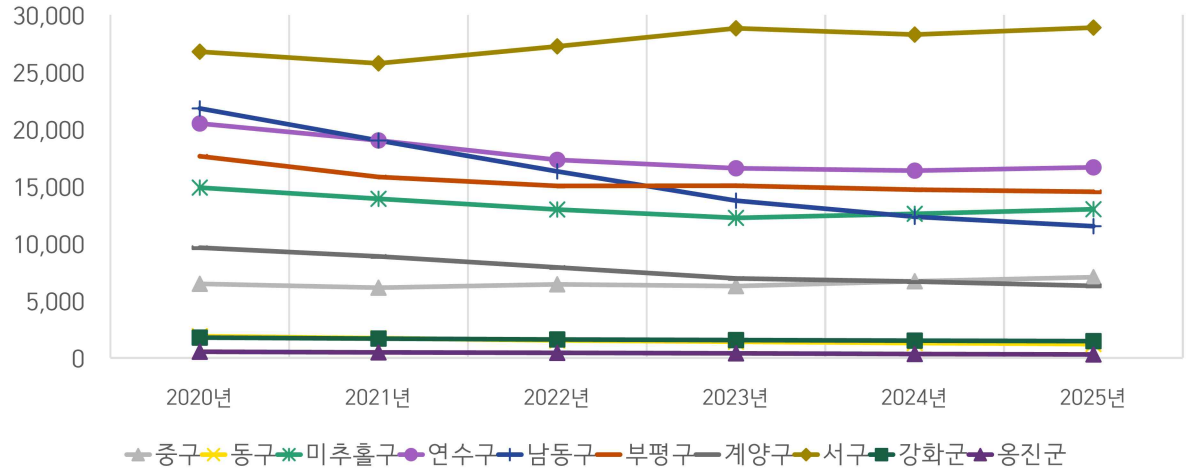
제2절 사회보장 영역별 현황

1. 대상별 현황

1) 영유아[7]인구

-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인천시 군·구별 영유아(0~5세) 인구를 보면, 중구와 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
  - 2025년 10월 기준 인천시 군·구별 영유아 인구수는 서구가 가장 많았으며, 강화군, 동구, 옹진군의 영유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 중구와 서구의 영유아 인구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20년 대비 2025년 10월 중구의 영유아 인구는 9.0%, 서구의 영유아 인구는 7.9% 증가함
- 2025년 10월 기준 전국의 영유아 인구는 1,538,448명으로, 2020년(2,121,390명) 대비 27.5% 감소함. 2020년 대비 2025년 10월 인천시의 영유아 인구는 17.2% 감소하여, 전국 영유아 인구 감소율보다 인천시의 영유아 인구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인천시 군·구별 영유아 인구수 변화를 보면, 옹진군이 43.7% 감소하였으며, 동구(-36.3%)와 계양구(-34.6%)도 큰 폭으로 감소함. 이들 지역은 출산율 저하, 인구 유출, 고령화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영유아 인구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25년 10월 기준 인천시 군·구별 영유아 인구수는 서구 28,900명, 연수구 16,675명, 부평구 14,538명, 미추홀구 13,011명, 남동구 11,525명 순이었음. 이는 신도시 개발, 주거 인프라 확충, 젊은 세대 유입 등이 영유아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그림 2-9] 인천시 군·구별 영유아 인구변화



7)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6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함

[표 2-19]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영유아 인구의 변화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증감률
전국	2,121,390	1,943,208	1,791,788	1,668,293	1,581,764	1,538,448	-27.5
인천시	122,051	112,522	106,904	103,151	100,917	101,016	-17.2
중구	6,485	6,147	6,440	6,287	6,709	7,068	9.0
동구	1,907	1,732	1,534	1,421	1,305	1,214	-36.3
미추홀구	14,903	13,923	12,986	12,253	12,611	13,011	-12.7
연수구	20,511	19,029	17,329	16,594	16,386	16,675	-18.2
남동구	21,830	19,023	16,322	13,761	12,350	11,525	-47.2
부평구	17,647	15,833	15,049	15,069	14,722	14,538	-17.6
계양구	9,649	8,884	7,921	6,957	6,686	6,307	-34.6
서구	26,791	25,770	27,258	28,840	28,289	28,900	7.9
강화군	1,783	1,692	1,616	1,565	1,514	1,471	-17.5
옹진군	545	489	449	404	345	307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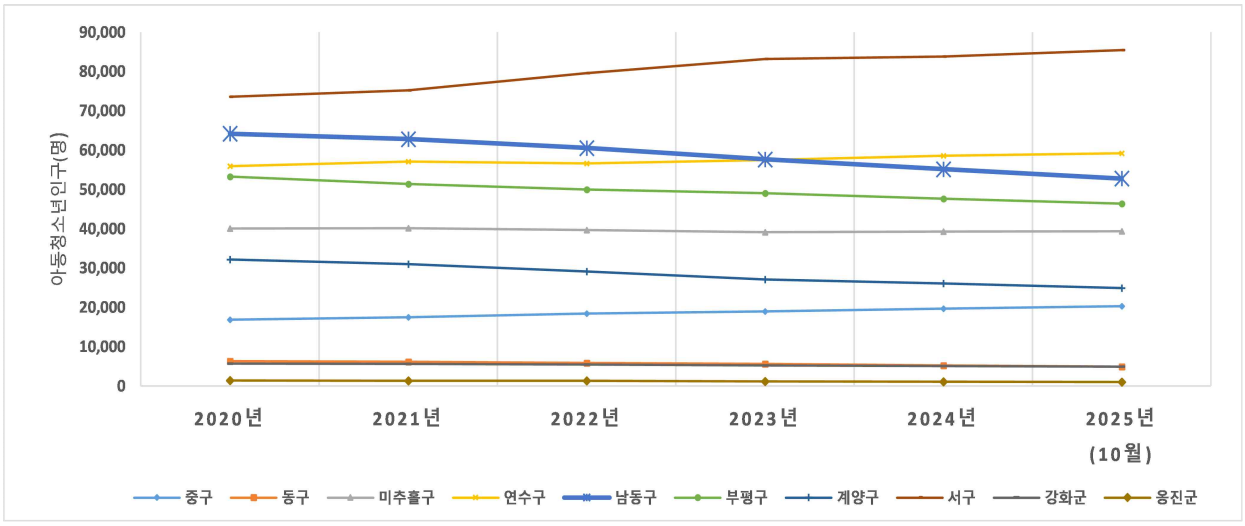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5년 증감률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2) 아동·청소년

-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인천시 군·구별 아동·청소년(6~18세) 인구변화를 보면, 중구, 연수구, 서구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2020년 대비 2025년 10월 중구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 증가함. 같은 기간 중구의 영유아 인구의 증가율(9.0%)보다 높은 수치이며,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임. 이는 원도심 재생사업, 신규 공동주택 공급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 유입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2020년 대비 2025년 10월 서구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16.1% 증가함. 같은 기간 서구의 영유아 인구(7.9%)도 증가하였으며, 인천 내에서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 이는 검단신도시 개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20년 대비 2025년 10월 연수구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5.9% 증가함. 이는 송도국제도시의 교육 인프라, 국제학교 및 특목고 밀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인천시 내에서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옹진군(27.1%)으로 나타남. 옹진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 청년층 이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다음으로 계양구 22.6%, 동구 22.3%, 남동구 17.8%, 강화군 13.3%, 부평구 13.0% 순으로 아동·청소년 인구가 감소함
- 옹진군, 계양구, 동구는 아동·청소년 인구와 영유아 인구의 감소율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이는 개발 정체,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의 영향으로 보이며, 아동 인구 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지역임
- 인천시 전체 아동·청소년 인구는 2020년 349,179명에서 2025년 10월 338,864명으로, 약 5년간 2.9% 감소함. 같은 기간 인천시의 영유아 인구가 17.2% 감소하였으므로, 향후 인천시의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가 예상됨

[그림 2-10] 인천시 군·구별 아동 · 청소년 인구의 변화



[표 2-20] 인천시 군·구별 아동 · 청소년 인구의 변화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증감률
인천시	349,179	348,002	346,372	344,236	341,409	338,864	-2.9
중구	16,854	17,457	18,367	18,934	19,655	20,247	20.1
동구	6,302	6,133	5,840	5,563	5,203	4,899	-22.3
미추홀구	40,046	40,140	39,661	39,107	39,276	39,349	-1.7
연수구	55,890	57,044	56,615	57,468	58,575	59,160	5.9
남동구	64,151	62,769	60,520	57,622	55,141	52,731	-17.8
부평구	53,251	51,382	49,978	48,981	47,631	46,329	-13.0
계양구	32,136	30,944	29,137	27,063	26,073	24,866	-22.6
서구	73,528	75,194	79,518	83,140	83,780	85,385	16.1
강화군	5,669	5,612	5,448	5,202	5,016	4,913	-13.3
옹진군	1,352	1,327	1,288	1,156	1,059	985	-27.1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5년 증감률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3) 노인

□ 노인인구

- 2024년 전국 고령인구 비율이 20.0%를 넘어 초고령사회[8]에 진입함. 2025년 10월 기준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9%이며, 인천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18.6%로 나타남

8) 지역의 고령화 정도를 파악하는 지수로 고령지수가 대표적임. 고령지수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정도를 토대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 고령화사회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를 기준으로 정의함

- 인천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5년 10월 18.6%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대비 2025년 10월 고령인구 증가율은 32.9%에 해당함. 2020년 대비 2025년 10월 전국의 고령인구 증가율이 27.4%로 나타나, 인천시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 인천시 10개 군·구의 고령인구 비율 변화를 보면, 2025년 10월 기준 6개 지역이 초고령사회, 3개 지역이 고령사회, 1개 지역이 고령사회에 진입함

- 2025년 10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0%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은 강화군(40.3%), 옹진군(35.7%), 동구(28.5%), 미추홀구(21.2%), 남동구(20.1%), 부평구(20.0%)로 나타남. 해당 지역들은 노인 대상 복지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임. 2025년 10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14% 넘는 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지역은 계양구(19.7%), 중구(16.2%), 서구(14.1%)로 나타남. 2025년 10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해당하는 지역은 연수구(13.8%)로, 인천시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음
- 2020년 대비 2025년 10월 고령인구 증가율은 계양구(53.9%), 남동구(47.8%), 연수구(39.4%), 부평구(35.1%), 옹진군(33.2%), 서구(31.8%) 순으로 나타남. 해당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세대 간 균형 정책, 지역 맞춤형 고령화 대응 전략 등이 필요함

[표 2-21]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고령인구 비율 현황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증감률
전국	16.4	17.1	18.0	19.0	20.0	20.9	27.4
인천시	14.0	14.8	15.6	16.6	17.7	18.6	32.9
중구	14.7	15.1	15.3	15.7	15.9	16.2	10.2
동구	23.1	23.9	24.9	25.6	27.1	28.5	23.4
미추홀구	17.1	17.7	18.7	19.7	20.5	21.2	24.0
연수구	9.9	10.5	11.4	12.2	13.0	13.8	39.4
남동구	13.6	14.6	15.8	17.4	18.8	20.1	47.8
부평구	14.8	15.7	16.7	17.7	18.9	20.0	35.1
계양구	12.8	13.8	15.1	16.8	18.2	19.7	53.9
서구	10.7	11.4	11.9	12.4	13.4	14.1	31.8
강화군	33.0	34.1	35.5	37.2	38.9	40.3	22.1
옹진군	26.8	28.3	29.6	31.6	33.7	35.7	33.2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5년 증감률
출처 : 통계청, 고령인구비율(https://kosis.kr).
고령인구비율은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독거노인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및 인천시의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전국 10.3%, 인천시 8.8%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2024년 독거노인 가구 증가율은 전국(30.4%)보다 인천시(31.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독거노인 가구 비율을 보면, 강화군(17.3%)이 가장 높았고, 연수구(5.8%)가 가장 낮았음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강화군(17.3%), 옹진군(16.6%), 동구(14.9%), 미추홀구(10.2%), 남동구(10.0%), 부평구(9.6%), 계양구(9.1%), 중구(7.9%), 서구(6.3%), 연수구(5.8%) 순이었음
- 인천의 도서 및 농촌지역, 원도심 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이 높고, 신도시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임
- 2020년 대비 2024년 독거노인 가구 증가율은 남동구(47.1%)가 가장 높았고, 계양구(42.2%), 서구(37.0%), 미추홀구(32.5%), 연수구(31.8%), 부평구(29.7%), 옹진군(24.8%), 동구(23.1%), 강화군(21.0%), 중구(14.5%) 순으로 나타남
- 남동구, 계양구, 서구 등 도시 외곽 및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독거노인 가구 증가율이 높았음. 고위험 독거노인 밀집 지역의 경우 돌봄서비스 강화 및 응급 대응체계 구축 마련, 주거환경 개선, 사회적 고립 예방, 커뮤니티 기반 돌봄체계 구축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됨

[표 2-22]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독거노인 가구 비율 현황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국	7.9	8.5	9.1	9.7	10.3	30.4
인천시	6.7	7.2	7.7	8.3	8.8	31.3
중구	6.9	7.3	7.6	7.9	7.9	14.5
동구	12.1	12.7	13.8	13.9	14.9	23.1
미추홀구	7.7	8.1	8.8	9.5	10.2	32.5
연수구	4.4	4.7	5.2	5.6	5.8	31.8
남동구	6.8	7.4	8.2	9.2	10.0	47.1
부평구	7.4	8.0	8.5	9.0	9.6	29.7
계양구	6.4	7.0	7.7	8.4	9.1	42.2
서구	4.6	5.1	5.4	5.7	6.3	37.0
강화군	14.3	15.3	16.0	16.4	17.3	21.0
옹진군	13.3	14.0	14.9	15.8	16.6	24.8

주 : 1) 독거노인가구율: 전체 일반가구 중 혼자 살고 있는 노인가구의 비율
2)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4년 증감률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가족 독거노인가구비율(https://kosis.kr).

□ 노인학대 유형

● 노인학대 유형은 7가지 유형으로,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됨[9)]

9) ①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시키는 행위, ③ 성적 학대는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경제적 학대(착취)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d하는 행위, ⑤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

- 202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43.9%)이며, 그 뒤를 이어 정서적 학대(43.8%), 방임(5.6%) 순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인천시 전체 노인학대 사례 수는 721건이며, 군·구별로 보면 서구(203건)가 가장 많았고, 부평구(151건), 강화군(100건), 남동구(88건), 계양구(74건) 순이었음. 군·구별 노인학대 유형 및 비율을 보면, 정서적 학대(45.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신체적 학대(42.2%), 방임(6.2%) 순으로 나타남

[표 2-23]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노인학대 유형 및 비율(2024년)

(단위 :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전국	4797(43.9)	4784(43.8)	272(2.5)	298(2.7)	610(5.6)	131(1.2)	40(0.4)	10,932
인천	304(42.2)	327(45.4)	11(1.5)	24(3.3)	45(6.2)	8(1.1)	2(0.3)	721
중구	22(47.8)	22(47.8)	-	1(2.2)	1(2.2)	-	-	46
동구	6(31.6)	8(42.1)	-	2(10.5)	2(10.5)	1(5.3)	-	19
미추홀구	15(26.3)	23(40.4)	2(3.5)	6(10.5)	10(17.5)	1(1.8)	-	57
연수구	13(38.2)	17(50)	-	2(5.9)	2(5.9)	-	-	34
남동구	26(29.5)	44(50)	2(2.3)	3(3.4)	11(12.5)	2(2.3)	-	88
부평구	72(47.7)	67(44.4)	2(1.3)	1(0.7)	6(4)	2(1.3)	1(0.7)	151
계양구	36(48.6)	27(36.5)	2(2.7)	4(5.4)	3(4.1)	1(1.4)	1(1.4)	74
서구	96(47.3)	99(48.8)	-	3(1.5)	5(2.5)	-	-	203
강화군	16(41)	16(41)	3(7.7)	-(3)	7.7(1)	2.6(-)	-(39)	100
옹진군	2(20)	4(40)	-	2(20)	2(20)	-	-	10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4

4) 장애인

□ 등록장애인 인구

- 전국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1% 수준이며,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2020년 5.0%에서 2024년 5.1%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인천시 군·구별 등록장애인 수는 부평구가 27,3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 26,776명, 서구 26,420명, 미추홀구 23,906명 순이었음. 부평구, 남동구와 서구는 등록장애인 수가 2만 명을 초과함에 따라 장애인복지 인프라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인천시 내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중구(7,145명), 강화군(5,833명), 동구(4,703명), 옹진군(1,574명)이었음
- 2020년 대비 2024년 등록장애인 증감률을 보면, 전국(-0.1%)은 등록장애인 수가 감소하였으나, 인천시(4.4%)는 등록장애인 수가 증가함
  - 2020년 대비 2024년 인천시 군·구별 등록장애인의 증가율은 중구(14.4%)가 가장 높았으며, 서구(12.7%), 미추홀구(5.2%), 연수구(2.7%), 부평구(2.0%), 옹진군(1.8%) 순으로 나타남
  - 인천시 내에서 강화군(-0.8%)과 동구(-0.5%)의 등록장애인 수는 감소함

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⑦ 유기는 보호자 도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202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표 2-24]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장애인 수	비율	장애인 수	비율	장애인 수	비율	장애인 수	비율	장애인 수	비율	
전국	2,633,026	5.1	2,642,922	5.1	2,643,696	5.1	2,633,262	5.1	2,631,356	5.1	-0.1
인천시	146,296	5.0	148,575	5.0	150,670	5.1	151,782	5.1	152,707	5.1	4.4
중구	6,243	4.5	6,523	4.5	6,802	4.4	6,995	4.4	7,145	4.3	14.4
동구	4,728	7.6	4,772	7.8	4,685	7.9	4,727	7.9	4,703	8.1	-0.5
미추홀구	22,724	5.6	23,346	5.7	23,720	5.8	23,765	5.9	23,906	5.8	5.2
연수구	13,838	3.6	14,002	3.6	14,012	3.6	14,097	3.6	14,216	3.6	2.7
남동구	26,482	5.0	26,655	5.1	26,716	5.3	26,676	5.4	26,776	5.5	1.1
부평구	26,870	5.4	26,947	5.5	27,274	5.6	27,365	5.5	27,395	5.6	2.0
계양구	14,538	4.9	14,888	5.0	14,808	5.1	14,731	5.3	14,739	5.3	1.4
서구	23,449	4.3	23,986	4.3	25,063	4.3	25,978	4.2	26,420	4.2	12.7
강화군	5,878	8.5	5,890	8.5	5,983	8.6	5,848	8.5	5,833	8.4	-0.8
옹진군	1,546	7.6	1,566	7.7	1,607	7.8	1,600	7.9	1,574	7.9	1.8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4년 증감률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0~2024.

□ 장애 정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 등록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2024년 전국 등록장애인은 심한 장애 36.7%, 심하지 않은 장애 63.3%였으며, 인천시의 등록장애인은 심한 장애 35.4%, 심하지 않은 장애는 64.6%였음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심한 장애의 비율을 보면, 부평구(37.0%)가 가장 높았고, 연수구(36.9%), 남동구(36.4%), 강화군(36.3%), 계양구(35.3%) 순으로 나타남

[표 2-25]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장애 정도에 따른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2023년					2024년				
	장애인 수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 수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	비율	장애인	비율		장애인	비율	장애인	비율
전국	2,633,262	970,289	36.8	1,662,973	63.2	2,631,356	966,428	36.7	1,664,928	63.3
인천시	151,782	53,726	35.4	98,056	64.6	152,707	54,009	35.4	98,698	64.6
중구	6,995	2,260	32.3	4,735	67.7	7,145	2,324	32.5	4,821	67.5
동구	4,727	1,520	32.2	3,207	67.8	4,703	1,513	32.2	3,190	67.8
미추홀구	23,765	7,877	33.1	15,888	66.9	23,906	7,960	33.3	15,946	66.7
연수구	14,097	5,220	37.0	8,877	63.0	14,216	5,243	36.9	8,973	63.1
남동구	26,676	9,717	36.4	16,959	63.6	26,776	9,759	36.4	17,017	63.6
부평구	27,365	10,152	37.1	17,213	62.9	27,395	10,124	37.0	17,271	63.0
계양구	14,731	5,182	35.2	9,549	64.8	14,739	5,203	35.3	9,536	64.7
서구	25,978	9,112	35.1	16,866	64.9	26,420	9,269	35.1	17,151	64.9
강화군	5,848	2,175	37.2	3,673	62.8	5,833	2,115	36.3	3,718	63.7
옹진군	1,600	511	31.9	1,089	68.1	1,574	499	31.7	1,075	68.3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3, 2024.

5)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 등록외국인 현황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등록외국인 현황을 보면, 등록외국인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등록외국인 수는 연수구가 18,0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 17,009명, 서구 15,810명, 남동구 13,399명, 미추홀구 13,004명, 중구 5,282명, 계양구 3,757명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옹진군의 등록외국인은 59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동구 1,021명, 강화군 1,152명 순임
- 전국의 등록외국인은 10.4% 증가하였으며, 인천시의 등록외국인은 10.0% 증가함. 전국적인 외국인 유입 흐름과 인천시의 외국인 유입 흐름은 유사한 추세를 보였으나, 인천시 내 일부 지역에서는 등록외국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완만함
  - 2023년 대비 2024년 등록외국인 증가율은 옹진군(50.8%)이 가장 높았으며, 미추홀구(12.2%), 강화군(12.0%), 서구(11.0%), 중구(10.7%), 남동구(10.0%), 부평구(10.0%), 연수구(7.6%), 동구(6.8%), 계양구(5.7%) 순이었음
  - 옹진군과 강화군은 등록외국인 수는 적지만 전년 대비 등록외국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도서·농촌 지역까지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 미추홀구, 서구, 중구 등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산업 기반 확대에 따라 외국인 유입인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표 2-26]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전국	1,145,540	1,093,891	-4.5	1,189,585	8.7	1,348,626	13.4	1,488,353	10.4
인천	67,648	66,364	-1.9	71,849	8.3	81,016	12.8	89,129	10.0
중구	3,927	3,902	-0.6	4,119	5.6	4,770	15.8	5,282	10.7
동구	855	849	-0.7	890	4.8	956	7.4	1,021	6.8
미추홀구	8,903	9,087	2.1	10,408	14.5	11,595	11.4	13,004	12.2
연수구	12,419	12,459	0.3	14,256	14.4	16,818	18.0	18,098	7.6
남동구	11,584	10,928	-5.7	11,292	3.3	12,186	7.9	13,399	10.0
부평구	13,919	13,781	-1.0	14,301	3.8	15,463	8.1	17,009	10.0
계양구	3,154	3,106	-1.5	3,256	4.8	3,556	9.2	3,757	5.7
서구	11,850	11,296	-4.7	12,165	7.7	14,247	17.1	15,810	11.0
강화군	822	763	-7.2	868	13.8	1,029	18.5	1,152	12.0
옹진군	215	193	-10.2	294	52.3	396	34.7	597	50.8

주 : 등록외국인현황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현황
출처 : 통계청 등록외국인현황(https://kosis.kr)

□ 인구 1천 명당 외국인 수

- 2024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외국인 현황을 보면, 전국 29.1%, 인천시는 29.5%로 나타남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인구 1천 명당 외국인 수는 미추홀구(45.2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동구

(34.5명), 중구(31.6명), 서구(31.5명), 옹진군(29.9명) 순이었음

- 부평구의 인구 1천 명당 외국인 수는 13.4명으로 인천시 내에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16.6명)과 동구(17.5명)도 외국인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27]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인구 1천 명당 외국인 현황

(단위: 명,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전국	22.1	21.2	-4.2	23.1	9.2	26.3	13.6	29.1	10.6
인천	23.0	22.5	-2.1	24.2	7.6	27.0	11.6	29.5	9.1
중구	28.1	27.2	-3.3	26.9	-0.9	30.0	11.4	31.6	5.3
동구	13.7	13.8	1.0	15.1	9.3	16.1	6.5	17.5	9.0
미추홀구	22.0	32.0	-0.2	37.0	15.5	42.9	16.0	45.2	5.5
연수구	32.1	21.1	-4.4	22.3	5.8	24.8	10.9	27.6	11.4
남동구	22.1	28.3	0.7	29.2	3.3	31.3	7.0	34.5	10.2
부평구	28.1	10.5	-1.2	11.3	7.3	12.7	12.6	13.4	5.7
계양구	10.6	20.3	-7.0	20.7	1.5	22.8	10.5	24.9	9.2
서구	21.9	22.3	1.3	25.6	15.0	28.6	11.4	31.5	10.4
강화군	11.9	11.0	-7.8	12.4	13.5	14.9	20.0	16.6	11.3
옹진군	10.5	9.5	-9.7	14.3	50.3	19.4	36.3	29.9	53.7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출처 : 통계청. 법무부.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https://kosis.kr)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다문화 가구 현황을 보면, 전국의 다문화 가구는 2020년 367,775명에서 2024년 439,304명으로 증가하였고, 인천시의 다문화 가구는 2020년 25,449명에서 2024년 32,936명으로 증가함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다문화 가구 수를 보면, 부평구가 7,93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6,196가구, 남동구 5,158가구, 미추홀구 4,908가구, 연수구 3,043가구, 계양구 2,361가구, 중구 2,162가구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옹진군의 다문화 가구는 113가구로 인천시 내에서 가장 적었으나, 전년 대비 10.8%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23년 대비 2024년 다문화 가구 증가율을 보면, 전국의 다문화 가구는 5.7% 증가하였으며, 인천시의 다문화 가구는 8.3% 증가함. 인천시의 외국인 유입과 국제결혼, 이주가정 정착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2023년 대비 2024년 다문화 가구 증가율은 중구(11.2%)가 가장 높았으며, 미추홀구(10.8%), 옹진군(10.8%), 부평구(9.7%), 연수구(9.3%), 서구(7.6%), 강화군(6.0%), 남동구(5.6%), 계양구(5.4%), 동구(0.7%) 순이었음. 원도심 및 도서지역에서 다문화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2-28]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다문화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전국	367,775	385,219	4.7	399,396	3.7	415,584	4.1	439,304	5.7
인천시	25,449	27,075	6.4	28,657	5.8	30,406	6.1	32,936	8.3
중구	1,479	1,602	8.3	1,784	11.4	1,944	9.0	2,162	11.2
동구	503	524	4.2	522	-0.4	594	13.8	598	0.7
미추홀구	3,724	3,983	7.0	4,237	6.4	4,431	4.6	4,908	10.8
연수구	2,314	2,497	7.9	2,534	1.5	2,785	9.9	3,043	9.3
남동구	4,339	4,601	6.0	4,781	3.9	4,883	2.1	5,158	5.6
부평구	6,147	6,500	5.7	6,911	6.3	7,234	4.7	7,937	9.7
계양구	2,066	2,123	2.8	2,191	3.2	2,239	2.2	2,361	5.4
서구	4,396	4,746	8.0	5,187	9.3	5,760	11.0	6,196	7.6
강화군	388	403	3.9	418	3.7	434	3.8	460	6.0
옹진군	93	96	3.2	92	-4.2	102	10.9	113	10.8

주 : 1) 다문화 가구 :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구
2) 증감률 :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2024

6) 저소득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전국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인천시는 수급자 비중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 수급자 비중은 2020년 6.7%, 2021년 6.7%, 2022년 6.8%, 2023년 6.8%, 2024년 6.9%로 점진적으로 증가함
  - 2024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경기가 1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16.6%, 부산 9.1%, 인천과 경남이 각각 6.9%, 대구 6.0%, 경북과 전북이 각각 5.9% 순으로 나타남. 이는 수급자 비중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 세종은 0.4%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제주 1.4%, 울산 1.7%로 수급자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됨. 이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 형성, 산업화 도시의 높은 평균 임금, 관광 사업 등과 같은 특수한 산업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표 2-29]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국	2,134,186	100.0	2,359,672	100.0	2,451,458	100.0	2,554,627	100.0	2,673,485	100.0
서울시	369,518	17.3	402,632	17.1	412,409	16.8	427,880	16.7	443,952	16.6
부산시	196,299	9.2	217,335	9.2	227,066	9.3	234,657	9.2	243,110	9.1
대구시	131,374	6.2	144,092	6.1	148,146	6.0	154,802	6.1	161,699	6.0
인천시	142,628	6.7	159,186	6.7	166,083	6.8	174,116	6.8	184,260	6.9
광주시	84,762	4.0	91,548	3.9	94,137	3.8	96,473	3.8	100,201	3.7
대전시	66,775	3.1	72,908	3.1	75,140	3.1	77,554	3.0	80,729	3.0
울산시	33,232	1.6	38,575	1.6	41,510	1.7	43,817	1.7	46,345	1.7
세종시	7,107	0.3	7,880	0.3	8,165	0.3	8,607	0.3	9,369	0.4
경기도	379,725	17.8	422,615	17.9	443,985	18.1	474,086	18.6	506,929	19.0
강원도	78,554	3.7	84,114	3.6	85,681	3.5	86,667	3.4	89,150	3.3
충북	69,262	3.2	76,619	3.2	78,709	3.2	81,577	3.2	84,716	3.2
충남	75,720	3.5	84,802	3.6	88,800	3.6	92,992	3.6	97,896	3.7
전북	115,182	5.4	125,438	5.3	128,522	5.2	131,557	5.1	135,324	5.1
전남	92,666	4.3	101,475	4.3	104,064	4.2	107,240	4.2	110,861	4.1
경북	125,106	5.9	141,175	6.0	147,353	6.0	151,253	5.9	157,471	5.9
경남	137,605	6.4	156,832	6.6	168,197	6.9	176,280	6.9	184,319	6.9
제주도	28,671	1.3	32,446	1.4	33,491	1.4	35,069	1.4	37,154	1.4

출처 : 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20~2024

□ 저소득 가정 수급률

- 2024년 기준 인천시의 전체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6.1%,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은 2.2%로 나타남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차상위계층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폭 증가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군·구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남동구가 7.8%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연수구는 3.3%로 가장 낮음. 두 지역 간의 격차는 4.5%p로, 지역별 수급자 비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됨. 차상위계층 수급 비율은 미추홀구 2.8%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연수구는 1.1%로 가장 낮음. 두 지역 간의 격차는 1.7%p로 나타남
  - 기초생활 수급률의 경우 남동구는 2020년 5.4%에서 2024년 7.8%로 2.4%p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천시 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높음
  - 미추홀구는 2020년 5.6%에서 2024년 7.5%로 1.9%p 증가함
  - 반면, 연수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차상위계층 수급 비율은 오히려 감소함
  - 옹진군은 차상위계층 비율이 2020년 2.6%에서 2024년 2.7%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율

보다 차상위 수급률이 높은 지역으로 구분됨. 이는 토지 소유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며,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함

- 계양구와 부평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수급률이 지속적인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계양구는 202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5.1%에서 2024년 6.9%로 1.8%p 상승하며,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30] 인천시 군·구별 저소득 가정의 수급률 변화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초보장	차상위	기초보장	차상위	기초보장	차상위	기초보장	차상위	기초보장	차상위
인천	4.9	2.0	5.4	2.2	5.6	2.2	5.8	2.2	6.1	2.2
중구	4.5	1.6	5.1	1.8	5.2	1.8	5.4	1.8	5.5	1.7
동구	5.7	2.2	6.4	2.5	6.4	2.4	6.5	2.5	6.7	2.4
미추홀구	5.6	2.3	6.3	2.6	6.7	2.7	7.1	2.8	7.5	2.8
연수구	3.1	1.2	3.3	1.2	3.3	1.2	3.3	1.1	3.3	1.1
남동구	5.4	2.3	6.2	2.5	6.6	2.6	7.2	2.7	7.8	2.8
부평구	5.9	2.1	6.5	2.3	6.6	2.3	6.7	2.3	6.8	2.2
계양구	5.1	2.5	5.8	2.5	6.1	2.5	6.5	2.6	6.9	2.6
서구	3.8	1.8	4.3	1.9	4.4	1.9	4.5	1.9	4.9	1.9
강화군	5.9	2.3	6.3	2.3	6.4	2.2	6.6	2.2	6.8	2.2
옹진군	3.3	2.6	3.4	2.6	3.6	2.8	3.5	2.8	3.5	2.7

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지자체 인구 수)×100, (차상위 수급자 수/지자체 인구 수)×100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https://www.bokjiro.go.kr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기초연금 수급률

- 전국 평균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0년 대비 2024년 -1.2% 감소한 반면, 서울과 부산, 대구는 증가, 인천은 (-0.9%) 감소함
- 특별·광역시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4년 인천이 70.8%로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70.8%), 대구(69.5%) 순임. 반면 세종(53.8%)과 서울(54.1%)의 수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인천(70.81%), 부산(70.76%), 대구(69.50%)는 70% 정도의 높은 기초연금 수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해석됨
  - 광주(65.43%), 대전(64.03%), 울산(63.98%)은 기초연금 수급율이 60% 중반 정도의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 대비 감소세를 보임
  - 서울(54.08%), 세종(53.75%)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은 지역으로,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령층의 자산 보유율이 높아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20년 대비 2024년 기초연금 수급률의 경우 대구가 0.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 0.6%, 부산 0.5%순임. 이에 반해 동기간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세종 -7.2%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대전 -2.0%, 광주 -1.6%, 인천 -0.9% 순으로 나타남

[표 2-31] 특별·광역시 기초연금 수급률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국	66.3	67.2	67.0	66.5	65.6	-1.2
서울	53.8	54.9	54.8	54.4	54.1	0.6
부산	70.4	71.7	71.9	71.6	70.8	0.5
대구	68.9	69.5	69.8	70.1	69.5	0.8
인천	71.4	72.4	72.2	71.6	70.8	-0.9
광주	66.5	67.0	66.9	66.4	65.4	-1.6
대전	65.3	65.7	65.4	65.2	64.0	-2.0
울산	64.3	65.5	65.7	65.3	64.0	-0.5
세종	57.9	57.6	56.2	55.1	53.8	-7.2

주 : 1) 기초연금 수급률 = (기초연금 수급자 수/만 65세 이상 인구 수)×100
2) 증감률: 2020 대비 2024 증감률
출처 : 보건복지부(2025), 2024년 지역사회보장지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www.bokiiro.go.kr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기초연금 수급률은 동구가 8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계양구 75.4%, 미추홀구 75.2%, 부평구 71.7%, 남동구 71.6% 서구 71.1% 순임
  - 반면 연수구는 55.5%로 가장 낮은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강화군 66.0%, 옹진군69.4%, 중구 69.8% 순임
- 2020년 대비 2024년 기초연금 증감률은 중구 2.4%, 동구 2.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미출홀구는 동기간 -8.2%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옹진군 -3.6%, 서구 -1.6%, 계양구 -1.3% 순임

[표 2-32] 인천시 군·구별 기초연금 수급률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인천	71.4	72.4	72.2	71.6	70.8	-0.9
중구	68.1	69.8	70.1	69.9	69.8	2.4
동구	80.0	82.6	83.1	82.6	81.8	2.3
미추홀구	74.3	75.5	76.0	75.7	75.2	1.3
연수구	60.5	60.0	58.9	57.2	55.6	-8.2
남동구	71.6	72.6	72.6	72.2	71.6	0.1
부평구	71.9	73.2	73.1	72.6	71.7	-0.3
계양구	76.4	77.3	77.0	76.5	75.4	-1.3
서구	72.3	73.1	72.4	71.9	71.1	-1.6
강화군	66.6	67.4	67.2	66.8	66.0	-0.9
옹진군	72.0	71.8	70.1	69.8	69.4	-3.6

주 : 1) 기초연금 수급률 = (기초연금 수급자 수/만 65세 이상 인구 수)×100
2) 증감률: 2020 대비 2024 증감률
출처 : 보건복지부(2025), 2024년 지역사회보장지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www.bokiiro.go.kr

□ 장애인연금 수급률

- 2025년(9월) 특별·광역시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광주가 7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 74.7%, 대구 73.5%, 대전 72.6%, 인천 68.3% 순으로 5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20년 대비 2024년 장애연금 수급률은 세종 -6.5%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천이 -2.9%로 2번 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심한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수급률의 감소는 저소득 장애인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33] 특별·광역시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9월)	증감률
서울	67.3	66.7	65.2	64.5	65.6	65.7	-2.4
부산	76.7	75.8	74.7	74.1	74.5	74.7	-2.6
대구	74.1	73.8	72.9	73.0	73.5	73.5	-0.8
인천	70.3	69.3	68.1	67.6	68.2	68.3	-2.9
광주	75.9	76.0	75.1	74.9	75.3	75.1	-1.0
대전	73.7	73.3	72.2	72.7	72.4	72.6	-1.5
울산	66.9	66.7	64.8	64.8	65.5	65.4	-2.2
세종	65.2	63.2	62.5	61.4	61.5	61.0	-6.5

주 :1) 장애연금 수급률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장애인연금 대상자 수)×100
2) 증감률: 2020 대비 2025 증감률
출처 : 보건복지부(2025), 2024년 지역사회보장지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www.bokiiro.go.kr

- 2025년(9월)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연금 수급률을 살펴보면, 옹진군이 76.6%로 가장 높았고, 연수구가 64.2%로 가장 낮았음
  -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옹진군 7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화군 74.37%, 남동구 71.2%, 동구 70.3%, 계양구 69.5%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연수구 64.2%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중구 64.8%, 서구 66.9%, 부평구 67.3%, 미추홀구 67.9%로 인천시 평균보다 낮았음
- 2020년 대비 2025년(9월)의 장애인연금 증감률을 살펴보면, 남동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남동구는 2020년 대비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증가한 유일한 지역이며, 강화군은 동기간 -8.0%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옹진군이 -4.8%, 연수구 -4.4%, 계양구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4]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9월)	증감률
인천시	70.3	69.3	68.1	67.6	68.2	68.3	-2.9
중구	66.1	64.8	66.3	66.6	65.3	64.8	-1.9
동구	73.4	73.0	69.5	69.8	70.4	70.3	-4.1
미추홀구	70.8	68.7	66.5	66.7	67.8	67.9	-4.0
연수구	67.1	65.7	64.5	62.6	64.2	64.2	-4.4
남동구	71.0	71.1	70.1	70.0	70.8	71.2	0.3
부평구	69.0	68.4	67.4	67.0	66.9	67.3	-2.5
계양구	72.6	71.1	70.3	68.5	69.4	69.5	-4.3
서구	68.0	67.0	66.1	65.7	66.8	66.9	-1.6
강화군	80.8	78.0	75.6	74.7	75.0	74.4	-8.0
옹진군	80.5	79.9	77.6	79.6	78.6	76.6	-4.8

주 : 1) 수급률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장애인연금 대상자 수)×100
2) 증감률 : 2020 대비 2025 증감률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www.bokjiro.go.kr,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10)]

- 2024년 12월 인천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수급자의 비율이 58.0%로 등록장애인 10명 중 약 6명이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심한 장애인은 26,559명으로 58.0%이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9,254명으로 42.0% 수준임
-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수급률은 강화군 6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옹진군 67.7%, 연수구 61.2%, 서구 60.0%, 부평구 58.5% 순임. 이중 부평구는 등록장애인수가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동시에 수급자 비율도 인천시 평균인 58.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에 반해 중구의 경우 수급자 수가 강화와 옹진, 동구 다음으로 낮은수준이며, 수급자 비율은 54.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10)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4급, 5급, 6급)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하는 제도임

[표 2-35]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 현황(2024)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인구(A)	수급자(B)		심한 장애(C)		심하지 않은 장애(D)	
		빈도	비율(B/A)	빈도	비율(C/B)	빈도	비율(D/B)
인천시	152,707	45,813	58.0	26,559	58.0	19,254	42.0
중 구	7,145	1,970	54.1	1,065	54.1	905	45.9
동 구	4,703	1,351	57.1	771	57.1	580	42.9
미추홀구	23,906	7,016	55.1	3,864	55.1	3,152	44.9
연수구	14,216	3,797	61.2	2,325	61.2	1,472	38.8
남동구	26,776	9,156	55.7	5,097	55.7	4,059	44.3
부평구	27,395	8,718	58.5	5,096	58.5	3,622	41.6
계양구	14,739	4,457	57.4	2,558	57.4	1,899	42.6
서 구	26,420	7,183	60.0	4,309	60.0	2,874	40.0
강화군	5,833	1,735	68.2	1,183	68.2	552	31.8
옹진군	1,574	430	67.7	291	67.7	139	32.3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www.bokjiro.go.kr, 통계청 장애인현황 https://kosis.kr

7) 한부모 가구

- 2024년 인천시 한부모가구는 특별·광역시 중에서 서울이 280,930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113,103가구, 인천 103,032가구 순으로 인천이 3번째로 많은 지역임
- 한편, 한부모 가구는 2020년 대비 2024년 전국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기간 세종은 10.8%, 인천은 0.4% 증가함

[표 2-36] 특별·광역시 한부모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국	1,532,751	1,509,958	1,494,067	1,493,042	1,490,965	-2.7
서울시	298,389	290,818	285,878	283,702	280,930	-5.9
부산시	120,854	118,178	115,532	114,534	113,103	-6.4
대구시	80,093	77,781	76,262	76,348	75,745	-5.4
인천시	102,594	101,665	101,386	102,491	103,032	0.4
광주시	46,670	45,808	45,102	45,018	44,769	-4.1
대전시	44,341	43,401	42,739	42,564	42,366	-4.5
울산시	29,753	29,223	28,811	28,832	28,598	-3.9
세종시	5,948	6,111	6,304	6,403	6,590	10.8

주 : 1) 한부모 : 미혼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및 사별 인 모 또는 부 (원거리 거주 부부 제외)
2)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5년 증감률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 고용·노동 현황

1) 경제활동 참가율

- 2024년 인천시는 특별·광역시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65.6%로 세종 6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노동력 공급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즉,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생산가능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임
-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인천시는 특별·광역시 중 경제가 성잘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하는 것임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7.2%로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점은 지역내 일자리 접근성, 보육 인프라, 산업 구조 등이 여성 친화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표 2-37] 특별·광역시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62.5	72.6	52.8	62.8	72.6	53.3	63.9	73.5	54.6	64.3	73.3	55.6	64.5	72.9	56.3	3.2	0.4	6.6
서울	62.1	70.8	54.3	62.3	70.8	54.5	62.5	71.1	54.8	62.8	70.8	55.6	63.7	71.2	56.8	2.6	0.6	4.6
부산	58.1	67.2	49.6	58.2	67.5	49.5	58.9	68.4	50.1	59.6	69.3	50.6	59.6	68.2	51.6	2.6	1.5	4.0
대구	58.9	69.8	48.7	60.5	70.9	50.8	60.9	70.8	51.7	61.7	71.3	52.6	60	69.3	51.3	1.9	-0.7	5.3
인천	64.2	74.1	54.6	63.9	74.2	53.8	64.8	74.9	55	65.2	74.6	55.9	65.6	74.3	57.2	2.2	0.3	4.8
광주	61	69.7	52.8	60.3	69.3	51.7	60.4	69.5	51.7	61.6	70	53.7	62.5	70.9	54.3	2.5	1.7	2.8
대전	63.4	73.1	54.0	63	72.5	53.7	63.1	73.1	53.4	63.4	72.4	54.6	62.5	71.1	54.1	-1.4	-2.7	0.2
울산	60.7	74.0	46.8	59.8	71.5	47.6	61.1	72.8	48.8	61.9	73	50.2	62.1	73.1	50.5	2.3	-1.2	7.9
세종	64.5	75.8	53.2	64.0	75.2	52.6	65	77.2	53.1	65.9	76.5	55.6	66.4	75.9	57.1	2.9	0.1	7.3

주 :1)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인구)×100
3) 증감률: 2020 대비 2024 증감률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고용률

- 2024년 특별·광역시 중 인천시의 고용률은 63.5%로 특별·광역시 중 세종(6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전국 특별·광역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안전성과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65.2%, 인천 63.5%, 서울 61.7%, 광주·대전 각 60.6%, 울산 59.8%, 대구 58.0%, 부산 57.8%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남성 고용률은 세종 7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 72.0%, 울산 70.5%, 서울과 대전 각 69.0%, 광주 68.7%, 대구 67.0%, 부산 66.4% 순으로 나타남
- 여성 고용률은 세종이 55.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서울과 인천이 각각 55.2%, 광주 52.8%, 대전 52.5%, 부산 49.9%, 대구 49.5%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2024년 전국 평균 증가률은 4.3%인데 비해 인천시는 3.6%로 0.7%p 낮은 수준이며, 특별·광역시 중에는 서울과 부산, 세종이 각 4.0%의 증가률을 보였으며, 인천시는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38] 특별·광역시 고용률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60.1	69.8	50.7	60.5	70	51.2	62.1	71.5	52.9	62.6	71.3	54.1	62.7	70.9	54.7	4.3	1.6	7.9
인천	61.3	70.8	52	61.3	71.1	51.7	62.7	72.5	53.1	63.1	72.3	54.1	63.5	72.0	55.2	3.6	1.7	6.2
서울	59.3	67.8	51.6	59.2	67.5	51.8	60.4	68.7	52.9	61.1	69.0	54.0	61.7	69.0	55.2	4.0	1.8	7.0
부산	55.6	64.3	47.6	56.2	65.2	47.9	57.1	66.3	48.6	57.7	67.4	48.8	57.8	66.4	49.9	4.0	3.3	4.8
대구	56.6	67.2	46.8	58.2	68.2	48.9	59.1	69	49.9	59.8	69.2	51.0	58.0	67.0	49.5	2.5	-0.3	5.8
광주	58.7	66.9	50.8	58.2	66.9	49.8	58.6	67.6	50.1	60.1	68.2	52.4	60.6	68.7	52.8	3.2	2.7	3.9
대전	60.7	69.9	51.7	60.9	70.2	51.8	61.6	71.6	51.9	61.6	70.3	53.2	60.6	69	52.5	-0.2	-1.3	1.5
울산	58.1	71.0	44.7	57.7	69.1	45.7	59.2	70.6	47.1	59.7	70.5	48.4	59.8	70.5	48.5	2.9	-0.7	8.5
세종	62.7	73.8	51.6	62.6	73.9	51.3	63.7	75.7	52.1	64.6	75.4	54.0	65.2	75.2	55.5	4.0	1.9	7.6

주 :1)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3) 증감률: 2020 대비 2024 증감률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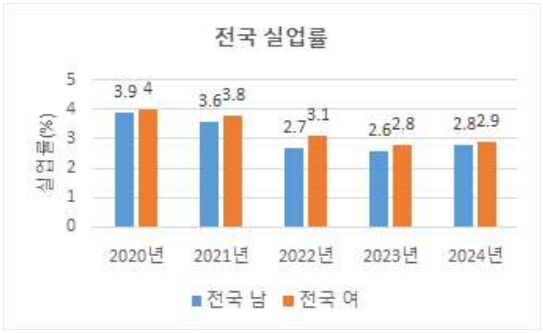
3)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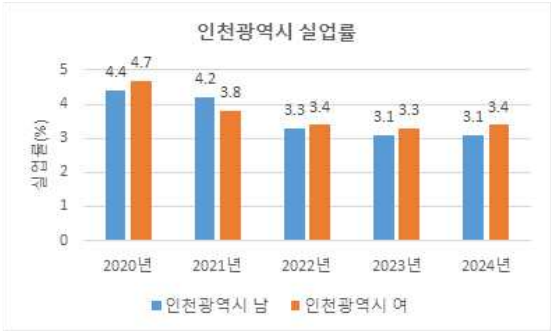
□ 전체 실업률

● 2020년에서 2024년 전국과 인천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업률은 인천이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전국 평균 실업률은 2.8%인데 비해 인천은 3.3%로 인천이 전국에 비해 0.5%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성별로 살펴보면 2024년 인천시 남성 실업률은 전국 평균 2.8%에 보다 0.3%p 높은 3.1%이며, 여성 실업률은 전국 평균 2.9%보다 0.5%p 높은 3.4%로 나타남

[그림 2-11] 전국과 인천광역시 실업률 변화 비교





[표 2-39] 전국과 인천시 실업률

(단위: %)

	전국평균			인천시 평균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20년	4.0	3.9	4.0	4.6	4.4	4.7
2021년	3.7	3.6	3.8	4.0	4.2	3.8
2022년	2.9	2.7	3.1	3.3	3.3	3.4
2023년	2.7	2.6	2.8	3.2	3.1	3.3
2024년	2.8	2.8	2.9	3.3	3.1	3.4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실업률

- 청년실업률은 만 15세부터 29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특별·광역시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인천시는 2024년 청년실업률이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특별·광역시 중 2024년 전년 대비 청년실업률이 감소한 지역은 부산이-2.2%p, 세종 -1.6%p 감소한 반면, 인천시는 0.7%p 증가함
  - 2024년 인천시 청년실업률은 7.2%로 울산 9.7%, 대구 8.9%, 광주 7.6% 다음인 4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20년 대비 2024년 청년실업률의 증감률을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 -34.4% 감소한 반면, 인천은 -16.3% 감소함
  - 동기간 가장 많은 감소률을 보인 지역은 부산 -44.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 -44.0%, 세종 -37.7%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감소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2-40] 특별·광역시 청년실업률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국	9.0	7.8	6.4	5.9	5.9	-34.4
서울	9.1	9.0	6.8	5.1	5.1	-44.0
부산	10.6	7.7	6.8	8.1	5.9	-44.3
대구	9.0	7.1	6.9	6.3	8.9	-1.1
인천	8.6	7.9	6.7	6.5	7.2	-16.3
광주	8.8	7.7	6.5	5.6	7.6	-13.6
대전	7.7	6.9	4.4	6.0	6.0	-22.1
울산	11.6	8.0	7.8	9.7	9.7	-16.4
세종	7.7	3.9	3.1	6.4	4.8	-37.7

주 :1) 청년실업률은 15~29세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 증감률: 2020 대비 2024증감률
출처 : 통계청, kosisi.kr/실업률(시도).

4)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 특별·광역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인천시는 2019년 3.5%로 부산(3.6%)과 광주(3.6%)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5년 후인 2024년 광주(4.1%), 대전(3.9%), 부산(3.8%)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인천은 특별 · 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2019년 대비 2024년 증감률은 4.6%로 대구(3.5%) 다음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표 2-41] 특별·광역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단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증감률
서울	2.6	2.8	2.9	2.9	3.7	40.9
부산	3.6	3.7	3.9	3.9	3.8	5.9
대구	3.4	3.6	3.7	3.5	3.5	3.5
인천	3.5	3.6	3.5	3.6	3.7	4.6
광주	3.6	3.6	3.8	3.9	4.1	12.2
대전	3.3	3.3	3.3	3.5	3.9	17.7
울산	2.9	3.0	3.1	3.1	3.1	7.3
세종	3.1	3.0	3.5	3.5	3.4	10.3

주 : 1) 의무고용율=장애인 근로자 수/관내 적용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100
2) 증감률 : 2019년 대비 2024년
3) 2023년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제시하지 못함
출처 : 보건복지부(2025), 2024년 지역사회보장지표, 2024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별 장애인 고용현황(2024)

-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동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계양구가 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화군 5.8%, 미추홀구 4.7%, 부평구 3.9%, 서구 3.7% 순임

- 이에 반해 동구 2.4%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중구 3.1%, 연수구 3.2%로 낮은 수준임

● 2019년 대비 2024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강화군이 34.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계양구 14.6%, 연수구 12.5%, 부평구 10.8% 순임

- 계양구는 고용률이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임

[표 2-42]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단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증감률*
인천시	3.5	3.6	3.5	3.6	3.7	4.6
중구	3.0	3.1	3.1	3.3	3.1	2.0
동구	2.5	2.5	2.6	2.3	2.4	-3.3
미추홀구	4.5	4.4	4.3	4.3	4.7	4.7
연수구	2.8	3.0	2.6	2.8	3.2	12.5
남동구	3.5	3.5	3.4	3.6	3.6	3.2
부평구	3.5	3.6	3.9	4.0	3.9	10.8
계양구	5.5	5.3	5.1	5.3	6.3	14.6
서구	3.6	3.7	3.5	3.9	3.7	3.1
강화군	4.3	4.7	5.9	4.3	5.8	34.3
옹진군	-	-	-	-	-	-

주 :1) 의무고용율=장애인 근로자 수/관내 적용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100
2) 증감률 : 2019년 대비 2024년
3) 2023년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제시하지 못함
출처 : 보건복지부(2025), 2024년 지역사회보장지표, 2024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별 장애인 고용현황(2024)

□ 경력 단절 여성 비율

● 특별·광역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대전과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20년 대비 2024년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광주가 -22.7%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대구 -14.9%, 서울 -12.5% 인데 반해 인천은 동기간 1.2% 증가함

● 2024년 특별·광역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세종 1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과 대구 18.9%, 인천 17.8%로 4번째로 높은 수준임

-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여성의 높은 실업률과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 할 때,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2-43] 특별·광역시 경력단절 여성 비율의 변화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서울	15.4	16.7	16.1	13.6	13.5	-12.5
부산	17.9	16.1	16.8	18.3	16.1	-9.8
대구	22.2	19.9	18.9	18.9	18.9	-14.9
인천	17.6	15.4	16.8	16.7	17.8	1.2
광주	19.0	18.2	18.2	14.9	14.7	-22.7
대전	15.9	16.3	19.7	17.9	16.2	2.2
울산	21.0	18.8	20.0	21.8	18.9	-10.0
세종	21.1	22.2	24.0	20.8	19.5	-7.8

주 : (장애인 근로자 수/관내 적용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100
출처 : 보건복지부(2025), 2024년 지역사회보장지표

3. 보건의료

1) 정신건강

□ 자살률

-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OECD 평균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4년 OECD 평균 자살률은 평균 10.8명 인데 비해 한국은 29.1명으로 OECD 평균보다 18.3명 많고,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2024년 인천시 자살률 평균은 전국(29.1명) 보다 2.1명 높은 31.2명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 비해서도 2.4면 증가하였음. 특히 전국에 비해 남성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기준 군·구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미추홀구가 37.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남동구 35.8명, 계양구 33.0명, 부평구 31.0명 순으로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반면, 강화군과 옹진군은 자살자가 0명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외 연수구 25.1명, 서구 27.6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2024년 성별 자살률을 보면, 남성 자살률은 55.3명으로 미추홀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동구 51.9명, 부평구 49.7명, 계양구 49.1명 순으로 나타남. 여성 자살률은 동구가 20.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남동구 20.0명, 미추홀구 19.3명 순으로 나타남. 이는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특정 지역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등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정신건강 취약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 남성 자살률의 급증은 경제적 불안정, 정신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고위험군 조기 발굴 등의 예방 중심적 접근이 요구됨

[표 2-44]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자살률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25.7	35.5	15.9	26.0	35.9	16.2	25.2	35.3	15.1	27.3	38.3	16.5	29.1	41.8	16.6
인천시	26.5	37.0	15.9	25.9	34.5	17.3	25.8	35.0	16.6	28.8	40.8	16.8	31.2	45.9	16.6
중구	33.2	44.1	21.4	28.5	39.8	16.3	21.7	31.4	11.3	33.6	47.4	18.8	28.4	41.8	14.1
동구	16.0	22.2	9.7	29.4	48.6	9.9	21.7	29.9	13.5	35.6	47.3	23.8	30.7	40.9	20.5
미추홀구	29.2	46.0	12.0	33.9	46.0	21.6	28.0	37.9	17.9	37.7	57.2	17.9	37.4	55.3	19.3
연수구	19.0	23.1	14.9	22.0	30.3	13.9	22.3	28.7	15.9	20.7	25.5	15.9	25.1	34.3	16.1
남동구	30.1	46.1	14.4	25.3	32.3	18.4	30.4	43.1	17.9	2.09	40.2	18.0	35.8	51.9	20.0
부평구	25.9	34.2	17.9	28.0	35.8	20.3	25.4	34.7	16.3	31.9	44.5	19.7	31.0	49.7	12.8
계양구	25.2	33.7	16.8	23.5	32.1	14.9	27.9	37.3	18.5	28.3	38.4	18.3	33.0	49.1	17.1
서구	27.4	36.4	18.3	21.4	27.6	15.2	24.2	31.3	17.0	23.5	34.2	12.7	27.6	38.7	16.4
강화군	21.8	26.2	17.5	29	40.5	17.4	20.2	31.7	8.6	-	-	-	-	-	-
옹진군	24.6	43.2	-	24.7	26.0	22.9	14.7	17.2	11.4	-	-	-	-	-	-

주 :1)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2)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자살(고의적 자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 수
3) 자살률=(자살 사망자 수÷주민등록인구)×100,000
출처 : 통계청, 인구십만명당 자살률

□ 스트레스 인지율

- 스트레스 인지율은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는 사람의 비율임
  - 2020년 대비 2024년 인천시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동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동기간 감소율은 계양구 -40.6%로 가장 높은 감소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평구 -32.7%, 서구 -25.8% 수준임. 이에 반해 남동구는 동기간 0.7% 증가함
  -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0년 32.8%, 2021년 29.5%, 2022년 26.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와 직후에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2024년 기준 군·구별 스테레스 인지율은 미추홀구가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동구 28.6%, 옹진군 27.8% 순으로 나타남

[표 2-45] 인천시 군·구별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인천시	32.8	29.5	26.3	27.0	25.5	-22.3
중구	28.4	26.2	26.8	27.1	24.3	-14.4
동구	32.1	21.8	22.3	28.3	25.7	-19.9
미추홀구	36.1	30.7	27.6	28.0	28.9	-19.9
연수구	29.4	29.2	23.2	27.9	22.9	-22.1
남동구	28.4	29.0	24.3	27.6	28.6	0.7
부평구	35.2	31.8	32.2	25.3	23.7	-32.7
계양구	34.7	32.6	29.3	24.4	20.6	-40.6
서구	36.1	28.9	23.8	28.2	26.8	-25.8
강화군	23.6	19.3	20.8	20.9	22.8	-3.4
옹진군	29.3	26.6	22.0	25.7	27.8	-5.1

주 :1)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2)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는 사람의 비율
3)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4년
출처 : 통계청, 질병관리청, 스트레스인지율

□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

-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은 스스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2024년 기준 인천시는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임. 이는 인천시가 타 광역시와 빅할 때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지역임을 보여줌

- 인천시는 2018~2019년 낮은 수준(30%대 후반)을 유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시기 급상승(50.3%)함.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24년에는 45.1%로 나타났으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임. 전체적으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음
- 이는 원도심 및 도서지역의 생활환경, 의료 접근성, 고령화 구조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표 2-46] 특별·광역시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

(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45.8	44.5	60.2	54.5	53.7	51.6
부산	40.4	40.4	54.1	49.5	47.0	47.9
대구	40.5	41.6	57.7	50.0	48.3	54.1
인천	36.5	38.2	50.3	46.8	47.4	45.1
광주	40.9	41.3	60.7	48.2	50.8	56.7
대전	48.0	52.4	63.4	58.3	59.6	59.7
울산	47.0	43.8	54.6	48.2	45.1	46.1
세종	43.6	44.7	50.5	62.1	49.8	48.1

주 : 개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은 주관적 인식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출처 : 통계청,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 인천시 군·구별 주관적 건강 상태 인지율은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일부 지역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 동구는 2022년 44.8%에서 2023년 39.8%로 전년 대비 5.0%p 감소, 2024년도에도 39.3%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이는 10개 군·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원도심 지역의 취약한 생활환경과 건강인식 저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연수구, 계양구 등 신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지역(강화군, 옹진군)은 변동성이 있으나 대체로 인천시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표 2-47] 군·구별 주관적 건강 상태 인지율

(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천시	36.5	38.2	50.3	46.8	47.4	45.1
중구	42.7	35.1	50.2	41.6	39.0	42.9
동구	31.9	29.7	41.5	44.8	39.8	39.3
미추홀구	33.5	37.6	52.4	44.2	46.6	47.6
연수구	38.4	40.3	51.5	48.3	47.8	51.0
남동구	37.9	45.3	51.9	40.9	44.7	39.7
부평구	34.8	35.5	47.5	42.7	39.5	43.6
계양구	42.8	36.7	52.8	51.3	49.0	49.2
서구	33.9	36.1	48.2	55.0	58.6	44.2
강화군	34.2	33.3	50.2	54.8	46.2	43.8
옹진군	40.0	42.3	53.7	42.7	43.7	45.9

주 : 개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은 주관적 인식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출처 : 통계청,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 의료서비스

□ 의료기관 병상 수

- 2023년 인천시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11.9개로 전국 평균(13.8개)보다 1.9개 적었음
  - 2019년 대비 2023년 전국의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1.5% 증가한 반면, 인천은 동기간 2.6% 증감함. 그러나 2024년 인천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11.9개로 전국 13.8개에 비해 1.9개 적은 수준임
- 인천시 군·구별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수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은데, 2023년 기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15.9개소)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4.2개소)으로 두 지역 간 격차는 11.7개소임
  - 군·구별로는 남동구 15.9개소, 미추홀구 15.8개소, 계양구 15.5개소, 강화군 15.4개소가 상위권을 차지함. 반면, 옹진군 4.2개소, 연수구 5.2개소, 부평구 8.6개소는 낮은 수준을 기록함
  - 2019년 대비 2023년 증감률은 계양구가 19.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옹진군 16.7%, 남동구 14.4% 순임. 이에 반해 중구는 -15.1%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평구 -13.1%, 동구 -7.3% 순으로 나타남

[표 2-48] 전국과 인천시 군·구별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단위: 개,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전국	13.6	13.8	14.0	14.1	13.8	1.5
인천시	11.6	11.9	12.3	12.4	11.9	2.6
중구	15.9	15.8	15.3	14.5	13.5	-15.1
동구	12.4	13.2	12.7	11.9	11.5	-7.3
미추홀구	14.9	15.8	16.6	16.2	15.8	6.0
연수구	5.2	4.9	5.0	5.8	5.2	0.0
남동구	13.9	14.3	15.4	15.6	15.9	14.4
부평구	9.9	9.8	10.0	9.9	8.6	-13.1
계양구	13.0	13.8	14.5	15.3	15.5	19.2
서구	10.6	11.7	11.6	11.4	10.9	2.8
강화군	14.1	12.7	13.0	13.4	15.4	9.2
옹진군	3.6	3.6	4.2	4.2	4.2	16.7

주 :1)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 (총 병상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
2) 병상 수: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병상 수
3) 증감률은 2019년 대비 2023년
출처: 통계청, https://kosis.kr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

□ 의료기관 의사 수

- 2024년 인천시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는 2.7명으로 전국 평균 3.2명 보다 비해 0.5명 적은 수준임
  - 2020년 대비 2024년 인천시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의사수는 8.0%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6.7%에 비해 1.2%p 높은 증가율을 보임. 이는 인천시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 확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2024년 인천시 군·구별로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의사수가 가장 많은 남동구(3.5명)와 가장 적은 강화군(1.9명) 간의 격차는 1.6명임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의사수는 남동구(3.5명), 중구(3.3명), 동구(3.1명), 옹진군(3.0명), 부평구·계양구(각 2.9명) 순인 반면, 강화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9명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구는 동 기간 1.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9]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국	3.0	3.1	3.2	3.2	3.2	6.7
인천시	2.5	2.6	2.6	2.7	2.7	8.0
중구	4.5	4.3	4.2	4.2	3.3	-26.7
동구	2.7	2.7	2.8	2.9	3.1	14.8
미추홀구	2.3	2.2	2.2	2.4	2.6	13.0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연수구	1.7	1.9	2.1	2.1	2.3	35.3
남동구	3.2	3.4	3.5	3.7	3.5	9.4
부평구	2.7	2.8	2.9	2.9	2.9	7.4
계양구	2.4	2.5	2.6	2.8	2.9	20.8
서구	2.1	2.1	2.1	2.2	2.3	9.5
강화군	1.9	1.9	1.9	1.9	1.9	0.0
옹진군	2.8	2.7	2.8	2.8	3.0	7.1

주 :1)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
2) 증감률은 2020년 대비 2024년
출처 : 통계청, https://kosis.kr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

3) 미충족 의료율

- 2024년 인천시 미충족 의료율 5.9%로, 2020년 7.5% 대비 21.3% 감소했지만 군·구별 경향은 상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2024년 미충족 의료율은 동구의 경우 -51.6%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계양구 -49.4%, 부평구 -42.5%, 연수구 -37.5% 감소한 반면, 동기간 중구는 111.1% 미충족 의료율이 증가하였으며, 옹진군 8.6%, 미추홀구 2.3% 증가하였음
- 군·구별 미충족 의료율은 지역별 다소 특이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부평구는 2023년까지는 미충족 의료율이 11.2%로 11.3%인 옹진군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었으나 2024년 4.6%로 전년 대비 -6.6%p 크게 감소한 대표적인 지역이며, 계양구는 동기간 -4.7%p, 남동구 -2.1%p, 연수구 -1.5%p, 동구 -1.1%p 감소함
- 이에 반해, 옹진군은 2023년 11.3%에서 2024년 19.0%로 7.7%p 증가, 동기간 강화군은 3.4%p, 중구 2.8%p, 미추홀구 2.0%p, 서구 1.6%p 증가하는 등 지역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2-50] 인천시 군·구별 미충족 의료율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증감률
인천시	7.5	7.3	7.2	7.2	5.9	-21.3
중구	3.6	5.5	7.3	4.8	7.6	111.1
동구	6.2	0.8	3.5	4.1	3.0	-51.6
미추홀구	8.7	7.6	7.8	6.9	8.9	2.3
연수구	4.0	3.9	3.9	4.0	2.5	-37.5
남동구	6.3	4.1	7.2	7.4	5.3	-15.9
부평구	8.0	11.3	11.0	11.2	4.6	-42.5
계양구	7.9	10.0	10.5	8.7	4.0	-49.4
서구	10.1	9.3	5.0	6.5	8.1	-19.8
강화군	6.7	5.7	2.0	3.3	6.7	0.0
옹진군	17.5	11.4	8.6	11.3	19.0	8.6

주 : 1) 미충족 의료율(%) = {1년간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 수 ÷ 조사대상 응답자 수} × 100
2) 증감률은 2020년 대비 2024년
출처 : 통계청, https://kosis.kr 시·군·구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4. 교육

1) 아동 · 청소년

□ 초등학생 수

- 인천시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임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초등학생 수는 서구 37.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수구 25,598명, 남동구 24,192명 순인 반면, 옹진군은 387명, 강화군 1,936명, 동구 3,109명 순임
  - 2020년 대비 2024년 전국 초등학생 증감률은 -7.4%인데 비해 인천은 -3.9%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감소률을 나타냄
  - 그러나 인천시는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동 기간 중구는 14.4%, 서구 14.0%, 연수구 6.1% 증가한 반면, 옹진군은 -30.3%,, 계양구는 -24.3%, 남동구 -17.4%, 강화군 -17.2%, 동구 -10.8%, 부평구 -10.3%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

[표 2-51]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초등학생 현황

(단위: 명,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국	2,693,716	2,672,340	2,664,278	2,603,929	2,495,005	-7.4
인천시	156,928	155,271	155,906	155,083	150,732	-3.9
중구	8,455	8,604	9,120	9,466	9,669	14.4
동구	3,485	3,371	3,317	3,295	3,109	-10.8
미추홀구	17,543	17,268	17,173	16,561	15,980	-8.9
연수구	24,137	25,911	26,019	25,849	25,598	6.1
남동구	29,286	28,231	27,725	26,416	24,192	-17.4
부평구	23,670	22,735	22,017	21,763	21,225	-10.3
계양구	14,220	13,579	12,843	11,935	10,758	-24.3
서구	33,240	32,698	34,916	37,228	37,878	14.0
강화군	2,337	2,318	2,219	2,084	1,936	-17.2
옹진군	555	556	557	486	387	-30.3

주 :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4년
출처: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학생 수를 의미하는 재적 학생 수

- 2024년 인천의 재적 학생 수는 415,694명으로, 2020년(413,639명) 대비 0.5% 증가한 것에 반해, 전국은 같은 기간 -7.1%(8,593,199명 → 7,987,33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인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재적 학생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군·구별 다른 경향을 보임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재적 학생 수는 연수구 83,5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구 81,600명, 미추홀구 74,230명, 남동구 55,947명, 부평구 47,535명 순인데 반해, 옹진군 937명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강화군 5,774명, 동구 10,591명으로 적었음

- 2020년 대비 2024년 증감률을 살펴보면, 연수구가 19.4%로 가장 높은 증가률을 보였으며, 서구14.2%, 중구8.0% 순인 반면, 동 기간 학생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동구 -21.3%, 계양구 -18.3%, 옹진군-17.8% 남동구 -11.8%, 강화군- 9.7%, 부평구 -8.8%, 미추홀구 -1.1% 순이었음
-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은 일부 지역(연수구·서구·중구)에서 증가세를 보여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반면 구도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과 농어촌·도서지역(강화군·옹진군)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지역 간 교육 수요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2]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재적 학생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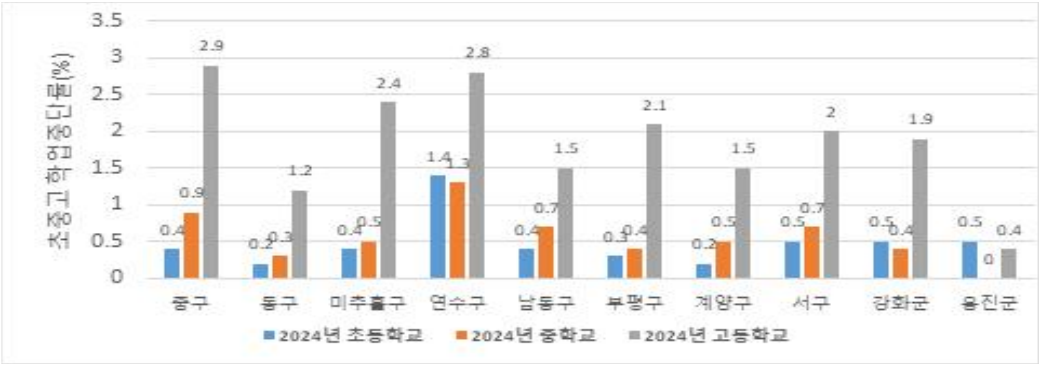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국	8,593,199	8,449,890	8,285,220	8,123,951	7,987,337	-7.1
인천시	413,639	409,191	405,897	416,651	415,694	0.5
중구	23,026	23,052	23,362	24,039	24,867	8.0
동구	13,462	12,788	12,036	11,177	10,591	-21.3
미추홀구	75,087	73,947	72,511	74,514	74,230	-1.1
연수구	69,970	72,906	73,072	82,353	83,525	19.4
남동구	63,427	61,657	60,310	58,362	55,947	-11.8
부평구	52,127	50,178	48,502	47,887	47,535	-8.8
계양구	37,583	36,418	34,555	32,585	30,688	-18.3
서구	71,426	70,904	74,297	78,737	81,600	14.2
강화군	6,391	6,243	6,133	5,954	5,774	-9.7
옹진군	1,140	1,098	1,119	1,043	937	-17.8

주 : 증감률 = 2019년 대비 2024년
출처: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 초 · 중 · 고 학업 중단율

- 2024년 인천시 학업 중단율은 1.0%로 2023년(0.9%)보다 0.1%p 소폭 증가함
  - 인천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0.6%, 중학교 0.7%, 고등학교 2.1%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중단율이 높게 나타나고,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아지는 경향은 전국적 경향과 유사함
- 2024년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연수구가 1.4%로 가장 높았으며, 서구와 강화군, 옹진군이 각 0.5%로 나타남. 중학교는 연수구 1.3%, 중구 0.9%, 남동구와 서구 각 0.5% 순으로 나타남. 고등학교는 중구(2.9%)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연수구 2.8%, 미추홀구 2.4%, 서구 2.0%, 강화군 1.9% 순임
  - 연수구·서구·강화군 세 지역은 전 학년에 걸쳐 평균보다 높은 학업 중단율을 기록하여 지역적인 분석이 필요함. 특히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의 이중 구조로 인한 교육 격차와 치열한 경쟁환경이 학업 중단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그림 2-12] 인천시 군·구별 초 · 중 · 고 학업중단율



[표 2-53] 인천시 초·중·고 학업중단율

(단위: %)

구분	2023년1)				2024년2)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천시	0.9	0.6	0.7	1.9	1.0	0.6	0.7	2.1
중구	1.2	0.5	1.0	2.2	1.4	0.4	0.9	2.9
동구	0.6	0.5	0.3	1.1	0.5	0.2	0.3	1.2
미추홀구	0.8	0.3	0.5	2.1	0.9	0.4	0.5	2.4
연수구	1.5	1.3	1.0	2.4	1.7	1.4	1.3	2.8
남동구	0.7	0.4	0.5	1.5	0.7	0.4	0.7	1.5
부평구	0.8	0.3	0.5	2.1	0.8	0.3	0.4	2.1
계양구	0.8	0.3	0.5	2.1	0.7	0.2	0.5	1.5
서구	0.9	0.5	0.9	1.7	0.9	0.5	0.7	2.0
강화군	1.0	0.6	0.6	1.8	0.9	0.5	0.4	1.9
옹진군	0.6	0.4	-	1.5	0.3	0.5	-	0.4

주 : 1) 2023년 데이터의 조사기준일: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말
2) 2024년 데이터의 조사기준일: 2024년 3월 1일 ~ 2025년 2월 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 교원 1인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지고 교육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0년 대비 2024년 전국 교원 1인당 학생수는 -8.6% 감소한데 비해 동기간 인천은 -3.4%로 전국에 비해 낮은 감소율을 보임. 그러나 인천 지역 내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서구 18.8명, 동구 16.2명, 미추홀구 16.3명 순이었으나, 이에 반해 옹진군 4.1명, 강화군 7.5명, 중구 11.6명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서구는 유입인구 증가와 함께 아동 인구도 크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원 1인당 맡아야 하는 학생 수는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을 주목해야 함. 학생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원 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표 2-54]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

(단위: 명,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국	15.2	14.8	14.4	14.1	13.9	-8.6
인천시	14.8	14.6	14.2	14.3	14.3	-3.4
중구	11.9	11.7	11.4	11.5	11.6	-2.5
동구	18.9	18.2	17.2	16.6	16.2	-14.3
미추홀구	16.4	16.3	16.1	16.3	16.3	-0.6
연수구	13.9	13.9	13.6	13.4	13.2	-5.0
남동구	12.6	12.7	12.2	12.1	12.2	-3.2
부평구	13.7	13.7	13.3	13.1	12.7	-7.3
계양구	14.5	14.3	14.0	14.1	14.3	-1.4
서구	20.1	18.9	18.3	18.8	18.8	-6.5
강화군	8.7	8.2	7.9	7.6	7.5	-13.8
옹진군	5.0	4.7	4.7	4.3	4.1	-18.0

주 : 1) 교원 1인당 학생 수=재적 학생 수÷총 교원 수
2) 증감률= 2020년 대비 2024년
출처: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교원 1인당 학생수

2) 평생 교육기관

- 인천시 인구 1만 명당 평생 교육기관 수는 2020년 0.517개에서 2023년 0.811개소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4년(0.804개소) 소폭 감소함. 이는 전반적으로 평생교육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인천시 평생교육기관 수는 연수구 1.274개소, 동구 1.201개소, 남동구 0.864개소, 미추홀구 0.849개소로 인천 평균 0.804개소보다 높은 반면, 평생교육기관이 없는 옹진군을 제외하고, 강화군 0.144개소, 중구 0.598개소로 낮은 수준임
- 2020년 대비 2024년 인구 1만 명당 평생교육 기관 수는 연수구가 105.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보였으며, 다음으로 서구 88.1%, 남동구 74.5%, 계양구 67.8% 순이었으며, 강화군은 -0.7% 감소, 중구는 4.4%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인천시 평생교육기관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옹진군과 강화군, 중구 등 일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표 2-55] 인천시 군·구별 인구 1만 명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 개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인천시	0.517	0.644	0.762	0.811	0.804	55.5
중구	0.573	0.418	0.458	0.629	0.598	4.4
동구	0.799	0.976	1.017	1.177	1.201	50.3
미추홀구	0.717	0.785	0.911	0.862	0.849	18.4
연수구	0.619	0.975	1.166	1.300	1.274	105.8
남동구	0.495	0.637	0.830	0.853	0.864	74.5
부평구	0.545	0.596	0.695	0.688	0.689	26.4
계양구	0.404	0.440	0.554	0.678	0.678	67.8
서구	0.369	0.576	0.645	0.705	0.694	88.1
강화군	0.145	0.143	0.143	0.145	0.144	-0.7
옹진군	-	-	-	-	-	

주 : 인구 1만 명당 평생교육 기관 수 = (평생교육기관 수 ÷ 주민등록인구)×10,0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_평생교육기관리스트 https://www.data.go.kr/data/15050130/fileData.do
통계청_인천시 주민등록인구,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 평생직업교육[11]은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인천시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23년 1,782원으로 전년 대비 607원 대비 -9.0% 감소함
  - 4년간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안정적이지 않고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일관성 없이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강화군이 다소 감소는 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옹진군은 2023년 2019년에 비해서는 -4.4%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 68.5%로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부평구는 48.8%, 서구 38.5%, 부평구 35.8%, 미추홀구 19.1%, 동구 7.0% 증가함. 이에 반해 남동구 -10.5%, 중구 -6.9%, 연수구 -5.4%, 강화군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기준 인천시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782원으로 전년대비 -9.0%감소한 수준이며, 강화군 38.,104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동구 32,201원, 옹진군 19,305원, 중구 18,720원, 연수구 5,177원, 서구 3,647원, 계양구 2,491원순임. 이에 비해 남동구 752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부평구 817원, 미추홀구 842원 순임
- 인천시 1인당 평생직업교육비는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예산으로 2023년 기준 가장 높은 강화군(38,104원)과 가장 낮은 남동구(752원)간의 차이는 37,352원으로 약 50.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사회가 보편화되면서 평생직업교육예산은 전 생애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동구나 미추홀구, 부평구 등에서도 예산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6] 인천시 군·구별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단위: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전년 대비 증감률
인천시	607	647	1,021	1,959	1,782	-9.0
중구	541	2,655	19,084	20,109	18,720	-6.9
동구	100,033	96,962	21,411	30,091	32,201	7.0
미추홀구	1,324	405	529	707	842	19.1
연수구	6,830	6,135	15,630	5,475	5,177	-5.4
남동구	893	1,781	687	844	752	-10.9
부평구	687	726	740	549	817	48.8
계양구	17,825	12,005	2,348	1,834	2,491	35.8
서구	4,401	4,046	3,912	2,634	3,647	38.5
강화군	44,947	38,850	48,143	40,047	38,104	-4.9
옹진군	20,204	9,380	7,880	11,454	19,305	68.5

주:1인당 평생직업 교육 예산 = 평생직업 교육 예산 ÷ 주민등록인구
출처: 인천시 교육청

11)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예산에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과 '전문대학 혁신지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됨. 2021년도 교육부 예산의 주요 특징은 고졸 취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폭 확대와 온라인기반 평생고등교육을 지원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사업의 확대에 있음

5. 주거

1) 노후주택 비율

- 노후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중 건축 후 30년 이상 지난 주택의 비중을 의미하며, 주거환경의 질과 도시 재생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임. 2024년 인천시 노후주택 비율은 30.1%로, 2020년에 비해 60.1%로 동기간 전국 평균 44.3%에 비해 15.8%p 높은 수준임
  - 2024년 인천시 노후주택 비율은 계양구가 4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구 36.8%, 부평구 36.7%, 미추홀구 34.2%, 강화군 34.0%, 남동구 31.3% 순임. 이들 지역은 노후주택 비율이 30%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높으며,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시급함
  - 이에 반해 노후주택 비율이 낮은 지역은 중구 16.3%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서구 18.4%로, 신도시 개발, 신규 주택 공급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한편, 2024년 기준 4년 전과 비교해, 연구수구의 노후주택 비율은 1,694.1%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송도신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의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원도심과 신도심 간 지역격차로 인한 지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수 이외에도 노후주택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남동구, 계양구와 부평구도 노후주택으로 인한 지역 간 양극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7] 인천시 군·구별 노후주택 비율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국	19.4	21.1	23.5	25.8	28.0	44.3
인천시	18.8	22.5	25.0	27.4	30.1	60.1
중구	17.7	17.7	16.7	16.4	16.3	-7.9
동구	36.4	36.6	35.9	37.1	36.8	1.1
미추홀구	26.6	30.1	32.1	32.7	34.2	28.6
연수구	1.7	3.0	9.5	20.2	30.5	1694.1
남동구	18.1	23.3	27.0	28.8	31.3	72.9
부평구	23.0	29.0	31.5	34.4	36.7	59.6
계양구	24.6	31.0	34.5	37.7	40.3	63.8
서구	13.5	16.1	16.8	17.3	18.4	36.3
강화군	31.1	32.6	33.3	33.8	34.0	9.3
옹진군	22.8	22.7	22.9	22.8	23.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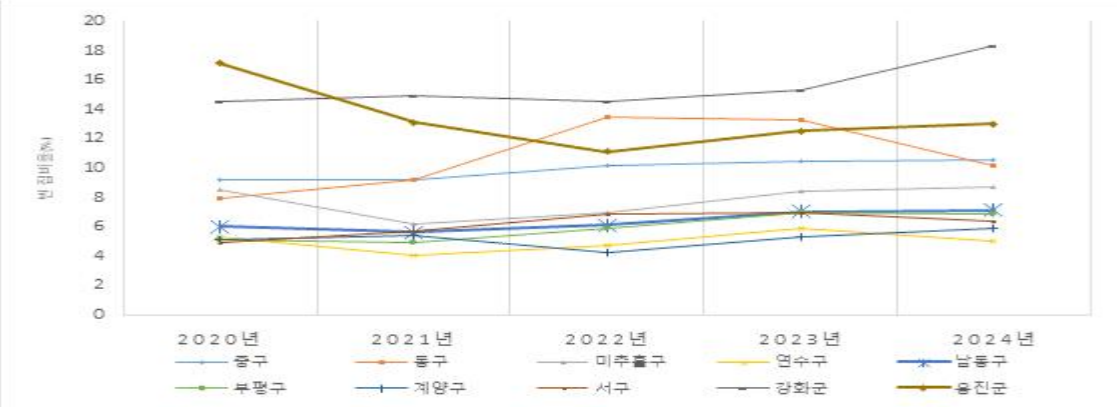
주 : 1) 노후주택 비율 = (30년 이상 된 주택 수 ÷ 전체 주택 수) × 100
2)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4년 증감률
출처: 통계청. e-지방통계 노후주택비율(https://kosis.kr).

2) 빈집 비율

- 2024년 인천시 빈집 비율은 전국에 비해 0.6%p 낮지만, 전국은 2020년 대비 -2.4% 감소한 반면, 인천시는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즉 전국에 비해 인천시의 빈집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기준 군·구별 빈집 비율은 강화군 18.3%, 옹진군13.0%, 중구 10.5%, 동구 10.1%, 미추홀구 8.7% 순인 반면, 연수구가 5.0%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계양구 5.9%, 서구 6.4%, 부평구 6.8%, 남동구 7.1% 순임
-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강화군은 2020년 14.5%, 2021년 14.9%, 2022년 14.5%, 2023년 15.3%, 2024년 18.3%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강화군 수준은 아니지만 연수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 빈집 증가는 방범, 안전, 도시 경관 악화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특히 강화군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직결된 문제로 이에 대한 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빈집 관리 및 활용 전략으로는 방범·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CCTV 설치, 순찰 확대가 필요하며, 도시재생 연계를 통한 리모델링으로 사무실·공동체 공간·문화공간·공유공간 등으로 활용하거나 빈집을 귀농·귀촌 지원 주택,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그림 2-13] 인천광역시 빈집 비율



[표 2-58] 인천시 군·구별 빈집 비율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국	8.2	7.4	7.6	7.9	8.0	-2.4
인천시	6.4	6.0	6.6	7.5	7.4	15.6
중구	9.2	9.2	10.1	10.4	10.5	14.1
동구	7.9	9.2	13.4	13.3	10.1	27.8
미추홀구	8.5	6.2	6.9	8.4	8.7	2.4
연수구	5.3	4.0	4.7	5.9	5.0	-5.7
남동구	6.0	5.6	6.1	7.0	7.1	18.3
부평구	5.1	4.9	5.9	6.9	6.8	33.3
계양구	5.1	5.4	4.2	5.3	5.9	15.7
서구	4.9	5.7	6.8	6.9	6.4	30.6
강화군	14.5	14.9	14.5	15.3	18.3	26.2
옹진군	17.1	13.1	11.1	12.5	13.0	-24.0

주 : 빈 집 비율(%) = (빈집 수 ÷ 전체 주택 수) × 100
출처: 통계청, e-지방통계 빈집비율(https://kosis.kr).

6. 문화·여가

1) 1인당 문화 관련 예산

- 2024년 인천시 시민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은 2020년 44,685원에서 2024년 62,324원으로 39.5% 증가함. 1인당 문화관련 예산은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 가장 높은 수준인 강화군과 옹진군 간의 격차는 약 22.5배 수준임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1인당 문화관련 예산은 강화군이 244,143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구 115,188원, 중구 71,155원, 연수구 41,880원 부평구 39,601원 순인 반면, 옹진군 10,852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미추홀구 11,407원, 남동구 14,573원, 계양구 15,880원, 서구 28,030원 순임

[표 2-59] 인천시 1인당 문화 관련 예산

(단위: 원, %)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률
인천시	44,685	62,324	39.5
중구	64,020	71,155	11.1
동구	271,049	115,188	-57.5
미추홀구	12,958	11,407	-12.0
연수구	44,497	41,880	-5.9
남동구	16,280	14,573	-10.5
부평구	36,856	39,601	7.4
계양구	14,623	15,880	8.6
서구	42,092	28,030	-33.4
강화군	329,692	244,143	-25.9
옹진군	4,989	10,852	117.5

주 :1) 1인당 문화 관련 예산 = (문화예술 예산 + 문화재 예산) ÷ 주민등록인구
2)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4년
출처: 지방재정 365 기능별 회계별 세출예산 061문화예술, 064문화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https://kosis.kr).

2) 문화기반 시설[12)]

- 2023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는 인천 4.4개로 전국 6.4개 보다 2.0개 적었고, 인천 지역 내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인천시 군·구별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수는 옹진군 19.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화군 17.4개, 동구 11.8개, 중구 11.3개 순이었음. 이에 반해 서구와 남동구 2.4개, 부평구 2.6개로 인천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문화기반 시설이 가장 많은 옹진군과 서구, 남동구 간의 격차는 약 8배 차이를 보임.
  - 한편, 중구는 2023년 2019년에 비해 -15.0% 감소하였고, 미추홀구와 서구는 4년 간 주민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의 변화가 없는 지역, 계양구는 동 기간 2배, 동구는 약 1배 증가함

12)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종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임

[표 2-60]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단위: 개,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전국	5.8	6.0	6.1	6.3	6.4	10.3
인천시	3.9	4.1	4.3	4.3	4.4	12.8
중구	13.3	12.9	12.5	12.4	11.3	-15.0
동구	7.8	8.0	9.8	11.9	11.8	51.3
미추홀구	4.4	4.5	4.4	4.4	4.4	-
연수구	4.4	4.9	4.6	4.4	5.1	15.9
남동구	1.9	1.9	2.1	2.2	2.4	26.3
부평구	2.5	2.6	2.7	2.7	2.6	4.0
계양구	2.3	3.0	3.7	3.8	4.6	100.0
서구	2.4	2.4	2.9	2.7	2.4	-
강화군	15.9	15.9	15.8	18.6	17.4	9.4
옹진군	19.4	19.6	19.7	19.7	19.6	1.0

주 :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 (문화기반 시설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00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문화기반시설 수(https://kosis.kr).

7. 환경

1) 생활폐기물 배출량

- 2023년 인천시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4kg/일로 2019년(1.0kg/일) 대비 40.0% 증가한데 비해 동 기간 전국 9.1% 증가함. 이는 동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인천이 전국에 비해 30.9%p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줌

- 이는 인천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는 군·구별 증가 폭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2019년 대비 2023년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미추홀구 27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동구 144.4%, 옹진군 120.0%, 연수구 66.7%, 계양구 50.0% 순으로 나타남. 강화군은 동 기간 -21.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9년 강화군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배출량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감소 노력의 결과로 해석됨
- 2023년 군·구별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미추홀구 3.0kg/일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구와 동구, 옹진군 2.2kg/일, 강화군 1.5kg/일 수준으로 인천과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이에 반해 서구는 0.9kg/일로 가장 적은 배출량을 보이는 지역으로, 생활폐기물 관리 효율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 할 수있음
- 생활폐기물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처리 비용 증가, 탄소 배출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함. 이에 생활폐기물 줄이기 위한 지역 차원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61]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단위: kg/일,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전국	1.1	1.2	1.2	1.2	1.2	9.1
인천시	1.0	1.1	1.3	1.4	1.4	40.0
중구	1.9	1.8	1.9	2.1	2.2	15.8
동구	0.9	0.9	1.1	1.2	2.2	144.4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미추홀구	0.8	0.8	2.6	3.2	3.0	275.0
연수구	0.6	0.6	0.9	1.0	1.0	66.7
남동구	0.9	0.9	0.9	1.2	1.1	22.2
부평구	0.8	0.8	1.0	0.8	1.0	25.0
계양구	0.8	1.1	1.2	1.1	1.2	50.0
서구	0.9	1.6	1.3	1.2	0.9	0.0
강화군	1.9	1.2	1.1	0.7	1.5	-21.1
옹진군	1.0	0.9	1.5	1.7	2.2	120.0

주 :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주민 1인당 연간 일평균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양
2) 생활폐기물(일반폐기물) = 가정 생활폐기물 + 사업장 생활폐기물
3) 증감=2019년 대비 2023년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https://kosis.kr).

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2023년 인천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52.7%로, 전국 59.0%에 비해 6.3%p 높은 수준임. 2019년대비 증감률은 인천시(-1.3%)와 전국 (-1.2%)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함
- 2023년 인천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동구(84.2%)와 가장 낮은 옹진군(28.5%) 간에 55.7%p로 높은 차이를 보임

- 2023년 군·구별 재활용률은 동구 8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수구 71.2%, 부평구 65.4%, 남동구 63.9% 순인 반면, 옹진군 28.5%로 가장 낮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보임
- 한편, 2023년 2019년 대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감소한 지역으로 옹진군 53.0%로 가장 높았고, 강화군 -39.0%, 미추홀구 -35.8%, 계양구 -23.4%, 남동구 -2.4% 순임. 한편, 동구는 동 기간 40.8%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증가시켰고, 다음으로 부평구 30.0%, 중구 23.0% 순이었음
- 생활폐기물재활용은 생활폐기물 배출과 함께 환경보호, 천연자원 보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주요한 요건임을 고려할 때, 인천시 차원에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가 지역에 대한 포상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62] 인천시 군·구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
전국	59.7	59.5	56.7	59.8	59.0	-1.2
인천시	53.4	64.1	54.6	54.5	52.7	-1.3
중구	43.0	51.3	56.8	61.1	52.9	23.0
동구	59.8	56.3	55.4	49.2	84.2	40.8
미추홀구	52.8	48.9	36.6	38.6	33.9	-35.8
연수구	70.9	70.1	75.6	72.2	71.2	0.4
남동구	65.5	67.2	69.6	62.8	63.9	-2.4
부평구	50.3	59.0	59.3	61.3	65.4	30.0
계양구	59.9	70.2	53.2	49.2	45.9	-23.4
서구	52.5	76.7	59.8	63.4	58.9	12.2
강화군	67.7	41.8	41.3	58.2	41.3	-39.0
옹진군	60.7	57.1	45.2	47.8	28.5	-53.0

주 : 1)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재활용 양 ÷ 생활폐기물 양)×100
2) 증감 = 2019년 대비 2023년 증감량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일반폐기물 재활용률(https://kosis.kr).

제3절 인천광역시 사회보장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1.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현황

- 인천시는 2025년 현재 2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남동구가 5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수구(4개소), 부평구와 미추홀구(각 3개소), 동구(2개소), 중구와 계양구, 서구, 옹진군(각 1개소) 순으로 분포함. 한편, 강화군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에 근거하여 이용자 규모에 따른 배치와 시설 자체 최소 면적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종합사회복지관은 1개소[13]를 설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를 적용할 경우 최소 3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21개소만 운영되어 있어 약 9개소가 추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2026년 서구와 중구가 분구됨에 따라 검단구와 영종구, 서해구의 추가 설치와 계양구는 약 28만 명당 1개소, 강화군은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표 2-63] 인천시 군·구별 사회복지시설 현황(2025.1)

(단위: 개소)

유형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종합사회복지관	21	1	2	3	4	5	3	1	1	-	1
사회복지협의회	9	1	1	1	1	1	1	1	-	1	1
자원봉사센터	10	1	1	1	1	1	1	1	1	1	1
지역자활센터	11	1	1	2	1	1	2	1	1	1	-
푸드뱅크/푸드마켓	28	3	2	3	3	4	4	2	5	2	-
합계	79	7	7	10	10	12	11	6	8	5	3

출처 : 인천광역시_사회복지시설 현황(2025. 01),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_군·구사회복지협의회현황(2025. 06),
인천광역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현황(2025. 05)

2. 노인복지시설 현황

- 2025년 1월 기준 인천시에는 총 102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노인복지관(26개소), 노인교실(24개소), 노인재가복지시설(19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18개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12개소), 노인보호시설(3개소)가 있음
- 노인복지관은 총 26개소로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533,369명)를 적용할 경우 1개소당 20,514명이 이용하는 수준이며, 노인재가복지시설은 총 19개소로, 평균적으로 노인 28,072명당 1개소 수준임
- 인천시는 군·구별로 노인인구 규모와 시설 분포 간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남.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미추홀구는 노인인구 대비 시설 수가 부족한 반면, 계양구와 강화군은 인구 대비 시설 밀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여짐
  - 노인복지시설은 계양구, 서구가 각 16개소, 남동구 15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옹진군 3개소, 동구 5개소, 중구 6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시설 수가 부족한 지역임

13) 채희재(1999), 지역 사회복지관 및 보건시설의 설치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 노인복지관은 남동구가 노인 45,735명당 1개소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다음으로 부평구 31,042명당 1개소, 중구 26,621명당 1개소, 서구 21,103명당 1개소 수준임
- 노인재가복지시설은 부평구가 노인 93,125명당 1개소로 인천시 내 최저 수준이며, 다음으로 남동구 91,471명당 1개소, 연수구 52,160명당 1개소, 미추홀구 28,157명당 1개소, 중구 26,621명당 1개소 수준임

[표 2-64] 인천시 군·구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유형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노인복지관	26	1	2	4	3	2	3	4	4	2	1
노인교실(노인대학)	24	3	1	1	1	7	4	4	2	1	-
노인보호시설*	3	-	-	-	-	2	-	-	1	-	-
노인재가복지시설	19	1	1	3	1	1	1	4	4	2	1
노인주거복지시설	18	-	-	-	2	1	2	2	4	6	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12	1	1	3	1	2	1	2	1	-	-
합계	102	6	5	11	8	15	11	16	16	11	3

주 : 1) 노인보호시설은 노인학대피해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출처: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2025.1) https://www.incheon.go.kr/welfare

□ 노인 천 명당 여가복지시설 수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 여가활동과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함. 노인 천 명당 여가복지시설은 인천과 전국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24년 인천은 2.1개로 4.9개인 전국 평균에 비해 2.8개 적은 수준임
- 2020년 대비 2024년 노인 천 명당 여가복지설의 증감률은 인천 -16.0%로 전국 -10.9%에 비해 5.1%p 높은 감소율을 보임. 인천이 전국 평균보다 노인 여가시설이 적도, 감소 감소율도 빠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을 위한 여가 복지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2020년 대비 2024년 증감률을 보면 동구만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감소하였음.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계양구(-23.1%), 서구(-22.2%), 부평구(-17.6%), 연수구(16.1%)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은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 2024년 기준 인천시 군·구별 노인 천명당 여가복지시설은 옹진군(8.1개)과 강화군(6.8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임
  - 옹진군과 강화군 다음으로 중구가 2.6개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구 2.1개, 계양구와 동구가 각 2.0개 수준이었음. 반면 미추홀구와 남동구는 1.5개, 부평구는 1.4개로 적었음. 부평구와 남동구 모두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노인을 위한 여가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표 2-65]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국	5.5	5.3	5.2	5.1	4.9	-10.9
인천시	2.5	2.3	2.2	2.1	2.1	-16.0
중구	2.9	2.9	2.8	2.7	2.6	-10.3
동구	2.0	2.0	2.1	2.0	2.0	0.0
미추홀구	1.7	1.6	1.6	1.5	1.5	-11.8
연수구	2.5	2.3	2.3	2.2	2.1	-16.0
남동구	1.7	1.6	1.6	1.5	1.5	-11.8
부평구	1.7	1.6	1.5	1.5	1.4	-17.6
계양구	2.6	2.4	2.2	2.2	2.0	-23.1
서구	2.7	2.4	2.3	2.2	2.1	-22.2
강화군	7.7	7.5	7.2	7.1	6.8	-11.7
옹진군	9.1	8.9	8.5	8.2	8.1	-11.0

주:1)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수 :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수÷60세이상인구)×1,000
2) 증감률 : 2020년 대비 2124년 증감률
출처 : 통계청. 보건복지부.

3.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2025년 7월 현재,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2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형별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43개소)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43개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42개소), 장애인 거주시설(22개소), 정신요양재활시설·자립주택(각 15개소), 장애인복지관·자립생활센터(각 11개소)순으로 나타남
-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 종류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종류에 따른 군·구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장애인복지관은 총 11개소로, 인천시 등록장애인 13,882명당 1개소 수준이며, 군·구별로는 부평구(27,395명당 1개소)가 가장 밀도가 높고, 이어 남동구(26,776명당), 서구(26,420명), 연수구(14,216명), 미추홀구(11,953명) 순으로 나타남. 옹진군은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총 43개소로, 인천시 등록장애인 3,551명당 1개소 수준임. 지역별로는 서구(5,284명당 1개소)가 가장 적고, 이어 동구(4,703명), 연수구(3,554명), 부평구(3,424명), 남동구(3,347명)순이며, 옹진군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22개소로, 인천시 등록장애인 6,941명당 1개소 수준임. 지역별로는 남동구(26,776명당 1개소)가 가장 적고, 이어 계양구(14,739명), 미추홀구(11,953명) 순임. 동구와 서구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43개소로, 인천시 등록장애인 3,551명당 1개소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음. 지역별로는 연수구(7,108명당 1개소)가 가장 적고, 이어 남동구(6,694명), 부평구(3,914명), 중구 (3,573명), 계양구(2,948명), 서구(2,936명) 순임
- 장애인 자립주택(생활체험홈)은 총 15개소로, 인천시 등록장애인 10,180명당 1개 수준임. 지역별로는 부평구(27,395명당 1개소)가 가장 적고, 이어 서구(26,420명), 연수구(14,216명) 순으로 나타남.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지역별로 장애인복지시설은 옹진군과 동구가 가장 열악한 상황이며, 옹진군은 7개 면에 거점을 두고 장애인 욕구에 맞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동구는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자립생활센터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표 2-66]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2025.7)

(단위: 개소)

유형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장애인복지관	11	2	1	2	1	1	1	1	1	1	-
주간보호시설	43	3	1	7	4	8	8	5	5	2	-
장애인거주시설	22	1	-	2	3	1	7	1	-	4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	1	1	8	5	2	5	3	9	8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	1	-	1	1	-	1	-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3	2	2	8	2	4	7	5	9	3	1
지역사회재활시설	3	-	-	1	-	2	-	-	-	-	-
IL(자립생활)센터	11	1	-	1	1	2	2	2	2	-	-
정신요양재활시설	15	1	1	2	3	2	2	1	2	1	-
중증장애인 판매시설	1	-	-	-	-	-	-	-	1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	-	-	1	1	-	-	-	-	-	-
자립주택(생활체험홈)	15	-	-	3	1	3	1	6	1	-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	-	-	-	-	1	1	-	-	-	-
편의증진 및 보조기구지원기관	11	1	-	1	1	3	1	2	1	1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	-	-	-	-	2	1	-	1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	-	1	-	-	-	-	-	-	-
피해장애인쉼터	3	-	-	-	-	-	-	-	3	-	-
계	229	12	6	38	22	32	36	26	34	19	4

주: 1) 지역사회재활시설 : 점자도서관,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2) 편의증진 및 보조기구지원센터 : 보조기기지원및AS센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출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현황(2025.10),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플랫폼(2025.12)

4. 영유아 관련 시설 현황

□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은 인천시와 전국 적은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2024년 2020년 대비 인천은 0.6% 증가하였고, 인천시 군 · 군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2020년 대비 인천시 군·구별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은 부평구(-6.6%), 중구(-6.5%), 서구(-5.2%), 계양구 (-4.1%)는 감소한 반면, 옹진군 24.1%, 남동구 20.1%, 연수구 7.1%, 동구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옹진군 31.9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구 24.5개소, 남동구와 계양구 각각 18.5개소, 부평구 17.0개소 순이었으며, 강화군이 7.9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강화군은 2022년과 2023년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2024년에는 다시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함
  - 인구유입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증가하는 서구와 중구 등은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표 2-67]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단위: 개소,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 국	16.7	17.1	17.3	17.4	17.3	3.6
인천시	15.9	16.0	15.9	16.0	16.0	0.6
중 구	17.0	16.9	15.7	16.2	15.9	-6.5
동 구	23.1	24.2	26.7	23.9	24.5	6.1
미추홀구	14.4	14.7	14.9	15.5	15.1	4.9
연수구	14.1	14.3	14.5	15.2	15.1	7.1
남동구	15.4	15.7	16.6	17.8	18.5	20.1
부평구	18.2	18.2	17.8	16.9	17.0	-6.6
계양구	19.3	19.4	19.3	19.4	18.5	-4.1
서 구	15.4	15.3	14.4	14.3	14.6	-5.2
강화군	7.9	7.7	8.0	8.3	7.9	0
옹진군	25.7	26.6	29.0	32.2	31.9	24.1

주 : 1)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총 보육시설수÷주민등록인구(0~5세))×1,000
2) 보육시설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및 단체, 민간, 가정 협동조합, 직장어린이집을 모두 합산
3) 증감률 : 2021년 대비 2024년
출처 : 통계청. 보건복지부. e-지방지표

□ 어린이집 현황

- 2024년 전국 어린이집 운영 주체는 국공립 23.8%,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6.1%, 민간 70.1%로 민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인천시는 국공립 22.9%,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1.3%, 민간 75.8%로 전국에 비해 민간이 5.7%p 높은 반면, 국공립 시설은 0.9%p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옹진군 81.8%, 강화군 50.0%, 동구 40.6%, 중구 39.3%순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민간 어린이집은 계양구 81.5%로, 서구 80.1%, 부평구78.4%, 남동구 77.2%, 미추홀구 76.8% 순으로 민간 중심의 어린이집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군지역(옹진, 강화)은 민간이 들어가서 이익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주민들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

[표 2-68] 전국 및 인천시 군·구별 어린이집 현황(2024년)

(단위: 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 및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등)		전체(100.0)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전국	6,521	23.8	1,678	6.1	19,188	70.1	27,387
인천시	369	22.9	21	1.3	1,223	75.8	1,613
중구	42	39.3	1	0.9	64	59.8	107
동구	13	40.6	0	0.0	19	59.4	32
미추홀구	39	20.5	5	2.6	146	76.8	190
연수구	61	24.7	2	0.8	184	74.5	247
남동구	49	21.5	3	1.3	176	77.2	228
부평구	49	19.6	5	2.0	196	78.4	250
계양구	23	18.5	0	0.0	101	81.5	124
서구	78	18.9	4	1.0	330	80.1	412
강화군	6	50.0	1	8.3	5	41.7	12
옹진군	9	81.8	0	0.0	2	18.2	11

출처 : 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_2024년 설립주체별 어린이집현황 https://gsis.kwdi.re.kr

□ 유치원[14] 현황

- 유치원 원아 증감률은 지역별 인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전국과 인천시 모두 유치원 원아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인천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감소율을 보임
- 반면, 인천시 유치원 원아 변화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9년에 대비 2024년 지역별 원아수는 서구와 연수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대비 2024년 군·구별 유치원 원아는 서구 12.7%, 연수구 6.3% 증가했는데, 이는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한 아동 유입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됨
- 반면, 동구 -34.2%, 옹진군 -33.0%, 남동구 -30.4%, 강화군 -29.5%, 부평구 19.4%, 계양구 -18.4%m 미추홀구 -14.3%, 중구 -5.4% 순으로 유치원 원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동구·옹진군·남동구·강화군은 고령화, 젊은 세대 유출, 저출산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표 2-69] 전국 및 군·구별 유치원 원아 현황

(단위: 명,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국	612,538	582,572	552,812	521,794	498,604	-18.6
인천시	38,319	36,170	35,427	34,777	34,457	-10.1
중구	2,215	2,141	2,166	2,167	2,095	-5.4
동구	930	810	700	654	612	-34.2
미추홀구	3,770	3,634	3,397	3,168	3,232	-14.3
연수구	5,760	6,261	6,308	6,165	6,121	6.3
남동구	8,552	7,559	6,874	6,387	5,955	-30.4

14) 유치원 취원 대상 연령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만3~5세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부평구	5,372	4,744	4,511	4,316	4,325	-19.5
계양구	2,728	2,514	2,382	2,309	2,226	-18.4
서구	8,426	7,982	8,623	9,200	9,495	12.7
강화군	475	436	397	347	335	-29.5
옹진군	91	89	69	64	61	-33.0

주 : 증감률 : 2020년 대비 2024년
출처: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e-지방지표

5.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현황

- 2025년 인천시 아동복지시설은 총 287개소이며, 시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178개소), 다함께돌봄센터(40개소), 공동육아나눔터(21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17개소), 아동양육시설(9개소),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쉼터(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6개소), 아동상담소(4개소), 입양기관(2개소), 아동일시보호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각 1개소) 순임
- 아동복지시설은 지역별로 큰 사이를 보이는데, 남동구 59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서구 52개소, 부평구 46개소, 미추홀구 35개소 계양구 33개소 순임. 이에 반해, 옹진군 2개소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강화군 13개소, 중구와 중구는 각 13개소로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18세 미만 취학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동구 42개소, 부평구 33개소, 서구 30개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옹진군은 1개소만 설치되어 있음
- 아동상담소는 총 4개소로 미추홀구 3개소, 남동구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군·구에는 설치되지 않음. 최근 상담이 필요한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아동 상담시설은 모든 지역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아동양육시설은 9개소로 미추홀구와 부평구에 각각 3개소 (총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구, 동구, 강화군에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아동일시보호시설은 1개소로 중구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총 18개소로 중 서구 7개소가 가장 많고, 미추홀구 3개소, 중구와 남동구가 각각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총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구 9개소, 남동구 8개소가 가장 많았고, 옹진군에도 1개소 설치되어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는 총 21개소 중 중구와 미추홀구가 각각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옹진군에는 1개소도 설치되지 않음
- 입양기관은 총 2개소로 남동구와 부평구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인천시의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상담소·일시보호시설·입양기관 등 전문시설은 매우 적어 시설 및 지역 간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남
- 또한, 남동구, 서구, 부평구에 시설의 집중되어 있는 반면, 옹진군, 강화군, 중구, 동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70] 인천시 군·구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유형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아동상담소	4	-	-	3	-	1	-	-	-	-	-
지역아동센터	178	3	7	14	14	42	33	24	30	10	1
아동양육시설	9	1	1	3	-	-	3	-	-	1	-
아동일시보호시설	1	1	-	-	-	-	-	-	-	-	-
아동공동생활가정	18	2	-	3	1	2	2	1	7	-	-
가정위탁지원센터	1	-	-	-	-	-	1	-	-	-	-
다함께돌봄센터	40	2	3	6	4	8	3	3	9	1	1
공동육아나눔터	21	4	1	4	2	3	2	2	2	1	-
입양기관	2	-	-	-	-	1	1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6	-	1	1	-	1	-	1	2	-	-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쉼터	7	-	-	1	-	1	1	2	2	-	-
합 계	287	13	13	35	21	59	46	33	52	13	2

출처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현황(2025. 01). 아동권리보장원_아동복지기관현황(2025.12)

□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 2025년 인천시 청소년복지시설은 총 32개소로,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대부분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쉼터·자립지원관 등 전문시설은 남동구와 부평구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옹진군은 청소년복지시설이 전문한 것으로 나타남

- 군·구별 청소년 복지시설은 남동구과 부평구가 각각 7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구와 미추홀구가 각각 4개소, 계양구 3개소, 중구와 연수구, 서구가 각각 2개소, 강화군(1개소) 순임. 옹진군은 설치된 청소년 복지시설이 없음
- 미추홀구는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중장기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평구는 자립지원관과 중장기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 중 8개 군·구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군·구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청소년쉼터는 부평구 3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동구 2개소, 미추홀구와 계양구가 각 1개소 순으로 설치되어있음

[표 2-71] 인천시 군·구별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유형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	1	2	1	1	1	1	1	1	1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	1	2	1	1	1	1	1	1	-	-
청소년쉼터	7	-	-	1	-	2	3	1	-	-	-
청소년자립지원관	2	-	-	-	-	1	1	-	-	-	-
자립지원전담기관	1	-	-	-	-	1	-	-	-	-	-
청소년중장기쉼터	1	-	-	-	-	1	-	-	-	-	-
청소년성문화센터	2	-	-	1	-	-	1	-	-	-	-
합 계	32	2	4	4	2	7	7	3	2	1	0

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동구 2개소 중 1개소는 인천시청 직영기관
출처 : 인천광역시. 청소년 복지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2025년 4월)

6. 교육시설

- 2025년 현재 인천시 전체 학교 수는 951개교이며, 이 중 공립은 701개교(73.7%), 사립 250개교(26.3%)로 나타남. 인천시 학교 구조는 초·중학교 단계에서 공립 중심이 뚜렷하고, 유치원은 사립과 공립이 균형을 이루며, 고등학교 및 특수·각종·기타 학교는 사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공립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비 의무교육 단계나 특수 목적 교육에서는 사립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을 보여줌. 특히,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 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보육·유아교육 정책에서 공공성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해석할 수있음
  - 유치원 총 391개소 중 공립 200개소(51.2%), 사립 191개소(48.8%)로 공·사립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음
  - 초등학교 총 265개교 중 공립 260개교(98.1%), 사립 5개교(1.9%)로 공립 중심 구조가 뚜렷함
  - 중학교 총 145개교 중 공립 135개교(93.1%), 사립 10개교(6.9%)로 공립 비중이 매우 높음
  - 일반계 고등학교 총 128개교 중 공립 95개교(74.2%), 사립 33개교(25.8%)로 공립이 우세하나 사립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학교 총 10개교 중 공립 6개교(60.0%), 사립 4개교(40.0%)로 공·사립이 혼재된 구조임
  - 각종학교 총 5개교 중 공립 2개교(40.0%), 사립 3개교(60.0%)로 사립 비중이 더 높으며, 기타 학교 총 7개교는 공립 3개교(42.9%), 사립 4개교(57.1%)로 사립 비중이 우세함

[표 2-72] 인천시 학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공립		사립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유치원	391	100.0	200	51.2	191	48.8
초등학교	265	100.0	260	98.1	5	1.9
중학교	145	100.0	135	93.1	10	6.9
일반계고등학교	128	100.0	95	74.2	33	25.8
특수학교	10	100.0	6	60.0	4	40.0
각종학교	5	100.0	2	40.0	3	60.0
기타*	7	100.0	3	42.9	4	57.1
합계	951	100.0	701	73.7	250	26.3

주 : *국제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국제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황 및 학생추이(2025년 4월) https://www.data.go.kr/data/15004947/fileData.do

□ 여성 및 가족 관련 시설

- 2025년 인천시 여성 및 가족 관련 센터는 총 37개소이며, 이중 가족센터는 10개로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 종류에 따라 지역 편중되어 집중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동구·계양구·강화군·옹진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취약한 상황으로 나타남
  - 모자보호 및 공동생활가정은 미추홀구와 서구에 각각 1개소, 부자보호시설은 남동구에 1개소, 미혼모자

보호시설은 중구·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에 각각 1개소, 일시보호시설은 미추홀구에만 설치되어 있음.

- 여성보호시설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구와 옹진군에는 설치된 시설이 없음.

- 이주여성폭력 피해상담·보호시설은 남동구에만 3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성매매피해 여성상담·보호시설은 미추홀구에 4개소 집중되어 있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부평구에 1개소,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는 남동구에 1개소 설치되어 있음
- 성폭력피해여성 상담·보호시설은 남동구 3개소로 가장 많았고, 중구와 부평구, 강화군은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지역에는 미설치되어 있음
- 가정폭력피해여성 상담·보호시설은 미추홀구 4개소, 중구 3개소, 계양구 2개소, 연수구와 서구는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지역에는 미설치되어 있음

[표 2-73] 인천시 군·구별 여성 및 가족 관련 시설

(단위: 개소)

유형별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가족센터		10	1	1	1	1	1	1	1	1	1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	-	-	-	-	1	-	-	-	-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모자보호/ 공동생활가정	2	-	-	1	1	-	-	-	-	-	-
	부자보호시설	1	-	-	-	-	1	-	-	-	-	-
	미혼모자보호/ 공동생활가정	4	1	-	1	1	-	1	-	-	-	-
	일시보호시설	1	-	-	1	-	-	-	-	-	-	-
여성 보호	이주여성폭력피해상담/보호	1	-	-	-	-	1	-	-	-	-	-
	성폭력피해여성 상담/보호	1	-	-	-	-	1	-	-	-	-	-
	장애인성폭력상담/보호	2	-	-	-	-	1	1	-	-	-	-
	가정폭력피해여성상담/보호	8	1	-	4	1	-	-	1	1	-	-
	성매매피해 여성상담/보호	2	-	-	2	-	-	-	-	-	-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	-	-	-	-	-	1	-	-	-	-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1	-	-	-	1	-	-	-	-	-	-
사할린센터(노인)		2	-	-	-	1	1	-	-	-	-	-
전체		37	3	1	10	6	6	5	2	2	1	1

주: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되었던 시설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는 사례가 많음
출처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현황(2025. 01)

제3장

제6기(2027~2030) 인천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보고서

인천시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제3장 인천시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제1절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분석

1. 가구 일반현황

- 10개 군·구 응답 가구는 6,058가구이며, 조사설계 시 일반가구 300가구와 특수욕구계층 300가구로 구분하고, 저소득층과 다문화 1인 가구는 할당, 아동과 노인가구는 일반가구 조사 후 구분하여 분석함
- 응답자 6,058가구의 지역별 분포 옹진군 10.5%(638가구), 제물포구 10.2%(620가구) 이외 지역은 9.9%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 옹진군은 조사 이후 아동가구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고, 제물포구는 조사 설계시 특수욕구계층을 20가구 추가하여 설계함. 서해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함
- 특수욕구계층은 가구특성별 중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가구 59.2%, 노인포함가구가 37.5%, 1인가구 26.8%, 저소득가구 21.5%, 장애인가구 19.0%, 아동 포함 가구 17.8%, 다문화 가구 8.3%순임

[표 3-1] 응답 가구의 특성

(단위 :가구, %)

구분	지역별 응답가구		구분	특수욕구 가구(중복응답)*	
	사례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체	6,058	100.0	일반가구	3,588	59.2
중구	600	9.9	1인 가구	1,623	26.8
제물포구	620	10.2			
미추홀구	600	9.9	아동 포함 가구	1,079	17.8
연수구	600	9.9			
남동구	600	9.9	노인 포함 가구	2,271	37.5
부평구	600	9.9	장애인 포함 가구	1,148	19.0
계양구	600	9.9			
서해구	340	5.6	저소득 가구	1,305	21.5
검단구	260	4.3			
강화군	600	9.9	다문화 가구	504	8.3
옹진군	638	10.5			

주: 특수욕구계층은 중복응답을 의미하며, 비율은 전체 6,058가구 중 특수욕구계별 층 비중을 의미함

- 응답 가구의 가구주 성별은 남성 75.5%(4,571명), 여성 24.5%(1,487명)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51.0%p 높았음
- 응답자의 연령대는 50~64세가 36.2%로 가장 많고, 65~74세 26.7%, 40~49세 15.5%, 30~39세 12.0%로 나타남. 75세 이상은 8.0%, 29세 이하는 1.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전체 가구주 중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에 속함
- 응답자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52.3%로 가장 많았으며, 학사 학위 소지자가 21.6%, 중학교 이하가 14.5%, 전문학사 11.3%로 나타남. 석사 이상은 0.3%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함

- 응답 가구의 가구원 수는 2인 가구 4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인 가구 26.8%, 3인 가구 23.8%, 4인 가구 6.9%, 5인이상 가구 0.6% 순임. 응답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13명으로, 2025인 인천시 평균 가구원 수가 2.26명임을 고려할 때, 본 조사의 가구원 수가 0.13명 적었는데, 이는 1인 가구를 할당하여 조사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거주기간은 평균 21.5년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0.08년에서 최대 87.2년까지 분포함. 20년 이상 거주한 가구가 44.8%로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 16.8%, 10~15년 미만 15.7%, 15~20년 미만 12.0% 순임
-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45.5%로 가장 많고, 아파트 이외 다가구가 32.6%, 일반주택이 19.9로 나타남. 이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임을 보여줌
-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상용근로자가 41.0%로 가장 많았고, 고용주·자영업자가 20.6%, 임시·일용근로자가 15.7% 나타남. 무직은 13.7%, 주부는 5.2%, 구직활동은 2.1%로 나타남. 임시휴직은 0.7%, 무급가족종사자는 1.0%, 학업은 0.0%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이는 가구주의 경제활동이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안정적 구조를 가지면서도, 자영업·임시근로자·무직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 가구 소득수준은 3분위가 31.7%로 가장 많고, 2분위가 28.6%, 4분위가 20.2%, 1분위가 13.2%, 5분위가 6.3%로 나타남. 이는 중간 소득층이 가장 많은 구조임을 의미함
- 응답 가구의 가구원 중 9.2%가 장애인으로 신체적 장애가 7.9%, 정신적 장애가 1.3%로 나타남. 장애 등급별로 보면, 5급 1.8%, 6급 1.4%, 4급 1.2%, 3급은 0.9%, 2급은 0.4%, 1급 0.1% 순으로 나타남. 심한 장애는 0.4%, 심하지 않은 장애는 3.0%로 나타남
- 응답 가구의 가구원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총 314명(2.5%)으로 등급별로 보면, 1등급 0.1%, 2등급 0.2%, 3등급 0.3%, 4등급 0.6%, 5등급 0.8%, 인지지원등급 0.5%로 나타남
- 응답가구의 가구원 중 내국인은 95.7%, 외국인은 4.3%로 나타났으며, 돌봄 필요 여부에 대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5.7%,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가 94.3%로 응답함

[표 3-3] 응답 가구의 가구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장애 유형	신체적 장애	1,014	7.9	장기 요양보험	해당없음	12,583	97.6
	정신적 장애	172	1.3		1등급	10	0.1
	해당 없음	11,711	90.8		2등급	24	0.2
장애 정도	심한장애	112	0.9		3등급	44	0.3
	심하지 않은 장애	1,072	8.3		4등급	71	0.6
	모름	2	0.0		5등급	104	0.8
	해당없음	11,711	90.8		인지지원등급	61	0.5
돌봄 필요 여부	예	741	5.7	내/외국인 여부	내국인	12,339	95.7
	아니오	12,156	94.3		외국인	558	4.3

[표 3-2] 응답 가구의 가구주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058	100.0
가구주 성별	남성	4,571	75.5
	여성	1,487	24.5
연령대	29세 이하	100	1.7
	30~39세	724	12.0
	40~49세	940	15.5
	50~64세	2,190	36.2
	65~74세	1,620	26.7
	75세 이상	484	8.0
학력	중학교 이하	878	14.5
	고등학교	3,166	52.3
	전문 학사	685	11.3
	학사	1,308	21.6
	석사 이상	21	0.3
경제활동	맞벌이	1,912	31.6
경제 활동 상태	상용근로자	2,483	41.0
	임시/일용근로자	950	15.7
	고용주/자영업자	1,246	20.6
	무급가족종사자	61	1.0
	임시휴직	40	0.7
	구직활동	127	2.1
	주부	316	5.2
	학업	3	0.0
	무직	830	13.7
	해당없음	2	0.0

구분		사례수	비율
가구원수	1인 가구	1623	26.8
	2인 가구	2536	41.9
	3인 가구	1443	23.8
	4인 가구	417	6.9
	5인 이상 가구	39	.6
	평균	2.13명 최소:1명, 최대 : 5명	
거주기간	1년 미만	38	0.6
	1~3년 미만	308	5.1
	3~5년 미만	296	4.9
	5~10년 미만	1,020	16.8
	10~15년 미만	954	15.7
	15~20년 미만	729	12.0
	20년 이상	2,713	44.8
	평균	21.5년 최소 : 0.08년, 최대 : 87.2년	
주거형태	일반주택	1,204	19.9
	아파트	2,759	45.5
	아파트 이외 다가구	1,972	32.6
	기타	123	2.0
가구 소득수준	1분위	798	13.2
	2분위	1,731	28.6
	3분위	1,923	31.7
	4분위	1,224	20.2
	5분위	382	6.3

2.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분석

1) 돌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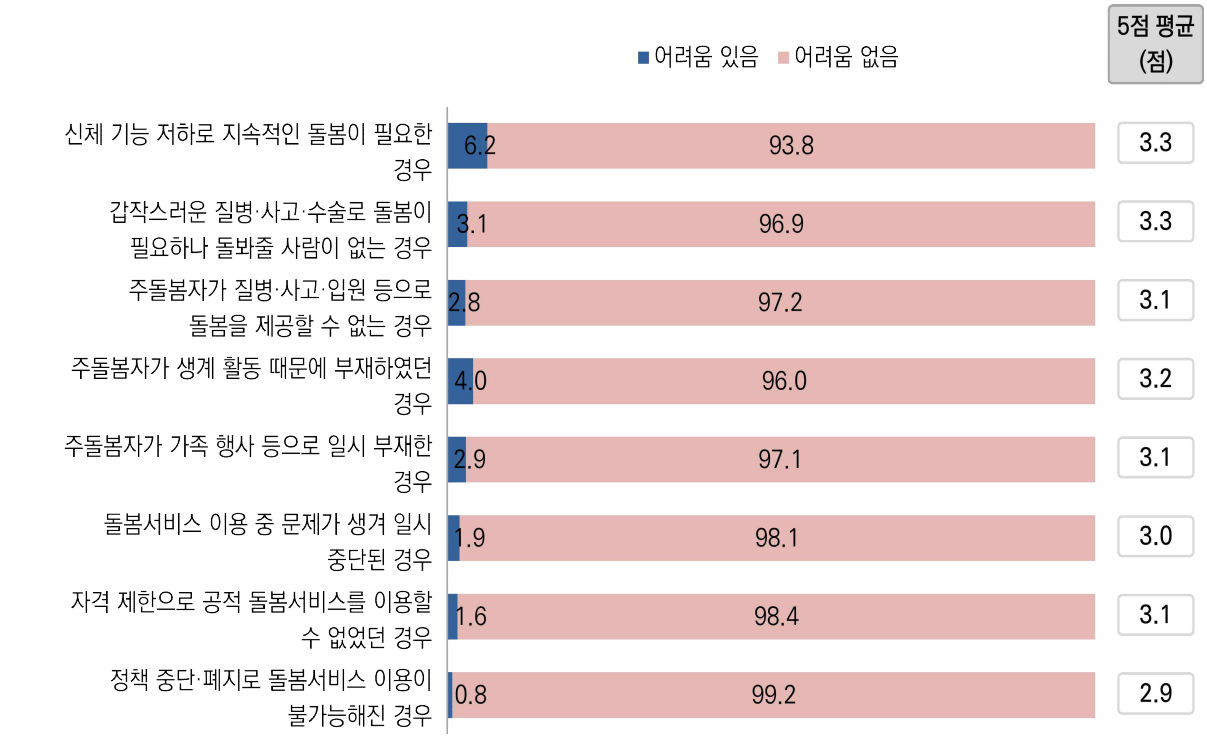
(1)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해결 방법

-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를 측정하는 8가지 항목에 대한 어려움 경험을 살펴본 결과, 돌봄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이 8% 내외로 높지 않음

- 인천시 응답 가구의 돌봄 어려움 경험은 신체기능 저하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심각 정도도 3.3점으로 높게 나타남. 이어 갑작스러운 질병·사고·수술(3.1%, 3.3점), 주돌봄자의 생계 활동 부재(4.0%, 3.2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반면 정책 중단·폐지로 인한 어려움은 0.8%, 평균 2.9점으로 가장 낮았음

[그림 3-1]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단위 : %)



[표 3-4]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단위 : 명, %)

구분	전체(n=6,058)		
	어려움 경험 여부		어려움 심각정도
	있음	없음	평균(점/5점)
신체 기능 저하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6.2	93.8	3.3
갑작스러운 질병·사고·수술로 돌봄이 필요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3.1	96.9	3.3
주돌봄자가 질병·사고·입원 등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8	97.2	3.1
주돌봄자가 생계 활동 때문에 부재하였던 경우	4.0	96.0	3.2
주돌봄자가 가족 행사 등으로 일시 부재한 경우	2.9	97.1	3.1
돌봄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겨 일시 중단된 경우	1.9	98.1	3.0
자격 제한으로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1.6	98.4	3.1
정책 중단·폐지로 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0.8	99.2	2.9

- 지역별 돌봄 어려움 심각 정도를 5점 만점 기준으로 살펴보면, 검단구, 연수구, 동구, 미추홀구, 강화군에서 평균 점수가 높아 돌봄 공백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연수구는 정책 중단·폐지(4.5점), 자격 제한(4.2점) 등 제도적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두드러졌음. 반면 중구, 부평구, 계양구는 돌봄 어려움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조사됨

- 신체기능 저하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검단구(3.9점)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해구(3.6점), 미추홀구(3.5점) 순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중구(2.0점), 부평구(2.8점), 연수구(2.8점) 등으로 검단구·서해구·미추홀구에서 장기 돌봄 수요가 특히 높음을 보여줌
- 갑작스러운 질병·사고·수술로 돌봄이 필요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심각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검단구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동구 3.7점, 연수구 3.5점 순이었으며, 이에 반해, 부평구 1.0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동구 2.0점으로 낮게 나타남
- 주돌봄자가 질병·사고·입원 등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어려움은 미추홀구와 강화군이 각각4.0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동구 3.4점, 연수구 3.3점 순인 반면, 계양구 1.0점, 동구 1.5점으로 낮게 나타남
- 주돌봄자가 생계 활동 때문에 부재한 경우 어려움은 동구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검단구 3.8점, 서해구 3.3점 수준인 반면, 부평구 2.0점으로 가장 낮았음
- 주돌봄자가 가족 행사 등으로 일시 부재한 경우 어려움은 동구와 검단구가 각각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해구 3.3점 순인 반면, 중구와 부평구는 2.0점으로 가장 낮았음
- 돌봄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겨 일시 중단된 경우의 어려움은 동구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수구 3.8점, 서해구 3.3점 순인 반면, 부평구 1.5점으로 옹진군(2.6점)보다 낮은 수준임
- 자격 제한으로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의 어려움은 연수구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구 4.0점, 검단구 3.7점, 서해구 3.5점, 남동구 3.2점 순인 반면, 부평구와 중구 2.0점으로 낮음
- 정책 중단·폐지로 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어려움은 연수구 4.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화군 3.3점,중구와 미추홀구 각각 3.0점 순인 반면, 부평구는 1.0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3-5] 인천시 군·구별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단위 : 명)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신체 기능 저하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3.3	2.0	-	**3.5**	2.8	3.1	2.8	3.2	**3.6**	**3.9**	2.8	3.4
갑작스러운 질병·사고·수술로 돌봄이 필요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3.3	-	2.0	**3.5**	**3.5**	**3.7**	1.0	3.3	**3.4**	**3.9**	2.8	2.8
주돌봄자가 질병·사고·입원 등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1	1.5	**4.0**	3.1	**3.3**	**3.4**	1.0	3.1	3.0	**4.0**	2.8	2.6
주돌봄자가 생계 활동 때문에 부재하였던 경우	3.2	-	**3.9**	3.0	**3.4**	3.1	2.0	3.1	**3.3**	**3.8**	2.8	3.1
주돌봄자가 가족 행사 등으로 일시 부재한 경우	3.1	2.0	**3.9**	2.8	3.1	2.9	2.0	3.0	**3.3**	**3.9**	2.6	3.1
돌봄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겨 일시 중단된 경우	3.0	3.0	**4.0**	3.0	**3.8**	**3.4**	1.5	2.8	3.0	3.0	2.6	2.6
자격 제한으로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3.1	2.0	4.0	3.0	**4.2**	**3.2**	2.0	2.9	**3.5**	**3.7**	2.9	2.8
정책 중단·폐지로 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2.9	**3.0**	-	**3.0**	**4.5**	2.8	1.0	3.0	-	-	**3.3**	2.5

- 응답 가구의 돌봄 어려움 해결 방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족의 도움'(40.7~56.4%)과 가족 이외 주변인이 31.8% ~ 49.1%로 사적 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돌봄은 복지관 및 복지시설의 도움이 5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도움은 약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이 중단 폐지로 인해 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35.3%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신체 기능 저하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의 도움을 받은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고, 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51.1%로 나타남. 가족 외 주변인의 도움은 31.8%,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도움은 21.7%였으며,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8%로 확인됨
- 갑작스러운 질병·사고·수술로 돌봄이 필요했으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족의 도움(52.7%)과 가족 외 주변인의 도움(44.6%)이 가장 많았음. 복지기관 도움은 31.2%, 정부 도움은 23.7%였으며,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는 18.8%로 나타남
- 주돌봄자가 질병·사고·입원 등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도움(57.4%)이 가장 많았고, 가족 외 주변인의 도움도 49.1%로 높게 나타났음. 정부 도움은 23.7%, 도움 없음은 21.3%, 복지기관 도움은 18.3%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주돌봄자가 생계 활동 때문에 부재한 경우에는 가족 외 주변인의 도움(44.4%)과 가족의 도움(40.7%)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복지기관 도움은 31.7%, 정부 도움은 24.3%였음.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도 24.7%로 적지 않았음
- 주돌봄자가 가족 행사 등으로 일시 부재한 경우에는 가족의 도움(47.4%)과 가족 외 주변인의 도움(42.8%)이 가장 많았으며, 정부 도움은 30.1%, 복지기관 도움은 27.7%였으며, 도움 없음은 20.2%임
- 돌봄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겨 일시 중단된 경우에는 가족의 도움(46.6%)과 가족 외 주변인의 도움(40.7%)이 많았음. 정부 도움은 24.6%, 도움 없음은 28.0%, 복지기관 도움은 20.3%로 나타남
- 자격 제한으로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가족의 도움(49.0%)과 가족 외 주변인의 도움(40.6%)이 가장 많았으며 도움 없음은 29.2%, 정부와 복지기관 도움은 각각 18.8%로 낮게 나타남
- 정책 중단·폐지로 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가족의 도움(41.2%)이 가장 많았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도 35.3%로 매우 높았음. 가족 외 주변인의 도움은 31.4%, 정부 도움은 19.6%, 복지기관 도움과 기타는 각각 17.6%로 나타남

[표 3-6] 돌봄 관련 어려움 해결 방법(1+2순위 기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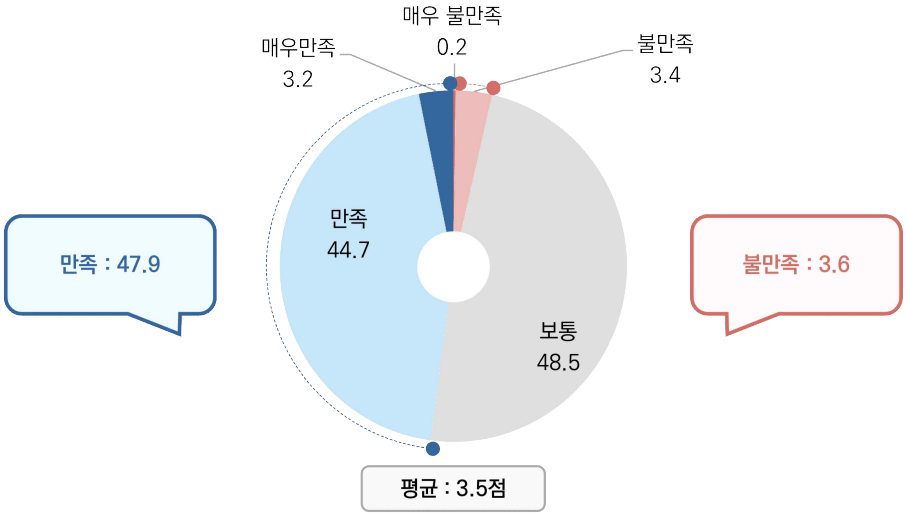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도움 받은 경험이 없음	가족의 도움	가족 외 주변인의 도움	정부 및 공공기관 도움	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의 도움	영리업체 도움	기타
신체 기능 저하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374	15.8	56.4	31.8	21.7	51.1	4.0	3.5
갑작스러운 질병·사고·수술로 돌봄이 필요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186	18.8	52.7	44.6	23.7	31.2	3.2	7.0
주돌봄자가 질병·사고·입원 등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69	21.3	57.4	49.1	23.7	18.3	1.8	7.1
주돌봄자가 생계 활동 때문에 부재하였던 경우	243	24.7	40.7	44.4	24.3	31.7	2.9	6.6
주돌봄자가 가족 행사 등으로 일시 부재한 경우	173	20.2	47.4	42.8	30.1	27.7	5.8	5.8
돌봄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겨 일시 중단된 경우	118	28.0	46.6	40.7	24.6	20.3	4.2	7.6
자격 제한으로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96	29.2	49.0	40.6	18.8	18.8	5.2	9.4
정책 중단·폐지로 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51	35.3	41.2	31.4	19.6	17.6	2.0	17.6

(2)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지원제도 만족도

-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지원제도 만족도는 '보통'이 48.5%로 가장 많았고, '만족'은 44.7%, '매우 만족'은 3.2%로 나타남. 반면 '불만족'은 3.4%, '매우 불만족'은 0.2%였으며, 전체 평균 점수는 3.5점으로 중간 이상 수준임
- 지역별로는 계양구(3.7점), 남동구(3.6점), 옹진군(3.6점)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부평구(3.3점), 강화군(3.3점), 중구(3.3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3-2]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지원제도 만족도

(단위 : %)



[표 3-7]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지원제도 만족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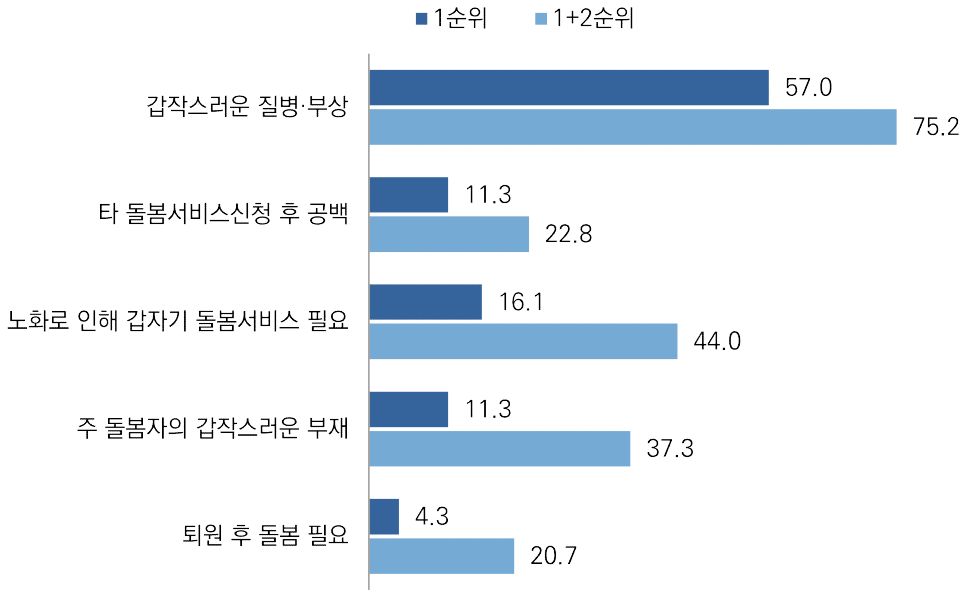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평균(점/5점)
전체	6,058	0.2	3.4	48.5	44.7	3.2	3.5
중구	600	0.8	5.5	52.8	40.8	0.0	3.3
동구	620	0.2	1.3	61.0	36.6	1.0	3.4
미추홀구	600	0.0	7.3	42.5	48.8	1.3	3.4
연수구	600	0.5	5.5	40.2	48.7	5.2	3.5
남동구	600	0.0	2.2	35.7	58.7	3.5	3.6
부평구	600	0.3	3.0	67.5	27.8	1.3	3.3
계양구	600	0.0	1.7	36.8	49.2	12.3	3.7
서해구	340	0.0	1.2	46.2	47.1	5.6	3.6
검단구	260	0.0	4.2	48.1	40.0	7.7	3.5
강화군	600	0.2	4.5	62.5	31.5	1.3	3.3
옹진군	(638)	0.0	0.8	39.5	59.7	0.0	3.6

(3)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은 갑작스러운 질병·부상(1+2순위 75.2%)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노화(44.0%), 주 돌봄자의 부재(37.3%), 타 돌봄서비스 공백(22.8%), 퇴원 후 돌봄(20.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단위 : %)



- 군·구별로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우선 순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검단구, 동구, 계양구에서 응급·노인 돌봄 수요가 높았고, 서해구와 옹진군은 제도적 공백과 고령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남

-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돌봄 필요는 검단구(91.5%), 동구(85.3%), 미추홀구(82.2%), 계양구(80.3%), 부평구(78.2%) 등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 응급 돌봄 수요가 집중된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서해구(52.9%), 옹진군(66.1%), 중구(73.0%)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노화로 인한 돌봄 필요의 경우 옹진군(65.0%), 서해구(51.5%), 동구(50.2%), 계양구(48.5%), 강화군(45.5%)순으로 이들 지역은 노화 관련 수요가 높아 고령화 대응이 시급한 지역으로 해석됨. 반면 중구(31.7%), 남동구(33.5%), 연수구(35.7%)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대해 중구(57.3%), 남동구(43.3%), 검단구(42.3%), 연수구(38.2%), 미추홀구(37.7%)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계양구(29.3%), 동구(30.3%),옹진군(28.5%)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타 돌봄서비스 신청 후 공백에서의 돌봄 필요성은 서해구(46.2%), 남동구(34.5%), 중구(29.7%), 옹진군(28.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퇴원 후 돌봄 필요성은 연수구(41.0%), 부평구(28.2%), 강화군(26.5%)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은 회복기 돌봄 수요가 높아 의료와 돌봄 연계 강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해석됨

[표 3-8] 인천시 군·구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1+2순위)

(단위 : 명, %)

구분 (n=6,058)	사례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타 돌봄서비스 신청 후 공백	노화로 인해 갑자기 돌봄서비스 필요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퇴원 후 돌봄 필요
전체	6,058	**75.2**	22.8	**44.0**	37.3	20.7
중구	600	**73.0**	29.7	31.7	**57.3**	8.3
동구	620	**85.3**	16.0	**50.2**	30.3	18.2
미추홀구	600	**82.2**	19.5	39.3	37.7	21.2
연수구	600	**73.2**	12.0	35.7	38.2	41.0
남동구	600	**69.7**	34.5	33.5	**43.3**	19.0
부평구	600	**78.2**	14.5	**42.3**	36.8	28.2
계양구	600	**80.3**	21.5	**48.5**	29.3	20.2
서해구	340	**52.9**	**46.2**	**51.5**	35.0	14.4
검단구	260	**91.5**	13.5	**41.2**	**42.3**	11.5
강화군	600	**74.5**	19.2	**45.5**	34.3	26.5
옹진군	638	**66.1**	28.7	**65.0**	28.5	11.6

(4) 긴급돌봄서비스

-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은 전체적으로 2% 내외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용자 만족도는 모두 3.7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긴급 이동지원서비스는 평균 3.9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는 이동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시사함

- 긴급 재가돌봄서비스는 전체 응답자의 1.8%(109건)가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만족도는 3.8점으로 높은 편에 속함
- 긴급 가사지원서비스는 1.9%(109건)가 이용하였고, 평균 만족도는 3.8점으로 생활지원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중간 이상 수준임
- 긴급 이동지원서비스는 1.7%(100건)가 이용하였고, 평균 만족도는 3.9점으로 모든 서비스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함. 이는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음을 시사함
- 긴급 방문목욕서비스는 1.0%(60건)가 이용하였고, 평균 만족도는 3.8점으로 나타남. 이용률은 낮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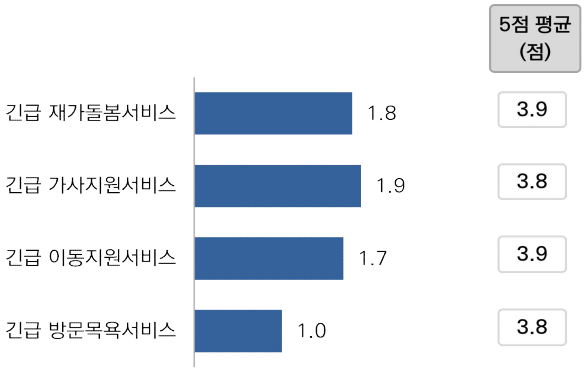
[표 3-9]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전체(n=6,058)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점/5점)
긴급 재가돌봄서비스	1.8	109	3.9
긴급 가사지원서비스	1.9	114	3.8
긴급 이동지원서비스	1.7	100	3.9
긴급 방문목욕서비스	1.0	60	3.8

[그림 3-4]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단위 : %)



- 인천시 군·구별 긴급돌봄서비스 이용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률은 옹진군과 계양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 응답 비율이 낮아 지역별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인천시 군·구별 이용경험률과 만족도에 대한 해석은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서 이용경험률에 있어서 옹진군과 계양구, 미추홀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옹진군은 초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비중이 높고,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됨
-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중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5점 이상 높은 만족 수준을 보임

[표 3-10] 인천시 군·구별 긴급돌봄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긴급 재가돌봄서비스	0.5	0.2	**3.5**	0.8	1.0	0.8	2.8	3.2	0.4	1.2	**5.0**
긴급 가사지원서비스	0.5	0.6	3.0	1.2	1.5	0.8	**3.2**	0.6	0.4	2.0	**5.3**
긴급 이동지원서비스	1.0	0.2	2.2	0.2	2.5	-	**3.3**	0.3	-	2.8	**4.1**
긴급 방문목욕서비스	0.7	0.2	1.3	-	1.7	-	**2.8**	0.3	-	0.5	**2.5**

[표 3-11] 인천시 군·구별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긴급 재가돌봄서비스	2.0	3.0	3.9	**4.2**	4.0	3.8	3.9	3.6	4.0	4.0	**4.0**
긴급 가사지원서비스	3.0	3.5	3.8	**4.1**	3.9	3.8	3.6	3.5	5.0	3.8	**3.9**
긴급 이동지원서비스	2.8	4.0	4.0	**4.0**	4.1	-	4.0	3.0	-	3.9	**4.1**
긴급 방문목욕서비스	3.0	4.0	3.8	-	4.1	-	3.9	3.0	-	3.0	3.9

- 긴급돌봄서비스 인지 경로와 미이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는 인지경로는 행정복지센터 안내와 지인 권유를 통해 인지되었으나, 미사용 이유로 많은 응답자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홍보 채널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한편, 서비스 미이용의 두 번째 이유로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약 20%수준이며, '이용방식이 나와 맞지 않아서'가 약 15%를 상회한다는점에서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긴급돌봄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가돌봄·가사지원서비스의 경우 인지경로는 행정복지센터 안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미이용 사유에서는 '몰라서'가 59.4%와 58.7%로 높게 나타남
- 이동지원서비스는 지인 권유 비율이 27.0%로 가장 높았는데, 미이용 사유에서도 '몰라서'가 59.2%로 나타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은 활발하지만 제도적 홍보는 부족함을 보여줌
- 방문목욕서비스 또한 행정복지센터 안내가 65%로 가장 높았지만, 미이용 사유에서는 '몰라서'가 59.1%로 나타나 공공기관 안내에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범위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음

[표 3-12] 긴급돌봄서비스 인지 경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구청의 안내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안내	지인의 권유	기타
긴급 재가돌봄서비스	109	5.5	3.7	11.0	59.6	19.3	0.9
긴급 가사지원서비스	114	7.9	5.3	10.5	53.5	21.9	0.9
긴급 이동지원서비스	100	1.0	6.0	6.0	59.0	27.0	1.0
긴급 방문목욕서비스	60	-	6.7	11.7	65.0	15.0	1.7

[표 3-13] 긴급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용방식이 나와 맞지 않아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이어서	기타
긴급 재가돌봄서비스	776	59.4	17.8	19.2	3.5	0.1
긴급 가사지원서비스	779	58.7	20.0	18.4	3.0	0.0
긴급 이동지원서비스	683	59.2	20.5	15.8	4.5	0.0
긴급 방문목욕서비스	651	59.1	21.0	15.5	4.3	0.0

2) 아동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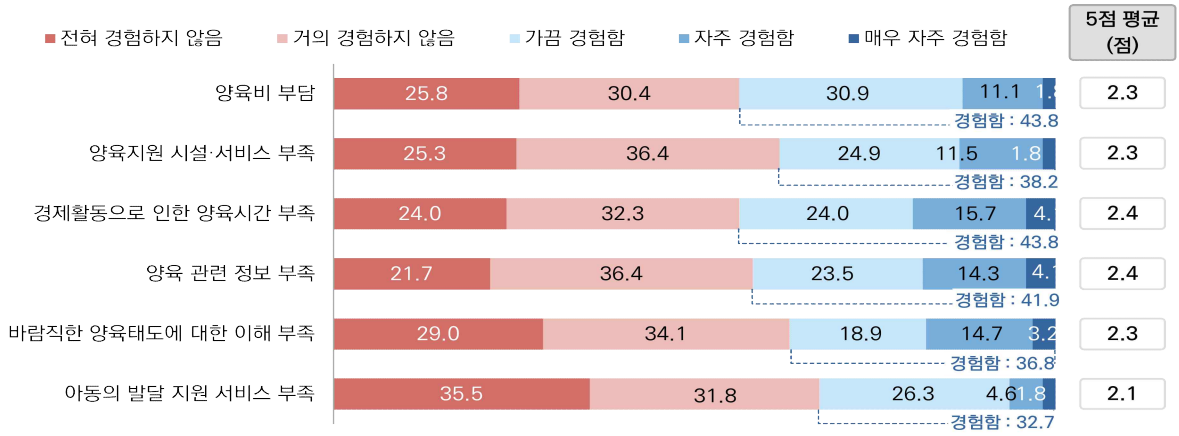
(1) 미취학 아동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 미취학 아동 돌봄의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인천 시민들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평균 2.44점)과 양육 관련 정보 부족(평균 2.43점)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특히 양육시간 부족은 '자주 경험함'과 '매우 자주 경험함' 응답이 19.8%에 달해, 많은 양육자가 일과 육아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 정보 부족 역시 18.4%가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경험한다고 응답해, 양육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에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로, 정보 접근성 개선과 콘텐츠 제공 확대가 요구됨
- 양육비 부담(평균 2.3점)과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평균 2.3점)도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부족의 경우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경험한 응답이 13.3%에 달해 지역 간 시설 접근성 격차와 서비스 질적 한계가 확인됨. 반면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부족(평균 2.0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체감도를 보였으나, 이는 서비스 인식 부족이나 실제 접근성의 문제일 수 있어 정책적 점검이 필요함
- 한편, 5기 조사와 비교할 때, 돌봄의 어려움 경험은 낮아지고, 양육 관련 어려움 체감이 완화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5] 미취학 아동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단위 : %)



[표 3-14] 미취학 아동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단위 : 명, %)

구분	6기(n=217)						5기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양육비 부담	25.8	30.4	30.9	11.1	1.8	2.3	2.6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25.3	36.4	24.9	11.5	1.8	2.3	2.5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24.0	32.3	24.0	15.7	4.1	2.4	2.6
양육 관련 정보 부족	21.7	36.4	23.5	14.3	4.1	2.4	2.5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 부족	29.0	34.1	18.9	14.7	3.2	2.3	2.5
아동의 발달 지원 서비스 부족	35.5	31.8	26.3	4.6	1.8	2.1	2.3

* 5기는 만 18세 미만 아동 전체 응답임

-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 지역별로는 연수구·옹진군·강화군에서 양육시간 부족, 정보 부족, 시설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양구·부평구는 양육비 부담과 발달 지원 서비스 부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중구·서해구·검단구는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어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양육비 부담은 강화군(2.8점), 옹진군(2.6점), 계양구(2.7점)에서 높은 수준을 보임
-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은 대부분 지역에서 5기 대비 6기 점수가 낮아져 체감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수구(2.7점)와 강화군(2.8점)은 어려움정도가
-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은 연수구(3.0점), 옹진군(2.9점), 강화군(2.7점)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맞벌이·경제활동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이 두드러짐. 반면 중구는 2.3점에서 1.9점으로 크게 낮아져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이 완화된 흐름을 보였음
- 양육 관련 정보 부족은 연수구(3.0점), 옹진군(2.9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중구는 2.4점에서 1.7점으로 크게 낮아져 정보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연수구(2.7점), 옹진군(2.5점), 계양구(2.6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중구와 서해구(각 1.7점)는 낮아져 체감이 완화된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부족은 계양구(2.5점), 강화군(2.4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중구는 2.1점에서 1.3점으로 크게 낮아졌음

[표 3-15] 인천시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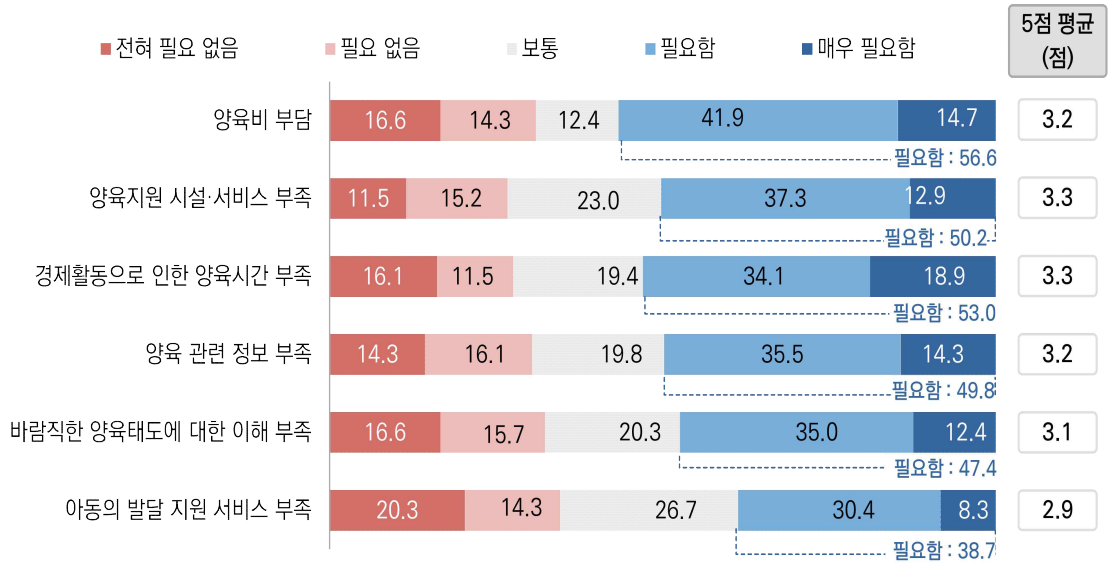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양육비 부담	2.3	1.5	2.1	2.5	2.3	2.3	2.3	2.7	2.0	1.8	2.8	2.6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2.3	2.0	2.1	2.4	2.7	2.0	2.3	2.2	1.7	1.6	2.8	2.3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2.4	1.9	2.2	2.5	3.0	1.9	2.4	2.6	2.0	2.4	2.7	2.9
양육 관련 정보 부족	2.4	1.7	2.6	2.5	3.0	2.2	2.3	2.4	2.2	2.0	2.5	2.9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 부족	2.3	1.7	2.5	2.1	2.7	2.1	2.2	2.6	1.7	2.0	2.5	2.5
아동의 발달 지원 서비스 부족	2.1	1.3	2.2	1.8	2.0	1.9	2.4	2.5	1.7	1.8	2.4	2.0

(2)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미취학 아동 돌봄과 관련한 외부 지원 필요성은 양육비 부담이 5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53.0%, 양육지원 시설 및 서비스 부족 50.2%, 양육관련정보 부족 49.8%,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대한이해 부족 47.4%, 아동의 발달지원 서비스 부족 38.7%순임
- 한편, 5기 조사 결과에 비교해서 대부분 항목의 서비스 필요성이 소폭 상승하여, 시민들이 돌봄 관련 외부 지원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6]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



[표 3-16]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6기(n=217)						5기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양육비 부담	16.6	14.3	12.4	41.9	14.7	3.24	3.1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11.5	15.2	23.0	37.3	12.9	3.25	3.1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16.1	11.5	19.4	34.1	18.9	3.28	3.1
양육 관련 정보 부족	14.3	16.1	19.8	35.5	14.3	3.19	3.0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 부족	16.6	15.7	20.3	35.0	12.4	3.11	3.1
아동의 발달 지원 서비스 부족	20.3	14.3	26.7	30.4	8.3	2.92	2.9

* 5기는 만 18세 미만 아동 전체 응답임

- 군·구별 미취학 아동돌봄 관련 외부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은 옹진군과 연수구, 부평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서해구와 중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욕구를 보임
- 한편, 5기와 비교시 중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3-17] 인천시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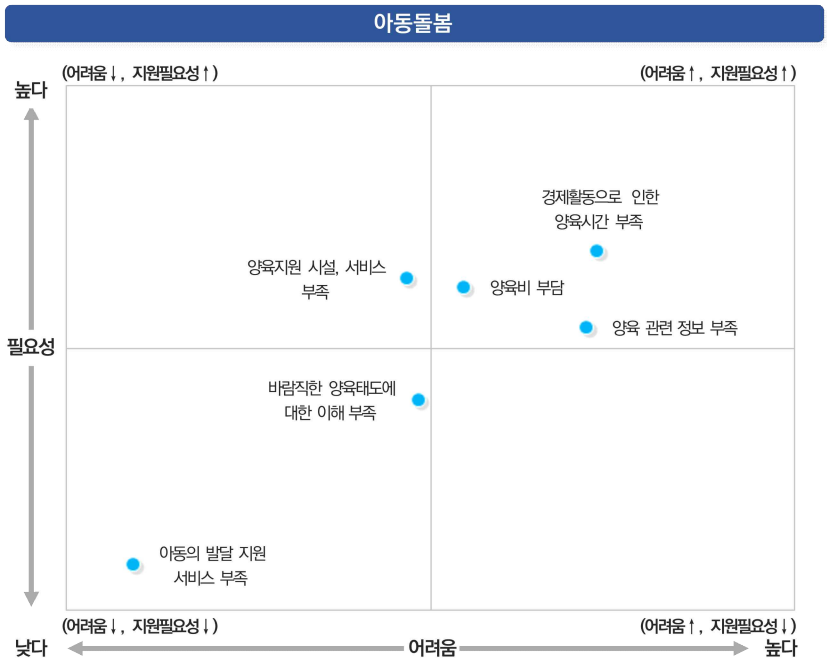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양육비 부담	3.2	2.1	2.9	3.1	3.4	**4.0**	3.5	3.2	2.2	3.0	3.6	**4.1**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3.3	2.8	3.2	3.1	**3.7**	3.4	3.6	3.0	2.2	3.0	3.5	**4.4**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3.3	2.3	3.2	3.2	**3.7**	3.4	3.6	3.1	2.2	3.6	**3.6**	**4.4**
양육 관련 정보 부족	3.2	2.4	3.2	3.2	**3.7**	3.4	3.5	3.1	2.3	3.0	3.1	**4.0**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 부족	3.1	2.0	3.1	2.9	**3.5**	3.4	**3.5**	3.3	2.2	3.0	3.2	**4.0**
아동의 발달 지원 서비스 부족	2.9	1.7	3.1	2.7	3.2	2.9	**3.5**	3.0	2.1	2.8	3.1	**4.1**

(3) 미취학 아동 돌봄 IPA 결과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은 중요도-성과 분석이라고 하며, 아동 돌봄에서 어려움이 높고, 외부지원이 필요한 항목들을 파악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을 목적으로 활용
-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 돌봄에 대한 어려움 경험이 높고, 관련 서비스의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양육비 부담, 양육관련 정보부족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은 시민이 인식하는 필요성과 실제 체감의 균형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그림 3-7] 인천시 전체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IPA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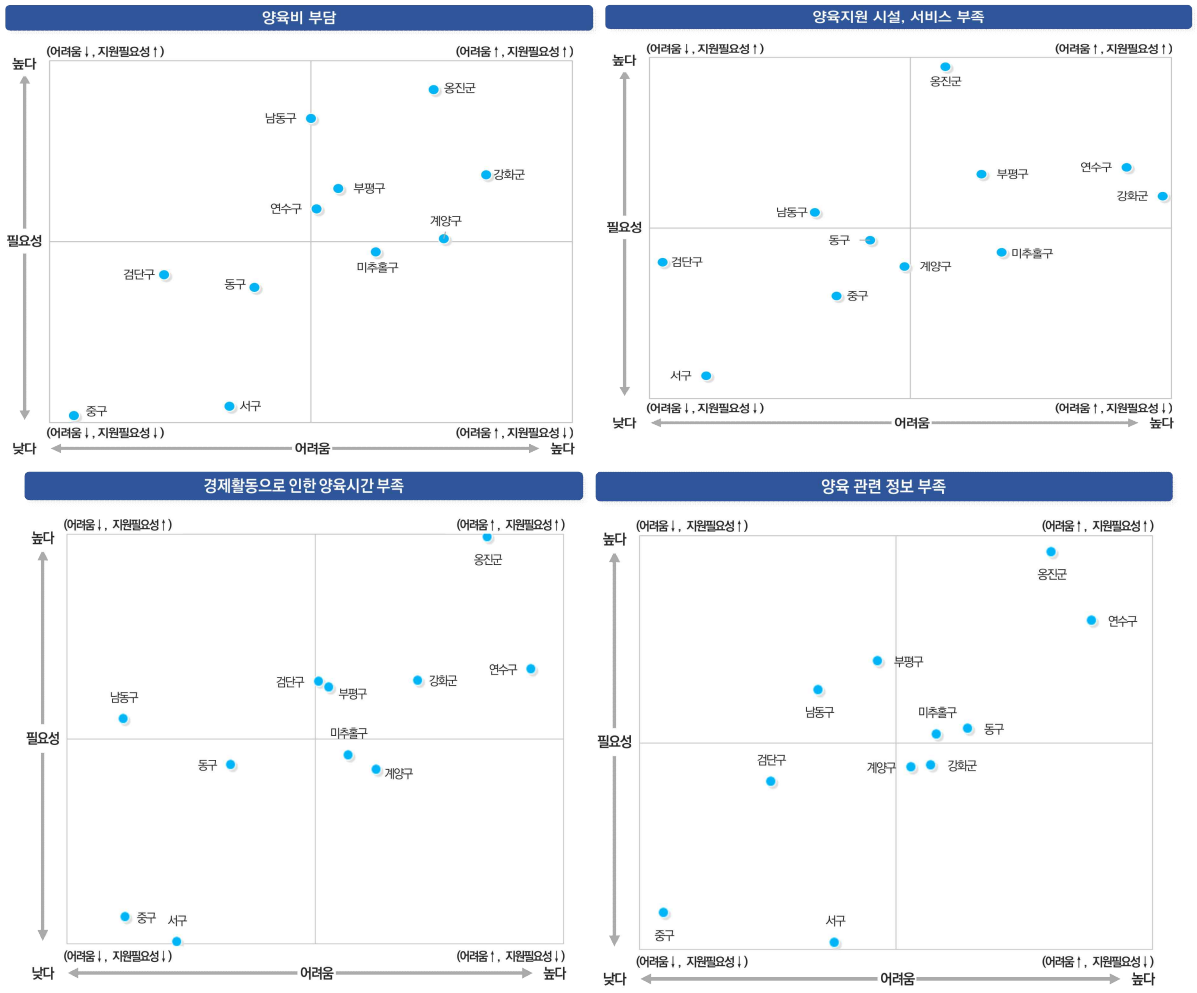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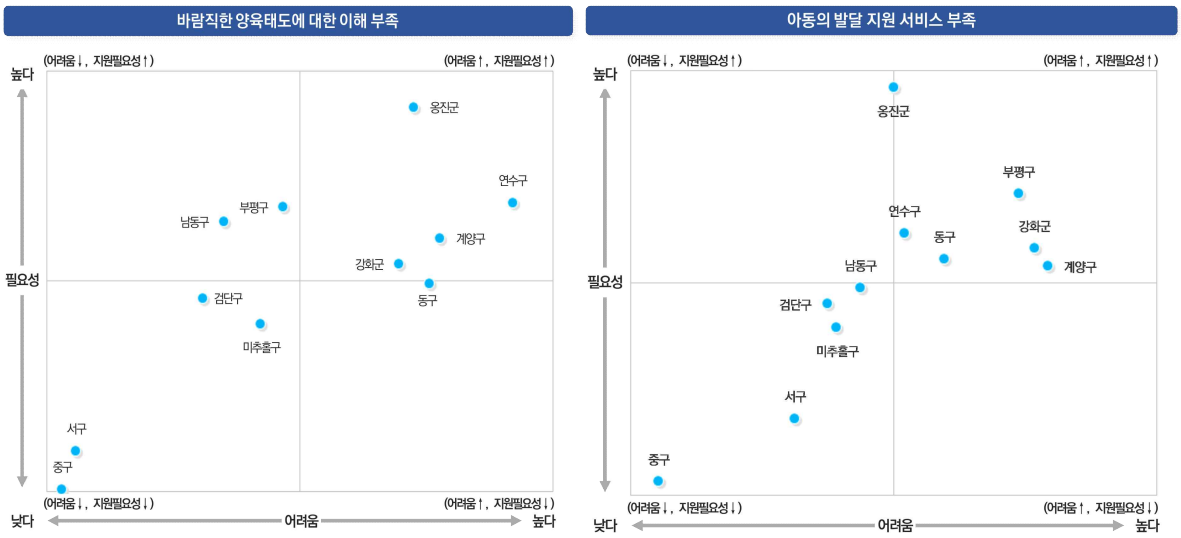


-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어려움과 필요성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옹진군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화군, 계양구, 연수구, 부평구 등으로 나타남
  - 양육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옹진군, 강화군, 부평구, 계양구임.
  - 양육지원 시설 및 서비스 부족의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은 옹진군, 부평구, 연수구, 강화군이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의 어려움과 필요성은 옹진군, 연수구, 강화군이 높게 나타남
  - 양육관련 정보 부족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지역은 옹진군, 연수구, 미추홀구, 동구로 나타남
  - 바람직한 양육태도 이해 부족의 어려움과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옹진군,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으로 나타남
  -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 부족의 어려움과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부평구, 강화군, 계양구, 연수구 동구로 나타남

[그림 3-8]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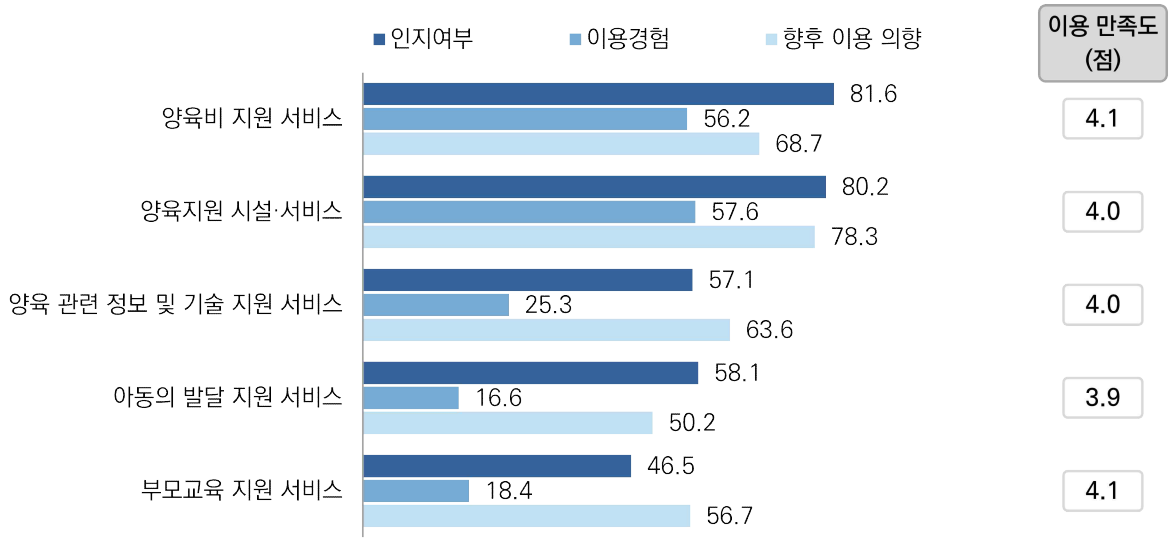


(4)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중앙정부 · 지자체 운영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

- 미취학 아동 돌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비 지원 서비스'가 8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육지원시설·서비스' 80.2%,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58.1%,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57.1%,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46.5% 순으로 나타남
-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양육지원 시설·서비스'가 57.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양육비 지원 서비스' 56.2%,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25.3%,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18.4%,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16.6% 순으로 나타남. 이는 5기에 비해 모든 항목의 이용 경험이 크게 증가하여 실제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 이용 만족도는 '양육비 지원 서비스'와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각 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4.0점,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4.0점,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3.9점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이용 의향을 살펴본 결과, '양육지원 시설·서비스'가 7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육비 지원 서비스' 68.7%,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63.6%,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56.7%,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50.2% 순으로 나타남. 6기에서 향후 이용 의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양육지원 시설·서비스'와 '양육 관련 정보 서비스'에서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남. 5기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이용 의향도 증가함
- 한편, 6기 인천시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인지 수준은 5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지율과 이용 경험, 이용 의향 등이 상승함

[그림 3-9]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 현황

(단위 : %)



[표 3-18]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217)					5기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양육비 지원 서비스	81.6	56.2	122	4.06	68.7	75.8	32.6	61.9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80.2	57.6	125	4.02	78.3	83.8	26.1	53.0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57.1	25.3	55	4.00	63.6	44.6	7.8	45.5
아동의 발달 지원 서비스	58.1	16.6	36	3.92	50.2	45.0	7.8	41.2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46.5	18.4	40	4.05	56.7	35.5	4.5	42.0

-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는 검단구와 중구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동구와 옹진군, 부평구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율을 보임. 한편, '부모교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검단구와 중구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서해구의 인지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부평구와 강화군은 경우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서비스와 부모교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항목에 따른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양육비 지원서비스'와 '양육지원 시설 ·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동구와 연수구, 부평구, 서해구, 옹진군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

[표 3-19]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양육비 지원 서비스	**100.0**	53.8	82.8	76.7	80.0	66.7	96.9	50.0	**100.0**	92.9	62.5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100.0**	46.2	89.7	66.7	70.0	61.9	96.9	60.0	**100.0**	92.9	75.0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100.0**	30.8	65.5	53.3	50.0	33.3	81.3	50.0	**100.0**	**25.0**	50.0
아동의 발달 지원 서비스	95.2	53.8	58.6	53.3	45.0	52.4	84.4	30.0	80.0	**25.0**	62.5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95.2	30.8	48.3	43.3	25.0	**19.0**	87.5	20.0	**100.0**	**10.7**	37.5

-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 낮은 인지도는 낮은 이용 경험과 관련이 있는데, 높은 인지도에 비해 이용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지역별로는 강화군과 서해구, 부평구, 남동구, 동구의 이용 경험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계양구와 연수구,중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경험률을 나타냄
- 양육비 지원 서비스는 계양구(87.5%)와 연수구(70.0%), 미추홀구(65.5%)에서 높은 이용 경험을 보였고, 이에 반해, 동구(23.1%)와 서해구(30.0%)는 이용 경험이 낮았음
- 양육지원 시설·서비스는 중구와 검단구에서 100.0%로 가장 높은 이용 경험을 보였으며, 강화군(82.1%)과 계양구(75.0%)도 높은 수준을 기록함. 그러나 동구(15.4%)와 부평구(33.3%)는 낮은 이용 경험을 보임
-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는 중구(76.2%)에서 가장 높았으며, 계양구(46.9%)와 검단구(40.0%)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강화군(3.6%), 남동구(5.0%), 동구(7.7%)는 낮은 이용 경험을 보임
-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는 계양구(50.0%)에서 가장 높았으며, 미추홀구(13.8%), 연수구(20.0%)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됨. 그러나 서해구(0.0%)와 강화군(0.0%)은 전혀 이용 경험이 없어, 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는 계양구(43.8%)와 중구(42.9%)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음. 반면 남동구, 부평구, 서해구, 강화군은 전혀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임.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높은 욕구에 비해 이용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표 3-20]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양육비 지원 서비스	42.9	23.1	65.5	**70.0**	30.0	52.4	**87.5**	30.0	40.0	57.1	50.0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100.0**	15.4	51.7	56.7	25.0	33.3	75.0	30.0	**100.0**	82.1	37.5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76.2	7.7	20.7	26.7	5.0	9.5	46.9	10.0	40.0	3.6	25.0
아동의 발달 지원 서비스	9.5	7.7	13.8	20.0	5.0	14.3	**50.0**	-	20.0	-	25.0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42.9**	7.7	17.2	26.7	-	-	**43.8**	-	20.0	-	25.0

●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 수준을 보임
- 양육비 지원 서비스는 검단구(4.5점)와 서해구(4.3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으며, 연수구(4.2점), 강화군(4.2점)도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동구(3.7점)와 옹진군(3.5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양육지원 시설·서비스는 중구(4.1점), 연수구(4.1점), 계양구(4.1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4.0점 내외로 안정적인 평가를 받음. 그러나 동구(3.5저), 부평구(3.7점), 옹진군(3.7점)은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는 강화군(5.0점)과 옹진군(5.0점)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으며, 연수구(4.1점)도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부평구(3.5점)와 미추홀구(3.8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는 동구(5.0점), 옹진군(5.0점), 연수구(4.3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중구(4.0점), 검단구(4.0점)도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그러나 남동구(3.0점), 부평구(2.7점)는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임
-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는 연수구(4.2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4.0점 내외로 안정적인 평가를 보임. 다만 일부 지역(남동구, 부평구, 서해구, 강화군)은 평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

[표 3-21]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양육비 지원 서비스	4.1	4.1	3.7	4.1	4.2	3.8	3.8	4.1	4.3	4.5	4.2	3.5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4.0	4.1	3.5	4.0	4.1	4.0	3.7	4.1	4.0	4.0	4.0	3.7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4.0	4.0	4.0	3.8	4.1	4.0	3.5	3.9	4.0	4.0	5.0	5.0
아동의 발달 지원 서비스	3.9	4.0	5.0	3.8	4.3	3.0	2.7	3.9	-	4.0	-	5.0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4.1	4.0	4.0	4.0	4.3	-	-	4.0	-	4.0	-	4.0

●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미취학 아동 돌봄 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 경험이 높아질수록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양육비 지원 서비스는 연수구(90.0%)와 계양구(90.6%)에서 가장 높은 향후 이용 의향을 보였으며, 강화군(82.1%)도 높은 수준을 기록함. 반면 동구(38.5%)와 남동구(40.0%)는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양육지원 시설·서비스는 검단구(100.0%)에서 가장 높은 향후 이용 의향을 보였으며, 중구(95.2%), 강화군(96.4%), 연수구(93.3%), 계양구(90.6%)도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동구(46.2%)와 서해구(50.0%)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 의향을 나타냄
-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는 중구(95.2%), 연수구(86.7%), 계양구(87.5%)에서 높은 향후 이용 의향을 보인 반면, 동구(23.1%), 서해구(30.0%), 강화군(50.0%)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는 계양구(87.5%)와 연수구(70.0%), 옹진군(6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이용 의향을 보인 반면, 중구(23.8%), 강화군(25.0%), 동구(30.8%)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는 검단구(100.0%)와 중구(95.2%), 계양구(84.4%)에서 높은 이용 의향을 보인 반면, 서해구(20.0%), 강화군(39.3%), 동구(30.8%)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의 낮은 이용경험에 비해 향후 이용 의향이 높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3-22] 군·구별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양육비 지원 서비스	52.4	38.5	65.5	**90.0**	40.0	61.9	**90.6**	60.0	60.0	82.1	62.5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95.2**	46.2	72.4	93.3	60.0	57.1	90.6	50.0	**100.0**	**96.4**	62.5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95.2**	23.1	51.7	**86.7**	50.0	47.6	87.5	30.0	60.0	50.0	75.0
아동의 발달 지원 서비스	23.8	30.8	44.8	**70.0**	45.0	57.1	87.5	30.0	40.0	25.0	62.5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95.2**	30.8	44.8	60.0	40.0	47.6	84.4	20.0	**100.0**	39.3	62.5

●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양육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36.4%로 가장 높았고, 양육지원시설·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와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30.4%,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지원 서비스와 아동의 발달지원 서비스,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가 가장 높았음
- 한편, 여전히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응답자들이 다수 존재함을 고려하여 서비스 절차를 단순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표 3-23]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1순위 응답		2순위 응답		3순위 응답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양육비 지원 서비스	11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6.4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8.2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9.1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23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30.4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30.4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3.0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31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45.2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6.1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2.9
아동의 발달 지원 서비스	26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42.3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19.2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1.5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25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52.0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20.0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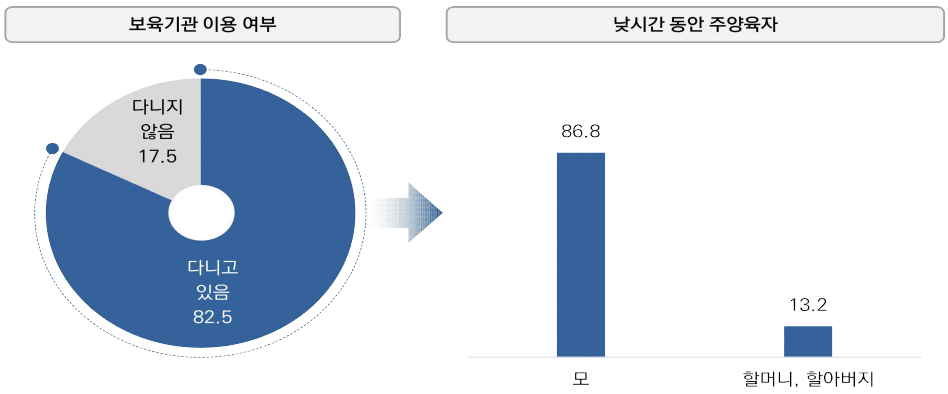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5) 미취학 아동 보육 기관 이용 여부 및 주 양육자

- 미취학 아동의 보육 기관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82.5%가 현재 보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17.5%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아동이 공적 또는 민간 보육 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보육 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
  - 미취학 아동의 보육 기관 이용 여부는 중구(95.2%), 검단구(100.0%), 연수구(90.0%), 서해구(90.0%)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부평구(66.7%)와 옹진군(50.0%)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있음
- 한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낮시간 동안 주로 돌봐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어머니 86.8%, 조부모 13.2%로 나타남.
  - 응답 사례 수가 적어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3-10] 미취학 아동 보육기관 이용 여부 및 주양육자

(단위 : %)



[표 3-24] 군·구별 미취학 아동 보육기관 이용 여부 및 주양육자

(단위 : 명, %)

구분	보육기관 이용 여부			낮시간 동안 주양육자		
	사례수	다니고 있음	다니지 않음	사례수	모	조부모
인천시	217	82.5	17.5	38	86.8	13.2
중구	21	95.2	4.8	1	100.0	-
동구	13	84.6	15.4	2	100.0	-
미추홀구	29	82.8	17.2	5	60.0	40.0
연수구	30	90.0	10.0	3	100.0	-
남동구	20	75.0	25.0	5	60.0	40.0
부평구	21	66.7	33.3	7	100.0	0.0
계양구	32	81.3	18.8	6	83.3	16.7
서해구	10	90.0	10.0	1	100.0	-
검단구	5	100.0	-	-	-	-
강화군	28	85.7	14.3	4	100.0	-
옹진군	8	50.0	50.0	4	100.0	-

(6) 미취학 아동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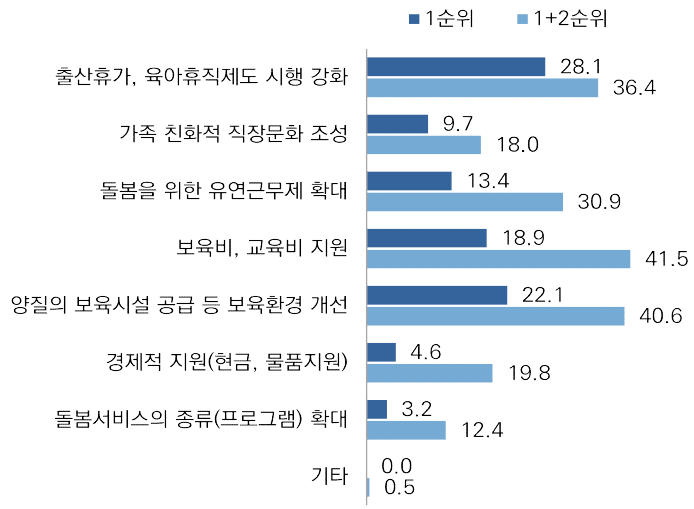
- 미취학 아동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1순위 기준) '보육비·교육비 지원'이 2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개선' 22.1%,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18.6%, '돌봄을 위한 유연근무 문제 확대'13.4%,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9.7% 순임. 반면, 경제적 지원(4.6%)과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3.2%)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군·구별 중복 응답(1순위+2순위) 기준, 미취학 아동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시행 강화'는 미추홀구(55.2%)와 연수구(70.0%)에서,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은 서해구(50.0%)에서, '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는 검단구(100.0%), 남동구과 서해구(50.0%)에서,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은 옹진군(62.5%), 강화군(57.1%), 계양구(5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양질의 보육시설 공급 등 보육환경 개선'은 중구(85.7%), 부평구(76.2%)와 동구(53.8%)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지원(현금·물품 지원)'은 계양구(46.9%), 동구(38.5%)에서, '돌봄서비스 종류 확대'는 부평구(28.6%)와 동구(2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1] 미취학 아동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

(단위 : %)



[표 3-25] 군·구별 미취학 아동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시행 강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보육비, 교육비 지원	양질의 보육시설 공급 등 보육환경 개선	경제적 지원(현금, 물품지원)	돌봄서비스의 종류(프로그램) 확대
인천시	217	36.4	18.0	30.9	41.5	**40.6**	19.8	12.4
중구	21	33.3	4.8	38.1	23.8	**85.7**	4.8	9.5
동구	13	7.7	0.0	38.5	30.8	**53.8**	38.5	23.1
미추홀구	29	**55.2**	27.6	20.7	44.8	34.5	10.3	6.9
연수구	30	**70.0**	16.7	36.7	26.7	20.0	20.0	10.0
남동구	20	30.0	15.0	**50.0**	40.0	35.0	15.0	15.0

구분	사례수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시행 강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보육비, 교육비 지원	양질의 보육시설 공급 등 보육환경 개선	경제적 지원(현금, 물품지원)	돌봄서비스의 종류(프로그램) 확대
부평구	21	14.3	4.8	9.5	47.6	**76.2**	19.0	28.6
계양구	32	31.3	21.9	21.9	**50.0**	18.8	46.9	9.4
서해구	10	20.0	**50.0**	**50.0**	40.0	20.0	20.0	0.0
검단구	5	20.0	0.0	**100.0**	20.0	40.0	0.0	20.0
강화군	28	32.1	32.1	14.3	**57.1**	35.7	14.3	14.3
옹진군	8	37.5	0.0	50.0	**62.5**	5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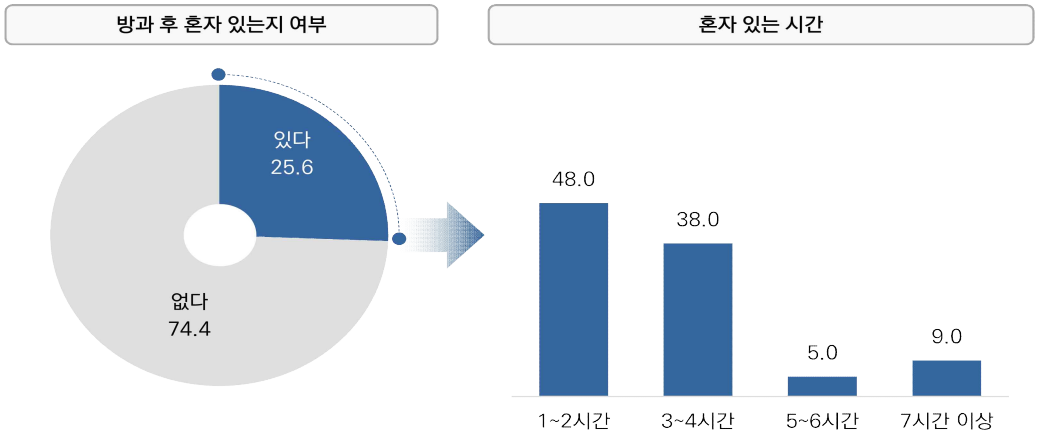
(7) 초등학교 취학 아동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평일 방과 후에 1시간 이상 부모 또는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응답 가구의 아동 중 25.6%가 방과 후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4.4%는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약 4명 중 1명꼴로 방과 후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혼자 있는 아동의 시간 분포를 보면, 1~2시간이 4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4시간이 38.0%, 5~6시간은 5.0%, 7시간 이상은 9.0%로 나타남. 이는 혼자 있는 아동의 절반 이상이 최소 3시간 이상 홀로 보내고 있으며, 9%이상이 장시간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방과 후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은 3.1시간이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구는 66.7%로 방과 후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 39.3%, 남동구 37.1%, 검단구 30.8%, 계양구 30.5%, 서해구 30.0%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강화군 8.7%, 부평구 9.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혼자 있는 평균 시간은 서해구가 7.0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부평구 3.6시간, 계양구 3.5시간, 연수구 3.2시간 순으로 평균보다 높았음. 특히 서해구는 혼자 있는 비율과 시간도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그림 3-12] 초등학교 취학 아동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



[표 3-26] 군·구별 초등학교 취학 아동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명, %)

구분	방과 후 혼자 있는지 여부			혼자 있는 시간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평균 (시간)
전체	391	74.4	25.6	100	48.0	38.0	5.0	9.0	3.1
중구	6	33.3	66.7	4	50.0	50.0	-	-	2.5
동구	40	75.0	25.0	10	50.0	30.0	10.0	10.0	3.0
미추홀구	46	73.9	26.1	12	58.3	25.0	8.3	8.3	2.7
연수구	44	70.5	29.5	13	38.5	53.8	-	7.7	3.2
남동구	35	62.9	37.1	13	61.5	38.5	-	-	2.3
부평구	54	90.7	9.3	5	60.0	20.0	-	20.0	3.6
계양구	59	69.5	30.5	18	44.4	33.3	5.6	16.7	3.5
서해구	20	70.0	30.0	6	16.7	16.7	33.3	33.3	7.0
검단구	13	69.2	30.8	4	25.0	75.0	-	-	2.8
강화군	46	91.3	8.7	4	75.0	25.0	-	-	2.0
옹진군	28	60.7	39.3	11	45.5	54.5	-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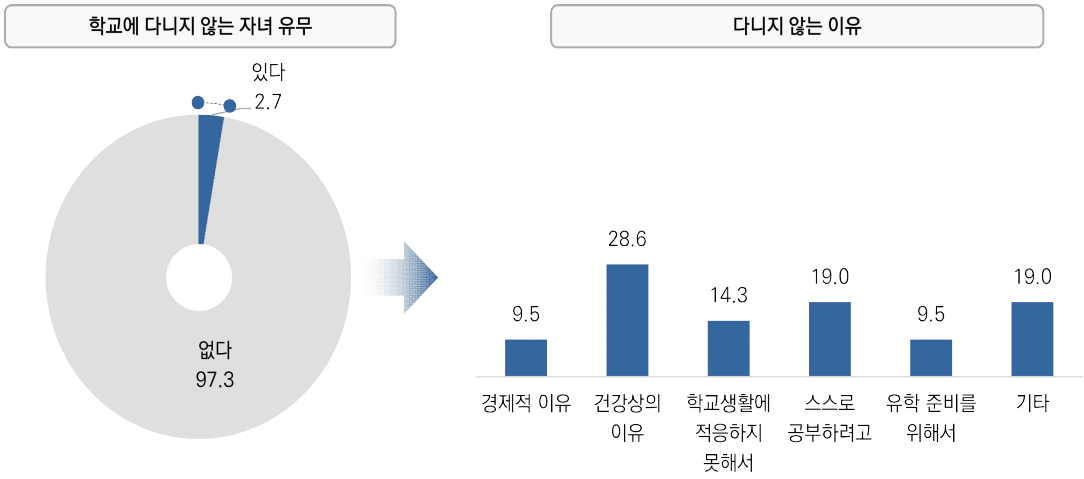
(8)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 자녀 유무

- 초·중·고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7%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건강 문제'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스로 공부하려고' 19.0%, '경제적 이유'와 '유학 준비를 위해서' 9.5% 순임
-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아 해석에 한계가 있지만 학교생활 부적응과 스스로 공부를 위해서 등의 응답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학교 수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해 학교에 다지니 않는 사례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 비율은 부평구 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구 6.5%, 옹진군 5.3% 순이었음
- 한편, 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로 부평구는 '건강상 이유' 57.1%,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28.6%, '스스로 공부하려고' 14.3% 순이었으며, 중구는 '경제적 이유'와 '스스로 공부하려고'가 각각 50.0%순임. 옹진군은 '경제적 이유'와 '스스로 공부하려고'가 각각 33.3% 순이었음

[그림 3-13]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 자녀 유무

(단위 : %)



[표 3-27]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 자녀 유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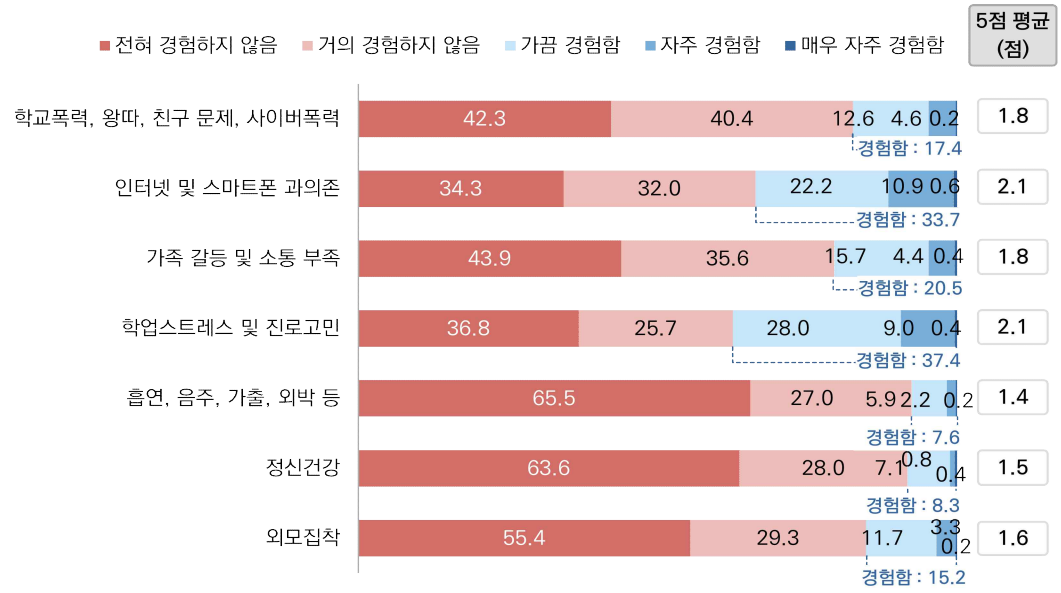
구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 유무			다니지 않는 이유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경제적 이유	건강상의 이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공부하려고	유학 준비를 위해서	기타
전체	776	97.3	2.7	21	9.5	28.6	14.3	19.0	9.5	19.0
중구	62	93.5	**6.5**	4	25.0	-	-	25.0	-	50.0
동구	76	98.7	1.3	1	-	-	-	-	-	100.0
미추홀구	78	98.7	1.3	1	-	-	-	100.0	-	-
연수구	69	97.1	2.9	2	-	-	-	50.0	50.0	-
남동구	109	100.0	0.0	-	-	-	-	-	-	-
부평구	83	91.6	**8.4**	7	-	57.1	28.6	14.3	-	-
계양구	97	97.9	2.1	2	-	50.0	50.0	-	-	-
서해구	36	97.2	2.8	1	-	100.0	-	-	-	-
검단구	25	100.0	0.0	-	-	-	-	-	-	-
강화군	84	100.0	0.0	-	-	-	-	-	-	-
옹진군	57	94.7	**5.3**	3	33.3	-	-	-	33.3	33.3

(9) 청소년 돌봄 어려움 경험

- 청소년과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경험 정도를 가끔 경험, 혹은 자주, 매우 자주 경험한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 고민' 37.4%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33.7%, '가족 갈등 및 소통 부족' 20.5%, '학교폭력, 왕따, 친구 문제, 사이버폭력' 17.4%, '외모 집착' 15.2%, '정신건강' 8.3%, '흡연, 음주, 가출, 외박' 7.6% 수준임

[그림 3-14] 청소년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단위 : %)



[표 3-28] 청소년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단위 : 명, %)

구분	전체(n=478)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평균 (점/5점)
학교폭력, 왕따, 친구 문제, 사이버폭력	42.3	40.4	12.6	4.6	0.2	1.8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34.3	32.0	22.2	10.9	0.6	2.1
가족 갈등 및 소통 부족	43.9	35.6	15.7	4.4	0.4	1.8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고민	36.8	25.7	28.0	9.0	0.4	2.1
흡연, 음주, 가출, 외박 등	65.5	27.0	5.9	1.5	0.2	1.4
정신건강	63.6	28.0	7.1	0.8	0.4	1.5
외모집착	55.4	29.3	11.7	3.3	0.2	1.6

- 군·구별 청소년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 지역별 청소년과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경험 정도는 남동구와 연수구, 강화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왕따·친구 문제·사이버폭력은 남동구(2.2점), 강화군(1.9점), 동구(1.9점)순으로 나타남
  -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은 연수구(3.0점), 강화군(2.7점), 남동구(2.4점) 순으로 나타남
  - 가족 갈등 및 소통 부족은 연수구(2.2점), 강화군(2.1점), 남동구(2.0점) 순으로 나타남
  - 학업 스트레스 및 진로 고민은 남동구(2.6점), 연수구(2.5점), 중구(2.5점)순으로 나타남
  - 흡연·음주·가출·외박 등은 남동구가 1.8점으로 가장 높게 났으며, 이외 직역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정신건강 문제는 남동구(1.7점), 미추홀구(1.5점), 연수구(1.5점) 순으로 나타남

[표 3-29] 인천시 군·구별 청소년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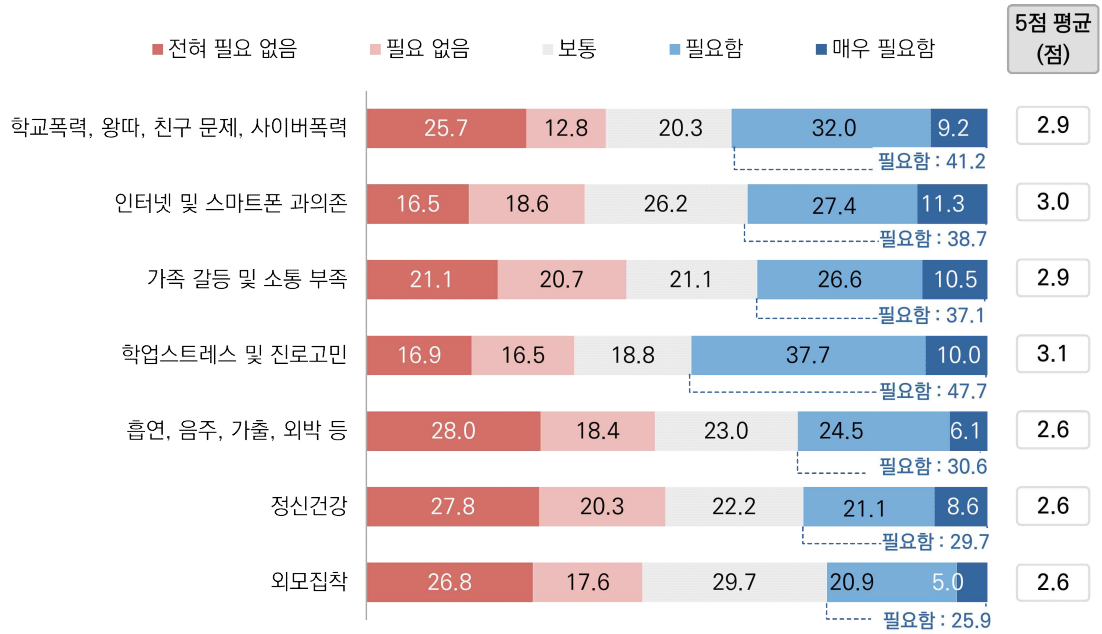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학교폭력, 왕따, 친구 문제, 사이버폭력	1.8	1.7	**1.9**	1.8	1.8	**2.2**	1.6	1.7	1.8	1.3	**1.9**	1.8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2.1**	2.1	2.0	1.6	**3.0**	2.4	1.8	1.9	1.8	1.4	**2.7**	1.9
가족 갈등 및 소통 부족	1.8	1.7	1.6	1.6	**2.2**	2.0	1.8	1.9	1.7	1.2	**2.1**	1.6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고민	**2.1**	2.5	1.9	1.6	**2.5**	**2.6**	1.9	2.0	1.9	1.4	2.3	1.7
흡연, 음주, 가출, 외박 등	1.4	**1.5**	1.4	1.4	1.4	**1.8**	1.4	1.3	**1.5**	1.3	1.3	1.4
정신건강	1.5	1.5	1.4	1.5	1.5	**1.7**	1.4	1.4	1.5	1.2	1.4	1.5
외모집착	1.6	1.5	1.7	**1.8**	**1.9**	1.7	1.5	1.5	1.7	1.3	**1.8**	1.5

(10) 청소년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청소년과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학업 스트레스 및 진로 고민'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진로와 학업 부담에 대해 외부의 상담 및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음으로 '학교폭력, 왕따, 친구 문제, 사이버폭력' 41.2%,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38.7%, '가족 가들 및 소통 부족' 37.1%, '흡연, 음주,가출, 외박 등' 30.6%, '정신건강' 29.7%, '외모집착' 25.9% 순임

[그림 3-15] 청소년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



[표 3-30] 청소년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n=478)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학교폭력, 왕따, 친구 문제, 사이버폭력	25.7	12.8	20.3	32.0	9.2	2.9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16.5	18.6	26.2	27.4	11.3	3.0
가족 갈등 및 소통 부족	21.1	20.7	21.1	26.6	10.5	2.9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고민	16.9	16.5	18.8	37.7	10.0	3.1
흡연, 음주, 가출, 외박 등	28.0	18.4	23.0	24.5	6.1	2.6
정신건강	27.8	20.3	22.2	21.1	8.6	2.6
외모집착	26.8	17.6	29.7	20.9	5.0	2.6

- 군·구별 청소년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지역별 청소년과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외부 지원에 대한 욕구는 연수구와 동구, 옹진군이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수구가 학업 스트레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외모 집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는 학교폭력과 일탈 행동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강화군은 가족 갈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은 정신건강 문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검단구는 대부분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왕따·친구 문제·사이버폭력은 동구와 강화군이 각 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옹진군(3.2점), 남동구(3.1점) 순으로 나타남.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은 연수구가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3.6점), 옹진군(3.4점), 강화군(3.3점) 순으로 나타남. 가족 갈등 및 소통 부족은 강화군이 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구(3.2점), 옹진군(3.1점), 동구(3.1점) 순으로 나타남
  - 학업 스트레스 및 진로 고민은 연수구가 3.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3.4점), 중구(3.3점), 서해구(3.2점) 순으로 나타남. 흡연·음주·가출·외박 등 일탈 행동은 동구와 연수구, 옹진군이 각각 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동구(2.9점) 순으로 나타남. 정신건강 문제는 옹진군이 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구(3.0점), 동구(2.9점), 남동구(2.8점) 순으로 나타남. 외모 집착은 연수구가 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3.0점), 옹진군(2.8점), 미추홀구(2.5점) 순으로 나타남

[표 3-31] 군·구별 청소년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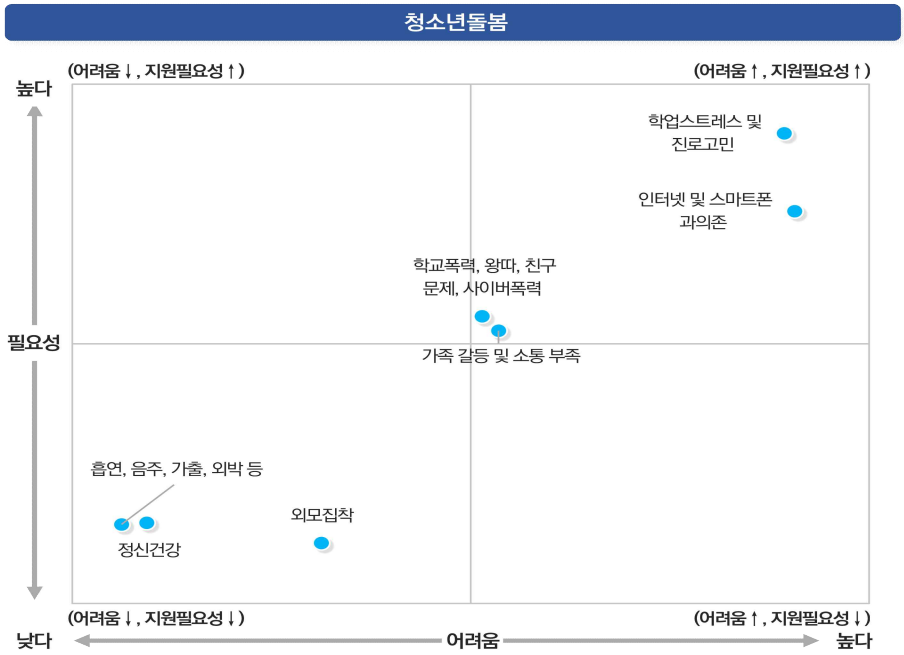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학교폭력, 왕따, 친구 문제, 사이버폭력	2.9	1.9	**3.3**	2.8	3.1	3.1	3.1	2.6	3.0	2.1	**3.3**	**3.2**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3.0	2.4	**3.6**	2.8	3.6	2.8	3.0	2.7	2.8	2.3	3.3	**3.4**
가족 갈등 및 소통 부족	2.9	2.3	3.1	2.6	**3.2**	2.8	2.9	2.7	2.8	2.3	**3.3**	3.1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고민	3.1	3.3	**3.4**	2.7	**3.5**	3.0	3.1	2.8	3.2	2.4	3.2	3.1
흡연, 음주, 가출, 외박 등	2.6	1.9	**3.0**	2.4	**3.0**	2.9	2.8	2.3	2.8	2.0	2.5	**3.0**
정신건강	2.6	1.9	2.9	2.4	**3.0**	2.8	2.8	2.3	2.8	2.2	2.8	3.1
외모집착	2.6	1.8	**3.0**	2.5	**3.1**	2.7	2.8	2.4	2.7	2.2	2.7	2.8

(11) 청소년 돌봄의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 IPA 결과

- 청소년과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와 이에 따른 외부지원 및 필요성 정도를 토대로 IPA분석을 수행한 결과, 어려움이 높고,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 고민',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학교폭력, 왕따, 친구 문제, 사이버폭력', '가족 갈등 및 소통 부족'이 해당하며, 이에 관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

[그림 3-16] 인천시 청소년 돌봄의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 I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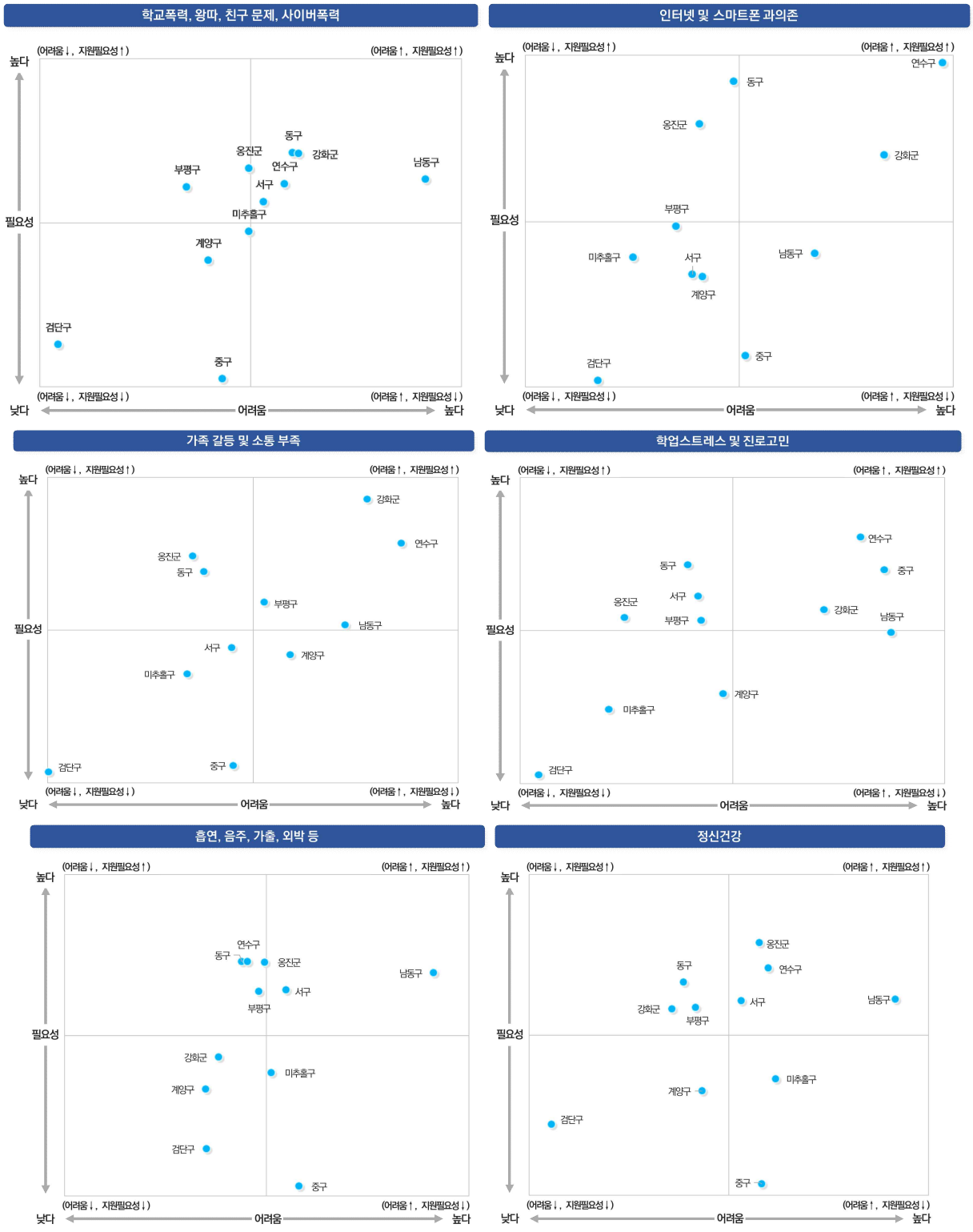
(단위 : 점)



- 군·구별 청소년 돌봄의 어려움과 외부 지원 필요성 IPA 분석 결과
  - 학교폭력·왕따·친구 문제·사이버폭력에 대한 위험도와 지원 필요성은 동구,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연수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검단구와 중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은 연수구, 강화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환경에 대한 통제와 교육적 개입이 시급한 지역임
  - 가족 갈등 및 소통 부족은 연수구, 강화군, 남동구, 부평구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업 스트레스 및 진로 고민에 대한 양육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은 연수구, 동구, 강화군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흡연·음주·가출·외박 등 일탈 행동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은 서해구와 남동구에서 높게 나타남
  -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양육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은 옹진군, 연수구, 서해구, 남동구에서 높게 나타남
  - 외모집착으로 인한 청소년 양육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지역은 동구, 연수구, 남동구, 서해구, 강화군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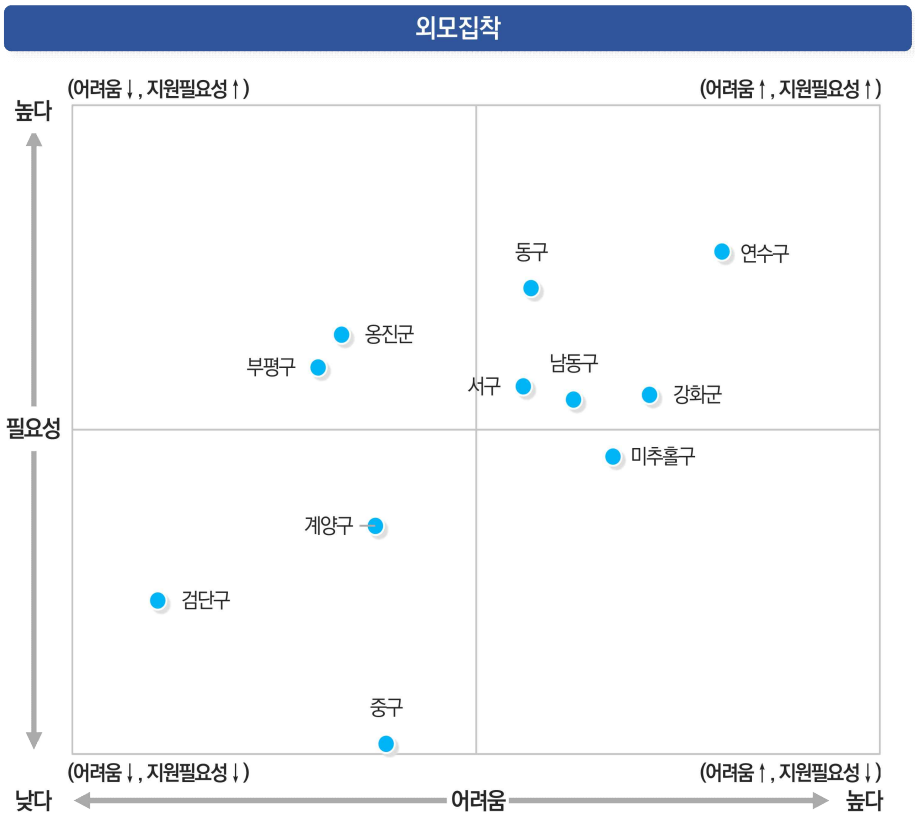
[그림 3-17] 군·구별 인천시 전체 청소년 돌봄의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 IPA

(단위 : 점)



[그림 3-17] 군·구별 청소년 돌봄의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 IPA (계속)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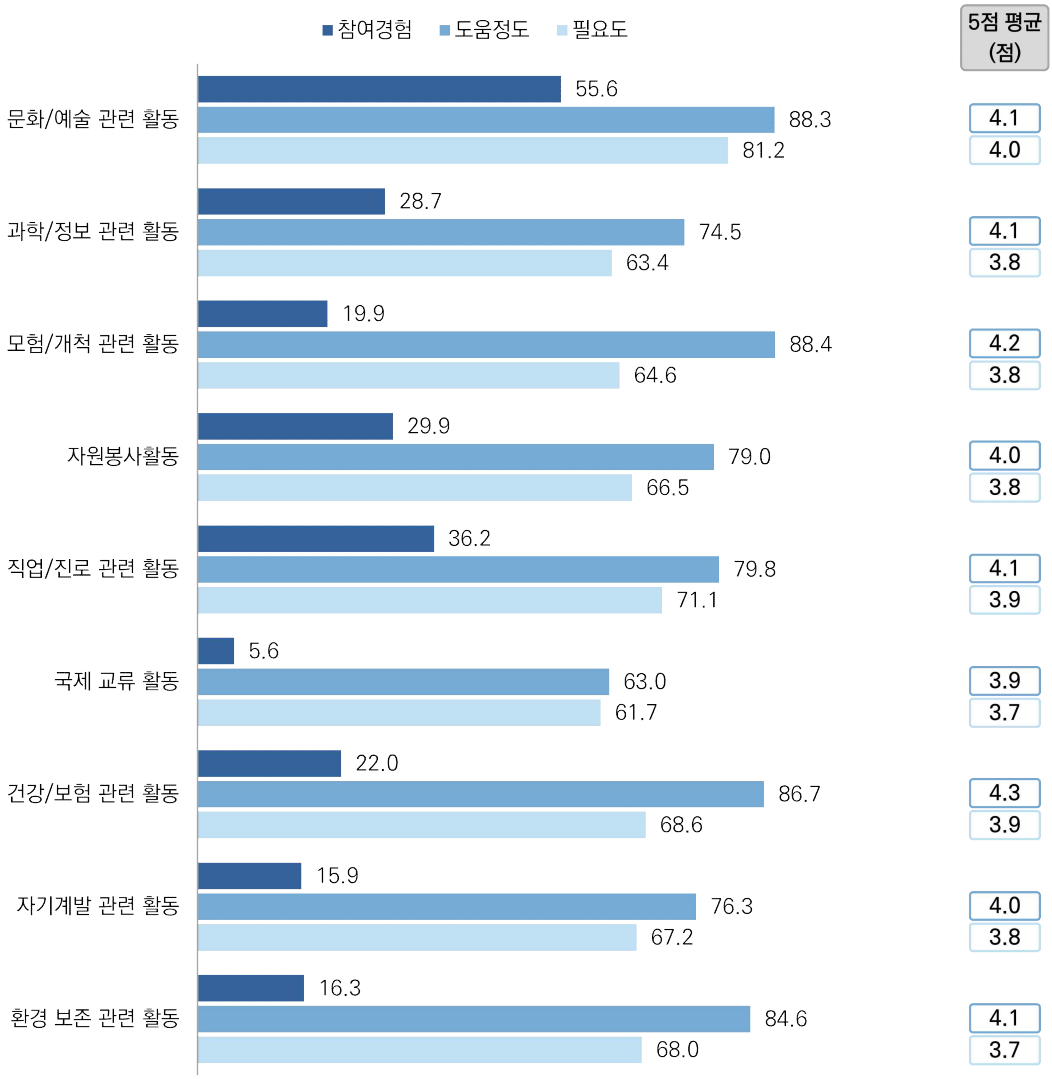


(12)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의 사회활동 도움 정도 및 필요도

- 인천시 청소년의 학습 및 활동 참여 경험을 살펴본 결과, '공연감상 등 문화·예술 관련 활동' 참여가 5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진로 관련 활동' 36.2%, '자원봉사 활동' 29.9%, '건강 및 보험관련 활동' 22.0%, '몸험 및 개척 관련 활동' 19.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16.3%, '자기계발 관련 활동' 15.9%, '국제 교류 활동'이 5.6%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이 경험한 활동의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는데, '모험 및 개척 관련 활동' 8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 및 예술 관련 활동' 88.3%, '건강 및 보험 관련 활동' 86.7%, '환경 보존 관련 활동' 84.6% 순임. '국제 교류 활동' 63.0%로 가장 도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이 경험한 활동의 필요도는 도움 정도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문화 및 예술 관련 활동' 8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 및 보험 관련활동' 68.6%, '환경 보존관련 활동' 68.0%, '자원봉사활동' 66.5%, '모험 및 개척 관련 활동' 64.6%, '과학 및 정보 관련활동' 63.4%, '국제 교류 활동' 61.7% 순이었음
-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활동의 참여 경험이 도움과 필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활동을 개발 해야 할 것임

[그림 3-18]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의 사회활동 도움 정도 및 필요도

(단위 : %)



[표 3-32]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의 사회활동 도움 정도 및 필요도

(단위 : 명, %)

구분	참여경험(n=478)		도움정도			필요도(n=478)	
	있음	없음	사례수	도움됨 비율	평균 (점/5점)	필요함 비율	평균 (점/5점)
문화/예술 관련 활동	55.6	44.4	266	88.3	4.1	81.2	4.0
과학/정보 관련 활동	28.7	71.3	137	74.5	4.1	63.4	3.8
모험/개척 관련 활동	19.9	80.1	95	88.4	4.2	64.6	3.8
자원봉사활동	29.9	70.1	143	79.0	4.0	66.5	3.8
직업/진로 관련 활동	36.2	63.8	173	79.8	4.1	71.1	3.9
국제 교류 활동	5.6	94.4	27	63.0	3.9	61.7	3.7
건강/보험 관련 활동	22.0	78.0	105	86.7	4.3	68.6	3.9
자기계발 관련 활동	15.9	84.1	76	76.3	4.0	67.2	3.8
환경 보존 관련 활동	16.3	83.7	78	84.6	4.1	68.0	3.7

● 군·구별 청소년 학습 및 활동의 참여 경험

- 지역별 청소년 학습 및 활동 참여 경험은 연수구와 계양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강화군, 중구,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서해구와 검단구, 부평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률을 보임
- 문화·예술 관련 활동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연수구 75.0%와 남동구 73.0%, 강화군 66.7%, 계양구 62.0% 순인 반면, 검단구 21.7%로 가장 낮은 지역임
- 과학·정보 관련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 55.1%, 강화군 45.8%, 계양구 42.0% 순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옹진군 2.7%, 검단구 4.3% 순이었음
- 모험·개척 관련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수구 40.9%, 계양구 32.0%, 남동구 27.0% 순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중구 4.1%, 동구 7.0% 순이었음
-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화군 43.8%, 중구 38.8%, 계양구 26.0%, 연수구 34.1% 순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검단구 4.3%, 옹진군 8.1% 순이었음
- 직업·진로 관련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화군 62.5%, 중구 59.2%, 연수구 47.7% 순인 반면, 검단구는 참여 경험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국제 교류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계양구 20.0%, 연수구 9.1%, 미추홀구 8.9%, 강화군 8.3% 순이었으며, 부평구와 서해구, 검단구에는 참여 경험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건 관련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 51.0%, 강화군 41.7%, 연수구 38.6% 순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검단구 4.3%, 부평구 4.9% 순이었음
- 자기계발 관련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 27.9%, 연수구 27.3%, 강화군 18.8% 순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검단구 4.3%, 남동구 9.5%, 부평구 9.8% 순이었음
-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수구 31.8%, 미추홀구 24.4%, 계양구 24.0% 순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중구 2.0%, 강화군 8.3% 순이었음

[표 3-33] 군·구별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의 사회활동 참여 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문화/예술 관련 활동	**55.6**	49.0	58.1	46.7	**75.0**	**73.0**	39.0	62.0	45.8	21.7	66.7	37.8
과학/정보 관련 활동	28.7	**55.1**	9.3	22.2	36.4	35.1	12.2	42.0	16.7	4.3	**45.8**	2.7
모험/개척 관련 활동	19.9	4.1	7.0	22.2	**40.9**	27.0	12.2	**32.0**	12.5	21.7	18.8	10.8
자원봉사활동	29.9	**38.8**	34.9	28.9	34.1	28.4	29.3	36.0	20.8	4.3	**43.8**	8.1
직업/진로 관련 활동	36.2	**59.2**	34.9	17.8	47.7	40.5	29.3	34.0	20.8	-	**62.5**	16.2
국제 교류 활동	5.6	2.0	4.7	8.9	**9.1**	1.4	-	**20.0**	-	-	8.3	2.7
건강/보험 관련 활동	22.0	**51.0**	23.3	15.6	38.6	8.1	4.9	22.0	12.5	4.3	**41.7**	8.1
자기계발 관련 활동	15.9	14.3	**27.9**	15.6	**27.3**	9.5	9.8	18.0	12.5	4.3	18.8	13.5
환경 보존 관련 활동	16.3	2.0	9.3	**24.4**	**31.8**	20.3	9.8	24.0	16.7	17.4	8.3	13.5

● 군·구별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 도움 정도

- 지역별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이 사회활동에 대한 도움 정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서해구와 중구, 계양구, 미추홀구에서 도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34] 군·구별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 도움 정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문화/예술 관련 활동	4.1	4.2	3.9	4.0	3.9	4.0	3.9	4.3	**4.6**	4.2	4.3	4.0
과학/정보 관련 활동	4.1	**5.0**	3.8	4.2	4.1	3.6	3.8	4.1	4.3	4.0	3.6	3.0
모험/개척 관련 활동	4.2	4.0	4.0	4.5	4.1	4.1	4.0	4.3	**4.7**	4.6	3.8	4.5
자원봉사활동	4.0	4.3	3.9	4.3	4.0	3.8	4.2	3.9	**4.8**	3.0	4.0	4.0
직업/진로 관련 활동	4.1	**5.0**	4.0	3.9	3.8	3.8	3.8	4.4	4.4	-	4.0	4.0
국제 교류 활동	3.9	4.0	4.0	4.0	3.8	3.0	-	**4.3**	-	-	3.5	3.0
건강/보험 관련 활동	4.3	**4.8**	3.7	4.4	4.1	4.3	4.0	4.3	**5.0**	4.0	4.0	4.3
자기계발 관련 활동	4.0	4.4	3.8	4.1	4.0	4.0	**4.5**	4.2	4.3	4.0	3.2	4.2
환경 보존 관련 활동	4.1	4.0	3.3	4.3	4.0	3.9	4.3	4.3	**5.0**	**4.8**	3.5	4.2

● 군·구별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의 필요정도

- 지역별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의 필요 정도가 높은 지역으로 중구와 연수구, 부평구, 서해구, 강화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부평구와 서해구는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의 이용 경험과 도움 정도에 있어서 다소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3-35] 군·구별 청소년 관련 학습 및 활동 필요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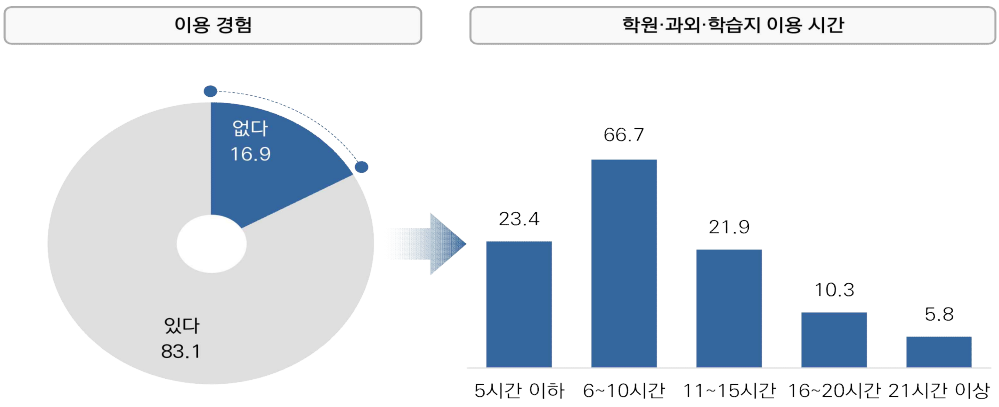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문화/예술 관련 활동	4.0	3.9	3.7	3.9	**4.2**	3.9	**4.1**	4.0	4.0	3.6	**4.2**	4.0
과학/정보 관련 활동	3.8	**4.2**	3.6	3.6	**4.1**	3.5	3.8	4.0	3.4	3.6	3.9	3.8
모험/개척 관련 활동	3.8	3.7	3.4	3.7	**4.2**	3.7	3.8	3.8	3.8	3.7	**3.9**	3.8
자원봉사활동	3.8	**4.0**	3.5	3.9	3.9	3.6	3.8	3.7	3.9	**4.0**	**4.1**	3.6
직업/진로 관련 활동	3.9	**4.3**	3.6	3.7	4.0	3.9	**4.2**	3.8	3.8	3.6	4.0	3.7
국제 교류 활동	3.7	**3.8**	3.5	3.6	**3.8**	3.6	**3.9**	3.7	3.7	3.4	3.5	3.5
건강/보험 관련 활동	3.9	**4.2**	3.7	3.8	**4.2**	3.6	3.8	3.8	**4.0**	3.9	**4.0**	3.7
자기계발 관련 활동	3.8	**4.0**	3.7	3.8	**4.2**	3.5	3.9	3.8	**4.0**	3.9	3.8	3.8
환경 보존 관련 활동	3.7	3.7	3.4	3.7	3.8	3.6	**4.0**	3.8	**3.9**	3.7	3.7	3.7

(13) 청소년의 학원·과외·학습지 이용 경험

- 응답 가구의 청소년이 학원·과외·학습지 이용 경험에 대해 83.1%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6.9%는 없다고 응답함. 이는 대다수 청소년이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수구 95.5%. 남동구 91.9%, 강화군 89.6% 순인 반면, 검단구 56.5%, 중구와 미추홀구 각각 75%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학원·과외·학습지 평균 이용 시간은 6~10시간 구간이 38.5%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11~15시간 21.9%, 5시간 이하 23.4% 순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10.49시간으로 나타남
  - 청소년의 학원 및, 과외, 학습지 평균 이용 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수구 13.21시간, 중구 12.38시간, 동구 11.5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남동구 8.88시간, 부평구 8.65시간 임

[그림 3-19] 청소년 학원·과외·학습지 이용경험

(단위 : %)



[표 3-36] 군·구별 청소년 학원·과외·학습지 이용 경험

(단위 : 명, %)

구분	이용경험			학원·과외·학습지 이용 시간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5시간 이하	6~10 시간	11~15시 간	16~20시 간	21시간 이상	평균 (시간)
전체	478	16.9	83.1	397	23.4	38.5	21.9	10.3	5.8	10.5
중구	49	24.5	75.5	37	2.7	32.4	51.4	10.8	2.7	12.4
동구	43	16.3	83.7	36	11.1	52.8	13.9	11.1	11.1	11.5
미추홀구	45	24.4	75.6	34	23.5	38.2	23.5	14.7	0.0	9.7
연수구	44	4.5	**95.5**	42	21.4	26.2	14.3	21.4	16.7	**13.2**
남동구	74	8.1	91.9	68	39.7	27.9	25.0	5.9	1.5	8.9
부평구	41	17.1	82.9	34	35.3	41.2	14.7	5.9	2.9	8.7
계양구	50	16.0	84.0	42	26.2	42.9	21.4	2.4	7.1	10.2
서해구	24	12.5	87.5	21	33.3	33.3	14.3	9.5	9.5	10.0
검단구	23	43.5	56.5	13	23.1	30.8	30.8	15.4	0.0	10.8
강화군	48	10.4	89.6	43	18.6	41.9	18.6	16.3	4.7	10.6
옹진군	37	27.0	73.0	(27)	11.1	66.7	11.1	3.7	7.4	10.3

(14)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 현황

- 인천시 아동 · 청소년 관련 서비스 중 인지율은 '보육·유아교육시설' 8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과후학교' 72.9%, '아이돌봄서비스' 72.0%, '초등돌봄교실' 71.0%, '지역아동센터', 55.5%, '청소년수련관' 46.0%, '육아종합지원' 41.1%, 지역복지관 40.2% 순인 반면, '다함께 돌봄센터' 27.4%,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28.6% 순임
- 인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중 이용 경험률은 인지도가 높은 서비스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등의 인지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보육·유아교육시설' 3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과후학교' 31.9%, '초등돌봄교실' 21.3%, '아이돌봄서비스' 16.1%, '청소년수련관' 8.9%, '지역사회복지관' 8.0% 순임. 한편, 5기의 이용 경험률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5기에 비해 높은 이용 경험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5점 만점 기준 3점이 평균 수준임을 고려했을 대, 아동 · 청소년 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대부분 평균을 넘는 높은 만족수 준을 보임. '다함께 돌봄센터' 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드림스타트센터' 와 '공동육아나눔터',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가 각각 4.2점, '보육 및 유아교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방과후학교', '육아종합지원센' 가 각각 4.1점으로 높게 나타남. 이에 가장 낮은 만족도 수준이 3.5점(학교위클래스)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수준을 보임. 이는 5기 결과와 비교했을 때, 서비스 이용 만족도 수준은 모든 서비스 항목에서 높아짐
- 향후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방과후학교' 4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 37.5%, '초등돌봄교실' 34.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9.8%, '학교 위클래스' 27.8%,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 27.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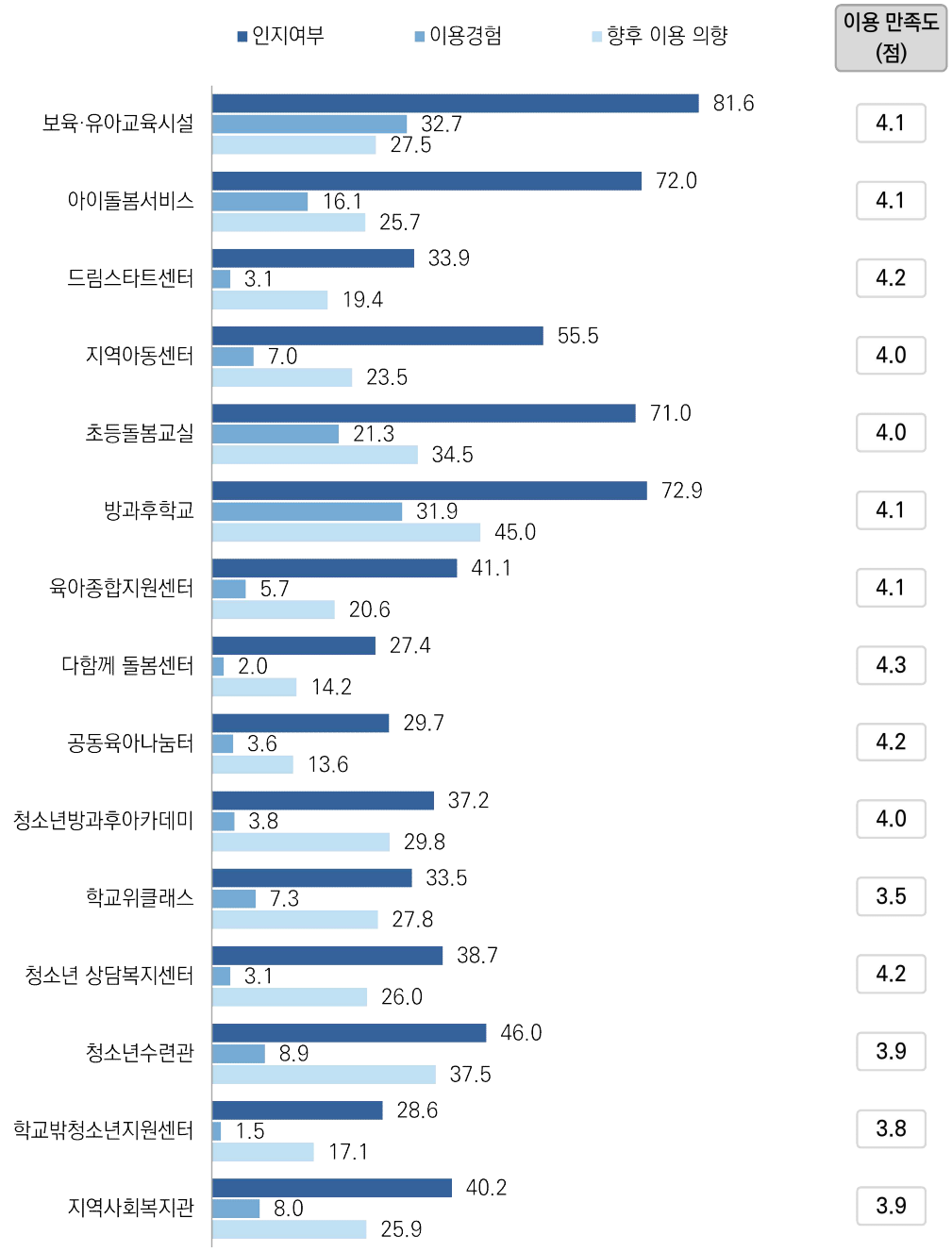
[표 3-37]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75)					5기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알고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있음' 비율	평균 (점/5점)
보육·유아교육시설	81.6	32.7	353	4.1	27.5	29.3	3.8
아이돌봄서비스	72.0	16.1	174	4.1	25.7	8.4	3.6
드림스타트센터	33.9	3.1	33	4.2	19.4	3.0	3.2
지역아동센터	55.5	7.0	75	4.0	23.5	6.4	3.4
초등돌봄교실	71.0	21.3	230	4.0	34.5	15.8	3.8
방과후학교	72.9	31.9	344	4.1	45.0	24.1	3.8
육아종합지원센터	41.1	5.7	61	4.1	20.6	4.3	3.4
다함께 돌봄센터	27.4	2.0	22	4.3	14.2	2.6	3.0
공동육아나눔터	29.7	3.6	39	4.2	13.6	3.6	3.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7.2	3.8	41	4.0	29.8	4.1	3.4
학교위클래스	33.5	7.3	79	3.5	27.8	5.1	3.1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38.7	3.1	33	4.2	26.0	3.6	3.1
청소년수련관	46.0	8.9	96	3.9	37.5	6.9	3.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8.6	1.5	16	3.8	17.1	4.3	3.1
지역사회복지관	40.2	8.0	86	3.9	25.9	5.9	3.3

[그림 3-20]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인지여부와 이용현황

(단위 : %)



- 군·구별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인지 여부
  - 아동 · 청소년 관련 서비스 인지 수준은 지역별 · 시설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보육·유아교육시설은 전반적으로 인지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로 특히 연수구(95.2%), 계양구(88.4%), 부평구(87.7%), 미추홀구(86.0%)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서해구(62.7%)와 옹진군(64.0%)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아이돌봄서비스는 중구(85.1%), 계양구(83.5%), 미추홀구(82.6%)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서해구(57.6%)와 강화군(60.2%)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드림스타트센터는 전반적으로 인지율이 낮은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옹진군(56.0%)과 계양구(42.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강화군(14.8%)과 동구(20.2%)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는 중구(85.1%)와 옹진군(65.3%), 계양구(67.8%)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강화군(32.0%)과 동구(39.4%)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초등돌봄교실은 중구(82.2%), 미추홀구(78.5%), 계양구(81.8%)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해구(59.3%), 검단구(57.6%), 옹진군(57.3%)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방과후학교는 계양구(84.3%), 중구(82.2%), 남동구(80.5%)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옹진군(58.7%)과 서해구(59.3%)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지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중구(71.3%)와 미추홀구(5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평구(21.9%)와 강화군(26.6%)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다함께 돌봄센터는 전반적으로 인지율이 낮은 서비스로, 남동구(42.2%)와 옹진군(4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17.0%)와 연수구(16.2%)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공동육아나눔터는 옹진군(50.7%)과 남동구(43.0%)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동구(10.6%)와 강화군(13.3%)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중구(55.4%), 남동구(48.4%), 옹진군(44.0%)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동구(27.7%)와 연수구(27.6%)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학교위클래스는 중구(59.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평구(21.9%)와 강화군(23.4%)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중구(67.3%)와 남동구(46.1%)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화군(25.0%)과 서해구(30.5%)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관은 중구(83.2%)와 계양구(49.6%), 미추홀구(53.7%)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화군(25.8%)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반적으로 인지율이 낮은 서비스로, 중구(73.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화군(14.8%)과 연수구(15.2%)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복지관은 중구(85.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양구(50.4%), 서해구(44.1%)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강화군(10.2%)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3-38] 군·구별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인지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보육·유아교육시설	81.6	85.1	76.6	86.0	**95.2**	74.2	87.7	**88.4**	62.7	69.7	84.4	64.0
아이돌봄서비스	72.0	**85.1**	67.0	82.6	75.2	73.4	62.3	**83.5**	57.6	63.6	60.2	68.0
드림스타트센터	33.9	38.6	20.2	41.3	29.5	36.7	31.6	**42.1**	32.2	39.4	14.8	**56.0**
지역아동센터	55.5	**85.1**	39.4	53.7	48.6	63.3	52.6	**67.8**	45.8	60.6	32.0	65.3
초등돌봄교실	71.0	**82.2**	68.1	78.5	75.2	72.7	67.5	**81.8**	59.3	57.6	61.7	57.3
방과후학교	72.9	**82.2**	71.3	77.7	76.2	**80.5**	70.2	84.3	59.3	66.7	60.2	58.7
육아종합지원센터	41.1	**71.3**	22.3	**50.4**	43.8	40.6	21.9	49.6	37.3	48.5	26.6	45.3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다함께 돌봄센터	27.4	26.7	17.0	33.1	16.2	**42.2**	16.7	33.9	25.4	30.3	19.5	**42.7**
공동육아나눔터	29.7	23.8	10.6	36.4	33.3	**43.0**	22.8	38.0	23.7	33.3	13.3	**50.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7.2	**55.4**	27.7	31.4	27.6	**48.4**	36.0	30.6	28.8	36.4	39.1	44.0
학교위클래스	33.5	**59.4**	**37.2**	30.6	32.4	33.6	21.9	34.7	32.2	33.3	23.4	33.3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38.7	**67.3**	35.1	38.8	33.3	**46.1**	32.5	42.1	30.5	33.3	25.0	36.0
청소년수련관	46.0	**83.2**	31.9	**53.7**	35.2	49.2	39.5	49.6	44.1	51.5	25.8	48.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8.6	**73.3**	19.1	33.9	15.2	30.5	21.1	24.8	22.0	27.3	14.8	**34.7**
지역사회복지관	40.2	**85.1**	25.5	42.1	27.6	46.1	36.0	**50.4**	44.1	45.5	10.2	38.7

- 군·구별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 아동 · 청소년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은 지역별 · 시설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용경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계양구, 서해구, 옹진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인 반면, 부평구는 다수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고, 동구나, 옹진, 검단구와 강화군에서도 특정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전문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이용 경험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육·유아교육시설은 전반적으로 이용경험이 가장 높은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특히 계양구(60.3%), 미추홀구(40.5%), 연수구(40.0%), 부평구(37.7%)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아이돌봄서비스는 계양구(43.0%)와 연수구(26.7%), 검단구(24.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남동구(0.8%)와 부평구(7.0%)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드림스타트센터는 전반적으로 이용경험이 낮은 서비스로 계양구(9.9%), 검단구(9.1%), 옹진군(5.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중구(0.0%)와 강화군(0.0%)은 이용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는 계양구(16.5%)와 동구(10.6%)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초등돌봄교실은 계양구(34.7%), 옹진군(32.0%), 동구(25.5%), 미추홀구(24.0%)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방과후학교는 동구(41.5%), 계양구(39.7%), 연수구(38.1%), 미추홀구(36.4%)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계양구(14.9%)와 연수구(10.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다함께 돌봄센터는 전반적으로 이용경험이 낮은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계양구(9.1%)와 서해구(5.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중구, 동구, 부평구는 이용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육아나눔터는 계양구(9.9%), 옹진군(8.0%), 연수구(6.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동구와 부평구(0.0%)는 이용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옹진군(12.0%), 서해구(6.8%), 계양구(6.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구와 부평구는 이용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위클래스는 중구(32.7%)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계양구(8.3%), 옹진군(8.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구와 부평구는 이용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관은 계양구(17.4%), 중구(26.7%), 미추홀구(14.0%), 옹진군(14.7%)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평구(0.9%)와 동구(2.1%)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반적으로 이용경험이 낮은 서비스로 옹진군(6.7%)과 계양구(4.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중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은 이용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복지관은 중구(33.7%)와 계양구(14.9%), 옹진군(12.0%)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화군(1.6%)과 서해구(1.7%)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3-39] 군·구별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보육·유아교육시설	32.7	24.8	26.6	**40.5**	40.0	12.5	37.7	**60.3**	32.2	39.4	29.7	13.3
아이돌봄서비스	16.1	22.8	9.6	16.5	**26.7**	0.8	7.0	**43.0**	10.2	24.2	9.4	9.3
드림스타트센터	3.1	-	1.1	4.1	1.9	1.6	0.9	9.9	5.1	9.1	-	**5.3**
지역아동센터	7.0	5.0	**10.6**	1.7	6.7	9.4	0.9	**16.5**	8.5	9.1	2.3	9.3
초등돌봄교실	21.3	7.9	25.5	24.0	21.9	16.4	12.3	**34.7**	15.3	24.2	21.9	**32.0**
방과후학교	31.9	18.8	**41.5**	36.4	38.1	25.0	28.9	**39.7**	33.9	33.3	28.1	29.3
육아종합지원센터	5.7	9.9	2.1	7.4	**10.5**	1.6	-	**14.9**	5.1	3.0	0.8	5.3
다함께 돌봄센터	2.0	-	-	0.8	1.0	0.8	-	**9.1**	5.1	3.0	1.6	2.7
공동육아나눔터	3.6	1.0	-	2.5	6.7	3.1	-	**9.9**	5.1	3.0	1.6	8.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8	-	1.1	1.7	4.8	5.5	-	6.6	**6.8**	6.1	2.3	**12.0**
학교위클래스	7.3	**32.7**	8.5	2.5	4.8	6.3	0.9	**9.9**	3.4	-	3.9	2.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3.1	-	4.3	3.3	1.0	1.6	-	**8.3**	3.4	-	3.1	**8.0**
청소년수련관	8.9	**26.7**	2.1	14.0	2.9	2.3	0.9	17.4	5.1	6.1	4.7	14.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5		1.1	1.7	1.0	-	-	**4.1**	1.7	3.0	-	**6.7**
지역사회복지관	8.0	**33.7**	2.1	5.0	6.7	1.6	2.6	**14.9**	1.7	6.1	1.6	12.0

● 군·구별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 보육·유아교육시설은 평균 4.1점으로 계양구(4.3점)와 연수구(4.2점)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아이돌봄서비스는 평균 4.0점으로 연수구(4.4점)와 계양구(4.3점)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드림스타트센터는 평균 4.0점으로 부평구(5.0점)와 남동구(4.5점)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는 평균 4.0점으로 미추홀구(4.5점)와 계양구(4.4점)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초등돌봄교실은 평균 4.0점으로 중구(4.3점)와 강화군(4.2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방과후학교는 평균 4.1점으로 중구(4.3점)와 계양구(4.2점)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3.9점으로 연수구(4.4점)와 계양구(4.5점)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다함께 돌봄센터는 평균 3.94점으로 계양구(4.7점)와 옹진군(4.5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공동육아나눔터는 평균 4.09점으로 계양구(4.8점)와 강화군(4.5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평균 4.00점으로 계양구(4.50점)와 검단구(4.50점)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학교위클래스는 평균 3.7점으로 계양구(4.5점)와 부평구(4.0점)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평균 4.0점으로 계양구(4.5점)와 강화군(4.3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관은 평균 3.9점으로 계양구(4.1점)와 중구·부평구(각 4.0점)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평균 3.7점으로 계양구(4.8점)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복지관은 평균 3.7점으로 강화군(4.5점)과 연수구(4.3점)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3-40] 군·구별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보육·유아교육시설	4.1	4.1	3.9	3.9	4.2	4.1	4.1	4.3	4.0	3.9	4.2	4.1
아이돌봄서비스	4.1	4.0	3.7	4.1	4.4	4.0	4.1	4.3	3.7	3.8	3.9	4.1
드림스타트센터	4.2	-	4.0	4.0	4.5	4.5	5.0	4.7	3.3	2.7	-	4.0
지역아동센터	4.0	4.0	3.6	4.5	4.0	3.8	4.0	4.4	3.8	4.0	4.0	3.9
초등돌봄교실	4.0	4.3	3.7	4.1	4.1	4.1	4.1	4.2	3.7	3.5	4.2	4.0
방과후학교	4.1	4.3	3.9	3.9	4.2	3.9	3.9	4.2	4.0	4.1	4.2	4.1
육아종합지원센터	4.1	3.7	4.0	3.9	4.4	3.5	-	4.5	3.0	4.0	3.0	4.0
다함께 돌봄센터	4.3	-	-	4.0	4.0	4.0	-	4.7	3.3	3.0	4.0	4.5
공동육아나눔터	4.2	4.0	-	4.0	4.4	3.0	-	4.8	3.3	4.0	4.5	3.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	4.0	4.0	3.8	3.6	-	4.5	3.5	4.5	3.7	4.0
학교위클래스	3.5	3.1	3.6	3.7	3.6	3.4	4.0	4.5	3.5	-	4.0	3.5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2	-	3.8	4.3	4.0	4.0	-	4.5	3.5	-	4.3	4.0
청소년수련관	3.9	4.0	3.5	3.9	4.0	3.7	4.0	4.1	3.7	3.5	4.0	3.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8	-	3.0	3.5	4.0	-	-	4.8	3.0	2.0	-	3.6
지역사회복지관	3.9	3.9	3.5	4.0	4.3	3.5	4.0	4.2	2.0	3.0	4.5	3.6

- 군·구별 아동 · 청소년 관련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지역별 아동 · 청소년 관련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에 있어서도 계양구의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수구와 중구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임
- 아동 · 청소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화군은 초등돌봄교실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센터 등의 욕구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즉, 청소년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옹진군도 청소년과 관련한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해 연수구는 아동과 관련한 서비스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 중구는 지역사회복지관과 청소년수련과, 학교위클래스에 대한 욕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3-41] 군·구별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보육·유아교육시설	27.5	26.7	21.3	24.8	**33.3**	16.4	32.5	**45.5**	27.1	24.2	28.9	14.7
아이돌봄서비스	25.7	26.7	12.8	**30.6**	34.3	13.3	24.6	**44.6**	16.9	24.2	28.1	16.0
드림스타트센터	19.4	12.9	7.4	19.8	29.5	24.2	17.5	**39.7**	20.3	6.1	9.4	12.0
지역아동센터	23.5	**38.6**	6.4	19.8	27.6	23.4	15.8	**43.8**	15.3	15.2	18.8	22.7
초등돌봄교실	34.5	20.8	20.2	44.6	**44.8**	30.5	32.5	**49.6**	23.7	36.4	40.6	22.7
방과후학교	45.0	31.7	47.9	52.9	**52.4**	36.7	45.6	**54.5**	39.0	48.5	45.3	37.3
육아종합지원센터	20.6	24.8	6.4	19.8	**38.1**	18.8	16.7	**28.9**	13.6	21.2	14.1	21.3
다함께 돌봄센터	14.2	5.9	4.3	10.7	**32.4**	11.7	14.9	**24.8**	13.6	12.1	9.4	13.3
공동육아나눔터	13.6	6.9	5.3	14.9	**28.6**	12.5	13.2	**26.4**	6.8	15.2	7.0	8.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9.8	**36.6**	14.9	33.9	41.9	25.8	25.4	33.1	16.9	**48.5**	32.8	21.3
학교위클래스	27.8	**51.5**	26.6	14.9	41.9	29.7	21.9	28.9	11.9	18.2	23.4	26.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6.0	9.9	16.0	28.1	**47.6**	27.3	20.2	**34.7**	8.5	21.2	26.6	34.7
청소년수련관	37.5	**65.3**	26.6	42.1	44.8	31.3	30.7	**44.6**	16.9	36.4	33.6	29.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7.1	5.9	11.7	14.0	**29.5**	**26.6**	22.8	19.8	5.1	12.1	10.2	21.3
지역사회복지관	25.9	**75.2**	10.6	20.7	31.4	24.2	21.9	**34.7**	3.4	21.2	10.2	20.0

- 인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사교육과의 시간 충돌, 기관 접근성 부족, 아동·청소년의 참여 의지 부족, 가족 돌봄 선호, 제도적 제한 및 정보 부족으로 나타남
  - 이는 서비스 자체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실제 이용 과정에서 시간·공간적 제약과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는 사교육과의 시간 조정, 지역 내 서비스 접근성 강화, 아동·청소년 참여 동기 부여, 서비스 홍보 및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원 등 사교육 시간과 겹쳐서”로 나타남. 방과후학교(45.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7.2%), 초등돌봄교실(32.2%), 지역사회복지관(32.1%) 등에서 높은 비율을 기록함. 이는 사교육 참여가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줌
  -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사유는 “가까운 곳에 없어서”임. 육아종합지원센터(40.4%), 청소년수련관(28.7%), 드림스타트센터(22.4%), 지역아동센터(22.9%) 등에서 높은 비율을 기록함.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적 접근성이 부족하여 실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됨
  - 세 번째로 나타난 사유는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임. 초등돌봄교실(24.6%), 학교위클래스(22.5%), 청소년 상담복지센터(20.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1.7%) 등에서 확인됨. 이는 아동·청소년의 참여 의지가 낮거나 서비스에 대한 흥미 부족이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함
  - 또한 일부 서비스에서는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나타남. 아이돌봄서비스(32.5%), 공동육아나눔터(27.3%), 보육·유아교육시설(22.6%) 등에서 확인되었음.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라는 응답도 다수 나타나 이는 제도적 요건과 정보 부족이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표 3-42]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1순위 응답		2순위 응답		3순위 응답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보육·유아교육시설	62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2.6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7.7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6.1
아이돌봄서비스	151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32.5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3.9	가까운 곳에 없어서	12.6
드림스타트센터	98	학원 등 사교육시간과 겹쳐	24.5	가까운 곳에 없어서	22.4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4.3
지역아동센터	166	학원 등 사교육시간과 겹쳐	24.7	가까운 곳에 없어서	22.9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15.7
초등돌봄교실	118	학원 등 사교육시간과 겹쳐	32.2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24.6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7.8
방과후학교	109	학원 등 사교육시간과 겹쳐	45.0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21.1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3.8
육아종합지원센터	94	가까운 곳에 없어서	40.4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2.8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11.7
다함께 돌봄센터	78	학원 등 사교육시간과 겹쳐	21.8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7.9	가까운 곳에 없어서	16.7
공동육아나눔터	66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7.3	가까운 곳에 없어서	16.7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2.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37	학원 등 사교육시간과 겹쳐	37.2	가까운 곳에 없어서	25.5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14.6
학교위클래스	71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학원 등 사교육시간과 겹쳐	22.5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1.3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9.9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97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20.6	학원 등 사교육시간과 겹쳐	18.6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7.5
청소년수련관	150	학원 등 사교육시간과 겹쳐	31.3	가까운 곳에 없어서	28.7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12.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60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21.7	가까운 곳에 없어서 학원 등 사교육시간과 겹쳐	15.0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0.0
지역사회복지관	131	학원 등 사교육시간과 겹쳐	32.1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21.4	가까운 곳에 없어서	19.8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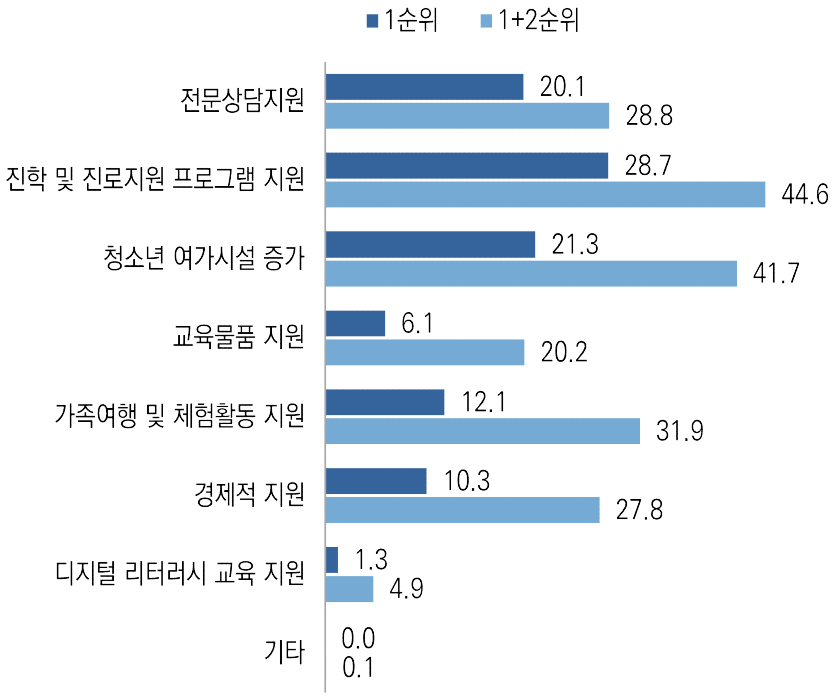
(15)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

- 인천시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중복응답(1+2순위) 조사 결과, '진로·진학 지원' 4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소년 여가시설 확충' 41.7%, '족여행 및 체험활동 지원' 31.9%, '전문상담지원' 28.8%, '경제적 지원' 27.8% 순임

- 진학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는데, 특히 중구(80.2%), 검단구(60.6%), 서해구(47.5%), 강화군(45.3%)에서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여가시설 증가는 두 번째로 높은 항목으로 중구(75.2%), 강화군(57.0%), 미추홀구(45.5%), 서해구(40.7%)에서 높게 나타남
- 가족여행 및 체험활동 지원은 동구(44.7%), 검단구(39.4%), 연수구(36.2%), 옹진군(33.3%)에서 높게 나타남
- 전문상담지원은 옹진군(50.7%), 계양구(46.3%), 서해구(28.8%)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경제적 지원은 부평구(43.0%), 동구(44.7%), 계양구(41.3%), 연수구(36.2%)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교육물품 지원은 서해구(37.3%), 옹진군(33.3%), 연수구(27.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음

[그림 3-21]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

(단위 : %)



[표 3-43] 군·구별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문상담지원 스트레스, 가족갈등, 대화법	진학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여가시설 증가	교육물품 지원 학용품 등	가족여행/ 체험활동 지원	경제적 지원현금, 물품지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기타
전체	1,079	28.8	44.6	41.7	20.2	31.9	27.8	4.9	0.1
중구	101	10.9	80.2	75.2	5.9	16.8	10.9	0.0	0.0
동구	94	17.0	43.6	29.8	14.9	38.3	44.7	11.7	0.0
미추홀구	121	24.8	39.7	45.5	22.3	40.5	25.6	1.7	0.0
연수구	105	25.7	41.0	30.5	27.6	31.4	36.2	7.6	0.0
남동구	128	38.3	43.8	41.4	17.2	32.8	21.1	5.5	0.0
부평구	114	27.2	33.3	30.7	20.2	41.2	43.0	4.4	0.0
계양구	121	46.3	39.7	27.3	12.4	24.0	41.3	8.3	2.8
서해구	59	28.8	47.5	40.7	37.3	28.8	8.5	8.5	0.0
검단구	33	27.3	60.6	36.4	21.2	39.4	12.1	3.0	0.0
강화군	128	21.1	45.3	57.0	21.9	30.5	21.1	3.1	0.0
옹진군	75	50.7	26.7	38.7	33.3	29.3	21.3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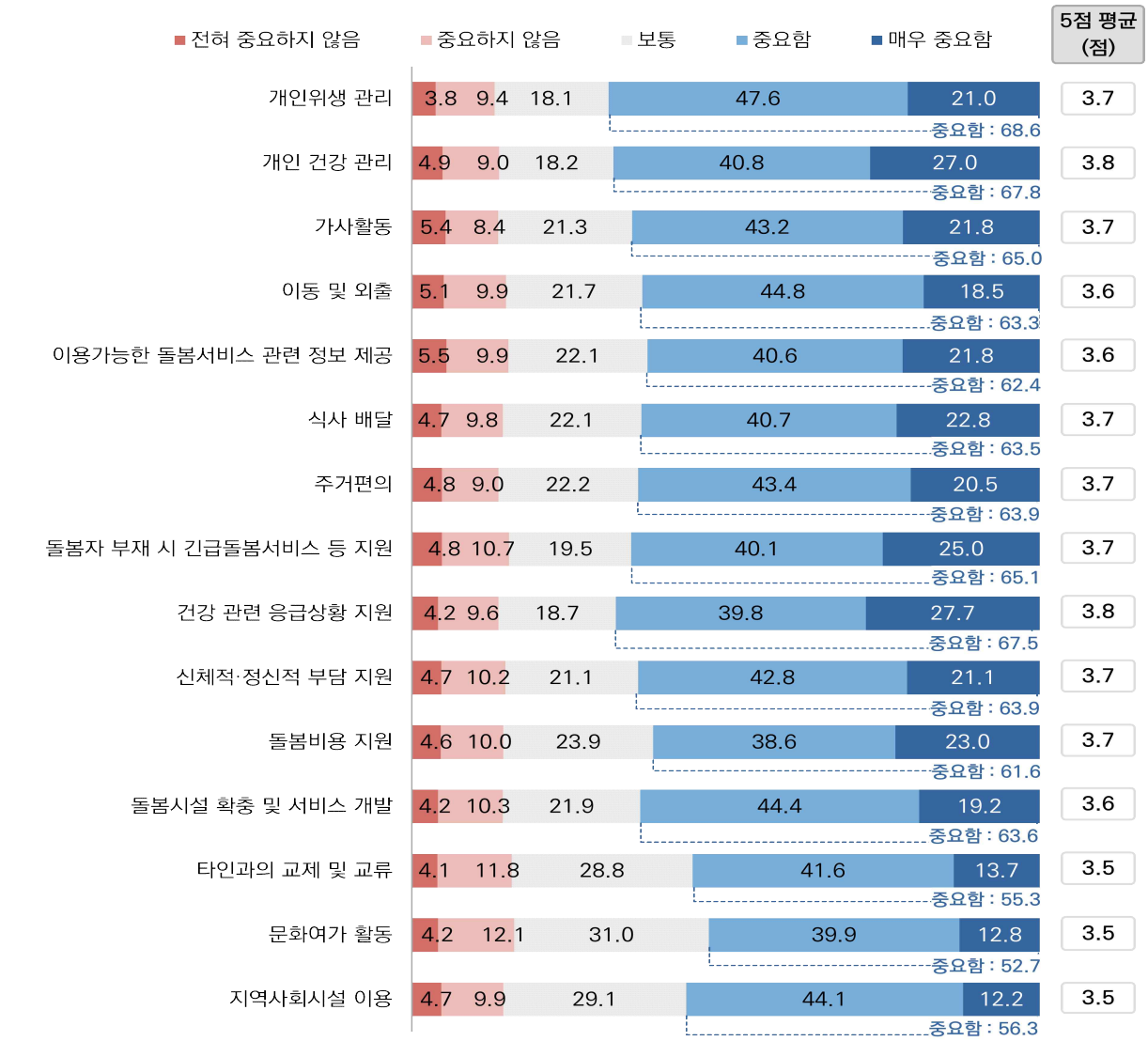
3) 노인 돌봄

(1) 노인 돌봄 서비스별 지원의 중요성

-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별 지원 중요성에 조사한 결과, '개인 위생 관리' 6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 건강 관리' 67.8%, '건강 관련 응급상황 지원'67.5%, '돌봄자 부재시 긴급돌봄서비스 등 지원' 65.1%, '가사활동' 65.0%, '주거편의'과 '신체적 · 정신적 부담지원'이 각각 63.9%, '돌봄시설확충 및 서비스 개발' 63.6%, '식사 배달' 6.35%, '이동 및 외출' 63.3%,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62.4%, '돌봄비용 지원' 61.6%, '지역사회시설 이용' 56.3%, '타인과의 교제 및 교류' 55.3%, '문화여가 활동' 52.7% 순임
- 노인 돌봄서비스별 지원의 중요성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인 3점을 모두 상회 하는 결과로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한 높은 중요성을 나타냄

[그림 3-22] 노인 돌봄 서비스별 지원의 중요성

(단위 : %)



[표 3-44] 노인 돌봄 서비스별 지원의 중요성

(단위 : 명, %)

구분	6기전체(n=2,271)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점/5점)
개인위생 관리	3.8	9.4	18.1	47.6	21.0	3.7
개인 건강 관리	4.9	9.0	18.2	40.8	27.0	3.8
가사활동	5.4	8.4	21.3	43.2	21.8	3.7
이동 및 외출	5.1	9.9	21.7	44.8	18.5	3.6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5.5	9.9	22.1	40.6	21.8	3.6
식사 배달	4.7	9.8	22.1	40.7	22.8	3.7
주거편의	4.8	9.0	22.2	43.4	20.5	3.7
돌봄자 부재 시 긴급돌봄서비스 등 지원	4.8	10.7	19.5	40.1	25.0	3.7
건강 관련 응급상황 지원	4.2	9.6	18.7	39.8	27.7	3.8
신체적·정신적 부담 지원	4.7	10.2	21.1	42.8	21.1	3.7
돌봄비용 지원	4.6	10.0	23.9	38.6	23.0	3.7
돌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발	4.2	10.3	21.9	44.4	19.2	3.6
타인과의 교제 및 교류	4.1	11.8	28.8	41.6	13.7	3.5
문화여가 활동	4.2	12.1	31.0	39.9	12.8	3.5
지역사회시설 이용	4.7	9.9	29.1	44.1	12.2	3.5

- 군·구별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의 중요성

- 지역별 노인 돌봄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추홀구, 중구, 동구, 계양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 항목별로는 개인위생 관리는 계양구(4.0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3.9점)와 미추홀구(3.8점) 순으로 높았음
- 개인 건강 관리는 미추홀구(4.1점)가 가장 높았고, 중구(4.0점)와 옹진군(3.8점) 순으로 높았음
- 가사활동은 미추홀구(4.0점), 동구와 중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3.8점) 순으로 높았음
- 이동 및 외출은 동구(3.9점)가 가장 높았고, 중구와 미추홀구(3.8점) 순으로 높았음
-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관련 정보는 중구와 동구(3.9점)가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과 계양구(3.8점)순임
- 식사 배달은 검단구(4.0점)가 가장 높았고, 동구와 미추홀구, 계양구, 강화군이 3.85점 순임
- 주거편의는 미추홀구(4.0점)가 가장 높았고, 중구(3.9점) 순임
- 돌봄자 부재 시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지원 필요성은 중구(4.0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미추홀구 검단구가 각각 3.9점으로 높았음
- 건강 관련 응급상황 서비스는 중구와 미추홀구, 검단구가 각각 4.0점으로 높았고, 동구와 계양구,강화군, 옹진군이 각각 3.9점으로 높았음
- 신체적 · 정신적 부담 지원은 미추홀구(4.0점)가 가장높았고, 동구와 계양이 각각 3.8점으로 높았음
- 돌봄비용 지원은 미추홀구(4.0점)가 가장 높았고, 중구(3.9점) 순이었음

- 타인과의 교제 및 교류는 동구(3.8점)가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와 계양구가 각각 3.7점 순임
- 무화여가 활동은 동구와 이추홀구, 계양구가 각각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구 3.6점 순임
- 지역사회시설 이용은 계양구와 연수구가 각각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구 3.7점 순임

[표 3-45] 군·구별 노인 돌봄 서비스별 지원의 중요성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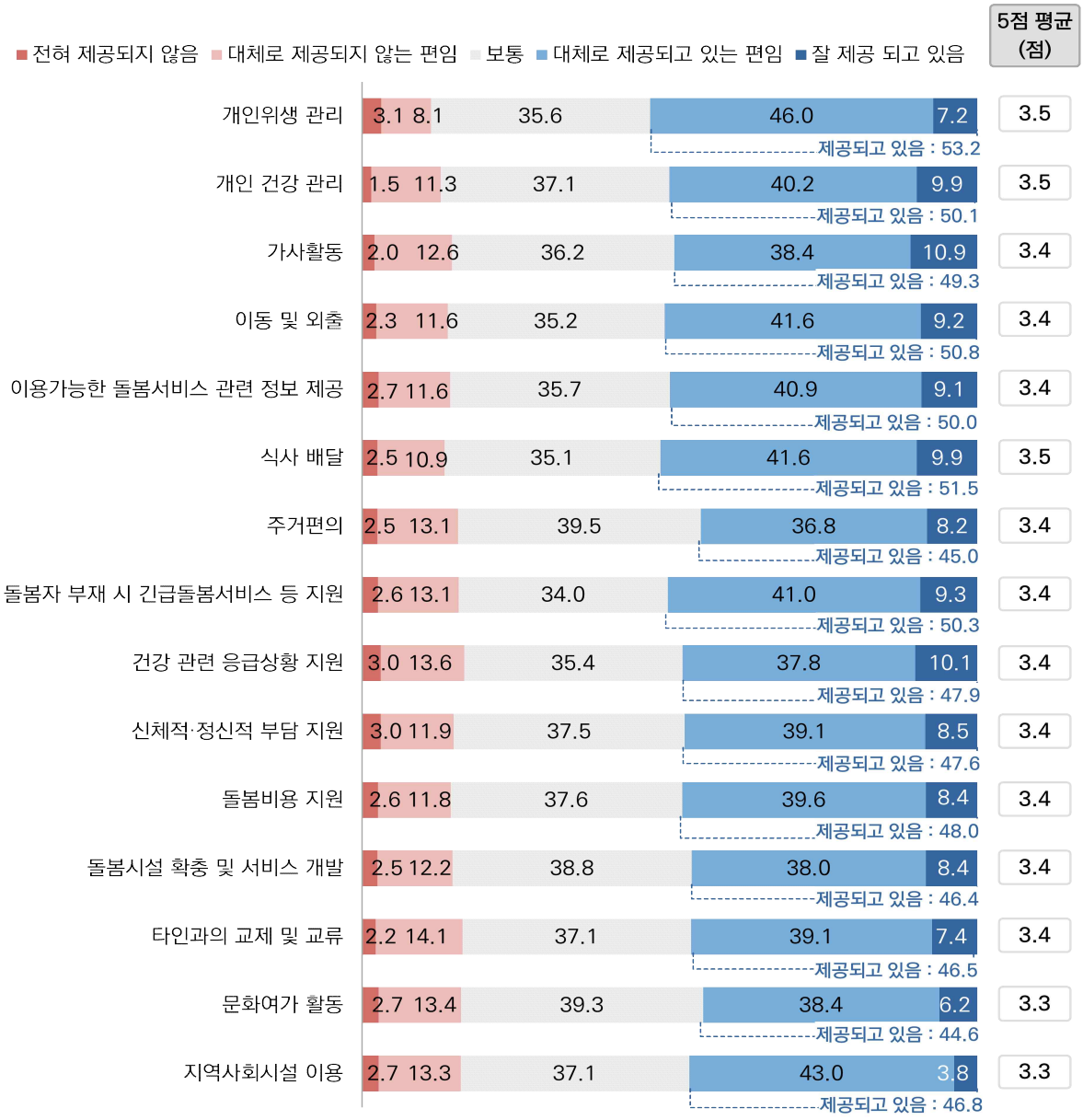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개인위생 관리	3.7	3.9	3.7	3.8	3.6	3.5	3.7	**4.0**	3.3	3.8	3.8	3.7
개인 건강 관리	3.8	**4.0**	3.9	**4.1**	3.6	3.3	3.8	3.9	3.3	3.6	3.8	3.8
가사활동	3.7	**3.8**	**3.8**	**4.0**	3.6	3.4	3.7	**3.8**	3.0	3.4	**3.8**	**3.8**
이동 및 외출	3.6	**3.8**	**3.9**	**3.8**	3.6	3.4	3.6	3.7	3.1	3.1	3.7	3.7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3.6	**3.9**	**3.9**	**3.8**	3.5	3.3	3.5	**3.8**	3.2	3.3	3.7	3.7
식사 배달	3.7	3.7	**3.8**	**3.8**	3.6	3.3	3.6	**3.8**	3.4	**4.0**	**3.8**	3.7
주거편의	3.7	**3.9**	3.8	**4.0**	3.6	3.4	3.6	3.8	3.1	3.6	3.7	3.6
돌봄자 부재 시 긴급돌봄서비스 등 지원	3.7	**4.0**	**3.9**	**3.9**	3.6	3.3	3.6	3.8	3.3	3.9	3.7	3.7
건강 관련 응급상황 지원	3.8	**4.0**	**3.9**	**4.0**	3.6	3.3	3.6	**3.9**	3.4	**4.0**	**3.9**	**3.9**
신체적·정신적 부담 지원	3.7	3.7	**3.8**	**4.0**	3.6	3.3	3.6	**3.8**	3.2	3.6	3.7	**3.8**
돌봄비용 지원	3.7	**3.9**	3.8	**4.0**	3.6	3.3	3.5	3.8	3.2	3.2	3.8	3.7
돌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발	3.6	**3.8**	**3.9**	**3.9**	3.6	3.3	3.6	3.7	3.2	3.3	3.7	**3.8**
타인과의 교제 및 교류	3.5	3.6	**3.8**	**3.7**	3.6	3.3	3.3	**3.7**	3.0	3.0	3.5	3.5
문화여가 활동	3.5	**3.6**	**3.7**	**3.7**	3.6	3.2	3.3	**3.7**	3.1	3.0	3.4	3.5
지역사회시설 이용	3.5	3.6	**3.7**	**3.8**	3.6	3.3	3.2	**3.8**	3.0	2.9	3.5	3.6

(2)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제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평균이 3점 이상이면 대체적으로 서비스의 만족도가 평균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3.4점 이상임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 만족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됨
-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 수준을 대체로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과 잘 제공 되고 있다는 응답을 포함하여 만족를 살펴본 결과, '개인위생 관리' 5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사배달' 51.5%, '이동 및 외출' 50.8%, '돌봄자 부재 시 긴급돌봄서비스 등 지원' 50.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만족수준이 낮은 항목으로 '문화여가 활동' 44.6%로 나타남

[그림 3-23]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정도

(단위 : %)



[표 3-46]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단위 : 명, %)

구분	6기(n=2,271)					
	전혀 제공되지 않음	대체로 제공되지 않는 편임	보통	대체로 제공되고 있는 편임	잘 제공 되고 있음	평균 (점/5점)
개인위생 관리	3.1	8.1	35.6	46.0	7.2	3.5
개인 건강 관리	1.5	11.3	37.1	40.2	9.9	3.5
가사활동	2.0	12.6	36.2	38.4	10.9	3.4
이동 및 외출	2.3	11.6	35.2	41.6	9.2	3.4

구분	6기(n=2,271)					
	전혀 제공되지 않음	대체로 제공되지 않는 편임	보통	대체로 제공되고 있는 편임	잘 제공 되고 있음	평균 (점/5점)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2.7	11.6	35.7	40.9	9.1	3.4
식사 배달	2.5	10.9	35.1	41.6	9.9	3.5
주거편의	2.5	13.1	39.5	36.8	8.2	3.4
돌봄자 부재 시 긴급돌봄서비스 등 지원	2.6	13.1	34.0	41.0	9.3	3.4
건강 관련 응급상황 지원	3.0	13.6	35.4	37.8	10.1	3.4
신체적·정신적 부담 지원	3.0	11.9	37.5	39.1	8.5	3.4
돌봄비용 지원	2.6	11.8	37.6	39.6	8.4	3.4
돌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발	2.5	12.2	38.8	38.0	8.4	3.4
타인과의 교제 및 교류	2.2	14.1	37.1	39.1	7.4	3.4
문화여가 활동	2.7	13.4	39.3	38.4	6.2	3.3
지역사회시설 이용	2.7	13.3	37.1	43.0	3.8	3.3

-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정도

- 지역별 노인돌봄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수준은 계양구와 옹진군, 강화군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검단구가 가장 낮았음
- 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개인위생 관리는 계양구(4.0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강화군(3.7점)과 옹진군(3.6점)도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검단구(2.8점)는 가장 낮았음. 개인 건강 관리는 계양구(3.7점)와 부평구(3.6점)가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검단구(2.7점)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가사활동은 계양구(3.7점)와 옹진군(3.6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검단구(2.6점)는 가장 낮은 수준임. 이동 및 외출 지원은 강화군(3.7점)과 옹진군(3.6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검단구(2.7점)는 낮은 수준임
- 돌봄서비스 정보 제공은 계양구(3.7점)가 가장 높았고, 검단구(2.6점)는 가장 낮아 정보 접근성에서 지역별 차이가 큼. 식사배달은 계양구(3.7점)와 강화군(3.7점)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검단구(3.1점)는 낮은 수준임
- 주거편의는 계양구(3.7점)와 강화군(3.6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검단구(2.7점)는 가장 낮음. 돌봄자 부재 시 긴급돌봄 지원은 계양구(3.8점)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검단구(2.6점)는 가장 낮음
- 건강 관련 응급상황 지원은 계양구(3.7점)와 강화군(3.6점)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신체적·정서적 부담 지원은 계양구(3.7점)와 옹진군(3.6점)이 높은 수준을 보였음
- 돌봄비용 지원은 계양구(3.7점)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돌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발 역시 계양구(3.7점)가 가장 높았음
- 타인과의 교제 및 교류는 계양구(3.6점)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문화여가 활동도 계양구(3.6점)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 지역사회시설 이용은 계양구(3.6점)와 강화군(3.6점)이 높은 수준을 보였음

[표 3-47]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정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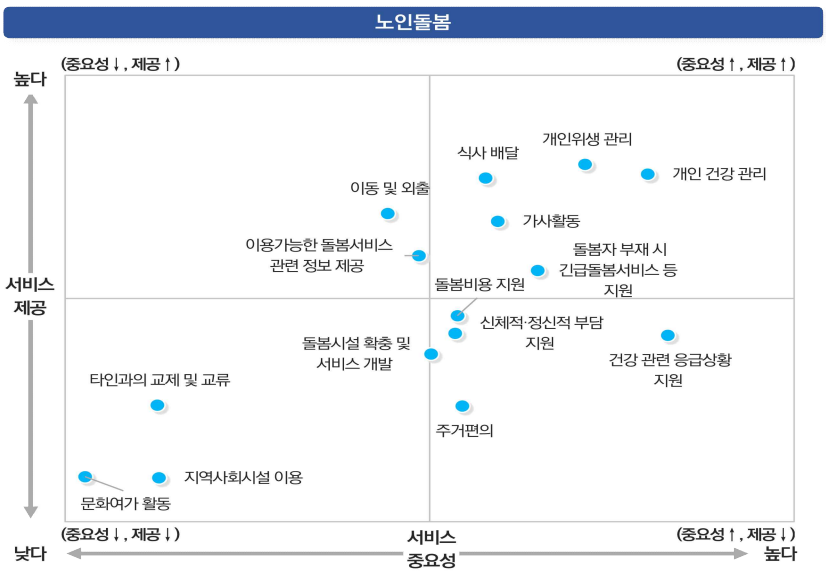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개인위생 관리	3.5	3.3	3.1	3.5	3.4	3.6	3.4	**3.9**	3.5	2.8	**3.7**	3.6
개인 건강 관리	3.5	3.5	3.5	3.5	3.4	3.3	**3.6**	**3.7**	3.3	2.7	3.6	**3.6**
가사활동	3.4	3.5	3.3	3.4	3.5	3.5	3.3	**3.7**	3.2	2.6	3.6	**3.6**
이동 및 외출	3.4	3.5	3.4	3.4	3.4	3.4	3.4	**3.6**	3.3	2.7	**3.7**	**3.6**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3.4	3.4	3.4	3.4	3.4	3.4	3.4	**3.7**	3.4	2.6	3.6	**3.5**
식사 배달	3.5	3.4	3.4	3.4	3.4	**3.5**	3.4	**3.7**	3.5	3.1	**3.7**	**3.5**
주거편의	3.4	3.2	3.3	3.3	3.4	3.4	3.3	**3.7**	3.3	2.7	3.6	**3.5**
돌봄자 부재 시 긴급돌봄서비스 등 지원	3.4	3.4	3.4	**3.5**	3.4	3.3	3.4	**3.8**	3.3	2.6	3.6	**3.5**
건강 관련 응급상황 지원	3.4	3.3	3.4	3.4	3.4	3.3	3.3	**3.7**	3.4	2.5	**3.6**	3.5
신체적·정신적 부담 지원	3.4	3.4	3.3	3.5	3.4	3.4	3.3	**3.7**	3.3	2.5	**3.6**	**3.6**
돌봄비용 지원	3.4	3.4	3.2	3.5	3.3	3.4	3.3	**3.7**	3.3	2.6	**3.6**	3.5
돌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발	3.4	3.4	3.2	3.4	3.4	3.3	3.3	**3.7**	3.2	2.7	**3.7**	3.5
타인과의 교제 및 교류	3.4	3.5	3.3	3.4	3.4	3.4	3.3	**3.6**	3.3	2.5	**3.5**	**3.5**
문화여가 활동	3.3	3.4	3.2	3.3	3.4	3.3	3.1	**3.6**	3.3	2.8	**3.5**	3.4
지역사회시설 이용	3.3	3.4	3.2	**3.5**	3.2	3.3	3.2	**3.6**	3.3	2.5	**3.6**	3.4

(3) 노인 돌봄 서비스별 지원의 중요성과 서비스 제공 만족도 IPA 결과

- 노인돌봄서비스별 지원의 중요성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만족 수준을 토대로 시급하게 강화해야 할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IPA 분석을 수행한 결과, '돌봄비용 지원'과 '신체적 · 정신적 부담 지원', '건강관련 응급상황 지원', '주거편의', '돌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발' 정책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4] 인천시 전체 노인 돌봄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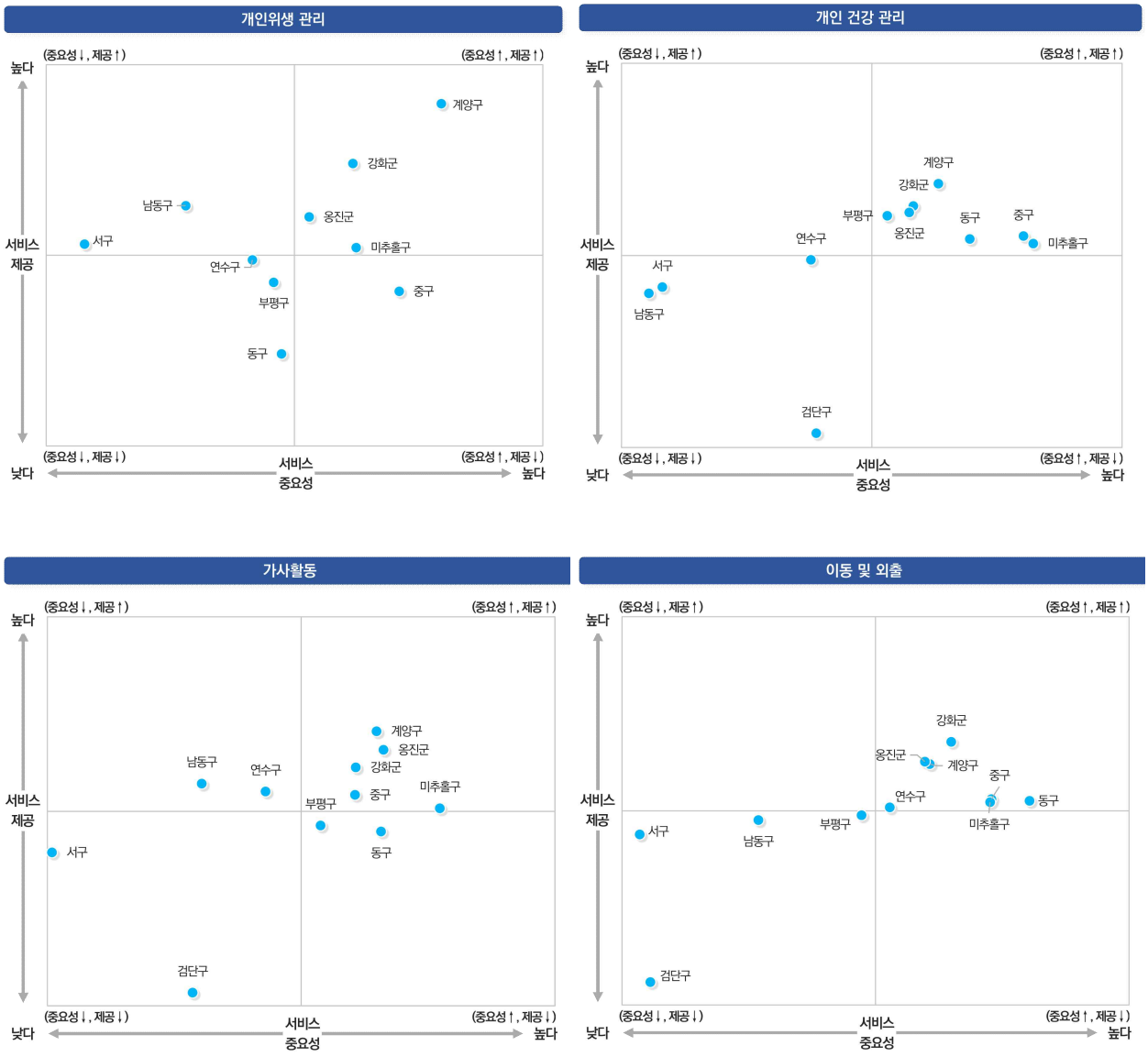


- 군·구별 노인 돌봄 서비스별 지원의 중요성과 서비스 제공 만족도 IPA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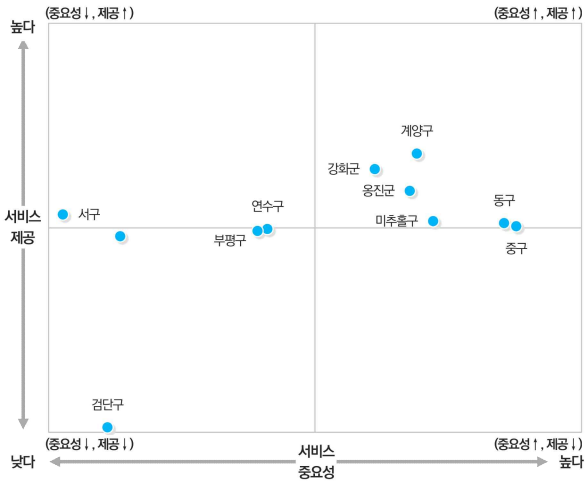
  - 지역별 노인 돌봄 서비스별 지원의 중요성과 서비스 제공 만족 수준을 항목별 살펴본 결과, 개인위생 관리는 중구, 가사활동은 동구와 부평구, 식사배달은 동구와 미추홀구,검단구, 주거편의는 동구와 미추홀구, 중구, 건강 관련 응급상황 지원은 중구에서 서비스 제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3-25] 군·구별 노인 돌봄 - 일상생활 관련 IPA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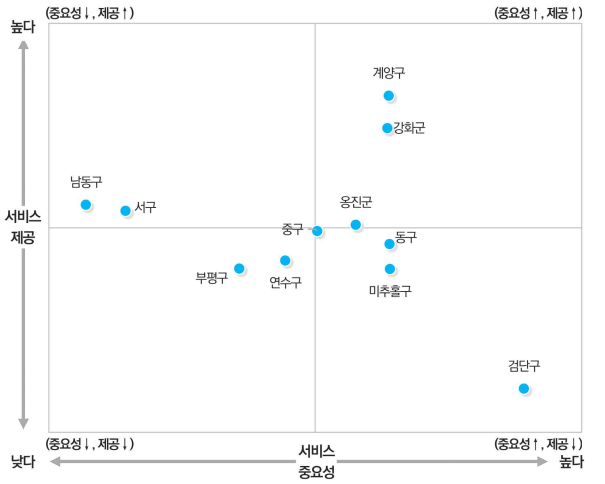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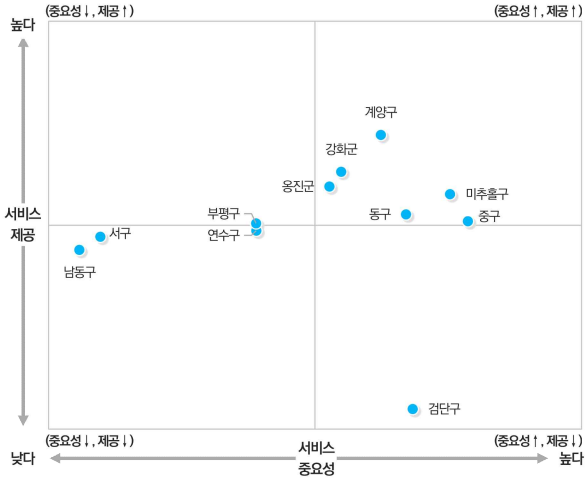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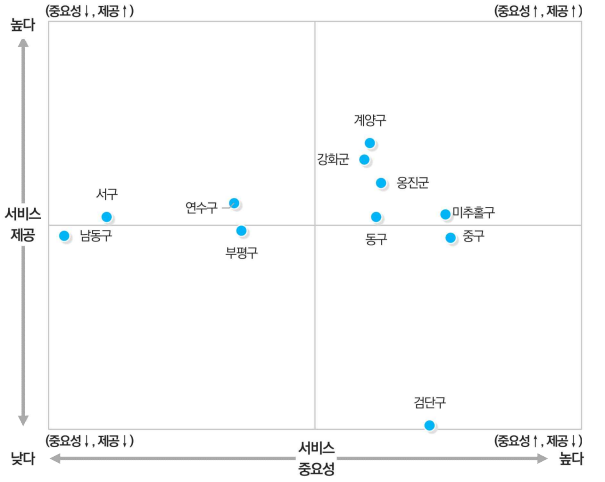
식사 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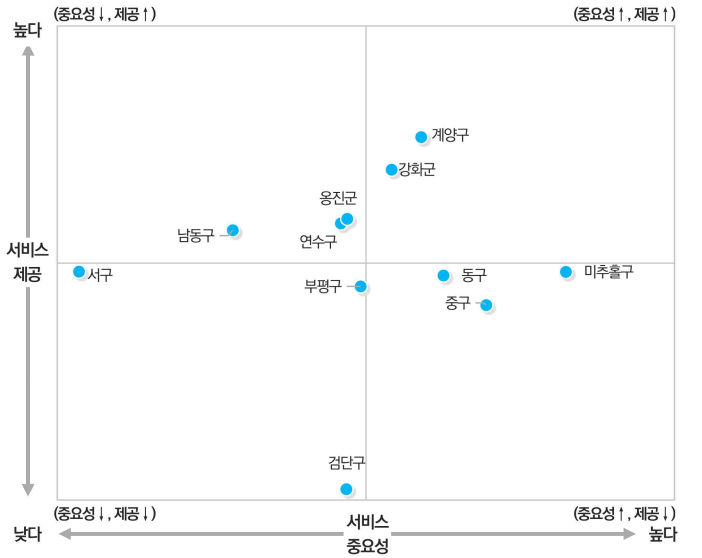
돌봄자 부재 시 긴급돌봄서비스 등 지원



건강 관련 응급상황 지원



주거편의



(4) 노인 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 현황

- 인천시 및 군·구에서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지원 및 요양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방문요양서비스' 71.8%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방문목욕서비스' 65.7%, '노인요양시설' 6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4.1%, '주 · 야간보호' 51.0%, '노인무료급식 · 도시락배달' 50.6%, '간호사 방문간호, 요양상담 서비스' 46.7%, '치매안심센터 이용' 41.9%, '치매안심센터 이용' 41.9%, '단기보호' 40.4%, '방문보건관리' 39.2%, '기타 재가급여' 32.3%, '특별현금급여' 21.4% 순임
-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율에 비해 경험률은 10%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는 각각 6.8%, '치매안심센터' 4.2%, '방문보건관리' 4.1%, '방문목욕서비스' 3.7%, '간호사 방문간호·요양상담' 3.3%, '기타 재가급여' 2.7%','야간보호' 2.4%, '특별현금급여' 1.9%', '노인요양시설' 1.4%, '단기보호' 1.2% 순으로 낮은 경험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3.7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 특히, '방문보건관리' 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문요양서비스' 4.04점, '방문목욕서비스'와 '특별현금급여' 3.93점, '간호사 방문간호', '요양상담 서비스' 3.92점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만족도가 3.72점(노인요양시설)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 수준을 보임
-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향후 이용 의향은 이용 경험률에 비해 크게 높았는데, '방문요양서비스'50.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8.1%, '방문보건관리' 44.4%,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배달' 43.4%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함
- 반면 '단기보호' 30.4%, '기타 재가급여' 30.6%, '노인요양시설' 34.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의향을 보여, 시설 중심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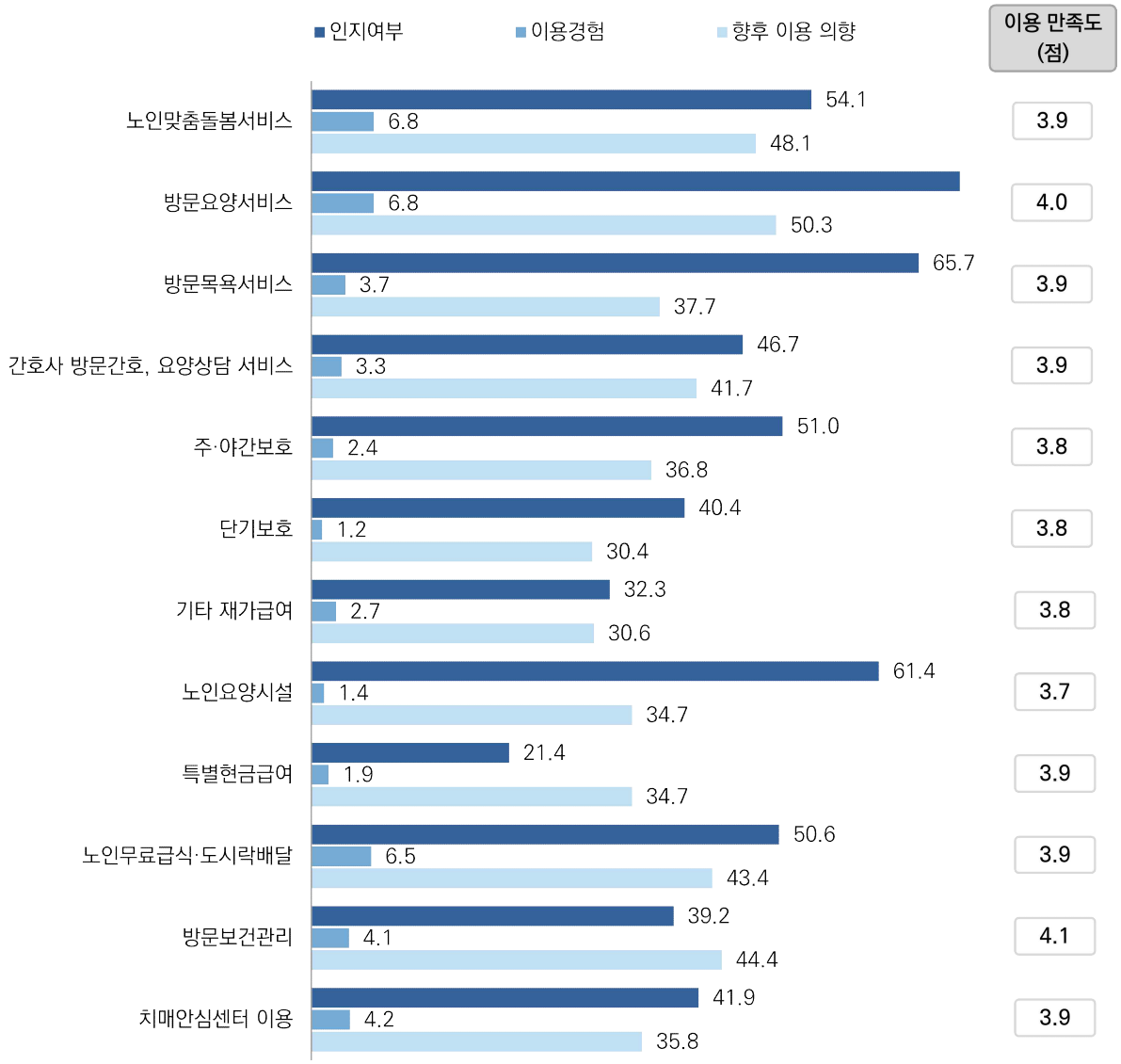
[표 3-48]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 (n=2,271)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4.1	6.8	155	3.90	48.1
방문요양서비스	71.8	6.8	155	4.04	50.3
방문목욕서비스	65.7	3.7	85	3.93	37.7
간호사 방문간호, 요양상담 서비스	46.7	3.3	75	3.92	41.7
주·야간보호	51.0	2.4	54	3.83	36.8
단기보호	40.4	1.2	28	3.79	30.4
기타 재가급여	32.3	2.7	61	3.75	30.6
노인요양시설	61.4	1.4	32	3.72	34.7
특별현금급여	21.4	1.9	43	3.93	34.7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배달	50.6	6.5	148	3.87	43.4
방문보건관리	39.2	4.1	93	4.05	44.4
치매안심센터 이용	41.9	4.2	96	3.88	35.8

[그림 3-26] 노인 돌봄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단위 : %)



●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여부

- 지역별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계양구와 미추홀구, 중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검단구와 동구, 부평구에서 낮은 인지율을 보임
- 서비스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평균 54.1%로, 계양구(80.2%)가 가장 높고 검단구(15.3%)가 가장 낮아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드러남
- 방문요양서비스는 평균 71.8%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계양구(87.4%), 미추홀구(82.0%)가 두드러지게 높고 동구(60.0%)가 가장 낮음
- 방문목욕서비스는 평균 65.7%로, 미추홀구(81.0%), 계양구(78.0%)가 높으나 연수구(51.1%), 동구(54.4%)는 낮음

- 간호사 방문간호 및 요양상담 서비스는 평균 46.7%로, 미추홀구(70.1%)가 가장 높고 검단구(19.5%)가 가장 낮음
-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평균 51.0%로, 미추홀구(70.1%), 서해구(65.6%)가 높고 동구(41.4%), 남동구(41.7%)는 낮음
- 단기보호 서비스는 평균 40.4%로, 중구(64.0%)가 가장 높고 검단구(9.3%)가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음
- 기타 재가급여는 평균 32.3%로, 미추홀구(58.3%)가 가장 높고 검단구(9.3%)가 가장 낮은 인지율을 보임
- 노인요양시설은 평균 61.4%로, 미추홀구(81.5%), 검단구(70.3%)가 높고 동구(39.1%)가 가장 낮음
- 특별현금급여는 평균 21.4%로 가장 낮은 항목이며, 미추홀구(32.2%)가 가장 높고 검단구(5.9%), 부평구(6.6%)가 가장 낮음
-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배달 서비스 인지율은 평균 50.6%로, 미추홀구(73.9%), 검단구(63.6%)가 높고 동구(32.1%), 연수구(35.8%)는 낮음
- 방문보건관리 서비스는 평균 39.2%로, 중구(60.3%), 미추홀구(59.2%)가 높고 검단구(9.3%), 연수구(19.9%)가 낮음
- 치매안심센터 이용률은 평균 41.9%로, 미추홀구(71.1%)가 가장 높고 검단구(20.3%)가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9]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인지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4.1	65.4	54.9	**69.2**	44.3	48.6	53.3	**80.2**	59.8	15.3	61.1	39.9
방문요양서비스	71.8	65.0	60.0	**82.0**	59.7	67.4	75.3	**87.4**	77.0	72.9	66.0	76.5
방문목욕서비스	65.7	66.4	54.4	**81.0**	51.1	71.1	61.0	**78.0**	61.5	73.7	65.5	63.2
간호사 방문간호, 요양상담 서비스	46.7	47.7	37.2	**70.1**	46.0	52.3	34.0	**61.0**	57.4	19.5	43.8	43.9
주·야간보호	51.0	63.6	41.4	**70.1**	47.7	41.7	42.5	**65.4**	65.6	65.3	51.2	34.3
단기보호	40.4	**64.0**	53.0	54.0	39.8	39.0	27.4	44.5	**50.0**	9.3	37.4	27.5
기타 재가급여	32.3	**49.5**	46.5	**58.3**	29.0	21.6	20.8	35.7	33.6	9.3	29.1	21.5
노인요양시설	61.4	**67.3**	39.1	**81.5**	51.1	66.5	51.0	61.5	58.2	70.3	64.0	65.7
특별현금급여	21.4	**30.4**	25.6	**32.2**	18.8	17.9	6.6	28.0	26.2	5.9	17.7	23.2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배달	50.6	**65.4**	32.1	**73.9**	35.8	57.3	39.8	62.1	41.8	63.6	53.2	41.1
방문보건관리	39.2	**60.3**	33.0	**59.2**	19.9	44.5	23.9	50.0	27.9	9.3	36.0	46.2
치매안심센터 이용	41.9	**59.8**	35.3	**71.1**	26.1	33.9	31.3	49.5	52.5	20.3	44.3	36.3

●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돌봄서비스 이용경험

- 지역별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경험율은 계양구와 옹진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검단구와 부평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서비스 종류에 따른 지역별 이용경험율을 살펴본 결과, 노인돌봄서비스 이용경험은 전반적으로 계양구와 옹진군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방문요양·맞춤돌봄·방문보건관리 등은 두 지역에서 두드러짐. 반면 검단구와 부평구는 대부분 서비스에서 이용률이 낮음. 또한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옹진군에서는 방문보건관리와 간호사 방문간호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특징을 보임
- 방문요양서비스(71.8%) 이용경험은 전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인지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계양구(87.4%), 미추홀구(82.0%), 옹진군(76.5%)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이는 방문요양서비스가 대표적

인 돌봄 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방문목욕서비스(65.7%)와 노인요양시설(61.4%) 역시 높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특히 미추홀구(81.0%, 81.5%)와 검단구(73.7%, 70.3%)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함. 이는 기본 생활지원과 시설형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음을 의미함
- 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54.1%), 주·야간보호(51.0%),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배달(50.6%)은 절반 수준의 인지율을 보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60~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검단구(15.3%), 옹진군(39.9%) 등에서는 낮은 수준의 인지율을 보임
- 의료·보건 관련 서비스인 간호사 방문간호·요양상담(46.7%), 방문보건관리(39.2%), 치매안심센터(41.9%)는 인지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함. 특히 검단구(19.5%, 9.3%, 20.3%)와 연수구(26.1%)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의료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가장 낮은 인지율을 기록한 서비스는 특별현금급여(21.4%)와 기타 재가급여(32.3%), 단기보호(40.4%)임. 특히 부평구(6.6%), 검단구(5.9%, 9.3%)는 극히 낮은 수준을 보였음

[표 3-50]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8	**14.0**	6.0	10.0	2.8	3.2	-	**19.8**	7.4	-	3.4	7.6
방문요양서비스	6.8	0.5	7.4	11.8	4.0	5.0	0.8	**22.5**	4.9	0.8	2.5	**11.3**
방문목욕서비스	3.7	0.5	3.7	4.3	1.7	**6.9**	0.8	**9.3**	3.3	0.0	1.0	6.8
간호사 방문간호, 요양상담 서비스	3.3	0.5	3.7	2.8	2.3	1.4	-	**8.2**	1.6	0.8	1.5	**9.1**
주·야간보호	2.4	2.3	**2.8**	2.4	2.8	0.9	-	**9.3**	3.3	-	0.5	2.5
단기보호	1.2	0.9	0.9	1.9	2.3	0.0	-	1.6	1.6	-	1.0	**2.5**
기타 재가급여	2.7	0.5	0.5	**9.0**	1.1	1.4	-	2.2	2.5	-	2.0	**6.8**
노인요양시설	1.4	1.4	0.9	2.4	**4.0**	0.5	-	**3.3**	0.8	-	2.0	0.8
특별현금급여	1.9	0.5	0.5	-	2.3	0.9	-	1.6	**2.5**	-	1.5	**7.4**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배달	6.5	0.9	**8.8**	21.3	5.1	5.5	0.8	6.6	2.5	0.8	3.0	**10.5**
방문보건관리	4.1	-	5.1	2.4	1.7	0.5	2.7	**6.0**	1.6	-	1.0	**14.4**
치매안심센터 이용	4.2	2.8	0.5	3.8	1.1	1.4	6.9	2.7	**7.4**	-	3.4	**10.5**

●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계양구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서비스 제공 체계가 안정적인 것으로 해석됨. 중구와 남동구는 특정 서비스(특별현금급여, 노인요양시설)에서 최고 만족도를 기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사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직접 돌봄·건강관리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평균 3.9점으로, 계양구(4.6점)가 가장 높아 맞춤형 돌봄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동구와 강화군(각 3.4점)은 상대적으로 낮아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짐
- 방문요양서비스는 평균 4.0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계양구(4.6점)가 가장 높고 서해구(3.3점)가 가장 낮음
- 방문목욕서비스는 평균 3.9점으로, 강화군(4.5점)과 계양구(4.2점)가 높으나 부평구·서해구(각 3.5점)는 낮음

- 간호사 방문간호 및 요양상담 서비스는 평균 3.9점으로, 연수구(4.5점)와 계양구(4.3점)가 높고, 동구(3.4점)는 낮음
-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평균 3.8점으로, 연수구(4.6점)와 중구(4.2점)가 높으며, 서해구(3.0점)는 낮음
- 단기보호 서비스는 평균 3.8점으로, 계양구(4.7점)와 연수구(4.5점)가 높으나 중구(2.0점)는 매우 낮음
- 기타 재가급여는 평균 3.8점으로, 계양구(4.5점)가 가장 높고 중구(2.0점), 강화군(2.5점)은 낮음
- 노인요양시설은 평균 3.7점으로, 남동구(5.0점)가 가장 높아 시설 만족도가 매우 높고, 중구·서해구(각 3.0점)는 낮음
- 특별현금급여는 평균 3.9점으로, 중구(5.0점), 계양구·강화군(각 4.7점)이 높고, 서해구(2.7점)는 낮음.
-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배달 서비스는 평균 3.9점으로, 계양구(4.3점)와 부평구(4.0점)가 높고, 중구(2.5점)는 낮음
- 방문보건관리 서비스는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은 항목이며, 계양구(4.6점), 강화군(4.5점)이 높고, 남동구·서해구(각 3.0점)는 낮음
- 치매안심센터 이용만족도는 평균 3.9점으로, 계양구(4.4점)가 가장 높고, 동구(3.0점)는 가장 낮음

[표 3-51]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9	3.9	3.4	3.6	3.8	3.9	-	**4.6**	**4.0**	-	3.4	3.6
방문요양서비스	4.0	**4.0**	3.7	3.7	3.7	**4.0**	3.5	**4.6**	3.3	**4.0**	3.8	4.1
방문목욕서비스	3.9	4.0	3.8	3.8	4.0	3.9	3.5	**4.2**	3.5	-	**4.5**	3.9
간호사 방문간호, 요양상담 서비스	3.9	4.0	3.4	3.8	**4.5**	3.7	-	**4.3**	3.5	4.0	3.7	3.9
주·야간보호	3.8	**4.2**	3.7	3.4	**4.6**	3.5	-	4.1	3.0	-	4.0	3.4
단기보호	3.8	2.0	3.5	4.3	**4.5**	-	-	**4.7**	3.5	-	4.0	3.4
기타 재가급여	3.8	2.0	3.0	3.8	**4.0**	**4.0**	-	**4.5**	3.3	-	2.5	3.9
노인요양시설	3.7	3.0	3.5	3.6	3.7	**5.0**	-	**4.2**	3.0	-	3.8	3.7
특별현금급여	3.9	**5.0**	3.0	-	3.5	3.5	-	**4.7**	2.7	-	**4.7**	4.0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배달	3.9	2.5	3.9	3.7	3.9	3.8	**4.0**	**4.3**	**4.0**	**4.0**	3.7	**4.0**
방문보건관리	4.1	-	3.6	3.6	3.7	3.0	3.9	**4.6**	3.0	-	**4.5**	4.2
치매안심센터 이용	3.9	3.7	3.0	3.8	3.5	3.7	3.8	**4.4**	**4.0**	-	3.9	3.9

●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 노인 돌봄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은 계양구, 검단구, 미추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전반적으로 모든 서비스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남. 옹진군은 방문형·보건형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구는 생활지원형 서비스에 대한 의향이 두드러져, 급식·도시락배달 등 기본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됨. 반면 일부 지역(서해구, 강화군)은 특정 서비스에서만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계양구(68.1%)가 가장 높았으며, 미추홀구(62.6%), 검단구(61.9%) 순임
- 방문요양서비스는 계양구(70.9%)가 가장 높았으며, 검단구(66.9%)와 미추홀구(62.1%), 옹진군(60.3%) 순으로 나타남

- 방문목욕서비스는 계양구(59.9%)가 가장 높았고, 검단구(59.3%)와 미추홀구(53.6%)도 높은 의향을 보임
- 간호사 방문간호·요양상담 서비스는 미추홀구(61.6%)가 가장 높았으며, 검단구(60.2%), 계양구(58.8%) 순임
- 주·야간보호는 검단구(62.7%) 가장 높았으며, 계양구(52.7%)와 미추홀구(44.1%)도 높은 수준임
- 단기보호는 검단구(56.8%), 계양구(47.8%), 미추홀구(38.9%)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재가급여는 검단구(55.1%), 미추홀구(46.9%), 계양구(41.8%) 순으로 나타남
- 노인요양시설은 검단구(57.6%)가 가장 높았으며, 미추홀구(51.7%)와 옹진군(46.5%)가 뒤를 이음
- 특별현금급여는 검단구가(59.3%)로 가장 높았으며, 미추홀구(46.0%)와 연수구(39.2%)도 높은 수준임
-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배달은 검단구(64.4%)가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부평구(62.5%)와 동구(55.8%)도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방문보건관리는 계양구(54.4%)가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검단구(60.2%)와 미추홀구(55.9%)도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치매안심센터는 검단구(60.2%), 미추홀구(50.2%), 계양구(46.2%)로 나타남

[표 3-52] 군·구별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8.1	52.3	37.7	**62.6**	37.5	37.2	47.1	**68.1**	45.9	61.9	50.7	40.2
방문요양서비스	50.3	23.8	37.7	62.1	35.8	50.5	52.1	**70.9**	41.8	**66.9**	48.8	60.3
방문목욕서비스	37.7	25.7	21.4	53.6	33.0	37.2	27.4	**59.9**	29.5	**59.3**	30.0	44.5
간호사 방문간호, 요양상담 서비스	41.7	25.7	32.1	**61.6**	38.1	39.0	33.2	58.8	34.4	**60.2**	41.4	42.5
주·야간보호	36.8	27.1	30.2	44.1	39.2	25.7	31.7	**52.7**	29.5	**62.7**	33.5	39.1
단기보호	30.4	22.4	29.8	38.9	34.1	20.2	20.1	**47.8**	15.6	**56.8**	19.7	36.3
기타 재가급여	30.6	22.0	36.3	**46.9**	31.3	18.8	25.5	41.8	12.3	**55.1**	19.7	32.3
노인요양시설	34.7	23.4	26.5	**51.7**	35.8	21.6	22.8	46.7	20.5	**57.6**	29.6	46.5
특별현금급여	34.7	27.1	43.7	**46.0**	39.2	15.6	30.5	39.6	15.6	**59.3**	33.0	36.5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배달	43.4	27.6	55.8	50.2	34.7	32.6	**62.5**	45.6	18.0	**64.4**	42.9	39.4
방문보건관리	44.4	50.0	39.5	**55.9**	26.7	42.7	41.7	54.4	18.9	**60.2**	49.3	44.5
치매안심센터 이용	35.8	38.8	28.4	**50.2**	22.7	18.3	40.2	46.2	30.3	**60.2**	35.0	33.1

● 노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응답자 186명 중 절반 가까운 46.2%가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을 이유로 들었으며,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14.0%)',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정보 부족(8.6%)'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방문요양서비스는 257명 중 37.7%가 '이용자격 제한'을, 24.9%가 '정보 부족'을 이유로 응답함
- 방문목욕서비스는 230명 중 32.2%가 '이용자격 제한', 26.1%가 '정보 부족'을 이유로 응답하여, 접근성보다 제도와 정보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사료됨
- 간호사 방문간호·요양상담 서비스는 148명 중 37.2%가 '이용자격 제한'을, 16.2%가 '정보 부족'을, 12.8%가 '신청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응답함. 이는 의료적 돌봄 서비스가 제도적 조건과 절차 문제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줌

-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171명 중 '정보 부족(28.7%)'과 '이용자격 제한(28.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접근성 문제(11.7%)'도 주요 요인으로 확인됨
- 단기보호 서비스는 112명 중 30.4%가 '이용자격 제한'을, 15.2%가 '가족 돌봄 선호'를, 12.5%가 '정보 부족'을 이유로 응답함
- 기타 재가급여는 80명 중 35.0%가 '이용자격 제한'을, 13.8%가 '가족 돌봄 선호'를, 10.0%가 '기관 접근성·절차 복잡성·정보 부족'을 이유로 응답함
- 노인요양시설은 218명 중 28.0%가 '이용자격 제한', 22.9%가 '정보 부족', 13.3%가 '가족 돌봄 선호'를 이유로 응답함
- 특별현금급여는 59명 중 44.1%가 '이용자격 제한'을, 20.3%가 '정보 부족'을, 18.6%가 '신청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응답함
-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배달은 172명 중 33.1%가 '정보 부족'을, 29.1%가 '이용자격 제한'을, 9.3%가 '가족 돌봄 선호'를 이유로 응답함
- 방문보건관리는 100명 중 33.0%가 '이용자격 제한'을, 16.0%가 '가족 돌봄 선호'를, 12.0%가 '절차 복잡성·기관 접근성'을 이유로 응답함
- 치매안심센터는 73명 중 30.1%가 '이용자격 제한'을, 19.2%가 '기관 접근성 문제'를, 11.0%가 '가족 돌봄 선호'를 이유로 응답함

[표 3-53]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86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46.2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4.0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8.6
방문요양서비스	257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7.7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24.9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0.9
방문목욕서비스	230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2.2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26.1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9.1
간호사 방문간호, 요양상담 서비스	148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7.2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6.2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2.8
주·야간보호	171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28.7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8.1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1.7
단기보호	112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0.4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5.2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2.5
기타 재가급여	80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5.0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3.8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0.0
노인요양시설	218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8.0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22.9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3.3
특별현금급여	59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44.1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20.3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8.6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배달	172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33.1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9.1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9.3
방문보건관리	100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3.0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6.0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2.0
치매안심센터 이용	73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0.1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9.2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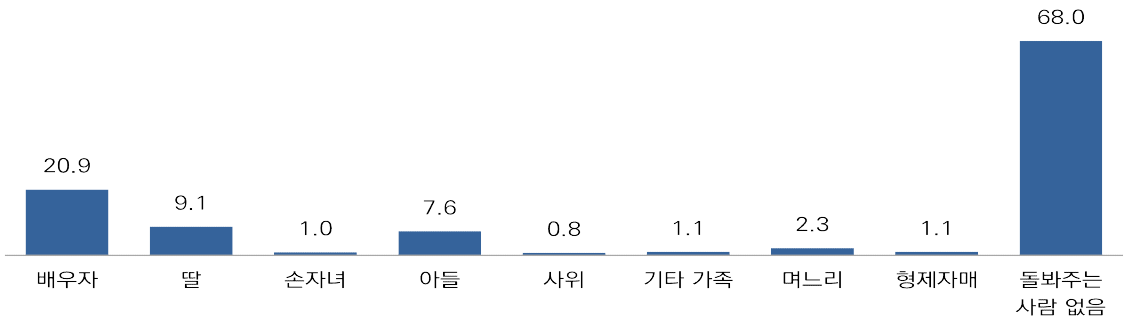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5)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주로 돌보는 가족 및 돌보는 시간

- 가족 구성원 중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 돌봄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본 결과, 배우자 2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딸 9.1%, 아들 7.6%, 며느리 2.3% 순이었으며, 돌봄시간 평균은 3.3시간임.
- 한편, 돌봐주는 사람이 없음이라는 응답이 68.0%로 높았는데, 이는 가족 돌봄 공백 문제에 주목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 지역별로 보면, 중구는 '돌봐주는 사람 없음' 비율이 93.5%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돌봄 시간은 2.93시간으로 나타남. 이는 가족 돌봄의 공백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해석됨
  - 연수구와 강화군은 배우자 돌봄 비율이 각각 35.8%, 34.5%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강화군은 딸(11.3%), 아들(11.8%), 며느리(5.4%)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돌봄에 참여하고 있음. 강화군의 평균 돌봄 시간은 4.41시간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아, 가족 중심의 돌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남동구와 계양구는 딸의 돌봄 비율이 각각 19.3%, 20.3%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여성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해석됨
  - 검단구는 배우자 돌봄 비율이 33.1%로 높았으나, 평균 돌봄 시간은 1.5시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이는 돌봄 참여는 있으나 실제 시간 투입은 적은 구조로 해석됨
  - 서해구와 옹진군은 '돌봐주는 사람 없음' 비율이 각각 74.6%, 72.0%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돌봄 시간도 각각 1.9시간, 3.4시간으로 낮은 편임

[그림 3-27]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주로 돌보는 가족

(단위 : %)



[표 3-54]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주로 돌보는 가족 및 돌보는 시간

(단위 : 명, %)

구분	돌보는 가족										돌보는 시간	
	사례수	배우자	딸	손자녀	아들	사위	기타 가족	며느리	형제 자매	돌봄가족 없음	사례수	평균 (시간)
전체	2,271	20.9	9.1	1.0	7.6	0.8	1.1	2.3	1.1	68.0	727	3.3
중구	214	4.7	1.9	0.0	0.9	0.0	0.9	0.5	0.0	93.5	14	2.9
동구	215	20.0	5.6	0.5	7.0	0.0	1.9	0.9	0.0	67.4	70	3.6
미추홀구	211	20.4	9.0	0.5	4.3	0.0	0.5	0.5	4.3	70.1	63	3.8

구분	돌보는 가족										돌보는 시간	
	사례수	배우자	딸	손자녀	아들	사위	기타 가족	며느리	형제 자매	돌봄가족 없음	사례수	평균 (시간)
연수구	176	35.8	10.2	-	10.8	1.1	0.6	2.3	0.6	58.5	73	3.0
남동구	218	16.5	19.3	-	12.8	2.8	1.8	3.2	0.9	61.9	83	2.8
부평구	259	21.2	9.3	3.9	5.8	-	1.9	1.2	-	72.6	71	3.9
계양구	182	21.4	20.3	1.1	8.2	2.2	0.5	3.8	3.8	55.5	81	2.8
서해구	122	15.6	4.1	-	7.4	-	1.6	0.8	-	74.6	31	1.9
검단구	118	33.1	9.3	-	2.5	-	-	-	-	56.8	51	1.5
강화군	203	34.5	11.3	3.9	11.8	2.5	2.0	5.4	1.0	55.2	91	4.4
옹진군	353	16.1	3.4	-	9.6	0.3	0.6	4.2	1.1	72.0	99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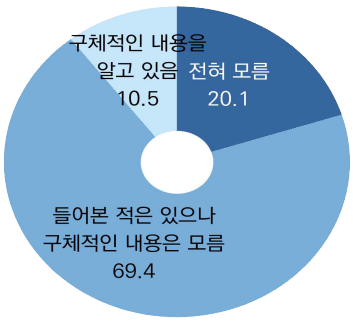
(6)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인지 정도

- 본인 또는 가족이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를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공적 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이라는 응답이 69.4%, 대다수의 응답자가 서비스의 존재는 알고는 있으나 실제 내용이나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1%가 서비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10명중 2명은 서비스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공적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 지역별로는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을 살펴본 결과 중구(32.2%)와 서해구(26.2), 옹진군(15.9%)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검단구(38.1%), 남동구(30.3%), 연수구(29.5%)가 10명 중 최소 3명이 서비스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동구는 응답자의 90.2%가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등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3-28]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인지 정도

(단위 : %)



[표 3-55] 군·구별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 인지 정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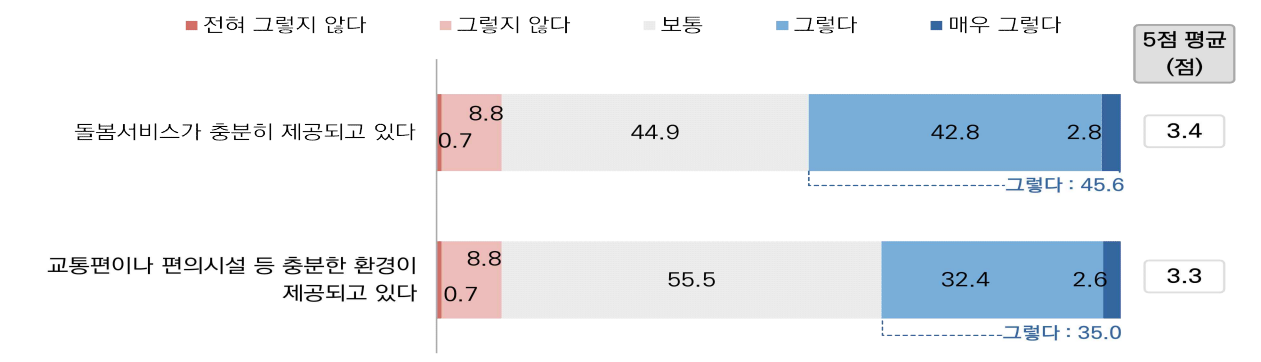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인천시	2,271	20.1	69.4	10.5
중구	214	4.7	63.1	**32.2**
동구	215	4.7	**90.2**	5.1
미추홀구	211	19.4	**76.8**	3.8
연수구	176	29.5	58.5	11.9
남동구	218	**30.3**	65.6	4.1
부평구	259	25.9	68.7	5.4
계양구	182	24.7	72.0	3.3
서해구	122	5.7	68.0	**26.2**
검단구	118	**38.1**	60.2	1.7
강화군	203	14.8	79.8	5.4
옹진군	353	23.5	60.6	15.9

(7) 거주지역의 노인 돌봄 서비스 평가

- 우리 지역은 노인이 고령으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와 그에 따른 환경이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가 45.6%, 교통편의나 편의시설 등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35.0%로 나타남
- 한편, 돌봄서비스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환경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8.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나, 개선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함
-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이 합산하여 35.0%로 나타남. 이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활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줌. '보통'은 55.5%로 과반을 넘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생활환경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각각 8.8%, 0.7%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3.3점으로 돌봄서비스 평가보다 다소 낮게 집계됨

[그림 3-29] 거주지역의 노인 돌봄 서비스 평가

(단위 : %)



[표 3-56] 거주지역의 노인 돌봄 서비스 평가

(단위 : 명, %)

구분	전체(n=2,27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0.7	8.8	44.9	42.8	2.8	3.4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0.7	8.8	55.5	32.4	2.6	3.3

- 군·구별 거주지역의 노인 돌봄서비스 평가

- 지역별 노인돌봄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는지를 5점 척도를 사용해 조사한 결과 검단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3점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보면, 돌봄서비스의 충분한 제공에 대한 평가는 계양구(3.8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해구(3.6점)와 남동구(3.6점), 중구(3.5점)는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검단구(2.7점)는 낮은 수준으로,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동구(3.2점), 부평구(3.3점), 연수구(3.3점), 옹진군(3.3점)은 평균 이하의 점수로, 이는 거주지역에서 제공되는 노인 돌봄서비스가 보통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됨
-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 충분한 환경에 있어서도 계양구(3.7점)가 가장 높았으며, 남동구(3.4점), 중구(3.4점), 서해구(3.3점)도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확인됨. 반면 검단구는 2.7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부평구(3.1점), 옹진군(3.2점), 미추홀구(3.3점) 순으로 나타남

[표 3-57] 군·구별 거주지역의 노인 돌봄 서비스 평가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3.4	3.5	3.2	3.4	3.3	3.6	3.3	**3.8**	3.6	2.7	3.4	3.3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3.3	3.4	3.3	3.3	3.2	3.4	3.1	**3.7**	3.3	2.7	3.3	3.2

(8) 노인 돌봄서비스 개선 사항

- 양질의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있어서 중복응답(1+2순위)으로 살펴본 결과,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4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보장 수준 확대' 39.9%, '다양하고 세분화된 서비스 지원' 32.9%,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20.3%,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 19.7%, '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 지원 강화' 18.4%, '원스톱서비스 제공' 16.1%,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12.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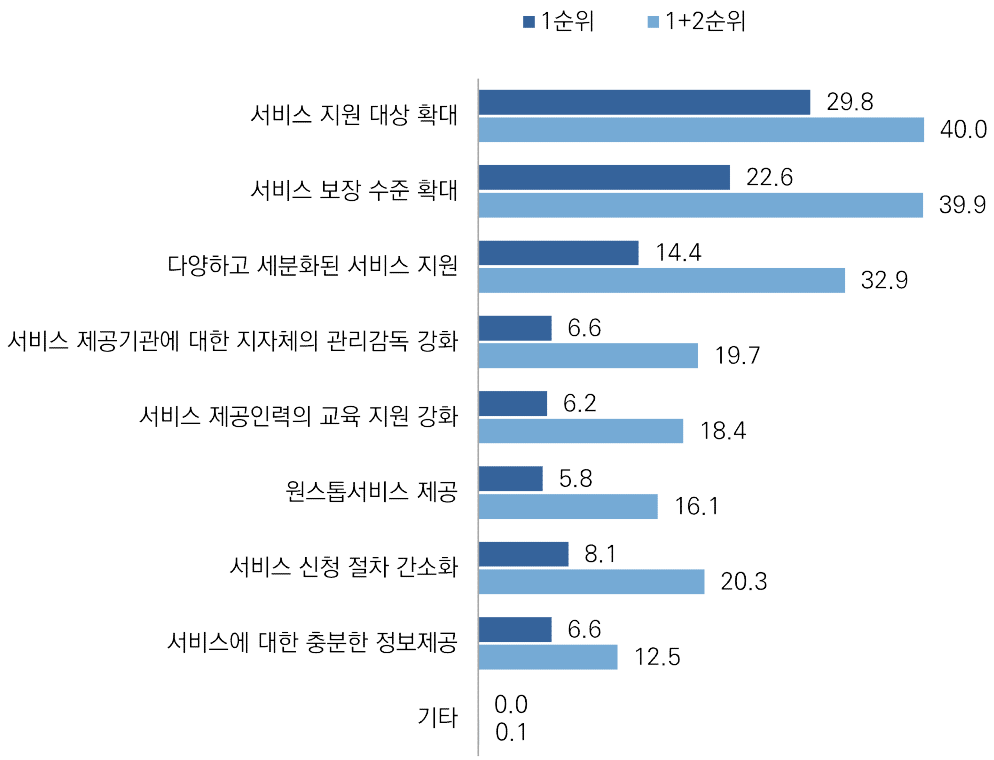
- 이러한 결과는 현재 서비스가 일부 대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에 대한 확대 요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군·구 노인 돌봄서비스 개선 사항

- 지역별로 보면, 중구는 '서비스 보장 수준 확대'(64.0%)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지원 강화'(30.4%)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동구와 미추홀구는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가 각각 46.0%, 46.4%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대상자 선정 기준의 완화와 접근성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함
- 연수구와 남동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 지원 강화'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 부평구는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34.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보여줌. 서해구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서비스 지원'(50.8%)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노인의 개별적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함
- 검단구는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50.0%)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제도 홍보 강화'(48.3%)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정보 접근성과 대상자 범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줌
- 강화군은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25.1%)와 '서비스 보장 수준 확대'(44.8%)가 높게 나타나 농촌 지역의 행정 접근성과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옹진군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서비스 지원'(47.6%)과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45.3%)에 대한 높은 요구를 보여줌

[그림 3-30] 노인 돌봄서비스 개선 사항

(단위 : %)



[표 3-58] 군·구별 노인 돌봄서비스 개선 사항(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 보장 수준 확대	다양하고 세분화된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지원 강화	원스톱서비스 제공서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제도 홍보 강화	기타
전체	2,271	40.0	39.9	32.9	19.7	18.4	16.1	20.3	12.5	0.1
중구	214	36.9	64.0	33.2	18.2	30.4	10.7	4.7	1.9	0.0
동구	215	46.0	53.0	34.9	10.7	15.8	13.0	15.8	10.7	0.0
미추홀구	211	46.4	37.9	27.5	11.4	16.6	15.2	28.9	14.7	1.4
연수구	176	31.3	40.3	26.1	24.4	31.3	19.9	19.9	6.8	0.0
남동구	218	34.9	25.2	33.0	23.9	22.5	23.9	18.8	17.9	0.0
부평구	259	40.2	45.9	23.9	15.4	11.2	19.7	34.4	9.3	0.0
계양구	182	33.5	36.3	25.8	29.1	19.8	22.5	21.4	11.5	0.0
서해구	122	28.7	34.4	50.8	27.9	26.2	20.5	5.7	5.7	0.0
검단구	118	50.0	35.6	13.6	26.3	4.2	2.5	19.5	48.3	0.0
강화군	203	40.4	44.8	35.0	15.3	18.2	10.8	25.1	10.3	0.0
옹진군	353	45.3	25.5	47.6	22.1	11.6	15.0	20.1	12.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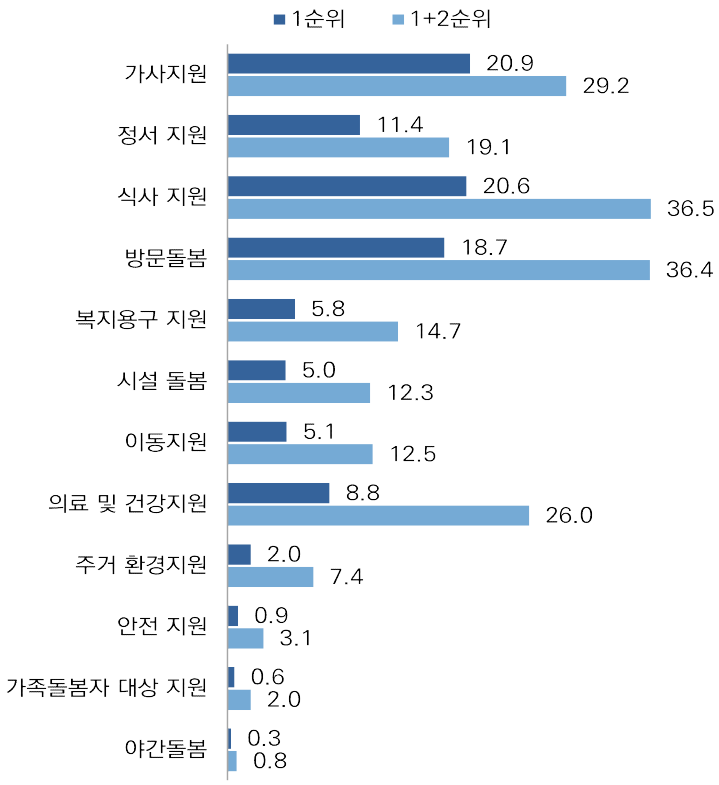
(9)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

-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중복응답(1+2순위)으로 살펴본 결과, '식사 지원' 36.5%, '방문돌봄' 36.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노인의 일상생활 유지에 있어 영양 섭취와 직접적인 돌봄 활동이 중요함을 보여주는결과임
- 한편, 다음으로 '가사지원'29.2%, '의료 및 건강지원' 26.0%, '정서 지원' 19.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유지에 대한 복합적 수요가 존재함을 의미함
- 군·구별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

- 지역별로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동구, 서해구, 부평구, 옹진군은 공통적으로 식사 지원과 방문돌봄 수요가 높게 나타남. 이들 지역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직접적인 돌봄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특히 서해구는 방문돌봄(52.5%)이, 부평구는 식사 지원(52.1%)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은 가사지원과 생활지원 중심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이들 지역은 일상생활 유지와 생활 편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강화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가사지원과 의료지원이 동시에 높은 것으로 해석됨
- 중구와 연수구는 정서 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임. 중구는 정서 지원(36.4%)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연수구도 정서 지원(29.0%)이 두드러짐. 이는 사회적 고립 해소와 정서적 교류에 대한 지역적 욕구로 해석됨
- 검단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식사 지원(73.7%)과 의료지원(44.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

(단위 : %)



[표 3-59] 군·구별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가사 지원	정서 지원	식사 지원	방문 돌봄	복지 용구 지원	시설 돌봄	이동 지원	의료 및 건강 지원	주거 환경 지원	안전 지원	가족 돌봄자 대상 지원	야간 돌봄
전체	2,271	29.2	19.1	36.5	36.4	14.7	12.3	12.5	26.0	7.4	3.1	2.0	0.8
중구	214	11.7	36.4	32.2	35.0	18.7	15.0	11.7	34.1	3.3	0.9	0.5	0.5
동구	215	18.1	13.5	41.9	35.8	18.1	11.6	10.2	38.6	8.8	2.8	0.5	-
미추홀구	211	35.5	14.7	23.2	41.2	6.6	14.2	16.1	28.9	9.5	4.3	1.9	3.8
연수구	176	30.7	29.0	27.8	20.5	19.3	18.2	15.3	17.0	10.2	8.0	2.3	1.1
남동구	218	27.5	11.9	31.2	32.1	22.0	14.2	17.9	24.3	6.0	6.9	5.5	0.5
부평구	259	30.1	28.6	52.1	38.6	7.7	1.9	4.6	23.9	6.9	0.4	3.9	1.2
계양구	182	39.0	22.5	28.0	27.5	11.0	13.2	22.0	19.8	9.9	4.4	2.2	0.5
서해구	122	12.3	24.6	40.2	52.5	24.6	14.8	7.4	17.2	3.3	0.8	2.5	-
검단구	118	23.7	6.8	73.7	28.0	3.4	7.6	2.5	44.1	9.3	-	0.8	-
강화군	203	39.9	17.2	26.6	33.0	17.2	8.4	13.3	31.0	11.8	1.5	-	-
옹진군	353	39.1	8.8	36.0	47.6	13.9	15.9	12.7	16.1	4.5	3.4	1.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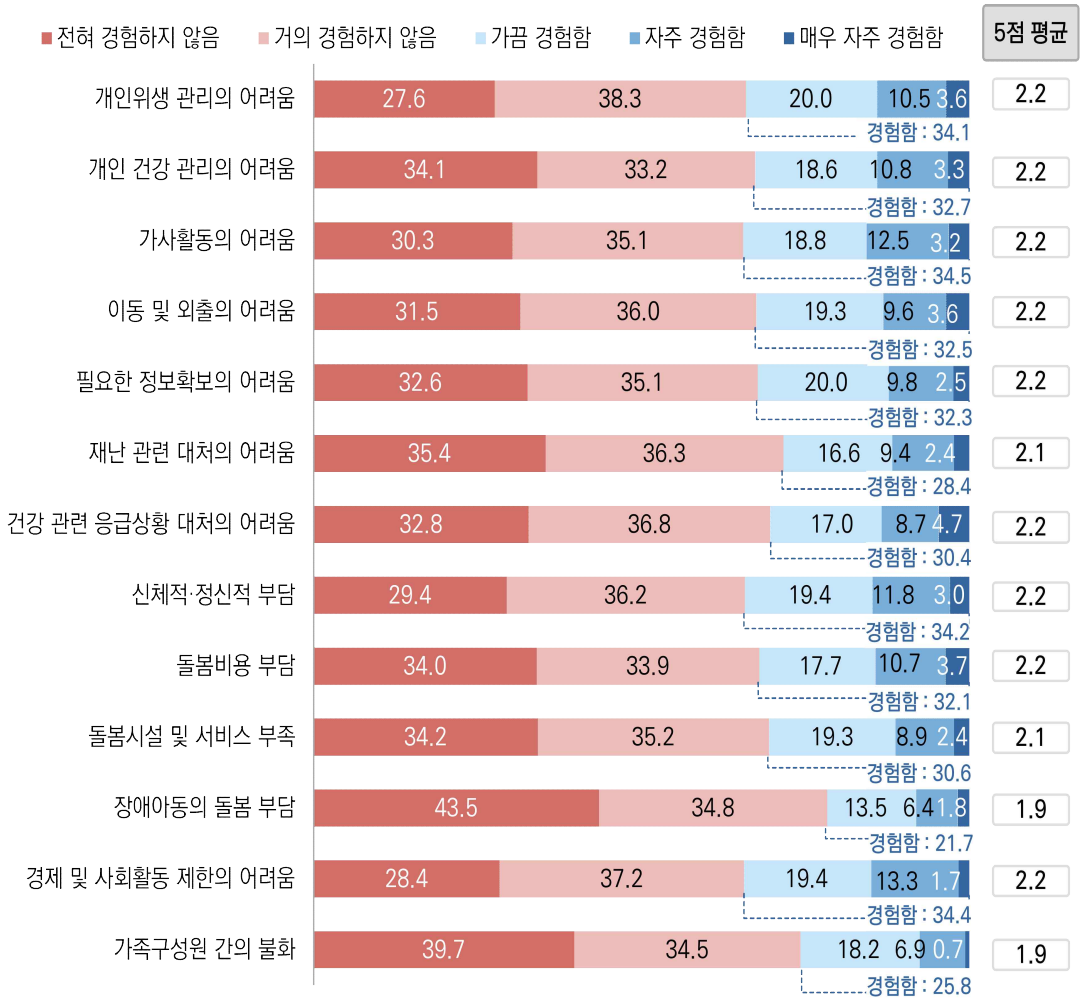
4) 장애인 돌봄

(1)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

- 장애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 경험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사활동의 어려움' 3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 제한의 어려움' 34.4%, '신체적 · 정신적 부담' 34.2%,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34.1%, '개인 건강관리의 어려움' 32.7%,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32.5%, '필요한 정보확보의 어려움' 32.3%, '돌봄 비용 부담' 32.1% 순임. 이에 반해 '장애아동의 돌봄부담' 21.7%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불화' 25.8% 순이었음
- 한편, 장애로 인한 어려움 경험 정도를 5점 척도로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 정도도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때, 평균 3점을 기준으로 높으면 어려움 정도가 높은 것이고, 낮으면 어려움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되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2점 미만으로 나타남. 또한 5기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에서의 어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

(단위 : %)



[표 3-60]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

(단위 : 명, %)

구분	6기(n=1,148)						5기(n=1,015)
	전혀 경험하지 않음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27.6	38.3	20.0	10.5	3.6	2.2	2.7
개인 건강 관리의 어려움	34.1	33.2	18.6	10.8	3.3	2.2	2.5
가사활동의 어려움	30.3	35.1	18.8	12.5	3.2	2.2	2.6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31.5	36.0	19.3	9.6	3.6	2.2	2.5
필요한 정보확보의 어려움	32.6	35.1	20.0	9.8	2.5	2.2	2.6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35.4	36.3	16.6	9.4	2.4	2.1	2.7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32.8	36.8	17.0	8.7	4.7	2.2	2.5
신체적·정신적 부담	29.4	36.2	19.4	11.8	3.0	2.2	2.5
돌봄비용 부담	34.0	33.9	17.7	10.7	3.7	2.2	2.6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34.2	35.2	19.3	8.9	2.4	2.1	2.3
장애아동의 돌봄 부담	43.5	34.8	13.5	6.4	1.8	1.9	2.5
경제 및 사회활동 제한의 어려움	28.4	37.2	19.4	13.3	1.7	2.2	2.6
가족구성원 간의 불화	39.7	34.5	18.2	6.9	0.7	1.9	2.3

● 군·구별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

- 장애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옹진군,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구, 부평구, 서해구는 대부분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임
- 동구와 미추홀구는 개인위생 관리, 가사활동, 이동 및 외출 등 일상생활 유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함. 특히 동구는 위생·가사·이동 모두 2.8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추홀구도 생활 유지와 돌봄비용 부담(2.7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 지역은 생활지원과 경제적 부담이 큰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연수구와 남동구는 정보 접근, 신체적·정신적 부담, 사회활동 제약, 가족 갈등 등 사회·정서적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함. 이들 지역은 정서적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검단구와 옹진군은 개인위생 관리, 건강관리, 응급상황 대처, 돌봄비용 부담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함. 특히 옹진군은 건강관리(2.9점), 응급대처(2.9점), 돌봄비용 부담(2.9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도서지역 특성상 생활·건강·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임
- 강화군은 가사활동, 신체적·정신적 부담, 사회활동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함. 이는 농촌지역 특성상 생활과 정서적 부담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지역임

[표 3-61] 군·구별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2.2	1.8	**2.8**	2.6	2.2	2.5	1.8	2.2	1.9	**2.7**	1.7	**2.8**
개인 건강 관리의 어려움	2.2	2.0	**2.7**	2.6	2.1	2.2	1.5	2.1	1.6	2.4	1.8	**2.9**
가사활동의 어려움	2.2	1.9	**2.8**	2.6	2.1	2.4	1.7	2.1	1.6	2.4	2.0	**2.7**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2.2	1.9	**2.8**	**2.5**	2.1	**2.5**	1.7	2.0	1.6	2.1	1.9	**2.8**
필요한 정보확보의 어려움	2.2	1.8	**2.6**	2.5	2.3	2.3	1.7	2.1	1.6	2.1	1.8	**2.7**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2.1	1.8	**2.3**	**2.3**	2.1	**2.3**	1.5	2.0	1.6	2.2	1.9	**2.7**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2.2	1.8	**2.7**	2.3	2.1	2.3	1.7	2.0	1.7	2.4	1.8	**2.9**
신체적·정신적 부담	2.2	2.1	**2.6**	2.5	2.4	2.3	1.6	2.1	1.7	2.3	2.0	**2.8**
돌봄비용 부담	2.2	1.8	2.6	**2.7**	2.1	2.3	1.7	2.1	1.7	2.1	1.6	**2.9**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2.1	1.8	2.3	**2.5**	2.2	2.3	1.6	2.1	1.6	2.1	1.8	**2.7**
장애아동의 돌봄 부담	1.9	1.8	1.7	**2.4**	2.1	**2.2**	1.5	2.0	1.7	1.6	1.7	1.9
경제 및 사회활동 제한의 어려움	2.2	2.1	**2.8**	**2.5**	2.3	2.3	1.7	2.3	1.8	2.2	2.0	**2.5**
가족구성원 간의 불화	1.9	1.8	2.0	2.1	2.1	**2.3**	1.3	2.0	1.7	2.1	1.8	**2.1**

(2)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장애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을 위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4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48.4%, '가사활동의 어려움' 47.4%, '개인 건강 관리의 어려움' 46.3%, '필요한 정보확보의 어려움' 45.5%,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45.3%, '신체적 · 정신적 부담'과 '돌봄비용 부담'이 각각 43.8%, ,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43.2%, '경제 및 사회활동 제한의 어려움' 41.2%, '장애아동의 돌봄부담' 40.9%, '가족 구성원간의 불화'34.6% 순으로 나타남
- 이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고, 평균 3점 이상인 경우 필요성 정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인천시 전체 평균은 대부분 항목에서 3.0~3.3점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준의 욕구로 해석됨. 단, 5기와 비교했을 때, 항목별 차이는 있지만 필요성 정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크게 완화되거나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표 3-62]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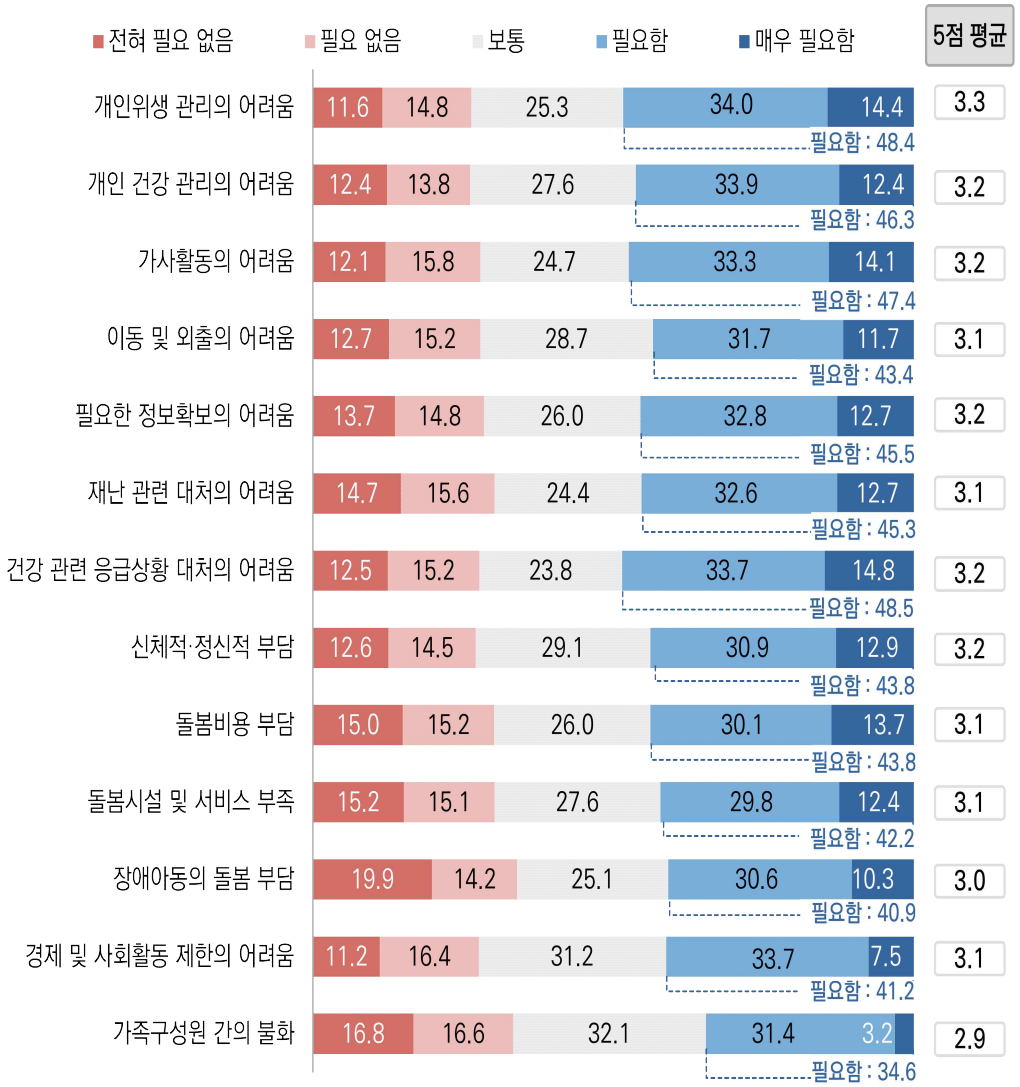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6기(n=1,148)						5기(n=1,015)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11.6	14.8	25.3	34.0	14.4	3.3	3.1
개인 건강 관리의 어려움	12.4	13.8	27.6	33.9	12.4	3.2	3.2
가사활동의 어려움	12.1	15.8	24.7	33.3	14.1	3.2	3.3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12.7	15.2	28.7	31.7	11.7	3.1	3.2

구분	6기(n=1,148)						5기(n=1,015)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필요한 정보확보의 어려움	13.7	14.8	26.0	32.8	12.7	3.2	3.1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14.7	15.6	24.4	32.6	12.7	3.1	3.1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12.5	15.2	23.8	33.7	14.8	3.2	3.2
신체적·정신적 부담	12.6	14.5	29.1	30.9	12.9	3.2	3.1
돌봄비용 부담	15.0	15.2	26.0	30.1	13.7	3.1	3.2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15.2	15.1	27.6	29.8	12.4	3.1	3.1
장애아동의 돌봄 부담	19.9	14.2	25.1	30.6	10.3	3.0	3.5
경제 및 사회활동 제한의 어려움	11.2	16.4	31.2	33.7	7.5	3.1	3.1
가족구성원 간의 불화	16.8	16.6	32.1	31.4	3.2	2.9	2.9

[그림 3-33]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



● 군·구별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필요성

- 지역별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 관해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동구와 부평구, 미추홀구, 옹진군, 남동구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서해구와 검단구가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낮은 지역임
- 동구는 개인 건강관리, 이동, 정보확보, 응급대처 등에서 4.0점 이상을 기록하여, 생활 유지와 위기 대응 전반에서 외부지원이 절실한 지역임. 미추홀구와 부평구 역시 생활 유지와 경제적 부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수구와 남동구는 대부분 항목에서 3.3~3.5점 수준으로 나타나, 생활·건강·정서·돌봄 영역에서 고르게 보통 수준 이상의 필요성을 보임
- 계양구와 검단구는 대부분 항목에서 2.8~3.1점 수준으로, 보통에 가까운 인식을 보임. 이는 지원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절박하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됨
- 서해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은 대부분 항목에서 2.2~2.9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특히 옹진군은 장애아동 돌봄 부담에서 1.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3] 군·구별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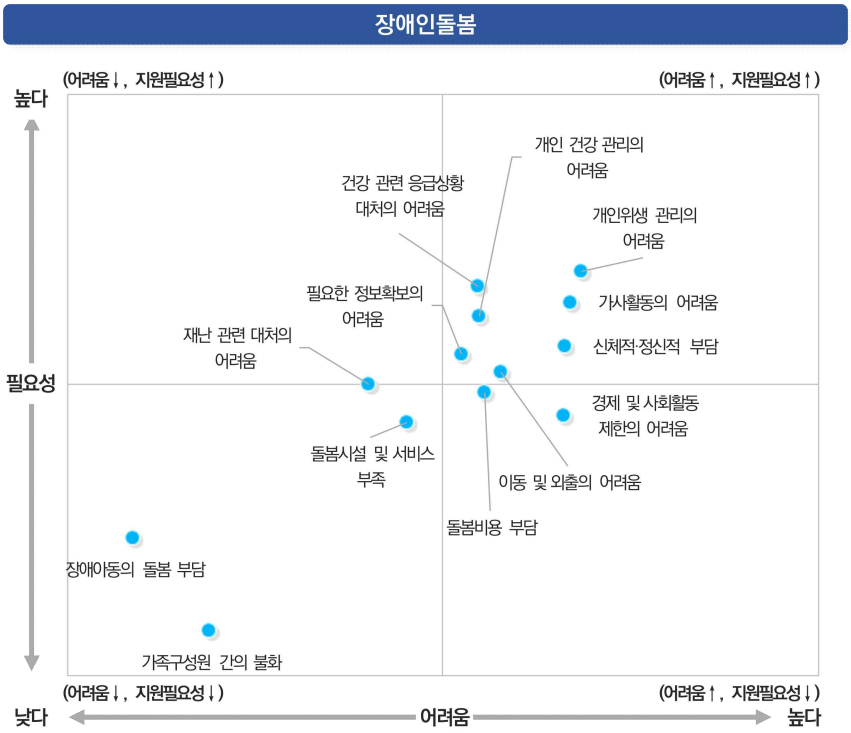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3.3	2.6	**3.9**	3.5	3.4	3.7	**3.8**	3.2	2.5	2.7	2.9	3.3
개인 건강 관리의 어려움	3.2	2.8	**4.4**	3.4	3.4	3.2	**3.8**	2.9	2.3	2.5	2.7	3.3
가사활동의 어려움	3.2	2.6	**4.0**	3.4	3.5	3.6	**3.7**	3.0	2.2	2.4	3.0	3.3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3.1	2.7	**4.1**	3.2	3.5	3.5	**3.7**	2.8	2.3	2.1	2.9	3.3
필요한 정보확보의 어려움	3.2	2.6	**4.1**	3.4	3.4	3.6	**3.8**	3.0	2.2	2.2	2.7	3.2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3.1	2.5	**4.1**	3.3	3.3	3.3	**3.6**	3.1	2.4	2.3	2.9	3.1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3.2	2.5	**4.2**	3.4	3.4	3.5	**3.8**	3.1	2.4	2.6	2.9	3.3
신체적·정신적 부담	3.2	2.7	**4.1**	3.3	3.5	3.4	**3.7**	2.9	2.5	2.3	2.9	3.2
돌봄비용 부담	3.1	2.5	**4.0**	3.3	3.4	3.4	**3.6**	2.9	2.3	2.3	2.7	3.2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3.1	2.5	**4.0**	3.3	3.3	3.4	**3.6**	2.9	2.3	2.3	2.7	3.1
장애아동의 돌봄 부담	3.0	2.5	**3.6**	3.3	**3.5**	3.4	**3.6**	2.8	2.3	1.6	2.7	2.6
경제 및 사회활동 제한의 어려움	3.1	2.6	**4.0**	3.2	3.3	3.4	**3.6**	3.0	2.3	2.3	3.0	2.9
가족구성원 간의 불화	2.9	2.3	**3.5**	3.0	3.2	**3.3**	**3.3**	2.9	2.3	2.2	2.6	2.6

(3) 장애인 돌봄 IPA 결과

- 장애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수행한 결과, 어려움이 높고, 이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항목으로 개인건강관리의 어려움과 가사활동의 어려움, 신체적 · 정신적 부담, 건강관련응급상황의 대체의 어려움, 필요한 정보확보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등이 나타남

[그림 3-34] 인천시 전체 장애인 돌봄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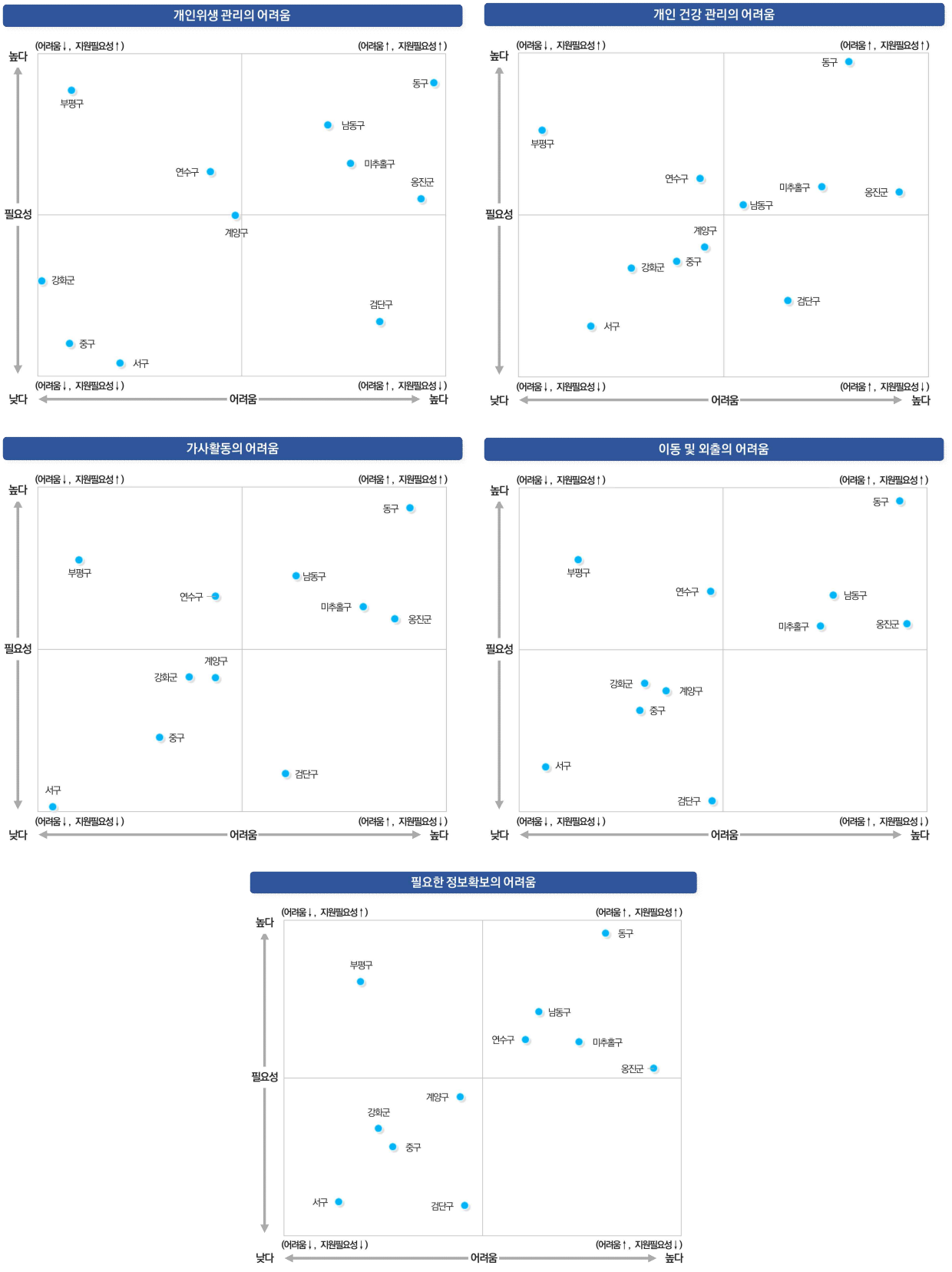


- 군·구별 장애인 돌봄 영역 중 일상생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 옹진군은 개인위생 관리, 개인 건강 관리, 가사활동, 이동 및 외출, 필요한 정보확보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모두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해당 지역에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사회참여에 대한 외부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으로 장애인 돌봄 정책 최우선 지원 대상 지역으로 보여짐
- 검단구는 개인위생 관리, 개인 건강 관리, 가사활동 등에서 어려움은 높게 나타났으나 서비스 지원 필요성 인식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외부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자립 역량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 중심의 접근이 적절한 지역으로 해석됨
- 연수구는 필요한 정보확보 영역에서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됨

[그림 3-35]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돌봄 - 일상생활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 군·구별 장애인 돌봄 영역에서 긴급 상황 대처의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재난 관련 대처에서는 동구,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가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이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인식되는 지역으로, 정책적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판단됨. 반면, 검단구는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은 높게 나타났으나 서비스 지원 필요성 인식은 낮은 지역으로 자립 역량 강화와 예방적 교육 중심의 접근이 적절한 지역으로 해석됨
-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에서는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 옹진군이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이는 응급상황에서 장애인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외부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응급 돌봄 체계와 의료 연계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지역임. 반면, 검단구는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은 높지만 서비스 지원 필요성 인식은 낮아, 외부지원보다는 자기관리 역량 강화와 응급 대응 훈련 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한 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3-36] 군·구별 장애인 돌봄 – 긴급 상황 대처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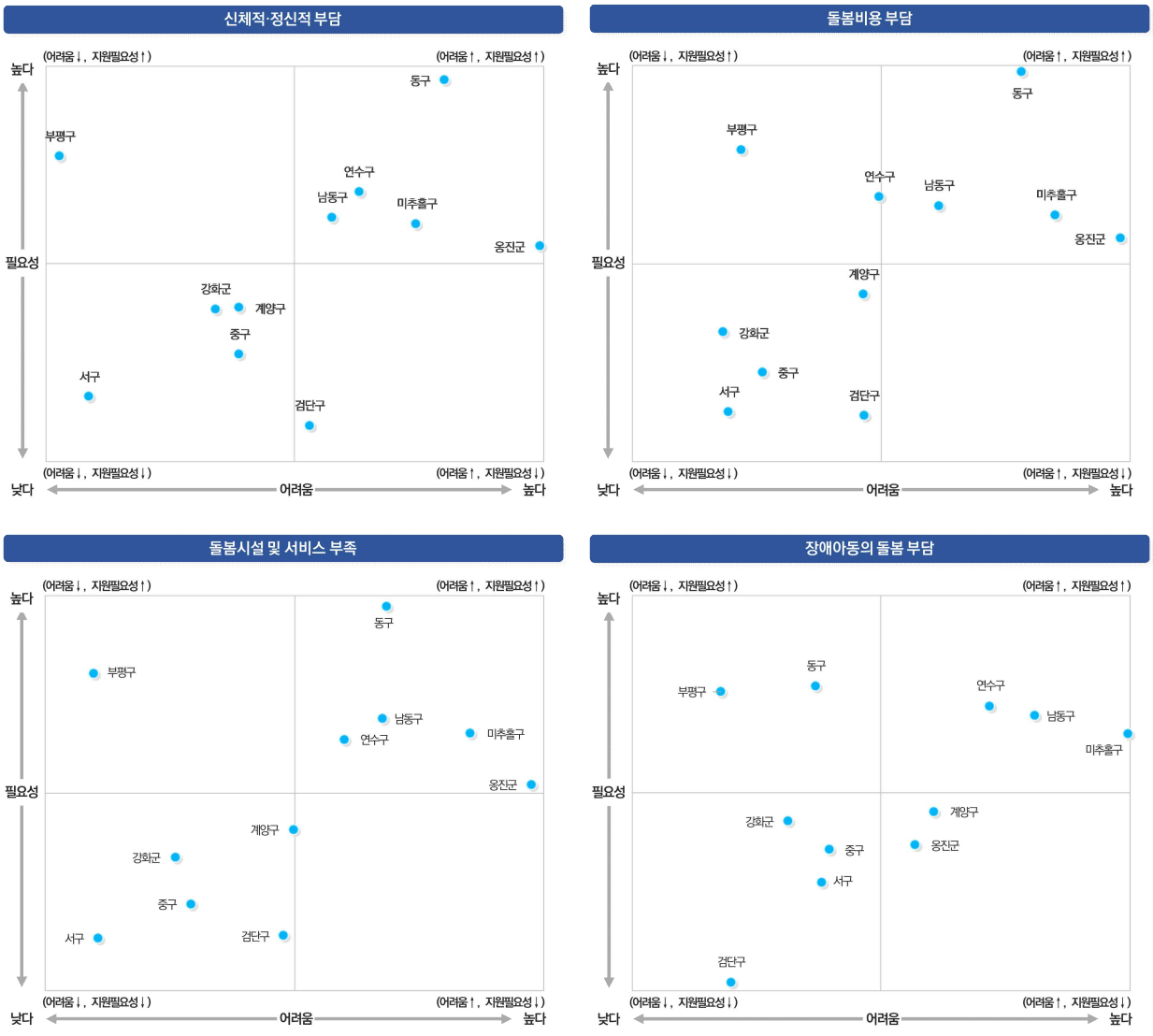
● 군·구별 장애인 돌봄 영역 중 돌봄부담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동구·남동구·미추홀구는 거의 모든 돌봄부담 영역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인됨. 신체적·정신적 부담, 돌봄비용 부담, 돌봄시설 부족, 장애아동 돌봄, 경제 및 사회활동 제한, 가족 갈등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외부지원 요구가 강하게 인식되고 있어, 이들 지역은 장애인 돌봄 정책의 최우선 지역으로 분석됨
- 연수구는 신체·정신적 부담, 돌봄시설 부족, 장애아동 돌봄, 경제·사회활동 제한, 가족 갈등 등 다양한 항목에서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차원적 부담이 확인된 지역으로,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
- 옹진군은 신체·정신적 부담과 돌봄비용 부담에서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아동 돌봄과 경제·사회활동 제한에서는 어려움은 크지만 지원 필요성 인식은 낮게 확인됨. 또한 가족 갈등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낮게 인식됨. 따라서 옹진군은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립 역량을 병행적으로 높여야 하는 지역으로 해석됨

- 검단구는 신체·정신적 부담, 재난·응급 대처 등에서 어려움은 높지만 서비스 지원 필요성 인식은 낮게 나타남. 가족 갈등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어, 외부지원 요구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임. 따라서 검단구는 자립 역량 강화와 예방적 교육·훈련 중심의 접근이 적절한 지역임
- 계양구는 장애아동 돌봄과 가족 갈등에서 어려움은 높게 나타났으나 서비스 지원 필요성 인식은 낮게 확인됨. 이는 외부지원보다는 가족 내 자원 활용과 관계 개선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가족 중심의 지원 전략이 적합한 지역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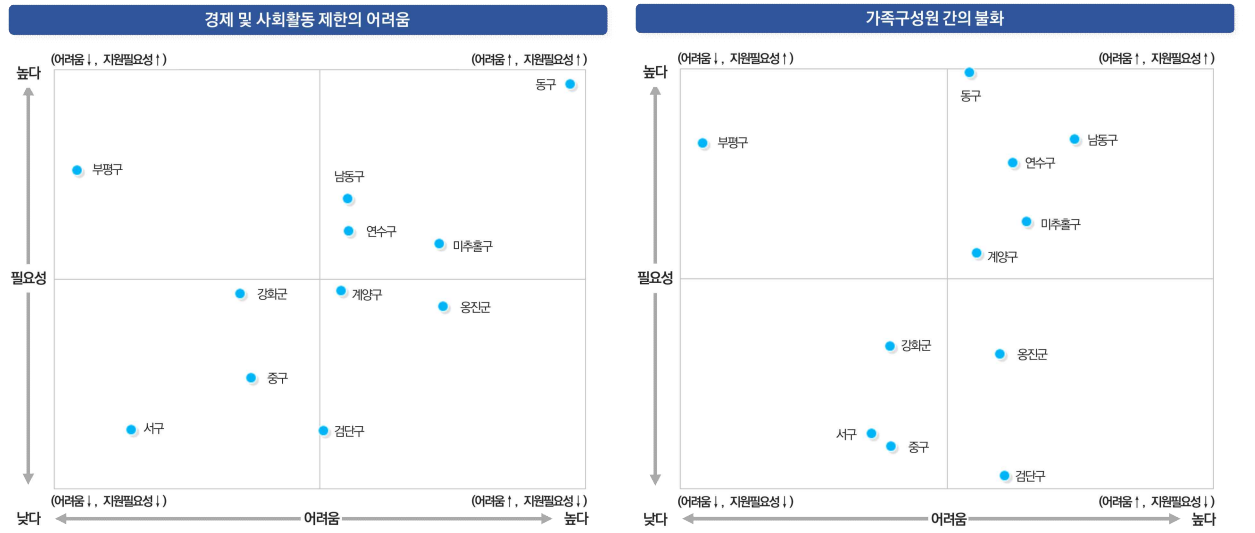
[그림 3-37] 군·구별 장애인 돌봄 - 돌봄 부담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그림 3-43] 군·구별 장애인 돌봄 - 돌봄 부담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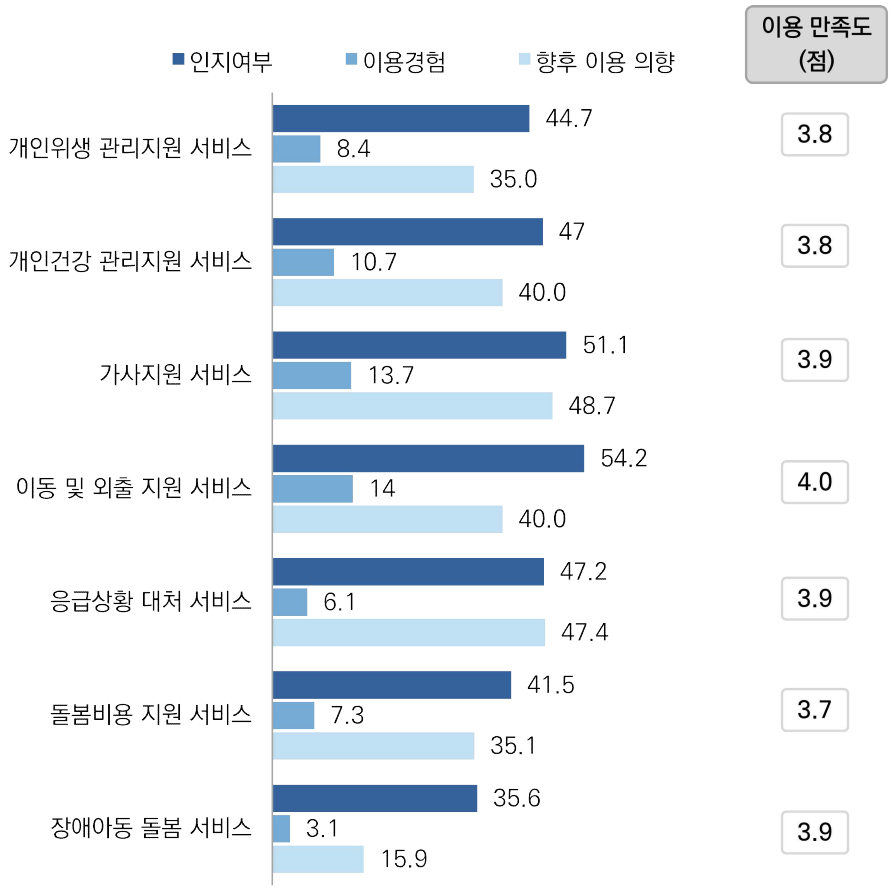
(4) 장애인 돌봄 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현황

- 장애인 관련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35~54% 수준이며, 실제 이용 경험은 3~14%로 매우 낮은 수준임. 인지 여부와 실제 이용 간에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는 인지율이 35.6%, 이용경험이 3.1%로 가장 낮게 나타남. 이는 서비스 존재는 알고 있으나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접근성 개선과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장애인 돌봄서비스별 인지율은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54.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가사지원(51.1%), 응급상황 대처(47.2%), 개인건강 관리지원(47.0%), 개인위생 관리지원(44.7%), 돌봄비용 지원(41.5%), 장애아동 돌봄(35.6%)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실제 이용경험은 이동 및 외출 지원(14.0%)과 가사지원(13.7%)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개인건강 관리지원(10.7%), 개인위생 관리지원(8.4%), 돌봄비용 지원(7.3%), 응급상황 대처(6.1%), 장애아동 돌봄(3.1%) 순으로 나타남
- 이용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3.7~4.0점 수준을 보임.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가 4.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가사지원·응급상황 대처·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는 모두 3.9점으로 양호한 수준임. 반면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는 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향후 이용 의향은 가사지원 서비스(48.7%)와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48.7%)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는 향후 이용 의향이 15.9%로 가장 낮게 나타남. 이는 대상자 범위나 접근성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함
  - 전체적으로 향후 이용 의향은 가사지원(48.7%), 응급상황 대처(47.4%), 개인건강 관리와 이동·외출 지원(각 40.0%), 돌봄비용 지원(35.1%), 개인위생 관리(35.0%), 장애아동 돌봄(15.9%) 순으로 나타남
- 제5기와 제6기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인지율은 소폭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마 '돌봄비용 지원서비스'는 다른 양상을 보임

-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의 인지도는 5기에 비해 6기에 4.5%p 높아졌으나 이용경험률은 2.8%p 감소했고, 향후 이용의사는 8.8%p 감소함. 이는 돌봄비용 서비스에 대한 효과나 기대가 5기에 비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즉, 현실성 있는 서비스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그림 3-38]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단위 : %)



[표 3-64]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 (n=1,148)					5기(n=1,015)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있음' 비율
개인위생 관리지원 서비스	44.7	8.4	97	3.8	35.0	41.1	10.8	52.9
개인건강 관리지원 서비스	47.0	10.7	123	3.8	40.0	41.3	9.1	54.5
가사지원 서비스	51.1	13.7	157	3.9	48.7	44.4	9.8	55.9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54.2	14.0	161	4.0	40.0	48.9	13.6	56.1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47.2	6.1	70	3.9	47.4	40.6	10.1	59.5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	41.5	7.3	84	3.7	35.1	38.8	12.4	52.8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35.6	3.1	36	3.9	15.9	31.1	5.9	24.7

● 군·구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 지역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인지율은 중구, 서해구, 미추홀구, 계양구, 옹진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강화군, 검단구, 부평구, 연수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율을 보임
- 특히 5기와 비교해서 6기 지역별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인지율은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연수구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 부평구와 연수구, 강화군은 타지역은 물론 5기에 비해서도 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이 감소하는 한계를 보임. 이에 해당 지역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5] 군·구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개인위생 관리지원 서비스	44.7	**74.6**	45.6	60.3	27.6	44.2	23.1	**63.8**	**67.9**	16.4	12.9	52.3
개인건강 관리지원 서비스	47.0	**73.1**	47.6	**66.9**	33.8	47.8	23.1	63.8	**67.9**	16.4	16.8	54.7
가사지원 서비스	51.1	**73.8**	**63.1**	75.2	31.0	61.1	23.1	62.1	**66.1**	5.5	30.7	61.6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54.2	**71.5**	62.1	76.9	38.6	**64.6**	28.8	62.1	**76.8**	20.5	35.6	54.7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47.2	57.7	60.2	**69.4**	29.0	55.8	24.0	62.9	44.6	2.7	33.7	**66.3**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	41.5	58.5	55.3	**63.6**	19.3	44.2	22.1	**60.3**	42.9	16.4	20.8	44.2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35.6	**55.4**	50.5	**62.0**	15.2	40.7	22.1	51.7	35.7	1.4	8.9	33.7

● 군·구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경험

- 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은 서비스 인지도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부평구 모든 서비스에서, 검단구와 서해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반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는 옹진군과 동구, 남동구와 계양구로 나타남

[표 3-66] 군·구별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개인위생 관리지원 서비스	8.4	3.1	**39.8**	4.1	4.1	6.2	-	6.0	7.1	1.4	1.0	24.4
개인건강 관리지원 서비스	10.7	3.8	**39.8**	9.9	11.0	8.0	-	6.0	8.9	1.4	1.0	**30.2**
가사지원 서비스	13.7	2.3	**44.7**	**24.0**	13.1	12.4	-	12.1	5.4	-	8.9	23.3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14.0	1.5	**43.7**	19.8	20.0	14.2	-	6.0	3.6	-	2.0	**39.5**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6.1	3.1	5.8	5.8	9.0	5.3	-	7.8	-	-	3.0	**25.6**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	7.3	3.8	**15.5**	14.9	4.8	5.3	-	3.4	-	-	2.0	**30.2**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3.1	3.8	3.9	**5.8**	2.1	3.5	-	2.6	-	-	0.0	**11.6**

● 군·구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 이용만족도의 경우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는 연수구(4.3), 강화군(4.5)에서 높았으며, 가사지원 서비스는 평균 3.9점 대비 중구(3.3), 서해구(3.3)에서는 낮게 평가됨.

-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는 평균 3.7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동구(3.1)에서 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는 평균 3.9점으로 연수구(4.3), 남동구(4.0) 등에서 높게 평가됨

[표 3-67] 군·구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개인위생 관리지원 서비스	3.8	3.5	3.5	3.6	4.2	3.7	-	**5.0**	3.5	4.0	**5.0**	4.0
개인건강 관리지원 서비스	3.8	4.0	3.5	3.7	3.9	3.8	-	**4.7**	3.6	4.0	4.0	3.9
가사지원 서비스	3.9	3.3	3.7	4.0	4.0	3.9	-	**4.1**	3.3	-	**4.4**	3.9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4.0	4.0	3.8	3.9	**4.3**	3.7	-	4.1	4.0	-	**4.5**	4.1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3.9	**4.0**	3.8	4.1	**4.3**	3.5	-	**4.0**	-	-	**4.0**	3.6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	3.7	3.6	3.1	3.5	**4.0**	3.5	-	**4.5**	-	-	**4.0**	4.2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3.9	3.6	3.8	**4.0**	**4.3**	**4.0**	-	**4.0**	-	-	-	3.9

- 군·구별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인천시 전체 평균 향후 이용 의향은 서비스별로 15.9%~48.7% 수준으로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은 대부분 서비스에서 50~70% 수준의 높은 이용 의향을 보임. 반면 검단구, 강화군, 부평구는 대부분 서비스에서 20% 이하의 낮은 이용 의향을 보임.
- 가사지원 서비스는 48.7%로 가장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으며 동구(68.9%), 미추홀구(67.8%), 옹진군(61.6%)에서 특히 높음
- 응급상황 대처는 미추홀구(69.4%), 동구(60.2%), 옹진군(59.3%)에서 높게 나타남
- 개인건강 관리지원은 옹진군(61.6%), 미추홀구(57.9%)에서 높았으며, 이동 및 외출 지원 또한 미추홀구(67.8%), 옹진군(61.6%)에서 높게 나타남
- 돌봄비용 지원은 동구(62.1%), 옹진군(47.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개인위생 관리지원은 미추홀구(51.2%), 계양구(50.0%)에서 높음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평균 15.9%로 가장 낮아 대부분 지역에서 20% 이하이며, 검단구(1.4%), 강화군(3.0%)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68] 군·구별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개인위생 관리지원 서비스	35.0	31.5	45.6	**51.2**	42.8	35.4	9.6	**50.0**	42.9	24.7	2.0	44.2
개인건강 관리지원 서비스	40.0	35.4	48.5	**57.9**	46.9	38.1	11.5	**54.3**	44.6	24.7	10.9	**61.6**
가사지원 서비스	48.7	31.5	**68.9**	**67.8**	49.7	45.1	33.7	59.5	37.5	28.8	42.6	**61.6**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40.0	23.1	54.4	**67.8**	44.1	51.3	14.4	43.1	25.0	23.3	19.8	**61.6**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47.4	30.8	**60.2**	**69.4**	35.2	57.5	27.9	**62.1**	25.0	28.8	54.5	59.3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	35.1	23.1	**62.1**	53.7	26.9	40.7	29.8	41.4	19.6	24.7	9.9	47.7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15.9	20.8	17.5	**38.8**	12.4	21.2	4.8	17.2	3.6	1.4	**3.0**	19.8

- 인천시 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 모든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개인위생 관리(28.9%), 건강관리(31.6%), 가사지원(34.4%), 이동지원(32.0%), 돌봄비용 지원(34.5%) 등 대부분 서비스에서 30% 내외로 나타나, 제도적 기준이 엄격하거나 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 필요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줌
- 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부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개인위생 관리(21.1%), 건강관리(21.1%), 이동지원(13.3%), 장애아동 돌봄(13.9%) 등에서 두드러지며, 이는 지역별 자원 불균형과 물리적 거리 문제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가족 돌봄 선호가 주요 요인으로 확인됨. 이동지원(21.3%), 응급상황 대처(20.6%), 개인위생 관리(17.1%) 등에서 나타나며, 이는 문화적·가치적 요인으로 인해 전문 서비스보다 가족 돌봄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 정보 부족과 신청절차의 복잡성이 일부 서비스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는 정보 부족(16.4%)과 신청절차 복잡성(12.7%)이 동시에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고, 가사지원 서비스에서도 신청절차 복잡성(13.5%)이 두드러짐. 이는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정보 전달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표 3-69]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개인위생 관리지원 서비스	76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8.9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21.1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7.1
개인건강 관리지원 서비스	76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1.6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21.1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7.1
가사지원 서비스	96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4.4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6.7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3.5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75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2.0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1.3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3.3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68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6.5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0.6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4.7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	55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4.5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6.4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2.7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36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7.8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6.7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3.9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5)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인천시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서비스 인지율은 전체적으로 낮은(24~57%) 편임. 그중에서도 장애인복지관(56.8%), 지역사회복지관(53.0%), 장애인활동지원(53.5%)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율을 나타낸 반면, 청소년 방과후활동(24.0%), 장애인공동생활가정(27.3%),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24.4%) 등은 여전히 낮은 인지율을 보이고있어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됨
- 이용경험은 인지율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 서비스에서 1.1~17.5% 사이에 머무름. 장애인복지관(17.5%), 지역사회복지관(16.2%), 장애인활동지원(13.4%)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보다는 감소한 수치임
  - 5기 결과와 비교했을 때 특히 청소년 방과후활동(4.0% → 1.1%),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5.4% → 1.5%), 장애인공동생활가정(3.3% → 1.0%) 등은 이용경험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이용 만족도는 대부분 서비스가 3.3~3.9점 수준으로 양호하게 나타남.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장애인복지관은 모두 3.9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함. 반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3.3점),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3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서비스 내용이나 제공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5기 대비 만족도가 상승한 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3.6→3.9), 발달장애인주간활동(3.4→3.7),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3.4→3.9) 등으로 확인됨
- 향후 이용 의향은 장애인복지관(56.8%), 장애인활동지원(53.5%), 지역사회복지관(53.0%)순으로 높게 나타나 지속적 수요가 요구되는 서비스임. 발달장애인주간활동(36.1%), 직업재활(37.1%) 등도 수요가 확인됨. 반면 청소년 방과후활동(24.0%), 장애인공동생활가정(27.3%),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24.4%) 등은 향후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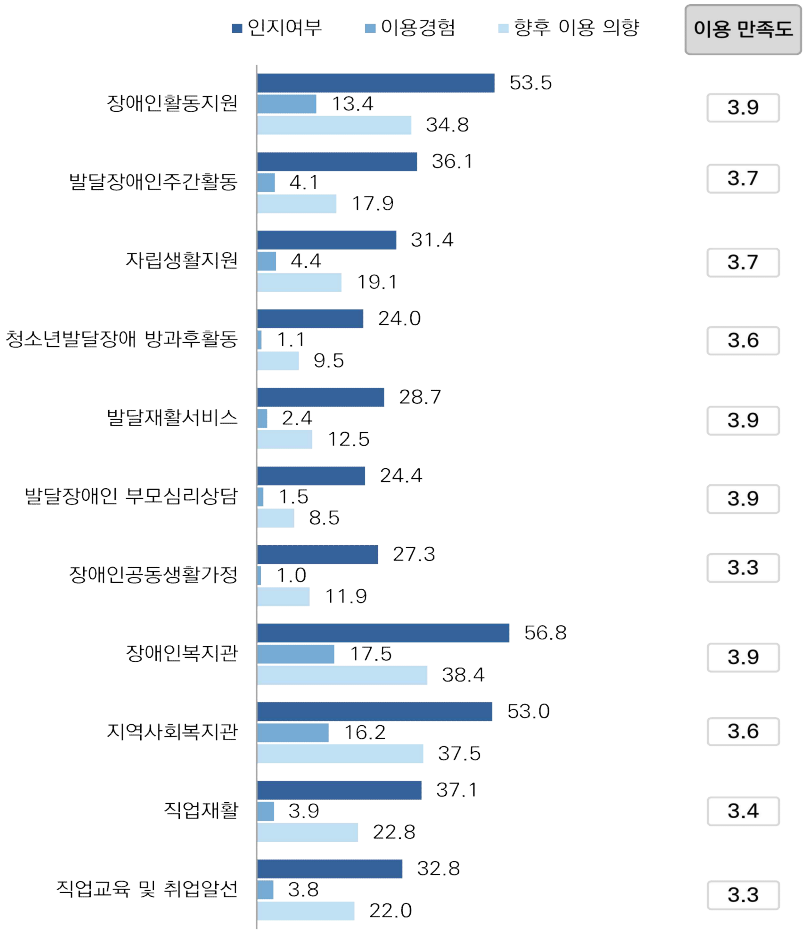
[표 3-70]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 (n=1,148)					5기 (n=1,015)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장애인활동지원	53.5	13.4	154	3.9	34.8	18.5	235	3.6
발달장애인주간활동	36.1	4.1	47	3.7	17.9	5.0	64	3.4
자립생활지원	31.4	4.4	51	3.7	19.1	-	-	-
청소년발달장애 방과후활동	24.0	1.1	13	3.6	9.5	4.0	53	3.5
발달재활서비스	28.7	2.4	28	3.9	12.5	9.2	119	3.6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24.4	1.5	17	3.9	8.5	5.4	68	3.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7.3	1.0	12	3.3	11.9	3.3	42	3.2
장애인복지관	56.8	17.5	201	3.9	38.4	12.8	163	3.6
지역사회복지관	53.0	16.2	186	3.6	37.5	11.5	147	3.6
직업재활	37.1	3.9	45	3.4	22.8	7.1	90	3.7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2.8	3.8	44	3.3	22.0	-	-	-

[그림 3-39]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단위 : %)



● 군·구별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 군·구별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서비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동구, 서해구, 미추홀구는 대부분 서비스에서 40~80% 수준의 높은 인지율을 나타냄. 특히 동구는 장애인활동지원(82.5%), 직업재활(73.8%)에서 두드러지며, 서해구는 장애인활동지원(78.6%), 지역사회복지관(69.6%)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였음. 미추홀구 역시 장애인복지관(78.5%), 지역사회복지관(70.2%) 등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임
- 반면, 검단구, 강화군은 대부분 서비스에서 20% 이하의 낮은 인지율을 보임. 검단구는 청소년 방과후활동(2.7%),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2.7%) 등 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강화군 역시 청소년 방과후활동(4.0%), 발달재활서비스(5.0%) 등에서 낮은 인지율을 보여, 서비스 홍보 부족과 접근성 제약이 심각한 사각지대로 의심됨
- 그 외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옹진군은 서비스별 인지율이 30~50% 수준으로 중간 정도를 나타냄. 계양구는 발달장애인주간활동(52.6%),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49.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옹진군은 발달장애인주간활동(50.0%), 자립생활지원(47.7%) 등에서 높은 인지율을 나타냄

[표 3-71] 군·구별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장애인활동지원	53.5	60.0	**82.5**	65.3	31.7	55.8	59.6	69.0	**78.6**	20.5	26.7	40.7
발달장애인주간활동	36.1	41.5	43.7	41.3	25.5	45.1	20.2	52.6	**60.7**	5.5	13.9	50.0
자립생활지원	31.4	41.5	**46.6**	31.4	17.2	38.1	14.4	**46.6**	42.9	8.2	11.9	**47.7**
청소년발달장애 방과후활동	24.0	**36.9**	**38.8**	35.5	9.7	29.2	14.4	33.6	33.9	2.7	4.0	22.1
발달재활서비스	28.7	37.7	**44.7**	**40.5**	24.8	29.2	15.4	31.9	39.3	12.3	5.0	32.6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24.4	**33.1**	**38.8**	**38.0**	17.2	24.8	15.4	31.9	23.2	2.7	5.9	27.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7.3	30.8	**47.6**	**42.1**	15.9	32.7	15.4	34.5	39.3	8.2	8.9	23.3
장애인복지관	56.8	**65.4**	61.2	**78.5**	39.3	67.3	43.3	62.9	71.4	45.2	34.7	58.1
지역사회복지관	53.0	61.5	66.0	**70.2**	33.8	54.0	42.3	69.0	**69.6**	27.4	34.7	55.8
직업재활	37.1	35.4	**73.8**	45.5	16.6	**47.8**	26.9	46.6	46.4	20.5	24.8	26.7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2.8	36.9	**66.0**	47.1	11.7	37.2	17.3	**49.1**	33.9	19.2	15.8	23.3

- 군·구별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경험

- 분석 결과, 동구와 옹진군은 대부분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경험을 나타냄. 특히 동구는 장애인활동지원(51.5%)과 장애인복지관(45.6%)에서 두드러졌으며, 옹진군은 자립생활지원(22.1%)과 장애인복지관(31.4%) 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음. 남동구는 장애인복지관(31.9%), 직업재활(13.3%),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12.4%) 등 일부 서비스에서 높은 이용경험을 기록하였음. 반면 검단구와 부평구는 대부분 서비스에서 이용경험이 극히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로 나타났음. 강화군은 일부 서비스에서 3~12%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이용겸험이 낮은 편임
-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은 인천시 평균 13.4%였으며, 동구(51.5%)와 옹진군(24.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경험을 나타냄. 그러나 검단구(1.4%)와 중구(2.3%)는 극히 낮은 수준이었음. 발달장애인주간활동은 평균 4.1%였으며, 옹진군(19.8%)과 계양구(7.8%)에서 일부 수요가 확인되었으나, 남동구와 부평구는 이용경험이 나타나지 않음. 자립생활지원은 평균 4.4%였으며, 옹진군(22.1%)에서 가장 높았고, 동구(6.8%)와 남동구(7.1%)에서도 일부 수요가 있었음
-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활동은 평균 1.1%로 매우 낮았으며, 옹진군(8.1%)에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 발달재활서비스는 평균 2.4%였으며, 옹진군(11.6%)과 연수구(4.1%)에서 일부 수요가 있었으나 다수 지역은 0%였음.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은 평균 1.5%였으며, 옹진군(7.0%)에서만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부분 지역은 0~3% 수준에 머물렀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평균 1.0%였으며, 옹진군(5.8%)에서만 일부 수요가 있었음
- 기관 중심 서비스인 장애인복지관은 평균 17.5%로 가장 높은 이용경험을 기록한 서비스였음. 동구(45.6%), 옹진군(31.4%), 남동구(31.9%)에서 특히 높았음. 그러나 서해구와 검단구는 0%였음. 지역사회복지관은 평균 16.2%였으며, 동구(40.8%), 중구(20.0%), 옹진군(20.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검단구는 0%였음. 직업재활은 평균 3.9%였으며, 동구(14.6%), 남동구(13.3%), 계양구(8.6%)에서 일부 수요가 있었음. 그러나 다수 지역은 0%였음.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은 평균 3.8%였으며, 동구(17.5%)와 남동구(12.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2] 군·구별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장애인활동지원	13.4	2.3	**51.5**	14.0	11.0	10.6	2.9	9.5	7.1	1.4	12.9	**24.4**
발달장애인주간활동	4.1	2.3	1.0	0.8	4.1	0.0	-	**7.8**	7.1	1.4	5.0	**19.8**
자립생활지원	4.4	0.8	**6.8**	2.5	2.8	**7.1**	-	4.3	1.8	-	3.0	22.1
청소년발달장애 방과후활동	1.1	1.5	-	-	-	0.9	-	**2.6**	-	-	-	**8.1**
발달재활서비스	2.4	3.1	-	1.7	4.1	1.8	-	**3.4**	-	-	-	**11.6**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1.5	**3.1**	-	1.7	1.4	0.9	1.9	-	-	-	-	**7.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0	0.8	1.0	0.8	0.7	-	-	**2.6**	-	-	-	**5.8**
장애인복지관	17.5	5.4	**45.6**	25.6	23.4	31.9	3.8	9.5	-	-	4.0	**31.4**
지역사회복지관	16.2	20.0	**40.8**	**24.0**	16.6	13.3	1.9	14.7	5.4	-	9.9	20.9
직업재활	3.9	0.8	**14.6**	2.5	-	**13.3**	-	8.6	-	-	-	1.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8	1.5	**17.5**	2.5	-	**12.4**	1.0	4.3	-	-	1.0	0.0

● 군·구별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만족도

- 계양구, 미추홀구, 연수구는 대부분 서비스에서 4.0점 이상을 기록하여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됨. 반면, 동구, 서해구, 옹진군은 일부 서비스에서 3.0점 이하로 낮아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은 인천시 평균 만족도는 3.9점이었음. 지역별로는 계양구가 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4.0점), 남동구(4.0점), 부평구(4.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반면 옹진군은 3.5점으로 낮았음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은 인천시 평균 3.7점이었음. 계양구가 4.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추홀구와 연수구도 4.0점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동구와 서해구는 3.0점으로 낮았음
- 자립생활지원은 인천 전체 평균 3.7점이었음. 계양구(4.6점)와 중구(4.0점)에서 높았으며, 미추홀구(3.3점), 동구(3.0점), 서해구(3.0점)에서는 낮게 나타남
-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활동은 평균 3.6점이었음. 계양구(4.3점), 남동구(4.0점)에서 높았으며, 옹진군은 3.3점으로 낮았음
- 발달재활서비스는 평균 3.9점이었음. 연수구(4.5점), 미추홀구(4.0점), 중구(4.0점)에서 높았으며, 옹진군은 3.3점으로 낮았음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은 평균 3.9점이었음. 미추홀구와 연수구에서 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동구와 부평구도 4.0점으로 나타남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평균 3.3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서비스로 나타남. 그러나 미추홀구는 5.0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동구(1.0점), 중구(3.0점) 등은 낮음
- 장애인복지관은 평균 3.9점이었음. 부평구 4.3점,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각 4.1점으로 가장 높았음. 옹진군은 3.6점으로 낮게 평가됨
- 지역사회복지관은 평균 3.6점이었음. 연수구(4.1점), 계양구(4.1점)에서 높았으며, 옹진군은 3.2점으로 낮았음
- 직업재활은 평균 3.4점으로 중구(4.0점), 남동구(3.7점), 계양구(3.9점)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동구(2.9점)와 옹진군(3.0점)은 낮았음
-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은 평균 3.3점이었음. 부평구(4.0점), 계양구(3.8점), 남동구(3.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2.9점), 강화군(3.0점)은 낮았음

[표 3-73] 군·구별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장애인활동지원	3.9	3.7	**4.0**	3.8	3.9	**4.0**	**4.0**	**4.7**	3.8	**4.0**	3.9	3.5
발달장애인주간활동	3.7	3.7	3.0	4.0	4.0	-	-	**4.6**	3.0	3.0	3.4	3.6
자립생활지원	3.7	**4.0**	3.0	3.3	3.8	3.5	-	**4.6**	3.0	-	3.7	3.9
청소년발달장애 방과후활동	3.6	3.5	-	-	-	**4.0**	-	**4.3**	-	-	-	3.3
발달재활서비스	3.9	4.0	-	4.0	**4.5**	3.5	-	**4.3**	-	-	-	3.3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3.9	3.8	-	**4.5**	**4.5**	**4.0**	**4.0**	-	-	-	-	3.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3	3.0	1.0	**5.0**	**4.0**	-	-	3.0	-	-	-	3.4
장애인복지관	3.9	3.9	3.8	**4.1**	**4.1**	3.8	**4.3**	4.1	-	-	4.0	3.6
지역사회복지관	3.6	3.7	3.0	3.8	**4.1**	3.6	**4.0**	**4.1**	3.7	-	3.7	3.2
직업재활	3.4	**4.0**	2.9	3.7	-	3.7	-	**3.9**	-	-	-	3.0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3	3.5	2.9	3.3	-	3.6	**4.0**	**3.8**	-	-	3.0	-

- 군·구별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옹진군은 상대적으로 향후 이용 의향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부평구, 검단구, 강화군은 대부분 서비스에서 낮은 이용 의향을 보임
- 장애인활동지원은 인천 평균 34.8%였으며, 동구(64.1%)와 계양구(43.1%)에서 높은 이용 의향을 나타남. 반면 강화군(14.9%)은 낮은 수준이었음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은 인천 평균 17.9%였으며, 계양구(37.1%)와 옹진군(37.2%)에서 이용 의향이 높았음. 그러나 부평구(3.8%)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자립생활지원은 평균 19.1%였으며, 옹진군(34.9%)과 계양구(26.7%)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부평구(5.8%)가 가장 낮았음
-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활동은 평균 9.5%임. 중구(22.3%)와 옹진군(17.4%)가 상대적으로 이용의향이 높았으며, 동구(1.0%)가 가장 낮았음
- 발달재활서비스의 향후 이용 의향은 평균 12.5%였으며, 연수구(20.0%)와 검단구(19.2%)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강화군(4.0%)이 가장 낮았음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의 향후 이용 의향은 평균 8.5%였으며, 중구(20.0%)와 옹진군(12.8%)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강화군(1.0%)이 가장 낮았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향후 이용 의향은 평균 11.9%였으며, 미추홀구(18.2%)와 중구(17.7%)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부평구(1.9%)이 가장 낮았음
- 장애인복지관의 향후 이용 의향은 평균 38.4%로 다른 서비스 중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으며, 미추홀구(61.2%), 동구(57.3%), 남동구(51.3%)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해구(12.5%)가 가장 낮았음
- 지역사회복지관의 향후 이용 의향은 평균 37.5%였으며, 동구(53.4%), 미추홀구(52.9%)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해구(14.3%)가 가장 낮았음
- 직업재활의 향후 이용 의향은 평균 22.8%였으며, 동구(54.4%)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서해구(7.1%)와 옹진군(11.6%)이 가장 낮았음
-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의 향후 이용 의향은 평균 22.0%였으며, 동구(53.4%)와 계양구(38.8%)에서 높았음. 옹진군(5.8%)이 가장 낮았음

[표 3-74] 군·구별 장애인 돌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장애인활동지원	34.8	30.0	**64.1**	40.5	23.4	40.7	32.7	**43.1**	37.5	26.0	14.9	31.4
발달장애인주간활동	17.9	29.2	9.7	9.9	15.9	9.7	3.8	**37.1**	28.6	9.6	8.9	**37.2**
자립생활지원	19.1	24.6	16.5	20.7	17.9	14.2	5.8	**26.7**	16.1	21.9	10.9	**34.9**
청소년발달장애 방과후활동	9.5	**22.3**	1.0	3.3	10.3	6.2	4.8	17.2	8.9	4.1	5.0	**17.4**
발달재활서비스	12.5	16.2	5.8	9.9	**20.0**	8.8	8.7	19.0	10.7	**19.2**	4.0	12.8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8.5	**20.0**	1.9	5.0	11.0	6.2	7.7	12.1	8.9	2.7	1.0	**12.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9	**17.7**	12.6	**18.2**	14.5	6.2	1.9	15.5	8.9	12.3	5.9	12.8
장애인복지관	38.4	30.8	**57.3**	**61.2**	34.5	51.3	23.1	42.2	12.5	30.1	24.8	38.4
지역사회복지관	37.5	48.5	**53.4**	**52.9**	40.7	31.0	24.0	38.8	14.3	28.8	27.7	31.4
직업재활	22.8	22.3	**54.4**	15.7	20.7	28.3	**29.8**	26.7	7.1	12.3	10.9	11.6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22.0	21.5	**53.4**	14.9	15.2	24.8	21.2	**38.8**	7.1	13.7	14.9	5.8

- 인천시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여러 서비스에서 이용 자격 제한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24.0%), 발달장애인주간활동(23.8%), 자립생활지원(23.3%), 청소년 방과후활동(29.2%) 등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제도적 기준이 엄격하거나 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이 주변에 없어서는 발달재활서비스(35.5%), 지역사회복지관(37.8%), 장애인복지관(26.3%) 등에서 특히 높았음
-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라는 응답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발달장애인주간활동(14.3%), 직업재활(18.9%),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19.4%) 등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됨. 이는 홍보 부족과 정보 전달 체계의 미흡함을 보여줌
- 여러 서비스에서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는 청소년 방과후활동(16.7%), 장애인공동생활가정(17.1%), 장애인복지관(15.8%), 지역사회복지관(18.9%) 등에서 확인됨
-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라는 이유가 일부 서비스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직업재활(27.0%), 장애인복지관(13.7%), 지역사회복지관(12.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16.7%) 등에서 나타났음

[표 3-75]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장애인활동지원	75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4.0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6.0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0.7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발달장애인주간활동	42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3.8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4.3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1.9
자립생활지원	43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3.3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8.6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11.6
청소년발달장애 방과후활동	24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9.2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6.7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2.5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발달재활서비스	31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35.5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12.9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9.7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26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9.2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5.4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1.5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5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7.1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4.3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11.4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장애인복지관	95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26.3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5.8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13.7
지역사회복지관	74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37.8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8.9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12.2
직업재활	37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27.0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8.9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0.8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6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22.2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9.4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16.7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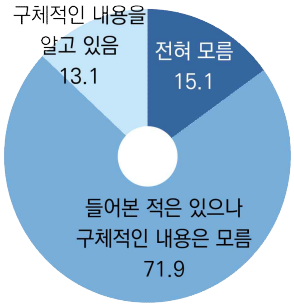
(6) 장애로 인한 어려움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 인지 정도

- 인천시 장애 관련 공적서비스에 대한 인지 수준은 낮은 편임. 전체 응답자 중 71.9%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 15.1%는 '전혀 모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3.1%수준임. 이는 서비스 인지 수준과 더불어 실질적인 정보 접근도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구와 옹진군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 수준을 보이는 지역임. 중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모름'은 3.1%로 매우 낮았음. 옹진군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이 34.9%로 높았으나 '전혀 모름'은 29.1%로 다소 높은 편이었음
- 반면 동구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이 98.1%로 높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1.0%로 정보의 깊이나 실질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으로 해석됨. 반면, 검단구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응답이 10% 이하로 낮았으며, '전혀 모름' 응답이 20~3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3-40] 장애로 인한 어려움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 인지 정도

(단위 : %)



[표 3-76] 군·구별 장애로 인한 어려움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 인지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전체	1,148	15.1	71.9	13.1
중구	130	3.1	55.4	41.5
동구	103	1.0	98.1	1.0
미추홀구	121	16.5	75.2	8.3
연수구	145	22.8	70.3	6.9
남동구	113	22.1	73.5	4.4
부평구	104	14.4	82.7	2.9
계양구	116	15.5	78.4	6.0
서해구	56	7.1	75.0	17.9
검단구	73	30.1	60.3	9.6
강화군	101	5.9	81.2	12.9
옹진군	(86)	29.1	36.0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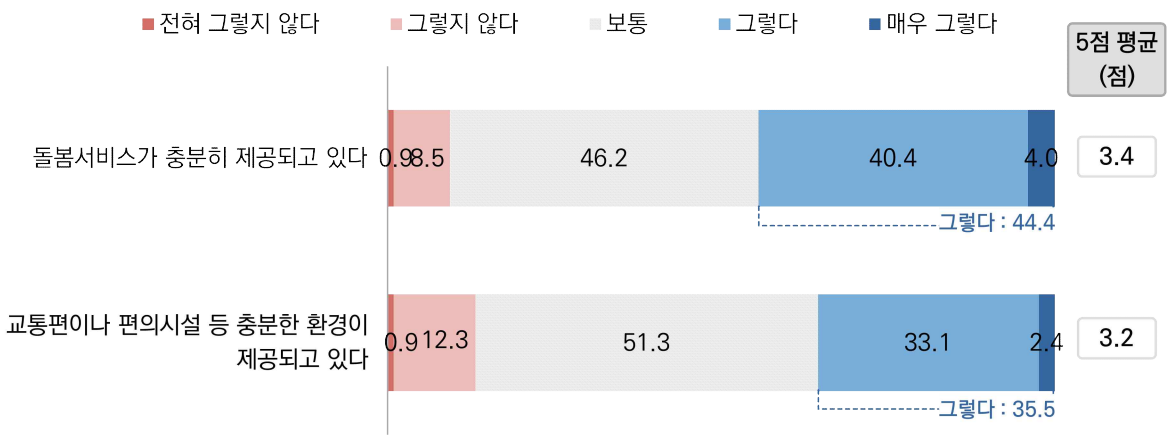
(7) 거주지역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평가

- 인천 시민들은 돌봄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교통편과 편의시설 등 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서비스의 질과 공급은 일정 수준 확보되었으나, 이용을 뒷받침하는 지역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돌봄서비스 제공의 충분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4%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어느 정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함. '보통' 은 46.2%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9.4%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평균 만족도는 3.4점 보통 이상 수준으로 긍정적 평가를 보임
- 교통 및 편의시설 등 환경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35.5%로, 돌봄서비스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음. '보통'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13.2%로 돌봄서비스보다 높았음. 평균 만족도는 3.2점으로 돌봄서비스보다 환경적 요소에 대한 체감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해석됨

[그림 3-41] 거주지역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평가

(단위 : %)



[표 3-77] 거주지역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 평가

(단위 : 명, %)

구분	전체(n=1,148)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0.9	8.5	46.2	40.4	4.0	3.4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0.9	12.3	51.3	33.1	2.4	3.2

- 군·구별 거주지역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평가 결과, 남동구, 서해구, 계양구는 돌봄서비스와 생활환경 모두에서 높은 결과를 보이는 반면, 동구, 옹진군, 검단구는 두 영역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제공과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 돌봄서비스 제공의 충분성에 대해 남동구(3.8점), 서해구(3.8점)가 가장 높게 나타나 돌봄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됨. 중구(3.6점), 계양구(3.6점)도 평균보다 높아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됨. 반면 동구(3.0점), 옹진군(3.0점)은 장애인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 및 편의시설 환경의 충분성에 대해 계양구(3.6점), 서해구(3.5점), 남동구(3.5점)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며, 중구(3.4점), 동구(3.2점), 미추홀구(3.3점), 강화군(3.3점)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검단구(2.8점), 옹진군(2.9점), 부평구(3.0점), 연수구(3.1점)는 교통 및 편의시설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8] 군·구별 거주지역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 평가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3.4	3.6	3.0	3.4	3.2	**3.8**	3.2	**3.6**	**3.8**	3.1	3.5	3.0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3.2	3.4	3.2	3.3	3.1	**3.5**	3.0	**3.6**	**3.5**	2.8	3.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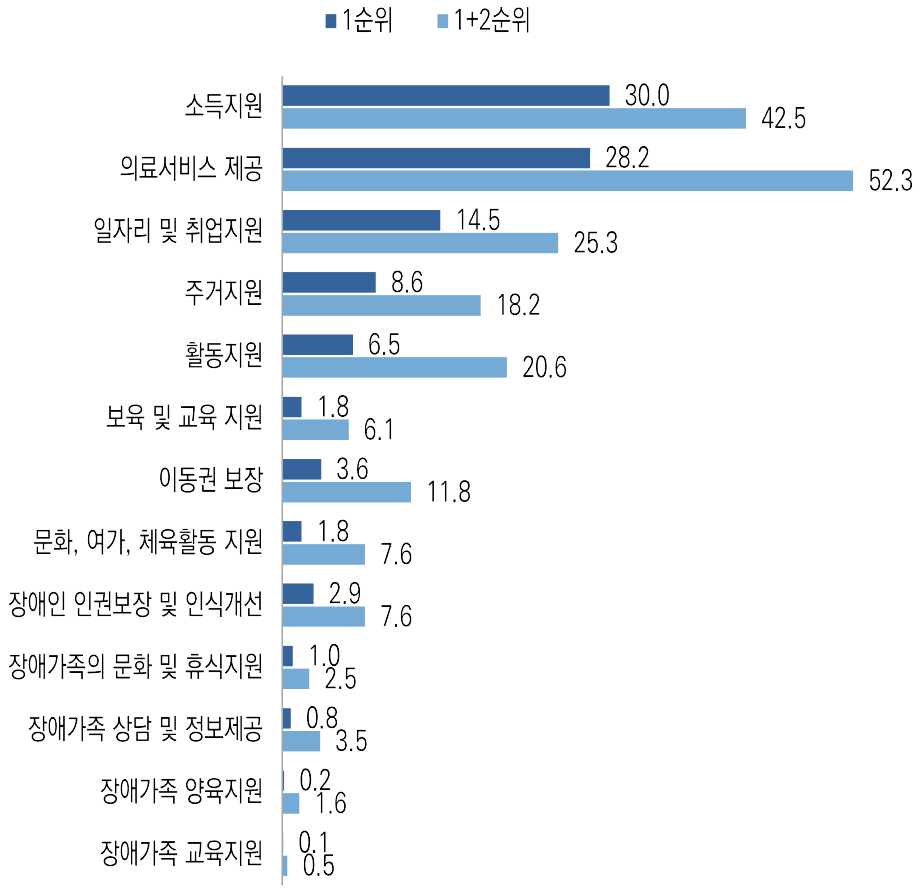
(8) 거주지역 장애인 복지 분야 중점과제

- 인천 시민들이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중점과제는 소득지원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나타남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1순위 기준, '소득지원' 3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28.2%, '일자리 및 취업지원' 14.5%, '활동지원' 6.5%, '이동권 보장' 3.6%, '장애인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2.9% 순임
- 중복응답으로 살펴본 결과, '의료서비스 제공' 5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득지원' 42.5%, '일자리 침 취업지원' 25.3%, '활동지원' 20.6%, '주거지원' 18.2%, '이동권보장' 11.8% 순임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건강관리와치료 접근성에 대한 건강권요구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한편, 보육·교육, 문화·여가, 인권보장, 가족지원 등은 10% 이하의 낮은 응답률로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됨

[그림 3-42] 거주지역 장애인 복지 분야 중점과제

(단위 : %)



-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복지 정책 수요 분석 결과
  - 의료서비스 제공은 강화군(82.2%), 부평구(76.0%), 동구(72.8%) 등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소득지원은 동구(68.9%), 검단구(58.9%), 미추홀구(52.1%) 등에서 높은 수요가 확인됨
  - 중구는 일자리 및 취업지원(38.5%)과 보육·교육지원(13.8%) 수요가 높아, 장애인 자립 기반과 가족지원 중심의 정책 강화가 필요함
  - 서해구는 일자리 및 취업지원(50.0%)이 가장 높아, 장애인 고용 연계형 복지정책이 시급함
  - 검단구는 주거지원(45.2%)과 소득·의료 동시 수요가 높아, 생활 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옹진군은 활동지원(24.4%)과 문화·여가·체육활동 지원(22.1%) 정책 수요가 높아, 도서지역의 사회참여 확대가 과제로 제시됨

[표 3-79] 군·구별 거주지역 장애인 복지 분야 중점과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소득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주거 지원	활동 지원	보육 및 교육 지원	이동권 보장	문화, 여가,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	장애가족의 문화 및 휴식지원	장애가족 상담 및 정보제공	장애가족 양육지원	장애가족 교육지원
전체	1,148	42.5	52.3	25.3	18.2	20.6	6.1	11.8	7.6	7.6	2.5	3.5	1.6	0.5
중구	130	21.5	57.7	38.5	18.5	22.3	13.8	12.3	9.2	3.8	0.8	1.5	0.0	0.0
동구	103	68.9	72.8	1.0	6.8	39.8	0.0	2.9	0.0	2.9	0.0	4.9	0.0	0.0
미추홀구	121	52.1	42.1	21.5	19.8	17.4	5.0	19.8	5.0	11.6	3.3	0.0	1.7	0.8
연수구	145	50.3	31.0	24.8	26.9	18.6	8.3	15.2	10.3	7.6	2.8	3.4	0.7	0.0
남동구	113	31.9	41.6	25.7	15.0	29.2	5.3	23.0	5.3	10.6	4.4	6.2	0.9	0.9
부평구	104	46.2	76.0	22.1	9.6	13.5	2.9	1.0	6.7	5.8	1.9	11.5	1.9	1.0
계양구	116	31.0	44.8	33.6	12.9	17.2	7.8	17.2	9.5	12.1	6.0	4.3	3.4	0.0
서해구	56	21.4	51.8	50.0	26.8	21.4	7.1	1.8	7.1	7.1	3.6	0.0	1.8	0.0
검단구	73	58.9	45.2	32.9	45.2	2.7	0.0	2.7	2.7	8.2	0.0	1.4	0.0	0.0
강화군	101	40.6	82.2	13.9	10.9	15.8	5.9	8.9	5.0	6.9	2.0	2.0	5.0	1.0
옹진군	86	43.0	36.0	24.4	16.3	24.4	7.0	12.8	22.1	5.8	2.3	1.2	2.3	2.3

5) 정신건강

(1)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의 경험 빈도와 심각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심각도는 낮은 편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항목에서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 50~70% 이상으로 나타남. 조사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3점이 평균임.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1.4~1.6점 수준으로, 심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은 낮은 수준임

-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중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가끔 혹은 자주, 매우 자주'등 경험한다가 11.3%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높지 않음. 평균 1.6점으로 나타남
- 중증정신질환, 중독, 자살, 트라우마 문제로 인한 어려움의 경우 모두 평균 1.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경험했다는 응답이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임
- 5기 대비 6기 조사결과 평균점수는 전반적으로 0.2~0.3점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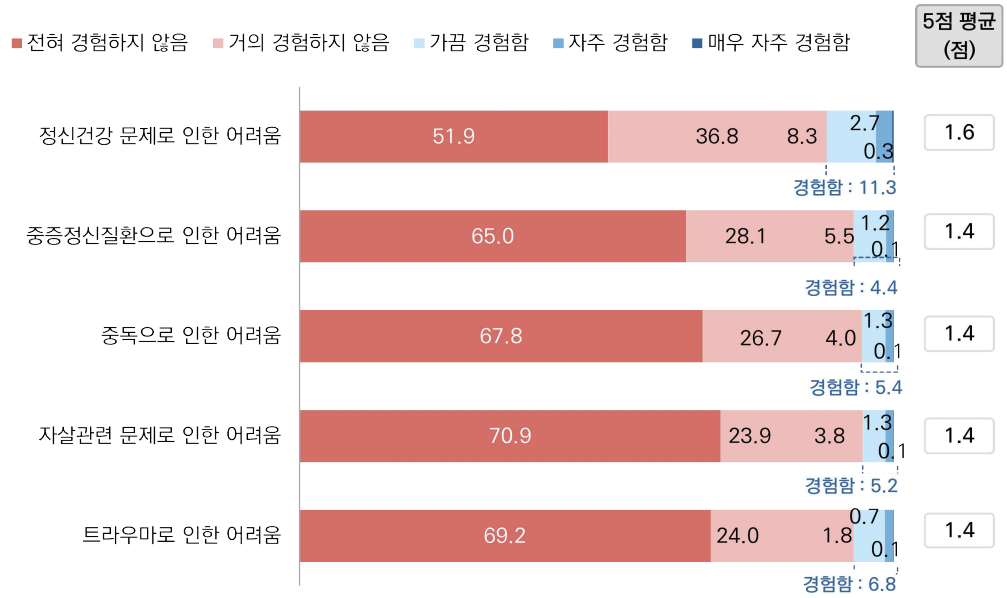
[표 3-80]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	51.9	36.8	8.3	2.7	0.3	1.6	1.9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65.0	28.1	5.5	1.2	0.1	1.4	1.7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67.8	26.7	4.0	1.3	0.1	1.4	1.6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70.9	23.9	3.8	1.3	0.1	1.4	1.6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69.2	24.0	5.3	1.4	0.1	1.4	1.6

[그림 3-43]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



- 인천시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중구, 서해구는 모든 항목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미추홀구, 동구, 부평, 계양구가 일부 항목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검단구, 옹진군, 연수구는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체감도가 낮은 지역임
  - 정신건강 문제는 미추홀구(1.8), 남동구(1.8)가 인천 평균(1.6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증정신으로 인한 어려움은 평균 1.4점으로 중구(1.7), 서해구(1.5)에서 다소 높았으며, 검단구(1.2)와 연수구(1.3)는 낮았음
  - 중독 문제는 평균 1.4점으로 중구(1.6), 남동구(1.6)에서 높았고, 검단구(1.2), 옹진군(1.2)은 낮음
  - 자살 관련 어려움은 평균 1.4점으로 중구(1.6), 남동구(1.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검단구(1.1)가 가장 낮음
  - 트라우마 관련 어려움은 평균 1.4점으로 중구(1.6), 남동구(1.6)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검단구(1.2), 옹진군(1.2)은 낮음

[표 3-81]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	1.6	**1.7**	**1.7**	1.8	1.4	1.8	1.6	1.6	**1.7**	1.6	1.5	1.5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1.4	**1.7**	1.5	**1.5**	1.3	1.4	1.4	1.4	**1.5**	1.2	1.4	1.3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1.4	**1.6**	1.4	1.4	1.3	**1.6**	1.3	1.4	**1.5**	1.2	1.3	1.2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1.4	**1.6**	1.4	1.3	1.3	**1.6**	1.3	1.3	1.4	1.1	1.3	1.2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1.4	**1.6**	1.3	1.4	1.3	**1.6**	1.4	1.4	**1.5**	1.2	1.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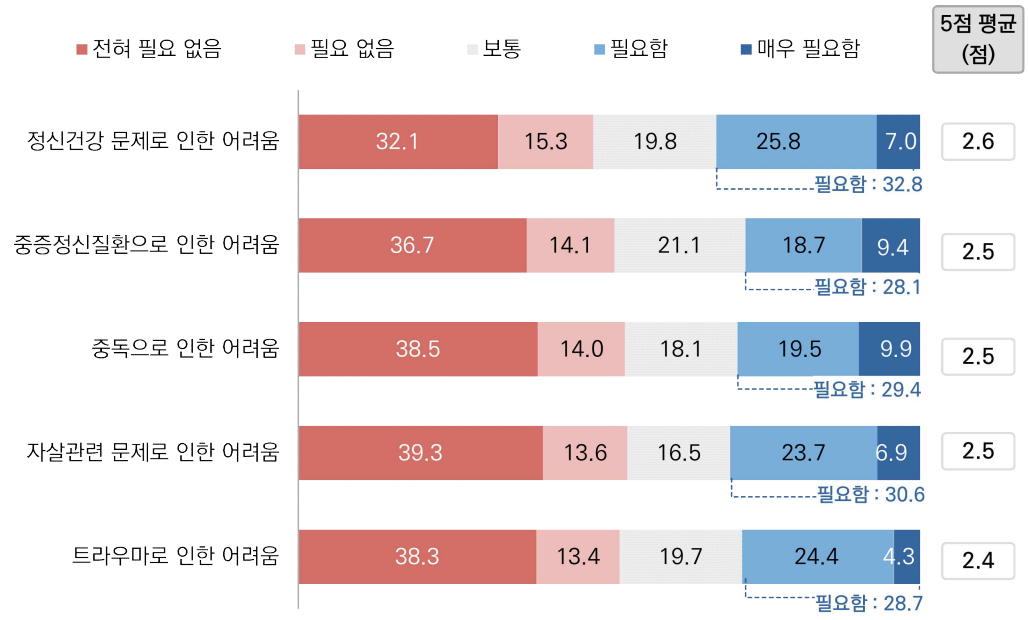
(2)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어려움 경험이나 심각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나타냄. 특히,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외부 지원의 필요성은 32.8%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30.6%,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29.4%,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28.7%,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28.1% 수준임. 즉, 10명 중에 약 3명이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한편, 평균 3점 이상일 경우 필요성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인천 평균은 2.4~2.6점 수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5기와 비교했을 때,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평균 2.6점,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일상적 스트레스나 정서적 불안에 대한 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됨
- 자살 관련 문제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6%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균 2.5점으로 나타남
-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9.4%, 2평균 2.5점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질환으로 인한 외부질환은 서비스 필요성이 28.1%, 평균 2.4점,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한 외부지원 필요성은 28.7%, 평균 2.4점임
- 5기 조사 때와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 대한 외부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졌는데,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등은 3점,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4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외부지원에 대한 욕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그림 3-44]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



[표 3-82]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	32.1	15.3	19.8	25.8	7.0	2.6	2.3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36.7	14.1	21.1	18.7	9.4	2.5	2.2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38.5	14.0	18.1	19.5	9.9	2.5	2.2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39.3	13.6	16.5	23.7	6.9	2.5	2.1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38.3	13.4	19.7	24.4	4.3	2.4	2.1

- 인천시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분석 결과, 동구와 부평구에서의 욕구가 가장 높았고, 검단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욕구를 보임
  -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성은 동구(3.2점), 부평구(3.2점), 남동구(2.9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증정신질환 서비스 필요성은 동구(3.4점), 부평구(3.2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검단구(1.7점), 강화군·옹진군(2.1점)은 낮음
  - 중독 관련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동구(3.5점), 부평구(3.1점), 남동구(2.8점)가 높았으며, 검단구(1.7점), 옹진군(1.9점)은 낮음
  - 자살 관련 서비스 필요성은 동구(3.4점), 부평구(3.1점), 남동구(2.7점)가 높게 나타났으며, 검단구(1.7점), 옹진군(1.9점)은 낮았음
  -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필요성은 동구(3.2점), 부평구(3.0점), 남동구(2.7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검단구(1.7점), 옹진군(1.9점)은 낮음

[표 3-83]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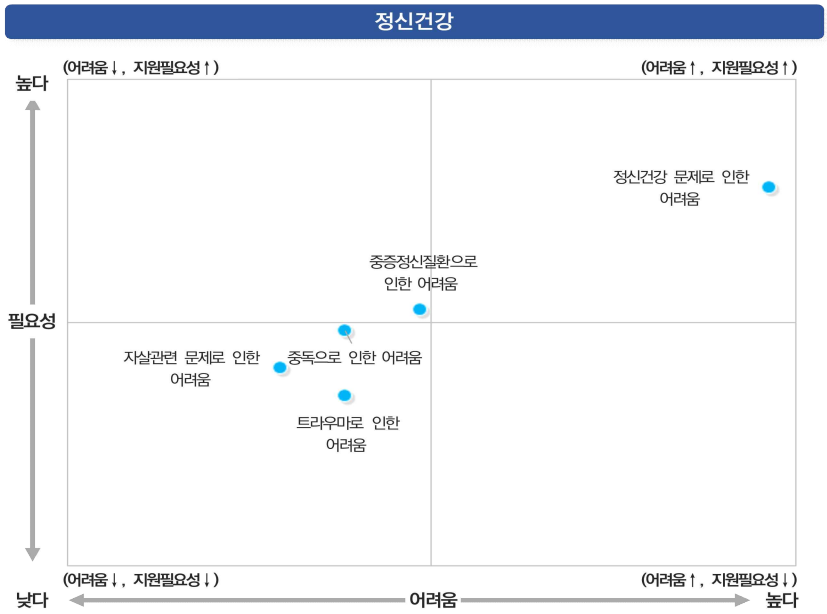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	2.6	2.4	**3.2**	2.7	2.6	2.9	**3.2**	2.4	2.4	2.1	2.3	2.1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2.5	2.4	**3.4**	2.4	2.6	2.5	**3.2**	2.4	2.4	1.7	2.1	2.1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2.5	2.3	**3.5**	2.2	2.6	2.8	**3.1**	2.2	2.3	1.7	2.1	1.9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2.5	2.4	**3.4**	2.2	2.6	2.7	**3.1**	2.2	2.3	1.7	2.0	1.9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2.4	2.3	**3.2**	2.3	2.6	2.7	**3.0**	2.3	2.3	1.7	2.1	1.9

(3) 정신건강 IPA 결과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높고, 외부지원이 필요한 항목들을 파악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IPA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이 높은 항목으로 나타남. 일상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과 접근성 높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임

[그림 3-45] 정신건강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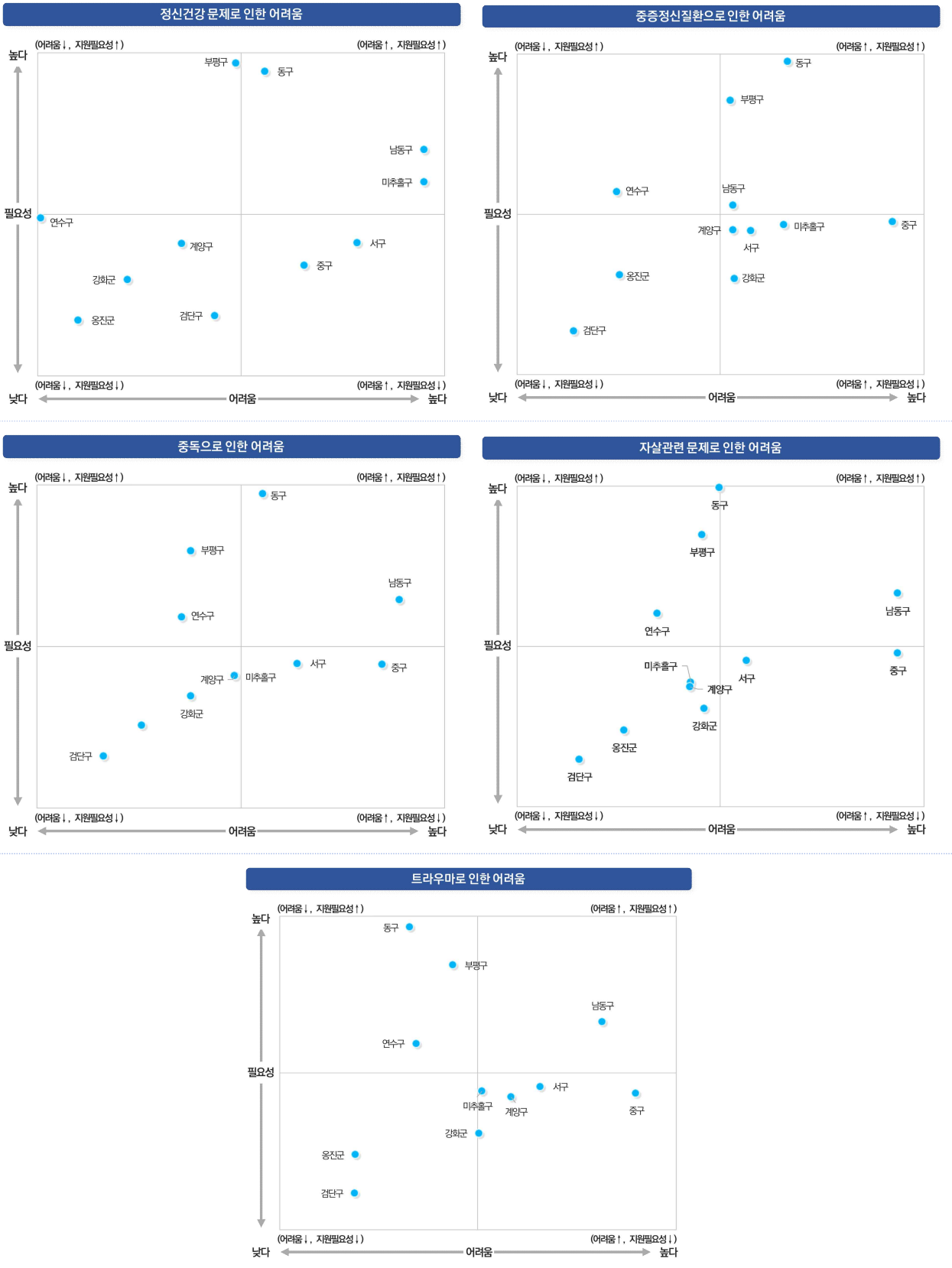


-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로 우선적 개입이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음. 반면, 서구, 중구는 어려움은 높지만 서비스 필요성 인식은 낮아, 인식개선과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지역임
- 중증정신질환 문제의 경우 동구, 부평구, 남동구가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아, 전문 치료 및 지속적 관계체계 구축이 시급함. 반면, 서구, 미추홀구, 계양구, 중구, 강화군은 어려움은 높지만 필요성 인식은 낮아, 낙인 완화 및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중독문제는 동구, 남동구가 어려움과 필요성이 모두 높아, 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됨. 서구, 중구는 어려움은 높지만 필요성 인식은 낮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조기 개입 테계 마련이 필요함
- 자살관련 문제는 남동구만이 어려움과 필요성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자살 예방 및 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서구, 중구는 어려움은 필요성 인식이 낮아, 생명존중 문화 확산이 필요함
- 트라우마 문제에 대해 남동구는 어려움과 필요성이 모두 높아, 심리적 회복 및 정서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미추홀구, 계양구, 서해구, 중구는 어려움은 높지만 필요성 인식은 낮아,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개선과 접근성 강화가 요구됨

[그림 3-46] 인천시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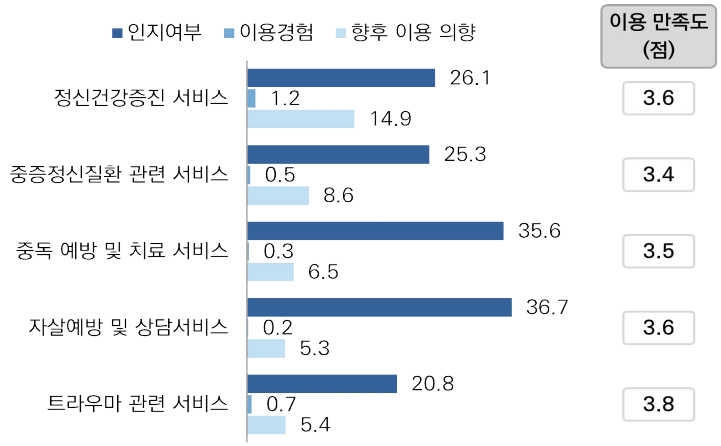


(4)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 현황

-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20~40% 수준으로 나타남.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36.7%), 중독 예방 및 치료서비스(35.6%)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20.8%)는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냄. 이는 서비스 존재 자체는 일부 주민에게 알려져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인지 확산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됨
- 실제 이용 경험은 모든 서비스에서 2%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예방 및 상담서비스는 0.2%로 나타남
- 이용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3.4~3.8점으로 나타남. 특히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는 3.8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자살 예방 및 상담서비스(3.6점), 정신건강증진 서비스(3.6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는 서비스 품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이용률이 낮아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함
- 향후 이용 의향은 정신건강증진 서비스가 14.9%로 가장 높았으며, 중증정신질환(8.6%), 중독 예방(6.5%), 트라우마(5.4%), 자살예방(5.3%) 순으로 나타남. 이는 예방 중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고위험군 중심 서비스는 낮은 이용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3-47]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단위 : %)



[표 3-84]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26.1	1.2	73	3.6	14.9	31.5	2.0	1.7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25.3	0.5	31	3.4	8.6	28.1	2.0	1.8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35.6	0.3	18	3.5	6.5	42.4	2.0	1.8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36.7	0.2	11	3.6	5.3	44.1	2.0	1.9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20.8	0.7	42	3.8	5.4	15.6	2.0	1.9

-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분석 결과 미추홀구, 계양구, 중구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 서비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 검단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데, 이는 홍보·교육·정보 전달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는 중구(44.7%), 미추홀구(42.3%), 계양구(42.3%)에서 인지도가 높은 반면 부평구(11.0%), 강화군(13.0%)은 낮음
- 중증정신질환 서비스는 미추홀구(40.3%), 계양구(42.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평구(10.0%), 검단구(9.6%)는 낮음
-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는 미추홀구(50.2%), 계양구(48.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검단구(18.1%), 강화군(24.8%)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는 미추홀구(51.7%), 계양구(49.0%)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화군·옹진군(23.7%)은 낮은 지역임
- 트라우마 서비스 인지도는 계양구(42.5%), 중구(36.7%)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평구(6.5%), 연수구(8.7%)는 매우 낮음

[표 3-85] 인천시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26.1	**44.7**	24.0	**42.3**	15.8	30.2	11.0	**42.3**	32.1	14.2	13.0	13.8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25.3	34.3	28.9	**40.3**	16.2	30.2	10.0	**42.2**	29.7	9.6	15.8	15.0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35.6	41.2	34.5	**50.2**	23.5	40.5	35.2	**48.8**	39.1	18.1	24.8	27.7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36.7	**48.8**	34.0	51.7	22.3	45.0	39.0	**49.0**	35.0	25.4	23.7	23.7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20.8	**36.7**	24.0	33.5	8.7	26.2	6.5	**42.5**	11.8	9.2	8.3	11.4

-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 경험의 경우 남동구와 옹진군은 일부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검단구, 동구, 부평구 등은 대부분 항목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낮은 경험률을 보임

-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는 남동구(2.5%), 옹진군(2.2%), 계양구(1.7%)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동구와 검단구는 이용 경험이 없었음
-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는 서해구(1.5%), 계양구(1.2%)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임. 연수구와 검단구는 이용 경험이 없었음
-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가운데 중구(0.7%), 계양구(0.8%), 서해구(0.6%)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임. 동구와 검단구는 이용 경험이 없었음
-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는 중구(0.5%), 계양구(0.5%)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동구, 연수구, 검단구, 옹진군은 이용 경험이 없었음
- 트라우마 관련 서비서는 남동구(2.3%)가, 계양구(1.2%), 미추홀구(1.0%)순으로 이용률이 높았으며, 부평구와 검단구는 이용 경험이 없었음

[표 3-86]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1.2	0.8	-	1.3	1.3	2.5	0.5	1.7	1.5	-	0.8	2.2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0.5	0.5	0.2	0.5	0.0	0.7	0.2	1.2	1.5	-	0.5	0.6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0.3	0.7	-	0.3	0.2	0.2	-	0.8	0.6	-	0.2	0.3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0.2	0.5	-	0.3	-	0.2	-	0.5	0.3	-	0.2	-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0.7	0.8	0.5	1.0	0.2	2.3	-	1.2	0.3	-	0.5	0.3

●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 만족도

-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만족도는 부평구(4.0점), 계양구(3.9점), 남동구(3.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해구(3.2점)는 인천시 평균(3.6점)보다 낮게 나타남
-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만족도는 동구(4.0점), 부평구(4.0점), 강화군(3.7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구(3.0점), 서해구(3.0점)는 낮은 수준임
-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만족도는 남동구(4.0점), 강화군(4.0점), 옹진군(4.0점)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연수구와 서해구는 3.0점으로 낮게 나타남
-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는 남동구가 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3.7점), 계양구(3.7점), 서해구(4.0점), 미추홀구(3.0점), 강화군(3.0점)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지역임
-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만족도는 남동구(4.1점), 동구(4.0점), 연수구(4.0점), 서해구(4.0점), 옹진군(4.0점)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미추홀구(3.5점)는 가장 낮은 지역임

[표 3-87]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3.6	3.4	-	3.3	3.3	3.7	4.0	3.9	3.2	-	3.6	3.6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3.4	3.0	4.0	3.3	-	3.5	4.0	3.3	3.0	-	3.7	3.5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3.5	3.5	-	3.5	3.0	4.0	-	3.4	3.0	-	4.0	4.0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3.6	3.7	-	3.0	-	5.0	-	3.7	4.0	-	3.0	.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3.8	3.6	4.0	3.5	4.0	4.1	-	3.7	4.0	-	3.7	4.0

●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인천시 평균은 14.9%임. 지역별로는 검단구(30.0%), 연수구(23.3%), 서해구(23.2%)가 가장 높은 의향을 보인 반면, 동구(4.8%)와 중구(9.3%)는 낮은 수준임
-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인천시 평균은 8.6%임. 지역별로는 서해구(15.0%), 계양구(13.7%)가 높은 의향을 보인 반면, 동구(2.9%), 부평구(2.7%)는 낮은 수준임
-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인천시 평균은 6.5%임. 지역별로는 계양구(12.8%), 연수구(9.8%)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향을 보인 반면, 동구(2.6%), 부평구(3.8%)는 낮은 수준임
-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인천시 평균은 5.3%임. 지역별로는 계양구(11.7%), 연수구(8.2%)가 높은 의향을 보인 반면, 동구(1.5%), 부평구(2.7%)는 낮은 수준임

-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의 이용 의향에 대한 인천시 평균은 5.4%임. 지역별로는 계양구(12.0%), 연수구(8.7%)가 높은 의향을 보인 반면, 서구(1.8%), 부평구(2.2%)는 낮은 수준임

[표 3-88]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14.9	9.3	4.8	18.7	**23.3**	15.5	14.0	15.3	23.2	**30.0**	12.7	9.7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8.6	8.2	2.9	12.5	8.8	8.2	2.7	**13.7**	**15.0**	6.2	8.5	9.4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6.5	7.3	2.6	4.5	**9.8**	4.5	3.8	**12.8**	9.4	6.2	5.2	6.4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5.3	7.7	1.5	3.8	**8.2**	4.3	2.7	**11.7**	6.8	4.2	3.0	4.5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5.4	6.8	1.5	7.2	**8.7**	5.2	2.2	**12.0**	1.8	4.2	3.0	5.3

●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이용 저해 요인으로는 정보 부족(17.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이어서 기관 접근성 부족(12.9%), 서비스 신뢰 부족(9.7%)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또한 이용자격 제한, 주변 시선 부담, 질환 인식 부족 등도 복합적으로 나타남
-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신뢰 부족(21.6%)으로 확인됨. 그 외에도 이용자격 제한(11.4%), 질환 인식 부족(10.2%)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이는 중증정신질환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제도적 장벽이 크게 작용함을 보여줌
-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서비스 신뢰 부족(16.4%)이 가장 많았음. 이어서 기관 접근성 부족(13.7%), 질환 인식 부족(12.3%)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서비스 접근성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함
-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서비스 신뢰 부족 및 정보 부족(15.8%)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주변 시선 부담(10.5%), 당사자 거부 및 이용자격 제한(8.8%)도 주요 요인임. 이는 자살 관련 서비스가 인식 부족과 사회적 낙인, 당사자 저항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을 보여줌

[표 3-89] 정신건강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93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7.2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2.9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함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9.7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88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21.6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11.4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함	10.2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73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16.4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3.7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함	12.3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57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5.8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10.5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8.8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39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15.4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2.8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함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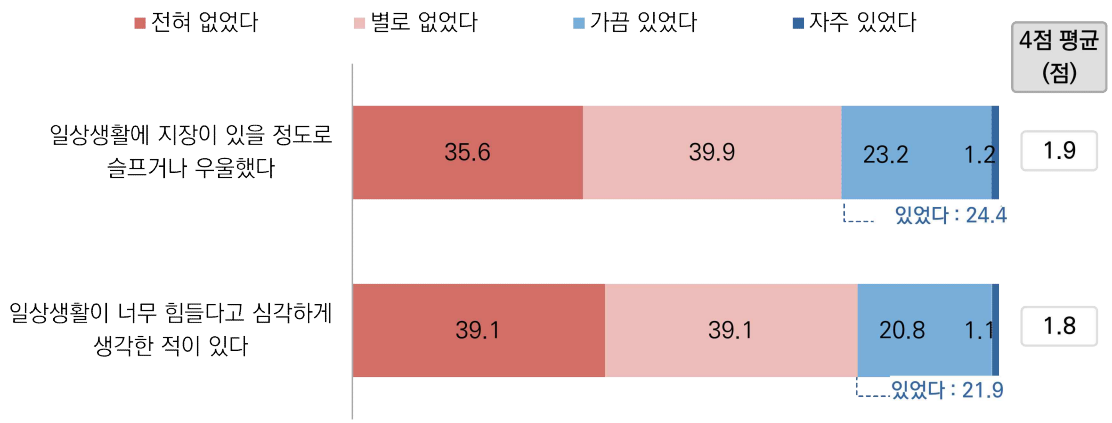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5) 자살 생각과 우울함

- 지난 1년간(2024.8.1.~ 2025.7.31.) 자살과 우울감 관련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지를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고, 가끔과 자주 있었다를 살펴본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우울했다'가 24.4%,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21.9%로 나타남
- 이는 응답자 10명 중 약 2명이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3-48] 일상생활 관련 정서적 어려움 경험 여부

(단위 : %)



[표 3-90] 일상생활 관련 정서적 어려움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n=6,058)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평균 (점/4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우울했다	35.6	39.9	23.2	1.2	1.9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39.1	39.1	20.8	1.1	1.8

- 군·구별 일상생활 관련 정서적 어려움 경험 여부
  - 지역별 일상생활 관련 정서적 어려움은 서구, 검단구, 부평, 동구, 중구, 미추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옹진군과 연수구, 강화군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우울한 경험은 서구(2.2점), 검단구(2.2점), 중구(2.1점), 동구·미추홀구·부평구(2.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옹진군(1.6점),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1.8점)에서 낮게 나타남
  -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심각하게 생각한 경험은 서구(2.2점), 검단구(2.1점), 중구·부평구(2.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연수구·옹진군(1.6점), 계양구·강화군(1.7점)에서 낮게 나타남

[표 3-91] 군·구별 일상생활 관련 정서적 어려움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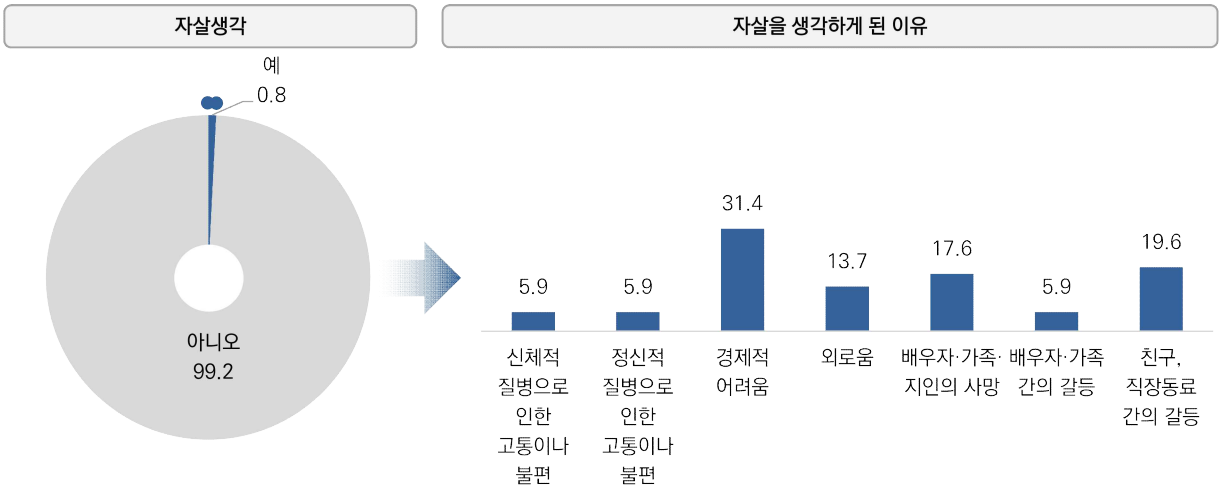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우울했다	1.9	2.1	**2.0**	**2.0**	1.8	1.8	**2.0**	1.8	**2.2**	**2.2**	1.8	1.6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1.8	2.0	1.9	1.9	1.6	1.8	2.0	1.7	**2.2**	**2.1**	1.7	1.6

- 지난 1년간(2024.8.1.~ 2025.7.31.) 자살에 대해 생각 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0.8%가 자살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99.2%는 자살생각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자살 생각 경험률은 높지 않지만, 해당 응답자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필요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은 동구(4.2%)로 나타남. 그 외 옹진군(0.9%), 계양구(1.2%), 중구(0.7%)가 인천 평균보다 높았음. 반면에 자살생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지역은 부평구, 서구, 강화군으로 확인됨
- 자살 생각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자살생각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 어려움' 31.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 직장동료 간의 갈등' 19.6%, '배우자 · 가족 · 지인의 사망' 17.6%, '외로움' 13.7% 순이었으며,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과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 '배우자 · 가족 간의 갈등'이 각각 5.9%로 나타남
- 자살과 관련한 위험 군은 1인 가구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와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 가족이나 배우자, 지인 등 심리적 · 정서적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그림 3-49] 자살 생각 여부와 그 이유

(단위 : %)



[표 3-92] 군·구별 자살 생각 여부와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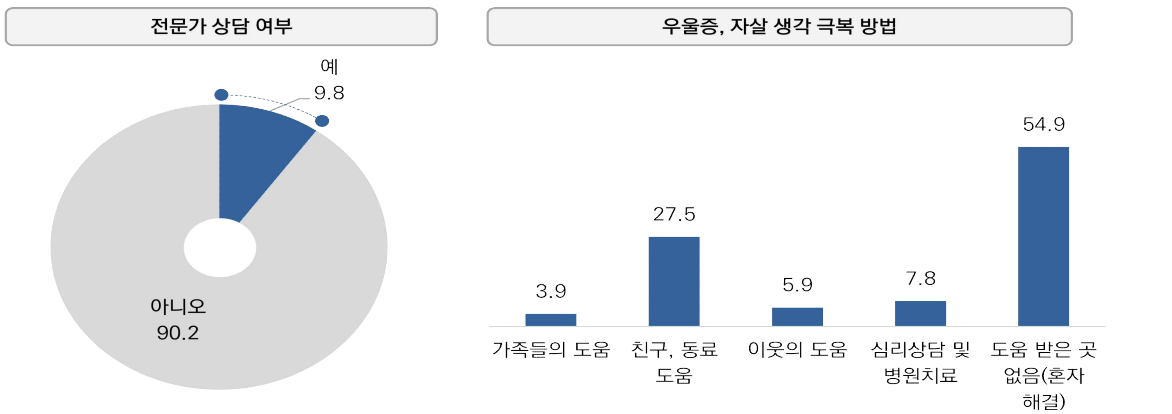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자살생각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사례수	예	아니오	사례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	배우자·가족 간의 갈등	친구, 직장동료 간의 갈등
전체	6,058	0.8	99.2	51	5.9	5.9	31.4	13.7	17.6	5.9	19.6
중구	600	0.7	99.3	4	-	-	-	25.0	25.0	-	50.0
동구	620	4.2	95.8	26	3.8	7.7	15.4	7.7	26.9	7.7	30.8
미추홀구	600	0.3	99.7	2	-	-	100.0	-	-	-	-
연수구	600	0.5	99.5	3	-	-	100.0	-	-	-	-
남동구	600	0.3	99.7	2	-	50.0	50.0	-	-	-	-
부평구	600	-	100.0	-	-	-	-	-	-	-	-
계양구	600	1.2	98.8	7	-	-	85.7	-	-	14.3	-
서해구	340	-	100.0	-	-	-	-	-	-	-	-
검단구	260	0.4	99.6	1	-	-	-	-	100.0	-	-
강화군	600	-	100.0	-	-	-	-	-	-	-	-
옹진군	638	0.9	99.1	6	33.3	-	-	66.7	-	-	-

- 우울과 자살 충동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전문가 상담을 받은 비율은 9.8%로 나타난 반면, 90.2%는 상담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함. 이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더라도 전문적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우울이나 자살 충동을 경험한 사례가 51가구 이지만, 지역별로는 사례가 적어 비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인천시 전체만 제시함
-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을 극복한 방법으로는 '혼자 해결함' 54.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사회적 고립 또는 도움 요청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존재함을 시사함. 그 다음으로는 '가족의 도움' 33.3%, '친구·동료의 도움' 27.5%, '심리상담 및 병원 치료' 7.8%, '이웃의 도움' 5.9% 순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비전문적·비공식적 지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혼자 해결하는 비율이 높아 위험 요인으로 파악됨

[그림 3-50] 우울과 자살 충동에 대한 전문가 상담 경험와 극복 방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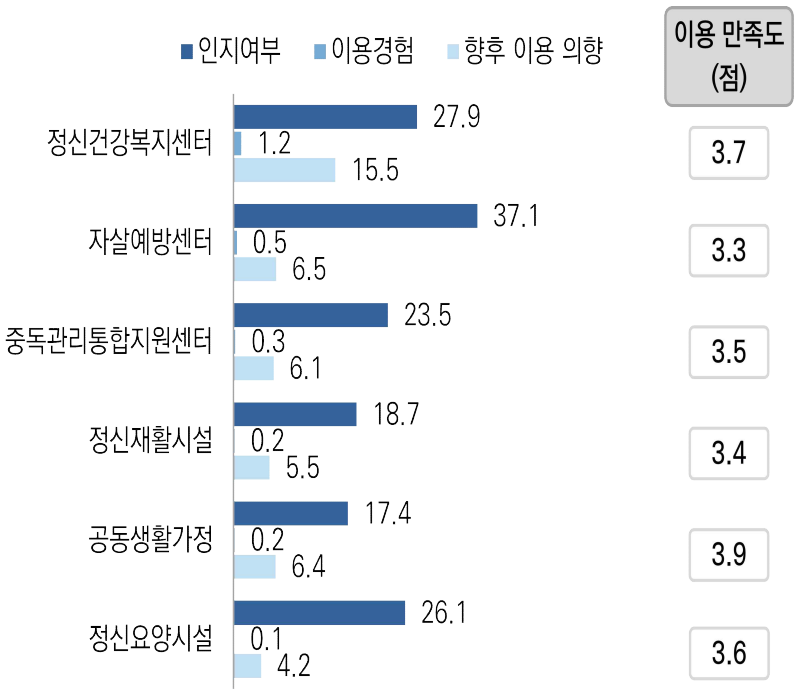


(6)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와 이용현황

- 정신건강 관련 외부지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율은 40%를 넘는 시설이 없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인 시설은 자살예방센터(37.1%)이며, 그 뒤를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27.9%), 정신요양시설(26.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3.5%), 정신재활시설(18.7%), 공동생활가정(17.4%) 순으로 나타남.
- 이용경험은 인지율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1.2%)가 가장 높은 이용 경험을 보였음. 그 뒤를 이어 자살예방센터(0.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 공동생활가정(0.2%), 정신재활시설(0.2%), 정신요양시설(0.1%) 순으로 나타남
- 이용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3.3~3.9점 사이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남.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시설은 공동생활가정(3.9점)이며, 그 뒤를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3.7점), 정신요양시설(3.6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3.5점), 정신재활시설(3.4점) 순으로 나타남. 자살예방센터는 3.3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자살예방센터(6.5%), 공동생활가정(6.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6.1%), 정신재활시설(5.5%)과 정신요양시설(4.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1]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와 이용현황

(단위 : %)



[표 3-93]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와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정신건강복지센터	27.9	1.2	74	3.7	15.5
자살예방센터	37.1	0.5	28	3.3	6.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3.5	0.3	20	3.5	6.1
정신재활시설	18.7	0.2	15	3.4	5.5
공동생활가정	17.4	0.2	12	3.9	6.4
정신요양시설	26.1	0.1	8	3.6	4.2

●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외부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향후 이용 의향은 검단구(34.2%), 서구(30.6%), 연수구(20.7%), 남동구(18.7%), 미추홀구(18.7%)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동구(4.5%), 중구(9.5%)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 의향을 보임
- 자살예방센터의 향후 이용 의향은 서구(19.7%), 옹진군(10.5%), 계양구(9.2%), 중구(8.7%) 순으로 평균 6.5%보다 높은 반면, 부평구(1.7%), 동구(2.7%)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 의향을 보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향후 이용 의향은 서구(15.9%), 계양구(9.8%), 중구(7.7%) 순으로 평균인 6.1%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부평구(1.3%), 동구(1.8%)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 의향을 보임
- 정신재활시설의 향후 이용 의향은 연수구(7.8%), 미추홀구(7.7%), 계양구(8.7%), 옹진군(7.8%)가 인천시 평균인 5.5%보다 높은 반면, 동구(1.5%), 부평구(1.5%)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 의향을 보임
- 공동생활가정의 향후 이용 의향은 검단구(22.7%)가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8.8%), 중구(7.8%), 계양구(8.3%)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부평구(2.2%), 동구(1.5%)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 의향을 보임
- 정신요양시설의 향후 이용 의향은 미추홀구(9.8%), 중구(7.2%), 연수구(7.2%)가 인천시 평균 4.2%보다 높은 반면, 남동구(0.0%), 옹진군(1.1%)은 낮은 이용 의향을 보임

[표 3-94] 군·구별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15.5	9.5	4.5	18.7	20.7	18.7	14.5	12.5	**30.6**	**34.2**	11.0	13.3
자살예방센터	6.5	8.7	2.7	3.8	8.2	3.7	1.7	9.2	**19.7**	5.8	2.8	**10.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1	7.7	1.8	4.5	7.3	4.3	1.3	9.8	**15.9**	4.2	5.7	**8.0**
정신재활시설	5.5	7.0	1.5	7.7	**7.8**	3.5	1.5	**8.7**	5.9	4.6	4.7	**7.8**
공동생활가정	6.4	7.8	1.5	**8.8**	6.7	3.8	2.2	**8.3**	2.4	22.7	6.3	7.8
정신요양시설	4.2	**7.2**	2.1	**9.8**	**7.2**	-	1.7	6.5	4.1	5.0	2.3	1.1

● 정신건강 외부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18.6%),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함(14.0%),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10.5%) 순으로 나타남. 이는 정보 부족, 낮은 문제 인식, 사회적 낙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자살예방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14.8%),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13.6%),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12.3%) 순으로 나타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16.4%),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주변 시선 부담(14.5%), 시설 입소 대기·질환 아님 인식(10.9%) 순으로 나타남
-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19.6%), 서비스 신뢰 부족·질환 아님 인식(13.0%), 기관 부재·대기·비용 부담(8.7%) 순으로 나타남
-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설 입소 및 대기(20.0%), 가족 돌봄 선호(18.0%), 주변 시선 부담·기관 부재·절차 복잡(10.0%)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족 돌봄 선호(16.4%), 주변 시선 부담(14.5%), 시설 대기·정보 부족·기관 부재·이용 거부·신뢰 부족(9.1%) 순으로 나타남

[표 3-95] 정신건강 외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정신건강복지센터	86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8.6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함	14.0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10.5
자살예방센터	81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14.8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3.6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12.3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55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16.4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14.5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10.9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함	
정신재활시설	46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19.6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13.0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8.7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함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공동생활가정	50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20.0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8.0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10.0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정신요양시설	55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6.4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14.5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9.1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주) * 응답 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해당없음 포함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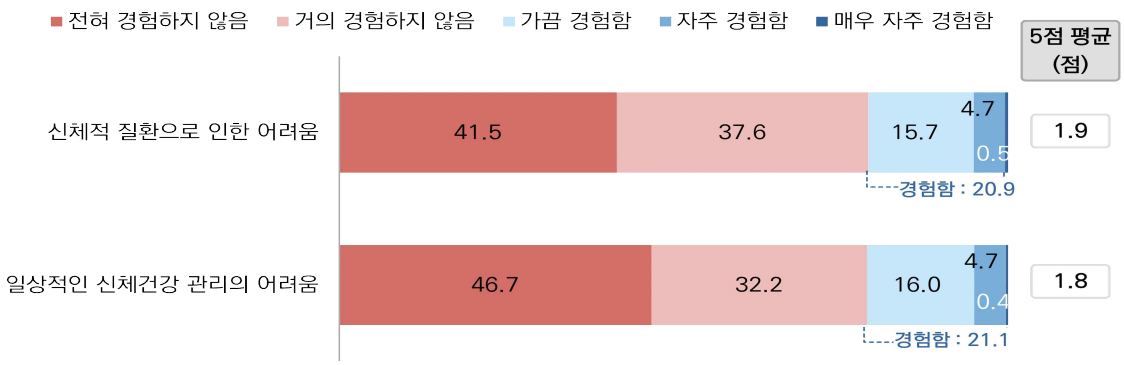
6) 신체건강

(1) 신체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20.9%이며, 인천 평균 1.9점으로 5기 평균 2.1점보다 0.2점 낮아짐. 이는 5기에 비해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됨
  - 지역별로는 검단구(2.2점), 미추홀구(2.1점)가 신체건강 어려움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연수구(1.6점)는 가장 낮음
-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21.1%이며, 인천 평균 1.8점으로 5기 평균 점수 2.1점 보다 0.3점 낮아짐. 이는 일상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결과로 자기관리 능력 향상 또는 부담 감소로 해석됨
  - 지역별로는 검단구(2.2점), 미추홀구(2.0점)가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연수구(1.5점)는 가장 낮음

[그림 3-52] 신체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



[표 3-96] 신체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41.5	37.6	15.7	4.7	0.5	1.9	2.1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의 어려움	46.7	32.2	16.0	4.7	0.4	1.8	2.1

[표 3-97]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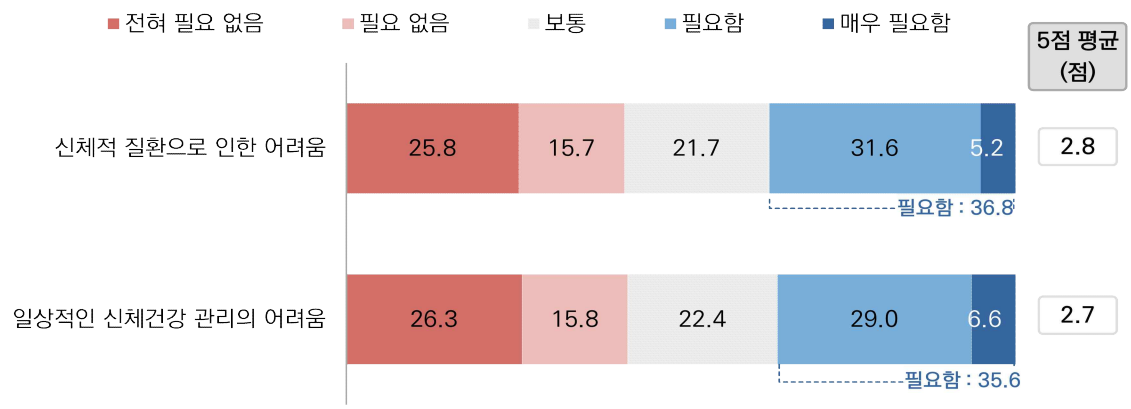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1.9	1.8	1.9	2.1	1.6	1.9	1.8	1.9	1.9	2.2	1.8	1.9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의 어려움	1.8	1.7	1.9	2.0	1.5	1.8	1.7	1.8	1.7	2.2	1.8	1.8

(2) 신체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신체적 질환 어려움 관련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있어서 필요하다가 36.8%이며, 인천 평균 2.8점으로, 5기 평균 2.6점 보다 0.2점 상승함. 이는 신체적 질환에 대한 외부 지원 필요성이 증감함을 의미함
  - 지역별로는 동구(3.2점), 부평구(3.0점), 남동구(2.9점)가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구(2.3점)는 가장 낮음. 대부분 군·구는 2.5~2.9점 수준으로 나타남
-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 어려움에 대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있어서 필요하다가 35.6%이며, 인천시 평균 2.7점으로, 5기 2.6점 보다 소폭 상승함
  - 지역별로는 동구(3.3점), 부평구(2.9점), 남동구(2.9점)가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높으며, 서구(2.2점)는 가장 낮음. 대부분 군·구는 2.5~2.7점 수준으로 평균에 근접함

[그림 3-53] 신체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



[표 3-98] 신체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25.8	15.7	21.7	31.6	5.2	2.8	2.6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의 어려움	26.3	15.8	22.4	29.0	6.6	2.7	2.6

[표 3-99]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2.8	2.7	3.2	2.8	2.5	2.9	3.0	2.7	2.3	2.8	2.5	2.6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의 어려움	2.7	2.6	3.3	2.7	2.6	2.9	2.9	2.7	2.2	2.8	2.5	2.6

(3) 신체건강 IPA 결과

- 신체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이 높고, 외부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IPA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

[그림 3-54] 인천시 전체 신체건강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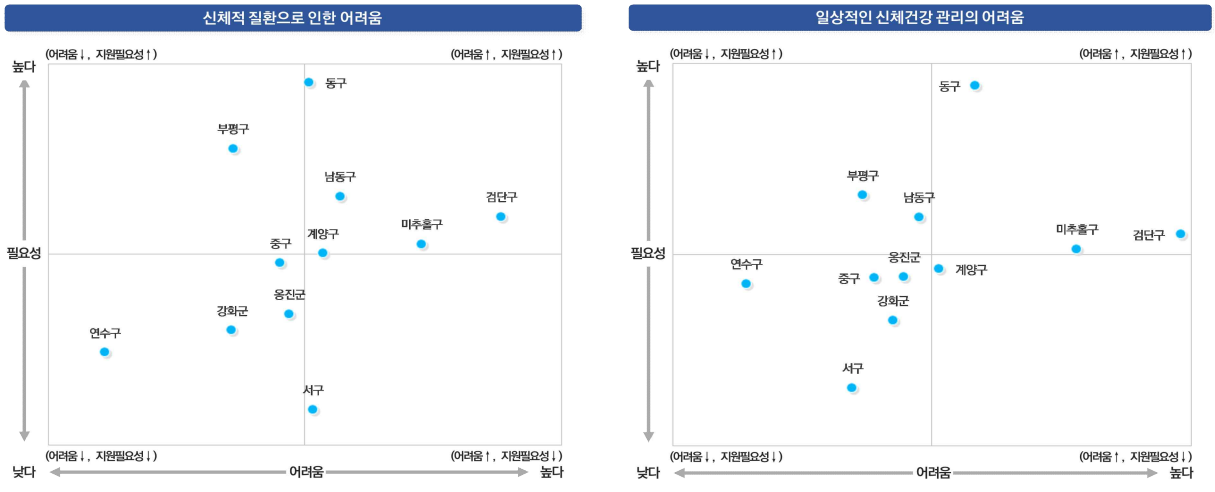
-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IPA 분석 결과

  - 동구, 남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검단구는 신체적 질환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인됨. 이들 지역은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보건소 기능 강화, 만성질환자 대상 집중 지원이 필요함. 반면에 서구는 신체적 질환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낮은 지역으로 기초 건강관리 정보 제공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함

  - 동구, 미추홀구, 검단구는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확인됨. 이들 지역은 건강관리 교육 확대,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반면 계양구는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낮은 지역으로 기초적 건강정보 제공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함

[그림 3-55]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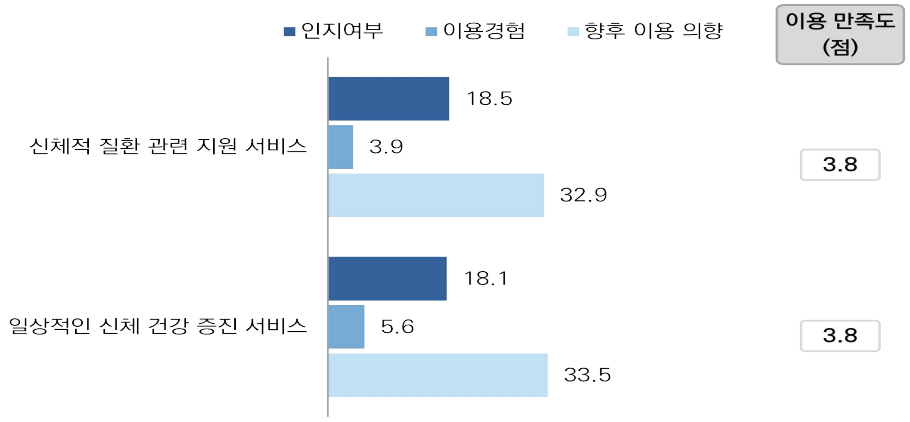
(4) 신체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의 인지율과 이용률은 낮지만, 향후 수요와 만족도는 높아 서비스 홍보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신체적 질환관련 지원서비스'의 인지율은 18.5%, '일상적인 신체건강 증진서비스' 18.1%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경험률은 '신체적 질환관련 지원서비스' 3.9%, '일상적인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5.6%로 '일상적인 신체 건강증진서비스'의 경험률이 2.0%p 높게 나타남
- 이에 두 서비스 모두 만족도는 각각 3.8점으로 5점 척도 평균인 3점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비스 이용 의향에 있어서도 각각 32.9~33.5%로 높게 나타남
- 5기와 비교해서 '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는 인지율은 1.4%p 낮았지만, 이용률은 1.9%p 증가했고, 향후 이용의향은 31.3%p 높아짐
-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서비스'는 인지율은 2.1%p, 경험률 3.6%p, 향후 이용 의향은 3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신체건강 관련 사회보장지원 및 서비스가 4년 전에 비해 인지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이용 경험률이 상승하고,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3-56] 신체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단위 : %)



[표 3-100] 신체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	18.5	3.9	234	3.8	32.9	19.9	2.0	1.6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18.1	5.6	337	3.8	33.5	16.0	2.0	1.6

● 인천시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 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해 중구(39.3%), 계양구(29.2%), 미추홀구(24.0%)가 높은 인지율을 보임. 반면 부평구(6.5%), 서구(8.5%), 강화군(10.3%)은 낮은 인지율을 보임
-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는 중구(40.3%), 계양구(28.2%), 미추홀구(23.8%)가 높은 인지율을 보임. 반면 부평구(6.5%), 강화군(7.3%), 서구(10.6%)는 낮은 인지율을 보임

[표 3-101]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	18.5	39.3	20.8	24.0	12.8	13.0	6.5	29.2	8.5	10.4	10.3	19.7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18.1	40.3	20.8	23.8	12.3	10.7	6.5	28.2	10.6	14.2	7.3	19.1

● 인천시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 향후 이용의향은 검단구(53.1%), 계양구(41.3%), 미추홀구(38.7%), 중구(37.2%)가 인천시 평균(32.9%)보다 높음. 반면 서구(20.0%), 남동구(27.7%), 동구(29.0%)는 상대적으로 낮음
-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향후 이용의향은 검단구(53.1%), 계양구(41.3%), 미추홀구(38.2%), 중구(37.2%)가 인천시 평균(33.5%)보다 높은 이용 의향을 보임. 반면 남동구(25.7%), 동구(27.1%), 부평구(27.7%)는 낮은 수준임

[표 3-102]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	32.9	37.2	29.0	38.7	30.2	27.7	29.8	41.3	20.0	53.1	31.2	29.6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33.5	37.2	27.1	38.2	33.8	25.7	27.7	41.3	29.7	53.1	35.0	29.8

● 인천시 군·구별 신체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가관리가 가능함(38.6%), 혼자 하는 것이 편해서(10.9%),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10.3%)로 나타남
-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가관리가 가능함(29.2%), 혼자 하는 것이 편해서(13.9%),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13.1%)로 나타남

[표 3-103]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	184	자가관리가 가능함	38.6	혼자하는 것이 편해서	10.9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0.3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137	자가관리가 가능함	29.2	혼자하는 것이 편해서	13.9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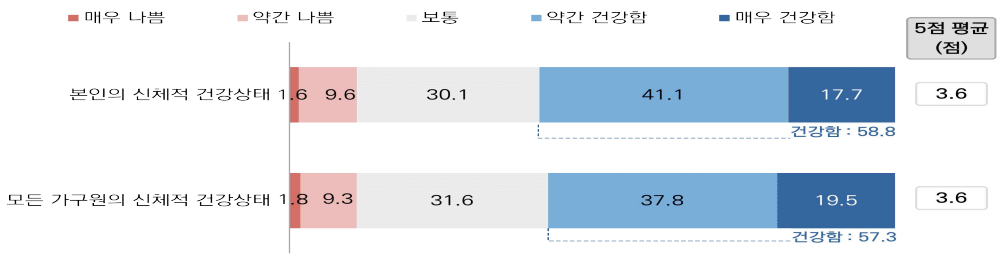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5) 본인 및 가구원 건강상태 및 필요 의료서비스

-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있어서 '건강하다'가 58.8%, '모든 가구원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건강하다'는 응답이 57.3%로 과반수 이상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반면, 응답자의 11.4%가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11.1%가 가구원 모두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응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3-57] 본인 및 가구원 건강상태

(단위 : %)



[표 3-104] 본인 및 가구원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전체(n=6,058)					
	매우 나쁨	약간 나쁨	보통	약간 건강함	매우 건강함	평균 (점/5점)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1.6	9.6	30.1	41.1	17.7	3.6
모든 가구원의 신체적 건강상태	1.8	9.3	31.6	37.8	19.5	3.6

- 군·구별 본인 및 가구원 건강상태

-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연수구(3.9점), 남동구(3.8점), 강화군(3.8점), 부평구(3.7점)는 인천 평균(3.6점)보다 높아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함. 중구, 미추홀구, 계양구(3.6점)은 전체 평균과 동일하며, 동구, 서구(3.5점), 검단구, 옹진군(3.4점)은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모든 가구원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강화군(4.0점), 연수구(3.9점), 남동구(3.7점)는 인천 평균보다 높아 가구원 전체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함.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3.6점)는 평균과 동일하며, 중구,

계양구, 검단구, 옹진군(3.5점), 서구(3.4점)는 평균보다 낮은 지역임

[표 3-105] 군·구별 본인 및 가구원 건강상태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3.6	3.6	3.5	3.6	**3.9**	**3.8**	3.7	3.6	3.5	3.4	**3.8**	3.4
모든 가구원의 신체적 건강상태	3.6	3.5	3.6	3.6	**3.9**	3.7	3.6	3.5	3.4	3.5	**4.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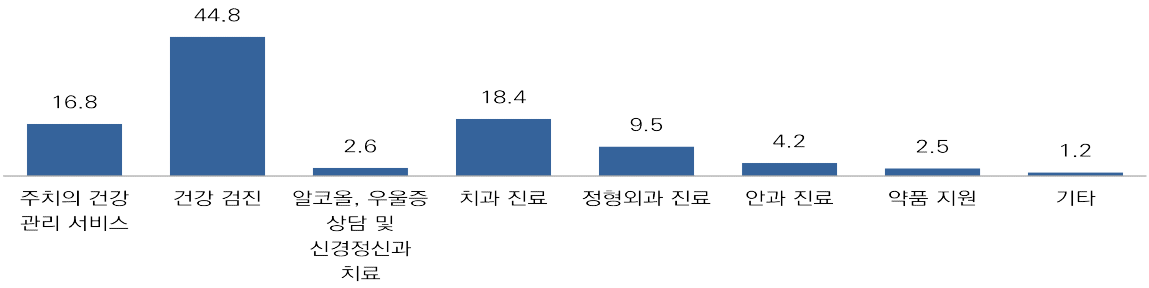
(6)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

-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건강검진 4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과진료 18.4%, 주치의 건강관리 16.8%, 정형외과 진료 9.5%, 안과진료 4.2%, 알코올 및 우울증 상담 및 신경정신과 치료 2.6%, 약품 지원 2.5% 순으로 나타남. 건강검진은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며,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함

- 지역별로 건강검진은 중구(69.5%), 남동구(60.3%), 서구(55.0%), 옹진군(50.0%)이 높은 수요를 보이는 지역으로 이는 예방적 건강관리와 조기 진단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높음을 의미함. 중구는 특히 건강검진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아, 집중적 검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치과 진료는 강화군(26.5%), 연수구(25.2%), 부평구(24.3%), 미추홀구(23.0%)가 인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이들 지역은 구강 건강에 대한 지역적 수요가 높고, 치과 접근성 확대가 요구됨
- 주치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검단구(43.8%), 부평구(32.0%), 동구(19.4%)가 높게 나타남. 특히 검단구는 주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지역 기반 주치의 제도 도입이 검토가 필요함
- 정형외과 진료는 계양구(19.3%), 미추홀구(14.8%), 연수구(12.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안과 진료는 연수구(8.0%), 강화군(7.5%)에서 높게 나타남.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시력 관련 진료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알코올·우울증 상담 및 신경정신과 치료는 서구(9.1%), 동구(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약품 지원은 동구(6.6%), 서구(3.8%)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3-58]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

(단위 : %)



[표 3-106] 인천시 군·구별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주치의 건강 관리 서비스	건강 검진	알코올, 우울증 상담 및 신경정신과 치료	치과 진료	정형외과 진료	안과 진료	약품 지원	기타
전체	6,058	16.8	44.8	2.6	18.4	9.5	4.2	2.5	1.2
중구	600	17.3	69.5	2.7	6.5	3.0	0.7	0.3	0.0
동구	620	19.4	36.0	6.8	17.1	10.6	3.4	6.6	0.2
미추홀구	600	11.5	40.8	1.7	23.0	14.8	4.2	2.7	1.3
연수구	600	8.8	34.0	1.5	25.2	12.5	8.0	3.8	6.2
남동구	600	10.5	60.3	1.0	16.8	6.3	3.3	1.7	0.0
부평구	600	32.0	32.3	0.2	24.3	5.5	1.5	1.7	2.5
계양구	600	16.3	33.5	3.0	19.0	19.3	6.2	1.3	1.3
서해구	340	15.3	55.0	9.1	10.9	4.1	1.8	3.8	0.0
검단구	260	43.8	38.1	1.9	12.7	2.7	0.4	0.4	0.0
강화군	600	6.8	43.3	1.3	26.5	11.5	7.5	2.7	0.3
옹진군	638	17.9	50.0	1.9	14.6	7.7	6.1	1.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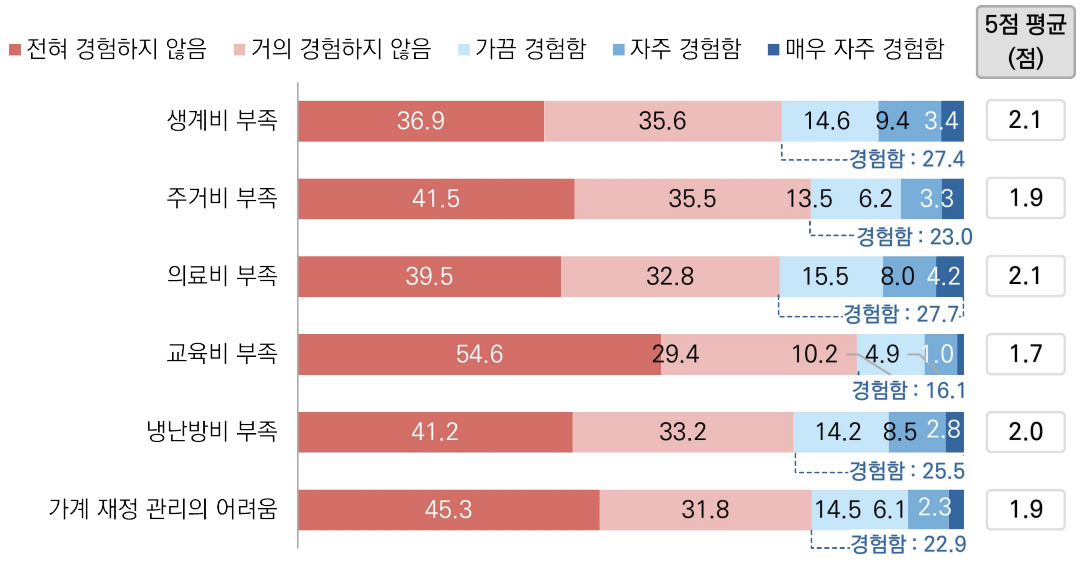
7) 기초생활 유지

(1) 기초생활 유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항목 중 어려움을 가끔이나 자주 혹은 매우 자주 경험한다는 응답이 의료부족이 27.7%로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계비 부족 27.4%, 냉 · 난방비 부족 25.5%, 주거비부족 23.0%,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22.9%, 교육비 부족 16.1%순으로 나타남
- 4년 전(5기)에 비해 기초생활 유지 관련 어려움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의료비나 생계비로 인한 어려움을 자주 경험하는 비율이 10% 수준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3-59] 기초생활유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



[표 3-107] 기초생활유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생계비 부족	36.9	35.6	14.6	9.4	3.4	2.1	2.4
주거비 부족	41.5	35.5	13.5	6.2	3.3	1.9	2.3
의료비 부족	39.5	32.8	15.5	8.0	4.2	2.1	2.3
교육비 부족	54.6	29.4	10.2	4.9	1.0	1.7	1.8
냉난방비 부족	41.2	33.2	14.2	8.5	2.8	2.0	2.2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45.3	31.8	14.5	6.1	2.3	1.9	2.2

●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지역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미추홀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건단구로 나타났으며, 중구와 서해구, 옹진군, 강화군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경험이 낮은 지역임
- 생계비 부족문제의 인천시 평균은 2.1점이며, 미추홀구(2.3점), 동구·부평구·검단구(2.2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중구·강화군은 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비 부족 문제의 인천시 평균은 1.9점이며, 동구·미추홀구(2.1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서구·남동구·옹진군은 1.7~1.8점으로 낮은 편임
- 의료비 부족 문제의 인천시 평균은 2.1점이며, 검단구(2.5점)가 가장 높아 의료비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미추홀구·연수구(2.2점)도 높은 지역인 반면 서구(1.7점), 중구(1.8점)은 상대적으로 낮음
- 교육비 부족 문제의 인천시 평균은 1.7점이며, 동구(1.9점), 남동구(1.9점)가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검단구·옹진군(1.3점)은 가장 낮음
- 냉난방비 부족 문제의 인천시 평균은 2.0점이며, 미추홀구·계양구·강화군(2.1점)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서구(1.7점), 중구(1.8점)은 낮은 편임
- 가계 재정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인천시 평균은 1.9점이며,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2.1점)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서구(1.7점), 중구·동구·부평구(1.8점)은 낮은 편임

[표 3-108]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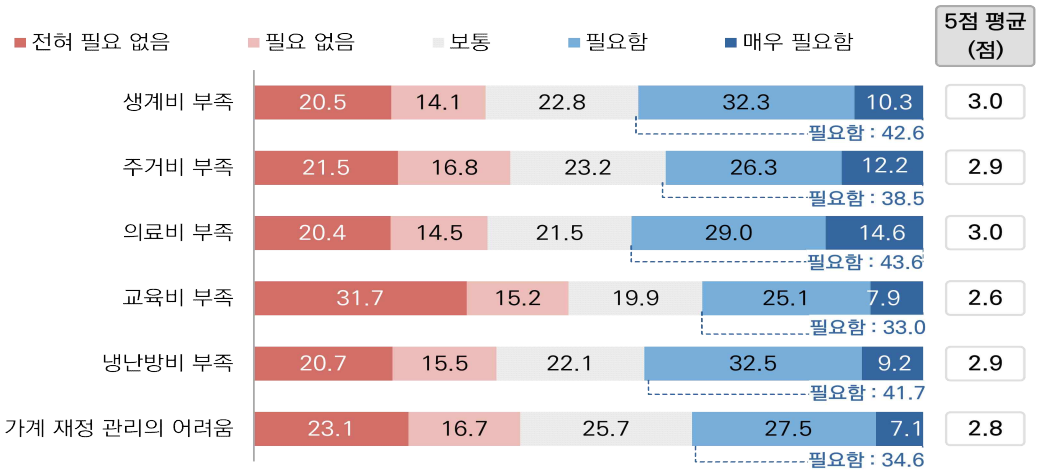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생계비 부족	2.1	1.9	**2.2**	**2.3**	2.0	2.1	**2.2**	2.1	2.0	2.2	1.9	2.0
주거비 부족	1.9	1.9	**2.1**	**2.1**	2.0	1.8	**2.0**	**2.0**	1.8	**2.0**	1.9	1.7
의료비 부족	2.1	1.8	2.1	**2.2**	**2.2**	2.1	2.0	**2.1**	1.7	**2.5**	2.0	1.9
교육비 부족	1.7	1.7	**1.9**	**1.8**	**1.8**	**1.9**	1.7	**1.8**	1.6	1.3	1.6	1.3
냉난방비 부족	2.0	1.8	**2.0**	**2.1**	**2.0**	1.9	**2.0**	**2.1**	1.7	**2.0**	**2.1**	**2.0**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1.9	1.8	1.8	**2.1**	**2.1**	**2.0**	1.8	**2.1**	1.7	1.9	1.8	1.8

(2) 기초생활유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기초생활유지 관련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하다는 응답이 ㅇ의료비 부족이 4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계비 부족 42.6%, 냉·난방비부족 41.7%, 주거비부족 38.5%, 가계 재정관리의 어려움 34.6%, 교육비 부족 33.0% 순임
- 기초생활 유지와 관련한 어려움은 4년 전(5기)보다 낮아졌지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생계비와 의료비 부족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은 4년 전에 비해 0.1점 높아졌으며, 교육비, 냉·난방비 부담,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이 각각 0.2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0] 기초생활유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



[표 3-109] 기초생활유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생계비 부족	20.5	14.1	22.8	32.3	10.3	3.0	2.9
주거비 부족	21.5	16.8	23.2	26.3	12.2	2.9	2.9
의료비 부족	20.4	14.5	21.5	29.0	14.6	3.0	2.9
교육비 부족	31.7	15.2	19.9	25.1	7.9	2.6	2.4
냉난방비 부족	20.7	15.5	22.1	32.5	9.2	2.9	2.7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23.1	16.7	25.7	27.5	7.1	2.8	2.6

- 군·구별 기초생활 유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지역별 기초생활 유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있어서 부평구와 동구가 가장 높았고, 중구와 옹진군, 검단구, 서해구, 강화군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생계 지원서비스는 부평구(3.6점), 동구(3.5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2.6점)은 가장 낮음
  - 주거비 지원 서비스는 동구(3.7점), 부평구(3.6점)가 가장 높았으며, 서구·검단구(2.4점)는 가장 낮음

-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동구(3.7점), 부평구(3.5점)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구·서구(2.6점)는 낮음
- 교육비 지원 서비스는 동구(3.5점), 연수구·남동구·부평구(3.0점)의 지원 필요성 인식이 높으며, 검단구(1.7점), 옹진군(2.0점)은 낮음
-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는 동구·부평구(3.5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구(2.4점)는 가장 낮음
- 가계 재정 관리 지원서비스는 동구(3.3점), 연수구(3.1점), 부평구(3.0점), 남동구(2.9점)가 높았으며, 중구·서구·검단구(2.4점)는 낮음

[표 3-110] 인천시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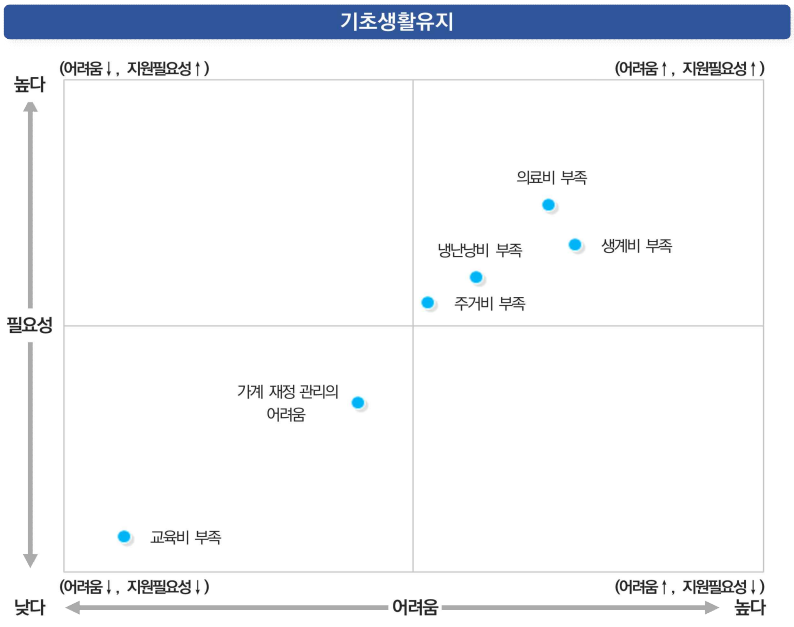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생계비 부족	3.0	2.6	**3.5**	3.1	3.0	3.1	**3.6**	3.0	2.6	2.7	2.7	2.7
주거비 부족	2.9	2.6	**3.7**	3.0	3.1	2.8	**3.6**	2.9	2.4	2.4	2.6	2.5
의료비 부족	3.0	2.6	**3.7**	3.1	3.2	3.1	**3.5**	2.9	2.6	2.9	2.7	2.7
교육비 부족	2.6	2.4	**3.5**	2.6	**3.0**	**3.0**	**3.0**	2.6	2.1	1.7	2.3	2.0
냉난방비 부족	2.9	2.6	**3.5**	2.8	3.1	3.1	**3.5**	2.8	2.4	2.6	2.7	2.7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2.8	2.4	**3.3**	2.9	3.1	2.9	**3.0**	2.8	2.4	2.4	2.5	2.5

(3) 기초생활유지 IPA 결과

- 기초생활유지에서 어려움이 높고, 외부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 파악을 위해 IPA분석을 수행한 결과, '의료비'과 '생계비', '냉 · 난방비', '주거비'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1] 인천시 전체 기초생활유지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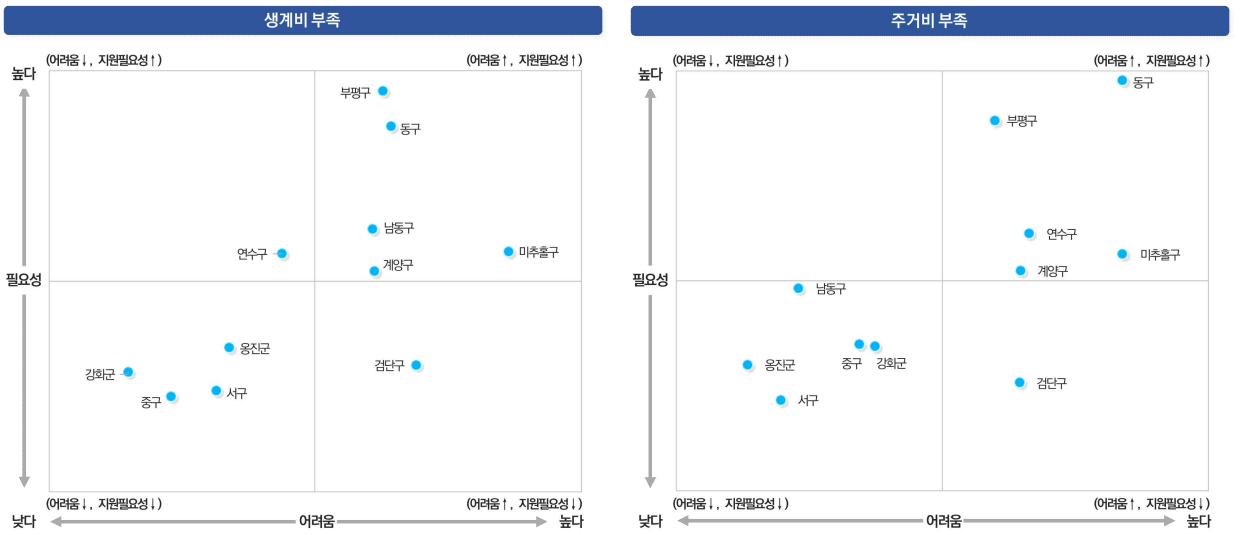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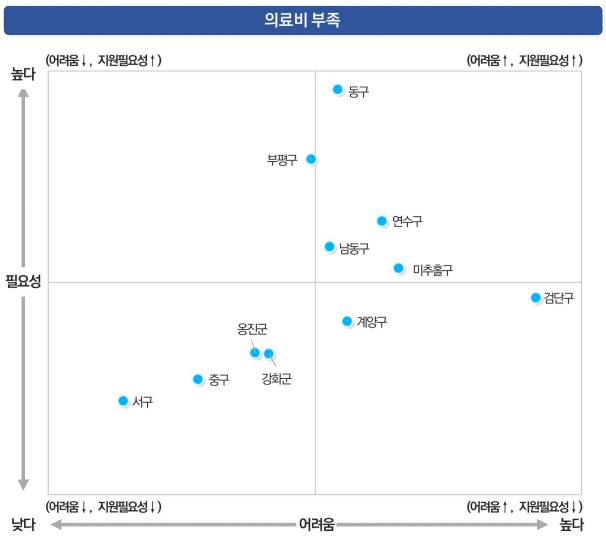
- 군·구별 기초생활유지의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IP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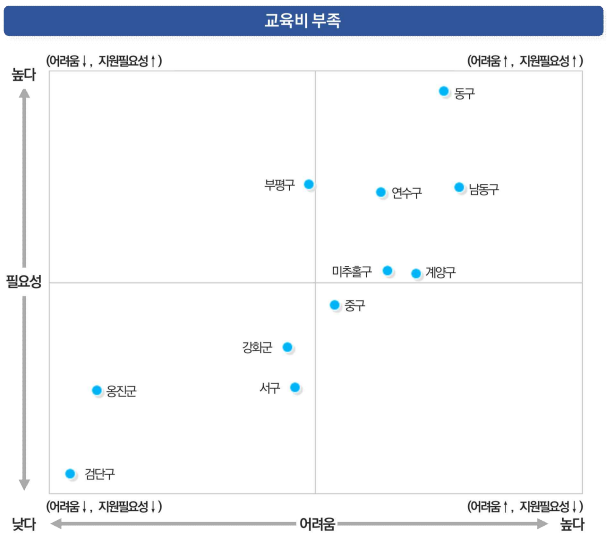
- 부평구·동구·남동구·계양구·미추홀구는 생계비 부족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인됨. 반면에 검단구는 생계비 부족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동구·부평구·연수구·계양구·미추홀구는 주거비 부족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인됨. 반면에 검단구는 주거비 부족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동구·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는 의료비 부족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인됨. 반면에 계양구·검단구는 의료비 부족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동구·남동구·연수구·계양구·미추홀구는 교육비 부족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인됨. 반면에 중구는 교육비 부족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동구·연수구는 냉난방비 부족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인됨. 반면에 계양구·미추홀구·옹진군·강화군은 냉난방비 부족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계양구는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인됨. 반면에 검단구는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3-62] 인천시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IPA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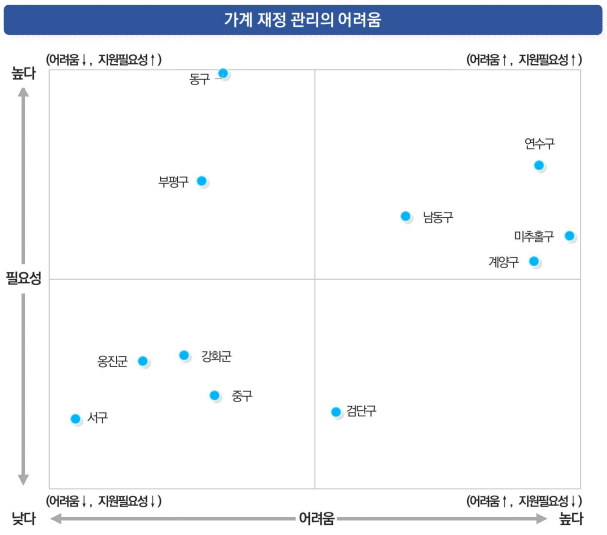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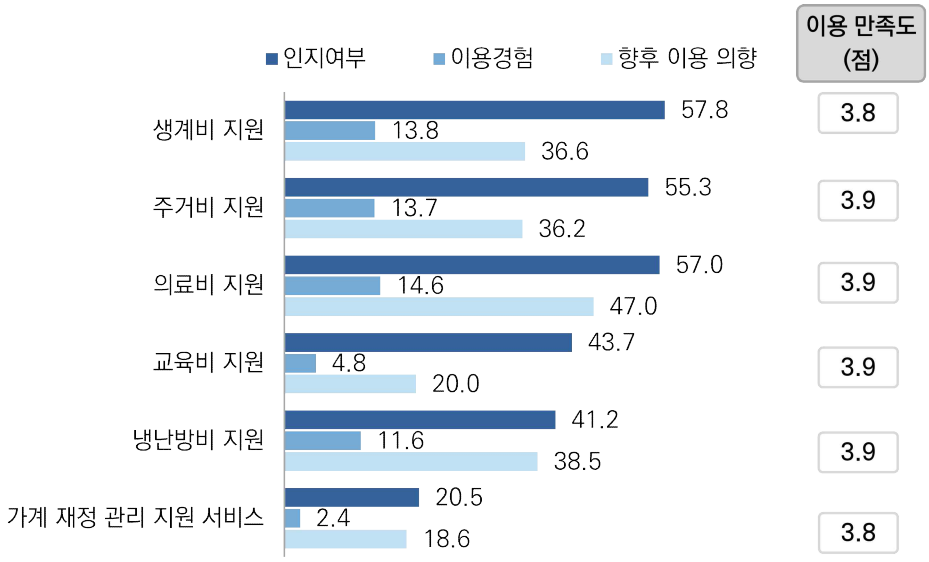
(4)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인천시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경우 '의료비 지원'은 인지율,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만족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집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생계비·주거비·냉난방비 지원도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보이며, 지속적 강화가 요구됨. 반면 교육비와 재정관리 서비스는 낮은 인지율과 이용 경험을 보여, 홍보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서비스별 인지 여부는 생계비 지원(57.8%), 의료비 지원(57.0%), 주거비 지원(55.3%), 교육비 지원(43.7%), 냉난방비 지원(41.2%), 가계 재정 관리지원 서비스(20.5%) 순으로 나타남
- 이용경험 분석결과, 의료비 지원(14.6%), 생계비 지원(13.8%), 주거비 지원(13.7%), 냉난방비 지원(11.6%) 교육비 지원(4.8%), 가계 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2.4%) 순으로 나타남. 서비스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음
-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주거비 지원,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은 모두 평균 3.9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함. 다음으로는 생계비 지원은 평균 3.8점, 가계 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도 평균 3.8점으로 나타남

- 향후 이용 의향은 의료비 지원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냉난방비 지원은 38.5%, 생계비 지원 36.6%, 주거비 지원 36.2%, 교육비 지원은 20.0%, 가계 재정 관리지원 18.6% 순으로 나타남
- 4년 전(5기)에 비해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에 대한 인지율은 모든 항목에서 감소했으며, 이용 경험률은 냉 · 난방비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감소함. 향후 이용 의향의 경우 가계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3]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단위 : %)



[표 3-111]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생계비 지원	57.8	13.8	837	3.8	36.6	66.0	18.8	50.6
주거비 지원	55.3	13.7	831	3.9	36.2	59.3	15.7	48.2
의료비 지원	57.0	14.6	884	3.9	47.0	66.7	18.1	60.2
교육비 지원	43.7	4.8	290	3.9	20.0	52.9	8.6	33.4
냉난방비 지원	41.2	11.6	705	3.9	38.5	39.9	9.9	41.6
가계 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	20.5	2.4	148	3.8	18.6	21.1	3.1	27.7

-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여부

- 지역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계양구와 남동구, 미추홀구 에서 모든 항목에 대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평구와 서구, 중구, 연수구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인지여부가 높게 나타남. 이에 반해, 검단구와 강화군, 동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율을 보임

- 생계비 지원 서비스 인지율은 계양구(74.7%), 남동구(67.2%), 부평구(61.5%), 연수구(61.3%)가 높았으며, 강화군(41.5%), 검단구(43.5%)는 낮음
- 주거비 지원 서비스 인지율은 계양구(73.5%), 부평구(63.0%), 중구(60.2%)가 높았으며, 강화군(37.5%), 검단구(44.6%)는 낮음
-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인지율은 계양구(73.3%), 남동구(68.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동구(41.6%), 검단구(41.9%)는 낮음
- 교육비 지원 서비스 인지율은 계양구(65.0%), 중구(53.8%), 부평구(50.0%)가 높았으며, 검단구(29.6%), 강화군(29.3%)은 낮음
-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인지율은 계양구(63.0%), 남동구(47.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검단구(20.8%), 서구(28.8%)는 낮음
- 가계 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 인지율은 계양구(43.0%), 미추홀구(30.7%), 남동구(26.8%)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검단구(8.1%), 서구(12.1%), 부평구(12.3%)는 낮음

[표 3-112]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생계비 지원	57.8	60.8	45.6	61.2	61.3	**67.2**	61.5	**74.7**	62.9	43.5	41.5	50.8
주거비 지원	55.3	60.2	44.7	58.2	54.7	60.0	**63.0**	**73.5**	61.5	44.6	37.5	48.0
의료비 지원	57.0	59.7	41.6	61.3	54.3	**68.8**	50.5	**73.3**	60.6	41.9	49.7	58.3
교육비 지원	43.7	**53.8**	27.7	49.3	35.8	49.0	50.0	**65.0**	38.2	29.6	29.3	42.6
냉난방비 지원	41.2	37.5	33.9	45.0	32.2	**47.8**	41.0	**63.0**	28.8	20.8	44.2	42.0
가계 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	20.5	20.8	17.9	**30.7**	16.5	26.8	12.3	**43.0**	12.1	8.1	11.0	16.3

● 군·구별 인천시 기초생활 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

- 지역별 기초생활 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률은 계양구, 서해구가 가장 높았고, 이용 경험률이 낮은 지역으로 중구와 부평구가 해당됨
- 생계비 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은 미추홀구(20.8%), 남동구(18.2%), 동구(17.6%), 계양구(17.5%)가 인천 평균보다 높았으며, 중구(6.2%), 부평구(6.8%)는 낮음
- 주거비 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은 계양구(19.0%), 미추홀구(19.7%), 동구(18.2%), 연수구(17.8%)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며, 옹진군(3.9%)은 이용경험이 가장 낮음. 이는 도심 지역에서 주거비 지원 이용경험이 높으며, 도서 지역은 낮은 것으로 해석됨
-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은 남동구(25.7%), 미추홀구(21.8%)가 높았으며, 중구(1.7%)는 이용경험이 가장 낮음
- 교육비 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은 계양구(10.3%), 서구(7.6%)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구(1.2%), 부평구(1.3%)는 낮음
-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은 강화군(23.8%), 계양구(15.5%) 순으로 높았으며, 중구(5.0%), 검단구(6.9%)는 낮은 경향을 보임. 강화군은 냉난방비 지원 이용경험이 압도적으로 높아 농촌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가계 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은 동구(7.4%), 계양구(6.0%)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구·부평구(0.0%)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3-113]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생계비 지원	13.8	6.2	17.6	**20.8**	16.0	**18.2**	6.8	17.5	13.5	11.2	10.8	11.8
주거비 지원	13.7	8.5	18.2	**19.7**	17.8	14.0	9.7	**19.0**	15.9	14.6	11.5	3.9
의료비 지원	14.6	1.7	16.0	**21.8**	16.3	**25.7**	6.5	16.2	16.5	14.2	16.2	10.3
교육비 지원	4.8	1.2	6.5	4.3	2.7	6.0	1.3	**10.3**	7.6	5.4	6.2	2.8
냉난방비 지원	11.6	5.0	10.8	9.8	8.3	13.3	7.2	**15.5**	12.4	6.9	**23.8**	12.5
가계 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	2.4	-	**7.4**	2.5	3.7	0.2	-	**6.0**	2.6	1.9	1.7	0.6

-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

- 지역별 기초생활 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계양구와 연수구, 강화군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부평구와 동구가 이에 해당함
- 생계비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검단구(4.3점), 계양구(4.3점), 강화군(4.2점)가 높았으며, 동구(3.2점), 부평구(3.1점)는 낮음
- 주거비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계양구(4.3점), 연수구(4.3점), 검단구(4.1점)가 높았으며, 동구(3.3점)는 낮음
-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계양구(4.4점), 강화군(4.2점), 연수구(4.1점)가 높았으며, 중구(3.4점), 동구(3.4점)는 낮음.
- 교육비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연수구(4.3점), 미추홀구(4.2점), 강화군(4.2점)가 높았으며, 동구(3.3점), 중구(3.6점)는 낮음
-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계양구(4.3점), 연수구(4.2점), 부평구(4.1점)가 높았으며, 동구(3.3점), 검단구(3.3점)는 낮음
- 가계 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계양구(4.4점), 연수구(4.4점), 미추홀구(4.3점)가 높았으며, 동구(3.1점), 옹진군(3.5점)는 낮음

[표 3-114]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생계비 지원	3.8	3.8	3.2	3.8	4.1	3.9	3.1	**4.3**	3.7	**4.3**	**4.2**	3.8
주거비 지원	3.9	3.8	3.3	3.8	**4.3**	3.8	3.6	**4.3**	3.7	**4.1**	3.9	3.5
의료비 지원	3.9	3.4	3.4	3.8	4.1	3.8	3.6	**4.4**	3.7	3.9	**4.2**	3.6
교육비 지원	3.9	3.6	3.3	**4.2**	**4.3**	3.8	3.9	4.0	3.6	3.7	**4.2**	3.7
냉난방비 지원	3.9	3.9	3.3	3.8	**4.2**	3.8	4.0	**4.3**	3.4	3.3	4.0	3.7
가계 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	3.8	-	3.1	**4.3**	**4.4**	4.0	-	**4.4**	3.7	3.6	3.6	3.5

-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별 향후 이용 의향

- 생계비 지원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은 연수구(47.7%), 계양구(43.3%), 검단구(41.5%)가 높았으며, 중구(20.3%), 강화군(28.5%)은 낮음

- 주거비 지원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은 연수구(50.0%), 계양구(43.7%), 미추홀구(41.0%)가 높았으며, 중구(21.3%), 옹진군(25.5%)은 낮음
- 의료비 지원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은 강화군(56.7%), 연수구(55.7%), 검단구(53.5%)가 높았으며, 중구(25.3%), 동구(45.6%)는 상대적으로 낮음
- 교육비 지원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은 계양구(30.8%), 연수구(30.7%), 미추홀구(27.3%)가 높았으며, 중구(11.7%), 부평구(13.2%)는 낮음
-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은 강화군(55.2%), 부평구(51.3%), 연수구(44.5%)가 높았으며, 중구(20.7%), 서해구(22.1%)는 낮음
- 가계 재정 관리지원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은 계양구(24.2%), 미추홀구(23.8%), 연수구(33.3%)가 높았으며, 중구(9.3%), 부평구(9.8%)는 낮음

[표 3-115] 군·구별 기초생활유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생계비 지원	36.6	20.3	40.2	37.5	**47.7**	37.0	40.3	**43.3**	39.1	41.5	28.5	30.9
주거비 지원	36.2	21.3	36.0	41.0	**50.0**	32.7	39.5	**43.7**	38.5	35.4	36.3	25.5
의료비 지원	47.0	25.3	45.6	50.7	**55.7**	48.0	47.0	49.0	42.6	**53.5**	56.7	44.7
교육비 지원	20.0	11.7	18.4	27.3	**30.7**	16.3	13.2	**30.8**	15.9	13.8	20.8	16.3
냉난방비 지원	38.5	20.7	41.9	31.7	44.5	32.2	**51.3**	41.5	22.1	26.2	**55.2**	42.2
가계 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	18.6	9.3	11.5	23.8	**33.3**	13.2	9.8	24.2	19.4	20.4	**29.2**	12.1

● 인천시 기초생활유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생계비 지원 서비스는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53.4%)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19.4%),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15.4%) 순임
- 주거비 지원 서비스는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48.2%)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20.3%),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15.2%) 순임
-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44.7%)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22.5%),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17.7%) 순임
- 교육비 지원 서비스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27.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25.1%),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16.4%) 순임
-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29.2%),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27.4%),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27.0%)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가계 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33.9%)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이어서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23.8%),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19.0%) 순으로 나타남

[표 3-116] 기초생활유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생계비 지원	423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	53.4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19.4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	15.4
주거비 지원	330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	48.2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20.3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	15.2
의료비 지원	418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	44.7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22.5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	17.7
교육비 지원	171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27.5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	25.1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	16.4
냉난방비 지원	281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29.2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	27.4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	27.0
가계 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	168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33.9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	23.8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	19.0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해당사항 없음 포함 100%

(5) 사회보장 서비스 인지 여부와 신청 현황

-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지율이 63.7%로 가장 높았고, 국민기초생활보신청경험은 14.6%이며, 실제 이용 급여는 생계급여(78.7%), 주거급여(70.5%), 의료급여(63.4%) 순으로 높음. 교육급여는 10.6%로 낮음. 향후 이용 의향은 30.8%로 나타남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인지율이 38.8%, 신청경험은 2.0%로 낮음. 이용 급여는 생계급여(52.5%), 주거급여(32.0%), 의료급여(23.0%) 순이며, 교육급여는 8.2%로 매우 낮음. 향후 이용 의향은 24.0%임. 인지도 대비 신청률이 낮고, 생계급여 중심의 이용이 이루어짐
- (인천형)디딤돌안정소득지원은 인지율이 21.2%, 신청경험은 0.7%로 매우 낮음. 이용 급여는 주거급여(34.1%)가 가장 높고, 생계·의료·교육급여는 각각 15.9%, 13.6%, 13.6%로 고르게 나타남. 향후 이용 의향은 17.5%임. 인지도와 신청률이 낮아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주거급여 중심의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형) SOS 긴급복지지원은 인지율이 18.2%, 신청률은 0.5%로 가장 낮음. 이용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모두 10.3%로 동일하며, 해당없음 응답이 58.6%로 매우 높음. 향후 이용 의향은 14.7%임. 인지도·신청률·이용률 모두 낮고,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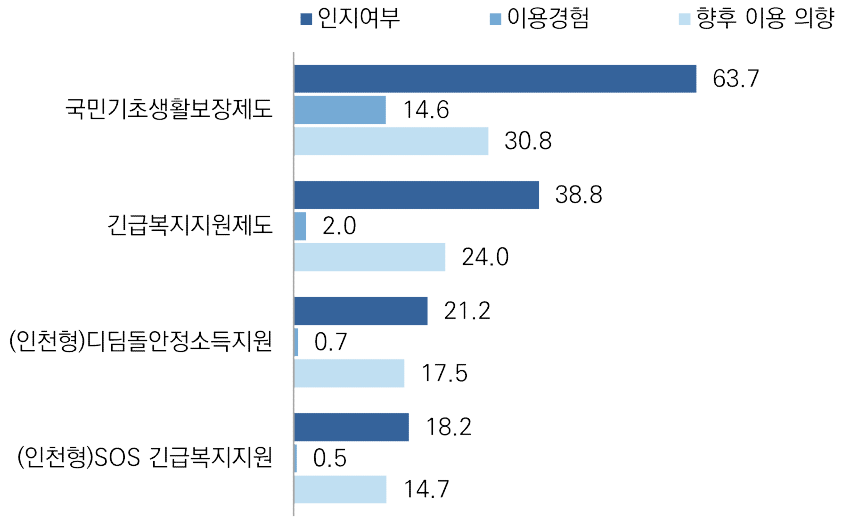
[표 3-117] 사회보장서비스 인지여부와 신청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인지여부	신청	이용 급여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당없음	'있음'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3.7	14.6	886	78.7	70.5	63.4	10.6	2.5	30.8
긴급복지지원제도	38.8	2.0	122	52.5	32.0	23.0	8.2	30.3	24.0
(인천형)디딤돌안정소득지원	21.2	0.7	44	15.9	34.1	13.6	13.6	43.2	17.5
(인천형)SOS 긴급복지지원	18.2	0.5	29	20.7	10.3	10.3	10.3	58.6	14.7

[그림 3-64] 사회보장서비스 인지여부와 신청현황

(단위 : %)



● 군·구별 사회보장서비스 인지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율은 검단구(79.6%), 계양구(75.0%), 서해구(74.1%)가 높았으며, 강화군(49.5%), 옹진군(50.5%), 동구(52.4%)는 낮음
- 긴급복지지원제도 인지율은 계양구(59.0%), 서해구(52.4%), 연수구(48.3%)가 높았으며, 강화군(14.3%), 중구(24.2%)는 낮음
- (인천형) 디딤돌안정소득지원 인지율은 계양구(48.3%), 미추홀구(31.0%)가 높았으며, 부평구(7.0%), 강화군(12.7%)은 낮음
- (인천형) SOS 긴급복지지원 인지율은 계양구(45.7%), 미추홀구(30.3%)가 높았으며, 부평구(3.8%), 강화군(6.0%)은 낮음

[표 3-118] 군·구별 사회보장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3.7	54.3	52.4	70.7	73.7	69.3	66.5	**75.0**	74.1	**79.6**	49.5	50.5
긴급복지지원제도	38.8	24.2	36.6	41.7	48.3	47.2	40.2	**59.0**	**52.4**	39.2	14.3	30.3
(인천형)디딤돌안정소득지원	21.2	20.2	16.9	31.0	19.3	**26.3**	7.0	**48.3**	14.7	16.9	12.7	15.4
(인천형)SOS 긴급복지지원	18.2	13.0	11.8	30.3	14.2	**26.5**	3.8	**45.7**	10.6	16.5	6.0	17.6

● 군·구별 사회보장서비스 신청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률은 동구(24.4%), 미추홀구(19.8%), 연수구(18.2%), 남동구(18.3%)가 높았으며, 부평구(7.2%), 옹진군(8.6%), 강화군(9.8%)은 낮음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률은 연수구(5.8%), 서해구(5.6%), 계양구(3.0%)가 높았으며, 중구(0.3%), 동구(0.2%), 강화군(0.7%)은 낮음. 연수구와 서해구는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높은 반면 중구와 동구는 거의 없는 수준임
- (인천형) 디딤돌안정소득지원 신청률은 계양구(2.3%), 강화군(2.0%), 서해구(1.8%)가 높았으며, 응답자 중 중구·동구·부평구(0.0%)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형) SOS 긴급복지지원 신청률은 계양구(2.2%), 서해구(1.2%), 연수구(0.8%)가 높았으며, 중구·동구·남동구·부평구·옹진군(0.0%)은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률이 낮은 군·구(부평·강화·옹진)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인천형 제도는 홍보 및 안내 확대가 필요함

[표 3-119] 군·구별 사회보장서비스 신청현황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4.6	12.0	24.4	19.8	18.2	18.3	7.2	15.0	11.5	15.4	9.8	8.6
긴급복지지원제도	2.0	0.3	0.2	1.0	5.8	2.0	0.8	3.0	5.6	2.3	0.7	2.2
(인천형)디딤돌안정소득지원	0.7	-	-	0.2	1.2	0.3	-	2.3	1.8	0.4	2.0	0.2
(인천형)SOS 긴급복지지원	0.5	-	-	0.7	0.8	-	-	2.2	1.2	0.4	0.3	0.0

- 군·구별 사회보장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향후 이용 의향은 검단구(38.1%), 계양구(37.3%), 연수구(36.8%)가 높았으며, 중구(18.0%), 강화군(23.7%)은 낮음
- 긴급복지지원제도 향후 이용 의향은 검단구(33.8%), 계양구(32.8%), 서해구(32.4%)가 높았으며, 중구(11.0%), 옹진군(19.9%)은 낮음
- (인천형) 디딤돌안정소득지원 향후 이용 의향은 검단구(35.0%), 계양구(30.3%), 강화군(25.2%)이 높았으며, 중구(8.3%), 부평구(8.2%)는 낮음
- (인천형) SOS 긴급복지지원 향후 이용 의향은 검단구(31.9%), 계양구(27.0%), 미추홀구(20.5%)가 높았으며, 중구(7.2%), 동구(10.0%), 부평구(8.0%)는 낮음

[표 3-120] 군·구별 사회보장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0.8	18.0	33.7	36.5	36.8	33.3	22.3	37.3	35.9	38.1	23.7	29.5
긴급복지지원제도	24.0	11.0	21.6	25.3	28.5	20.3	25.2	32.8	32.4	33.8	22.3	19.9
(인천형)디딤돌안정소득지원	17.5	8.3	15.8	23.8	17.2	10.8	8.2	30.3	14.1	35.0	25.2	13.0
(인천형)SOS 긴급복지지원	14.7	7.2	10.0	20.5	17.0	9.5	8.0	27.0	11.2	31.9	14.7	13.0

- 인천시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과거 탈락 경험'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확인됨. 인천형 제도(디딤돌·SOS)는 '신청절차의 복잡성'과 '정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51.1%)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이어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27.3%),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17.7%), 경제적으로 도움 될 것 같지 않음(3.9%) 순임. 탈락 경험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함
  -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45.7%)이 가장 큰 이유임. 이어서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21.2%),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19.5%) 순임
  - 인천형 디딤돌안정소득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30.7%)이 가장 큰 이유임. 이어서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25.9%),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24.7%) 순임
  - (인천형) SOS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32.8%)이 가장 큰 이유임. 이어서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29.5%),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17.2%) 순으로 나타남

[표 3-121] 사회보장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56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	51.1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17.7	경제적으로 도움 될 것 같지 않음	3.9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			
긴급복지지원제도	302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	45.7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	21.2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19.5
(인천형)디딤돌안정소득지원	166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30.7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	25.9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	24.7
(인천형)SOS 긴급복지지원	122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32.8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	29.5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	17.2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해당사항 없음 포함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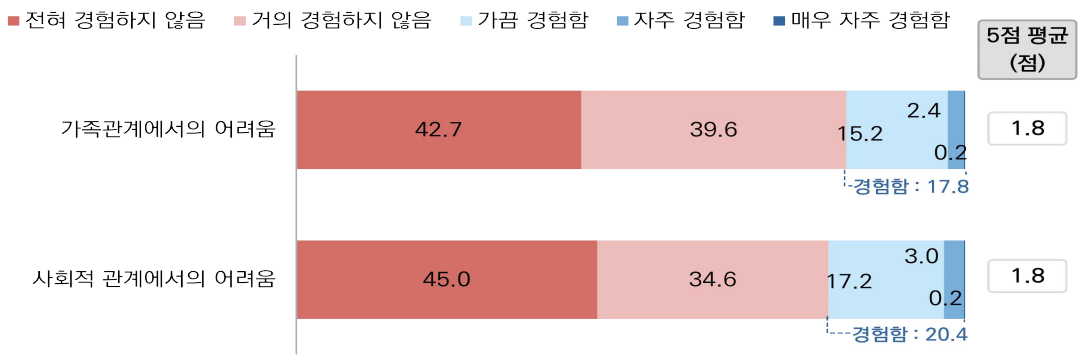
8) 가족/사회적 관계

(1)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가족관계 어려움에 비해 2.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42.7%)과 '거의 경험하지 않음'(39.6%)이 전체의 82.3%를 차지함. 어려움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1.8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제5기(1.9점)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다수는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45.0%)과 '거의 경험하지 않음'(34.6%)이 전체의 79.6%를 차지함. 평균 점수는 1.8점으로 가족관계의 어려움과 동일하며, 제5기(1.9점) 대비 소폭 감소함.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가족관계보다 약간 더 자주 경험되는 경향을 보임
- 4년 전(5기)에 비해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관련 어려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5]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



[표 3-122]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42.7	39.6	15.2	2.4	0.2	1.8	1.9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45.0	34.6	17.2	3.0	0.2	1.8	1.9

- 군·구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평균 점수는 남동구(2.1점), 미추홀구(1.9점), 서해구(1.9점)가 높았으며, 연수구(1.6점), 강화군(1.7점), 옹진군(1.6점)은 낮음
  -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평균 점수는 검단구(2.2점), 미추홀구(2.0점), 남동구(2.0점)가 높았으며, 연수구(1.6점), 옹진군(1.6점), 중구(1.7점)는 낮음

[표 3-123] 인천시 군·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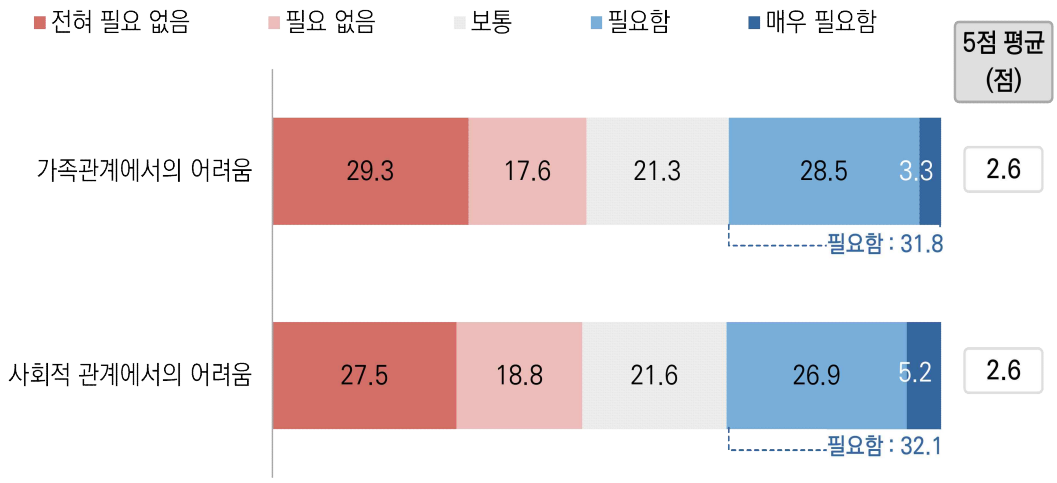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1.8	1.8	1.8	**1.9**	1.6	**2.1**	1.8	1.7	**1.9**	1.7	1.7	1.6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1.8	1.7	1.9	**2.0**	1.6	**2.0**	1.8	1.7	1.8	**2.2**	1.8	1.6

(2)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가족 관계 어려움에 대한 외부 지원의 필요성은 31.8%,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성 32.1%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남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6기 결과가 2.6점, 4년 전(5기) 2.3점으로 외부지원의 필요성은 0.3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6]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



[표 3-124]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29.3	17.6	21.3	28.5	3.3	2.6	2.3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27.5	18.8	21.6	26.9	5.2	2.6	2.3

- 군·구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외부지원 필요성

  -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필요성은 동구(3.1점), 부평구(2.9점), 남동구(2.8점)가 높았으며, 옹진군(2.2점), 연수구(2.4점), 강화군(2.4점)은 낮음. 동구는 가족관계 어려움에 대한 외부 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음, 옹진군은 가장 낮음
  -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필요성은 동구(3.3점), 남동구(2.9점), 부평구(2.8점)가 높았으며, 서해구(2.2점), 옹진군(2.3점), 강화군(2.4점)은 낮음. 동구는 사회적 관계 어려움에 대한 외부 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은 반면 서해구는 가장 낮음

[표 3-125] 군·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2.6	2.6	**3.1**	2.5	2.4	2.8	**2.9**	2.5	2.3	2.4	2.4	2.2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2.6	2.6	**3.3**	2.6	2.6	**2.9**	2.8	2.5	2.2	2.7	2.4	2.3

(3) 가족/사회적 관계 IPA 결과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어려움이 높고, 외부지원이 필요한 항목들을 파악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을 위해 IPA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적관계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7] 인천시 전체 가족, 사회적 관계 관련 IPA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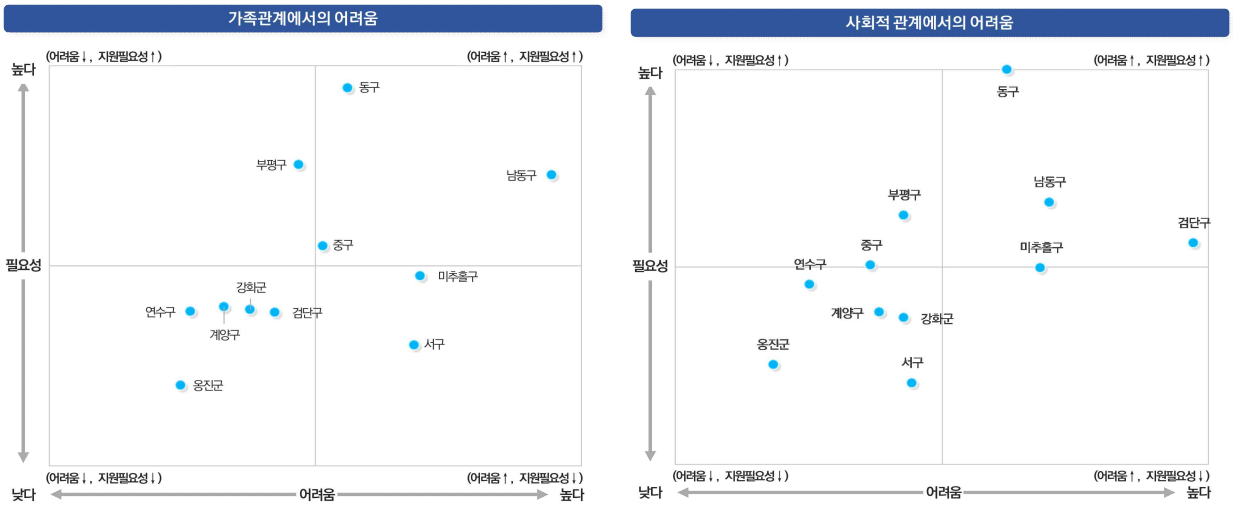
(단위 : 점)



- 군·구별 가족, 사회적 관계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동구, 남동구, 중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 반면, 미추홀구와 서해구는 어려움 체감 정도는 높으나 서비스 지원 필요성은 낮은 지역으로 예방적 접근이 적절한 지역임
  -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동구·남동구·미추홀구·검단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 집중적이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 반면, 어려움 체감 정도는 높으나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음

[그림 3-68] 인천시 군·구별 가족, 사회적 관계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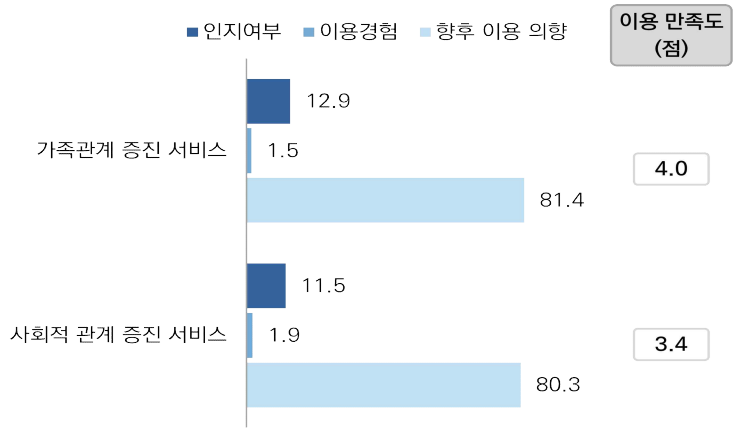


(4) 가족/사회적 관계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 역량강화지원 등)는 인지도(12.9%)와 실제 이용 경험(1.5%)은 낮은 수준이나, 이용 만족도는 4.0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이용 의향도 81.4%로 매우 높음
  - 잠재 수요가 큰 서비스로 분석되며, 제5기(26.1%) 대비 향후 이용 의향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인지도 제고 및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며,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이 필요함
-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사회적 관계 활성화 지원, 상담, 정서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는 인지도(11.5%)와 이용 경험(1.9%)은 가족관계 서비스보다 약간 높음. 이용 만족도는 3.4점으로 가족관계 서비스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향후 이용 의향은 80.3%로 매우 높음
  - 정책적 확장이 필요한 서비스로 판단되며, 제5기(25.6%) 대비 향후 이용 의향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만족도 개선과 함께 서비스 홍보 및 접근성 확대가 요구됨

[그림 3-69] 가족/사회적 관계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단위 : %)



[표 3-126] 가족/사회적 관계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있음' 비율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12.9	1.5	88	4.0	81.4	11.6	1.3	26.1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	11.5	1.9	117	3.4	80.3	8.1	0.9	25.6

- 군·구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서비스 인지 여부
  -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미추홀구(23.7%), 계양구(22.7%), 중구(18.5%)로 나타남. 인지율이 낮은 지역은 강화군(3.0%), 부평구(5.7%), 서해구(8.2%)임

-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미추홀구(21.7%), 계양구(19.5%), 동구(17.7%)임. 인지율이 낮은 지역은 강화군(2.8%), 옹진군(6.1%), 연수구(6.8%)임

[표 3-127] 군·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12.9	18.5	15.6	**23.7**	10.3	10.8	5.7	**22.7**	8.2	8.5	3.0	10.0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	11.5	13.0	17.7	**21.7**	6.8	9.3	10.8	**19.5**	5.9	8.1	2.8	6.1

● 군·구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경험

-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계양구(3.8%), 남동구(3.3%), 연수구(2.2%)로 나타남. 이용 경험이 낮은 지역은 강화군(0.3%), 검단구(0.4%)이며 부평구는 이용사례가 없음
-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7.7%), 미추홀구(3.3%), 남동구·계양구(각 2.2%) 순임. 이용 경험이 낮은 지역은 강화군(0.2%), 중구·부평구(각 0.3%), 옹진군(0.6%)임

[표 3-128] 군·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1.5	0.8	1.1	1.7	2.2	3.3	-	3.8	0.6	0.4	0.3	0.8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	1.9	0.3	7.7	3.3	1.3	2.2	0.3	2.2	1.2	0.8	0.2	0.6

● 군·구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만족도

-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연수구와 계양구가 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추홀구·서해구·검단구·강화군은 4.0점으로 뒤를 이음. 옹진군은 3.8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나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함. 반면 중구는 3.4점, 동구는 3.6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전체적으로 3.8~4.2점 사이에 분포하여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는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안정적인 서비스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는 지역별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남. 계양구가 4.2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으며, 부평구와 강화군은 4.0점, 옹진군과 서해구도 3.8점으로 뒤를 이음. 반면 중구와 검단구는 3.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동구와 미추홀구는 3.2점, 남동구는 3.4점으로 나타남

[표 3-129] 군·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4.0	3.4	3.6	4.0	4.2	3.9	-	4.2	4.0	4.0	4.0	3.8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	3.4	3.0	3.2	3.2	3.9	3.4	4.0	4.2	3.8	3.0	4.0	3.8

● 군·구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의 향후 이용 의향은 검단구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구(27.2%), 계양구(22.0%), 미추홀구(21.2%)가 뒤를 이음. 반면 중구(11.5%), 동구(11.0%), 옹진군(11.6%)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이는 도심 지역에서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인식 부족이나 접근성 문제로 인해 향후 이용 의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의 향후 이용 의향은 검단구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추홀구(25.2%), 연수구(24.0%), 동구(22.6%), 계양구(21.8%)도 높은 편임. 반면 중구(6.8%), 옹진군(12.5%), 서해구(14.4%)는 낮은 수준을 기록함

[표 3-130] 군·구별 가족/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81.4	11.5	11.0	21.2	27.2	20.0	15.2	22.0	16.5	38.8	20.7	11.6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	80.3	6.8	22.6	25.2	24.0	18.8	18.8	21.8	14.4	42.3	20.5	12.5

● 인천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족끼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가 47.1%를 차지함. 이는 가족 문제를 외부에 노출하기보다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적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다음으로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가 18.6%,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7.1%로 나타남
-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로 31.0%를 차지함. 다음으로 '가족끼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5.9%,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5.5%로 나타남. 사회적 관계 서비스는 가족관계 서비스와 달리 정보 부족과 절차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표 3-131] 가족/사회적 관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70	가족끼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47.1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8.6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7.1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	58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31.0	가족끼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5.9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5.5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해당사항 없음 포함 100%

(5)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인지여부 및 참여현황

-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인 것은 반상회·주민회의·부녀회·아파트 대표자회의·통반장 회의(65.1%)로 나타남. 이는 전통적 주민 모임이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음을 보여줌.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46.8%), 지역봉사활동(43.7%)임. 반면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동(16.9%), 주민자치회·민관협치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25.3%)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율을 보여 이는 제도적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함을 시사함
-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참여경험은 반상회·주민회의 등 전통적 모임이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5.8%), 지역봉사활동(5.5%)이 뒤를 이음. 그러나 군·구 협의체 활동(0.8%), 시민운동단체 활동(1.2%)은 매우 낮은 참여율을 기록함. 이는 주민들이 제도적·형식적 활동보다는 생활밀착형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이용만족도는 전반적으로 3.7~4.0점 사이로 양호한 수준임. 자원봉사활동은 4.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지역봉사활동·마을 공동체사업·주민자치회 활동(3.9점), 반상회·주민회의와 시민운동단체 활동(3.8점)이 뒤를 이음. 반면 군·구 협의체 활동은 3.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군·구 협의체 활동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인지도와 참여율 부족, 행정 중심 운영, 주민 체감 성과 미흡, 역량 지원 부족 등으로 주민 친화적 운영 개선, 제도적 지원 확대,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향후 이용 의향은 반상회·주민회의 등 전통적 모임이 32.5%로 가장 높음. 자원봉사활동(20.9%), 지역봉사활동(16.2%)도 비교적 높은 의향을 보임. 반면 군·구 협의체 활동(5.9%), 시민운동단체 활동(7.4%), 주민자치회 활동(6.8%)은 낮은 수준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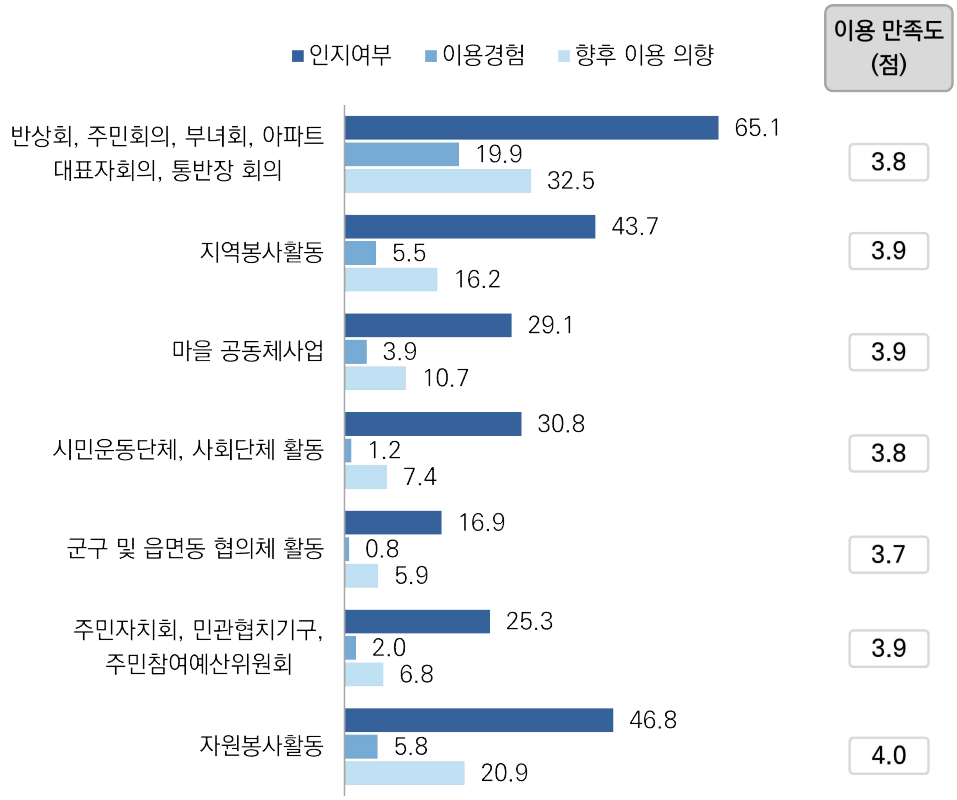
[표 3-132] 사회활동 인지여부 및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회의, 통반장 회의	65.1	19.9	1,207	3.8	32.5
지역봉사활동	43.7	5.5	336	3.9	16.2
마을 공동체사업	29.1	3.9	234	3.9	10.7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30.8	1.2	74	3.8	7.4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동	16.9	0.8	48	3.7	5.9
주민자치회, 민관협치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5.3	2.0	124	3.9	6.8
자원봉사활동	46.8	5.8	352	4.0	20.9

[그림 3-70]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인지여부 및 참여현황

(단위 : %)



● 군·구별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인지 여부

- 반상회·주민회의·부녀회 등 전통적 주민 모임 인지율은 검단구(79.6%), 미추홀구(73.2%), 남동구(72.2%)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옹진군은 41.7%로 가장 낮음
- 지역봉사활동 인지율은 미추홀구(60.2%), 검단구(61.5%)에서 높게 나타나며, 연수구(20.7%)는 가장 낮음
- 마을 공동체사업 인지율은 검단구(48.8%), 계양구(46.0%)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연수구(13.8%), 부평구(14.0%)는 낮음. 공동체사업은 특정 지역에서만 인지도가 높고, 전반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임
- 시민운동단체·사회단체 활동 인지율은 계양구(48.5%), 서해구(40.6%)에서 높음. 반면 연수구(10.0%)는 가장 낮음
-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동 인지율은 계양구(33.0%), 옹진군(26.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동구(6.1%), 연수구(7.8%)는 매우 낮음. 제도적 협의체 활동은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주민 참여 기반이 약한 것으로 해석됨
- 주민자치회·민관협치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지율은 인지율은 계양구(47.2%), 중구·미추홀구(36.0%)에서 높음. 반면 동구(8.5%), 연수구(9.2%)는 낮음
- 자원봉사활동 인지율은 미추홀구(61.5%), 검단구(63.1%), 중구(57.0%)에서 높음. 반면 강화군(26.2%), 옹진군(20.4%)은 낮음. 자원봉사활동은 도심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고, 도서 지역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

[표 3-133] 군·구별 사회활동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회의, 통반장 회의	65.1	60.0	64.4	**73.2**	62.8	72.2	69.2	66.7	65.0	**79.6**	70.8	41.7
지역봉사활동	43.7	44.5	32.3	**60.2**	20.7	48.2	45.3	55.3	47.9	**61.5**	39.5	37.6
마을 공동체사업	29.1	18.3	21.0	36.2	13.8	26.5	14.0	**46.0**	33.5	**48.8**	39.0	35.9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30.8	28.3	20.0	**40.8**	10.0	45.2	29.2	**48.5**	40.6	29.2	25.8	24.9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동	16.9	13.5	6.1	23.8	7.8	21.3	6.3	**33.0**	16.5	10.8	16.5	**26.2**
주민자치회, 민관협치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5.3	**36.0**	8.5	**36.0**	9.2	35.2	19.2	**47.2**	23.2	14.6	16.8	25.9
자원봉사활동	46.8	57.0	49.4	**61.5**	33.0	58.0	54.2	57.8	44.7	**63.1**	26.2	20.4

- 군·구별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참여 경험

-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등의 참여 경험은 검단구(38.5%)와 강화군(38.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29.5%)와 연수구(23.8%)도 높은 수준임. 반면 동구(5.2%), 서해구(10.9%)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지역봉사활동은 참여 경험은 검단구(13.8%), 중구(15.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1.0%), 연수구(1.8%)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마을 공동체사업 참여 경험은 강화군(11.2%), 옹진군(9.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남동구(0.3%), 연수구(1.0%)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시민운동단체·사회단체 활동 참여 경험은 계양구(3.8%), 강화군(3.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연수구와 검단구는 참여 사례 없음
-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여경험은 계양구(3.3%), 강화군(2.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다수 지역은 1% 미만으로 나타나 제도적 협의체 활동은 주민 참여 기반이 매우 약함
- 주민자치회, 민관협치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경험은 옹진군(5.5%), 계양구(3.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검단구는 참여 사례 없음
-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은 검단구(15.4%), 계양구(10.8%), 서해구(9.7%)에서 높음. 부평구(1.3%), 옹진군(3.6%)은 낮음

[표 3-134] 군·구별 사회활동 참여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회의, 통반장 회의	19.9	29.5	5.2	15.2	23.8	13.7	19.5	13.8	10.9	38.5	38.5	17.9
지역봉사활동	5.5	15.3	1.0	3.8	1.8	1.8	3.0	6.2	5.9	13.8	8.5	4.9
마을 공동체사업	3.9	2.5	1.0	2.3	1.0	0.3	3.0	5.2	1.2	4.2	11.2	9.4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1.2	0.2	0.6	1.7	0.0	0.5	0.2	3.8	1.5	-	3.2	1.3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동	0.8	0.5	0.2	0.5	0.2	-	-	3.3	0.3	-	2.0	1.1
주민자치회, 민관협치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	1.0	0.5	1.0	1.0	0.8	2.2	3.8	1.5		3.7	5.5
자원봉사활동	5.8	6.3	1.9	5.2	3.7	8.8	1.3	10.8	9.7	15.4	4.5	3.6

● 군·구별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이용 만족도

-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등의 이용 만족도는 계양구가 4.0점으로 가장 높으며, 부평구·강화군은 3.9점으로 뒤를 이음. 검단구는 3.4점으로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짐
- 지역봉사활동 이용 만족도는 중구·계양구·옹진군가 4.0점으로 가장 높고, 동구는 3.3점으로 가장 낮음
- 마을 공동체사업 만족도는 중구·연수구가 4.2점으로 가장 높고, 검단구 4.0점으로 뒤를 이음. 반면 남동구는 3.0점으로 가장 낮음
-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만족도는 미추홀구·계양구가 4.1점으로 가장 높고, 동구가 4.0점으로 뒤를 이음. 반면 중구·부평구는 3.0점으로 낮음
-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동 만족도는 계양구가 4.1점으로 가장 높고, 중구·동구·연수구·서해구는 4.0점으로 뒤를 이음. 반면 강화군(3.3점), 옹진군(3.1점)은 낮음
- 주민자치회, 민관협치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만족도는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가 4.3점으로 가장 높음. 반면 중구는 3.0점으로 가장 낮음
-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계양구 4.3점, 서해구 4.2점, 연수구 4.1점으로 높음. 반면 옹진군은 3.7점으로 가장 낮음

[표 3-135] 군·구별 사회활동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회의, 통반장 회의	3.8	3.6	3.7	3.8	3.8	3.8	**3.9**	**4.0**	3.7	3.4	**3.9**	3.8
지역봉사활동	3.9	**4.0**	3.3	3.9	3.7	3.8	3.8	**4.0**	3.8	3.8	3.8	**4.0**
마을 공동체사업	3.9	**4.2**	3.8	3.7	**4.2**	3.0	3.9	3.9	3.3	**4.0**	3.9	3.7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3.8	3.0	**4.0**	**4.1**	-	3.3	3.0	**4.1**	3.6	-	3.6	3.3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동	3.7	**4.0**	**4.0**	3.7	**4.0**	-	-	**4.1**	**4.0**	-	3.3	3.1
주민자치회, 민관협치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9	3.0	**4.0**	**4.3**	**4.3**	**4.0**	3.9	**4.3**	3.6	-	3.6	3.8
자원봉사활동	4.0	3.9	4.0	3.8	4.1	3.9	3.8	**4.3**	**4.2**	3.9	3.8	3.7

● 군·구별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향후 이용 의향

-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등은 사회활동 가운데 향후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분야로 특히 중구(52.5%), 검단구(47.3%), 강화군(45.0%)에서 높은 참여 의향을 보여, 전통적 주민 모임이 여전히 지역사회 결속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미추홀구(20.2%), 동구(22.1%)는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
- 지역봉사활동 이용 의향은 옹진군(26.8%), 중구(28.0%), 서해구·검단구(23.5%)에서 높음. 반면 남동구(5.7%), 동구(6.0%)는 낮음
- 마을 공동체사업 이용 의향은 강화군(23.5%)과 옹진군(25.9%)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도서 지역에서 공동체 기반 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줌
-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이용 의향은 옹진군(17.6%), 서해구(12.9%), 계양구(12.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중구(3.0%), 동구(2.1%)는 낮음
-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동 이용 의향은 옹진군(18.0%), 강화군(11.2%), 계양구(9.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다수 도심 지역은 1~2%대에 머물러 참여 의향이 매우 낮음

- 주민자치회, 민관협치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용 의향은 옹진군(15.0%), 강화군(12.5%), 계양구(10.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2.4%), 검단구(1.9%)는 낮음
- 자원봉사활동 이용 의향은 중구(37.0%), 부평구(26.2%), 검단구(26.9%)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은 9.7%로 가장 낮음

[표 3-136] 군·구별 사회활동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회의, 통반장 회의	32.5	52.5	22.1	20.2	37.7	23.0	29.3	23.3	27.6	**47.3**	**45.0**	36.2
지역봉사활동	16.2	**28.0**	6.0	11.2	10.7	5.7	11.5	14.7	23.5	23.5	23.7	**26.8**
마을 공동체사업	10.7	7.2	3.2	4.8	8.3	4.0	5.8	11.0	15.0	10.0	**23.5**	**25.9**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7.4	3.0	2.1	4.3	7.8	4.7	2.8	12.3	**12.9**	2.7	10.3	**17.6**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동	5.9	3.2	0.8	2.3	6.0	1.7	1.2	9.8	6.5	1.9	**11.2**	**18.0**
주민자치회, 민관협치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6.8	5.0	2.4	3.0	6.2	4.2	4.5	10.2	6.8	1.9	**12.5**	**15.0**
자원봉사활동	20.9	**37.0**	13.9	21.5	17.7	19.3	26.2	20.2	23.8	**26.9**	19.3	9.7

●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4~46% 수준을 차지함. 이는 생활·직장·가사 등 개인 일정이 사회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보여줌. 두 번째로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다수 활동에서 12~21%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사회활동을 특정 계층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표 3-137]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회의, 통반장 회의	1,064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부족	46.4	여유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13.8	건강상의 이유	8.9
지역봉사활동	911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부족	44.9	여유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12.7	건강상의 이유	10.9
마을 공동체사업	643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부족	42.5	여유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15.7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10.0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731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부족	34.7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20.5	여유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15.3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동	376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부족	41.2	여유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14.6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10.4
주민자치회, 민관협치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662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부족	36.6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20.7	여유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15.6
자원봉사활동	1,113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부족	40.7	여유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21.4	건강상의 이유	9.7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해당사항 없음 포함 100%.

9) 보호·안전

(1) 보호·안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보호·안전 관련 어려움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과 '거의 경험하지 않음'이 80~90%를 차지하며, 평균 점수는 1.5~1.8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이는 응답자들이 보호·안전 관련 위협을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지는 않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가끔 또는 자주 경험함이 10% 이상으로 나타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응답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한 어려움은 정보 부족이나 허위정보로 인한 불안과 대응 곤란으로 평균 1.8점을 기록함. 이는 재난·감염병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의 미흡,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의 급속 확산, 언론의 선정적 보도 등을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음
- 다음으로는 기후 재해로 인한 생활공간 침수·파손, 지진·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 재해 발생 시 대피·구호 정보 부족, 감염병 유행 시 보호용품 확보의 어려움, 격리·봉쇄로 인한 생계활동 및 돌봄 공백 등이 평균 1.7점으로 나타남. 이들 항목은 모두 생활 기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체감도가 높으며, '가끔 이상 경험함' 응답이 15% 내외로 나타나 재난·감염병 상황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 신체적·언어적·정서적 위협, 경제적 위협, 온라인 공간 위협, 사회적 차별·혐오 경험 등은 평균 1.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러나 이들 항목에서도 '가끔 이상 경험함' 응답이 10% 내외로 존재해, 일상 속에서 은밀하게 반복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가장 낮은 수준은 성적 위협 및 폭력, 학교·직장 내 괴롭힘, 구성원의 지나친 통제로 평균 1.5점임. 빈도는 낮지만, 민감한 영역이므로 소수의 경험자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표 3-138] 보호·안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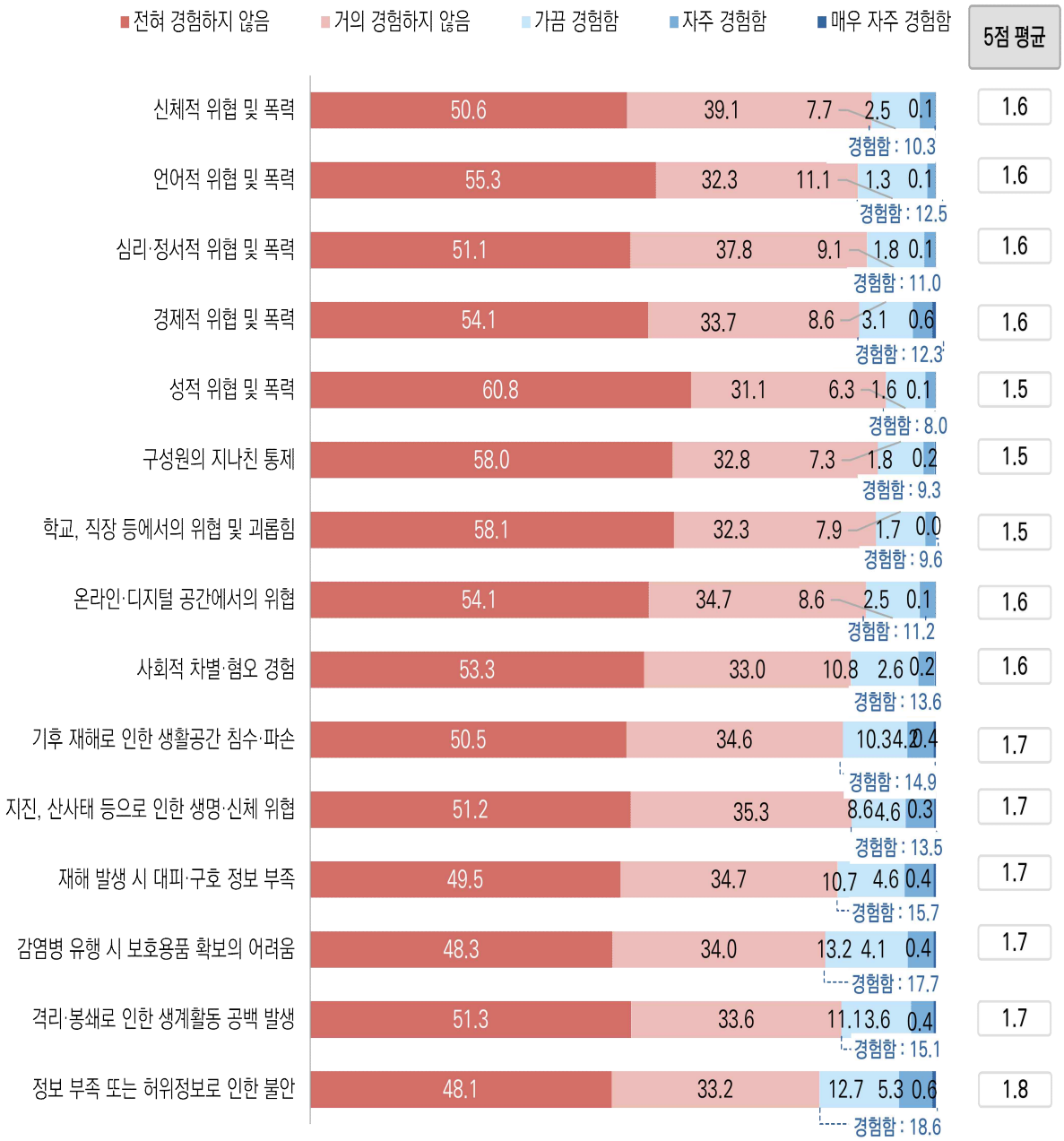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신체적 위협 및 폭력	50.6	39.1	7.7	2.5	0.1	1.6	1.8
언어적 위협 및 폭력	55.3	32.3	11.1	1.3	0.1	1.6	
심리·정서적 위협 및 폭력	51.1	37.8	9.1	1.8	0.1	1.6	
경제적 위협 및 폭력	54.1	33.7	8.6	3.1	0.6	1.6	
성적 위협 및 폭력	60.8	31.1	6.3	1.6	0.1	1.5	
구성원의 지나친 통제	58.0	32.8	7.3	1.8	0.2	1.5	
학교, 직장 등에서의 위협 및 괴롭힘	58.1	32.3	7.9	1.7	0.0	1.5	1.8
온라인·디지털 공간에서의 위협	54.1	34.7	8.6	2.5	0.1	1.6	
사회적 차별·혐오 경험	53.3	33.0	10.8	2.6	0.2	1.6	
태풍, 홍수, 폭설 등 기후 재해로 인한 생활공간 침수·파손	50.5	34.6	10.3	4.2	0.4	1.7	-
지진, 산사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위협	51.2	35.3	8.6	4.6	0.3	1.7	
재해 발생 시 대피·구호 정보 부족 또는 접근성 미흡	49.5	34.7	10.7	4.6	0.4	1.7	
감염병 유행 시 보호용품 확보의 어려움	48.3	34.0	13.2	4.1	0.4	1.7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격리·봉쇄로 인한 생계활동 또는 돌봄 공백 발생	51.3	33.6	11.1	3.6	0.4	1.7	
정보 부족 또는 허위정보로 인한 불안과 대응 곤란	48.1	33.2	12.7	5.3	0.6	1.8	

[그림 3-71] 보호·안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



● 군·구별 보호·안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전반적으로 인천시 전체 평균은 1.5~1.8점 수준으로 낮아, 주민들이 일상에서 보호·안전 관련 위협을 자주 경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항목별·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특정 지역과 특정 유형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높은 심각성을 보임
- 가장 높은 수준은 정보 부족 또는 허위정보로 인한 불안과 대응 곤란으로 인천시 평균 1.8점을 기록함. 특히 강화군(2.3점), 옹진군(1.9점), 연수구·남동구(1.9점)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정보 접근성 부족이 주민 불안의 주요한 요임을 의미하는 것임
- 기후·자연재해 관련 어려움도 높은 수준을 보임.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생활공간 침수·파손(평균 1.7점), 지진·산사태 등 생명·신체 위협(1.7점), 재해 발생 시 대피·구호 정보 부족(1.7점), 감염병 유행 시 보호용품 확보 어려움(1.7점), 격리·봉쇄로 인한 생계·돌봄 공백(1.7점) 모두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2.0점 이상으로 나타남. 이는 도서 지역이 재난·감염병 상황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 신체적·언어적·정서적 위협, 경제적 위협, 사회적 차별·혐오 경험, 온라인·디지털 공간 위협 등은 평균 1.5~1.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그러나 남동구와 검단구에서는 경제적 위협 및 폭력(2.0점, 2.1점), 심리·정서적 위협(2.0점), 학교·직장 내 괴롭힘(1.9점) 등이 높게 나타나, 도심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이 체감되고 있음
- 가장 낮은 수준은 성적 위협 및 폭력, 학교·직장 내 괴롭힘, 구성원의 지나친 통제로 평균 1.5점 내외임.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1.9~2.1점으로 높게 나타나 특정 지역의 취약성이 확인됨

[표 3-139] 군·구별 보호·안전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신체적 위협 및 폭력	1.6	1.7	1.7	1.7	1.5	**2.0**	1.6	1.6	1.7	**1.8**	1.4	1.4
언어적 위협 및 폭력	1.6	1.6	1.6	**1.8**	1.5	**1.8**	1.6	1.5	1.6	**1.7**	1.5	1.4
심리·정서적 위협 및 폭력	1.6	1.6	1.7	1.7	1.5	**2.0**	1.6	1.5	1.6	**1.8**	1.4	1.5
경제적 위협 및 폭력	1.6	1.6	1.7	1.7	1.5	**2.0**	1.7	1.5	1.6	**2.1**	1.4	1.4
성적 위협 및 폭력	1.5	**1.6**	1.5	1.5	1.4	**1.9**	1.5	1.4	1.5	1.4	1.3	1.3
구성원의 지나친 통제	1.5	**1.6**	**1.6**	1.5	1.4	**2.1**	**1.6**	1.4	**1.6**	1.4	1.4	1.4
학교, 직장 등에서의 위협 및 괴롭힘	1.5	**1.6**	**1.6**	**1.6**	1.5	**1.9**	1.5	1.5	1.5	1.4	1.4	1.3
온라인·디지털 공간에서의 위협	1.6	1.6	1.6	1.5	1.6	**1.8**	1.6	1.5	1.5	1.4	**1.9**	1.4
사회적 차별·혐오 경험	1.6	1.7	1.6	1.6	1.7	**1.9**	1.5	1.5	1.6	1.6	**1.8**	1.6
태풍, 홍수, 폭설 등 기후재해로 인한 생활공간 침수·파손	1.7	1.6	1.5	1.6	1.5	**1.9**	1.5	1.5	1.6	1.6	**2.2**	2.0
지진, 산사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위협	1.7	1.6	1.5	1.6	1.5	**1.8**	1.5	1.6	1.5	1.6	**2.2**	1.9
재해 발생 시 대피·구호 정보 부족 또는 접근성 미흡	1.7	1.7	1.5	1.7	1.5	**1.9**	1.5	1.6	1.6	1.7	**2.3**	1.9
감염병 유행 시 보호용품 확보의 어려움	1.7	1.7	1.6	1.7	1.7	**2.0**	1.5	1.6	1.6	1.6	**2.2**	1.8
격리·봉쇄로 인한 생계활동 또는 돌봄 공백 발생	1.7	1.6	1.5	1.7	1.6	**1.9**	1.5	1.6	1.6	1.5	**2.2**	1.8
정보 부족 또는 허위정보로 인한 불안과 대응 곤란	1.8	1.8	1.6	1.7	1.9	**1.9**	1.5	1.7	1.6	1.5	**2.3**	1.9

(2) 보호·안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보호·안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와 관련하여 인천 시민들은 재난·감염병 대응, 정보 혼란 해소, 경제·사회적 안정에 대한 외부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지원 필요성을 인식한 영역은 재난·감염병 관련 항목으로 평균 2.9점을 기록함. 태풍·홍수·폭설 등 기후 재해로 인한 생활공간 침수·파손, 지진·산사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위협, 재해 발생 시 대피·구호 정보 부족, 감염병 유행 시 보호용품 확보의 어려움 등이 해당함. 이들 항목은 모두 생활 기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 응답이 36~37% 수준으로 시민들이 재난·감염병 상황에서 외부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정보 부족 또는 허위정보로 인한 불안과 대응 곤란은 평균 2.8점으로 나타남. '필요함' 응답이 28.9%로 가장 높았고, '보통' 응답도 27.6%로 상당히 높아, 응답자 다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와 허위정보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여짐
- 경제적 위협 및 폭력, 사회적 차별·혐오 경험, 신체적·언어적 위협도 평균 2.8점으로 나타남.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일상적 폭력에 대한 제도적 개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필요함' 응답이 25~28% 수준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생활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심리·정서적 위협, 성적 위협, 구성원의 지나친 통제, 학교·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디지털 공간 위협은 평균 2.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그러나 이들 항목에서도 '필요함' 응답이 24~26% 수준으로 나타나, 일상 속에서 은밀하게 작용하는 위협에 대한 예방과 상담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3-140] 보호·안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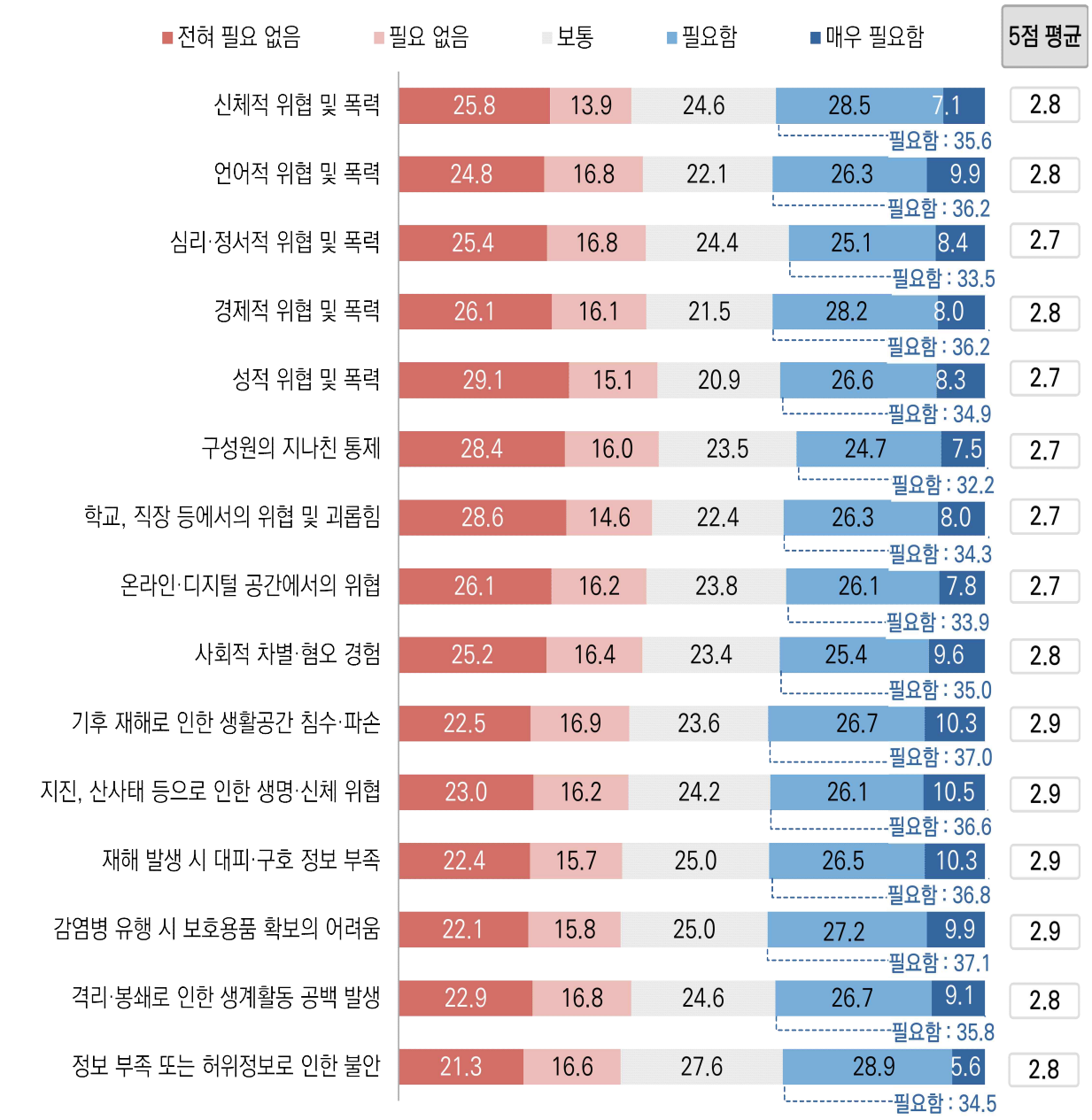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신체적 위협 및 폭력	25.8	13.9	24.6	28.5	7.1	2.8
언어적 위협 및 폭력	24.8	16.8	22.1	26.3	9.9	2.8
심리·정서적 위협 및 폭력	25.4	16.8	24.4	25.1	8.4	2.7
경제적 위협 및 폭력	26.1	16.1	21.5	28.2	8.0	2.8
성적 위협 및 폭력	29.1	15.1	20.9	26.6	8.3	2.7
구성원의 지나친 통제	28.4	16.0	23.5	24.7	7.5	2.7
학교, 직장 등에서의 위협 및 괴롭힘	28.6	14.6	22.4	26.3	8.0	2.7
온라인·디지털 공간에서의 위협	26.1	16.2	23.8	26.1	7.8	2.7
사회적 차별·혐오 경험	25.2	16.4	23.4	25.4	9.6	2.8
태풍, 홍수, 폭설 등 기후 재해로 인한 생활공간 침수·파손	22.5	16.9	23.6	26.7	10.3	2.9
지진, 산사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위협	23.0	16.2	24.2	26.1	10.5	2.9
재해 발생 시 대피·구호 정보 부족 또는 접근성 미흡	22.4	15.7	25.0	26.5	10.3	2.9
감염병 유행 시 보호용품 확보의 어려움	22.1	15.8	25.0	27.2	9.9	2.9

구분	6기(n=6,058)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격리·봉쇄로 인한 생계활동 또는 돌봄 공백 발생	22.9	16.8	24.6	26.7	9.1	2.8
정보 부족 또는 허위정보로 인한 불안과 대응 곤란	21.3	16.6	27.6	28.9	5.6	2.8

[그림 3-72] 보호·안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



- 군·구별 보호·안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재난·감염병 관련 항목은 태풍·홍수·폭설 등 기후 재해(강화군 3.1점, 옹진군 2.7점), 지진·산사태(강화군 3.0점, 옹진군 2.7점), 재해 발생 시 대피·구호 정보 부족(강화군 3.1점, 옹진군 2.7점), 감염병 유행 시 보호용품 확보의 어려움(강화군 3.1점, 옹진군 2.7점)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도서 지역의 재난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남
- 경제적 위협 및 폭력은 부평구 3.3점, 남동구 3.1점, 동구 3.5점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도심 지역에서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강하게 드러남
- 사회적 차별·혐오 경험은 동구 3.5점, 부평구 3.3점, 강화군 2.8점에서 높게 나타나 사회적 갈등과 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확인됨
- 신체적·언어적·심리·정서적 위협은 부평구(신체적 3.3점, 언어적 3.4점, 심리·정서적 3.3점), 동구(신체적 3.2점, 언어적 3.6점, 심리·정서적 3.4점), 남동구(신체적 3.1점, 심리·정서적 3.1점)에서 높게 나타나 도심 지역에서 폭력·괴롭힘·정서적 위협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강하게 드러남
- 성적 위협 및 폭력, 구성원의 지나친 통제, 학교·직장 내 괴롭힘은 부평구(성적 3.3점, 통제 3.3점, 괴롭힘 3.3점), 동구(성적 3.4점, 통제 3.4점, 괴롭힘 3.4점), 남동구(성적 3.0점, 통제 3.0점, 괴롭힘 2.9점)에서 높게 나타나 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정보 부족 또는 허위정보로 인한 불안은 동구 3.4점, 남동구 2.9점, 강화군 2.9점으로 높게 나타나 정확한 정보 전달과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41] 군·구별 보호·안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신체적 위협 및 폭력	2.8	2.4	**3.2**	2.9	2.8	3.1	**3.3**	2.7	2.8	2.3	2.6	2.2
언어적 위협 및 폭력	2.8	2.5	**3.6**	2.8	2.8	2.9	**3.4**	2.6	2.6	2.2	2.6	2.3
심리·정서적 위협 및 폭력	2.7	2.4	**3.4**	2.8	2.7	3.1	**3.3**	2.6	2.5	2.2	2.5	2.2
경제적 위협 및 폭력	2.8	2.4	**3.5**	2.8	2.8	3.1	**3.3**	2.5	2.6	2.5	2.6	2.2
성적 위협 및 폭력	2.7	2.4	**3.4**	2.6	2.8	3.0	**3.3**	2.5	2.6	1.9	2.6	2.1
구성원의 지나친 통제	2.7	2.4	**3.4**	2.5	2.8	3.0	**3.3**	2.5	2.4	1.9	2.5	2.2
학교, 직장 등에서의 위협 및 괴롭힘	2.7	2.5	**3.4**	2.7	2.8	2.9	**3.3**	2.6	2.6	2.0	2.5	2.1
온라인·디지털 공간에서의 위협	2.7	2.4	**3.5**	2.6	2.8	2.8	**3.2**	2.6	2.6	1.9	2.9	2.2
사회적 차별·혐오 경험	2.8	2.4	**3.5**	2.7	2.9	2.9	**3.3**	2.6	2.6	2.1	2.8	2.3
태풍, 홍수, 폭설 등 기후 재해로 인한 생활공간 침수·파손	2.9	2.4	**3.5**	2.9	2.8	2.8	**3.3**	2.6	2.7	2.2	3.1	2.7
지진, 산사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위협	2.9	2.4	**3.5**	2.9	2.8	2.9	**3.2**	2.6	2.7	2.2	3.0	2.7
재해 발생 시 대피·구호 정보 부족 또는 접근성 미흡	2.9	2.4	**3.5**	2.9	2.8	2.9	**3.2**	2.6	2.8	2.3	3.1	2.7
감염병 유행 시 보호용품 확보의 어려움	2.9	2.4	**3.5**	2.9	2.9	3.0	**3.2**	2.7	2.7	2.2	3.1	2.7
격리·봉쇄로 인한 생계활동 또는 돌봄 공백 발생	2.8	2.4	**3.5**	2.8	2.8	2.9	**3.2**	2.6	2.7	2.1	3.0	2.6
정보 부족 또는 허위정보로 인한 불안과 대응 곤란	2.8	2.4	**3.4**	2.8	2.8	2.9	**3.1**	2.7	2.6	2.0	2.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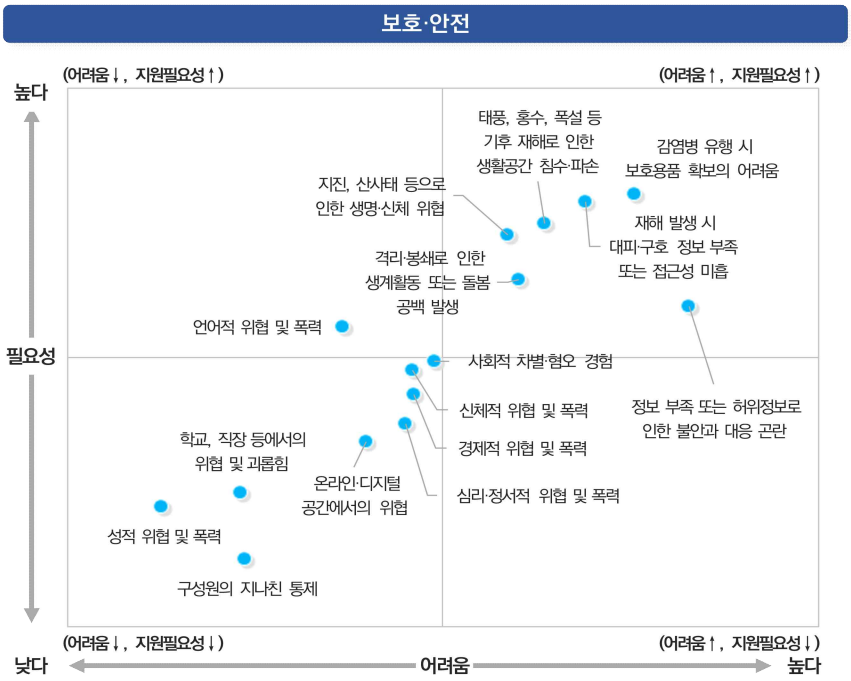
(3) 보호·안전 IPA 결과

- 보호·안전의 어려움이 높고, 외부지원이 필요한 항목들을 파악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을 위해 IPA 분석을 수행한 결과, '태풍·홍수·폭설 등 기후 재난으로 인한 생활 피해', '감염병 유행 시 보호용품 확보의 어려움', '재해 발생 시 대피·구호 정보 접근성 미흡', '지진·산사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위협', '격리·봉쇄로 인한 생계 활동 또는 돌봄 공백 발생', '정보 부족 또는 허위 정보로 인한 불안과 대응 곤란'이 포함됨

  - 이 영역은 주민들이 실제로 높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 필요성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됨. 특히 재난·감염병과 관련된 항목들은 생활 기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신속한 정보 제공과 물자 지원, 대피 체계 강화가 필요함

[그림 3-73] 인천시 전체 보호·안전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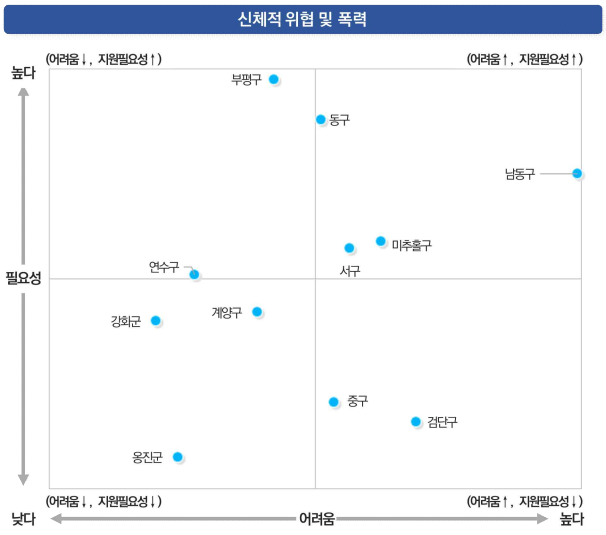
- 군·구별 보호·안전-가족 내 안전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IP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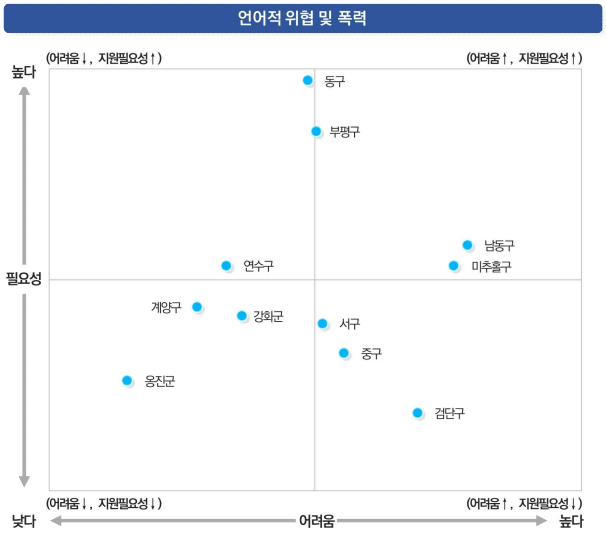
- 군·구별 IPA 분석 결과, 신체적 위협 및 폭력은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 서해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남. 이는 해당 지역에서 가족 내 물리적 안전 문제를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외부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언어적 위협 및 폭력의 어려움과 필요성은 남동구와 미추홀구에서 높게 나타남. 주민들이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갈등과 심리적 불안을 크게 체감하고 있어, 상담·중재 서비스와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심리·정서적 위협 및 폭력은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 모두 높은 수준을 보임. 이는 가족 내 정서적 갈등과 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으로, 심리 상담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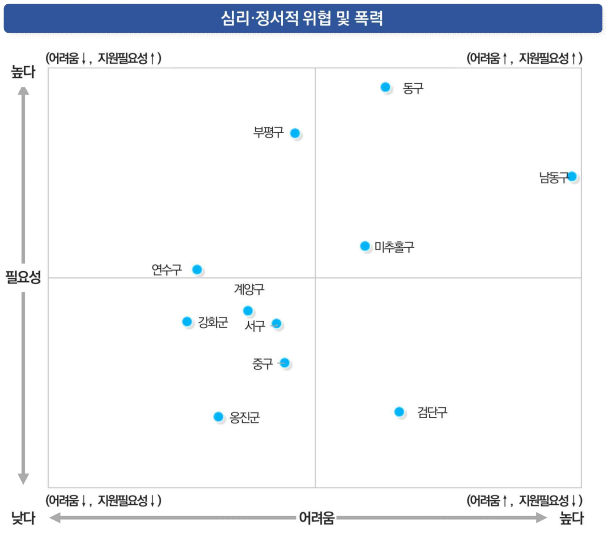
- 경제적 위협 및 폭력은 동구,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경제적 불안정이 가족 내 갈등과 위협으로 연결되는 양상이 확인되며,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할 것임
- 성적 위협 및 폭력의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은 동구, 부평구, 남동구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민감한 영역으로 피해자 보호 체계와 접근성 높은 상담·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구성원의 지나친 통제는 동구, 부평구, 남동구에서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가족 내 권력 불균형과 통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어,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갈등 조정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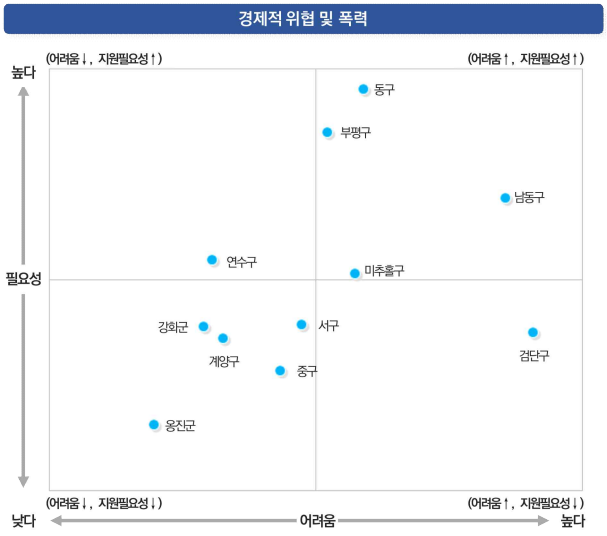
[그림 3-74] 군·구별 보호·안전-가족 내 안전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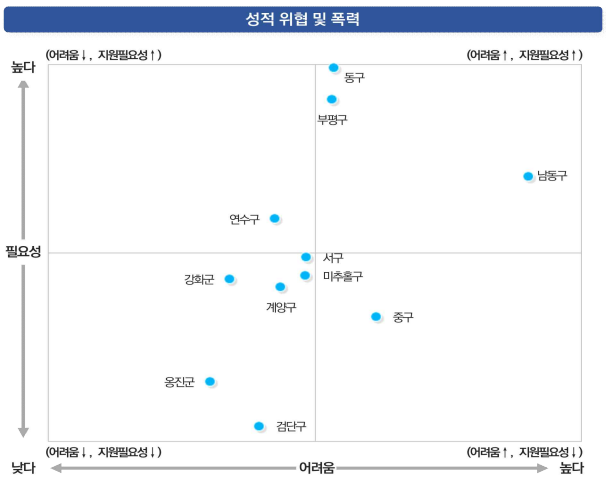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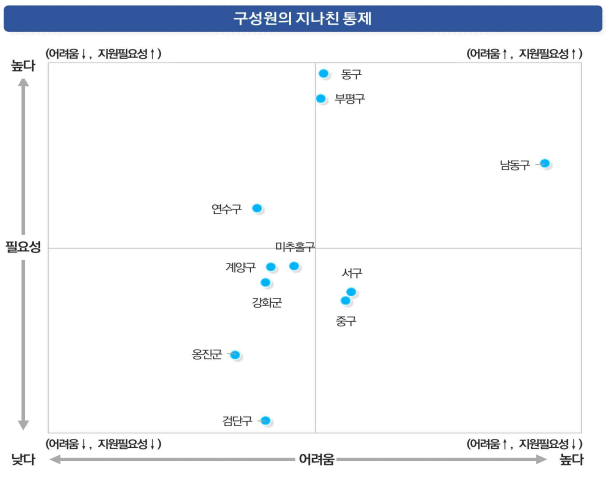






[그림 3-78] 군·구별 보호·안전-가족 내 안전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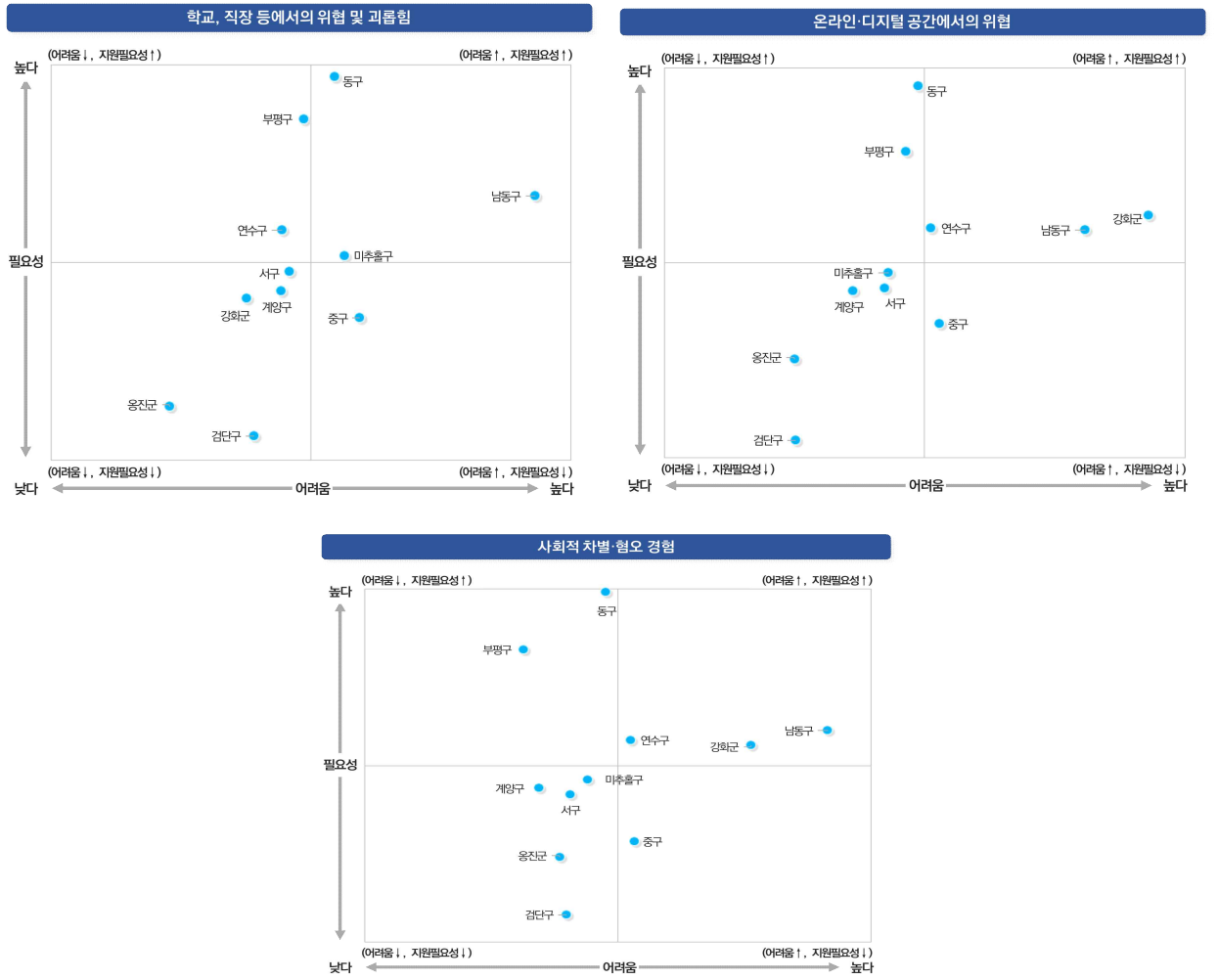




- 군·구별 보호·안전-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 IPA 분석 결과
  - 군·구별 IPA 분석 결과, 학교·직장에서의 위협 및 괴롭힘은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났음. 이는 해당 지역에서 직장·학교 내 갈등과 괴롭힘 문제가 주민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외부 지원 체계와 상담·중재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줌
  - 온라인·디지털 공간에서의 위협은 연수구, 남동구, 강화군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이나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폭력 등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온라인 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교육,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됨
  - 사회적 차별·혐오 경험은 연수구, 동구, 강화군, 남동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차별 예방 정책, 인식 개선 캠페인, 피해자 보호 서비스 등이 강화되어야 함
  - 동구·남동구·미추홀구는 학교·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연수구·남동구·강화군은 온라인·디지털 공간 위협에서, 연수구·동구·강화군·남동구는 사회적 차별·혐오 경험에서 각각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그림 3-75] 군·구별 보호·안전-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 군·구별 보호·안전-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 IPA 분석 결과
  - 군·구별 IPA 분석 결과를 보면, 태풍·홍수·폭설 등 기후 재해로 인한 생활공간 침수·파손은 강화군과 남

동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남.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재난 피해를 크게 체감하고 있으며, 생활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지원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 지진·산사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위협 역시 강화군과 남동구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물리적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지역으로,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과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함
- 또한 재해 발생 시 대피·구호 정보 부족 또는 접근성 미흡도 강화군과 남동구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반영된 결과로, 정보 전달 체계 강화와 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확인됨
- 강화군과 남동구는 자연재해 및 재난 대응 영역에서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인됨. 이는 두 지역이 재난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활 기반 보호, 물리적 안전망 확충, 정보 접근성 개선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3-76] 군·구별 보호·안전-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 군·구별 보호·안전-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 IP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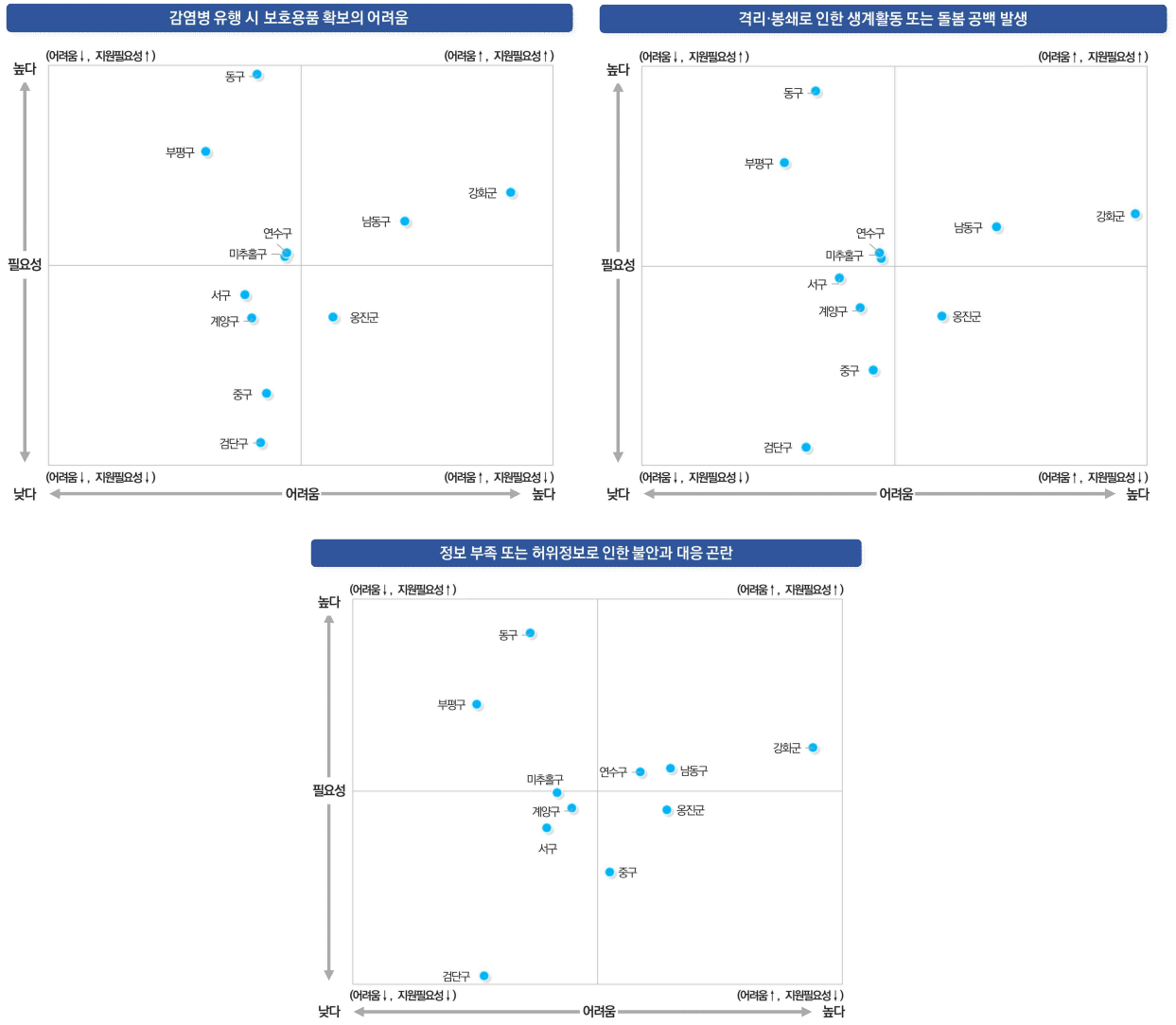
- 군·구별 IPA 분석 결과, 감염병 유행 시 보호용품 확보의 어려움은 강화군과 남동구에서 동시에 높게 나타남.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마스크·방역물품 등 필수 보호용품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부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 또한 격리·봉쇄로 인한 생계활동 또는 돌봄 공백 발생 역시 강화군과 남동구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활동이 중단되거나 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고, 생계 지원과 돌봄 서비스 강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줌
- 정보 부족 또는 허위 정보로 인한 불안과 대응 곤란은 연수구, 남동구, 강화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강화군과 남동구는 감염병 대응과 생계·돌봄 공백 문제에서 동시에 높은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보이는 대표적 지역으로 확인됨. 또한 연수구, 남동구, 강화군은 정보 혼란 문제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위기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그림 3-77] 군·구별 보호·안전-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4) 동거가족과의 생활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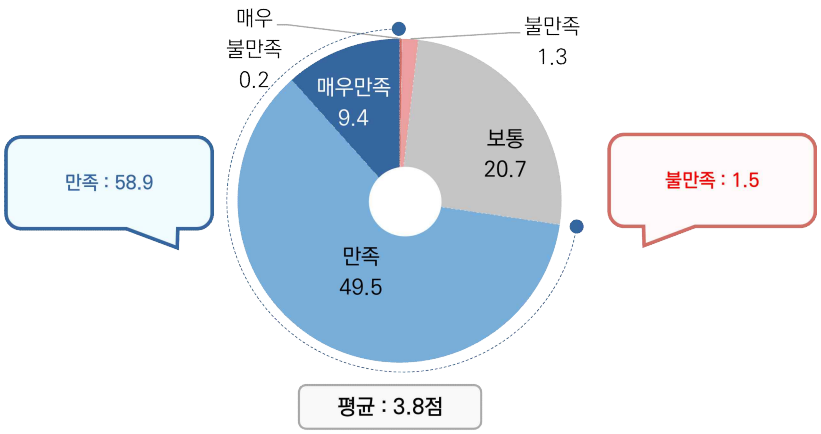
- 동거가족과의 생활 만족도는 평균 3.8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49.5%)'과 '매우 만족(9.4%)' 응답이 전

체의 58.9%를 차지함. 반면 '불만족(1.3%)'과 '매우 불만족(0.2%)'은 1.5%로 매우 낮아, 대체로 긍정적인 생활 만족도가 확인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검단구가 평균 4.2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함. '매우 만족' 응답이 26.5%로 압도적으로 높고, 불만족 응답은 거의 없음. 이는 가족 간 관계가 안정적이며 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석됨
- 그 뒤를 이어 남동구(4.0점)는 '만족' 응답이 55.7%, '매우 만족'이 10.5%로 높게 나타나며, 불만족 응답은 0.2%에 불과함. 연수구(3.9점)와 계양구(3.9점), 강화군(3.9점), 옹진군(3.9점)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특히 옹진군은 '만족' 응답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구(3.7점), 동구(3.7점), 미추홀구(3.7점), 서해구(3.7점)는 평균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반면 부평구는 평균 3.6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그림 3-78] 동거가족과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표 3-142] 군·구별 동거가족과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평균(점/5점)
전체	6,058	0.2	1.3	20.7	49.5	9.4	3.8
중구	600	0.8	4.5	25.2	41.5	10.2	3.7
동구	620	0.0	0.5	30.3	43.1	7.3	3.7
미추홀구	600	0.0	1.5	21.2	51.3	3.5	3.7
연수구	600	0.2	3.0	17.5	46.2	14.3	3.9
남동구	600	0.0	0.2	11.5	55.7	10.5	4.0
부평구	600	0.0	0.5	34.5	42.5	5.3	3.6
계양구	600	0.2	0.8	15.8	52.2	12.3	3.9
서구	340	0.0	0.3	30.3	49.7	6.2	3.7
검단구	260	0.4	0.0	10.8	38.1	26.5	4.2
강화군	600	0.3	0.8	15.0	54.0	12.3	3.9
옹진군	638	0.0	0.6	14.4	63.0	3.4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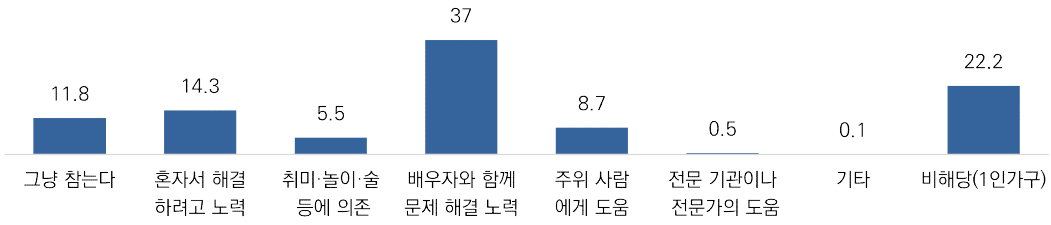
- 동거가족 간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해결 방식은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한다' 37.0%,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4.3%, '그냥 참는다' 11.8%,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 8.7%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0.5%로 낮은 수준이며, 1인 가구로 인해 해당 되지 않는 경우도 22.2%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평구는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율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족 내 협력적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 반면 서구는 혼자서 해결(35.3%), 취미·놀이·술 등에 의존(17.1%), 그냥 참는다(7.1%)로 가족 내 갈등 해결에 있어서 개인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동구는 배우자와 함께 해결(46.3%)과 주위 사람에게 도움(21.6%)을 받는 비율이 모두 높아, 가족 및 주변 관계망을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미추홀구는 배우자와 함께 해결(29.8%)외에도 그냥 참는다(16.7%)와 혼자 해결(16.0%)하는 비율이 높음
- 강화군은 배우자와 함께 해결(33.0%),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18.3%)가 모두 높게 나타나, 동구와 유사하게 가족 및 주변 관계망을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남
- 검단구는 배우자와 함께 해결(33.8%)과 혼자 해결(15.4%)이 고르게 나타나며, 취미·놀이·술 등에 의존한다는 응답도 8.1%로 비교적 높아, 다양한 방식이 혼재된 특성을 보임
- 옹진군은 배우자와 함께 해결(36.1%)와 그냥 참는다(19.7%)가 높게 나타나 외부 도움이나 전문가 활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갈등 상황에서 인내하거나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그림 3-79] 동거가족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 방법

(단위 : %)



[표 3-143] 군·구별 동거가족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 방법

구분	사례수	그냥 참는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취미·놀이·술 등에 의존하여 잊어버리려고 한다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주위 사람(다른 가족, 지인, 친구 등)에게 도움을 받는다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기타	비해당 1인가구
전체	6,058	11.8	14.3	5.5	37.0	8.7	0.5	0.1	22.2
중구	600	7.3	23.0	6.2	34.8	4.8	0.5	0.2	23.2
동구	620	5.3	4.4	7.3	46.3	21.6	0.2	0.5	14.5
미추홀구	600	16.7	16.0	5.3	29.8	4.2	0.3	0.2	27.5
연수구	600	13.5	15.5	7.3	34.2	8.8	0.5	-	20.2
남동구	600	9.2	11.5	3.3	42.0	6.5	1.0	-	26.5
부평구	600	13.7	7.5	1.8	51.8	6.7	0.0	-	18.5
계양구	600	10.2	16.7	2.5	34.2	7.0	0.7	-	28.8
서해구	340	7.1	35.3	17.1	23.2	4.7	0.3	-	12.4
검단구	260	12.3	15.4	8.1	33.8	4.6	0.4	-	25.4
강화군	600	12.7	12.3	4.2	33.0	18.3	1.2	-	18.3
옹진군	638	19.7	9.7	3.6	36.1	4.1	0.0	-	26.8

-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지원 필요성에 있어서 '정서프로그램 지원' 45.3%로 가장 높은 요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가정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프로그램 지원' 41.9%, '법률서비스 지원' 39.5%,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39.3% 순임

[표 3-144]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n=6,058)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평균 점/5점
정서프로그램 지원	29.5	25.2	45.3	3.1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31.1	29.6	39.3	3.0
가정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프로그램 지원	32.8	25.3	41.9	3.0
법률서비스 지원	31.8	28.7	39.5	3.0

- 군·구별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지원 필요성

- 지역별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으로 서해구와 강화군, 동구, 계양구, 부평구 등 이며, 가장 낮은 욕구를 보인 지역은 옹진군과 중구, 연수구, 미추홀구로 나타남
- 정서 프로그램 지원(평균 3.1점)은 가장 높은 욕구를 보인 항목으로, 가족 내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강화군(3.7점), 서구(3.6점), 동구·계양구(3.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임

-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평균 3.0점)은 동구(3.6점)와 강화군(3.6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구(3.3점), 부평구·계양구(3.2점)도 평균 이상으로 나타남. 이는 가족 간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특정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가정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프로그램 지원(평균 3.0점)은 동구(3.6점), 강화군(3.5점), 서구(3.4점)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요구가 강하게 나타남. 반면 옹진군(2.5점), 연수구(2.6점), 미추홀구(2.7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45] 군·구별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성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정서프로그램 지원	3.1	2.7	3.4	2.9	2.8	3.1	3.3	3.4	**3.6**	3.0	**3.7**	2.6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3.0	2.7	**3.6**	2.8	2.6	2.9	3.2	3.2	**3.3**	3.0	**3.6**	2.4
가정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프로그램 지원	3.0	2.7	**3.6**	2.7	2.6	3.0	3.2	3.2	**3.4**	2.7	**3.5**	2.5
법률서비스 지원	3.0	2.6	**3.5**	2.7	2.6	2.9	**3.2**	**3.2**	3.1	2.5	**3.5**	2.5

(5) 가족폭력 및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 인지 여부 및 필요성

- 가족폭력 및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항목별 인지도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필요성은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이는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에 비해 높은 욕구를 보여주는 결과임
- 서비스 인지여부는 112 긴급신고 서비스가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표적 제도로 주민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음. 그 외 가족폭력상담소(36.7%),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35.3%), 1366 전화(34.6%)도 비교적 인지도가 확보되어 있음. 반면 안전 Dream(13.7%),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14.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7.2%)는 인지율이 낮게 나타남
- 서비스 필요성은 가족폭력상담소(56.1%), 112 긴급신고(55.5%), 아동보호전문기관(54.3%), 1366 전화(52.4%)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주민들이 폭력 피해 대응과 긴급 지원 체계에 대해 강한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노인보호전문기관(53.7%), 성폭력 피해자 지원(51.8%),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51.9%)도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요구가 뚜렷함. 반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49.8%)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48.0%)는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을 보여 주민들이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표 3-146] 가족폭력 및 가족문제 해결 사회보장 서비스 인지여부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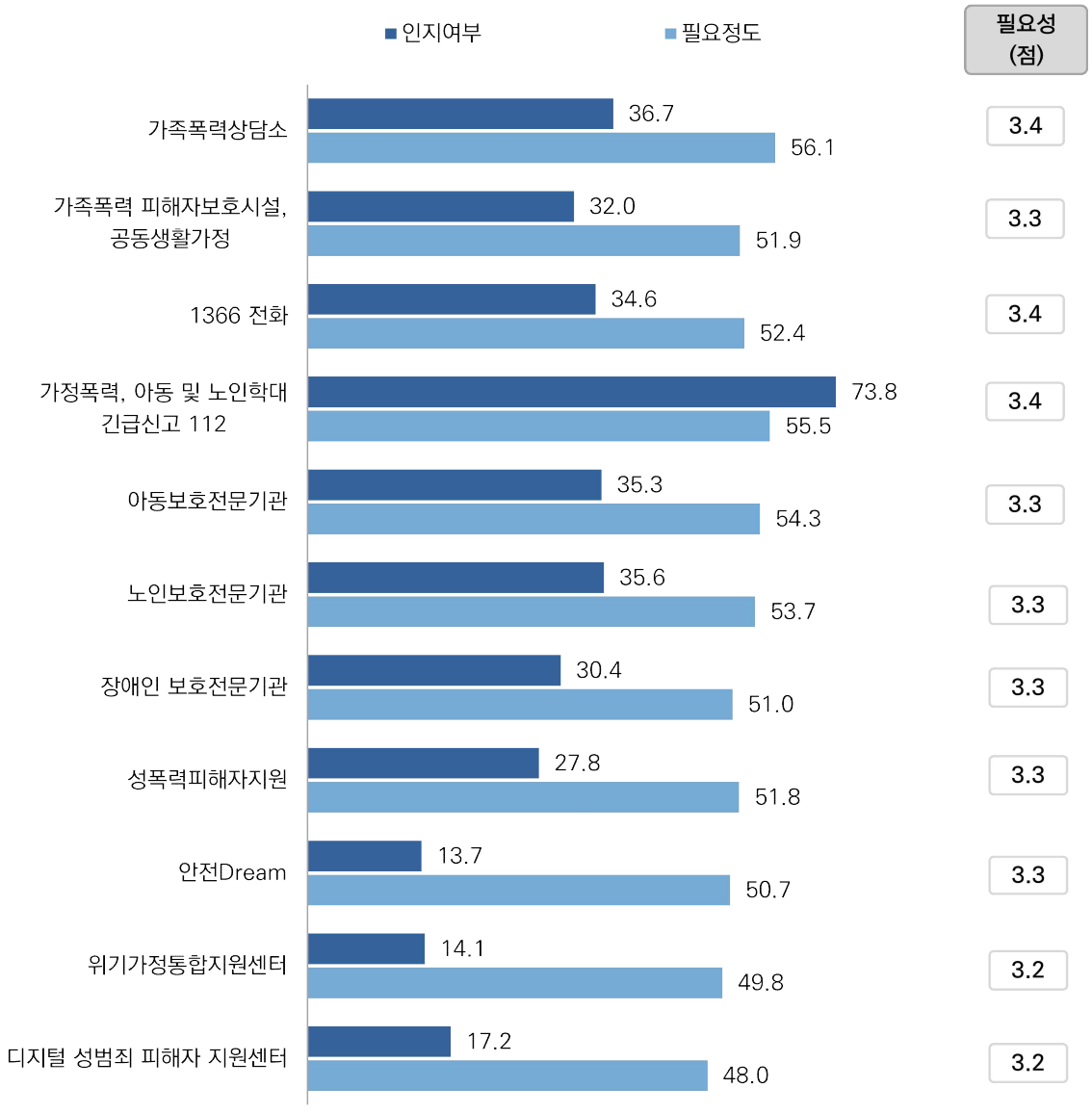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전체(n=6,058)		
	인지 여부	필요정도	
	'알고 있음' 비율	'필요함' 비율	평균 점/5점
가족폭력상담소	36.7	56.1	3.4
가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32.0	51.9	3.3
1366 전화	34.6	52.4	3.4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	63.4	55.5	3.4
아동보호전문기관	35.3	54.3	3.3

구분	전체(n=6,058)		
	인지 여부	필요정도	
	'알고 있음' 비율	'필요함' 비율	평균 점/5점
노인보호전문기관	35.6	53.7	3.3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30.4	51.0	3.3
성폭력피해자지원	27.8	51.8	3.3
안전Dream	13.7	50.7	3.3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14.1	49.8	3.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7.2	48.0	3.2

[그림 3-80] 가족폭력 및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 인지 여부 및 필요성

(단위 : %)



● 군·구별 가족폭력 및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 인지 여부

- 지역별로 가족폭력 및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인지도는 계양구와 중구, 남동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동구, 옹진군, 연수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임
- 가족폭력상담소는 계양구(55.5%), 서해구(52.1%), 남동구(50.2%)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인 반면, 검단구(16.5%), 연수구(21.8%), 옹진군(24.9%)은 상대적으로 낮음
-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은 계양구(51.7%)와 중구(43.5%)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인 반면, 검단구(11.5%), 연수구(12.2%), 강화군(17.7%)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1366 전화 서비스는 동구(48.2%), 계양구(50.5%), 남동구(44.0%)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검단구(14.2%), 강화군(16.5%), 옹진군(24.6%)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는 동구(86.1%), 미추홀구(73.8%), 계양구(70.0%)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인 반면, 옹진군(45.9%)과 검단구(64.2%)는 상대적으로 낮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검단구(62.3%), 중구(47.3%), 미추홀구(48.2%)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인 반면, 동구(19.5%), 연수구(26.2%), 강화군(23.5%)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검단구(60.0%), 중구(46.3%), 미추홀구(47.7%)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인 반면, 연수구(18.0%), 동구(23.5%), 옹진군(29.8%)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장애인 보호전문기관은 검단구(55.8%), 부평구(40.7%), 중구(39.5%)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인 반면, 연수구(13.2%), 강화군(20.7%), 옹진군(21.9%)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부평구(40.5%), 중구(40.0%), 계양구(39.3%)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인 반면, 연수구(12.8%), 강화군(19.0%), 옹진군(18.7%)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안전Dream은 계양구(28.2%)와 중구(2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율을 보인 반면, 부평구(2.2%), 검단구(8.5%), 강화군(6.7%)은 낮았음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계양구(25.7%), 중구(21.8%), 남동구(21.7%)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인 반면, 검단구(6.5%), 연수구(8.5%), 옹진군(11.0%)은 낮았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중구(30.7%), 계양구(25.2%), 남동구(21.0%)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인 반면, 검단구(6.5%), 옹진군(8.3%), 연수구(9.5%)는 낮았음

[표 3-147] 군·구별 가족폭력 및 가족문제 해결 사회보장 서비스 인지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가족폭력상담소	36.7	50.3	27.9	32.2	21.8	50.2	42.0	**55.5**	**52.1**	16.5	26.3	24.9
가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32.0	**43.5**	27.6	30.3	12.2	42.0	36.8	**51.7**	40.0	11.5	17.7	30.9
1366 전화	34.6	39.5	**48.2**	38.8	33.5	44.0	27.8	**50.5**	29.7	14.2	16.5	24.6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	63.4	56.2	**86.1**	73.8	66.5	51.2	63.3	**70.0**	52.1	64.2	63.8	45.9
아동보호전문기관	35.3	47.3	19.5	**48.2**	26.2	35.3	38.8	42.5	33.2	**62.3**	23.5	27.3
노인보호전문기관	35.6	46.3	23.5	**47.7**	18.0	38.0	35.5	46.7	32.9	**60.0**	26.8	29.8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30.4	39.5	20.5	34.0	13.2	35.2	**40.7**	39.7	26.5	**55.8**	20.7	21.9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성폭력피해자지원	27.8	**40.0**	22.9	25.2	12.8	31.3	**40.5**	39.3	24.4	35.4	19.0	18.7
안전Dream	13.7	**22.5**	13.1	12.3	9.2	18.7	2.2	**28.2**	9.1	8.5	6.7	15.4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14.1	**21.8**	13.2	15.7	8.5	21.7	8.8	**25.7**	8.2	6.5	7.3	11.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7.2	**30.7**	21.0	13.2	9.5	21.0	21.5	**25.2**	13.2	6.5	11.3	8.3

- 군·구별 가족폭력 및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 필요 정도

- 지역별 가족폭력 및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욕구는 계양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연수구, 강화군, 검단구, 중구, 옹진군이 전반적으로 낮은 욕구를 보임
- 가족폭력상담소는 강화군(3.9점), 동구(3.9점), 부평구(3.8점)에서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검단구(2.6점)와 중구(2.6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동구(4.0점), 강화군(3.8점), 부평구(3.8점)에서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검단구(2.6점)와 중구(2.6점)는 낮아 상대적으로 낮았음
- 1366 전화 서비스는 동구(4.0점), 강화군(4.0점), 부평구(3.6점)에서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검단구(2.7점)와 중구(2.6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112 긴급신고 서비스는 동구(4.1점), 강화군(3.9점), 부평구(3.7점)에서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검단구(2.6점), 중구(2.6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구(4.1점), 강화군(3.8점), 부평구(3.8점)에서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검단구(2.4점)와 중구(2.6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동구(4.0점), 강화군(3.9점), 부평구(3.7점)에서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검단구(2.5점), 중구(2.6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장애인 보호전문기관은 동구(4.0점), 강화군(3.8점), 부평구(3.6점)에서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며, 검단구(2.5점), 중구(2.6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동구(4.1점), 강화군(3.9점), 부평구(3.7점)에서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검단구(2.4점), 중구(2.6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안전Dream은 동구(4.0점), 강화군(3.8점), 부평구(3.6점)에서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검단구(2.8점), 중구(2.6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동구(3.9점), 강화군(3.7점), 부평구(3.6점)에서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검단구(2.6점), 중구(2.6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동구(3.9점), 강화군(3.7점), 부평구(3.5점)에서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검단구(2.5점), 중구(2.5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3-148] 군·구별 가족폭력 및 가족 문제 해결 사회보장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가족폭력상담소	3.4	2.6	**3.9**	3.3	3.2	3.4	**3.8**	3.7	3.4	2.6	3.9	3.0
가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3.3	2.6	**4.0**	3.2	3.2	3.1	**3.8**	3.5	3.3	2.6	3.8	3.1
1366 전화	3.4	2.6	**4.0**	3.1	3.3	3.4	3.6	3.5	3.4	2.7	**4.0**	3.0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	3.4	2.6	**4.1**	3.2	3.4	3.4	3.7	3.5	3.4	2.6	**3.9**	3.2
아동보호전문기관	3.3	2.6	**4.1**	3.2	3.3	3.3	3.8	3.4	3.3	2.4	**3.8**	3.0
노인보호전문기관	3.3	2.6	**4.0**	3.2	3.3	3.3	3.7	3.4	3.4	2.5	**3.8**	3.0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3.3	2.6	**4.0**	3.2	3.2	3.2	3.6	3.4	3.4	2.5	**3.8**	2.9
성폭력피해자지원	3.3	2.6	**4.0**	3.1	3.3	3.2	3.7	3.5	3.3	2.4	**3.9**	2.9
안전Dream	3.3	2.6	**4.0**	3.0	3.2	3.3	3.6	3.4	3.3	2.8	**3.8**	2.9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3.2	2.6	**3.9**	3.0	3.1	3.2	3.6	3.4	3.2	2.6	**3.7**	2.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3.2	2.5	**3.9**	2.9	3.2	3.2	3.5	3.4	3.2	2.5	**3.7**	2.8

10) 교육[15)]

(1) 교육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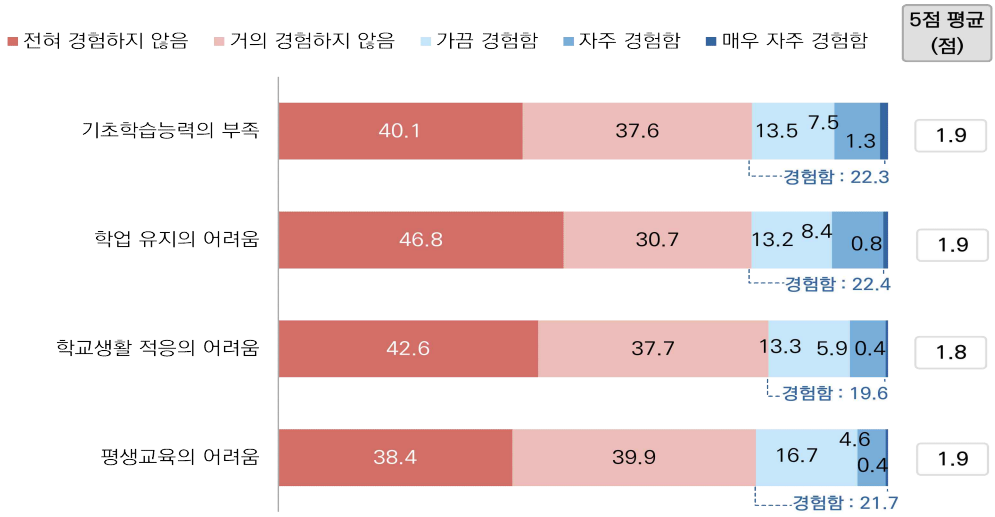
- 교육 관련 어려움 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소 양호한 수준임. 모든 항목에서 '전혀 경험하지 않음'과 '거의 경험하지 않음'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점수도 5점 만점 기준 1.8~1.9점 수준이었으며, 4년 전(5기)에 비해 어려움 정도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여전히 '기초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이 22.3%, '학업유지의 어려움' 22.4%, '평생교육의 어려움' 21.7%,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19.6%인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10명 중 2명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기초학습능력의 부족은 응답자의 77.7%가 어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았음. 그러나 22.3%는 '가끔 이상 경험함'으로 응답하여, 일부 학습 취약계층에서 기초학습능력 부족이 확인됨. 평균 점수는 1.9점으로 낮은 수준임
- 학업 유지의 어려움은 응답자의 77.5%가 어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았음. 하지만 22.4%는 '가끔 이상 경험함'으로 응답하여, 학업 지속에 대한 부담을 일부가 체감하고 있음. 평균 점수는 1.9점으로 기초학습능력 부족과 유사한 수준임
-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응답자의 80.3%가 어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았음. '가끔 이상 경험함'은 19.6%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평균 점수도 1.8점으로 가장 낮음
- 평생교육의 어려움은 응답자의 78.3%가 어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았음. '가끔 이상 경험함'은 21.7%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1.9점으로 낮음

15) 기초학습능력, 학업 유지, 학교생활 적응은 초·중·고 취학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이며, 평생교육 관련 질문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임

[그림 3-81] 교육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



[표 3-149] 교육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기초학습능력의 부족	40.1	37.6	13.5	7.5	1.3	1.9	2.3
학업 유지의 어려움	46.8	30.7	13.2	8.4	0.8	1.9	2.3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42.6	37.7	13.3	5.9	0.4	1.8	2.2
평생교육의 어려움	38.4	39.9	16.7	4.6	0.4	1.9	1.9

● 군·구별 교육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교육관련 어려움 경험은 옹진군과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서해구와 계양구, 연수구, 중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학습능력의 부족은 인천시 평균 1.9점으로 나타남. 미추홀구(2.2점), 옹진군(2.1점), 부평구(2.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연수구(1.6점), 서해구(1.7점)는 낮은 수준임
- 학업 유지의 어려움은 평균 1.9점으로 나타남. 미추홀구(2.2점), 옹진군(2.1점), 남동구(2.0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구(1.5점), 강화군(1.6점)은 낮음
-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평균 1.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미추홀구(2.1점), 옹진군(2.0점), 남동구(2.0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구(1.5점), 서해구(1.5점)는 낮음
- 평생교육의 어려움은 평균 1.9점으로 나타남. 검단구(2.2점), 미추홀구(2.0점), 서해구(2.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평구(1.7점), 강화군(1.7점)은 낮음. 이는 평생교육 참여와 접근성에서 지역별 격차가 있음을 의미함

[표 3-150] 군·구별 교육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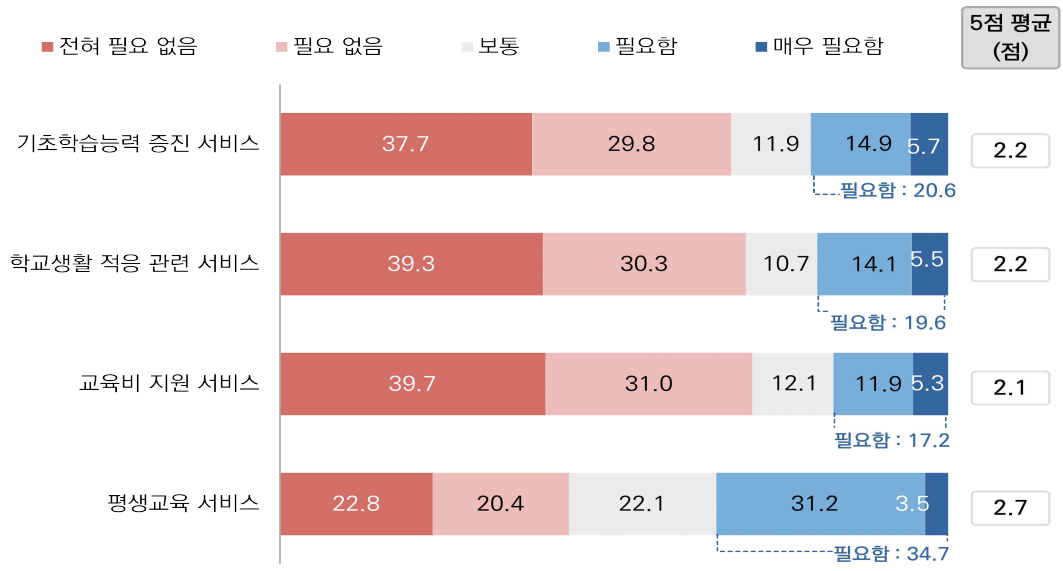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기초학습능력의 부족	1.9	1.6	2.0	**2.2**	1.6	2.0	2.0	1.8	1.7	1.9	1.9	**2.1**
학업 유지의 어려움	1.9	1.6	1.9	**2.2**	1.5	2.0	2.0	1.7	1.7	1.9	1.6	**2.1**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1.8	1.8	1.9	**2.1**	1.5	**2.0**	**2.0**	1.7	1.5	1.9	1.7	**2.0**
평생교육의 어려움	1.9	1.9	1.8	**2.0**	**2.0**	1.9	1.7	1.9	**2.0**	**2.2**	1.7	1.9

(2) 교육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교육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서비스' 34.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항목들은 교육 관련 어려움 경험정도에 비해 지원의 필요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평생교육을 제외 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특정 계층으로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는 응답자의 67.5%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2.2점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는 69.6%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2.2점으로 기초학습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이는 학교생활 적응 지원 수요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확인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적응 상태를 반영함
  - 교육비 지원 서비스는 70.7%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이는 교육비 부담에 대한 체감이 낮거나 기존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일정 수준 이상임을 시사함
  - 평생교육 서비스는 다른 항목과 뚜렷하게 구분됨.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3.2%로 상대적으로 낮고,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 응답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 점수도 2.7점으로 유일하게 2.5점을 넘겼으며, 이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3-82] 교육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



[표 3-151] 교육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37.7	29.8	11.9	14.9	5.7	2.2	2.7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	39.3	30.3	10.7	14.1	5.5	2.2	2.7
교육비 지원 서비스	39.7	31.0	12.1	11.9	5.3	2.1	2.6
평생교육 서비스	22.8	20.4	22.1	31.2	3.5	2.7	2.4

- 군·구별 교육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지역별 교육 관련 외부 지원 필요성은 부평구와 남동구, 옹진군, 연수구에서 높은 욕구를 보였으며, 미추홀구와 강화군, 서해구, 검단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욕구를 보임
-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는 부평구(2.8점), 남동구(2.7점), 옹진군(2.5점)에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음. 반면 동구(1.7점), 미추홀구(1.7점)는 낮은 수준을 기록함
-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는 부평구(2.7점), 남동구(2.7점), 옹진군(2.5점)에서 높게 나타났음. 반면 동구(1.6점), 미추홀구(1.7점)는 낮은 수준임. 학교생활 적응 지원은 특정 지역에서 수요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육비 지원 서비스는 부평구(2.7점), 남동구(2.6점), 옹진군(2.4점)에서 높게 나타났음. 반면 동구(1.5점), 미추홀구(1.5점)는 가장 낮음. 이는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평생교육 서비스는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균을 기록함. 동구(3.1점), 남동구(2.9점), 계양구(2.9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음. 반면 강화군(2.3점), 서해구(2.4점)는 상대적으로 낮음

[표 3-152] 군·구별 교육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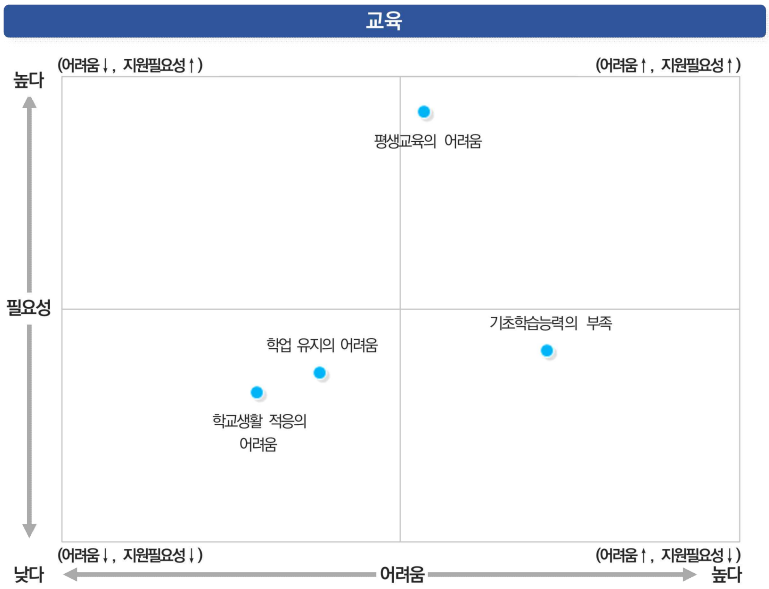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2.2	2.0	1.7	1.7	2.3	**2.7**	**2.8**	2.2	2.0	2.0	2.0	2.5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	2.2	2.0	1.6	1.7	2.2	**2.7**	**2.7**	2.1	2.0	1.8	2.1	**2.5**
교육비 지원 서비스	2.1	2.0	1.5	1.5	2.2	**2.6**	**2.7**	2.1	1.9	2.0	2.0	2.4
평생교육 서비스	2.7	2.8	**3.1**	2.5	2.8	**2.9**	2.8	**2.9**	2.4	2.8	2.3	2.6

(3) 교육 IPA 결과

- 교육관련 어려움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IPA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생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살료됨. 이는 응답자들이 평생교육에 대해 강한 필요성을 느끼는 동시에 실제 참여나 접근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평생교육이 단순한 선택적 학습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핵심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 과제로 판단됨
- 반면, 기초학습능력의 부족은 어려움은 높지만 필요성 인식은 낮은 영역으로 나타남. 이는 일부 학습 취약계층에게는 분명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책의 필요성 인식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3] 인천시 전체 교육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 군·구별 교육 관련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 IPA 분석 결과

- 기초학습능력과 관련하여 부평구, 남동구, 옹진군은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이들 지역은 기초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요에 맞춘 심화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반면 강화군, 검단구, 동구, 미추홀구는 기초학습능력의 어려움은 인식은 높지만,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되는 지역으로 나타남. 이들 지역은 기초학습능력의 어려움과 중요성은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역의 학습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기존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함
- 학업 유지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부평구, 남동구, 옹진군으로 확인됨. 이들 지역은 학업 지속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요구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검단구, 동구, 미추홀구는 학업유지의 어려움은 높지만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되고 있음. 이는 학업 유지에 대한 어려움을 체감하면서도 외부 지원보다는 자력 해결을 선호하거나, 제도적 개입에 대한 기대가 낮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부평구, 남동구, 옹진군으로 확인됨. 이는 학교생활에서의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에 대한 지원 요구도 높은 지역임을 의미함. 반면 검단구, 동구, 미추홀구는 적응의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되고 있음. 이는 학교 내 환경이나 공동체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적응 문제를 개인적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지역일 수 있음
- 평생교육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계양구, 연수구, 검단구로 확인됨. 이들 지역은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가 높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기대도 큰 것으로 해석됨. 반면 미추홀구·서해구는 평생교육의 어려움은 높지만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되고 있음. 이는 학습참여에 대한 제약은 존재하나, 외부 지원보다는 자율적 학습이나 기존 자원 활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84] 군·구별 교육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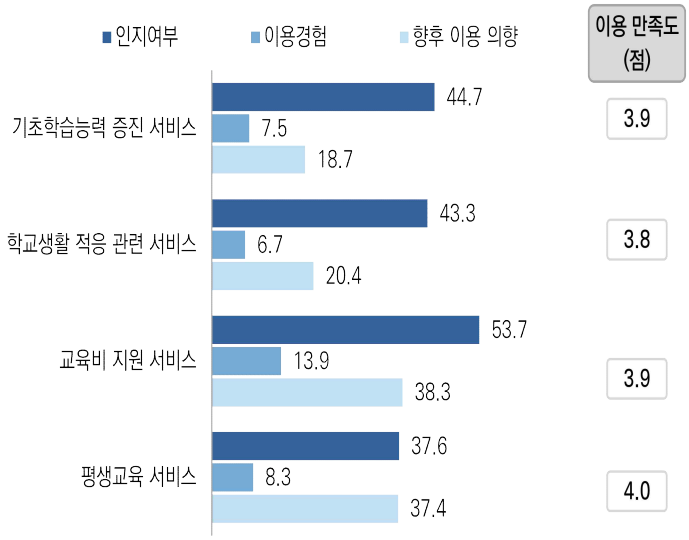
(4)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와 이용현황

-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율은 '교육비 지원 서비스'가 5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44.7%, '학교생활 적응 서비스' 43.3% 순임. 반면, '평생교육 서비스'는 37.6%로 가장 낮은 인지율을 보임
-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는 '교육비 지원 서비스'가 13.9%로 가장 높았고, '평생교육 서비스' 8.3%,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7.5%, '학교생활 적응 서비스' 6.7% 순임. 이는 교육비 지원은 실질적 수요가 가장 큰 서비스이고, 평생교육은 인지도는 낮지만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용만족도에서는 '평생교육 서비스'가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와 '교육비 지원 서비스'가 각각 3.9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학교생활 적응 서비스'는 3.8점으로 가장 낮았음. 이는 평생교육 서비스가 실제 이용자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확대 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이용 의향에서는 '교육비 지원 서비스'가 38.3%로 가장 높았고, '평생교육 서비스' 37.4%, '학교생활 적응 서비스' 20.4%,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18.7% 순임

[그림 3-85]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와 이용현황

(단위 : %)



[표 3-153]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와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있음' 비율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44.7	7.5	57	3.9	18.7	35.9	5.4	41.1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	43.3	6.7	52	3.8	20.4	35.6	5.1	41.6
교육비 지원 서비스	53.7	13.9	104	3.9	38.3	51.0	12.7	58.0
평생교육 서비스	37.6	8.3	504	4.0	37.4	39.0	5.5	41.9

군·구별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의 인천시 전체 평균 인지율은 44.7%로 나타남. 연수구(67.2%), 남동구(61.5%)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아 기초학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 반면 부평구(22.4%)와 중구(10.3%)는 인지율이 낮음
-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의 전체 평균 인지율은 43.3%임. 연수구(62.7%), 남동구(56.9%)가 높은 인지율을 보임. 반면 검단구(28.0%), 서해구(28.6%)는 낮은 인지율을 보임
- 교육비 지원 서비스 전체 평균 인지율은 53.7%로 네 가지 서비스 중 가장 높음. 미추홀구(67.5%), 연수구(67.2%), 동구(66.7%) 등에서 인지율이 높음. 반면 검단구(32.0%)와 강화군(43.5%)은 상대적으로 낮아 홍보 강화가 필요함

- 평생교육 서비스 전체 평균 인지율은 37.6%로 가장 낮음. 그러나 중구(50.5%), 계양구(56.8%)는 높은 인지율을 보여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나타남. 반면 서해구(14.1%)와 강화군(30.0%)은 낮은 인지율을 나타냄

[표 3-154] 인천시 군·구별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44.7	10.3	53.3	53.2	**67.2**	**61.5**	22.4	46.9	37.1	40.0	35.3	45.5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	43.3	12.1	**52.0**	49.4	**62.7**	56.9	26.3	42.7	28.6	28.0	40.0	50.9
교육비 지원 서비스	53.7	17.2	**66.7**	**67.5**	**67.2**	**64.2**	36.8	60.4	45.7	32.0	43.5	60.0
평생교육 서비스	37.6	**50.5**	26.8	47.8	34.7	35.5	34.8	**56.8**	14.1	30.8	30.0	37.8

● 군·구별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경험

-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는 미추홀구(13.0%), 연수구(10.4%), 강화군(9.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반면, 부평구(2.6%), 중구(3.4%), 옹진군(3.6%)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서해구는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는 검단구(12.0%)가 가장 높고, 미추홀구(9.1%), 남동구·계양구(각 8.3%)가 뒤를 이음. 반면 연수구(1.5%), 서해구(2.9%)는 매우 낮은 수준임
- 교육비 지원 서비스의 전체 평균은 13.9%로 네 가지 서비스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함. 연수구(25.4%), 검단구(20.0%), 동구(17.3%)가 특히 높아 교육비 지원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반면 중구(5.2%), 옹진군(5.5%)은 낮은 수준임. 이는 교육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 평생교육 서비스의 전체 평균은 8.3%임. 계양구(19.0%), 연수구(18.2%), 중구(11.7%)가 높게 나타나 평생교육 참여가 활발한 지역임을 보여줌. 반면 서해구(0.0%), 검단구(0.8%)는 거의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평생교육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인식과 접근성이 크게 부족함을 의미함

[표 3-155] 군·구별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7.5	3.4	8.0	**13.0**	**10.4**	9.2	2.6	8.3	-	8.0	9.4	3.6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	6.7	5.2	6.7	**9.1**	1.5	8.3	7.9	8.3	2.9	**12.0**	7.1	3.6
교육비 지원 서비스	13.9	5.2	17.3	14.3	**25.4**	13.8	14.5	12.5	8.6	**20.0**	14.1	5.5
평생교육 서비스	8.3	11.7	3.4	10.8	**18.2**	8.0	2.5	**19.0**	-	0.8	3.3	6.3

● 군·구별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의 만족도는 연수구(4.3점), 강화군(4.1점), 검단구·부평구·옹진군(각 4.0점)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반면, 중구(3.0점)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는 중구·연수구·서해구(각 4.0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미추홀구·남동구·계양구는 3.9점으로 뒤를 이음. 반면 부평구(3.5점), 옹진군(3.0점)은 낮은 만족도를 보임
- 교육비 지원 서비스는 계양구(4.2점), 동구·연수구(각 4.1점), 서해구(4.0점)에서 만족도가 높아 교육비 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옹진군(3.0점), 중구·미추홀구(각 3.7점)는 상대적으로 낮음
- 평생교육 서비스는 계양구(4.2점), 연수구(4.1점), 동구·강화군(각 4.0점)에서 만족도가 높아 평생교육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짐. 반면 검단구(3.5점), 중구·옹진군(3.8점)은 상대적으로 낮음

[표 3-156] 군·구별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3.9	3.0	3.8	3.9	**4.3**	3.8	4.0	3.9	-	4.0	**4.1**	4.0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	3.8	**4.0**	3.8	**3.9**	**4.0**	**3.9**	3.5	3.9	**4.0**	3.7	3.8	3.0
교육비 지원 서비스	3.9	3.7	**4.1**	3.7	**4.1**	3.8	3.8	**4.2**	4.0	3.8	3.8	3.0
평생교육 서비스	4.0	3.8	4.0	3.9	**4.1**	3.9	3.9	**4.2**	-	3.5	4.0	3.8

● 군·구별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교육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의향은 이용경험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연수구, 부평구, 검단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였으며, 옹진군, 강화군, 중구, 동구, 남동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욕구를 보임
-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의 인천시 평균 향후 이용 의향은 18.7%로 나타남. 연수구(37.3%)와 부평구(31.6%)에서 특히 높아 기초학습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확인됨. 반면 검단구(4.0%)와 중구(10.3%)는 낮음
-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는 평균 20.4%로 기초학습보다 약간 높음. 연수구(40.3%)와 부평구(39.5%)에서 높은 수요가 나타났으며, 옹진군(20.0%)도 평균보다 높음. 반면 검단구(4.0%)와 동구(14.7%)는 낮음
- 교육비 지원 서비스는 평균 38.3%로 네 가지 서비스 중 가장 높은 향후 이용 의향을 기록함. 연수구(68.7%)와 부평구(52.6%)에서 특히 높아 교육비 지원에 대한 강한 수요가 확인됨. 서해구(40.0%), 계양구(36.5%)도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중구(13.8%)와 강화군(29.4%)은 상대적으로 낮음
- 평생교육 서비스는 평균 37.4%로 교육비 지원과 유사한 수준임. 계양구(51.0%), 검단구(54.2%), 연수구(48.3%)에서 높은 수요가 확인되며, 미추홀구(42.0%)도 평균보다 높음. 반면 부평구(25.5%)와 동구(25.3%)는 낮음

[표 3-157] 군·구별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18.7	10.3	14.7	15.6	**37.3**	18.3	**31.6**	13.5	11.4	**4.0**	18.8	18.2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	20.4	15.5	14.7	16.9	**40.3**	16.5	39.5	14.6	14.3	**4.0**	18.8	20.0
교육비 지원 서비스	38.3	13.8	36.0	36.4	**68.7**	36.7	**52.6**	36.5	40.0	28.0	29.4	36.4
평생교육 서비스	37.4	40.5	25.3	42.0	48.3	35.3	25.5	**51.0**	26.5	**54.2**	36.7	31.2

- 교육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기초학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29.6%)임. 그 외에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15.7%),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15.1%)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학업 유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27.8%)임. 이어서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14.6%),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12.5%)가 뒤를 이음
- 학교생활 적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33.1%)으로 나타남. 이는 제도적 접근성 문제, 즉 지원 대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줌. 그 외에도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13.5%),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기관 접근성 부족(7.9%) 등이 원인으로 확인됨
- 평생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28.5%)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28.3%)임. 이는 평생교육 참여가 개인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 또한 동기·자신감 부족(13.0%)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표 3-158] 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기초학습능력의 부족	159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29.6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5.7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5.1
학업 유지의 어려움	144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27.8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14.6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2.5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178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3.1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3.5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7.9
평생교육의 어려움	748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28.5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28.3	동기, 자신감 부족	13.0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해당 사항 없음 포함 100%

(5) 참여를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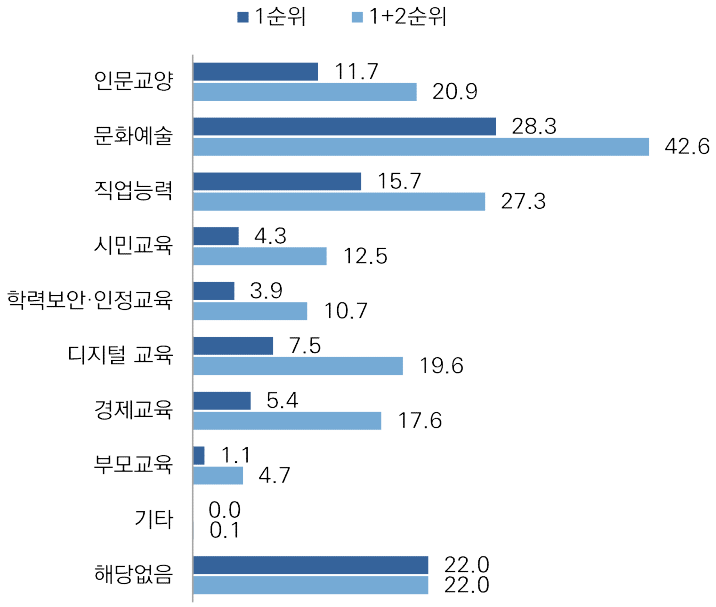
- 인천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참여 희망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42.6%, 직업능력 27.3%, 인문교양 20.9%, 디지털 교육 19.6%, 경제교육 17.6% 순으로 나타남. 반면 부모교육 4.7%, 기타 0.1%, 해당 없음 22.0% 응답도 일부 존재하여, 관심 분야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줌

- 문화예술은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특히 중구(59.0%), 계양구(53.8%), 동구(50.2%), 검단구(52.7%), 강화군(44.5%)에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이는 지역 주민들이 예술·문화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자기표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직업능력 향상에 대한 수요는 계양구(40.0%), 서해구(36.8%), 동구(31.6%), 부평구(30.5%) 등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실질적인 취업·생계와 연결된 학습 수요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실무 중심의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인문교양은 계양구(31.8%), 동구(27.7%), 부평구(25.5%), 연수구(24.7%) 등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이는 자기성찰, 지적 성장, 삶의 깊이를 추구하는 학습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철학·문학·역사 등 교양 중심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됨

- 디지털 교육은 동구(30.2%), 강화군(26.2%), 옹진군(22.6%) 등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함. 이는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수요가 강함을 보여주며,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 경제교육은 강화군(26.2%), 연수구(26.2%), 부평구(23.2%), 남동구(21.2%) 등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이는 가계관리, 재무설계, 소비자 교육 등 실생활 중심의 경제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부모교육은 전체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이나, 검단구(18.1%), 연수구(9.0%), 계양구(5.5%)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가 확인됨. 이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보여줌

[그림 3-86] 참여를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단위 : %)



[표 3-159] 참여를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1+2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업능력	시민교육	학력보안·인정교육	디지털 교육	경제교육	부모교육	기타	해당없음
전체	6,058	20.9	42.6	27.3	12.5	10.7	19.6	17.6	4.7	0.1	22.0
중구	600	16.8	59.0	24.3	15.7	16.0	11.7	9.0	2.2		22.7
동구	620	27.7	50.2	31.6	9.7	11.8	30.2	17.3	3.4	0.2	9.0
미추홀구	600	18.0	38.8	24.5	9.7	7.3	19.8	13.3	4.0	0.2	32.2
연수구	600	24.7	38.3	27.3	9.8	7.7	18.3	26.2	9.0	0.7	19.0
남동구	600	11.2	24.0	20.8	17.0	8.5	16.7	21.2	4.0	-	38.3
부평구	600	25.5	47.3	30.5	7.0	4.0	16.2	23.2	4.0	-	21.2
계양구	600	31.8	53.8	40.0	10.2	10.7	17.5	14.8	5.5	-	7.8
서해구	340	9.1	30.0	36.8	35.3	25.0	18.8	15.9	2.1	-	13.5

구분	사례수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업능력	시민교육	학력보안·인정교육	디지털 교육	경제교육	부모교육	기타	해당없음
검단구	260	6.5	52.7	15.0	3.8	11.5	13.1	16.2	18.1	-	31.5
강화군	600	22.8	44.5	23.0	7.2	12.7	26.2	26.2	3.5	-	17.0
옹진군	638	22.3	30.6	23.2	17.2	8.9	22.6	9.9	2.4	-	31.5

11) 고용[16)]

(1) 고용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인천시 응답자들이 경험한 고용 관련 어려움은 항목별로 체감 빈도와 심각도에 차이가 나타남. 전체적으로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과 '취업·창업 정보 부족'에서 높은 어려움을 나타낸 반면, '1년 이상 고용유지의 어려움'과 '사업의 도산 · 폐업, 감원, 일자리 부족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에 있어서 가끔 경험과 자주, 매우 자주 경험한다는 응답을 포함한 어려움 경험 정도는 '일자리의 부족' 5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 · 창업 정보 부족' 47.6%,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38.2%, '창업자금 부족' 32.1%,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 · 창업 어려움' 23.9%,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21.0%,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18.4%,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16.9%, '1년 이상 고용유지의 어려움' 16.1%, '사업의 도산 · 폐업, 감원, 일자리 부족' 15.1% 순으로 나타남
- 4년 전(5기)에 비해 고용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표 3-160] 고용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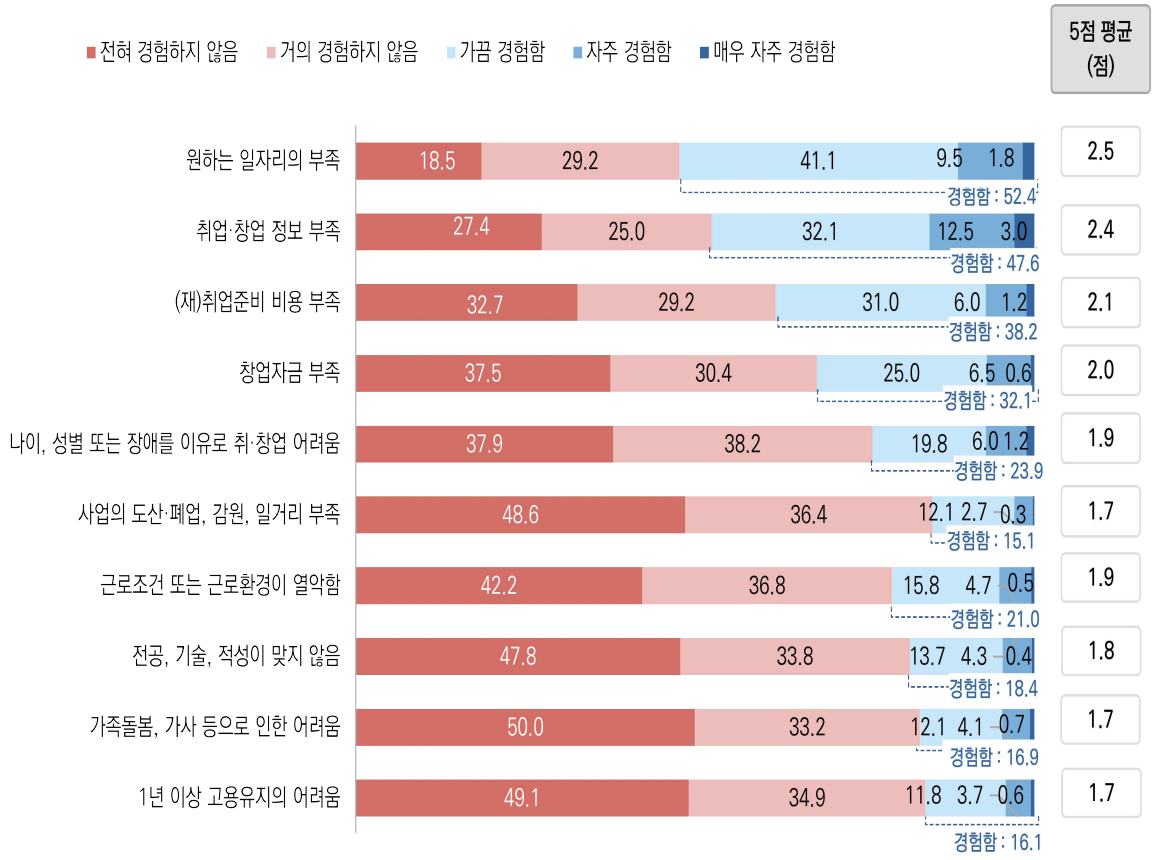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6기(n=5,009)						5기(n=6,290)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18.5	29.2	41.1	9.5	1.8	2.5	2.6
취업·창업 정보 부족	27.4	25.0	32.1	12.5	3.0	2.4	2.5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32.7	29.2	31.0	6.0	1.2	2.1	2.3
창업자금 부족	37.5	30.4	25.0	6.5	0.6	2.0	2.2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창업 어려움	37.9	38.2	16.7	6.0	1.2	1.9	2.3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	48.6	36.4	12.1	2.7	0.3	1.7	2.2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42.2	36.8	15.8	4.7	0.5	1.9	2.3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47.8	33.8	13.7	4.3	0.4	1.8	2.2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50.0	33.2	12.1	4.1	0.7	1.7	2.2
1년 이상 고용유지의 어려움	49.1	34.9	11.8	3.7	0.6	1.7	2.2

16) 고용과 관련한 질문은 취업, 창업의 어려움 4개 질문, 고용유지의 어려움 6개 질문으로 나누어 질문하였음. 창업의 어려움은 지난 1년 간 구직(창업)활동을 경험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고용유지의 어려움은 유급노동을 하는 가구원인이 있는 가구가 응답하도록 하였음.

[그림 3-87] 고용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



● 군·구별 고용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은 검단구(3.7점), 미추홀구(3.5점), 강화군(3.2점), 서해구(3.0점)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해당 지역에서 구직자의 기대와 실제 노동시장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줌. 반면 동구(1.8점), 부평구(1.8점)는 낮은 수준임
- 취업·창업 정보 부족은 검단구(3.7점), 연수구(3.6점), 미추홀구·남동구(각 3.0점)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정보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가 뚜렷함을 보여줌. 부평구(1.3점)는 가장 낮은 수준임
- 재취업 준비 비용 부족은 연수구(3.1점), 미추홀구(3.0점), 서해구·검단구(각 2.7점)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부평구(1.3점), 동구(1.8점)는 낮음.
- 창업자금 부족은 연수구(2.9점), 서해구(2.7점)에서 높게 나타남. 남동구(1.0점), 부평구(1.3점)는 낮은 수준임
- 나이·성별·장애로 인한 취·창업 어려움은 전체 평균 1.9점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검단구(2.5점), 남동구(2.2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취약계층의 고용 장벽이 일부 지역에서 더 두드러짐을 의미함
- 사업 도산·폐업, 일거리 부족은 전 지역에서 1.5~1.8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음
- 근로조건·근로환경 열악함은 남동구(2.1점), 미추홀구(2.0점), 계양구(2.0점)에서 높게 나타남. 중구·동구(1.7점)는 낮음
- 전공·기술·적성 불일치는 남동구(2.0점),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각 1.9점)에서 높음. 옹진군(1.3점), 검단구(1.5점)는 낮음

- 가족돌봄·가사로 인한 어려움은 남동구(2.0점), 연수구·미추홀구·계양구(각 1.8점)에서 높음. 옹진군(1.4점), 동구(1.5점)는 낮음. 이는 돌봄 부담이 특정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줌
- 1년 이상 고용유지의 어려움은 검단구(2.1점), 남동구(1.9점)에서 높음. 동구(1.5점), 옹진군(1.5점)는 낮음. 이는 고용 지속성에 대한 불안이 일부 지역에서 더 크게 체감됨을 의미함

[표 3-161] 군·구별 고용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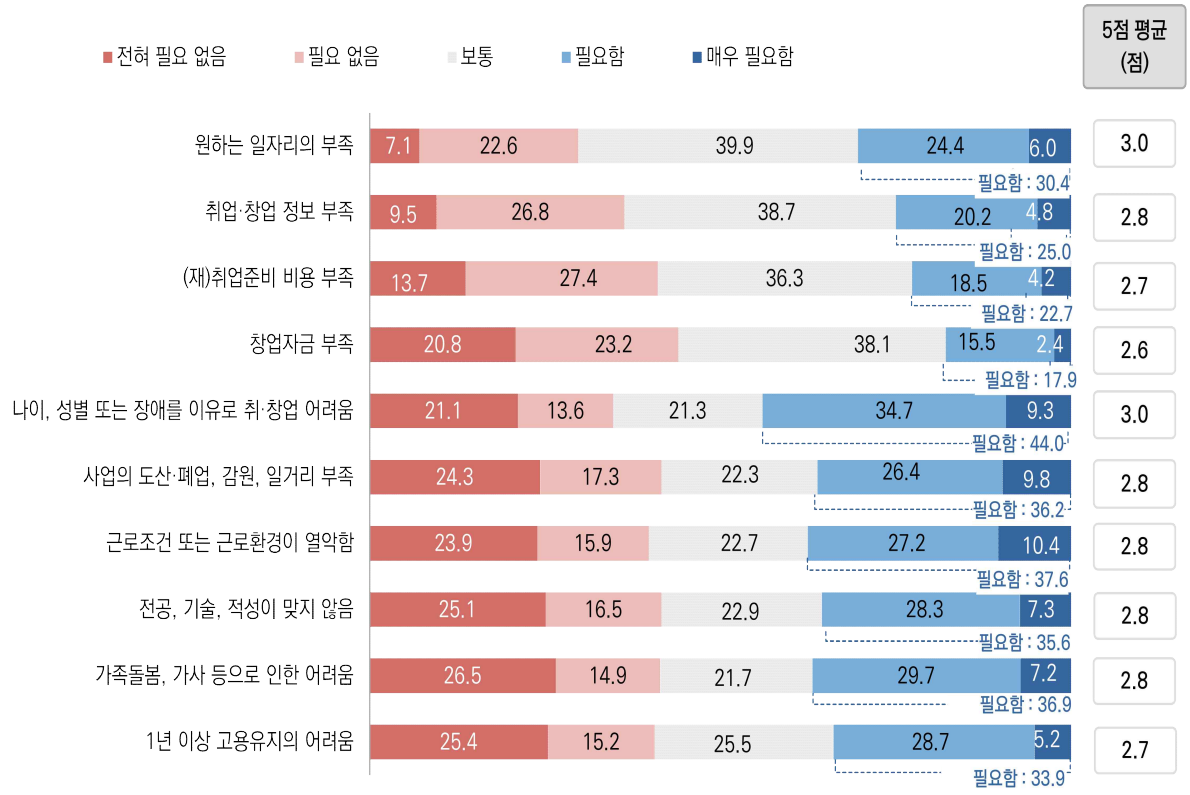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2.5	2.4	1.8	**3.5**	3.1	2.0	1.8	2.9	3.0	3.7	3.2	-
취업·창업 정보 부족	2.4	2.3	2.0	3.0	**3.6**	3.0	1.3	2.4	2.7	**3.7**	2.7	-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2.1	2.1	1.8	**3.0**	**3.1**	2.3	1.3	2.4	2.7	2.7	2.3	-
창업자금 부족	2.0	2.1	1.8	2.0	**2.9**	1.0	1.3	1.8	**2.7**	2.0	2.0	-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창업 어려움	1.9	1.8	1.8	2.0	2.0	**2.2**	1.9	1.9	2.0	**2.5**	1.9	1.8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	1.7	**1.7**	**1.7**	**1.8**	**1.7**	**1.7**	**1.7**	**1.8**	**1.7**	1.5	**1.7**	1.6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1.9	1.7	1.7	**2.0**	1.8	**2.1**	1.8	**2.0**	1.8	1.8	1.9	1.7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1.8	1.6	1.7	**1.9**	**1.9**	**2.0**	1.8	**1.9**	1.8	1.5	1.8	1.3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1.7	1.6	1.5	**1.8**	**1.8**	**2.0**	1.7	**1.8**	1.7	1.6	**1.8**	1.4
1년 이상 고용유지의 어려움	1.7	1.7	1.5	1.8	1.8	**1.9**	1.6	1.8	1.8	**2.1**	1.8	1.5

(2) 고용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인천시 응답자들이 인식한 고용 관련 어려움에 대한 외부 지원 필요성은 항목별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어려움 정도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 '나이·성별·장애로 인한 취·창업 어려움', '근로조건의 열악함'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성을 보임. 반면 '창업자금 부족', '재취업 준비 비용 부족', '1년 이상 고용유지의 어려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이는 정보 접근성과 활용 능력에 대한 지원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고용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원의 필요함과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 · 창첩 어려움' 4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37.6%,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36.9%,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 36.2%,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35.6%, '1년 이상 고용유지의 어려움' 33.9%,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30.4%,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22.7%, '취업·창업 정보 부족' 25.0%, '창업자금 부족' 17.9% 순임
  - 한편, 4년 전(5기)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항목별 서비스 필요성 정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8] 고용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



[표 3-162] 고용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6기(n=5,009)						5기(n=6,290)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7.1	22.6	39.9	24.4	6.0	3.0	3.1
취업·창업 정보 부족	9.5	26.8	38.7	20.2	4.8	2.8	3.1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13.7	27.4	36.3	18.5	4.2	2.7	3.0
창업자금 부족	20.8	23.2	38.1	15.5	2.4	2.6	2.9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창업 어려움	21.1	13.6	21.3	34.7	9.3	3.0	2.9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	24.3	17.3	22.3	26.4	9.8	2.8	2.8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23.9	15.9	22.7	27.2	10.4	2.8	2.8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25.1	16.5	22.9	28.3	7.3	2.8	2.7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26.5	14.9	21.7	29.7	7.2	2.8	2.7
1년 이상 고용유지의 어려움	25.4	15.2	25.5	28.7	5.2	2.7	2.7

● 군·구별 고용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지역별 고용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정도는 동구와 미추홀구, 부평구, 검단구에서 다소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동구와 옹진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욕구를 보임
- 서비스 항목별로는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은 동구·미추홀구·검단구(각 4.0점), 강화군(4.2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취업·창업 정보 부족은 미추홀구(4.5점), 연수구(3.9점), 검단구(4.0점), 동구(3.8점)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정보 접근성과 활용 능력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강함을 보여줌
- 재취업 준비 비용 부족은 강화군(3.8점), 동구(3.7점), 검단구·부평구(각 3.3점)에서 높게 나타남
- 창업자금 부족은 미추홀구(4.0점), 동구(3.7점), 강화군(3.2점)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남동구·계양구(각 1.7점)는 낮은 수준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큼
- 나이·성별·장애로 인한 취·창업 어려움은 부평구(3.4점), 남동구(3.2점), 검단구(3.1점)에서 높게 나타남
-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은 부평구(3.5점), 동구(3.6점), 계양구(2.9점)에서 높게 나타남. 검단구(2.0점), 옹진군(2.3점)은 낮은 수준임
-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의 열악함은 동구(3.6점), 부평구(3.4점), 남동구·연수구(각 3.0점)에서 높게 나타남. 검단구·옹진군(각 2.3점)은 낮은 수준임
- 전공·기술·적성 불일치는 부평구(3.3점), 동구(3.5점), 남동구·연수구(각 3.0점)에서 높게 나타남. 옹진군(2.0점), 검단구(2.1점)는 낮은 수준임
- 가족돌봄·가사로 인한 어려움은 동구(3.4점), 부평구(3.3점), 연수구·남동구(각 3.0점)에서 높게 나타남. 옹진군(2.0점), 검단구(2.2점)는 낮은 수준임
- 1년 이상 고용유지의 어려움은 동구(3.3점), 부평구(3.2점), 연수구(3.0점)에서 높게 나타남. 옹진군(2.1점), 중구·동구(각 2.4점)는 낮은 수준임

[표 3-163] 군·구별 고용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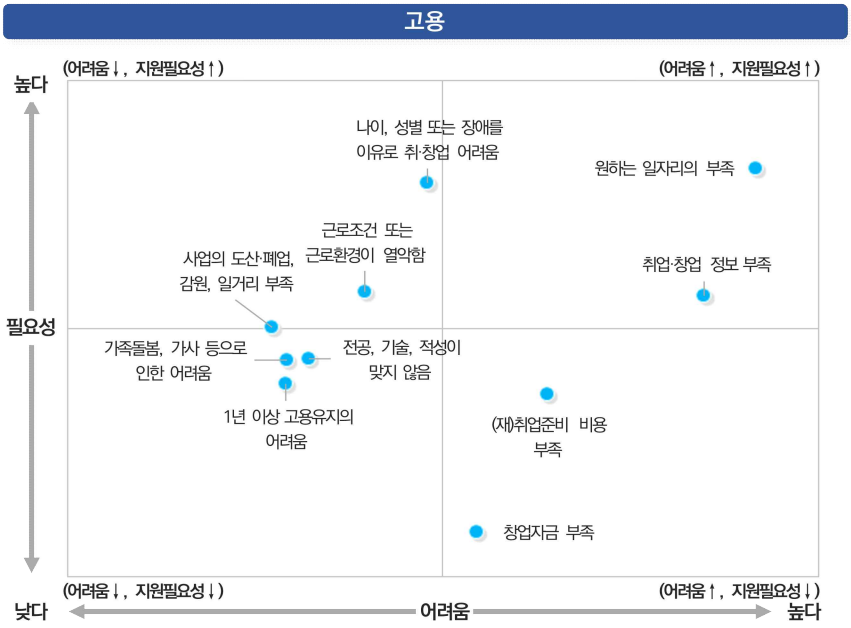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3.0	2.7	**4.0**	**4.0**	3.4	2.7	3.3	3.0	3.0	**4.0**	**4.2**	-
취업·창업 정보 부족	2.8	2.5	3.8	**4.5**	3.9	2.7	3.3	2.6	3.3	**4.0**	3.0	-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2.7	2.4	**3.7**	3.5	2.9	3.0	3.3	2.5	3.0	3.3	**3.8**	-
창업자금 부족	2.6	2.4	**3.7**	**4.0**	2.9	1.7	2.8	1.7	3.0	2.7	3.2	-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창업 어려움	3.0	2.5	**3.6**	2.9	2.9	**3.2**	3.4	3.0	2.8	3.1	2.8	2.4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	2.8	2.4	**3.6**	2.7	2.9	2.7	**3.5**	2.9	2.5	2.0	2.5	2.3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2.8	2.4	**3.6**	2.7	3.0	3.0	**3.4**	2.9	2.5	2.3	2.6	2.3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2.8	2.4	**3.5**	2.7	2.9	3.0	**3.3**	2.9	2.4	2.1	2.5	2.0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2.8	2.4	**3.4**	2.6	3.0	3.0	**3.3**	2.8	2.3	2.2	2.6	2.0
1년 이상 고용유지의 어려움	2.7	2.4	**3.3**	2.6	**3.0**	2.8	3.2	2.8	2.4	2.6	2.5	2.1

(3) 고용 IPA 결과

- 고용 관련 어려움이 높고, 외부지원이 필요한 항목들을 파악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IPA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고용 관련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은 항목은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취업·창업 정보 부족으로 확인됨. 두 항목 모두 높은 체감 난이도와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영역으로, 직업 매칭 시스템 개선, 정보 접근성 확대,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집중적인 정책 자원이 요구됨
- 반면 어려움은 높지만 필요성이 낮은 영역에는 창업자금 부족, (재)창업단계 비용 부족으로 확인됨. 즉 체감 난이도는 높지만, 전체적인 지원 필요성은 낮게 낮은 항목으로 이는 창업 희망자 중심의 선별적 지원, 금융 접근성 개선, 소액 창업자금 제도 보완 등이 적절함

[그림 3-89] 인천시 전체 고용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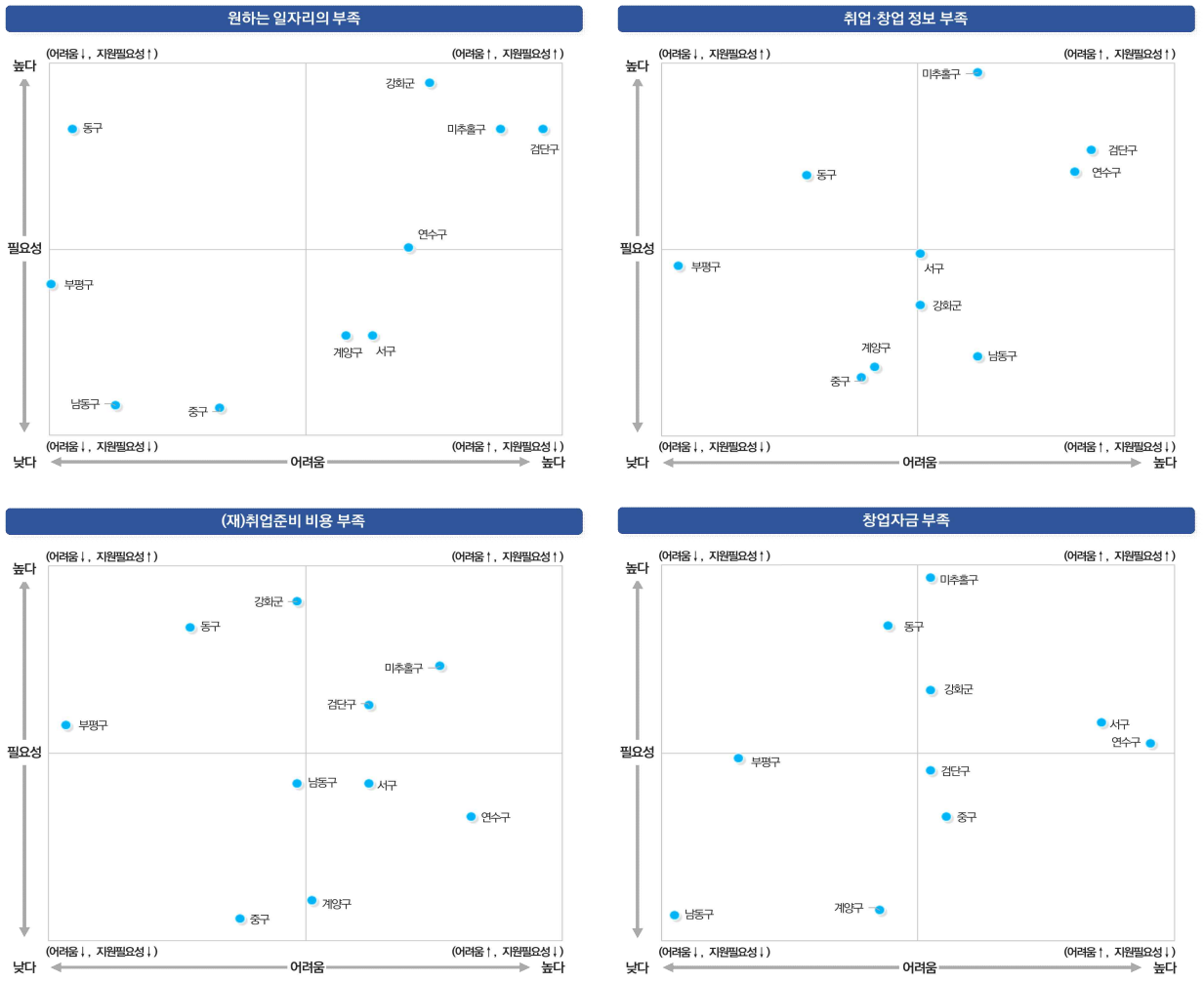


- 군·구별 고용-취·창업의 어려움 지원 필요성 IPA 분석 결과

  - 원하는 일자리 부족 문제는 강화군, 미추홀구, 검단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남. 이는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체감도가 크고,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함
  - 취업·창업 정보 부족 문제는 미추홀구, 검단구, 연수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정보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며,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이 시급함을 보여줌
  - 재취업 준비 비용 부족 문제는 미추홀구, 검단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경제적 부담이 재취업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비용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 창업자금 부족 문제는 미추홀구, 강화군, 서해구, 연수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이는 창업 희망자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별로 창업지원 제도의 확대가 요구됨

[그림 3-90] 군·구별 고용- 취/창업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 군·구별 고용-고용유지의 어려움 지원 필요성 IPA 분석 결과

- 나이·성별·장애로 인한 취·창업 어려움은 남동구와 검단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남. 이는 취약계층의 고용 장벽이 해당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체감되고 있음을 의미함
- 사업의 도산·폐업·감원·일거리 부족 문제는 동구, 부평구, 계양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지역 경제 구조와 일자리 안정성 문제로 인해 고용 불안정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의 열악함은 계양구와 남동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해당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함
- 전공·기술·적성 불일치 문제는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이는 직무와 개인 역량 간의 불일치가 광범위하게 체감되고 있으며, 직무 재교육과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 가족돌봄·가사로 인한 어려움은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이는 돌봄 부담이 고용 유지에 직접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1년 이상 고용유지의 어려움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에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이는 장기적 고용 안정성 확보에 대한 지원 요구가 해당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3-91] 군·구별 고용 – 고용유지의 어려움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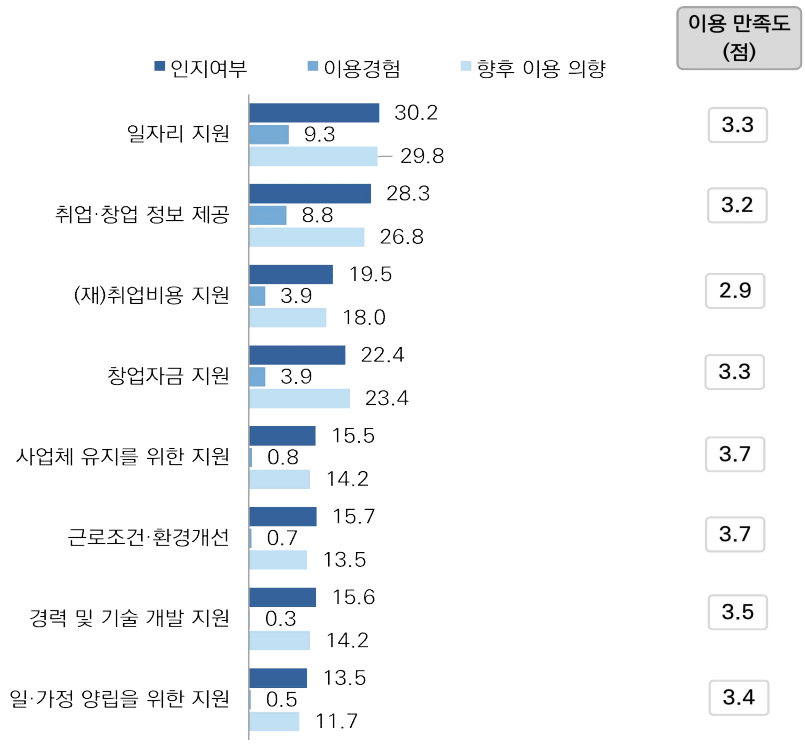
(4)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 인천시 고용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인지율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실제 이용 경험은 낮게 나타남. 반면, 향후 이용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아,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크다는 점이 확인됨. 만족도는 서비스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이용률은 낮지만 만족도가 높아 향후 확대 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서비스 인지율은 일자리 지원(30.2%)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취업·창업 정보 제공(28.3%), 창업자금 지원(22.4%) 순으로 나타남. 반면 일·가정 양립 지원(13.5%)은 인지율이 가장 낮음
- 이용 경험은 일자리 지원(9.3%)과 취업·창업 정보 제공(8.8%)이 가장 높음. 이는 실제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임을 의미함. 그러나 다른 서비스들은 대부분 1~4% 수준에 머물러, 인지율 대비 이용률이 낮은 구조임. 특히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0.3%), 근로조건·환경개선(0.7%), 사업체 유지 지원(0.8%)은 이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 만족도는 사업체 유지 지원(3.7점)과 근로조건·환경개선(3.7점)이 가장 높음. 그 뒤로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3.5점), 일·가정 양립 지원(3.4점)으로 나타남. 반면 재취업비용 지원(2.9점)은 가장 낮음
- 향후 이용 의향은 일자리 지원(29.8%)이 가장 높으며, 취업·창업 정보 제공(26.8%), 창업자금 지원(23.4%)이 뒤를 이음. 이는 시민들이 앞으로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이 일자리와 창업 관련 정보임을 보여줌. 반면 일·가정 양립 지원(11.7%), 근로조건·환경개선(13.5%), 사업체 유지 지원(14.2%)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4년 전(5기)과 비해했을 때, 인지율과 이용경험률, 향후 이용 의향 등 모든 항목에서 낮아짐. 이는 고용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그림 3-92]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단위 : %)



[표 3-164]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5,009)					5기(n=6,290)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일자리 지원	30.2	9.3	19	3.3	29.8	59.3	13.4	52.7
취업·창업 정보 제공	28.3	8.8	18	3.2	26.8	48.2	9.3	45.9
재취업비용 지원	19.5	3.9	8	2.9	18.0	30.6	3.3	32.1
창업자금 지원	22.4	3.9	8	3.3	23.4	32.9	2.9	26.8
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	15.5	0.8	38	3.7	14.2	15.9	2.1	19.9
근로조건·환경개선	15.7	0.7	33	3.7	13.5	14.2	2.1	20.8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15.6	0.3	14	3.5	14.2	16.7	3.8	25.7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13.5	0.5	26	3.4	11.7	14.0	1.5	23.8

● 군·구별 고용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인지 여부

- 지역별 고용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도는 남동구와 계양구, 옹진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와 중구, 연수구, 서해구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항목별 지역의 인수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음. 가장 높은 인지율을 기록한 서비스는 일자리 지원(30.2%)으로, 특히 남동구와 검단구에서는 인지율이 100%로 나타나 모든 응답자가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부평구(75.0%), 계양구(70.0%), 강화군(66.7%)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지역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서해구는 0%로 인지율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지역별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남
- 취업·창업 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천시 평균 28.3%로 두 번째로 높은 인지율을 보임. 검단구(100%), 강화군(88.9%), 남동구(66.7%)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미추홀구도 50%로 절반 이상이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연수구(14.3%)와 동구(16.7%)는 낮은 수준임
- 재취업비용 지원 서비스는 평균 19.5%로 남동구(100%)와 검단구(66.7%)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32.4%), 계양구(30.0%)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러나 미추홀구와 서해구는 0%로 인지율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 창업자금 지원 서비스는 평균 22.4%로 나타남. 남동구(66.7%), 부평구(50.0%), 계양구(40.0%), 옹진군(43.2%)에서 평균보다 높은 인지율을 기록함. 반면 미추홀구와 서해구는 0%로 인지되지 않아, 지역별 격차가 뚜렷함.
- 사업체 유지 지원 서비스와 근로조건·환경개선 서비스는 각각 평균 15.5%, 15.7%로 낮은 수준임. 그러나 계양구는 각각 37.7%, 39.2%로 높은 인지율을 보여, 특정 지역에서의 관심과 수요가 확인됨. 옹진군도 평균보다 높은 인지율을 나타냄
-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는 평균 15.6%로 낮은 수준이나, 중구에서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계양구(30.6%)도 평균보다 높아, 일부 지역에서 경력 개발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반면 연수구는 3.6%로 가장 낮음
-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는 평균 13.5%로 가장 낮은 인지율을 기록함. 그러나 계양구(37.5%)와 미추홀구(20.6%)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수구(3.0%)와 옹진군(8.2%)은 매우 낮은 수준임

[표 3-165] 군·구별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일자리 지원	30.2	14.7	11.1	50.0	42.9	**100.0**	**75.0**	70.0	-	**100.0**	66.7	48.6
취업·창업 정보 제공	28.3	18.3	16.7	50.0	14.3	66.7	25.0	30.0	33.3	**100.0**	88.9	40.5
재취업비용 지원	19.5	12.8	11.1	-	14.3	**100.0**	25.0	30.0	-	66.7	22.2	32.4
창업자금 지원	22.4	13.8	11.1	-	14.3	**66.7**	**50.0**	40.0	-	33.3	33.3	43.2
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	15.5	14.7	9.5	17.6	7.5	9.1	5.3	**37.7**	20.8	13.6	11.0	**26.1**
근로조건·환경개선	15.7	12.3	9.5	18.9	6.8	12.9	5.5	**39.2**	16.1	12.6	13.5	**24.8**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15.6	**40.6**	10.8	18.3	3.6	11.6	6.8	**30.6**	9.8	15.7	11.3	16.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13.5	13.0	12.2	**20.6**	3.0	9.1	6.4	**37.5**	14.8	19.4	8.6	8.2

● 군·구별 고용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 경험

-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인천시 평균 9.3%로 가장 높은 이용 경험을 기록함. 특히 검단구(66.7%), 남동구(33.3%), 강화군(33.3%), 계양구(40.0%)에서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해구는 0%로 나타나, 지역별 큰 차이를 보임
- 취업·창업 정보 제공 서비스는 평균 8.8%로 두 번째로 높은 이용 경험을 보임. 검단구(66.7%), 강화군(44.4%), 남동구(33.3%)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함. 그러나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해구는 0%로 나타나, 정보 제공 서비스의 접근성에 큰 차이를 보임
- 재취업비용 지원 서비스는 평균 3.9%로 낮은 수준임. 남동구(33.3%)와 계양구(1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대부분 지역은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제적 지원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 창업자금 지원 서비스는 평균 3.9%로 낮음. 옹진군(10.8%)과 계양구(10.0%)에서만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나타났으며, 다수 지역은 0%임. 이는 창업자금 지원 서비스가 특정 지역에서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사업체 유지 지원 서비스는 평균 0.8%로 매우 낮음. 옹진군(2.6%)과 미추홀구(1.3%)에서만 일부 이용 경험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지역은 1% 미만임
- 근로조건·환경개선 서비스는 평균 0.7%로 낮음. 계양구(2.3%)와 미추홀구(1.5%)에서만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거의 0%임
-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는 평균 0.3%로 가장 낮은 수준임. 계양구(1.0%)와 미추홀구(0.6%)에서만 일부 이용률이 확인되었음
-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는 평균 0.5%로 낮음. 옹진군(1.5%), 계양구(1.2%), 미추홀구(0.6%)에서만 일부 이용률이 나타났으며, 대부분 지역은 0%에 가까움

[표 3-166] 군·구별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일자리 지원	9.3	4.6	-	-	28.6	33.3	-	40.0	-	66.7	33.3	5.4
취업·창업 정보 제공	8.8	6.4	-	-	0.0	33.3	-	10.0	-	66.7	44.4	8.1
재취업비용 지원	3.9	3.7	-	-	0.0	33.3	-	10.0	-	-	-	5.4
창업자금 지원	3.9	2.8	-	-	-	-	-	10.0	-	-	-	10.8
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	0.8	0.2	0.2	1.3	0.4	0.6	-	1.3	-	0.5	0.9	2.6
근로조건·환경개선	0.7	-	0.4	1.5	0.6	0.4	-	2.3	-	-	0.5	0.9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0.3	-	0.2	0.6	0.0	0.0	-	1.0	0.3	0.5	-	0.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0.5	0.2	0.4	0.6	0.2	0.2	-	1.2	0.6	-	0.5	1.5

● 군·구별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인천시 평균 3.3점으로 나타남. 남동구와 옹진군에서 4.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으며, 연수구·서해구·검단구도 3.5점 수준으로 높음. 반면 중구는 2.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취업·창업 정보 제공 서비스는 평균 3.2점임. 남동구와 옹진군에서 4.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으며, 계양구·서해구·강화군은 3.0점 수준임. 중구는 2.9점으로 낮음
- 재취업비용 지원 서비스는 평균 2.9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함. 남동구에서 4.0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중구는 2.5점으로 낮음. 옹진군과 계양구는 3.0점으로 평균 수준임
- 창업자금 지원 서비스는 평균 3.3점임. 옹진군에서 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양구·서해구는 3.0점 수준임. 중구는 2.7점으로 낮음
- 사업체 유지 지원 서비스는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서비스임. 연수구에서 5.0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중구·미추홀구·남동구에서도 4.0점으로 높음. 계양구는 3.7점으로 평균 이상임
- 근로조건·환경개선 서비스는 평균 3.7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에서 모두 4.0점으로 나타났으며, 옹진군도 3.75점으로 높음
-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는 평균 3.5점임. 동구·검단구에서 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양구는 3.8점으로 평균 이상임. 중구는 4.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지역은 3.0점 수준으로 낮음
-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는 평균 3.4점임. 연수구에서 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양구·서해구·옹진군은 3.5점 이상으로 나타남. 강화군은 2.7점으로 가장 낮음

[표 3-167] 군·구별 고용 관련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일자리 지원	3.3	2.8	-	-	3.5	4.0	-	3.3	-	3.5	3.3	4.0
취업·창업 정보 제공	3.2	2.9	-	-	-	4.0	-	3.0	-	3.0	3.0	4.0
재취업비용 지원	2.9	2.5	-	-	-	4.0	-	3.0	-	-	-	3.0
창업자금 지원	3.3	2.7	-	-	-	-	-	3.0	-	-	-	3.8
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	3.7	4.0	3.0	4.0	5.0	4.0	-	3.7	-	3.0	3.2	3.7
근로조건·환경개선	3.7	-	3.5	4.0	4.0	4.0	-	3.6	-	-	3.0	3.8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3.5	-	4.0	3.0	-	-	-	3.8	3.0	4.0	-	3.3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3.4	3.0	3.5	3.3	4.0	3.0	-	3.5	3.5	-	2.7	3.6

● 군·구별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인천시 평균 29.8%로 가장 높은 의향을 기록함. 연수구, 서해구, 강화군은 100%로 모든 응답자가 향후 이용 의향을 보였으며, 검단구(66.7%), 부평구(50.0%), 미추홀구(50.0%)에서도 높은 수준임. 반면 중구는 10.1%로 낮음
- 취업·창업 정보 제공 서비스는 평균 26.8%로 두 번째로 높은 의향을 보임. 미추홀구, 남동구, 서해구는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강화군(77.8%), 검단구(66.7%)도 높은 수준임. 반면 옹진군(21.6%)과 중구(14.7%)는 낮음
- 재취업비용 지원 서비스는 평균 18.0%로 미추홀구(100%), 연수구(57.1%), 검단구(66.7%)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서해구는 0%로 전혀 의향이 없음
- 창업자금 지원 서비스는 평균 23.4%로 남동구(66.7%), 검단구(66.7%), 동구(38.9%), 옹진군(37.8%)에서 높게 나타남. 그러나 미추홀구와 서해구는 0%로 전혀 의향이 없음
- 사업체 유지 지원 서비스는 평균 14.2%로 낮은 수준임. 옹진군(29.6%)과 계양구(28.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구(19.3%)도 평균 이상임. 그러나 중구(4.8%)와 동구(6.6%)는 낮음
- 근로조건·환경개선 서비스는 평균 13.5%임. 옹진군(27.0%)과 계양구(27.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구(20.9%)도 평균 이상임. 반면 검단구(4.7%)와 중구(6.3%)는 낮음
-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는 평균 14.2%임. 중구(28.2%)와 계양구(26.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구(20.4%)도 평균 이상임. 그러나 서해구(5.3%)와 강화군(7.0%)은 낮음
-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는 평균 11.7%로 가장 낮은 의향을 기록함. 계양구(23.2%)와 연수구(2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강화군(6.8%)과 서해구(6.0%)는 낮음

[표 3-168] 군·구별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일자리 지원	29.8	10.1	33.3	50.0	100.0	33.3	50.0	60.0	100.0	66.7	100.0	35.1
취업·창업 정보 제공	26.8	14.7	33.3	100.0	57.1	100.0	25.0	30.0	100.0	66.7	77.8	21.6
재취업비용 지원	18.0	9.2	22.2	100.0	57.1	33.3	25.0	40.0	-	66.7	22.2	18.9
창업자금 지원	23.4	12.8	38.9	-	42.9	66.7	25.0	30.0	-	66.7	22.2	37.8
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	14.2	4.8	6.6	10.7	19.3	8.3	12.4	28.0	13.2	7.3	12.6	29.6
근로조건·환경개선	13.5	6.3	5.8	12.4	20.9	10.6	9.4	27.8	8.5	4.7	9.7	27.0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14.2	28.2	6.2	13.3	20.4	9.8	9.2	26.7	5.3	11.0	7.0	13.8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11.7	12.6	5.5	13.3	20.4	9.1	7.3	23.2	6.0	5.8	6.8	13.6

● 고용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인천시 시민들이 고용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성, 서비스 접근성 문제, 개인적 요인(동기·자신감 부족, 가족부양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25.0%)임. 이어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18.8%), 동기·자신감 부족(12.5%) 등이 나타남
- 취업·창업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35.3%)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또한 동기·자신감 부족(17.6%), 서비스 신뢰 부족(11.8%)도 주요 요인임

- 재취업비용 지원 서비스는 동기·자신감 부족(40.0%)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이어서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20.0%)이 확인됨4
- 창업자금 지원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신뢰 부족(25.0%)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또한 가족 반대, 자부담 비용 부담, 신청 절차의 복잡성, 동기 부족 등이 고르게 나타남
- 사업체 유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17.2%),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17.2%), 서비스 정보 부족(15.6%), 신청 절차의 복잡성(10.7%)임
- 근로조건·환경개선 서비스에서도 유사하게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17.4%), 정보 부족 및 접근성 문제(14.9%), 신청 절차의 복잡성(12.4%)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는 사례수가 가장 많음(136명). 가장 큰 이유는 동기·자신감 부족(19.9%)이며, 이어서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16.2%), 서비스 접근성 문제(14.0%)가 나타남
-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정보 부족(16.0%),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15.0%), 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문제(15.0%),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14.0%)이 주요 요인임

[표 3-169] 고용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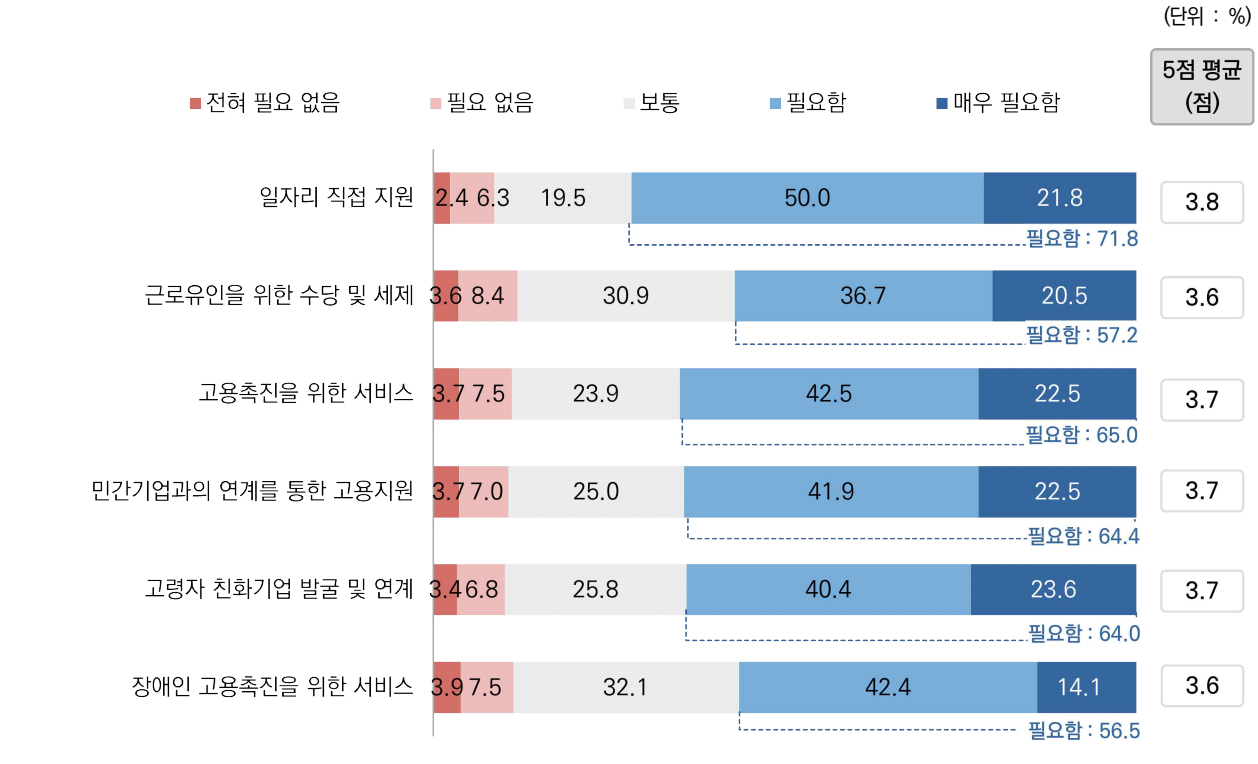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일자리 지원	16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25.0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18.8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동기, 자신감 부족	12.5
취업·창업 정보 제공	17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35.3	동기, 자신감 부족	17.6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11.8
재취업비용 지원	5	동기, 자신감 부족	40.0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20.0	-	-
창업자금 지원	8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25.0	가족들이 반대해서 동기, 자신감 부족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함께 배울 친구가 없어서	12.5	-	-
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	122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17.2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5.6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0.7
근로조건·환경개선	121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17.4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4.9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2.4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136	동기, 자신감 부족	19.9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16.2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4.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100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6.0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5.0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14.0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해당사항 없음 포함 100%

(5) 고용 서비스 정책 필요성

- 인천 시민들이 인식한 고용 서비스 정책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항목에서 “필요함” 또는 “매우 필요함”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점수도 3.6~3.8점 사이로 고르게 분포함. 이는 고용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가 강하게 존재함을 보여줌
  - 일자리 직접 지원은 평균 3.8점으로 가장 높은 정책 필요성을 나타냄. 전체 응답자의 71.8%가 “필요함” 또는 “매우 필요함”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에 대한 강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임. 특히 “매우 필요함” 응답이 21.8%로 높아,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고용 기회 확대가 시급함을 의미함
  - 고용촉진을 위한 서비스,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용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발굴 및 연계는 모두 평균 3.7점으로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보임. 각각 65.0%, 64.4%, 64.0%가 “필요함+매우 필요함”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고용의 질적 확대와 대상별 맞춤형 접근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결과임
  - 근로유인을 위한 수당 및 세제 지원은 평균 3.6점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함+매우 필요함” 응답은 57.2%임. 이는 직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가 고용 유인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보다 체감도가 낮은 편임을 보여줌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서비스는 평균 3.6점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함+매우 필요함” 응답은 56.5%로 가장 낮은 수준임.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체감도와 인식 확산의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줌

[그림 3-93] 고용 서비스 정책 필요성



[표 3-170] 고용 서비스 정책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일자리 직접 지원	2.4	6.3	19.5	50.0	21.8	3.8
근로유인을 위한 수당 및 세제	3.6	8.4	30.9	36.7	20.5	3.6
고용촉진을 위한 서비스	3.7	7.5	23.9	42.5	22.5	3.7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용지원	3.7	7.0	25.0	41.9	22.5	3.7
고령자 친화기업 발굴 및 연계	3.4	6.8	25.8	40.4	23.6	3.7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서비스	3.9	7.5	32.1	42.4	14.1	3.6

- 군·구별 고용 서비스 정책 필요성

- 지역별 고용 서비스 정책의 필요성은 동구와 연수구, 검단구, 부평구, 강화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임
- 일자리 직접 지원은 검단구(4.2점), 동구·연수구·강화군(각 4.0점), 계양구(4.0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에 대한 지역별 수요가 강함을 알 수 있음
- 근로유인을 위한 수당 및 세제 지원은 동구(4.1점), 강화군·연수구·부평구(각 3.8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3.2점), 중구(3.3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고용촉진을 위한 서비스는 동구(4.1점), 검단구(4.0점), 연수구·강화군(각 3.9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3.4점)은 낮은 편임
-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용지원은 동구(4.1점), 검단구(3.9점), 부평구(3.9점), 강화군(3.8점)에서 높게 나타남. 옹진군(3.2점)은 낮은 수준임
- 고령자 친화기업 발굴 및 연계는 검단구(4.2점), 동구·강화군(각 4.0점), 연수구·부평구(각 3.9점)에서 높게 나타남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서비스는 검단구·강화군·연수구(각 3.8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3.0점)은 가장 낮은 수준임

[표 3-171] 군·구별 고용 서비스 정책 필요성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일자리 직접 지원	3.8	3.5	**4.0**	3.7	**4.0**	3.7	3.9	**4.0**	3.9	**4.2**	4.0	3.5
근로유인을 위한 수당 및 세제	3.6	3.3	**4.1**	3.6	**3.8**	3.4	3.8	3.6	3.6	3.6	**3.8**	3.2
고용촉진을 위한 서비스	3.7	3.6	**4.1**	3.6	3.9	3.6	3.7	3.7	3.6	**4.0**	3.9	3.4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용지원	3.7	3.6	**4.1**	3.6	**3.9**	3.7	**3.9**	3.7	3.6	**3.9**	3.8	3.2
고령자 친화기업 발굴 및 연계	3.7	3.6	**4.0**	3.6	3.9	3.6	3.9	3.7	3.6	**4.2**	3.8	3.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서비스	3.6	3.4	3.7	3.4	**3.8**	3.5	3.7	3.7	3.4	**3.9**	**3.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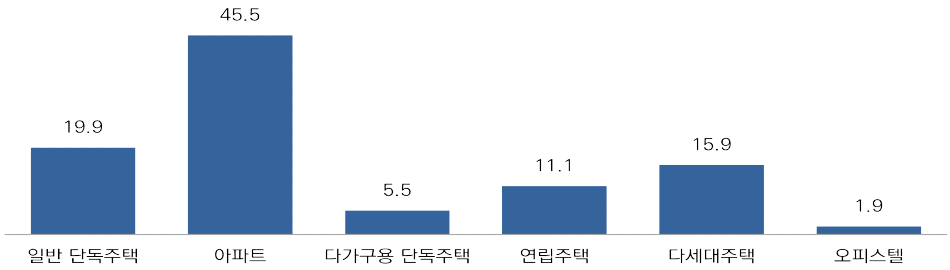
12) 주거

(1) 주택 유형

- 응답가구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4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 단독주택 19.9%, 다세대주택 15.9%, 연립주택 11.1%, 다가구용 단독주택 5.5%, 오피스텔 1.9%, 주택이 아닌 건물 0.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94] 주택 유형

(단위 : %)



-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연수구 68.3%, 검단구 68.1%, 중구 67.7%, 남동구 63.8%로 나타났으며, 서해구(다세대 32.6%), 부평구(다세대 23.2%, 연립 13.3%), 미추홀구(다세대 21.0%, 연립 16.2%), 계양구(다세대 21.8%, 연립 14.3%)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강화군(64.5%), 옹진군(90.8%)은 일반 단독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이는 농촌 및 도서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전통적인 단독주택 중심의 생활환경 거주자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동구(17.9%)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구(오피스텔 7.8%), 남동구(3.5%), 미추홀구(2.3%), 서해구(2.6%)는 오피스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172] 군·구별 주택 유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일반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이 아닌 건물	오피스텔
전체	6,058	19.9	45.5	5.5	11.1	15.9	0.2	1.9
중구	600	4.0	**67.7**	1.5	13.7	5.3	-	7.8
동구	620	13.5	47.4	**17.9**	1.6	17.9	0.2	1.5
미추홀구	600	3.0	50.0	7.3	**16.2**	21.0	0.2	2.3
연수구	600	0.7	**68.3**	6.8	8.2	15.8	-	0.2
남동구	600	0.2	**63.8**	2.2	**17.0**	13.2	0.2	3.5
부평구	600	11.0	42.0	8.2	13.3	23.2	0.5	1.8
계양구	600	0.7	58.2	4.5	14.3	21.8	0.3	0.2
서해구	340	5.6	38.2	5.3	15.6	**32.6**	-	2.6
검단구	260	6.9	**68.1**	0.8	7.3	16.9	-	-
강화군	600	**64.5**	7.5	1.7	11.5	14.5	0.3	-
옹진군	(638)	**90.8**	2.0	1.4	4.4	1.4	-	-

- 응답가구의 주택 위치는 주택은 지상이 97.9%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반지하(1.6%)와 지하(0.4%), 옥탑(0.1%) 등 불안정한 위치에 거주한다는 응답이 2.1%로 나타남

[표 3-173] 군·구별 주택 위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지하	반지하	지상	옥탑
전체	6,058	0.4	1.6	97.9	0.1
중구	600	0.2	0.7	99.0	0.2
동구	620	0.0	2.7	96.6	0.6
미추홀구	600	0.3	1.8	97.8	-
연수구	600	0.0	0.5	99.5	-
남동구	600	0.8	1.0	98.2	-
부평구	600	0.2	3.7	96.2	-
계양구	600	0.7	1.8	97.5	-
서해구	340	2.1	3.5	94.4	-
검단구	260	0.0	0.8	99.2	-
강화군	600	0.3	0.3	99.3	-
옹진군	638	0.2	1.3	9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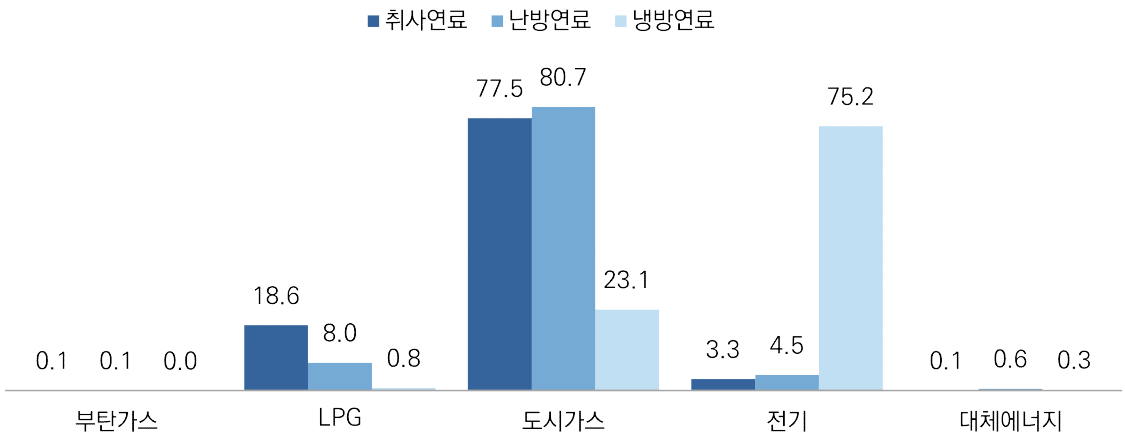
(2) 냉/난방 에너지 이용현황

- 응답가구의 냉·난방 에너지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취사연료와 난방녀료는 도시가스, 냉방연료는 전기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사연료의 18.6%, 난방연료의 8.0%가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높은 LPG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가스는 취사(77.5%), 난방(80.7%)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임. 냉방에서는 23.1%로 사용되며, 이는 일부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한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줌
- 전기는 냉방(75.2%)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임. 이는 에어컨 등 전기 기반 냉방기기의 보편화에 따른 결과임. 취사(3.3%)와 난방(4.5%)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며,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LPG는 취사(18.6%)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대체 연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연탄은 난방에서 0.1%, 부탄가스는 취사에서 0.1%, 난방에서 0.1%로 나타나며, 거의 사용되지 않는 에너지원임. 이는 연료의 안전성, 편의성, 환경적 요인에 따라 사용이 급격히 감소한 결과임
- 대체에너지는 취사(0.1%), 난방(0.6%), 냉방(0.3%)에서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아직 낮고,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제한적임을 보여줌
- 기타 에너지원은 난방에서 6.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별 특수한 연료 사용이나 혼합형 에너지 사용을 의미함
- 특히 냉방에서 에너지 사용이 “없음” 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기후 변화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구는 여전히 냉방기기 접근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그림 3-95]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 : %)



[표 3-174]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연탄	부탄가스	LPG	도시가스	전기	대체에너지	기타	없음
취사연료	6,058	-	0.1	18.6	77.5	3.3	0.1	0.3	0.1
난방연료	6,058	0.1	0.1	8.0	80.7	4.5	0.6	6.0	0.1
냉방연료	6,058	-	-	0.8	23.1	75.2	0.3	0.3	0.3

● 냉난방비 부담 정도

-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냉 · 난방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냉방비와 난방비 모두 '부담 있음' 응답이 각각 54.6%, 54.4%로 나타남. 이는 계절별 에너지 비용이 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한편, 지난 1년 간 냉 · 난방비 부담으로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5.9%, 여름에 냉방을 틀지 못한 경험이 있다가 7.9%로 나타남. 이들은 폭염과 한파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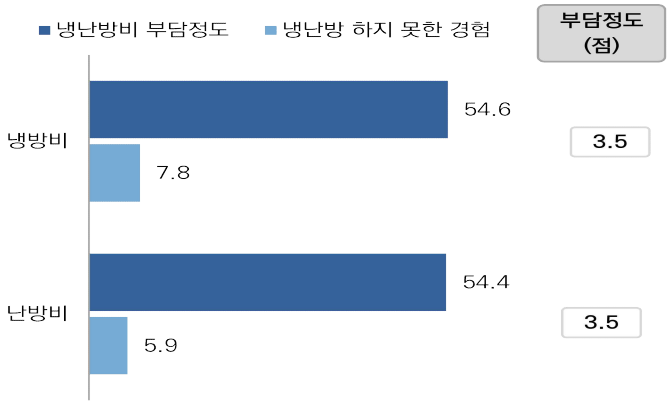
[표 3-175] 냉 · 난방비 부담 정도

(단위 : 명, %)

구분	전체(n=6,058)		
	냉 · 난방비 부담 정도		냉 ·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부담' 비율	평균 (점/5점)	'경험 있음' 비율
냉방비	54.6	3.5	7.8
난방비	54.4	3.5	5.9

[그림 3-96] 냉난방비 부담정도

(단위 : %)



- 군·구별 냉·난방비 부담 정도

- 지역별 냉·난방비 부담은 강화군,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동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구와 서해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임
- 냉방비 부담은 동구가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구·남동구·부평구·강화군은 3.6점으로 뒤를 이음. 이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중구는 2.9점으로 가장 낮아 냉방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지역임
- 난방비 부담은 동구가 3.8점으로 가장 높으며, 검단구와 강화군도 3.7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부평구는 3.6점으로 평균 이상이며,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계양구는 모두 3.5점으로 비슷한 수준임. 반면 중구와 서해구는 3.0점으로 가장 낮아 난방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지역임

[표 3-176] 군·구별 냉난방비 부담정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냉방비	3.5	2.9	**3.7**	3.5	**3.6**	**3.6**	**3.6**	3.5	3.1	3.1	**3.6**	3.4
난방비	3.5	3.0	**3.8**	3.5	3.5	3.5	3.6	3.5	3.0	**3.7**	**3.7**	3.4

(4)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 인천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주거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이용 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은 서비스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 전반적으로 인지율은 높지만 이용 경험은 낮은 구조를 보이며, 일부 서비스는 만족도는 높지만 향후 이용 의향이 낮은 경향도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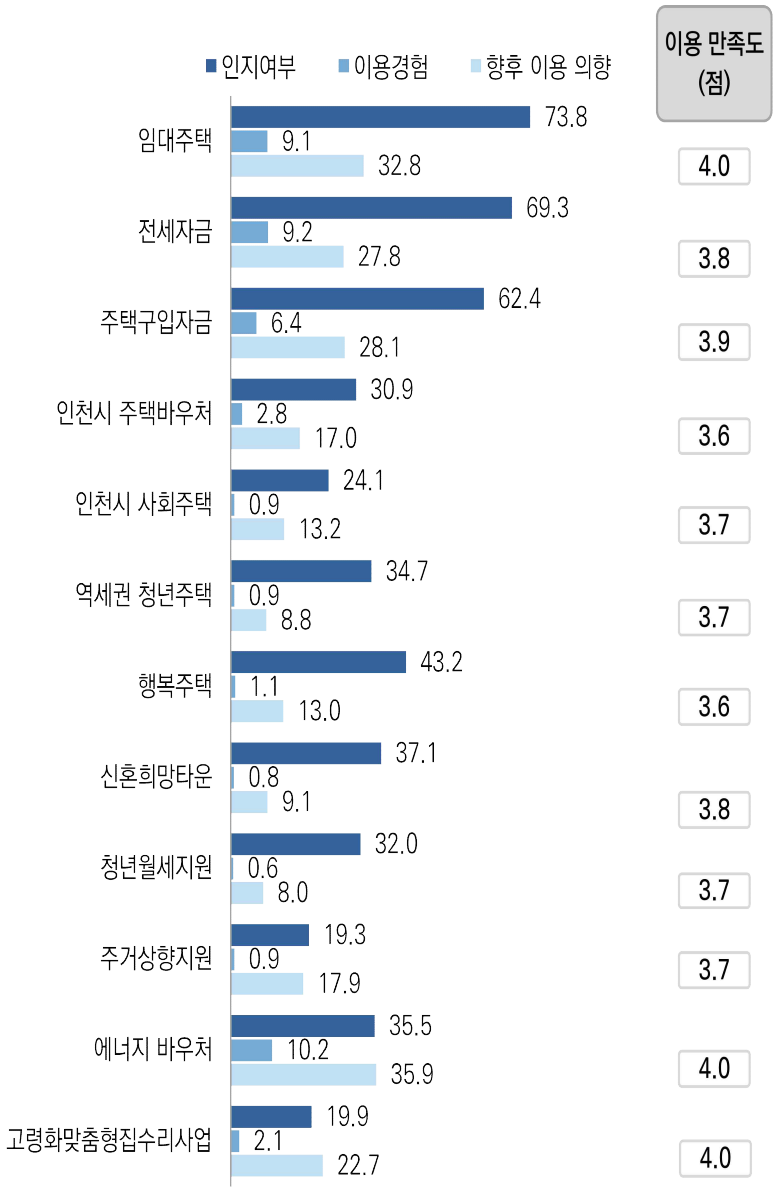
-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인 서비스는 임대주택 73.8%, 전세자금 69.3%, 주택구입자금 62.4%으로,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지원 정책임. 반면, 청년월세지원 32.0%, 신혼희망타운 37.1%, 행복주택 43.2%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율을 보이며, 주거상향지원 19.3%,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 19.9%도 인지율이 가장 낮아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이용 경험은 에너지 바우처 10.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세자금 9.2%, 임대주택 9.1% 순임. 반

면 청년월세지원(0.6%), 신혼희망타운(0.8%), 행복주택(1.1%) 등은 이용률이 매우 낮음

- 이용 만족도는 대부분 서비스에서 3.6~4.0점 사이로 나타나며, 임대주택, 에너지 바우처, 고령화맞춤형 집수리사업(각 4.0점)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함. 이는 실제 이용자들이 서비스 품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반면 인천시 주택바우처(3.6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서비스 내용이나 전달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향후 이용 의향은 에너지 바우처(35.9%), 임대주택(32.8%), 주택구입자금(28.1%), 전세자금(27.8%)이 높게 나타남. 이는 시민들이 향후에도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역세권 청년주택(8.8%), 청년월세지원(8.0%), 신혼희망타운(9.1%)은 낮은 수준임

[그림 3-97]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단위 : %)



[표 3-177]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임대주택	73.8	9.1	551	4.0	32.8
전세자금	69.3	9.2	558	3.8	27.8
주택구입자금	62.4	6.4	390	3.9	28.1
인천시 주택바우처	30.9	2.8	170	3.6	17.0
인천시 사회주택	24.1	0.9	56	3.7	13.2
역세권 청년주택	34.7	0.9	57	3.7	8.8
행복주택	43.2	1.1	67	3.6	13.0
신혼희망타운	37.1	0.8	48	3.8	9.1
청년월세지원	32.0	0.6	34	3.7	8.0
주거상향지원	19.3	0.9	57	3.7	17.9
에너지 바우처	35.5	10.2	615	4.0	35.9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	19.9	2.1	127	4.0	22.7

● 군·구별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 지역별 주건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율은 항목별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계양구, 부평구, 서해구, 미추홀구, 남동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율을 나타냄
- 임대주택은 인지율은 부평구(87.7%), 검단구(86.9%), 서해구(84.4%), 계양구(81.7%), 연수구(80.8%)가 높았으며, 대부분 도시형 주거 밀집 지역임. 반면 옹진군(50.3%)은 가장 낮음
- 전세자금 인지율은 부평구(85.7%), 검단구(79.6%), 계양구(75.8%), 미추홀구(75.3%)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강화군(54.7%), 옹진군(55.5%)은 낮은 수준임
- 주택구입자금 인지율은 계양구(75.5%), 검단구(75.4%), 미추홀구(70.7%)에서 높게 나타남. 옹진군(48.0%), 강화군(53.5%)은 낮은 수준으로, 자가주택 마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임
- 인천시 주택바우처 인지율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나, 계양구(58.8%), 서해구(42.6%), 미추홀구(3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검단구(13.1%), 강화군(19.3%)은 매우 낮음
- 인천시 사회주택은 계양구(47.7%), 서해구(37.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강화군(13.2%), 검단구(12.7%)는 낮은 수준임
- 역세권 청년주택은 미추홀구(54.0%), 계양구(51.7%), 검단구(48.8%)에서 높게 나타남
-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검단구(65.0%), 계양구(61.8%), 중구(57.2%)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임. 반면 옹진군(29.0%), 강화군(40.7%)은 낮아, 젊은 세대 대상 정책의 지역별 격차가 존재함
- 청년월세지원 인지율은 검단구(53.8%), 계양구(51.7%), 부평구(47.7%)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강화군(16.8%), 옹진군(19.7%)은 낮음
- 주거상향지원 인지율은 계양구(40.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부평구(7.0%), 검단구(11.2%)는 매우 낮음
- 에너지 바우처 인지율은 계양구(59.5%), 미추홀구(41.0%), 중구(37.7%)에서 높게 나타남. 검단구(21.9%), 옹진군(29.6%)은 낮은 수준임
-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 인지율은 계양구(32.7%), 미추홀구(32.5%), 중구(23.5%)에서 높게 나타남. 검단구(8.5%), 부평구(7.7%)는 낮아, 고령층 대상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확인됨

[표 3-178] 군·구별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임대주택	73.8	63.5	69.2	79.3	80.8	70.7	**87.7**	81.7	84.4	**86.9**	71.0	50.3
전세자금	69.3	62.5	69.0	75.3	71.8	67.8	**85.7**	75.8	73.5	**79.6**	54.7	55.5
주택구입자금	62.4	62.8	50.2	70.7	63.7	57.5	70.2	**75.5**	71.2	**75.4**	53.5	48.0
인천시 주택바우처	30.9	32.0	26.9	37.5	24.7	32.5	19.2	**58.8**	**42.6**	13.1	19.3	28.4
인천시 사회주택	24.1	26.5	16.0	27.8	19.3	26.2	12.7	**47.7**	**37.9**	12.7	13.2	24.9
역세권 청년주택	34.7	37.8	17.9	**54.0**	26.7	31.3	39.0	**51.7**	38.8	48.8	20.7	26.0
행복주택	43.2	57.2	21.6	49.0	29.8	36.3	48.5	**61.8**	55.3	**65.0**	40.7	29.0
신혼희망타운	37.1	51.3	19.7	52.8	25.7	36.2	49.5	**53.0**	30.9	**58.1**	24.2	17.6
청년월세지원	32.0	40.0	15.6	36.7	21.3	32.5	47.7	**51.7**	27.6	**53.8**	16.8	19.7
주거상향지원	19.3	22.7	15.8	**23.5**	18.5	21.2	7.0	**40.3**	20.3	11.2	15.8	12.9
에너지 바우처	35.5	**37.7**	31.8	41.0	25.2	34.8	32.7	**59.5**	30.9	21.9	36.5	29.6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	19.9	23.5	17.4	**32.5**	10.0	22.5	7.7	**32.7**	16.5	8.5	21.8	17.9

● 군·구별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지역별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미추홀구와 계양구, 서해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연수구는 인천시 주택바우처와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 이용 경험이 없었으며, 남동구는 인천시 사회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 부평구는 인천시 사회주택, 청년월세지원, 주거상향지원,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의 이용 경험률이 0%로 나타남. 지역별로 서비스 이용 경험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임대주택의 전체 평균 이용률은 9.1%로, 검단구(25.0%), 서해구(14.1%), 남동구(12.5%), 계양구(12.3%)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강화군(1.2%), 옹진군(2.2%)은 매우 낮아, 도서·농촌 지역의 접근성 한계가 확인됨
- 전세자금 전체 평균 이용률은 9.2%임. 미추홀구(14.3%), 계양구(14.0%), 동구(12.3%), 연수구(12.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옹진군(1.7%), 중구(4.2%), 부평구(4.2%)는 낮음
- 주택구입자금 전체 평균 이용률은 6.4%이며 검단구(18.1%), 서해구(13.2%), 계양구(9.3%)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옹진군(1.4%), 부평구(3.0%)는 낮음
- 인천시 주택바우처 전체 평균 이용률은 2.8%로 낮음. 동구(7.7%), 계양구(8.2%), 서해구(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대부분 지역은 1~2% 수준임
- 인천시 사회주택 전체 평균 이용률은 0.9%로 매우 낮음. 계양구(3.0%), 서해구(3.5%)에서만 일부 이용 경험이 확인됨. 대부분 지역은 1% 이하로, 사회주택 제도의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임
-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평균 이용률은 0.9%임. 계양구(2.3%), 서해구(2.6%), 미추홀구(1.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청년층 대상 정책의 실제 이용률은 낮음
- 행복주택은 평균 1.1%,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0.8%로 낮음. 계양구(3.0%), 부평구(1.8%), 서해구(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이용률은 미미함
- 청년월세지원의 전체 평균은 0.6%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임. 계양구(2.3%), 서해구(1.5%)에서 일부 이용 경험이 확인되나, 대부분 지역은 0~1% 수준임.
- 주거상향지원 전체 평균 이용률은 0.9%임. 동구(2.4%), 강화군(1.8%), 서해구(1.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대부분 지역은 1% 이하로, 제도 활용도가 낮음

- 에너지 바우처 전체 평균은 10.2%로 가장 높은 이용 경험을 나타냄. 특히 강화군(23.2%), 계양구(13.3%), 옹진군(12.9%)에서 매우 높음
-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 전체 평균은 2.1%임. 옹진군(8.5%), 강화군(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제도 활용도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임

[표 3-179] 군·구별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임대주택	9.1	10.7	5.5	9.3	11.5	12.5	7.5	12.3	**14.1**	**25.0**	1.2	2.2
전세자금	9.2	4.2	12.3	**14.3**	12.2	10.5	4.2	**14.0**	11.5	6.9	9.7	1.7
주택구입자금	6.4	6.5	4.2	5.5	8.5	5.3	3.0	9.3	**13.2**	**18.1**	5.7	1.4
인천시 주택바우처	2.8	2.0	**7.7**	1.7	-	0.7	0.2	**8.2**	6.5	0.8	1.2	2.4
인천시 사회주택	0.9	0.8	0.3	0.3	0.2	-	-	3.0	3.5	0.4	0.5	**1.9**
역세권 청년주택	0.9	1.0	0.3	1.2	-	-	0.3	**2.3**	**2.6**	1.2	0.8	1.4
행복주택	1.1	1.2	0.3	0.7	0.3	1.8	0.5	**3.0**	**2.4**	0.4	0.7	1.1
신혼희망타운	0.8	1.2	0.2	1.3	0.2	0.2	0.2	**2.0**	**1.5**	0.4	1.0	0.8
청년월세지원	0.6	1.0	0.2	0.7	-	0.0	0.0	**2.3**	**1.5**	0.0	0.5	0.2
주거상향지원	0.9	1.2	**2.4**	0.7	0.5	0.3	0.0	1.3	1.5	0.4	**1.8**	0.2
에너지 바우처	10.2	5.2	11.3	6.0	7.5	6.3	6.7	**13.3**	10.9	6.5	**23.2**	12.9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	2.1	0.7	1.3	1.2	0.3	-	-	0.8	1.5	0.4	**6.8**	**8.5**

● 군·구별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임대주택 이용 만족도 전체 평균은 4.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특히 검단구(4.5점), 연수구·계양구(4.2점)에서 만족도가 높음. 반면 강화군(3.3점)은 낮아, 농촌 지역에서 제도 체감도가 떨어짐을 보여줌
- 전세자금 이용 만족도 전체 평균은 3.8점임. 연수구(4.0점), 강화군(3.9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서해구(3.4점)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주택구입자금 이용 만족도 전체 평균은 3.9점으로 안정적임. 동구·연수구·강화군(4.0점)에서 만족도가 높고, 부평구(3.7점), 서해구(3.6점)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인천시 주택바우처 전체 평균은 3.6점으로 계양구(4.5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검단구(2.5점)는 매우 낮아 지역별 격차가 큼
- 인천시 사회주택 전체 평균은 3.7점이며, 연수구(5.0점), 계양구(4.3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반면 강화군(2.3점)은 가장 낮아, 농촌 지역에서 사회주택의 효과성이 낮음을 보여줌
-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평균은 3.7이며 동구·미추홀구(4.0점), 계양구(4.0점)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옹진군(3.0점)은 낮아, 도서지역 청년층의 체감도가 떨어짐
- 행복주택 전체 평균은 3.6점임. 연수구(4.5점)에서 가장 높고, 중구와 검단구(3.0점)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신혼희망타운 전체 평균은 3.8점이며, 미추홀구(4.1점), 강화군(4.0점)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남동구·부평구·검단구(3.0점)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청년월세지원 전체 평균은 3.7점이며, 동구와 강화군(4.0점)은 높게 나타났으나, 옹진군(2.0점)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주거상향지원 전체 평균은 3.7점이며, 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4.3점)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동구(3.1점), 옹진군(3.0점)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에너지 바우처 전체 평균은 4.0점이며, 계양구(4.5점), 연수구·강화군(4.3점)에서 특히 높음. 반면 서해구·검단구(3.3점)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 전체 평균은 4.0이며, 연수구(5.0점), 강화군·옹진군(4.2점)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 반면 검단구(3.0점)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3-180] 군·구별 주거 관련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임대주택	4.0	3.9	3.5	3.8	**4.2**	4.0	3.8	**4.2**	3.8	**4.5**	3.3	3.8
전세자금	3.8	3.8	3.5	**3.9**	**4.0**	**3.9**	3.6	3.8	3.4	**4.0**	**3.9**	3.6
주택구입자금	3.9	3.9	**4.0**	3.9	**4.0**	**4.1**	3.7	3.7	3.6	**4.0**	**4.0**	3.8
인천시 주택바우처	3.6	**3.8**	3.1	3.7	-	3.3	3.0	**4.5**	3.1	2.5	3.3	3.2
인천시 사회주택	3.7	3.6	4.0	3.0	**5.0**	-	-	**4.3**	3.3	4.0	2.3	3.4
역세권 청년주택	3.7	3.8	**4.0**	**4.0**	-	-	3.0	**4.0**	**3.9**	3.7	3.2	3.0
행복주택	3.6	3.0	3.5	3.8	**4.5**	**3.9**	3.3	**3.9**	3.6	3.0	3.3	3.4
신혼희망타운	3.8	3.7	**4.0**	**4.1**	**4.0**	3.0	3.0	3.9	3.8	3.0	**4.0**	3.2
청년월세지원	3.7	3.7	**4.0**	**3.8**	-	-	-	**3.8**	3.4	-	**4.0**	2.0
주거상향지원	3.7	3.7	3.1	**4.3**	**4.3**	4.0	3.8	-	3.8	3.0	**4.3**	3.0
에너지 바우처	4.0	3.9	3.3	3.7	**4.3**	4.1	4.0	**4.5**	3.4	3.3	**4.3**	3.9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	4.0	3.8	3.4	3.7	**5.0**	-	-	4.0	3.4	3.0	**4.2**	**4.2**

● 군·구별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임대주택 서비스의 전체 평균은 32.8%이며, 검단구(54.6%), 서해구(47.4%), 계양구(43.7%), 연수구(44.2%)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옹진군(16.9%), 강화군(20.7%)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전세자금 전체 평균은 27.8%임. 동구(38.1%), 연수구(39.7%), 계양구(38.0%)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검단구(12.3%), 강화군(15.0%), 옹진군(19.6%)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주택구입자금 전체 평균은 28.1%이며, 연수구(43.2%), 계양구(37.2%), 강화군(32.2%)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검단구(9.2%), 옹진군(15.7%)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인천시 주택바우처 전체 평균은 17.0%이지만 검단구(37.3%), 계양구(29.7%)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강화군(7.3%), 부평구(8.7%)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인천시 사회주택 전체 평균은 13.2%이며, 검단구(34.2%), 계양구(20.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부평구(6.3%), 동구(7.7%)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평균은 8.8%이며, 계양구(18.7%), 서해구(12.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동구(3.5%), 남동구(3.5%)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행복주택은 평균 13.0%,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9.1%임. 연수구(행복주택 21.5%, 신혼희망타운 17.0%), 계양구(행복주택 18.7%, 신혼희망타운 17.0%)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검단구(행복주택 9.6%, 신혼희망

타운 4.2%), 강화군·옹진군(각 7% 내외)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청년월세지원 전체 평균은 8.0%이며, 계양구(15.3%), 연수구(14.3%)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검단구(2.3%), 강화군(5.5%)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주거상향지원 전체 평균은 17.9%이며, 검단구(35.8%), 강화군(27.2%), 동구(22.6%)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남동구(6.5%), 서해구(10.6%)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에너지 바우처 전체 평균은 35.9%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임. 동구(53.2%), 부평구(51.5%), 강화군(45.2%), 검단구(46.9%)에서 매우 높은 반면, 남동구(20.7%), 서해구(21.2%), 중구(23.7)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 전체 평균은 22.7%이며 강화군(43.5%), 검단구(41.5%)에서 매우 높음. 반면 남동구(8.2%), 서해구(13.2%)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3-181] 군·구별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임대주택	32.8	23.2	34.8	35.7	44.2	32.5	26.5	43.7	**47.4**	**54.6**	20.7	16.9
전세자금	27.8	25.7	**38.1**	23.7	**39.7**	24.7	30.3	38.0	31.5	12.3	15.0	19.6
주택구입자금	28.1	31.2	22.4	25.3	**43.2**	24.7	31.5	37.2	26.8	9.2	**32.2**	15.7
인천시 주택바우처	17.0	12.5	16.5	15.0	25.5	12.2	8.7	**29.7**	21.8	**37.3**	7.3	14.6
인천시 사회주택	13.2	7.7	7.7	10.7	18.8	9.7	6.3	**20.7**	16.5	**34.2**	7.8	18.3
역세권 청년주택	8.8	6.8	3.5	7.3	**15.0**	3.5	5.8	**18.7**	12.6	6.5	5.7	11.6
행복주택	13.0	12.3	5.5	12.8	**21.5**	11.7	13.7	**18.7**	18.2	9.6	7.5	12.1
신혼희망타운	9.1	7.5	4.7	10.8	**17.0**	7.3	8.0	**17.0**	8.5	4.2	4.8	7.7
청년월세지원	8.0	8.8	3.5	7.3	**14.3**	5.3	5.7	**15.3**	8.5	2.3	5.5	8.0
주거상향지원	17.9	8.3	22.6	14.5	24.0	6.5	18.7	19.3	10.6	**35.8**	**27.2**	16.8
에너지 바우처	35.9	23.7	53.2	28.5	40.0	20.7	51.5	35.5	21.2	**46.9**	**45.2**	28.1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	22.7	17.0	23.5	19.2	26.5	8.2	22.2	19.7	13.2	**41.5**	**43.5**	21.6

● 주거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임대주택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43.9%)이며, 그 다음은 서비스 대기중(18.6%),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13.8%)임. 이는 공급 부족과 정보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보여줌
- 전세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용자격 제한(36.3%)과 비용 부담(25.7%)이 주요 원인임
-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 부담(35.7%)이며, 그 다음은 이용자격 제한(32.7%), 신청절차의 복잡성(14.1%)임
- 인천시 주택바우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용자격 제한(45.4%)이 가장 큰 이유이며, 신청절차 복잡성(17.3%), 정보 부족(16.3%)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인천시 사회주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용 자격 제한(34.1%), 정보 부족(17.8%), 신청 절차 복잡성(16.7%)이 주요 원인임
- 역세권 청년주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용자 격 제한(59.2%)이 압도적으로 높음. 그 외 신청절차 복잡성(14.1%), 비용 부담(7.5%)이 뒤를 이음. 청년층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이 주요한 장벽으로 작용함

- 행복주택은 이용 자격 제한(53.4%)이 가장 큰 이유이며, 신청 절차 복잡성(16.3%), 정보 부족(10.4%)이 뒤를 이음
- 신혼희망타운은 이용자격 제한(57.6%)이 가장 큰 이유이며, 신청절차 복잡성(13.5%), 서비스 대기 중(9.4%)도 주요 요인임
- 청년월세지원은 이용자격 제한(63.4%)이 가장 큰 이유로, 모든 서비스 중 가장 높은 비율임. 그 외 신청절차 복잡성(11.6%), 정보 부족(10.1%)이 뒤를 이음. 청년층의 실제 수요와 제도 설계 간 괴리가 크다는 점을 보여줌
- 주거상향지원은 이용자격 제한(38.7%), 신청절차 복잡성(18.3%), 정보 부족(12.6%)이 주요 원인임
- 에너지 바우처는 이용자격 제한(46.0%)이 가장 큰 이유이며, 정보 부족 및 신청절차 복잡성(18.9%), 서비스 대기 중(9.0%)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은 이용자격 제한(41.3%), 신청절차 복잡성(16.8%), 정보 부족(16.1%)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표 3-182] 주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1순위 응답		2순위 응답		3순위 응답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임대주택	848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43.9	서비스 대기 중	18.6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3.8
전세자금	615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6.3	비용(자부담)부담 때문에	25.7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2.4
주택구입자금	588	비용(자부담)부담 때문에	35.7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2.7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4.1
인천시 주택바우처	313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45.4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7.3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6.3
인천시 사회주택	270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4.1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7.8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6.7
역세권 청년주택	348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59.2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4.1	비용(자부담)부담 때문에	7.5
행복주택	386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53.4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6.3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0.4
신혼희망타운	342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57.6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3.5	서비스 대기 중	9.4
청년월세지원	268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63.4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1.6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0.1
주거상향지원	191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8.7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8.3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2.6
에너지 바우처	322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46.0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8.9	서비스 대기 중	9.0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	143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41.3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6.8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6.1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13) 법률 및 권익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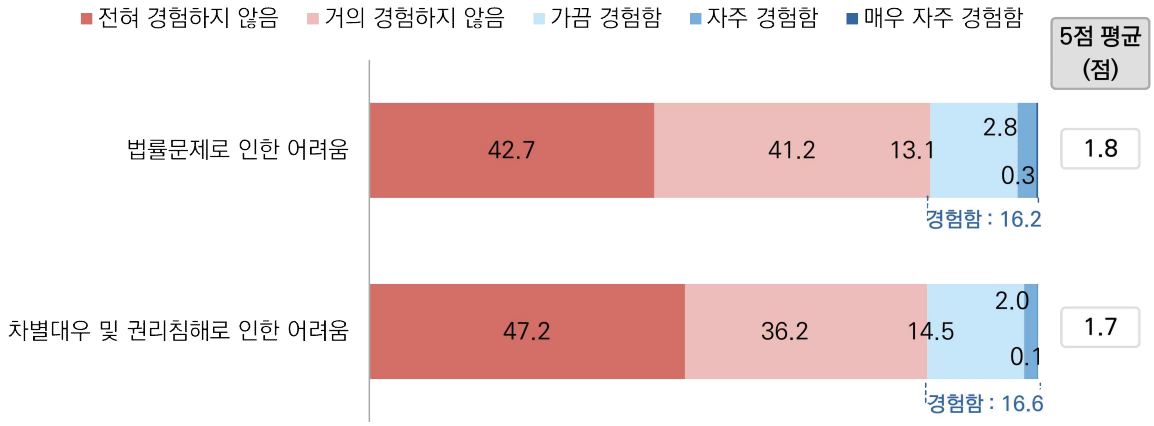
(1)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인천시 시민의 법률문제 및 권리침해 관련 어려움에 대한 조사한 결과, 대다수 응답자가 “전혀” 또는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심각하다는 인식 수준은 5점 만점 기준 1.7~1.8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 법률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전체 응답자의 42.7%가 “전혀 경험하지 않음”, 41.2%가 “거의 경험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여, 83.9%가 법률적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았다고 인식함. 반면 “가끔 경험함”은 13.1%,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경험함”은 각각 2.8%, 0.3%로 소수에 해당함. 이에 따른 평균 심각도는 1.7점으로 5기 조사 평균 점수보다(1.8점)보다 낮아짐
-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임. “전혀 경험하지 않음”은 47.2%, “거의 경험하지 않음”은 36.2%로 전체의 83.4%를 차지함. “가끔 경험함”은 14.5%,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경험함”은 각각 2.0%, 0.1%로 나타났으며, 평균 심각도는 1.7점이며, 5기 조사 평균 점수(1.8점)보다 소폭 낮아짐
- 4년 전(5기)에 비해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는 ‘법률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모두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3-98]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



[표 3-183]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법률문제로 인한 어려움	42.7	41.2	13.1	2.8	0.3	1.7	1.8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47.2	36.2	14.5	2.0	0.1	1.7	1.8

●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법률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남동구(2.1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추홀구·서해구(각 1.9점)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반면 옹진군(1.5점), 강화군(1.6점)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중구, 동구, 연수구(각 1.8점)는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부평구, 계양구, 검단구(각 1.7점)는 인천시 평균과 동일함
-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은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각 1.9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이나 권리 침해를 체감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서해구(1.8점)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반면 옹진군(1.4점), 강화군(1.6점)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지역으로 파악됨. 중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검단구(각 1.7점)는 평균 수준과 유사함

[표 3-184]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법률문제로 인한 어려움	1.7	1.8	1.8	1.9	1.8	2.1	1.7	1.7	1.9	1.7	1.6	1.5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1.7	1.7	1.9	1.9	1.7	1.9	1.7	1.7	1.8	1.7	1.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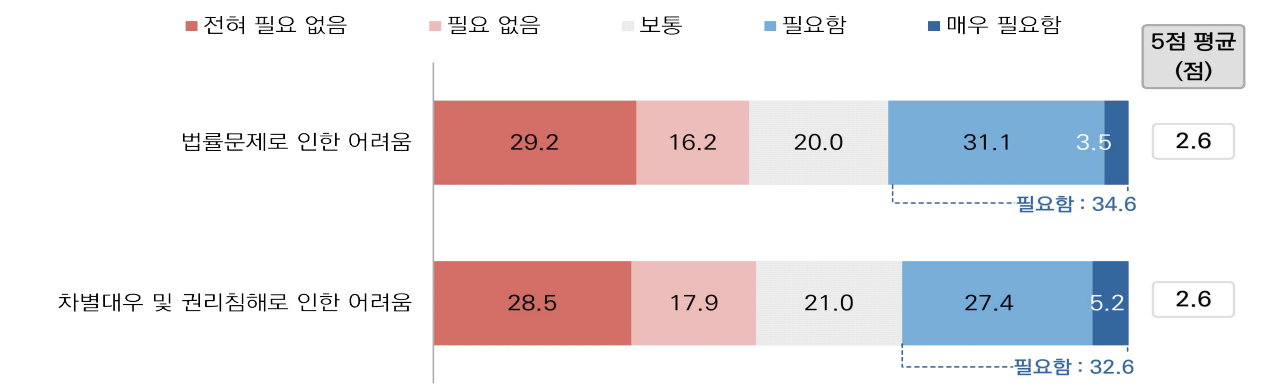
(2)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인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법률문제 및 차별·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4.6%였으며,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32.6%로 나타남. 이는 10명 중 3명 이상이 법률 및 권익보장과 관련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4년 전(5기)에 비해 '법률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5기 2.3점 → 6기 2.6점)

[그림 3-99]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



[표 3-185]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법률문제로 인한 어려움	29.2	16.2	20.0	31.1	3.5	2.6	2.3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28.5	17.9	21.0	27.4	5.2	2.6	2.3

-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지역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외부 지원에 대한 욕구는 동구와 남동구, 부평구, 검단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동구(3.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동구·부평구(각 2.9점)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반면 옹진군(2.1점), 강화군(2.5점)은 낮은 수준으로, 법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음
-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동구(3.4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동구·부평구(각 2.8점)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반면 옹진군(2.1점), 강화군(2.4점)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3-186]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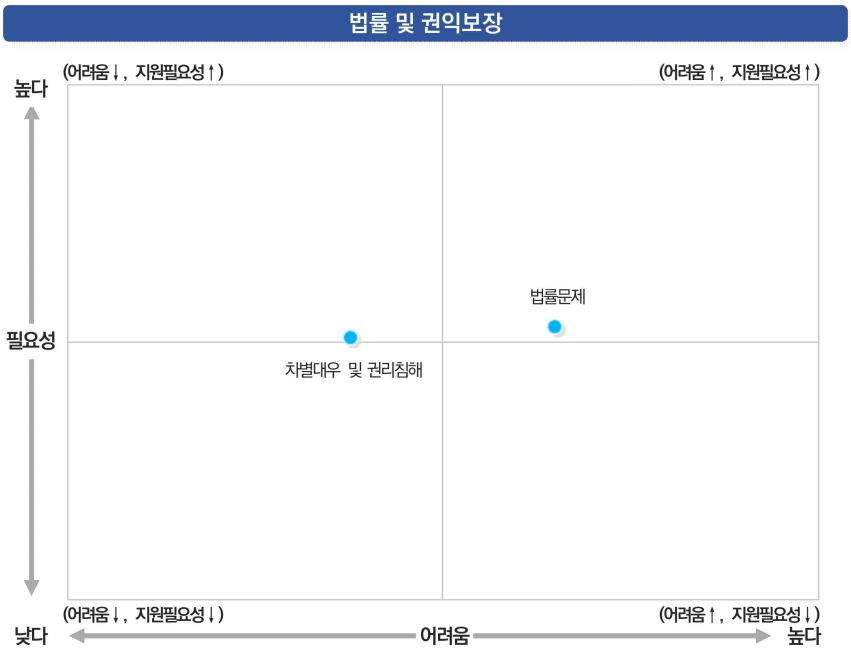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법률문제로 인한 어려움	2.6	2.6	**3.2**	2.6	2.5	**2.9**	**2.9**	2.6	2.4	2.7	2.5	2.1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2.6	2.6	**3.4**	2.6	2.6	**2.8**	**2.8**	2.5	2.3	2.7	2.4	2.1

(3) 법률 및 권익보장 IPA 결과

- 법률 및 권익보장에서 어려움이 높고, 외부지원이 필요한 항목들을 파악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IPA분석을 수행한 결과, 법률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높고, 지원 필요성도 높은 영역에 위치함. 이는 시민들이 법률적 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는 어려움이 낮고, 지원 필요성도 낮은 영역에 위치함. 이는 대부분의 시민이 일상에서 차별이나 권리침해를 크게 체감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외부 지원의 필요성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3-100] 인천시 전체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 군·구별 교육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어려움 및 서비스 필요성 IPA 분석 결과

- 법률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은 지역은 동구와 남동구로 확인됨. 이들 지역은 법률적 갈등이나 제도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 또한 높은 편으로 분석됨
- 따라서 이들 지역은 법률상담 확대, 정보 제공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임
- 반면, 미추홀구와 서해구는 법률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높게 체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법률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낮거나,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일 수 있음. 이들 지역은 법률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는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로 확인됨. 이들 지역은 사회적 차별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체감도가 높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권익보호 체계 강화, 인권교육 확대, 차별 예방 캠페인 등 다층적인 대응이 요구됨
- 한편, 서해구는 차별 및 권리침해에 대한 어려움은 높게 체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는 지역으로 이는 제도적 개입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문제 해결을 개인적 차원에서 감내하는 문화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와 같은 지역에는 권리 인식 제고와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그림 3-101]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4)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 법률 지원 서비스와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 인지율과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인지율과 이용률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향후 이용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이는 현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부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 수요는 존재함을 시사함

  - 법률 지원 서비스의 경우, 인지율은 14.8%로 낮은 수준이며, 실제 이용 경험은 1.5%에 불과함.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3.7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향후 이용 의향은 28.9%로 나타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더라도 향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는 인지율 8.7%, 이용 경험 0.8%로 법률 지원 서비스보다 더 낮은 수준임. 이용 만족도는 동일하게 3.7점으로 나타남. 향후 이용 의향은 21.1%로 법률 지원 서비스보다 낮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수요가 존재함
  - 4년 전(5기)에 비해 인지율과 이용 경험률, 향후 이용 의향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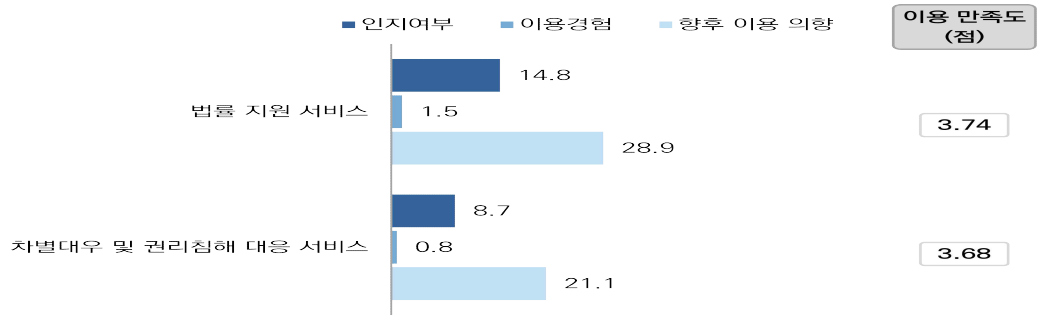
[표 3-187]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있음' 비율
법률 지원 서비스	14.8	1.5	89	3.7	28.9	19.7	2.2	37.9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	8.7	0.8	47	3.7	21.1	9.7	0.8	30.1

[그림 3-102]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단위 : %)



●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인지 여부

- 법률 지원 서비스의 인지율은 인천시 평균 14.8%로 집계되었으며, 연수구(26.0%), 서해구(25.2%), 동구(18.2%), 미추홀구(17.6%)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검단구(5.9%), 옹진군(7.3%), 강화군(9.6%), 계양구(10.0%)는 평균보다 낮은 인지율을 보임
-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의 인지율은 인천시 평균 8.7%로 법률 지원 서비스보다 더 낮은 수준이며, 서해구(15.8%), 동구(15.3%), 미추홀구(14.4%)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율을 기록함. 반면, 계양구(2.5%), 옹진군(2.2%), 검단구(4.1%)는 인지율이 매우 낮음

[표 3-188]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법률 지원 서비스	14.8	14.8	18.2	17.6	26.0	15.0	11.8	10.0	25.2	5.9	9.6	7.3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	8.7	8.7	15.3	14.4	12.8	6.8	7.7	2.5	15.8	4.1	8.5	2.2

●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 경험

- 법률 지원 서비스의 인천시 평균 이용률은 1.5%에 불과하며, 연수구(4.0%), 계양구(3.5%), 미추홀구(3.0%)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임. 반면, 부평구, 서해구, 강화군은 이용률이 0%로 나타났으며, 중구(0.3%), 검단구(0.4%), 옹진군(0.5%) 등도 1% 미만의 낮은 이용률을 보임
-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의 이용률은 인천시 평균 0.8%로, 미추홀구(2.7%), 계양구(1.8%), 연수구(1.7%)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중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은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옹진군과 강화군은 두 서비스 모두에서 이용률이 0%로, 도서·농촌 지역의 제도 접근성 한계가 나타남

[표 3-189]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법률 지원 서비스	1.5	0.3	1.0	3.0	4.0	2.3	-	3.5	-	0.4	-	0.5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	0.8	-	0.5	2.7	1.7	0.8	-	1.8	0.3	0.4	-	-

●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 만족도

- 법률 지원 서비스의 경우, 남동구(4.1점)와 부평구(3.9점), 서해구(3.8점), 강화군·옹진군(각 4.0점)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반면 중구와 동구(각 2.5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의 만족도는 남동구, 서해구, 검단구, 옹진군(각 4.0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동구(3.0점), 연수구·부평구(각 3.4점)는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3-190]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법률 지원 서비스	3.7	2.5	2.5	-	3.5	4.1	3.9	-	3.8	-	4.0	4.0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	3.7	-	3.0	-	3.4	4.0	3.4	-	4.0	4.0	-	4.0

●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법률 지원 서비스의 향후 이용 의향은 강화군(41.9%), 서해구(36.5%), 미추홀구(36.8%), 연수구(34.3%), 남동구(33.3%), 옹진군(33.5%) 등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동구(16.7%), 검단구(11.2%)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의 향후 이용 의향은 강화군(44.2%), 서해구(32.0%), 남동구(29.3%), 연수구(25.7%) 등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동구(6.3%), 검단구(14.1%), 미추홀구(18.9%), 옹진군(18.5%)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표 3-191] 군·구별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법률 지원 서비스	28.9	28.9	16.7	36.8	34.3	33.3	27.5	31.7	36.5	11.2	41.9	33.5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	21.1	21.1	6.3	18.9	25.7	29.3	19.5	21.8	32.0	14.1	44.2	18.5

●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시민들의 실제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함. 다음으로는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가 27.0%,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가 14.3%로 나타남
-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33.3%로 법률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이어서 '비용 부담'이 20.0%, '정보 부족'이 13.3%로 나타남

[표 3-192] 법률 및 권익보장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법률 지원 서비스	63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33.3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27.0	비용(자부담)부담 때문에	14.3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	30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33.3	비용(자부담)부담 때문에	20.0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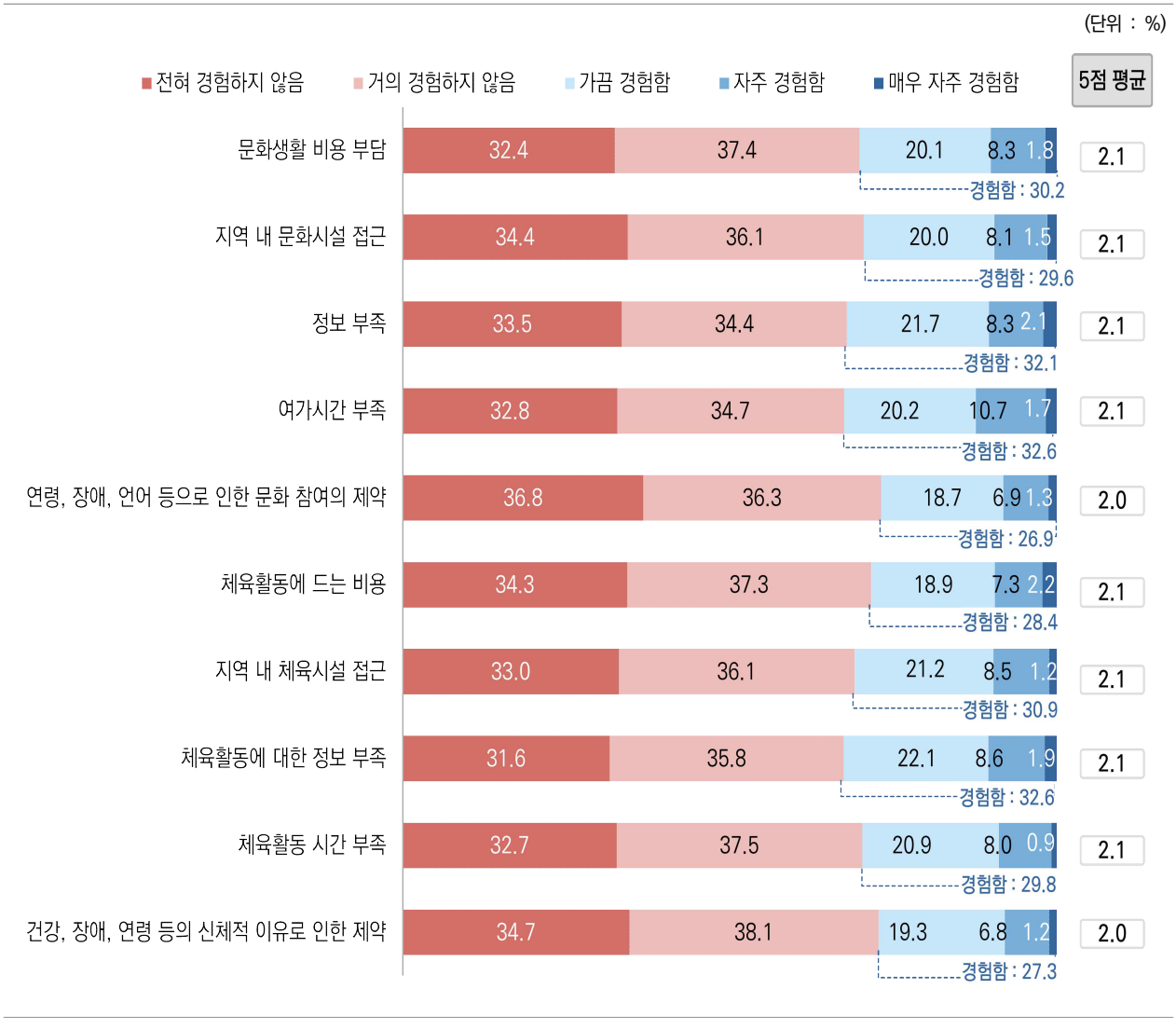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해당 없음 포함 100%

14) 문화·여가

(1) 문화·여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 인천시 시민이 경험하는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끔, 자주, 매우 자주 경험)를 살펴본 결과, 10명 중 약 3명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여가시간 부족'과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에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3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보 부족' 32.1%, '지역 내 체육시설 접근' 30.9%, '체육활동 시간 부족' 29.8%, '지역내 문화시설 접근' 29.6%, '체육활동에 드는 비용' 28.4%, '건강, 장애, 연령 등의 신체적 이유로 인한 제약' 27.3% 순임
  - 이러한 결과는 이는 문화·체육 활동 전반에 걸쳐 경제적 부담, 정보 접근성, 시설 인프라, 시간 제약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3-103] 문화·여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표 3-193] 문화·여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문화생활 비용부담	32.4	37.4	20.1	8.3	1.8	2.1	2.1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	34.4	36.1	20.0	8.1	1.5	2.1	
정보 부족	33.5	34.4	21.7	8.3	2.1	2.1	
여가시간 부족	32.8	34.7	20.2	10.7	1.7	2.1	
연령,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한 문화 참여의 제약	36.8	36.3	18.7	6.9	1.3	2.0	
체육활동에 드는 비용	34.3	37.3	18.9	7.3	2.2	2.1	2.1
지역 내 체육시설 접근	33.0	36.1	21.2	8.5	1.2	2.1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31.6	35.8	22.1	8.6	1.9	2.1	
체육활동 시간 부족	32.7	37.5	20.9	8.0	0.9	2.1	
건강, 장애, 연령 등의 신체적 이유로 인한 제약	34.7	38.1	19.3	6.8	1.2	2.0	

-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 정도

- 문화·여가 활동과 관련된 어려움 경험 요인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체감도에 차이가 나타남. 특히 검단구와 연수구는 다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문화·체육 활동 참여에 있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반면, 중구는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상대적으로 제약을 덜 체감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 문화생활 비용부담의 어려움은 검단구(2.7점)가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였으며, 연수구(2.3점)와 미추홀구·남동구(2.2점)도 높게 나타남. 반면, 중구(1.8점), 동구·서해구·강화군·옹진군(2.0점)은 낮은 지역으로 확인됨
-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에서는 검단구(2.5점), 강화군·옹진군·연수구(2.2점)이 높게 나타남. 반면, 중구(1.8점)와 남동구·부평구·계양구(1.9점)는 낮은 체감도를 보임
- 정보 부족 항목에서는 연수구·검단구(2.5점)가 공동 1위를 기록하였고, 남동구·옹진군(2.2점)도 높은 편임. 반면, 중구(1.8점)과 부평구·계양구(2.0점)는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여가시간 부족은 연수구(2.8점)가 가장 높았으며, 미추홀구·남동구(2.3점), 계양구(2.2점)순으로 나타남. 반면, 옹진군(1.8점), 중구·동구(1.9점)는 낮은 체감도를 보임
- 연령,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한 문화 참여 제약에서는 검단구(2.3점)가 가장 높았고, 연수구(2.2점)와 남동구(2.1점) 순으로 나타남. 반면, 중구(1.8점)과 서해구·부평구(1.9점)는 낮은 체감도를 보임
- 체육활동에 드는 비용은 검단구(2.6점)가 가장 높았으며, 연수구·남동구·계양구(2.2점)도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중구(1.8점)과 동구·서해구(1.9점)는 체감도가 낮은 지역임
- 지역 내 체육시설 접근의 어려움에 대해 검단구·연수구(2.4점)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강화군(2.3점)임. 반면, 중구·동구·부평구(1.8~1.9점)는 낮은 체감도를 보임
-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은 검단구·연수구(2.6점)가 가장 높았으며, 강화군·계양구(2.2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중구·동구·부평구(1.8~1.9점)는 정보 부족을 덜 체감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 체육활동 시간 부족은 연수구(2.5점)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계양구(2.4점), 미추홀구(2.3점)임. 반면, 동구(1.7점), 중구·검단구(1.9~2.0점)는 체감도가 낮은 지역임

- 건강, 장애, 연령 등 신체적 이유로 인한 제약은 검단구(2.4점)가 가장 높았고, 연수구·강화군(2.2점)도 높은 지역임. 반면, 부평구(1.7점), 동구·서해구·계양구(1.8점)는 낮은 체감도를 보임

[표 3-194]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문화생활 비용부담	2.1	1.8	2.0	2.2	**2.3**	2.2	2.1	2.1	2.0	**2.7**	2.0	2.0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	2.1	1.8	2.1	2.1	**2.2**	1.9	1.9	1.9	2.0	**2.5**	**2.2**	**2.2**
정보 부족	2.1	1.8	2.0	2.1	**2.5**	**2.2**	2.0	2.0	2.0	**2.5**	2.1	**2.2**
여가시간 부족	2.1	1.9	1.9	**2.3**	**2.8**	2.3	2.1	2.2	2.0	1.9	2.1	1.8
연령,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한 문화 참여의 제약	2.0	1.8	2.0	2.1	**2.2**	2.1	1.9	2.0	1.8	**2.3**	2.0	2.0
체육활동에 드는 비용	2.1	1.8	1.9	2.1	**2.2**	2.2	2.0	**2.2**	1.9	**2.6**	2.1	2.0
지역 내 체육시설 접근	2.1	1.8	1.9	2.2	**2.4**	2.1	1.9	2.1	2.0	**2.4**	**2.3**	2.1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2.1	1.8	1.9	**2.2**	**2.6**	2.1	1.9	**2.2**	2.0	**2.6**	**2.2**	2.1
체육활동 시간 부족	2.1	1.9	1.7	2.3	**2.5**	2.2	1.9	**2.4**	2.0	2.0	2.1	1.8
건강, 장애, 연령 등의 신체적 이유로 인한 제약	2.0	1.9	1.8	**2.2**	**2.2**	2.1	1.7	2.1	1.8	**2.4**	2.1	2.0

(2) 문화·여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인천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활동과 관련된 외부 지원의 필요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 시설 접근성, 정보 부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 부족이나 신체적 제약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문화생활 비용부담'에 대한 외부 지원의 필요성은 43.7%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는데, 이는 문화활동 참여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임
-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과 '정보 부족'이 각각 42.0%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는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이 문화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 체육활동 관련 항목들인 '체육활동 정보 부족'과 '체육시설 접근'이 각각 41.2%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을 보여줌
- 다음으로 '여가시간 부족'39.7%, '연령·장애·언어 등으로 인한 문화 참여 제약'3 9.4% 순으로 나타남. 반면, '체육활동 시간 부족' 38.8%, '건강·장애·연령 등 신체적 이유로 인한 제약' 35.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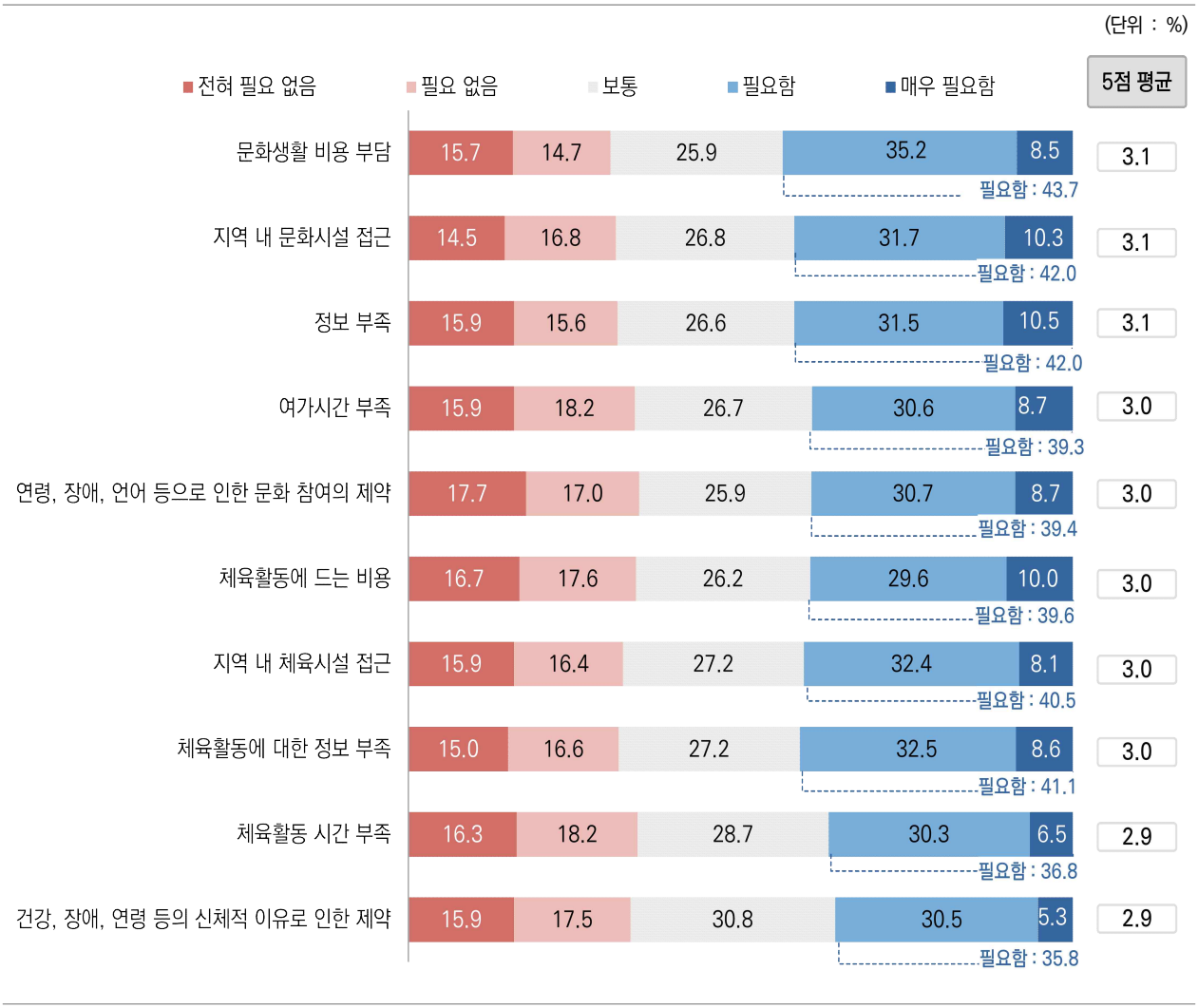
[표 3-195] 문화·여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문화생활 비용 부담	15.7	14.7	25.9	35.2	8.5	3.1	2.6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	14.5	16.8	26.8	31.7	10.3	3.1	
정보 부족	15.9	15.6	26.6	31.5	10.5	3.1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여가시간 부족	15.9	18.2	26.7	30.6	8.7	3.0	
연령,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한 문화 참여의 제약	17.7	17.0	25.9	30.7	8.7	3.0	
체육활동에 드는 비용	16.7	17.6	26.2	29.6	10.0	3.0	
지역 내 체육시설 접근	15.9	16.4	27.2	32.4	8.1	3.0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15.0	16.6	27.2	32.5	8.6	3.0	2.6
체육활동 시간 부족	16.3	18.2	28.7	30.3	6.5	2.9	
건강, 장애, 연령 등의 신체적 이유로 인한 제약	15.9	17.5	30.8	30.5	5.3	2.9	

[그림 3-104] 문화·여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지역별로 문화 · 여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정도는 동구와 연수구, 부평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임
- 문화생활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부평구(3.6점)가 가장 높았으며, 동구(3.5점), 연수구·남동구·계양구(3.2점)가 뒤를 이었음. 반면, 중구(2.6점)는 비용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의 서비스 필요성은 동구(3.8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평구(3.6점), 연수구(3.3점) 순으로 나타남. 이는 문화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불편이 특히 동구와 부평구에서 강하게 체감되고 있음을 시사함. 반면, 중구(2.6점)는 상대적으로 인프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해석됨
- 정보 부족 항목에서는 동구(3.6점), 부평구·연수구(3.5점), 남동구(3.2점)가 높은 수준을 보임
- 여가시간 부족의 서비스 필요성은 동구·연수구·부평구(3.5점)가 가장 높았으며, 남동구(3.2점), 계양구(3.0점)순으로 나타남. 반면, 검단구(2.2점)는 여가시간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연령·장애·언어 등으로 인한 문화 참여 제약 항목에서는 동구(3.6점), 부평구(3.5점), 연수구(3.3점) 순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 접근성 제약이 해당 지역에서 강하게 체감되고 있음을 보여줌. 중구(2.6점)는 가장 낮은 지역으로 확인됨
- 체육활동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동구(3.6점), 부평구(3.5점), 연수구(3.3점), 계양구(3.1점)순으로 나타남
- 지역 내 체육시설 접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동구(3.6점), 부평구(3.4점), 연수구(3.3점)가 높게 나타났으며, 강화군(3.1점)도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체감도를 나타냄. 이는 체육시설 접근성에 대한 불편이 도심과 외곽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함을 시사함
-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은 동구(3.6점), 연수구(3.5점), 부평구(3.4점), 계양구(3.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체육활동 시간 부족은 동구·부평구(3.4점), 연수구(3.3점), 남동구·계양구(3.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검단구(2.3점)는 가장 낮은 지역임
- 건강·장애·연령 등 신체적 이유로 인한 제약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동구(3.4점), 부평구(3.3점), 연수구(3.2점), 남동구·계양구(3.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중구(2.5점), 옹진군(2.6점)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표 3-196]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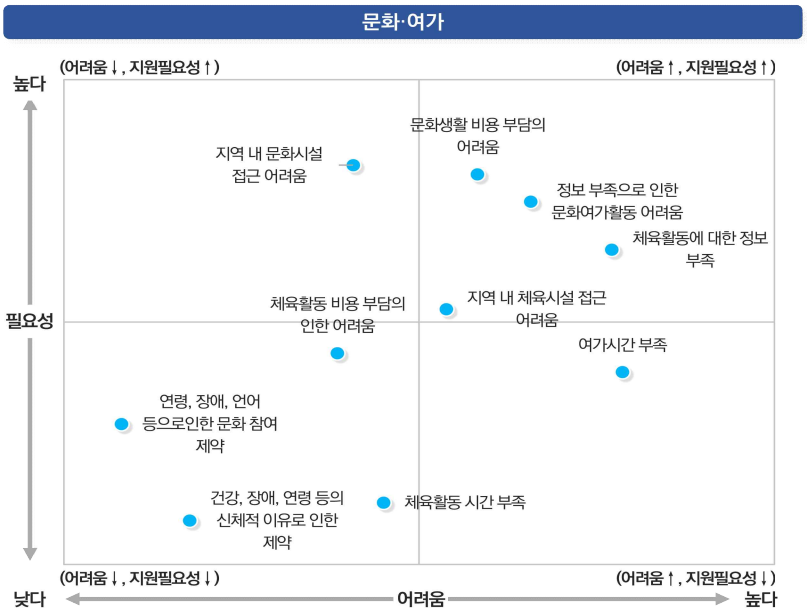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문화생활 비용 부담	3.1	2.6	**3.5**	2.9	3.2	3.2	**3.6**	3.2	2.7	3.0	2.9	2.8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	3.1	2.6	**3.8**	2.8	3.3	2.9	**3.6**	3.0	2.5	2.8	2.9	3.1
정보 부족	3.1	2.6	**3.6**	2.8	3.5	3.2	**3.5**	3.0	2.5	2.7	2.8	2.9
여가시간 부족	3.0	2.6	**3.5**	2.9	3.5	3.2	**3.5**	3.0	2.5	2.2	2.8	2.5
연령,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한 문화 참여의 제약	3.0	2.6	**3.6**	2.8	3.3	3.0	**3.5**	2.9	2.6	2.7	2.7	2.7
체육활동에 드는 비용	3.0	2.5	**3.6**	2.8	3.3	3.0	**3.5**	3.1	2.5	2.9	2.8	2.7
지역 내 체육시설 접근	3.0	2.5	**3.6**	2.8	3.3	3.0	**3.4**	3.0	2.6	2.8	3.1	2.8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3.0	2.6	**3.6**	2.8	3.5	3.1	**3.4**	3.1	2.5	2.8	2.9	2.8
체육활동 시간 부족	2.9	2.5	**3.4**	2.8	3.3	3.1	**3.4**	3.1	2.5	2.3	2.8	2.5
건강, 장애, 연령 등의 신체적 이유로 인한 제약	2.9	2.5	**3.4**	2.8	3.2	3.0	**3.3**	3.0	2.6	2.8	2.7	2.6

(3) 문화·여가 IPA 결과

- 문화·여가에 대한 어려움이 높고, 외부 지원이 필요성이 높은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IPA를 활용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문화생활 비용 부담의 어려움, 정부부족으로 인한 문화·여가활동 어려움,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지역내 체육시설 접근 어려움 항목이 어려움과 필요성이 동시에 높은 영역으로 확인됨. 이들 항목은 시민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실제 생활 속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영역으로 정책적인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05] 인천시 전체 문화·여가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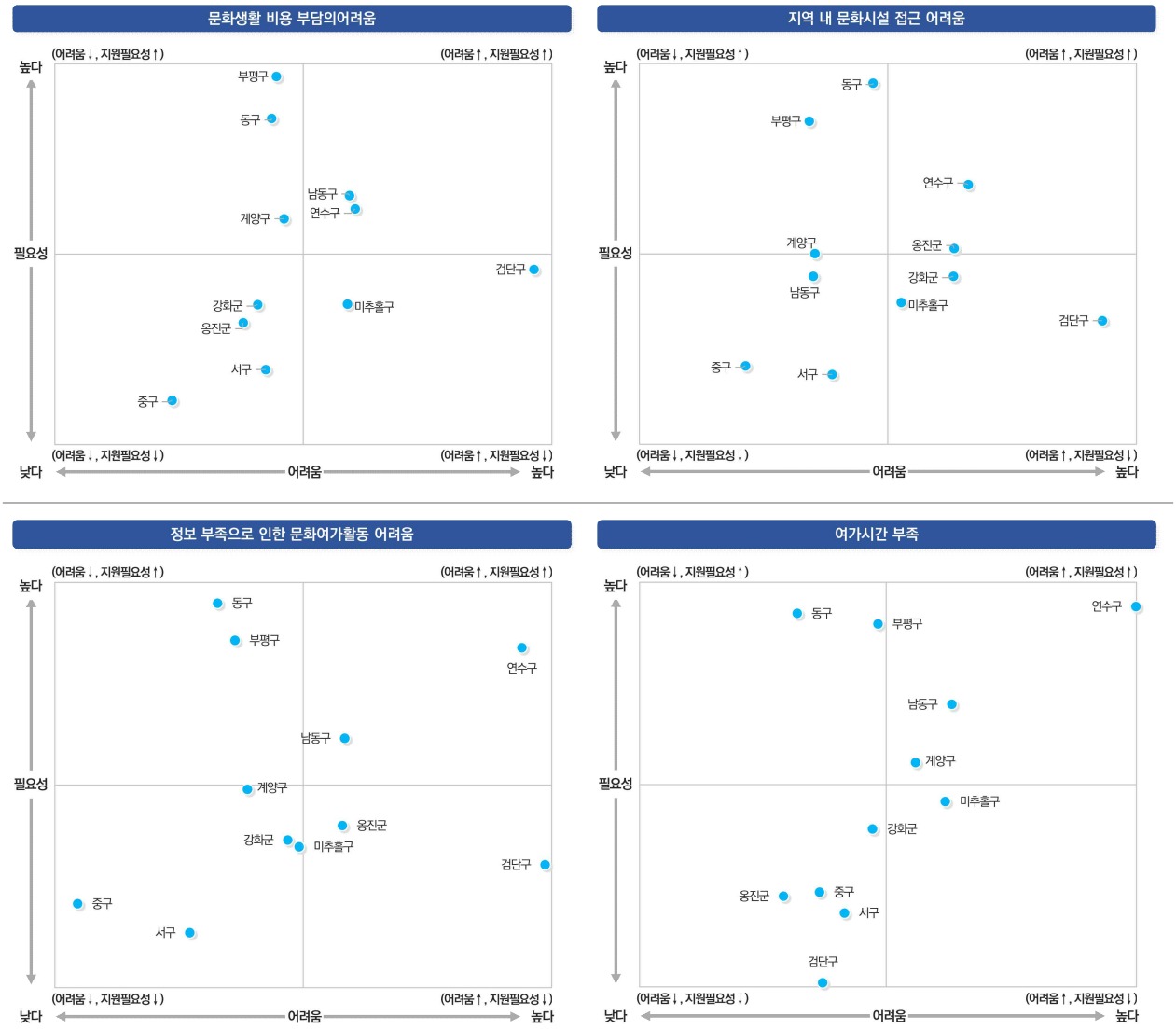
- 군·구별 문화·여가 – 문화·여가 관련 어려움 및 서비스 지원 필요성 IPA 분석 결과

- 문화생활 비용 부담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남동구와 연수구로 확인됨.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문화활동 참여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체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 지원의 필요성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반면, 미추홀구와 검단구는 문화생활 비용 부담의 어려움은 높게 체감하지만,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 이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민간 중심의 해결 기대가 존재함을 시사함
-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연수구와 옹진군임. 이는 물리적 접근성의 제약이 크고, 이에 대한 공공 인프라 확충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임을 의미함. 반면, 강화군, 미추홀구, 검단구는 시설 접근의 어려움은 높게 체감하지만,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 이는 지역 내 대체 자원 활용이나 낮은 기대 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문화·여가 활동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연수구와 남동구임. 이는 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이 실질적인 참여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전달 체계 개선이 요구됨을 의미함. 반면, 옹진군과 검단구는 정보 부족의 어려움은 높게 체감하지만,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여가시간 부족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임. 이는 도시적 생활 구조와 직장 중심의 일상 속에서 여가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함. 반면, 동구와 부평구는 어려움은 높게 체감하지만,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연령,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한 문화 참여 제약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연수구와 남동구임.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 접근성 제약이 실질적으로 체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포용적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미추홀구와 검단구는 해당 제약에 대한 어려움은 높게 체감하지만,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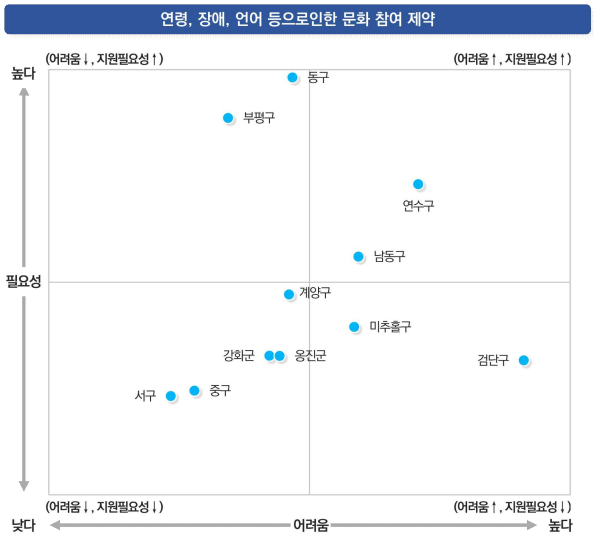
[그림 3-106] 군·구별 문화·여가 - 문화·여가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그림 3-110] 군·구별 문화·여가 – 문화·여가 관련 IPA 결과(계속)

(단위 : 점)



- 군·구별 문화·여가 –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 및 서비스 지원 필요성 IPA 분석 결과

- 체육활동 비용부담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로 확인됨. 이는 해당 지역에서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경제적 제약이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 지원의 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검단구, 강화군, 미추홀구는 체육활동 비용부담의 어려움은 높게 체감하지만, 서비스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지역 내 체육시설 접근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연수구, 강화군, 계양구로 나타남. 이는 해당 지역에서 체육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불편이 크고, 이에 대한 인프라 확충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미추홀구와 검단구는 시설 접근의 어려움은 높게 체감하지만,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연수구와 계양구로 확인됨. 이는 체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전달 체계 개선이 요구됨을 의미함. 반면, 강화군, 미추홀구, 검단구는 정보 부족의 어려움은 높게 체감하지만, 서비스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체육활동 시간 부족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임. 이는 도시적 생활 구조와 직장 중심의 일상속에서 체육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강화군과 미추홀구는 시간 부족의 어려움은 높게 체감하지만, 서비스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
- 건강, 장애, 연령 등의 신체적 이유로 인한 제약의 어려움과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로 확인됨. 고령자, 장애인 등 신체적 제약을 가진 주민들이 체육활동 참여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미추홀구와 검단구는 신체적 제약의 어려움은 높게 체감하지만, 서비스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

[그림 3-107] 군·구별 문화·여가 - 체육활동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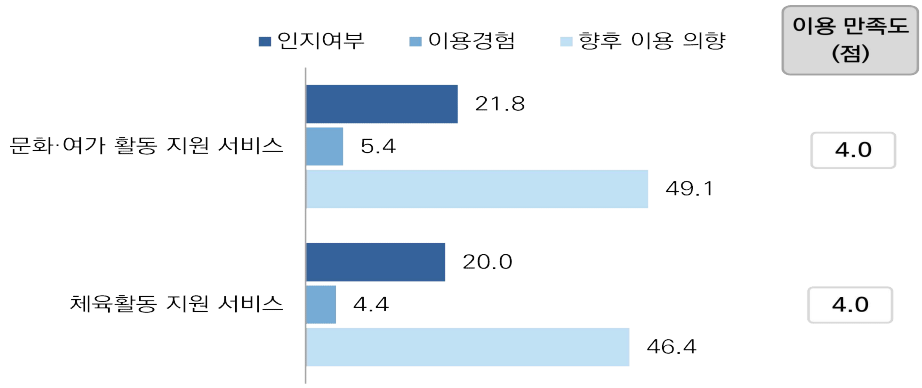


(4)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관련 사회보장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수준과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지율과 실제 이용 경험은 낮은 반면, 향후 이용 의향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는 높지만, 접근성과 홍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문화·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의 인지율은 21.8%, 이용 경험은 5.4%로 낮게 나타남. 반면, 향후 이용 의향은 49.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이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이 낮아 실제 이용은 제한적이지만, 경험한 시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향후 이용 의지가 높음을 의미함
  - 체육활동 지원 서비스의 인지율은 20.0%, 이용 경험은 4.4%로 문화·여가 서비스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향후 이용 의향은 46.4%로 역시 높은 편이며, 만족도는 동일하게 4.0점으로 나타남. 이는 체육활동 지원 서비스 역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는 높으나, 실제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4년 전(5기)에 비해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현황, 향후 이용 의향 모두 상대적으로 높아짐

[그림 3-108]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단위 : %)



[표 3-197]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와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있음' 비율
문화·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21.8	5.4	329	4.0	49.1	21.2	5.0	48.8
체육활동 지원 서비스	20.0	4.4	266	4.0	46.4	17.7	4.6	44.7

-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 문화·여가 활동 관련 서비스에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인 지역은 계양구(39.2%)와 미추홀구(36.8%), 중구(25.2%), 동구(21.9%) 순으로 나타남. 반면 서해구(5.6%), 부평구(10.0%), 검단구(12.7%)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율을 보임

- 체육활동 지원 서비스의 인지율 또한 계양구(38.0%)와 미추홀구(3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구(25.5%), 동구(21.0%), 옹진군(20.5%), 수구(15.8%), 강화군(14.7%), 남동구(14.0%) 순으로 나타남. 반면, 서해구(3.8%), 부평구(8.8%), 검단구(9.6%)는 인지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음

[표 3-198]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문화 · 여가 활동 관련	21.8	25.2	21.9	36.8	19.3	17.0	10.0	39.2	5.6	12.7	18.8	21.2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20.0	25.5	21.0	35.2	15.8	14.0	8.8	38.0	3.8	9.6	14.7	20.5

●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문화·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은 미추홀구(11.3%)와 계양구(10.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구(7.5%), 남동구(7.3%), 옹진군(5.8%)도 인천시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부평구(0.8%), 서해구(0.6%), 동구(1.3%)는 이용 경험이 낮은 수준임
- 체육활동 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계양구(10.2%)와 미추홀구(9.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체육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었음을 보여줌. 반면, 서해구(0.0%), 부평구(0.5%), 동구(1.1%)는 이용 경험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서비스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표 3-199]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문화 · 여가 활동 관련	5.4	5.3	1.3	11.3	7.5	7.3	0.8	10.3	0.6	3.1	3.0	5.8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4.4	3.8	1.1	9.5	4.3	5.0	0.5	10.2	0.0	1.5	3.8	5.0

●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문화·여가 활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미추홀구(4.2점), 동구·검단구·계양구(4.1점), 서해구(4.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옹진군·부평구·중구(3.8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체육활동 관련 서비스 만족도는 연수구(4.2점)가 가장 높았으며, 미추홀구·계양구(4.1점), 동구(4.0점),강화군(3.9점), 옹진군·중구(3.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부평구(3.3점)와 남동구(3.7점)는 인천시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표 3-200]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문화 · 여가 활동 관련	4.0	3.8	4.1	4.2	4.0	3.9	3.8	4.1	4.0	4.1	3.9	3.8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4.0	3.8	4.0	4.1	4.2	3.7	3.3	4.1	-	3.8	3.9	3.8

●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문화·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은 검단구(62.7%), 연수구(61.0%), 동구(60.6%), 강화군(55.7%), 계양구(50.8%), 미추홀구(49.7%)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서해구(32.4%), 남동구(35.5%), 옹진군(41.5%)은 평균보다 낮은 이용 의향을 보여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거나, 접근성·정보 부족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체육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은 동구(56.9%), 연수구(55.3%), 검단구(53.8%), 강화군(51.3%), 계양구(50.0%)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서해구(29.1%), 남동구(33.0%), 옹진군(38.2%)은 평균보다 낮은 이용 의향을 보임

[표 3-201] 군·구별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문화 · 여가 활동 관련	49.1	44.7	60.6	49.7	61.0	35.5	46.5	50.8	32.4	62.7	55.7	41.5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46.4	43.7	56.9	47.2	55.3	33.0	48.2	50.0	29.1	53.8	51.3	38.2

●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문화·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로 38.8%를 차지함. 이는 일상생활과 서비스 운영 시간 간의 불일치가 주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다음으로는 '가까운 곳에 서비스 이용시설이 없어서' 21.0%, '건강상의 이유로' 11.4%로 나타남. 이는 물리적 거리와 개인의 건강 상태가 문화·여가 활동 참여에 실질적인 제약을 주고 있음을 의미함
- 체육활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 응답자의 34.7%가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함. 다음으로는 '가까운 곳에 서비스 이용시설이 없어서' 20.1%, '건강상의 이유로' 11.7%로 나타나, 체육활동 참여 역시 시간적·공간적·신체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3-202] 문화·여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1순위 응답		2순위 응답		3순위 응답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문화·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405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38.8	가까운 곳에 서비스 이용시설이 없어서	21.0	건강상의 이유로	11.4
체육활동 지원 서비스	383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34.7	가까운 곳에 서비스 이용시설이 없어서	20.1	건강상의 이유로	11.7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해당없음 포함 100%

3. 사회복장 대상별 생활실태

1)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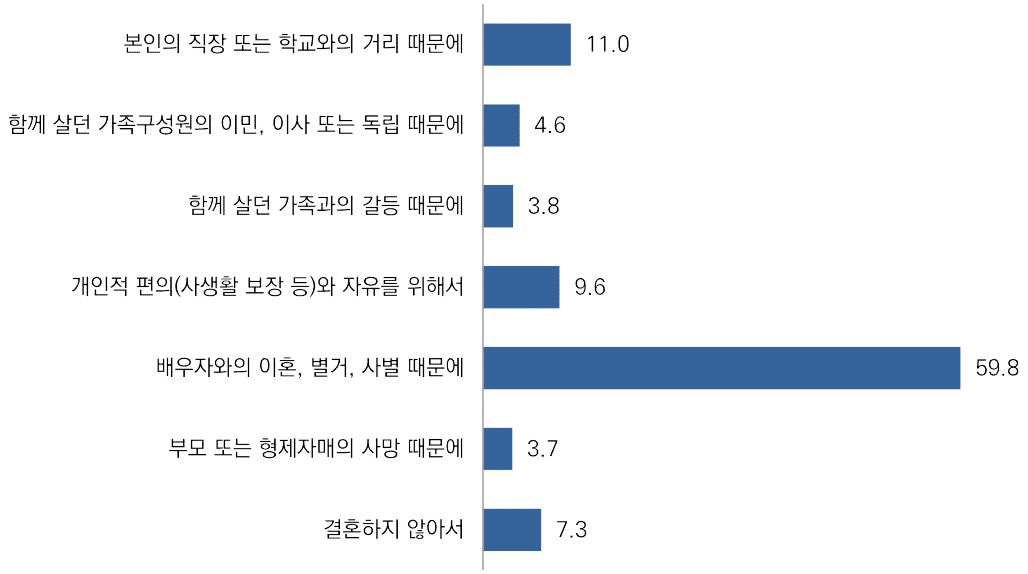
(1) 혼자 지낸 기간 및 이유

- 1인가구(1,623명) 중 혼자 생활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59.8%로 나타났으며, 이는 절반 이상이 가족 해체에 따른 단독 생활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 외에도 '직장·학교와의 거리' 11.0%, '개인적 편의 및 자유' 9.6%, '결혼하지 않아서' 7.3% 순임. 혼자 지낸 기간은 평균 8.4년으로 나타남

- 배우자와의 이혼·별거·사별은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함. 특히 부평구(74.6%), 검단구(73.2%), 옹진군(71.7%), 남동구(64.8%), 미추홀구(62.6%)에서 비율이 높아, 중장년층 또는 고령층의 단독 생활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해석됨
-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를 이유로 혼자 산다는 응답은 연수구(18.4%), 계양구(17.0%), 동구·서해구(15.7%)에서 높게 나타나, 도심 근접성과 생활 편의성에 따른 독립생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분석됨
- 개인적 편의 및 자유를 이유로 한 응답은 중구(21.0%)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사생활 보장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강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
- 결혼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는 동구(14.9%), 연수구(12.8%), 서해구(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미혼 인구의 단독 생활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해석됨
- 가족 구성원의 이민·이사·독립이나 가족과의 갈등, 부모·형제자매의 사망 등은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서해구는 가족 이민(10.8%)과 갈등(9.6%) 비율이 높아 가족 관계 변화에 따른 단독 생활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3-10] 혼자 지낸 기간 및 이유

(단위 : %)



[표 3-203] 혼자 지낸 기간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혼자 생활하는 이유								혼자 지낸 기간 평균 (년)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의 이민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함께 살던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개인적 편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서	기타	
전체	1,623	11.0	4.6	3.8	9.6	59.8	3.7	7.3	0.2	8.4
중구	214	6.5	8.4	6.1	**21.0**	48.1	1.4	8.4	-	9.7
동구	134	**15.7**	1.5	1.5	9.0	56.7	0.7	**14.9**	-	6.3
미추홀구	187	11.8	4.8	2.1	8.6	62.6	3.2	5.9	1.1	**10.2**
연수구	125	18.4	7.2	**7.2**	6.4	44.8	3.2	**12.8**	-	5.8
남동구	176	9.7	1.7	1.7	**12.5**	64.8	6.3	3.4	-	9.7
부평구	134	10.4	4.5	1.5	1.5	**74.6**	0.7	6.7	-	9.5
계양구	194	**17.0**	2.1	2.6	10.3	56.2	**6.7**	5.2	-	8.6
서해구	83	**15.7**	**10.8**	**9.6**	8.4	42.2	3.6	9.6	-	6.9
검단구	71	4.2	**8.5**	-	-	**73.2**	**7.0**	5.6	1.4	7.9
강화군	125	9.6	4.0	4.8	4.0	63.2	4.8	8.8	0.8	8.3
옹진군	180	3.9	2.2	5.0	10.0	71.7	3.9	3.3	-	6.7

(2) 도움 요청 사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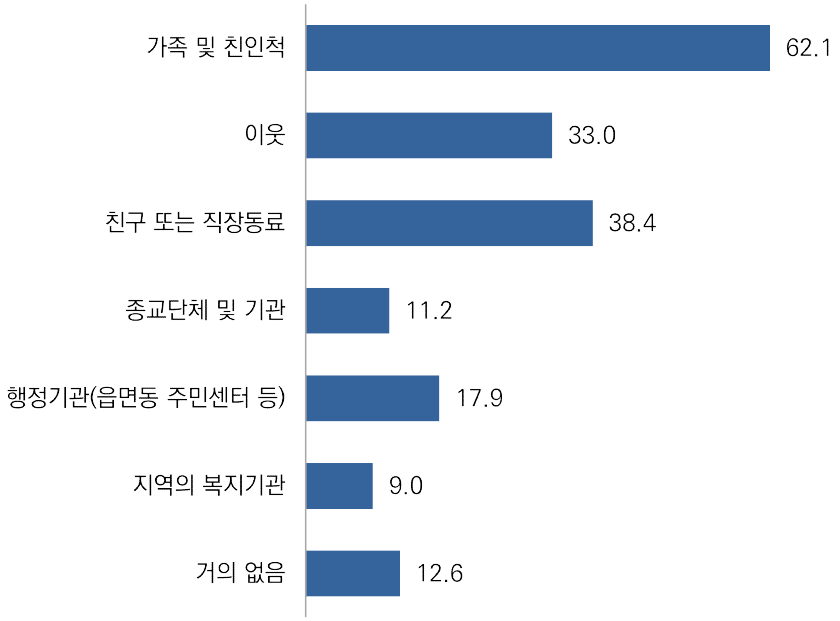
- 혼자살면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가족 및 친인척' 6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 또는 직장동료' 38.4%, '이웃' 33.0%순으로 나타남. 반면 '적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행정기관' 17.9%, '종교단체' 11.2%, 역 복지기관' 9.0% 순임. 한편, 응답자의 12.6%가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위험 계층임을 시사함

-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의존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높았으며, 특히 연수구(75.2%), 부평구(72.4%), 남동구(68.2%), 동구(66.4%), 옹진군(65.6%)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가족 중심의 지원 체계가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함
- 친구 또는 직장동료에 대한 의존도는 중구(63.1%), 강화군(54.4%), 연수구(56.0%)에서 높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석됨
- 이웃을 통한 도움 요청은 강화군(60.0%), 옹진군(52.2%), 중구(44.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상호 지원이 활발한 농어촌 또는 도심 일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함
- 종교단체 및 기관에 대한 의존은 중구(24.3%), 연수구(18.4%), 동구(17.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종교 기반 커뮤니티의 역할이 1인 가구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대한 도움 요청은 미추홀구(24.6%), 계양구(24.2%), 동구(22.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해석됨
- 지역 복지기관에 대한 의존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나, 미추홀구(17.6%), 중구(11.7%), 검단구(11.3%)는 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 복지기관의 역할이 일부 지역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 '거의 없음'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검단구(47.9%), 서해구(30.1%)로, 이는 사회적 연결망이 취약하거나 도움 요청 경로가 제한된 지역으로 해석됨

[그림 3-110] 도움 요청 사람/기관

(단위 : %)



[표 3-204] 도움 요청 사람/기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가족 및 친인척	이웃	친구 또는 직장동료	종교단체 및 기관	행정기관	지역의 복지기관	거의 없음
전체	1,623	62.1	33.0	38.4	11.2	17.9	9.0	12.6
중구	214	57.0	44.4	63.1	24.3	22.0	11.7	2.8
동구	134	66.4	28.4	45.5	17.2	22.4	7.5	2.2
미추홀구	187	54.0	20.9	29.4	10.7	24.6	17.6	16.0
연수구	125	75.2	25.6	56.0	18.4	8.8	9.6	7.2
남동구	176	68.2	15.9	23.9	9.7	10.8	8.5	16.5
부평구	134	72.4	38.1	44.0	8.2	14.2	0.0	12.7
계양구	194	64.9	29.9	34.0	5.7	24.2	9.8	13.9
서해구	83	45.8	19.3	26.5	7.2	8.4	3.6	30.1
검단구	71	36.6	14.1	14.1	14.1	12.7	11.3	47.9
강화군	125	61.6	60.0	54.4	3.2	10.4	4.0	5.6
옹진군	180	65.6	52.2	20.0	2.8	23.3	8.9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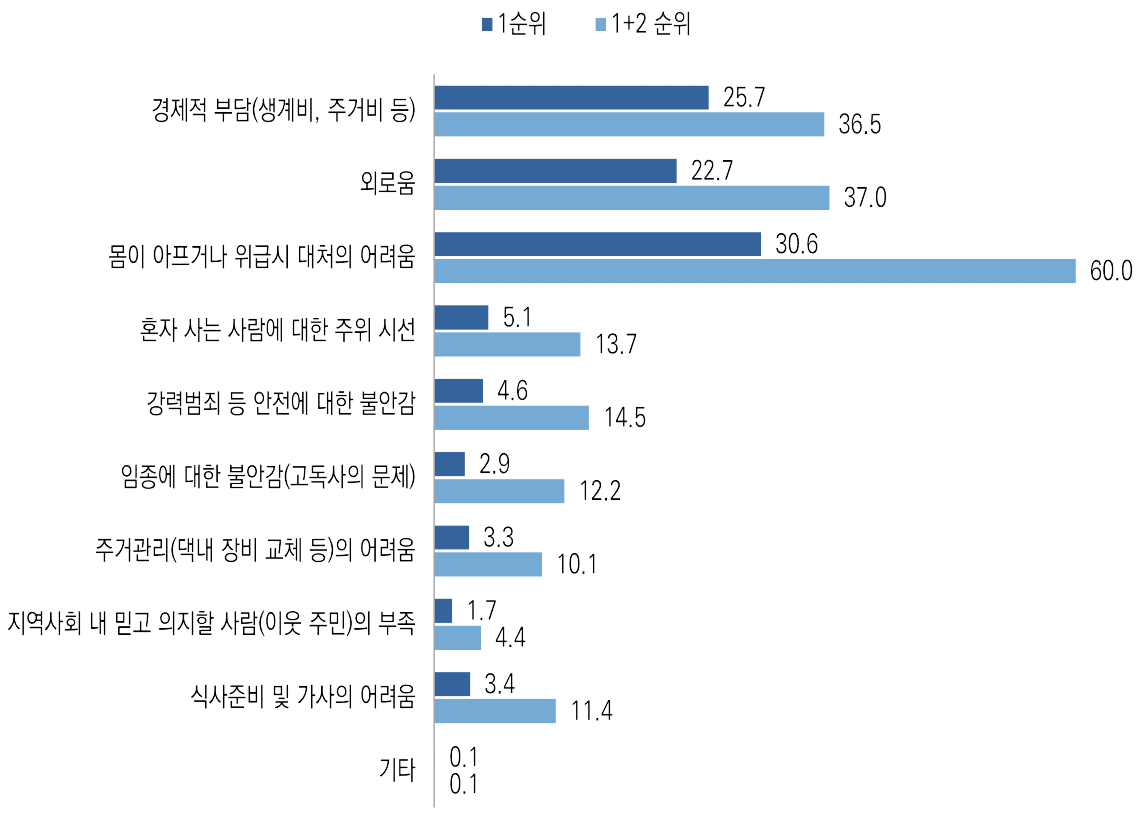
(3)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한 점

-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한 점을 1순위와 2순위 중복으로 살펴본 결과, '몸이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의 어려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급상황에 대한 불안과 돌봄 공백이 1인 가구의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하는 결과임. 다음으로 '외로움' 37.0%, '경제적 부담' 36.5% 순이었는데, 이는 정서적 고립과 생계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반면, '지역사회 내 믿고 의지할 사람 부족'(4.4%),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13.7%), '임종에 대한 불안감(12.2%)'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일부 계층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성과 고독사의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함

- 검단구와 부평구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의 어려움'이 각각 83.1%, 86.6%로 가장 높았음
- 외로움은 중구(62.1%) 연수구(51.2%), 남동구(55.1%)이 높았고, 경제적 부담은 검단구(63.4%), 옹진군(50.0%), 미추홀구(47.1%), 강화군(43.2%) 등에서 높게 나타남
- 강력범죄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서해구(38.6%)가 가장 높았고, 임종에 대한 불안감(고독사)은 미추홀구(17.1%), 중구(16.4%), 남동구(1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식사준비 및 가사 어려움은 동구(24.6%), 연수구(20.0%), 강화군(17.6%)에서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내 의지할 사람 부족은 계양구(8.2%), 옹진군(8.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11]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한 점

(단위 : %)



[표 3-205] 군·구별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한 점(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 부담 (생계비, 주거비 등)	외로움	몸이 아프거나 위급시 대처의 어려움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강력범죄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	임종에 대한 불안감 (고독사의 문제)	주거관리(댁내 장비 교체 등)의 어려움	지역 사회 내 믿고 의지할 사람 (이웃 주민)의 부족	식사 준비 및 가사의 어려움	기타
전체	1,623	36.5	37.0	60.0	13.7	14.5	12.2	10.1	4.4	11.4	0.1
중구	214	21.5	62.1	46.7	20.1	20.6	16.4	7.0	1.4	4.2	-
동구	134	41.8	15.7	64.9	12.7	18.7	9.0	10.4	2.2	24.6	-
미추홀구	187	47.1	36.4	57.2	8.0	7.0	17.1	11.2	1.6	14.4	-
연수구	125	25.6	51.2	47.2	21.6	8.8	5.6	11.2	7.2	20.0	1.6
남동구	176	27.8	55.1	55.7	18.2	8.5	15.9	4.5	5.1	9.1	-
부평구	134	35.8	37.3	86.6	3.0	9.7	9.7	5.2	1.5	11.2	-
계양구	194	33.0	23.2	60.8	14.4	18.6	10.3	20.6	8.2	10.8	-
서해구	83	25.3	33.7	56.6	20.5	38.6	10.8	7.2	3.6	3.6	-
검단구	71	63.4	21.1	83.1	5.6	14.1	0.0	7.0	2.8	2.8	-
강화군	125	43.2	26.4	62.4	7.2	12.0	15.2	12.0	4.0	17.6	-
옹진군	180	50.0	25.6	58.3	15.0	12.2	12.8	10.6	8.9	6.7	-

(4) 1인 가구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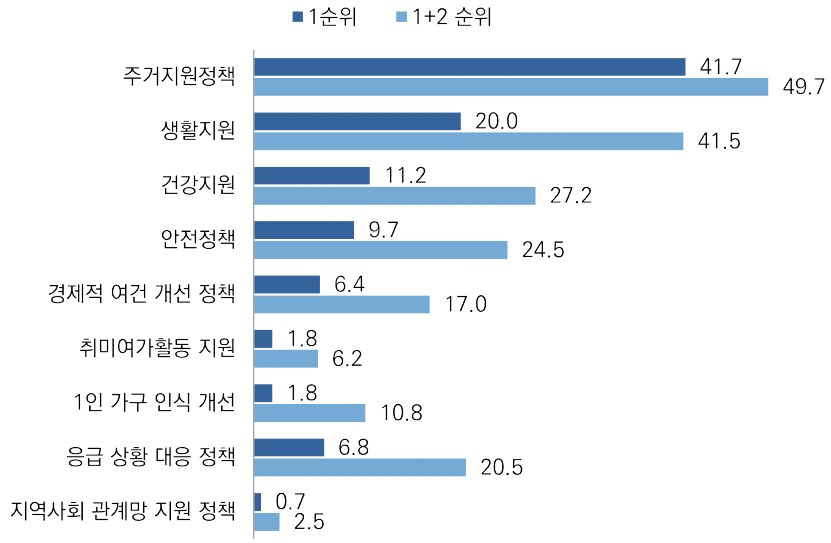
- 인천시 1인 가구를 위해 군·구가 지원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중복응답(1순위와 2순위)살펴본 결과,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주거지원정책' 4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지원' 41.5%, '건강지원' 27.2%, '안전정책' 24.5%, '응급 상황 대응 정책' 20.5% 순으로 나타남. 이는 1인 가구가 기초적인 생활 안정과 돌봄 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이에 반해,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 정책' 2.5%, '취미·여가활동 지원' 6.2%, '1인 가구 인식개선' 10.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정서적·사회적 지원보다는 생존과 안전 중심의 정책 수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임

- 주거지원정책은 부평구(67.2%), 동구(65.7%), 강화군(56.0%), 미추홀구(55.1%)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서해구(32.5%), 옹진군(33.9%)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생활지원은 검단구(71.8%), 부평구(52.2%), 서해구(49.4%), 남동구(47.2%), 계양구(46.9%)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상생활의 직접적인 지원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건강지원은 서해구(47.0%), 강화군(37.6%), 남동구(31.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건강 관련 정책 수요가 뚜렷함
- 안전정책은 남동구(32.4%), 계양구(30.9%), 강화군(25.6%), 서해구(25.3%)에서 높게 나타나, 범죄·재난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지역으로 해석됨
- 경제적 여건 개선 정책은 옹진군(26.1%), 계양구(23.7%), 중구(22.9%)에서 높게 나타나, 생계 기반 강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
- 취미·여가활동 지원은 전체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연수구(15.2%), 옹진군(8.3%)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정서적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

- 1인 가구 인식 개선은 중구(27.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편견이나 고립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지역으로 해석됨
- 응급 상황 대응 정책은 동구(26.9%), 미추홀구·옹진군(26.7%), 강화군(24.8%)에서 높게 나타나, 의료 접근성과 응급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됨
-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 정책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옹진군(5.0%), 연수구(4.0%), 계양구(3.1%)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12] 1인 가구 지원 정책

(단위 : %)



[표 3-206] 군·구별 1인 가구 지원 정책(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주거 지원정책	생활지원	건강지원	안전정책	경제적 여건 개선 정책	취미여가 활동 지원	1인 가구 인식 개선	응급 상황 대응 정책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 정책
전체	1,623	49.7	41.5	27.2	24.5	17.0	6.2	10.8	20.5	2.5
중구	214	49.5	27.1	30.4	21.0	22.9	2.8	**27.6**	17.8	0.9
동구	134	**65.7**	34.3	15.7	23.1	14.2	5.2	11.9	**26.9**	3.0
미추홀구	187	55.1	40.6	17.6	24.1	12.8	7.0	12.3	**26.7**	3.7
연수구	125	48.8	37.6	24.8	21.6	16.0	**15.2**	18.4	13.6	4.0
남동구	176	44.9	47.2	31.3	32.4	8.5	5.1	8.5	19.9	2.3
부평구	134	**67.2**	52.2	29.9	20.1	8.2	4.5	3.0	13.4	1.5
계양구	194	45.9	46.9	22.2	**30.9**	23.7	6.2	6.2	14.9	3.1
서해구	83	32.5	49.4	**47.0**	25.3	14.5	6.0	3.6	20.5	1.2
검단구	71	46.5	**71.8**	19.7	16.9	19.7	1.4	4.2	19.7	-
강화군	125	56.0	28.0	37.6	25.6	15.2	6.4	5.6	24.8	0.8
옹진군	180	33.9	41.7	29.4	22.8	**26.1**	8.3	6.1	**26.7**	5.0

2)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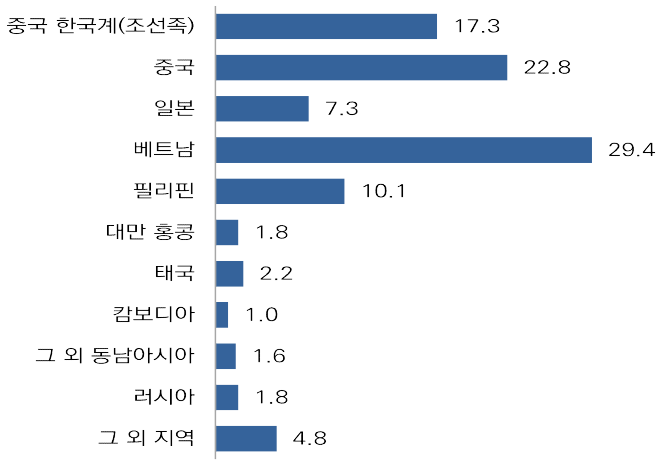
(1) 다문화 가구원 출신 국가

- 다문화 응답자의 출신국가를 살펴본 결과, 베트남 2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22.8%, 중국 한국계(조선족) 17.3%, 필리핀 10.1% 순임. 일본 7.3%, 러시아 1.8%, 대만·홍콩 1.8%, 태국 2.2%, 캄보디아 1.0%, 그 외 동남아시아 1.6% 등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 베트남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옹진군(51.6%), 계양구(51.0%), 서해구(43.3%), 강화군(48.0%), 연수구(34.0%)로 나타났으며, 중국 출신 비율은 동구(31.7%), 연수구(28.0%), 부평구(28.0%)에서 높게 나타남
- 중국 한국계(조선족)은 남동구(38.0%), 검단구(36.7%), 옹진군(25.8%), 서해구(2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필리핀 출신은 미추홀구(23.1%), 남동구(14.0%), 검단구(16.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또한 일본 출신은 부평구(18.0%), 동구(13.3%), 미추홀구(11.5%)에서 비교적 높은 편임
- 특이 사례로는 강화군에서 태국 출신(8.0%)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계양구에서 러시아 출신(7.8%)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13] 다문화 가구원 출신 국가

(단위 : %)



[표 3-207] 군·구별 다문화 가구원 출신 국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중국 한국계 (조선족)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대만 홍콩	태국	캄보디아	그 외 동남 아시아	러시아	그 외 지역
전체	504	17.3	22.8	7.3	29.4	10.1	1.8	2.2	1.0	1.6	1.8	4.8
중구	50	14.0	22.0	8.0	30.0	4.0	2.0	-	-	-	2.0	18.0
동구	60	13.3	31.7	13.3	15.0	13.3	3.3	3.3	1.7	-	1.7	3.3
미추홀구	52	9.6	25.0	11.5	13.5	**23.1**	3.8	5.8	-	-	5.8	1.9
연수구	50	6.0	28.0	6.0	34.0	4.0	4.0	-	-	4.0	4.0	10.0
남동구	50	**38.0**	22.0	8.0	14.0	14.0	-	-	2.0	-	-	2.0

구분	사례수	중국 한국계 (조선족)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대만 홍콩	태국	캄보디아	그 외 동남아시아	러시아	그 외 지역
부평구	50	16.0	28.0	**18.0**	18.0	6.0	4.0	-	2.0	-	2.0	6.0
계양구	51	11.8	17.6	2.0	**51.0**	3.9	-	-	2.0	7.8	-	3.9
서해구	30	20.0	**30.0**	-	43.3	6.7	-	-	-	-	-	-
검단구	30	36.7	26.7	-	16.7	16.7	-	-	-	-	3.3	-
강화군	50	12.0	12.0	2.0	48.0	10.0	-	8.0	2.0	4.0	-	2.0
옹진군	31	25.8	3.2	3.2	51.6	9.7	-	6.5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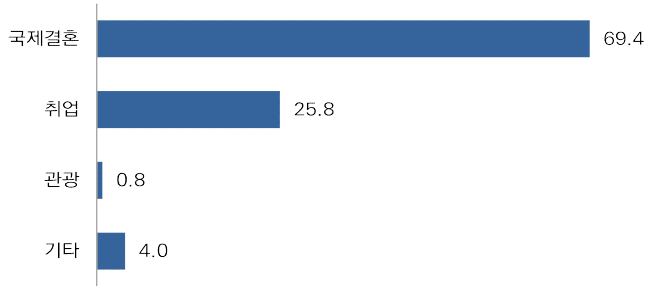
(2) 다문화 가구원 한국에 온 목적

- 다문화 가구원이 입국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국제결혼' 6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 25.8%로 높게 나타남

- 미추홀구(92.3%), 계양구(84.3%), 연수구·남동구(각 82.0%), 옹진군(80.6%)은 국제결혼 목적이 가장 높은 지역임. 검단구는 100%가 취업 목적이며, 서해구(63.3%), 중구(40.0%)도 취업 목적 비율이 높게 나타남. 중구는 국제결혼(48.0%)과 취업(40.0%)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부평구는 국제결혼(70.0%)이 높게 나타났지만, 기타 목적(18.0%)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 연수구도 부평구와 유사하게 국제결혼(82.0%)이 높게 나타났고, 기타 목적(10.0%)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

[그림 3-114] 다문화 가구원의 한국에 온 목적

(단위 : %)



[표 3-208] 다문화 가구원의 한국에 온 목적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국제결혼	취업	관광	기타
전체	504	69.4	25.8	0.8	4.0
중구	50	48.0	40.0	4.0	8.0
동구	60	73.3	25.0	-	1.7
미추홀구	52	92.3	7.7	-	-
연수구	50	82.0	6.0	2.0	10.0
남동구	50	82.0	18.0	-	-
부평구	50	70.0	12.0	-	18.0
계양구	51	84.3	11.8	2.0	2.0
서해구	30	36.7	63.3	-	-
검단구	30	0.0	100.0	-	-
강화군	50	76.0	24.0	-	-
옹진군	31	80.6	19.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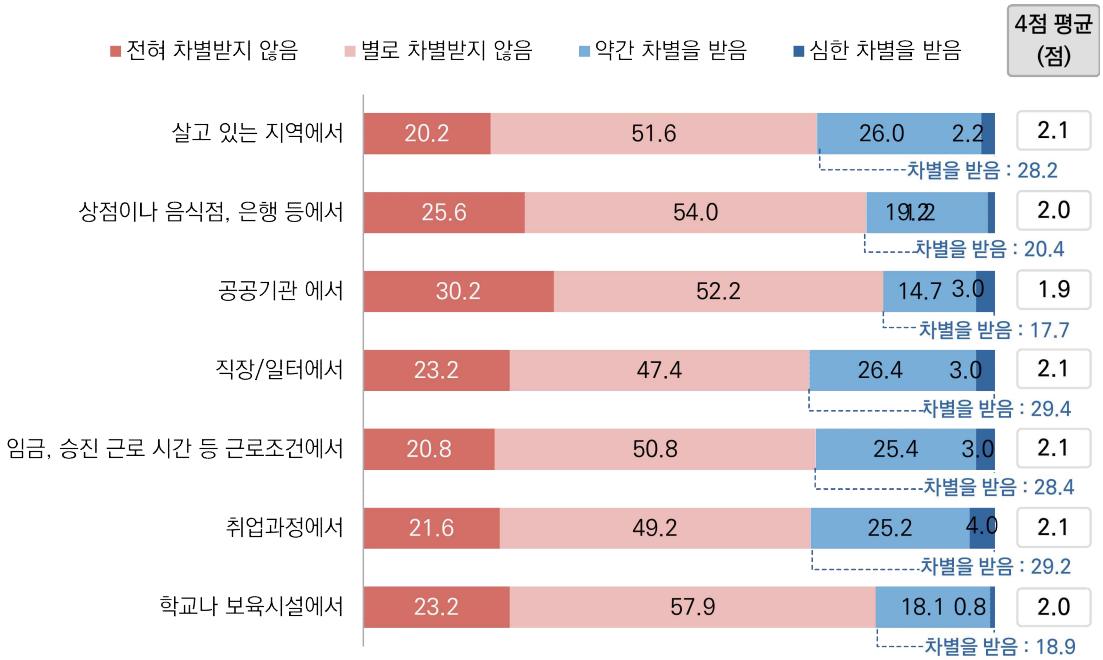
(3) 차별인식

- 다문화 가구원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차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살고 있는 지역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차별 경험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차별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영역은'직장 및 일터에서'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과정에서' 29.2%, '임금, 승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서' 28.4%, '살고 있는 지역사회' 28.2%, '상점이나 음식점, 은행 등에서' 20.4%,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18.9%, '공공기관에서' 17.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15] 차별을 느낀 정도

(단위 : %)



[표 3-209] 차별을 느낀 정도

(단위 : 명, %)

구분	6기(n=504)				
	전혀 차별받지 않음	별로 차별받지 않음	약간 차별을 받음	심한 차별을 받음	평균 (점/4점)
살고 있는 지역에서	20.2	51.6	**26.0**	2.2	2.1
상점이나 음식점, 은행 등에서	25.6	54.0	19.2	1.2	2.0
공공기관 에서	**30.2**	**52.2**	14.7	3.0	1.9
직장/일터에서	23.2	47.4	26.4	3.0	2.1
임금, 승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서	20.8	50.8	25.4	3.0	2.1
취업과정에서	21.6	49.2	25.2	**4.0**	2.1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23.2	57.9	18.1	0.8	2.1

- 군·구별 다문화 가구원이 차별을 느낀 정도

- 차별 정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이 심한 것을 의미하는데, 강화군이 이외 지역에 비해 차별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동구와 미추홀구 역시 직장·근로조건·취업 과정에서 차별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는 직장·근로조건에서 2.3점, 취업 과정에서 2.2점으로 나타났고, 미추홀구는 직장·근로조건·취업 과정 모두 2.3점으로 나타남. 검단구는 취업 과정에서 2.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남동구와 옹진군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 차별 체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확인됨. 남동구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6~1.9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옹진군은 생활시설(1.5점), 공공기관(1.7점), 학교·보육시설(1.8점) 등에서 낮게 나타남

[표 3-210] 군·구별 차별을 느낀 정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살고있는 지역에서	2.1	2.0	2.1	**2.3**	2.0	1.9	2.1	2.1	2.0	2.0	**2.6**	2.1
상점이나 음식점, 은행 등에서	2.0	1.7	**2.1**	2.0	1.9	1.6	2.0	2.0	2.0	2.0	**2.5**	1.5
공공기관 에서	1.9	1.5	1.9	**2.2**	1.8	1.8	1.9	1.9	2.0	2.0	**2.3**	1.7
직장/일터에서	2.1	1.9	**2.3**	2.2	2.0	1.6	2.0	2.1	2.2	2.2	**2.5**	1.9
임금, 승진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에서	2.1	2.0	**2.3**	**2.3**	2.0	1.9	2.1	2.0	2.1	**2.2**	**2.2**	2.1
취업과정에서	2.1	2.1	2.2	**2.3**	2.0	1.6	2.2	2.0	2.1	**2.4**	**2.3**	**2.3**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2.0	1.9	**2.2**	**2.1**	1.9	1.7	1.9	2.0	2.0	2.0	**2.1**	1.8

(4) 다문화 가구원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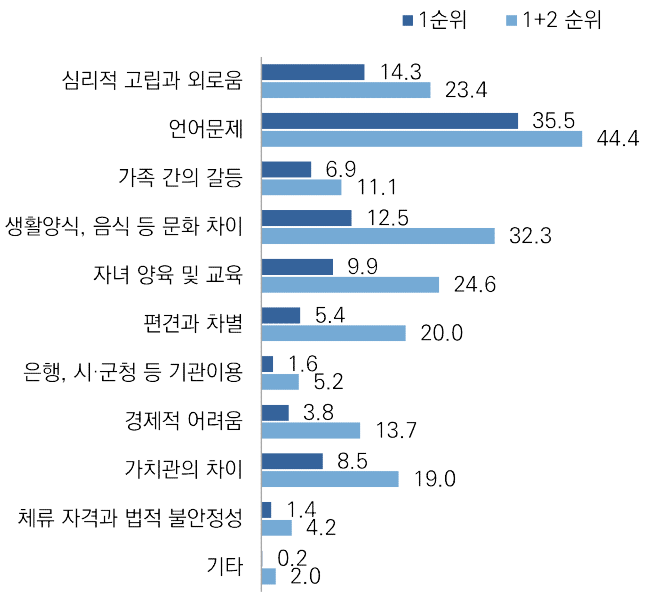
- 인천시 다문화 가구원들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언어 문제(44.4%)로 나타남. 이는 의사소통의 장벽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임을 보여줌. 그 다음으로는 생활양식·음식 등 문화 차이(32.3%), 심리적 고립과 외로움(23.4%), 자녀 양육 및 교육(24.6%), 편견과 차별(20.0%), 경제적 어려움(19.0%) 등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남. 반면 체류 자격과 법적 불안정성(2.0%)과 기타(2.0%)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즉, 다문화 가구원들은 언어·문화적 차이와 정서적 고립,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언어 문제는 연수구(76.0%), 계양구(66.7%), 강화군(60.0%)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에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문화 차이는 검단구(73.3%), 옹진군(58.1%), 강화군(56.0%)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농어촌 및 외곽 지역에서 생활양식과 음식 등 문화적 차이가 적응의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심리적 고립과 외로움은 옹진군(58.1%)과 연수구(42.0%), 남동구(34.0%)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지역사회 내 관계망 부족과 정서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됨
- 가족 간 갈등은 중구(20.0%), 미추홀구(17.3%), 서해구(1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는 부평구(44.0%), 계양구(37.3%), 남동구(30.0%)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교육제도 적응과 자녀의 사회적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이 집중되는 지역임
- 편견과 차별은 동구(35.0%), 미추홀구(32.7%), 검단구(30.0%)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도심 및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줌

- 경제적 어려움은 중구(44.0%)와 옹진군(29.0%)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기관 이용의 어려움은 계양구(49.0%)와 부평구(22.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행정·금융 서비스 접근성에서 제도적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3-116] 다문화 가구원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운 점

(단위 : %)



[표 3-211] 다문화 가구원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운 점(1+2순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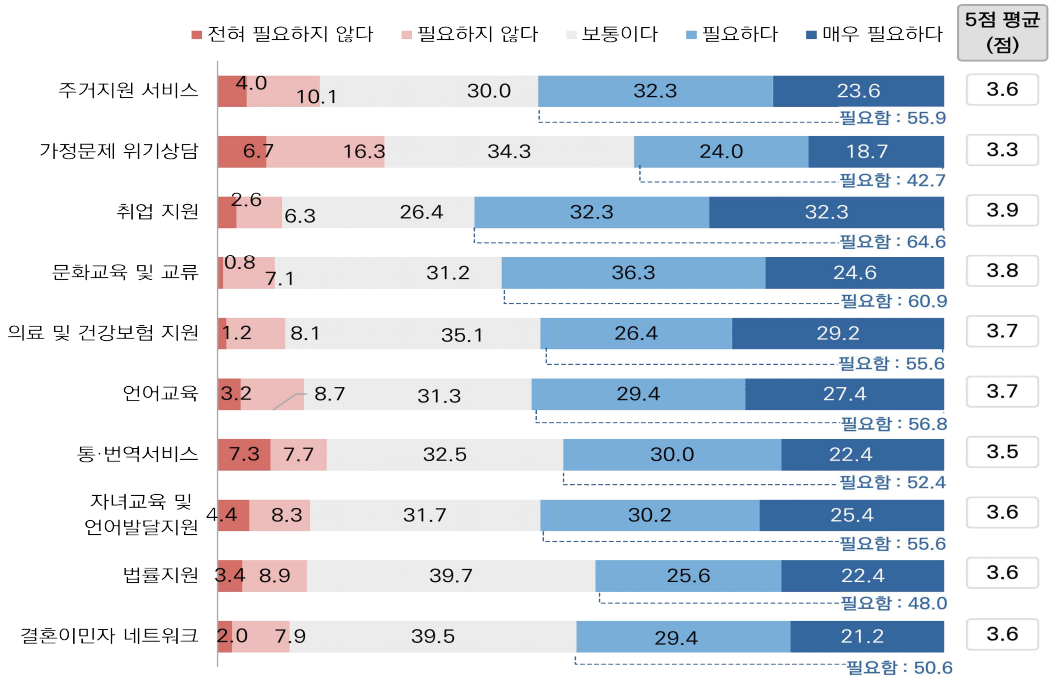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심리적 고립과 외로움	언어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생활 양식, 음식 등 문화 차이	자녀 양육 및 교육	편견과 차별	은행, 시·군청 등 기관 이용	경제적 어려움	가치관의 차이	체류 자격과 법적 불안정성	기타
전체	504	23.4	44.4	11.1	32.3	24.6	20.0	5.2	13.7	19.0	4.2	2.0
중구	50	22.0	42.0	20.0	40.0	18.0	14.0	0.0	0.0	44.0	0.0	0.0
동구	60	18.3	26.7	11.7	25.0	20.0	35.0	20.0	13.3	13.3	8.3	8.3
미추홀구	52	21.2	34.6	17.3	25.0	25.0	32.7	1.9	17.3	25.0	0.0	0.0
연수구	50	42.0	76.0	8.0	6.0	22.0	10.0	4.0	18.0	8.0	2.0	4.0
남동구	50	34.0	38.0	6.0	46.0	30.0	12.0	2.0	6.0	16.0	10.0	0.0
부평구	50	18.0	46.0	2.0	4.0	44.0	20.0	6.0	22.0	16.0	16.0	6.0
계양구	51	11.8	66.7	5.9	13.7	37.3	5.9	2.0	49.0	3.9	3.9	0.0
서해구	30	20.0	46.7	16.7	40.0	23.3	26.7	0.0	10.0	16.7	0.0	0.0
검단구	30	6.7	33.3	13.3	73.3	16.7	30.0	0.0	0.0	26.7	0.0	0.0
강화군	50	12.0	60.0	4.0	56.0	12.0	26.0	12.0	0.0	18.0	0.0	0.0
옹진군	31	58.1	3.2	25.8	58.1	16.1	6.5	0.0	3.2	29.0	0.0	0.0

(5) 서비스 필요 정도

- 인천시 다문화 가구원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 기준으로 보면 취업 지원(3.9점)이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임. 그 뒤를 이어 문화교육 및 교류(3.8점), 의료 및 건강보험 지원(3.7점), 언어교육(3.7점)이 높은 순위를 차지함. 이는 다문화 가구원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 건강한 생활 기반 마련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3-117]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 %)



[표 3-212]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 명, %)

구분	6기(n=504)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점/5점)
주거지원 서비스	4.0	10.1	30.0	32.3	23.6	3.6
가정문제 위기상담	6.7	16.3	34.3	24.0	18.7	3.3
취업 지원	2.6	6.3	26.4	32.3	32.3	3.9
문화교육 및 교류	0.8	7.1	31.2	36.3	24.6	3.8
의료 및 건강보험 지원	1.2	8.1	35.1	26.4	29.2	3.7
언어교육	3.2	8.7	31.3	29.4	27.4	3.7
통·번역서비스	7.3	7.7	32.5	30.0	22.4	3.5
자녀교육 및 언어발달지원	4.4	8.3	31.7	30.2	25.4	3.6
법률지원	3.4	8.9	39.7	25.6	22.4	3.6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2.0	7.9	39.5	29.4	21.2	3.6

● 군·구별 다문화 가구의 서비스 필요 정도

- 주거지원 서비스는 검단구(4.4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신도시 지역에서 주거 안정과 관련된 지원 수요가 특히 크다는 점을 보여줌. 뒤이어 연수구(4.3점), 부평구(4.2점), 옹진군(4.0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주거 불안정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확인됨
- 가정문제 위기상담은 검단구(4.4점)가 가장 높았으며, 연수구(4.2점)도 뒤를 이음
- 취업 지원은 부평구(4.6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연수구(4.4점), 옹진군(4.3점), 검단구(4.3점)도 높은 수준을 보임. 이는 도심과 도서 지역 모두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성이 확인됨
- 문화교육 및 교류는 연수구와 검단구(각 4.5점)가 가장 높음
- 의료 및 건강보험 지원은 부평구(4.6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연수구(4.5점), 검단구(4.3점), 옹진군(4.2점)도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언어교육은 연수구(4.5점)가 가장 높고, 부평구(4.3점), 검단구(4.3점)도 뒤를 이음
- 통·번역서비스는 검단구(4.4점)가 가장 높으며, 연수구(4.3점)도 뒤를 이음. 이는 행정기관, 의료기관, 교육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지원 필요성이 신도시 지역에서 특히 강함을 보여줌
- 자녀교육 및 언어발달지원은 연수구(4.4점)가 가장 높고, 검단구(4.3점), 부평구(4.2점)도 높은 수준을 보임. 이는 다문화 아동의 학습 격차 해소와 언어 발달 지원이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줌
- 법률지원은 연수구(4.4점)가 가장 높으며, 검단구(4.2점), 부평구(4.1점)도 뒤를 이음. 이는 체류 자격, 노동권, 가족 문제 등 법적 지원 수요가 높은 지역임을 의미함
-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는 연수구(4.5점)가 가장 높고, 검단구(4.3점), 부평구(4.1점)도 높은 점수를 기록함. 이는 결혼이민자 간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망 형성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난 지역임을 보여줌

[표 3-213] 군·구별 서비스 필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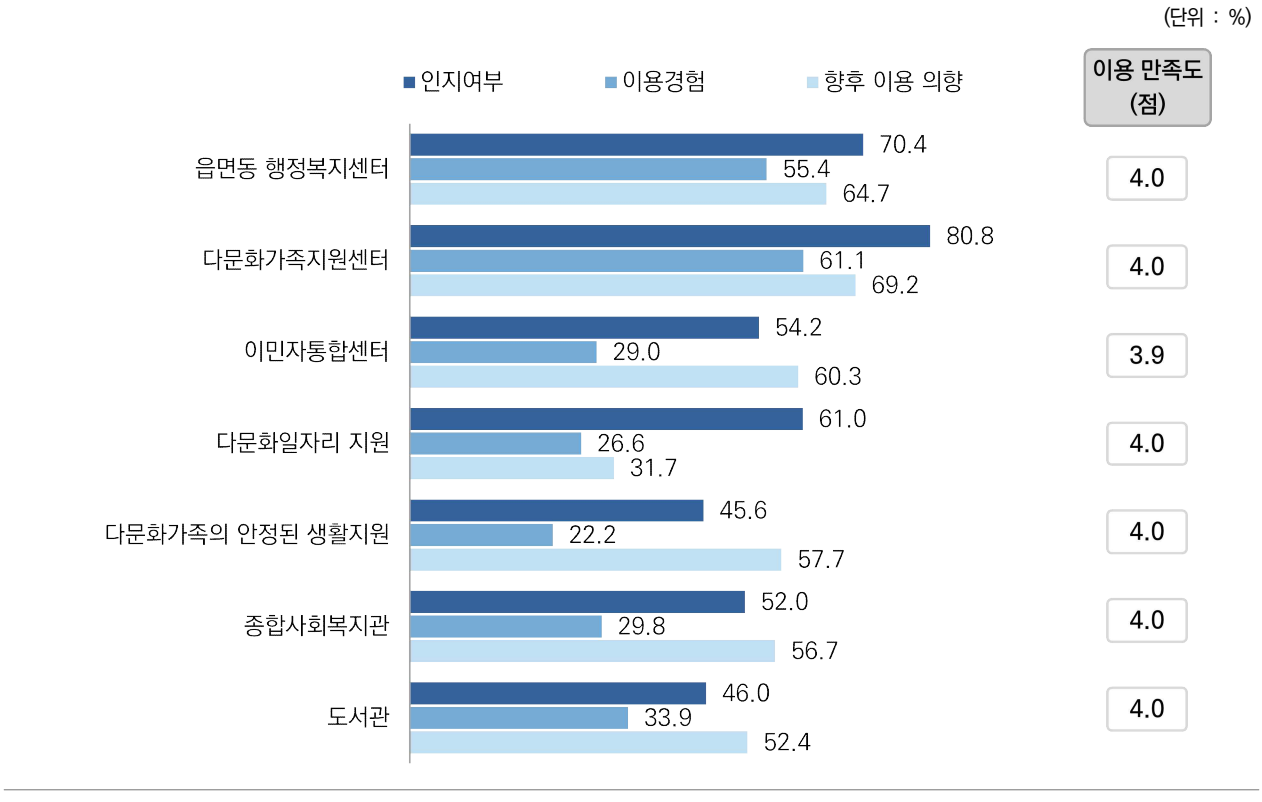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주거지원 서비스	3.6	2.3	3.3	3.6	4.3	3.5	4.2	3.5	3.8	4.4	3.5	4.0
가정문제 위기상담	3.3	2.0	3.3	3.4	4.2	3.3	3.6	2.4	3.7	4.4	3.5	3.4
취업 지원	3.9	2.8	3.4	3.6	4.4	3.7	4.6	4.0	3.7	4.3	3.8	4.3
문화교육 및 교류	3.8	3.0	3.3	3.6	4.5	3.5	4.2	3.8	3.7	4.5	3.7	4.2
의료 및 건강보험 지원	3.7	3.1	3.5	3.6	4.5	3.7	4.6	2.8	3.8	4.3	3.7	4.2
언어교육	3.7	2.4	3.5	3.4	4.5	3.6	4.3	3.6	3.7	4.3	3.8	3.6
통·번역서비스	3.5	1.9	3.5	3.6	4.3	3.7	3.8	3.5	3.8	4.4	3.5	3.2
자녀교육 및 언어발달지원	3.6	2.4	3.4	3.5	4.4	3.7	4.2	3.7	3.7	4.3	3.7	3.3
법률지원	3.6	2.8	3.4	3.6	4.4	3.5	4.1	2.8	3.7	4.2	3.4	3.4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3.6	2.8	3.3	3.5	4.5	3.4	4.1	3.3	3.7	4.3	3.6	3.7

(6)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 다문화 복지시설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80.8%), 읍면동 행정복지센터(70.4%), 다문화일자리지원센터(61%), 이민자통합센터(54.2%), 종합사회복지관(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45.6%), 도서관(46.0%)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기록함
-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61.1%)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55.4%)로, 인지도와 함께 실제 이용률도 높아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 반면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22.2%), 다문화일자리 지원(26.6%)은 인지도 대비 이용 경험이 낮아, 서비스 접근성이나 실질적 활용도에 개선이 필요함
- 이용 만족도는 모든 기관이 4.0점 내외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일자리 지원, 생활지원,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은 모두 4.0점으로 동일하게 높은 만족도를 기록함. 다만 이민자통합센터(3.9점)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향후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69.2%)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64.7%)로, 현재 이용률과 만족도가 향후 이용 의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이민자통합센터(60.3%),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57.7%), 종합사회복지관(56.7%)도 향후 이용 의향이 높아, 잠재적 수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함. 반면 다문화일자리 지원(31.7%)은 인지도는 높지만 향후 이용 의향이 가장 낮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그림 3-118]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표 3-214]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단위 : 명, %)

구분	전체(n=504)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0.4	55.4	279	4.0	64.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8	61.1	308	4.0	69.2
이민자통합센터	54.2	29.0	146	3.9	60.3
다문화일자리 지원	61.0	26.6	134	4.0	31.7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	45.6	22.2	112	4.0	57.7
종합사회복지관	52.0	29.8	150	4.0	56.7
도서관	46.0	33.9	171	4.0	52.4

● 군·구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인지 여부

-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문화 복지시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임. 특히 부평구(98.0%)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계양구(94.1%), 옹진군(93.5%), 남동구(92.0%)에서도 높게 나타나 가족지원센터가 인천시 전역에서 핵심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반면 서해구(40.0%)와 검단구(33.3%)는 낮은 수준을 보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남동구(94.0%), 계양구(92.2%), 강화군(84.0%)에서 높은 인지도를 기록함. 그러나 서해구(36.7%)와 검단구(26.7%)는 낮은 수준을 보여,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이민자통합센터는 미추홀구(78.8%)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옹진군(67.7%), 중구(66.0%), 동구(65.0%)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함. 반면 연수구(36.0%), 서해구(30.0%), 검단구(28.0%)는 낮은 수준을 보여,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다문화일자리 지원은 남동구(86.0%), 미추홀구(78.8%), 옹진군(77.4%)에서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여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줌. 그러나 중구(20.0%), 검단구(21.3%), 서해구(23.3%)는 낮은 수준을 보임
-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은 옹진군(83.9%)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였으며, 미추홀구(71.2%), 남동구(66.0%)도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중구(16.0%), 검단구(18.7%), 서해구(20.0%)는 낮은 수준을 보임
-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양구(88.2%)와 옹진군(83.9%)에서 높은 인지도를 기록함. 그러나 서해구(23.3%), 검단구(21.3%), 강화군(18.0%)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도서관은 계양구(76.5%)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였으며, 남동구(66.0%), 미추홀구(65.4%)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중구(22.0%), 강화군(20.0%), 옹진군(19.4%)은 낮은 수준을 보임

[표 3-215] 군·구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인지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0.4	70.0	50.0	73.1	64.0	94.0	66.0	92.2	36.7	63.3	84.0	67.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8	70.0	80.0	76.9	84.0	92.0	98.0	94.1	40.0	63.3	78.0	93.5
이민자통합센터	54.2	66.0	65.0	78.8	22.0	72.0	36.0	33.3	36.7	63.3	54.0	67.7
다문화일자리 지원	610.	56.0	60.0	78.8	56.0	86.0	54.0	64.7	36.7	63.3	42.0	77.4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	45.6	30.0	46.7	71.2	26.0	66.0	32.0	41.2	36.7	63.3	22.0	83.9
종합사회복지관	52.0	64.0	33.3	69.2	36.0	60.0	38.0	88.2	36.7	63.3	12.0	83.9
도서관	46.0	12.0	35.0	65.4	46.0	66.0	52.0	76.5	36.7	63.3	10.0	48.4

- 군·구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이용 경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계양구(94.1%)와 부평구(88.0%), 연수구(80.0%), 남동구(74.0%)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냄. 특히 계양구와 부평구는 인천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대표적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반면 서해구(20.0%)와 검단구(13.3%)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이민자통합센터는 옹진군(58.1%)에서 가장 높은 이용 경험을 보였고, 미추홀구(53.8%)와 남동구(50.0%)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함. 그러나 중구(6.0%), 연수구(10.0%), 서해구·검단구(각 10.0%)는 낮은 수준을 보여, 해당 지역에서 이민자 통합 서비스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다문화일자리 지원은 옹진군(61.3%), 미추홀구(51.9%), 계양구(41.2%)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함. 반면 중구(2.0%), 서해구(3.3%), 검단구(6.7%)는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냄
-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은 옹진군(58.1%), 미추홀구(50.0%), 동구(28.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그러나 중구(0.0%), 강화군(10.0%), 서해구(6.7%)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양구(80.4%)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이용 경험을 기록하였으며, 옹진군(58.1%)과 미추홀구(57.7%)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서해구(3.3%), 강화군(4.0%), 검단구(6.7%)는 낮은 수준을 보여, 복지관 서비스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를 보임
- 도서관은 계양구(70.6%)에서 가장 높은 이용 경험을 보였으며, 검단구(53.3%), 미추홀구(50.0%), 연수구(40.0%)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함. 그러나 중구(2.0%)와 강화군(2.0%)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도서관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표 3-216] 군·구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5.4	50.0	35.0	50.0	54.0	82.0	52.0	88.2	20.0	13.3	76.0	64.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1	38.0	53.3	61.5	80.0	74.0	88.0	94.1	20.0	13.3	50.0	67.7
이민자통합센터	29.0	6.0	38.3	53.8	10.0	50.0	18.0	23.5	10.0	10.0	34.0	58.1
다문화일자리 지원	26.6	2.0	25.0	51.9	28.0	26.0	24.0	41.2	3.3	6.7	18.0	61.3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	22.2	0.0	28.3	50.0	14.0	26.0	14.0	25.5	6.7	13.3	10.0	58.1
종합사회복지관	29.8	42.0	18.3	57.7	12.0	30.0	6.0	80.4	3.3	6.7	4.0	58.1
도서관	33.9	2.0	16.7	50.0	40.0	38.0	38.0	70.6	33.3	53.3	2.0	41.9

● 군·구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이용 만족도

- 지역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옹진군, 연수구로 나타남
- 복지시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옹진군(4.4점)과 연수구(4.3점)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중구와 강화군도 4.1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동구(3.5점)와 검단구(4.0점), 서해구(3.8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옹진군(4.6점)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여 인천시 전체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평구와 연수구(각 4.2점)도 높게 나타남. 반면 중구(3.9점), 동구(3.7점), 미추홀구(3.7점), 서해구·검단구(각 3.8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이민자통합센터는 연수구(4.4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옹진군과 부평구(각 4.2점)가 높은 만족도를 보임. 반면, 중구(3.0점), 강화군(3.5점), 서해구·검단구(각 3.7점)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다문화일자리 지원은 옹진군(4.2점)과 미추홀구·연수구(각 4.1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검단구(3.5점), 강화군(3.7점), 동구(3.7점)는 낮은 수준을 보임
-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은 미추홀구(4.2점)와 연수구·부평구·계양구·옹진군(각 4.1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강화군(3.4점)과 검단구(3.8점)은 낮은 수준을 보임
- 종합사회복지관은 연수구·미추홀구·옹진군(각 4.2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동구(3.5점)와 검단구(3.0점)는 낮은 수준을 보임
- 도서관은 옹진군·연수구(각 4.2점)와 부평구(4.1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중구(3.0점), 동구(3.6점), 검단구(4.0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표 3-217] 군·구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0	4.1	3.5	3.9	**4.3**	4.0	3.9	4.0	3.8	4.0	4.1	**4.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0	3.9	3.7	3.7	**4.2**	3.9	**4.2**	4.0	3.8	3.8	4.0	**4.6**
이민자통합센터	3.9	3.0	3.8	3.9	**4.4**	4.0	**4.2**	4.0	3.7	3.7	3.5	**4.2**
다문화일자리 지원	4.0	4.0	3.7	**4.1**	**4.1**	3.9	3.8	4.0	4.0	3.5	3.7	**4.2**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	4.0	-	3.8	**4.2**	**4.1**	3.9	**4.1**	**4.1**	4.0	3.8	3.4	**4.1**
종합사회복지관	4.0	3.7	3.5	**4.2**	**4.2**	3.9	4.0	4.0	4.0	3.0	4.0	**4.2**
도서관	4.0	3.0	3.6	3.9	**4.2**	3.9	**4.1**	4.0	4.0	4.0	4.0	**4.2**

● 군·구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향후 이용 의향

- 지역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을 살펴본 결과, 계양구와 남동구, 옹진군, 부평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계양구(88.2%), 남동구(86.0%), 강화군(82.0%)에서 가장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음. 반면 동구(30.0%)와 서해구(43.3%)는 낮은 수준을 기록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옹진군(90.3%), 계양구(90.2%), 부평구(90.0%), 남동구(84.0%)에서 높은 이용 의향을 나타냈으며, 중구(48.0%), 동구(48.3%), 서해구(43.3%)는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이민자통합센터는 연수구(78.0%), 계양구(76.5%), 부평구(72.0%), 남동구(70.0%)에서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음. 반면 중구(42.0%), 동구(45.0%), 서해구(40.0%)는 낮은 수준을 나타냄
- 다문화 일자리 지원은 옹진군(74.2%), 계양구(82.4%), 남동구(82.0%), 연수구(66.0%)에서 높은 이용 의향을 기록함. 반면 동구(38.3%), 서해구(43.3%), 중구(44.0%)는 낮은 수준을 보임
-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은 옹진군(80.6%), 계양구(80.4%), 연수구와 남동구(각 78.0%)에서 높은 이용 의향을 나타냄. 반면 동구(28.3%), 중구(32.0%), 강화군(30.0%)은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양구(88.2%), 옹진군(71.0%), 연수구(70.0%)에서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음. 반면 강화군(16.0%), 동구(30.0%), 서해구(36.7%)는 낮은 수준을 보임
- 도서관은 계양구(86.3%), 부평구(84.0%), 남동구(70.0%)에서 높은 이용 의향을 기록함. 반면 강화군(10.0%), 동구(23.3%), 중구(38.0%)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표 3-218] 군·구별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4.7	68.0	30.0	53.8	58.0	**86.0**	76.0	**88.2**	43.3	56.7	82.0	64.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9.2	48.0	48.3	61.5	62.0	84.0	**90.0**	90.2	43.3	60.0	82.0	**90.3**
이민자통합센터	60.3	42.0	45.0	53.8	**78.0**	70.0	72.0	**76.5**	40.0	60.0	58.0	64.5
다문화일자리 지원	31.7	44.0	38.3	61.5	66.0	**82.0**	70.0	**82.4**	43.3	56.7	60.0	74.2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	57.7	32.0	28.3	57.7	78.0	78.0	72.0	**80.4**	46.7	63.3	30.0	**80.6**
종합사회복지관	56.7	54.0	30.0	59.6	70.0	68.0	**72.0**	**88.2**	36.7	63.3	16.0	71.0
도서관	52.4	38.0	23.3	57.7	54.0	70.0	**84.0**	**86.3**	36.7	63.3	10.0	58.1

● 군·구별 다문화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인천시 다문화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기관 접근성 문제(거리·위치), 실질적 도움 부족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응답자 22명 중 가장 많은 비율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27.3%)”였으며, 이어 “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18.2%)”, “도움이 되지 않아서(13.6%)”가 뒤를 이음. 이는 정보 전달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응답자 12명 중 “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41.7%)”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서(16.7%)”, “도움이 되지 않아서(8.3%)” 등이 뒤를 이음. 또한 가족 돌봄 부담과 정보 부족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이는 물리적 접근성과 서비스 효율성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민자통합센터는 응답자 36명 중 “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30.6%)”와 “도움이 되지 않아서(27.8%)”가 주요 이유였으며, “서비스 정보를 몰라서(16.7%)”도 적지 않게 나타남. 이는 서비스 인식 부족과 실질적 효과성 문제를 보여줌
- 다문화일자리 지원은 응답자 53명 중 “서비스 정보를 몰라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17.0%)”, “도움이 되지 않아서(13.2%)”가 뒤를 이음. 또한 가족 돌봄 부담도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이는 홍보 강화와 맞춤형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줌

-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은 응답자 27명 중 “도움이 되지 않아서(29.6%)”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와 “정보 부족”, “신청 절차가 복잡함(14.8%)” 등으로 나타남. 또한 대기 시간, 비용 부담, 가족 돌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이는 제도적 간소화와 실질적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줌
- 종합사회복지관은 응답자 33명 중 “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39.4%)”와 “서비스 정보를 몰라서(36.4%)”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아서(9.1%)”도 일부 나타남. 이는 접근성과 정보 전달이 가장 큰 문제임을 보여줌
- 도서관은 응답자 23명 중 “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30.4%)”와 “서비스 정보를 몰라서(26.1%)”가 주요 이유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아서”와 “가족 돌봄 부담(13.0%)”도 나타남. 이는 도서관 서비스가 다문화 가구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3-219] 주요 다문화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2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27.3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8.2	도움이 되지 않아서	13.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41.7	집에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서	16.7	도움이 되지 않아서	8.3
이민자통합센터	36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30.6	도움이 되지 않아서	27.8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6.7
다문화일자리 지원	53	집에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24.5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17.0	도움이 되지 않아서	13.2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	27	도움이 되지 않아서	29.6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14.8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서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집에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7.4
종합사회복지관	33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39.4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36.4	도움이 되지 않아서	9.1
도서관	23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30.4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26.1	도움이 되지 않아서 집에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13.0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4. 복지의식 및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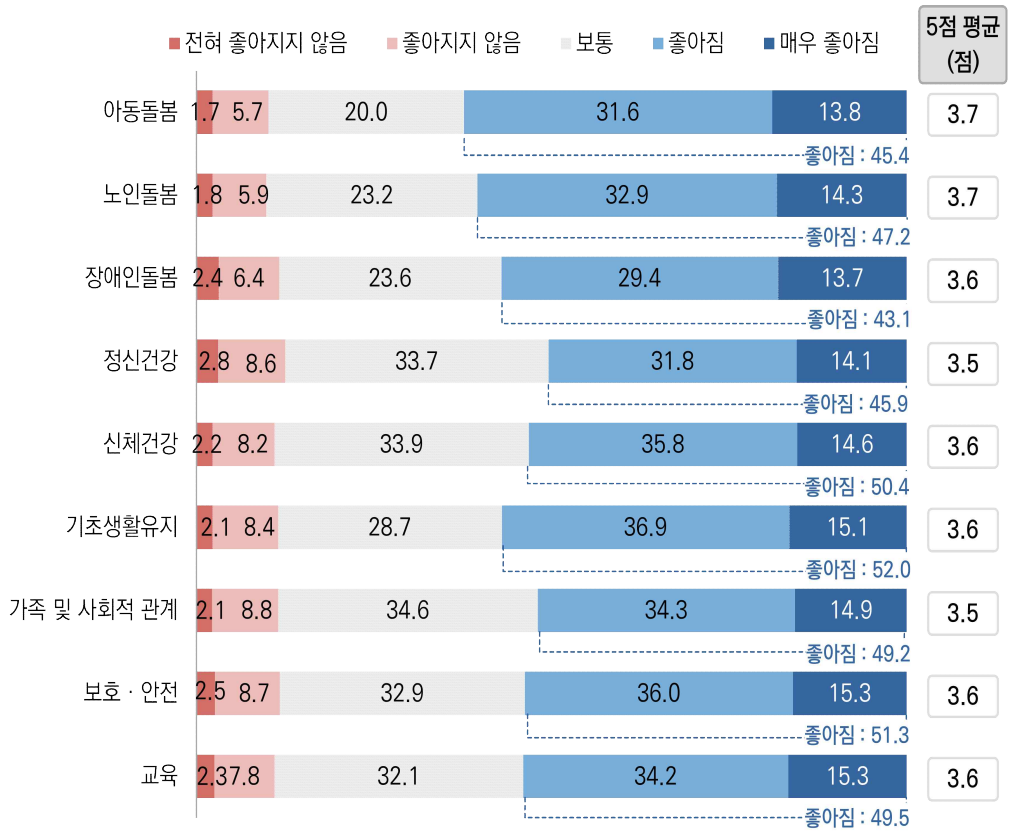
(1) 전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정도

-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삶의 질 개선인식을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인프라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권익보장이나 돌봄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삶의 질 개선 체감도가 높은 영역은 기초생활유지(52.0%), 사회복지시설 확대(51.4%), 보호·안전(51.3%), 주거(50.8%), 문화·여가(50.8%), 신체건강(50.4%) 등으로, 시민 절반 이상이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이는 인프라와 생활안정 관련 정책들에 대한 체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교육(49.5%), 가족 및 사회적 관계(49.2%), 아동학대 예방 정책(48.9%), 노인돌봄(47.2%),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46.6%), 정신건강(45.9%), 법률 및 권익보장(45.9%), 1인 가구 정책(45.5%), 아동돌봄(45.4%), 고용(45.3%) 등은 45% 이상 50% 미만의 체감도를 보이며,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장애인돌봄이 43.5%로 전년에 비해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노인, 아동 관련 돌봄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돌봄서비스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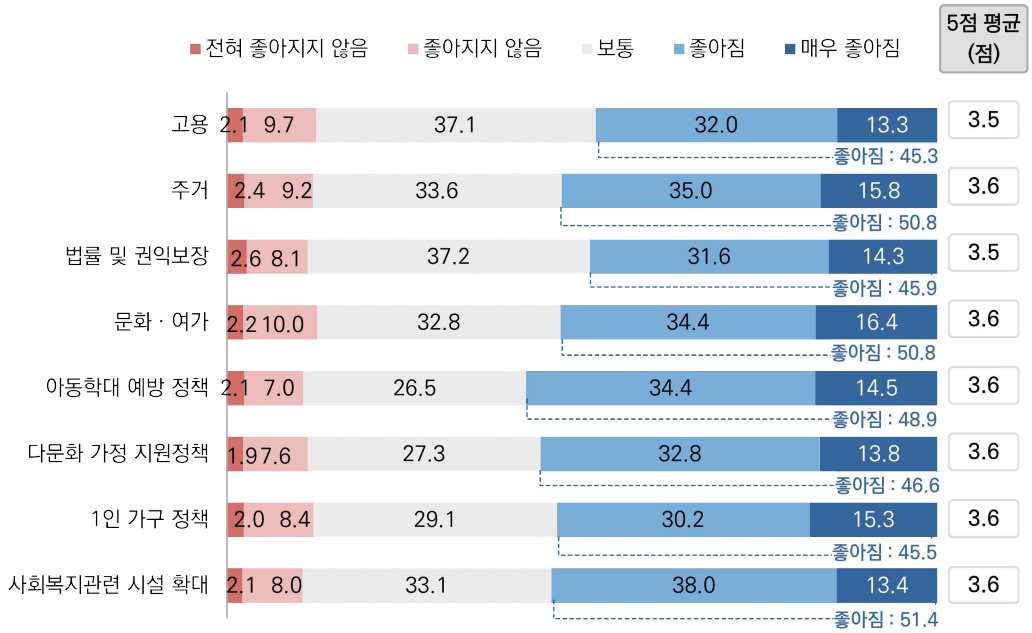
[그림 3-119] 전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정도

(단위 : %)



[그림 3-114] 전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정도(계속)

(단위 : %)



[표 3-220] 전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정도

(단위 : 명, %)

구분	전체(n=6,058)						
	전혀 좋아지지 않음	좋아지지 않음	보통	좋아짐	매우 좋아짐	비해당	평균 (점/5점)
아동돌봄	1.7	5.7	20.0	31.6	13.8	27.2	3.7
노인돌봄	1.8	5.9	23.2	32.9	14.3	21.9	3.7
장애인돌봄	2.4	6.4	23.6	29.4	13.7	24.5	3.6
정신건강	2.8	8.6	33.7	31.8	14.1	9.0	3.5
신체건강	2.2	8.2	33.9	35.8	14.6	5.3	3.6
기초생활유지	2.1	8.4	28.7	36.9	15.1	8.8	3.6
가족 및 사회적 관계	2.1	8.8	34.6	34.3	14.9	5.3	3.5
보호 · 안전	2.5	8.7	32.9	36.0	15.3	4.5	3.6
교육	2.3	7.8	32.1	34.2	15.3	8.4	3.6
고용	2.1	9.7	37.1	32.0	13.3	5.8	3.5
주거	2.4	9.2	33.6	35.0	15.8	4.0	3.6
법률 및 권익보장	2.6	8.1	37.2	31.6	14.3	6.1	3.5
문화 · 여가	2.2	10.0	32.8	34.4	16.4	4.3	3.6
아동학대 예방 정책	2.1	7.0	26.5	34.4	14.5	15.5	3.6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1.9	7.6	27.3	32.8	13.8	16.6	3.6
1인 가구 정책	2.0	8.4	29.1	30.2	15.3	15.0	3.6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	2.1	8.0	33.1	38.0	13.4	5.3	3.6

● 군·구별 전년 대비 삶의 질 개선 정도

- 지역별 전년 대비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강화군에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구와 동구, 서해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체감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3-221] 군·구별 전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정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아동돌봄	3.7	3.3	3.4	3.8	3.6	**4.1**	3.7	3.9	3.5	**4.2**	3.7	3.6
노인돌봄	3.7	3.3	3.5	**3.8**	**3.8**	3.7	3.7	**3.9**	3.3	**3.9**	3.7	3.7
장애인돌봄	3.6	3.1	3.5	3.7	3.7	**3.9**	3.7	3.8	3.3	**4.0**	3.7	3.5
정신건강	3.5	3.0	3.4	3.4	**3.7**	**3.7**	3.5	**3.8**	3.4	3.3	3.5	**3.7**
신체건강	3.6	3.3	3.3	**3.6**	**3.8**	**3.8**	3.4	**3.8**	3.5	3.2	3.6	**3.6**
기초생활유지	3.6	3.2	3.4	3.6	**3.7**	**3.9**	3.5	**3.9**	3.4	3.5	**3.7**	**3.7**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5	3.1	3.4	3.4	**3.7**	**3.7**	3.5	**3.9**	3.5	3.1	3.6	**3.7**
보호 · 안전	3.6	3.3	3.3	3.6	3.6	**3.8**	3.5	**3.9**	3.5	3.1	3.6	3.6
교육	3.6	3.4	3.3	3.7	3.7	**3.8**	3.6	**3.9**	3.5	3.2	3.6	3.5
고용	3.5	3.1	3.1	3.5	3.6	**3.8**	3.4	**3.9**	3.5	3.5	3.5	3.5
주거	3.6	3.3	3.1	3.5	3.7	**3.9**	3.4	**3.9**	3.5	**3.7**	3.6	3.6
법률 및 권익보장	3.5	3.1	3.3	3.5	**3.7**	**3.7**	3.5	**3.9**	3.5	3.0	3.6	3.5
문화 · 여가	3.6	3.4	3.3	3.7	3.7	**3.8**	3.4	**3.9**	3.6	3.2	3.4	3.5
아동학대 예방 정책	3.6	3.3	3.4	3.7	3.5	**3.9**	3.6	**4.0**	3.5	3.7	3.7	3.7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3.6	3.3	3.3	3.5	3.5	3.7	3.6	**4.0**	3.5	3.7	**3.8**	3.7
1인 가구 정책	3.6	3.5	3.2	3.5	3.5	**3.8**	3.4	**4.0**	3.5	3.5	3.5	**3.8**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	3.6	3.4	3.3	3.6	3.6	**3.8**	3.4	**4.0**	3.5	3.3	3.6	3.7

(2) 정책의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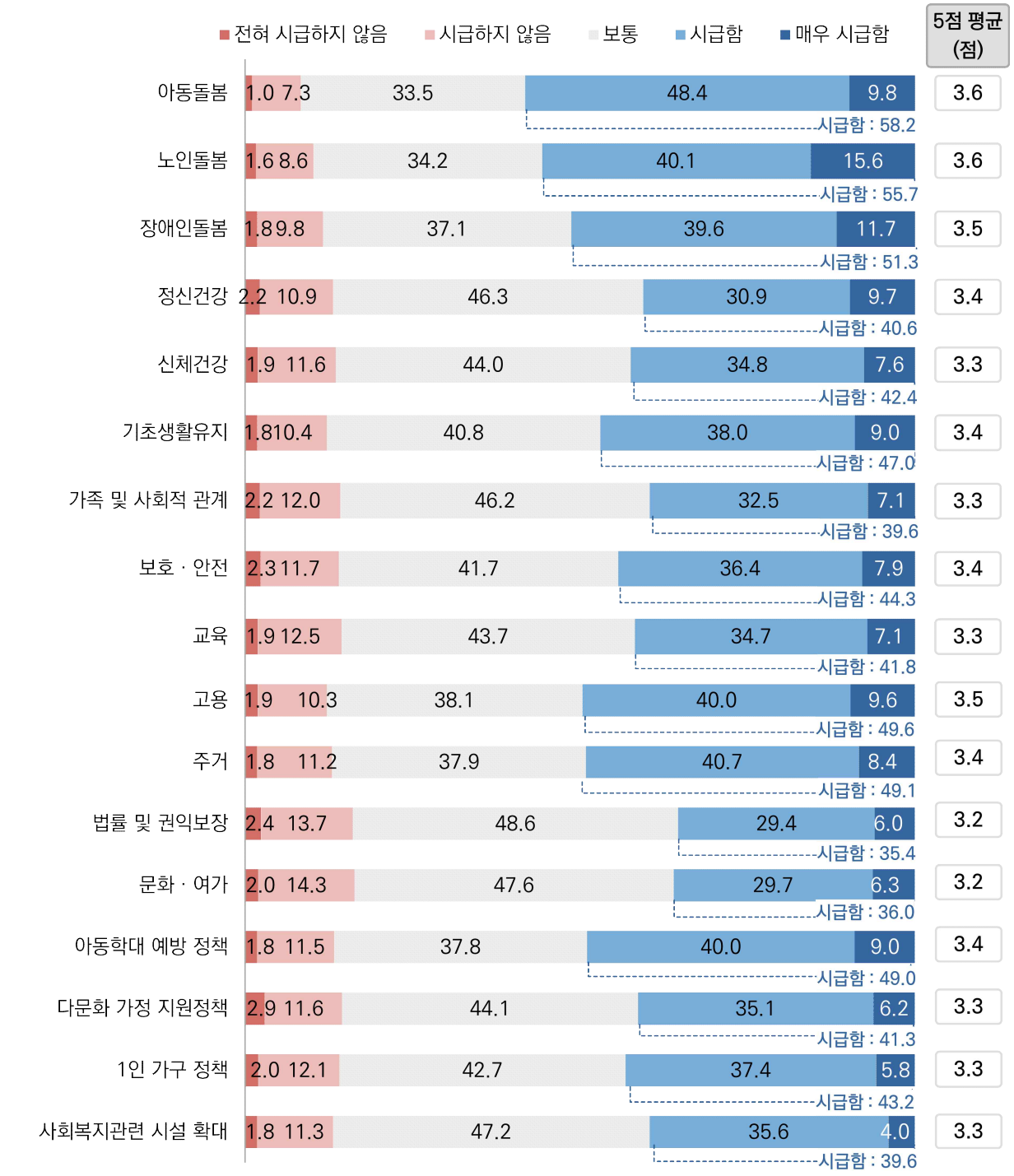
● 인천시 시민들이 시급하게 정책이 필요한 영역들을 살펴본 결과, 돌봄·생활 안정·아동 보호 영역에서 시급성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문화·권익·가족 관계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급성 인식을 보임

-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된 정책은 아동돌봄(58.2%)으로, 응답자 과반수가 시급하게 이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평가함. 이는 맞벌이 가정 증가와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 다음으로 노인돌봄(55.7%), 장애인돌봄(51.3%)도 높은 시급성 인식을 보이며, 고령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남. 고용(49.6%)과 주거(49.1%)는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특히 고용은 일자리 안정과 고용기회 확대에 대한 긴급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드러남. 아동학대 예방 정책(49.0%) 역시 높은 시급성 인식을 보이며,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와 사건 보도를 통해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을 시사함
- 중간 수준의 시급성 인식을 보인 정책으로는 기초생활유지(47.0%), 보호·안전(44.3%), 1인 가구 정책(43.2%), 신체건강(42.4%), 교육(41.8%),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41.3%), 정신건강(40.6%), 등이 있음. 이들 정책은 시민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긴급한 개입보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해석됨
- 반면, 법률 및 권익보장(35.4%), 문화·여가(36.0%), 사회복지시설 확대(39.6%), 가족 및 사회적 관계(39.6%)는 시급성 인식이 낮은 편임. 이는 해당 정책들이 생활의 기반보다는 보완적 성격으로 인식되거나, 정책 효과가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됨

- 4년 전(5기)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의 정책 시급성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0] 정책의 시급성

(단위 : %)



[표 3-222] 사회보장 정책의 시급성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시급하지 않음	시급하지 않음	보통	시급함	매우 시급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아동돌봄	1.0	7.3	33.5	48.4	9.8	3.6	3.5
노인돌봄	1.6	8.6	34.2	40.1	15.6	3.6	3.7
장애인돌봄	1.8	9.8	37.1	39.6	11.7	3.5	3.7
정신건강	2.2	10.9	46.3	30.9	9.7	3.4	3.5
신체건강	1.9	11.6	44.0	34.8	7.6	3.3	3.4
기초생활유지	1.8	10.4	40.8	38.0	9.0	3.4	3.6
가족 및 사회적 관계	2.2	12.0	46.2	32.5	7.1	3.3	3.4
보호 · 안전	2.3	11.7	41.7	36.4	7.9	3.4	3.5
교육	1.9	12.5	43.7	34.7	7.1	3.3	3.5
고용	1.9	10.3	38.1	40.0	9.6	3.5	3.6
주거	1.8	11.2	37.9	40.7	8.4	3.4	3.6
법률 및 권익보장	2.4	13.7	48.6	29.4	6.0	3.2	3.3
문화 · 여가	2.0	14.3	47.6	29.7	6.3	3.2	3.3
아동학대 예방 정책	1.8	11.5	37.8	40.0	9.0	3.4	3.6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2.9	11.6	44.1	35.1	6.2	3.3	3.4
1인 가구 정책	2.0	12.1	42.7	37.4	5.8	3.3	-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	1.8	11.3	47.2	35.6	4.0	3.3	3.5

- 군·구별 정책 시급성

- 지역별 정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은 부평구와 검단구, 강화군, 미추홀구, 동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돌봄 영역을 살펴보면, 노인돌봄은 대부분의 군·구에서 3.6점 이상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가장 높았고, 특히 동구, 부평구, 서해구, 강화군, 검단구에서 3.8점 이상으로 높은 욕구를 보임
- 장애인돌봄은 3.5점 내외로 나타났으며, 검단구(3.9점)와 강화군(3.8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성 인식이 확인됨. 아동돌봄 역시 전 지역에서 3.3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였으며, 검단구(4.0점)와 서해구·강화군(3.8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건강·기초생활 영역의 경우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은 강화군에서 각각 3.7점, 3.6점으로 가장 시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욕구로 나타남. 기초생활유지는 미추홀구(3.6점), 강화군(3.8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계양구(3.1점)와 남동구(3.2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고용·주거 영역 정책의 경우 고용은 동구·강화군(3.7점), 검단구(3.8점)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도 동구·강화군(3.7점), 검단구(3.8점) 등에서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책 수요가 강하게 나타남
- 권익보장·문화·관계 영역을 살펴보면, 법률 및 권익보장과 문화·여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3.0~3.3점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성 인식이 낮은 편임. 특히 검단구(2.7점, 2.8점)와 계양구(3.0점, 3.1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강화군(3.6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3.1~3.4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검단구(2.9점)는 가장 낮은 인식을 보임
- 아동학대 예방 정책,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1인 가구 정책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3.3~3.5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화군에서 모두 3.6~3.7점으로 높게 평가됨. 사회복지시설 확대는 전반적으로 3.2~3.4점 수준에서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강화군(3.6점)에서 가장 높은 시급성을 나타냄

[표 3-223] 인천시 군·구별 사회보장 정책의 시급성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아동돌봄	3.6	3.5	3.5	3.6	3.5	3.5	3.7	3.3	3.8	**4.0**	**3.8**	3.7
노인돌봄	3.6	3.6	**3.8**	3.6	3.5	3.3	3.8	3.1	**3.8**	**3.9**	**3.9**	3.6
장애인돌봄	3.5	3.6	3.6	3.5	3.3	3.3	3.5	3.2	3.3	**3.9**	**3.8**	3.5
정신건강	3.4	3.3	**3.5**	**3.5**	3.3	3.3	3.4	3.1	3.3	3.1	**3.6**	3.4
신체건강	3.3	3.4	3.4	3.3	3.2	3.2	**3.5**	3.0	3.4	3.0	**3.7**	3.4
기초생활유지	3.4	3.5	3.5	**3.6**	3.3	3.2	3.5	3.1	3.3	3.4	**3.8**	3.4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3	3.1	3.4	**3.5**	3.3	3.2	3.4	3.1	3.3	2.9	**3.6**	3.3
보호 · 안전	3.4	3.4	**3.5**	**3.5**	3.4	3.2	3.4	3.1	3.4	3.0	**3.8**	3.3
교육	3.3	3.3	**3.6**	3.3	3.4	3.2	3.4	3.1	3.3	3.0	**3.6**	3.3
고용	3.5	3.5	**3.7**	3.5	3.4	3.2	3.5	3.1	3.5	**3.8**	**3.7**	3.3
주거	3.4	3.4	**3.7**	3.6	3.3	3.2	3.4	3.1	3.5	**3.8**	**3.7**	3.3
법률 및 권익보장	3.2	3.1	**3.4**	3.3	3.2	3.2	**3.4**	3.0	3.2	2.7	**3.5**	3.2
문화 · 여가	3.2	3.1	**3.4**	3.3	3.3	3.2	3.3	3.1	3.3	2.8	**3.5**	3.2
아동학대 예방 정책	3.4	3.4	**3.6**	3.5	3.4	3.3	3.5	3.1	3.3	3.5	**3.7**	3.4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3.3	3.4	**3.5**	3.3	3.3	3.3	3.4	3.1	3.1	3.1	**3.6**	3.2
1인 가구 정책	3.3	3.3	**3.4**	**3.4**	3.3	3.3	3.3	3.1	3.3	**3.4**	**3.7**	3.3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	3.3	3.3	3.3	**3.4**	3.3	3.2	3.2	3.2	3.3	3.2	**3.6**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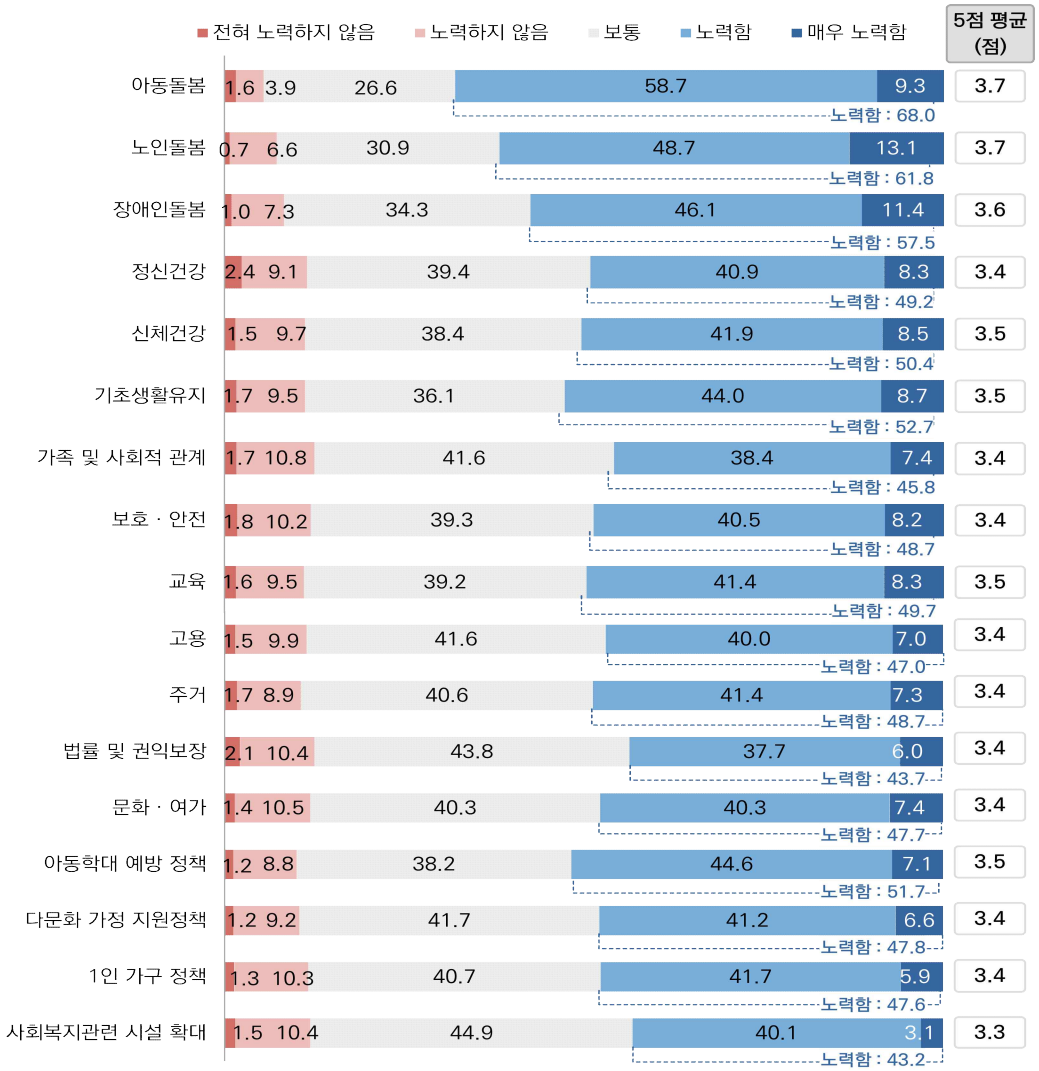
(3) 시군·구의 노력 정도

- 인천시 시민들은 대부분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돌봄 분야와 기초생활, 건강 관련 정책에 대해 높은 노력 인식을 보임. 반면, 권익보장, 문화·여가, 1인 가구 정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정책 전달력과 체감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남

-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영역은 아동돌봄(3.7점)과 노인돌봄(3.7점)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상 응답 비율이 각각 68.0%, 61.8%에 달함. 이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행정의 집중과 시민 체감도가 높았음을 시사함. 장애인돌봄(3.6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노력한다는 응답이 57.5%로 10명중 5명 이상은 장애인돌봄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교육, 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모두 3.5점으로 평가되었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50%를 초과함. 이는 보편적 서비스 영역에서도 행정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반면, 정신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보호·안전, 고용, 주거,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1인 가구 정책, 법률 및 권익보장, 문화·여가 등은 모두 3.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체로 45~50% 수준임. 이는 시민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노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은 사회복지시설 확대(3.3점)이며,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43.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전반적으로 6기 조사에서는 5기 대비 아동돌봄, 노인돌봄, 신체건강 등 일부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개선 노력이 시민 인식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림 3-121] 시군·구의 노력 정도

(단위 : %)



[표 3-224] 시군·구의 노력 정도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노력하지 않음	노력하지 않음	보통	노력함	매우 노력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아동돌봄	1.6	3.9	26.6	58.7	9.3	3.7	3.5
노인돌봄	0.7	6.6	30.9	48.7	13.1	3.7	3.6
장애인돌봄	1.0	7.3	34.3	46.1	11.4	3.6	3.6
정신건강	2.4	9.1	39.4	40.9	8.3	3.4	3.4
신체건강	1.5	9.7	38.4	41.9	8.5	3.5	3.4
기초생활유지	1.7	9.5	36.1	44.0	8.7	3.5	3.5
가족 및 사회적 관계	1.7	10.8	41.6	38.4	7.4	3.4	3.4
보호 · 안전	1.8	10.2	39.3	40.5	8.2	3.4	3.5

구분	6기(n=6,058)						5기(n=6,290)
	전혀 노력하지 않음	노력하지 않음	보통	노력함	매우 노력함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교육	1.6	9.5	39.2	41.4	8.3	3.5	3.4
고용	1.5	9.9	41.6	40.0	7.0	3.4	3.4
주거	1.7	8.9	40.6	41.4	7.3	3.4	3.4
법률 및 권익보장	2.1	10.4	43.8	37.7	6.0	3.4	3.3
문화 · 여가	1.4	10.5	40.3	40.3	7.4	3.4	3.3
아동학대 예방 정책	1.2	8.8	38.2	44.6	7.1	3.5	3.4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1.2	9.2	41.7	41.2	6.6	3.4	3.4
1인 가구 정책	1.3	10.3	40.7	41.7	5.9	3.4	-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	1.5	10.4	44.9	40.1	3.1	3.3	3.4

- 군·구별 시군·구의 정책 노력 정도

- 지역별 시군·구의 정책 노력에 대한 평가는 계양구, 강화군, 서해구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검단구와 연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돌봄 정책의 시급성은 평균 3.7점으로 계양구·서해구·검단구(각 4.0점)이 최상위로 나타났으며, 강화군(3.9점), 부평구·옹진군(3.8점)도 높은 수준을 기록함. 반면 동구·연수구(각 3.4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돌봄 정책은 평균 3.7점으로 부평구·강화군(각 3.9점), 계양구·서해구(각 3.8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연수구·남동구(각 3.4점)는 낮게 나타남
- 장애인돌봄 정책은 평균 3.6점으로 계양구(3.8점), 부평구·강화군·옹진군(각 3.7점) 순으로 정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중구(3.3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신건강 정책은 평균 3.4점으로 계양구·강화군(각 3.7점)가 시급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검단구(2.9점)는 정책 시급성이 가장 낮은 지역임
- 신체건강 정책은 평균 3.5점으로 계양구·강화군(각 3.7점)이 시급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검단구(2.9점)는 가장 낮은 지역으로 확인됨
- 기초생활유지 정책은 평균 3.5점으로 나타남. 계양구·강화군(각 3.8점)이 정책시급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연수구·남동구(각 3.3점)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지역임
- 교육, 고용, 주거, 법률·권익보장, 문화·여가 정책 등은 계양구(3.7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반면 검단구(2.8~3.0점)는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정책적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임

[표 3-225] 군·구별 시군·구의 정책 노력 정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아동돌봄	3.7	3.5	3.4	3.7	3.4	3.6	3.8	**4.0**	**4.0**	**4.0**	**3.9**	3.8
노인돌봄	3.7	3.5	**3.8**	3.7	3.4	3.4	**3.9**	**3.8**	**3.8**	3.5	**3.9**	3.6
장애인돌봄	3.6	3.3	3.6	**3.7**	3.4	3.5	**3.7**	**3.8**	3.5	3.6	**3.7**	**3.7**
정신건강	3.4	3.2	**3.5**	3.3	3.3	**3.5**	3.4	**3.7**	**3.5**	2.9	**3.7**	**3.5**
신체건강	3.5	3.4	**3.6**	3.4	3.3	3.4	3.4	**3.7**	3.5	2.9	**3.7**	3.5
기초생활유지	3.5	3.4	3.5	3.3	3.3	3.4	3.5	**3.8**	3.5	3.4	**3.8**	3.4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4	3.2	3.5	3.3	3.3	3.3	3.4	**3.8**	3.4	2.9	**3.6**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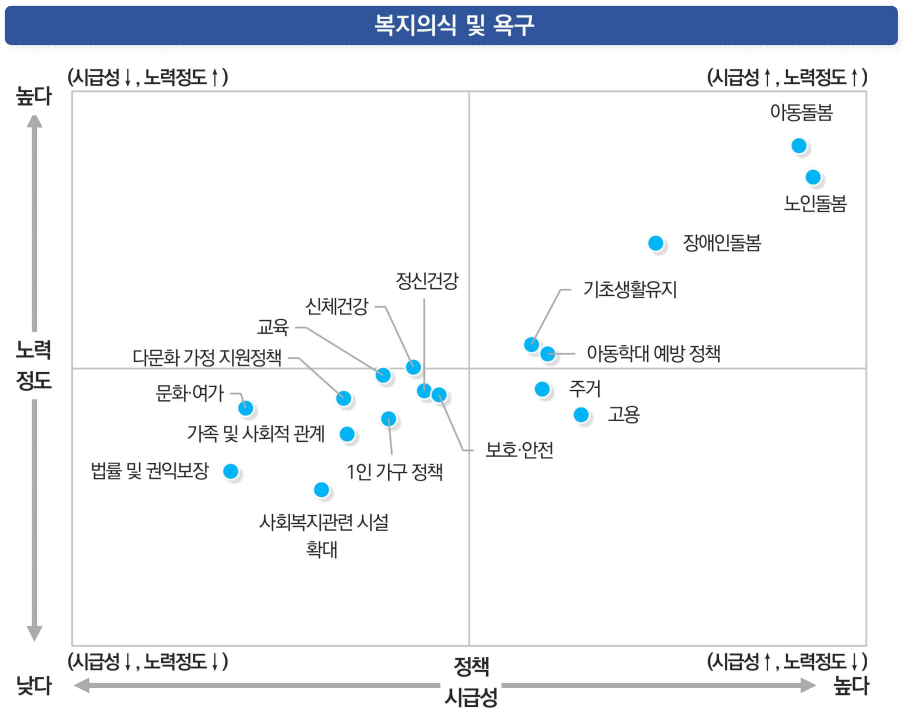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보호 · 안전	3.4	3.4	**3.6**	3.4	3.2	3.3	3.4	**3.7**	3.5	2.9	**3.7**	3.3
교육	3.5	3.4	3.5	3.5	3.3	3.4	3.5	**3.7**	**3.6**	3.0	**3.7**	3.3
고용	3.4	3.2	3.4	3.3	3.2	3.4	3.4	**3.7**	**3.5**	3.4	**3.7**	3.4
주거	3.4	3.4	3.5	3.3	3.3	3.4	3.3	**3.7**	3.5	**3.6**	**3.7**	3.3
법률 및 권익보장	3.4	3.1	3.4	3.3	3.3	3.3	3.3	**3.7**	3.4	2.8	**3.7**	3.3
문화 · 여가	3.4	3.4	3.5	3.4	3.3	3.4	3.4	**3.7**	3.5	3.0	**3.6**	3.3
아동학대 예방 정책	3.5	3.3	3.5	3.4	3.3	3.4	3.5	**3.7**	3.5	3.5	**3.7**	3.4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3.4	3.4	**3.5**	3.4	3.3	3.3	3.4	**3.7**	**3.5**	3.4	**3.6**	3.4
1인 가구 정책	3.4	3.4	3.4	3.3	3.2	3.3	3.3	**3.7**	**3.5**	3.4	**3.7**	3.4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	3.3	**3.4**	3.3	3.3	3.1	3.3	3.2	**3.6**	3.3	3.0	**3.6**	3.3

(4) 복지의식 및 욕구 IPA 결과

- 복지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 정도 IPA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복지정책의 시급성과 이에 다른 시군구의 노력도 높다고 평가된 항목은 1사분면에 위치한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기초생활유지', '아동학대 예방 정책'이 이에 해당함
- 한편, 정책의 시급성과 시군구의 노력도 높은 항목은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되, 추가로 집중해야 하는 영역으로 정책의 시급성에 비해 시군구의 노력이 낮다고 평가된 영역인 4사분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주거'와 '고용'이 이에 해당함

[그림 3-110] 복지의식 및 욕구 IPA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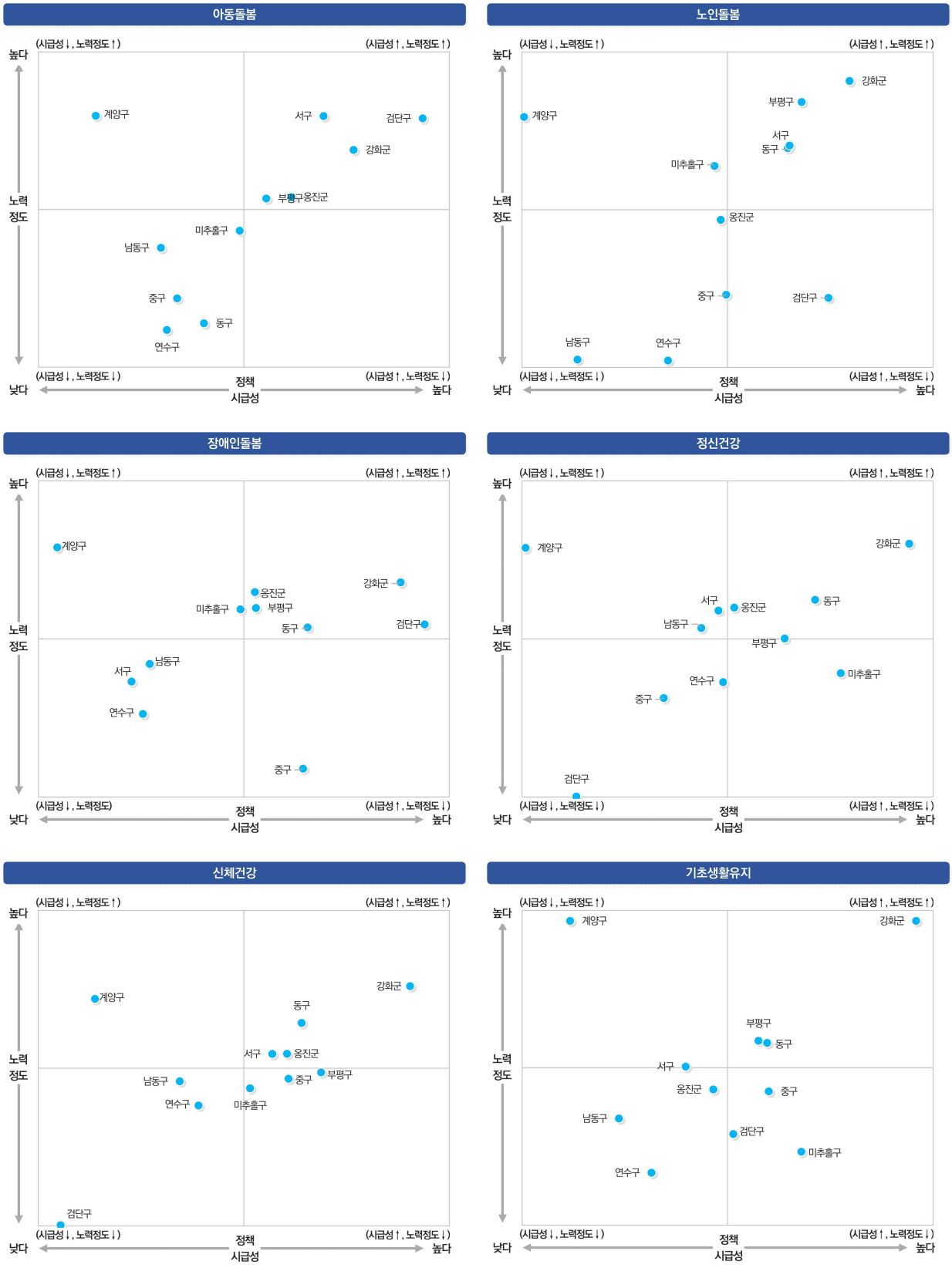


● 군·구별 복지 의식 및 욕구 IPA 분석 결과

- 아동돌봄 정책은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부평구, 옹진군에서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됨. 이는 해당 지역에서 아동돌봄의 필요성과 행정적 대응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노인돌봄 정책은 강화군, 부평구, 서해구, 동구가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정책 효과가 잘 전달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됨. 반면 검단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행정적 노력은 낮게 평가한 지역임. 이는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비해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는 시민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
- 장애인돌봄 정책은 강화군, 옹진군, 부평구, 동구, 검단구에서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해석됨. 반면 중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다고 평가된 지역임
- 정신건강 정책은 강화군, 동구, 옹진군에서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정책이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됨. 반면 부평구, 미추홀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신체건강 정책은 강화군, 동구, 서해구, 옹진군에서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부평구, 중구, 미추홀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기초생활유지 정책은 강화군, 부평구, 동구가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중구, 검단구, 미추홀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정책은 강화군, 동구, 부평구, 서해구가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미추홀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보호·안전 정책은 강화군, 동구, 서해구, 부평구에서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미추홀구, 중구, 연수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교육정책은 강화군, 부평구, 동구가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연수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고용정책은 강화군, 서해구, 동구, 검단구에서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부평구, 중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주거정책은 강화군, 검단구, 서해구가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동구, 미추홀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게 평가되어,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됨
- 법률 및 권익보장 정책은 강화군, 동구, 서해구, 부평구가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미추홀구, 연수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문화·여가 정책은 강화군, 동구, 서해구가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강화군, 부평구, 동구, 검단구가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미추홀구, 중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강화군, 동구가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부평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1인 가구 정책은 강화군, 동구가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중구, 검단구, 미추홀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사회복지시설 확대 정책은 강화군, 서해구가 시급성과 노력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옹진군,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는 시급성은 높지만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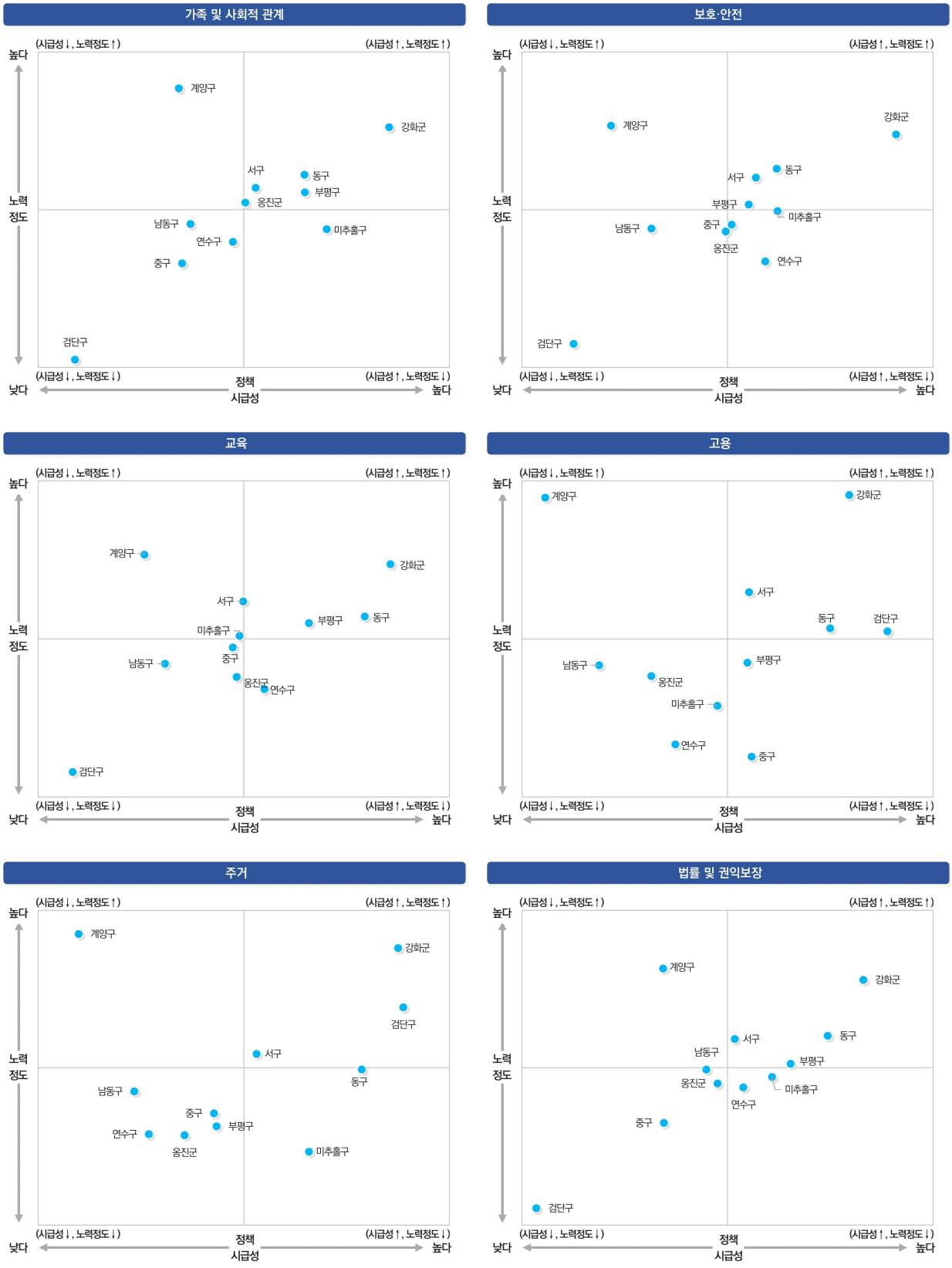
[그림 3-122] 인천시 전체 복지의식 및 욕구 관련 IPA 결과

(단위 : 점)



[그림 3-117] 인천시 전체 복지의식 및 욕구 관련 IPA 결과(계속)

(단위 : 점)



[그림 3-117] 인천시 전체 복지의식 및 욕구 관련 IPA 결과(계속)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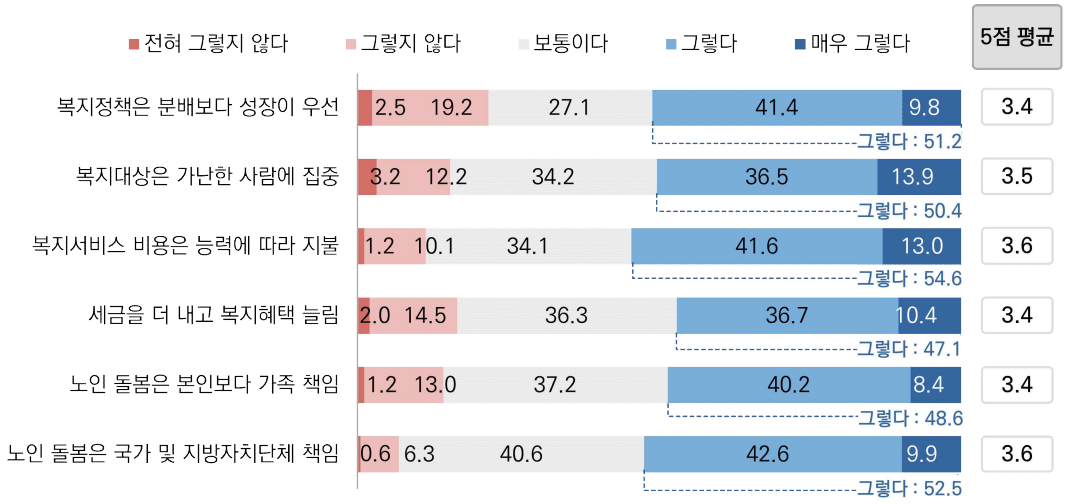
(5)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현 방안

-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민의식 분석은 5점 척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를 의미함.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평균 3.0점은 중립적 입장을 의미하며, 3.5점 이상은 비교적 강한 동의와 지지를 반영하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음
- 인천 시민들은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 개인과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 개인과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시민들은 단순한 이분법이 아닌 상황에 따른 조화와 공정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복지 인식에 있어서 '복지정책은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51.2%로 인천 시민 과반수가 복지정책보다 경제성장이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함. 한편,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1.7%로 높은 점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복지 대상은 가난한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50.4%로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의 효율성과 집중적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반영함. 한편, '보통이다' 응답도 34.2%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복지서비스 비용은 능력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는 54.6%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 재정의 형평성과 공정한 부담 원칙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세금을 더 내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47.1%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복지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보통이다'가 36.3%로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세금 부담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노인 돌봄의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은 '가족 책임'(48.6%)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52.5%)이라는 두 항목을 통해 개인보다는 공공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노인 돌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아니라는 응답이 6.9%로 낮다는 것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임

[그림 3-123]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현 방안

(단위 : %)



[표 3-226]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현 방안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복지정책은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	2.5	19.2	27.1	41.4	9.8	3.4
복지대상은 가난한 사람에 집중	3.2	12.2	34.2	36.5	13.9	3.5
복지서비스 비용은 능력에 따라 지불	1.2	10.1	34.1	41.6	13.0	3.6
세금을 더 내고 복지혜택 늘림	2.0	14.5	36.3	36.7	10.4	3.4
노인 돌봄은 본인보다 가족 책임	1.2	13.0	37.2	40.2	8.4	3.4
노인 돌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0.6	6.3	40.6	42.6	9.9	3.6

● 군·구별 복지정책 방향과 실현 방안

- '복지정책은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이라는 항목은 전체 평균 3.4점으로, 성장 중심 접근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부평구와 계양구는 3.7점으로 성장 우선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반면 검단구(2.5점)와 중구(2.8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분배 중심의 복지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됨
- '복지 대상은 가난한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는 평균 3.5점으로,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지가 다소 우세하게 나타남. 동구는 3.6점, 남동구와 부평구가 각각 3.7점, 서해구 3.6점으로 높은 반면, 검단구 2.5점, 중구 2.8점으로 가장 낮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됨
- '복지서비스 비용은 능력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는 평균 3.6점으로, 검단구(4.1점), 동구(3.8점), 옹진군(3.7점)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강화군(3.2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함
- '세금을 더 내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에 대한 평균 점수는 3.4점으로 동구(3.8점), 검단구(3.7점), 부평구·남동구(3.6점)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반면, 계양구(2.9점), 강화군(3.1점)은 세금 인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것으로 나타남
- '노인 돌봄은 본인보다 가족의 책임'이라는 항목은 전체 평균 3.4점으로 동구(3.9점), 서해구(3.6점), 부평구(3.6점)는 가족 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한 반면, 검단구(2.8점), 중구(3.1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함
- 반면 '노인 돌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항목은 평균 3.6점으로 검단구(4.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남. 뒤를 이어 동구(3.9점), 미추홀구(3.6점)도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계양구와 옹진군은 각각 3.3점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표 3-227] 군·구별 복지정책 방향과 실현 방안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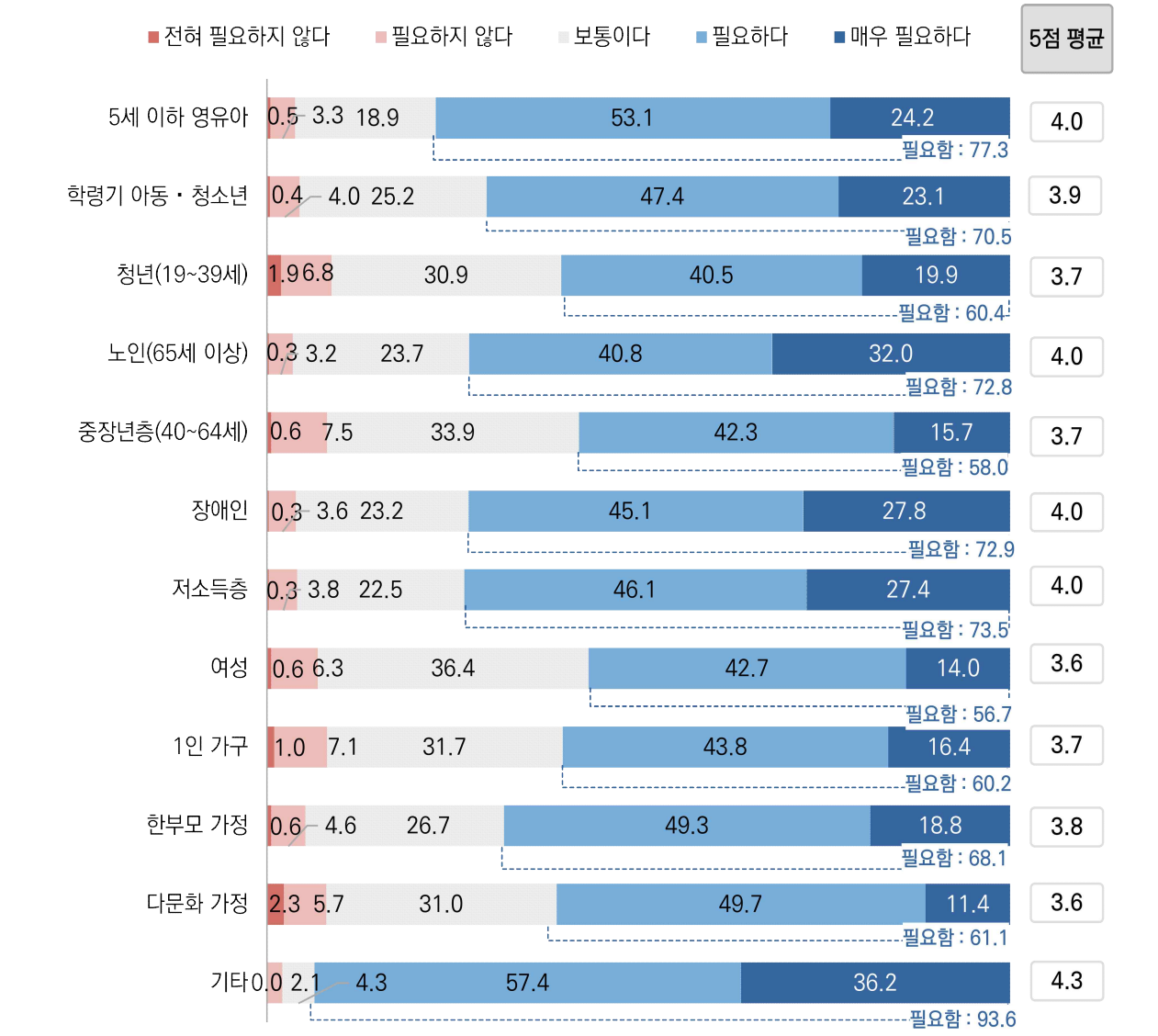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복지정책은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	3.4	2.8	**3.6**	3.4	3.5	**3.7**	**3.7**	3.5	3.6	2.5	3.1	3.3
복지대상은 가난한 사람에 집중	3.5	2.9	**4.1**	3.7	3.5	3.2	3.5	3.4	3.5	**3.8**	3.4	3.3
복지서비스 비용은 능력에 따라 지불	3.6	3.6	**3.8**	3.4	3.5	3.6	3.6	3.5	3.4	**4.1**	3.2	3.7
세금을 더 내고 복지혜택 늘림	3.4	3.3	**3.8**	3.3	3.4	3.6	3.6	2.9	3.5	**3.7**	3.1	3.3
노인 돌봄은 본인보다 가족 책임	3.4	3.1	**3.9**	3.4	3.4	3.6	3.5	3.4	3.6	2.8	3.5	3.1
노인 돌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3.6	3.6	**3.9**	3.6	3.5	3.5	3.5	3.3	3.5	**4.2**	3.5	3.3

(6) 우선 지원 대상

- 인천 시민이 인식하는 복지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5점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1점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5점은 '매우 필요하다'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해야 하는 대상을 살펴본 결과, '5세 이하 영유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73.5%, '장애인' 72.9%, '노인(65세 이상)' 72.8%, '학령기 아동 · 청소년' 70.5%, '한부모 가정' 68.1%, '다문화 가정' 61.1%, '청년(19~39세)' 60.4%, '1인 가구' 60.2%, '중장년층(40~64세)' 58.0%, '여성' 56.7% 순임

[그림 3-124] 우선 지원 대상

(단위 : %)



[표 3-228] 우선 지원 대상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점/5점)
5세 이하 영유아	0.5	3.3	18.9	53.1	24.2	4.0
학령기 아동 · 청소년	0.4	4.0	25.2	47.4	23.1	3.9
청년(19~39세)	1.9	6.8	30.9	40.5	19.9	3.7
노인(65세 이상)	0.3	3.2	23.7	40.8	32.0	4.0
중장년층(40~64세)	0.6	7.5	33.9	42.3	15.7	3.7
장애인	0.3	3.6	23.2	45.1	27.8	4.0
저소득층	0.3	3.8	22.5	46.1	27.4	4.0
여성	0.6	6.3	36.4	42.7	14.0	3.6
1인 가구	1.0	7.1	31.7	43.8	16.4	3.7
한부모 가정	0.6	4.6	26.7	49.3	18.8	3.8
다문화 가정	2.3	5.7	31.0	49.7	11.4	3.6
기타	0.0	2.1	4.3	57.4	36.2	4.3

- 군·구별 우선 지원 대상

- 5세 이하 영유아는 부평구(4.3점), 연수구(4.1점), 검단구(4.0점)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남동구(3.8점), 강화군·옹진군(3.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음. 이는 도심지역일수록 보육 수요가 높고, 농어촌 지역은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 결과임
- 학령기 아동·청소년은 연수구, 부평구, 검단구(각 4.1점)에서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남동구(3.6점), 중구·서해구(3.7점)는 낮은 편이었음
- 청년(19~39세)은 검단구(4.3점), 강화군(4.1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남동구(3.4점), 중구·동구·미추홀구·계양구·서해구(3.5점)는 낮은 인식을 보였음. 특히 검단구는 청년층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매우 높아, 주거, 일자리,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정책 개입이 요구되는 지역임
- 노인(65세 이상)은 강화군(4.3점), 연수구(4.2점), 옹진군(4.1점)에서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계양구(3.7점), 남동구(3.8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음.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도심 지역은 노인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중장년층(40~64세)은 강화군(4.1점), 연수구(3.9점), 검단구(3.8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계양구(3.3점), 남동구(3.4점), 중구(3.5점)는 낮은 인식을 보였음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검단구(4.5점), 강화군·부평구(4.2점)에서 매우 높았으며, 서해구(3.6점), 남동구·옹진군(3.8점)은 낮은 편이었음. 특히 검단구는 전체 대상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장애인 정책에 대한 강한 요구가 확인된 지역임
- 저소득층은 검단구(4.3점), 강화군·부평구(4.1점)에서 높았으며, 서해구(3.7점), 중구·계양구·남동구·옹진군(3.9점)은 낮은 인식을 보였음
-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은 강화군(3.9점), 부평구·연수구(3.8점)에서 높았으며, 남동구(3.3점), 서해구·계양구(3.5점)는 낮은 편이었음.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안전, 돌봄 부담 등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임
- 1인 가구는 강화군(4.0점), 옹진군·검단구(3.8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남동구·계양구(3.4점), 서해구(3.5점)는 낮은 인식을 보였음

- 한부모 가정은 부평구·검단구(4.1점), 옹진군(4.0점)에서 높았으며, 서해구(3.5점), 중구(3.6점), 동구(3.7점)는 낮은 편이었음
- 다문화 가정은 검단구(3.9점), 부평구(3.8점)에서 높았으며, 서해구(3.4점), 중구(3.5점), 동구·남동구·옹진군(3.6점)은 낮은 인식을 보였음

[표 3-229] 군·구별 우선 지원 대상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5세 이하 영유아	4.0	3.9	4.0	4.0	**4.1**	3.8	**4.3**	3.9	3.9	4.0	3.9	3.9
학령기 아동 · 청소년	3.9	3.7	3.9	**4.0**	**4.1**	3.6	**4.1**	3.9	3.7	**4.1**	**4.0**	3.9
청년(19~39세)	3.7	3.5	3.7	3.5	3.9	3.4	3.8	3.5	3.5	**4.3**	**4.1**	3.7
노인(65세 이상)	4.0	3.9	**4.1**	4.0	**4.2**	3.8	**4.1**	3.7	3.9	4.0	**4.3**	4.1
중장년층(40~64세)	3.7	3.5	3.7	3.6	**3.9**	3.4	3.7	3.3	3.5	3.8	**4.1**	3.6
장애인	4.0	3.9	4.1	4.0	4.0	3.8	4.2	3.9	3.6	**4.5**	**4.2**	3.8
저소득층	4.0	3.9	4.0	4.0	4.0	3.8	**4.1**	3.9	3.7	**4.3**	**4.1**	3.9
여성	3.6	3.6	3.6	3.6	**3.8**	3.3	**3.8**	3.6	3.5	3.6	**3.9**	3.6
1인 가구	3.7	3.6	3.7	3.6	3.7	3.4	3.9	3.4	3.5	**3.8**	**4.0**	**3.8**
한부모 가정	3.8	3.6	3.7	3.8	3.9	3.7	**4.1**	3.7	3.5	**4.1**	3.8	**4.0**
다문화 가정	3.6	3.5	3.6	3.7	3.6	3.6	**3.8**	3.7	3.4	**3.9**	3.7	3.6
기타	4.3	-	-	4.0	-	4.4	-	-	4.0	-	4.0	4.0

(7)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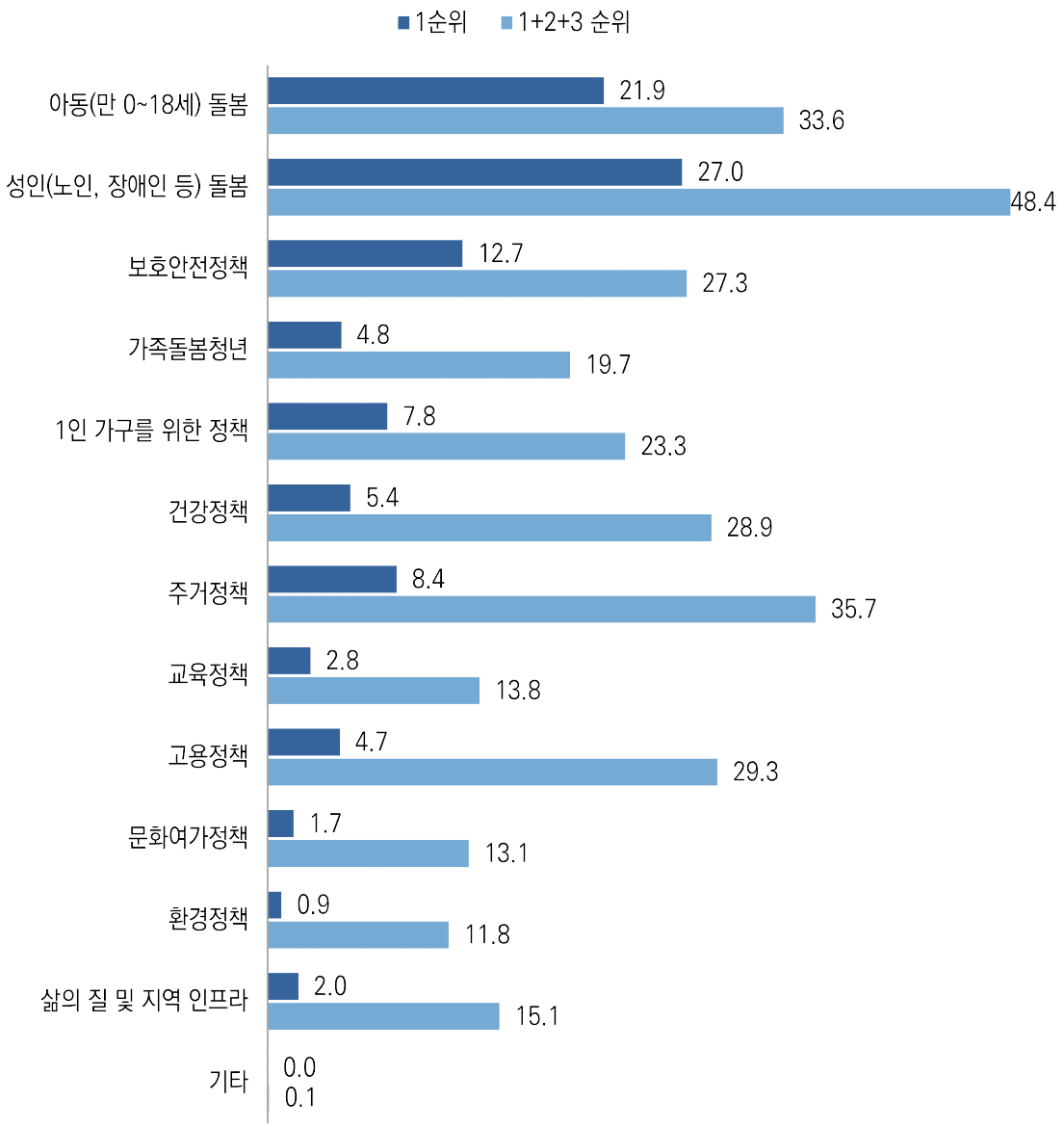
- 인시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순위별(1~3순위)로 살펴본 결과, 돌봄과 주거, 고용을 핵심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중복응답으로 '성인(노인, 장애인 등) 돌봄' 4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정책' 35.7%, '아동(만 0~18세)돌봄' 33.6%, '고용정책' 29.3%, '건강정책' 28.9% 순이었으며, '환경정책' 11.8%, '문화여가정책' 13.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군·구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
  - 성인 돌봄은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함. 특히 검단구(65.0%), 강화군(64.0%), 서해구(59.4%), 부평구(58.2%)에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아동 돌봄은 옹진군(45.8%), 검단구(47.3%), 부평구(40.8%)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음
  - 주거정책은 미추홀구(51.0%), 검단구(48.8%), 계양구(39.3%)에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 고용정책은 검단구(46.9%), 부평구(40.2%), 계양구(39.8%)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음
  - 건강정책은 강화군(37.8%), 남동구(36.3%)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는 의료 접근성과 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지역임을 시사함
  - 보호안전정책은 중구(38.2%), 연수구(31.7%), 서해구(31.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이는 지역 내 안전, 치안, 재난 대응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임
  - 가족돌봄청년은 서해구(34.1%)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는 가족 내 돌봄 부담을 지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임을 의미함

- 1인 가구 정책은 서해구(31.5%), 중구(29.0%), 강화군(28.5%)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이는 고립, 주거, 건강 문제 등 1인 가구의 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임을 보여줌
- 교육정책은 연수구(22.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문화여가정책은 연수구(21.3%), 동구(21.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 환경정책은 연수구(15.8%), 강화군(13.8%)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는 동구(22.1%), 미추홀구(20.8%), 서해구(20.6%)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그림 3-125]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

(단위 : %)



[표 3-230] 군·구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1+2+3순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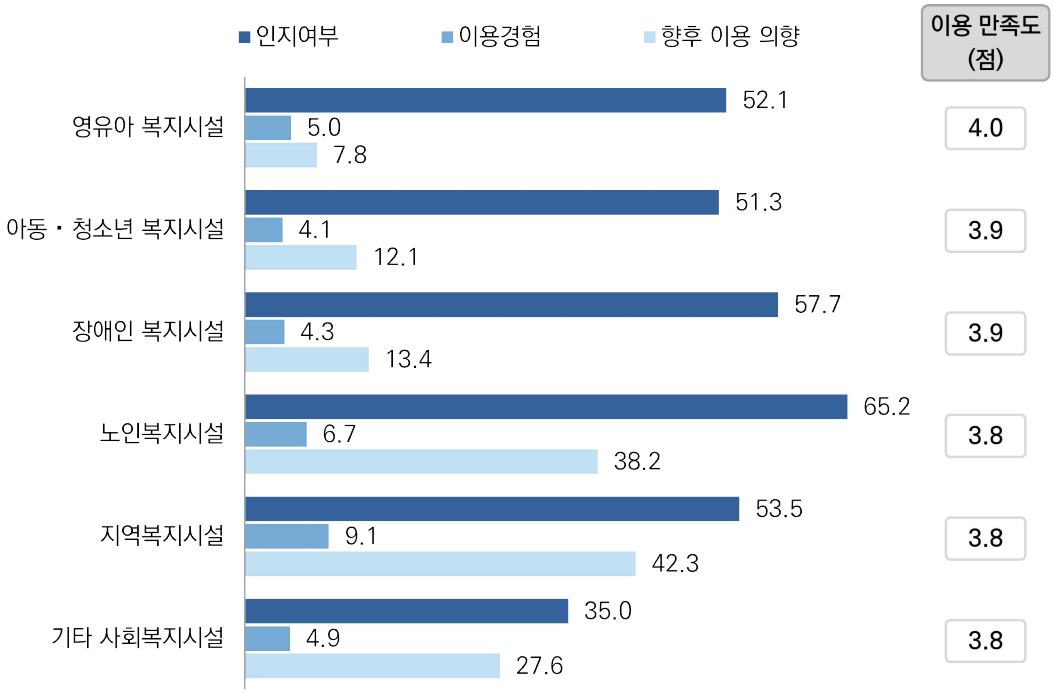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아동(만 0~18세) 돌봄	성인(노인, 장애인 등) 돌봄	보호 안전 정책	가족 돌봄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건강 정책	주거 정책	교육 정책	고용 정책	문화 여가 정책	환경 정책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기타
전체	6,058	33.6	48.4	27.3	19.7	23.3	28.9	35.7	13.8	29.3	13.1	11.8	15.1	0.1
중구	600	32.5	47.0	**38.2**	**24.8**	**29.0**	**32.2**	36.0	11.2	34.8	10.0	2.3	2.0	0.0
동구	620	28.4	56.5	18.9	16.9	22.3	25.2	35.5	11.5	31.6	**21.8**	9.4	**22.1**	0.2
미추홀구	600	34.3	39.7	20.2	14.8	23.2	25.0	**51.0**	15.2	35.2	9.2	11.5	**20.8**	0.0
연수구	600	30.8	33.7	**31.7**	21.0	21.8	29.8	38.5	**22.8**	23.5	**21.3**	15.8	9.0	0.2
남동구	600	29.8	36.7	30.7	21.7	23.7	36.3	26.5	19.8	29.3	12.2	**21.2**	12.0	0.2
부평구	600	**40.8**	58.2	24.5	15.3	10.7	23.8	38.7	8.5	**40.2**	15.2	9.0	15.2	0.0
계양구	600	32.3	31.5	30.5	23.0	20.2	27.2	39.3	**20.3**	39.8	11.8	12.2	11.7	0.2
서해구	340	22.4	59.4	**31.2**	**34.1**	**31.5**	22.4	26.2	6.2	17.9	12.4	**15.9**	20.6	0.0
검단구	260	**47.3**	**65.0**	17.3	13.5	16.9	14.6	**48.8**	3.1	**46.9**	4.2	2.7	19.6	0.0
강화군	600	27.5	**64.0**	25.8	10.3	28.5	**37.8**	35.8	12.2	17.2	9.7	13.8	17.3	0.0
옹진군	638	**45.8**	54.7	28.1	23.7	27.9	32.1	21.0	11.4	12.1	10.7	12.2	20.4	0.0

(8) 주요 복지시설 인지 여부

- 주요 복지시설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을 살펴본 결과, 인지율은 '노인복지시설' 6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관' 57.7%, '지역복지시설' 53.5%, '영유아 복지시설' 52.1%,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51.3%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35.0%로 가장 낮음
- 이용 경험률은 '지역복지시설' 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6.7%, '영유아 복지시설' 5.0%, '장애인복지시설' 4.3%, '아동 · 청소년 복지시설' 4.1% 순임
- 주요 복지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 복지시설'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이 각각 3.9점, '노인복지시설', '지역복지시설'이 3.8점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이용 의향에서는 복지시설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음. '지역복지시설' 42.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38.2%, '장애인복지시설' 13.4%,'아동·청소년 복지시설' 12.1% '영유아 복지시설' 7.8% 순이었음

[그림 3-126] 주요 복지시설 인지 여부

(단위 : %)



[표 3-231] 주요 복지시설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n=6,058)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사례수	평균 (점/5점)	'있음' 비율	비해당 비율
영유아 복지시설	52.1	5.0	303	4.0	7.8	65.4
아동 · 청소년 복지시설	51.3	4.1	247	3.9	12.1	60.3
장애인 복지시설	57.7	4.3	259	3.9	13.4	55.6
노인복지시설	65.2	6.7	408	3.8	38.2	29.5
지역복지시설	53.5	9.1	552	3.8	42.3	18.6
기타 사회복지시설	35.0	4.9	299	3.8	27.6	24.9

● 군·구별 주요 복지시설 인지 여부

- 지역별 주요 복지시설 인지도는 남동구,미추홀구, 중구, 계양구, 검단구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동구와 강화군, 옹진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영유아 복지시설 평균 인지율은 52.1%임. 가장 높은 지역은 검단구(70.8%), 계양구(68.8%), 미추홀구(63.7%)로 나타났음. 반면 옹진군(29.5%), 동구(30.8%), 강화군(39.3%)은 낮은 수준임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평균 인지율은 51.3%임. 검단구(70.0%), 계양구(68.3%), 미추홀구(65.7%)가 가장 높음. 반면 동구(29.4%), 강화군(31.5%), 옹진군(35.1%)은 낮음
- 장애인 복지시설 평균 인지율은 57.7%임. 검단구(80.4%), 계양구(71.5%), 남동구·미추홀구(69.5%)가 매우 높음. 반면 강화군(34.3%), 동구(37.7%)는 낮음

- 노인복지시설 평균 인지율은 65.2%로 전체 시설 중 가장 높음. 검단구(78.8%), 계양구(77.2%), 미추홀구(74.5%), 남동구(73.5%)가 높은 인지율을 기록함. 반면 강화군(49.5%), 동구(54.8%)는 낮음
- 지역복지시설 평균 인지율은 53.5%로 검단구(67.3%), 계양구(62.5%), 중구(60.3%), 미추홀구(60.7%)가 높은 편임. 반면 연수구(40.3%), 강화군(42.5%)은 낮음
- 기타 사회복지시설 평균 인지율은 35.0%로 가장 낮음. 중구(47.8%), 계양구(50.3%)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검단구(23.8%), 강화군(24.3%), 옹진군(24.6%)은 낮음

[표 3-232] 군·구별 주요 복지시설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영유아 복지시설	52.1	61.5	30.8	63.7	61.2	58.3	43.8	**68.8**	63.5	**70.8**	39.3	29.5
아동 · 청소년 복지시설	51.3	61.5	29.4	65.7	52.3	59.2	46.3	**68.3**	61.8	**70.0**	31.5	35.1
장애인 복지시설	57.7	62.5	37.7	69.5	48.3	69.5	59.5	**71.5**	64.4	**80.4**	34.3	53.4
노인복지시설	65.2	62.2	54.8	**74.5**	56.5	73.5	66.8	77.2	61.5	**78.8**	49.5	68.5
지역복지시설	53.5	60.3	48.9	60.7	40.3	55.8	53.3	**62.5**	49.4	**67.3**	42.5	53.4
기타 사회복지시설	35.0	**47.8**	32.3	**44.3**	30.2	36.7	30.2	**50.3**	35.3	23.8	24.3	24.6

● 군·구별 주요 복지시설 이용 경험

- 영유아 복지시설 평균 이용 경험은 5.0%임. 가장 높은 지역은 계양구(9.8%), 서해구(6.8%), 부평구(6.2%), 미추홀구(6.0%)로 나타남. 반면 옹진군(1.6%), 동구(1.9%), 검단구(3.1%)는 낮은 수준임. 이는 도심 지역일수록 영유아 돌봄 시설 이용률이 높고, 도서·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줌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평균 이용 경험은 4.1%임. 중구(8.5%), 계양구(8.7%), 미추홀구(5.5%)가 높은 편임. 반면 부평구(0.7%), 검단구(1.2%), 동구(1.8%)는 매우 낮음
- 장애인 복지시설 평균 이용 경험은 4.3%임. 동구(8.9%), 미추홀구(7.3%), 남동구(4.8%)가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부평구(0.8%), 중구(1.2%), 검단구(1.5%)는 낮음
- 노인복지시설 평균 이용 경험은 6.7%로 전체 시설 중 가장 높음. 특히 미추홀구(13.2%), 옹진군(9.6%), 계양구(8.7%), 연수구(7.8%)가 높은 편임. 반면 검단구(1.2%), 부평구(2.2%)는 낮음
- 지역복지시설 평균 이용 경험은 9.1%로 모든 시설 중 가장 높음. 중구(18.5%), 연수구(14.5%), 계양구(10.8%), 미추홀구(10.5%)가 두드러짐. 반면 부평구(1.3%), 검단구(2.7%)는 낮음
- 기타 사회복지시설 평균 이용 경험은 4.9%임. 연수구(7.5%), 계양구(7.8%), 옹진군(6.1%), 미추홀구(6.5%)가 높은 편임. 반면 부평구(0.8%), 검단구(1.2%)는 낮음

[표 3-233] 군·구별 주요 복지시설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영유아 복지시설	5.0	4.8	1.9	6.0	5.8	3.3	6.2	**9.8**	**6.8**	3.1	5.7	1.6
아동 · 청소년 복지시설	4.1	**8.5**	1.8	5.5	2.8	3.7	0.7	**8.7**	5.0	1.2	3.5	2.5
장애인 복지시설	4.3	1.2	**8.9**	**7.3**	6.2	4.8	0.8	3.3	2.9	1.5	2.3	5.3
노인복지시설	6.7	6.3	6.0	**13.2**	7.8	5.5	2.2	**8.7**	4.1	1.2	5.2	9.6
지역복지시설	9.1	**18.5**	8.7	10.5	**14.5**	6.8	1.3	10.8	4.4	2.7	9.3	7.1
기타 사회복지시설	4.9	3.2	5.5	**6.5**	**7.5**	5.0	0.8	7.8	2.4	1.2	5.0	6.1

● 군·구별 주요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지역별 주요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는 연수구와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영유아 복지시설 평균 만족도는 4.0점으로, 연수구(4.2점), 부평구(4.2점)이며, 동구·계양구·옹진군(4.1점)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미추홀구(3.8점), 중구·검단구(3.9점)은 상대적으로 낮음.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평균 만족도는 3.9점으로, 연수구(4.4점), 계양구·강화군(4.1점), 검단구(4.0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부평구(3.5점), 동구(3.6점), 옹진군(3.6점)은 상대적으로 낮음
- 장애인 복지시설 평균 만족도는 3.9점으로 부평구(4.4점), 연수구·강화군(4.2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옹진군(3.4점), 서해구(3.5점)는 상대적으로 낮음
- 노인복지시설 평균 만족도는 3.8점으로, 계양구(4.3점), 연수구(4.2점), 남동구·강화군(4.0점)은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동구(3.1점), 검단구(3.3점), 옹진군(3.5점)은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복지시설 평균 만족도는 3.8점으로, 계양구(4.2점), 부평구(4.0점), 연수구·남동구·강화군(3.9점)은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동구(3.1점), 검단구(3.3점)는 상대적으로 낮음

[표 3-234] 군·구별 주요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영유아 복지시설	4.0	3.9	4.1	3.8	**4.2**	4.0	**4.2**	4.1	4.0	3.9	4.0	4.1
아동 · 청소년 복지시설	3.9	3.8	3.6	3.9	**4.4**	3.9	3.5	**4.1**	3.7	4.0	**4.1**	3.6
장애인 복지시설	3.9	4.0	3.9	3.9	**4.2**	3.9	**4.4**	3.9	3.5	3.8	**4.2**	3.4
노인복지시설	3.8	3.8	3.1	3.8	**4.2**	4.0	3.7	**4.3**	3.9	3.3	**4.0**	3.5
지역복지시설	3.8	3.7	3.1	3.8	3.9	3.9	**4.0**	**4.2**	3.8	3.3	3.9	3.6
기타 사회복지시설	3.8	3.7	3.1	3.6	**4.0**	**4.0**	**4.0**	**4.1**	3.8	3.3	**4.0**	3.6

● 군·구별 주요 복지시설 향후 이용 의향

- 영유아 복지시설 평균 향후 이용 의향은 7.8%임. 가장 높은 지역은 계양구(15.7%), 서해구(13.5%), 중구(11.0%), 연수구(10.8%)로 나타남. 반면 옹진군(2.8%), 동구(3.2%), 남동구(3.3%)는 낮음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평균은 12.1%임. 계양구(22.0%), 중구(17.8%), 강화군(15.8%), 서해구(15.3%)가 높은 편임. 반면 옹진군(4.9%), 동구(5.8%), 검단구(5.8%)는 낮음
- 장애인 복지시설 평균은 13.4%임. 동구(17.3%), 미추홀구(16.5%), 연수구(16.2%)가 높은 편임. 반면 중구(11.0%), 서해구(11.2%), 검단구(11.9%)는 낮음
- 노인복지시설 평균은 38.2%로 특히 옹진군(54.7%), 검단구(45.8%), 동구(44.8%), 연수구(41.5%)가 높은 편임. 반면 서해구(25.0%), 남동구(26.0%)는 낮음
- 지역복지시설 평균은 42.3%로 모든 시설 중 가장 높은 수준임. 검단구(58.1%), 중구(56.7%), 강화군(52.5%), 동구(49.2%), 옹진군(48.1%)이 두드러짐. 반면 남동구(24.7%), 부평구(29.0%), 서해구(31.8%)는 낮음
- 기타 사회복지시설 평균은 27.6%임. 검단구(43.5%), 강화군(35.2%), 동구(34.7%), 계양구(33.2%)가 높은 편임. 반면 부평구(16.2%), 남동구(18.2%)는 낮음

[표 3-235] 군·구별 주요 복지시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영유아 복지시설	7.8	11.0	3.2	7.8	10.8	3.3	6.8	**15.7**	**13.5**	3.5	7.5	2.8
아동 · 청소년 복지시설	12.1	**17.8**	5.8	14.2	14.3	8.0	7.7	**22.0**	15.3	5.8	15.8	4.9
장애인 복지시설	13.4	11.0	**17.3**	**16.5**	**16.2**	10.2	12.7	14.8	11.2	11.9	11.7	12.4
노인복지시설	38.2	34.2	44.8	40.2	41.5	26.0	37.2	34.7	25.0	**45.8**	33.8	**54.7**
지역복지시설	42.3	**56.7**	49.2	38.5	41.7	24.7	29.0	39.0	31.8	**58.1**	52.5	48.1
기타 사회복지시설	27.6	26.5	34.7	24.3	30.5	18.2	16.2	33.2	22.9	**43.5**	**35.2**	25.9

●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영유아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36.4%)임. 그 다음으로는 이용 시간이 맞지 않음(14.0%),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음(13.2%)이 주요 요인임. 즉, 자격 제한과 시간·공간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25.4%)임. 이어서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음(21.9%), 이용 시간이 맞지 않음(14.9%)이 뒤를 이음
-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음(30.0%)임. 이어서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25.3%), 이용 시간이 맞지 않음(10.8%)이 주요 요인임. 이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고, 자격 조건 또한 제약으로 작용함을 보여줌
-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음(28.9%)임. 다음으로 이용 시간이 맞지 않음(18.5%),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16.4%)이 뒤를 이음. 이는 노인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분포가 균형적이지 않아 접근성 문제가 두드러짐을 의미함
- 지역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음(34.2%)임. 이어서 이용 시간이 맞지 않음(24.4%), 동기·자신감 부족(6.8%)이 나타남. 이는 지역 기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접근성과 시간 제약이 크며, 일부는 개인적 요인으로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줌
-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음(26.4%)임. 이어서 이용 시간이 맞지 않음(18.5%), 함께 배울 친구가 없음(8.7%)이 뒤를 이음. 이는 기타 범주의 프로그램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연계되어 있어, 동반자 부재가 이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함

[표 3-236] 주요 복지시설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영유아 복지시설	129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6.4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14.0	가까운 곳에 서비스 이용시설이 없어서	13.2
아동 · 청소년 복지시설	201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5.4	가까운 곳에 서비스 이용시설이 없어서	21.9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14.9
장애인 복지시설	277	가까운 곳에 서비스 이용시설이 없어서	30.0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5.3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10.8
노인복지시설	519	가까운 곳에 서비스 이용시설이 없어서	28.9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18.5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16.4
지역복지시설	620	가까운 곳에 서비스 이용시설이 없어서	34.2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24.4	동기, 자신감 부족	6.8
기타 사회복지시설	276	가까운 곳에 서비스 이용시설이 없어서	26.4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18.5	함께 배울 친구가 없어서	8.7

* 응답비율 3순위 보기까지만 표로 제시, 해당없음 포함 100%

5. 생활 여건 및 지역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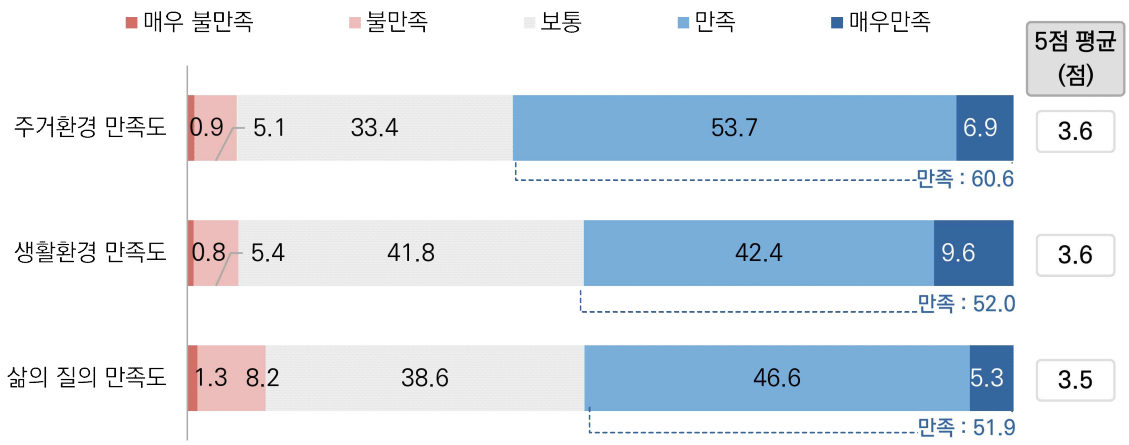
(1) 지역사회와 삶의 만족도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삶의 만족 수준을 5점 척도를 활용해 조사하였으며, 1점은 '매우 불만족', 5점은 '매우 만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됨
- 인천 시민의 지역사회 및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정주 여건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52.0%, '삶의 질에 만족한다' 51.9%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3-127] 지역사회와 삶의 만족도

(단위 : %)



[표 3-237] 지역사회와 삶의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평균 (점/5점)
주거환경 만족도	0.9	5.1	33.4	53.7	6.9	3.6
생활환경 만족도	0.8	5.4	41.8	42.4	9.6	3.6
삶의 질의 만족도	1.3	8.2	38.6	46.6	5.3	3.5

- 군·구별 지역사회와 삶의 만족도

- 지역별 지역사회와 삶의 만족도는 연수구와 계양구, 남동구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옹진군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주거환경 만족도는 남동구(3.8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연수구·계양구·검단구·강화군(각 3.7점)도 높은 편임. 반면 동구(3.4점), 중구·부평구(각 3.5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 생활환경 만족도는 연수구·남동구·계양구(각 3.7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부평구(3.4점), 옹진군(3.4점)은 가장 낮은 수준임. 대부분의 지역이 3.5~3.6점 사이에 분포하며,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대체로 안정적임
- 삶의 질 만족도는 연수구·계양구·강화군(각 3.7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동구(3.6점)도 높게 나타남. 반면 서해구·검단구(각 3.2점), 중구·부평구(각 3.3점)는 낮은 만족도를 기록함

[표 3-238] 군·구별 지역사회와 삶의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주거환경 만족도	3.6	3.5	3.4	3.6	**3.7**	**3.8**	3.5	**3.7**	3.6	**3.7**	**3.7**	3.6
생활환경 만족도	3.6	3.5	3.6	3.5	**3.7**	**3.7**	3.4	**3.7**	3.5	3.6	3.5	3.4
삶의 질의 만족도	3.5	3.3	3.5	3.4	**3.7**	**3.6**	3.3	**3.7**	3.2	3.2	**3.6**	3.5

● 군·구별 다른 군·구 대비 현재 거주지역 평가

- 다른 군·구와 비교했을 때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는 주거·생활·삶의 질 전반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반면 중구, 부평구, 서해구, 검단구, 옹진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보임
- 지역별 인천시 타 지역에 비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만족도는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는 3.7점으로 다른 군·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반면 부평구와 옹진군은 3.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생활환경 만족도는 연수구와 계양구가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동구도 3.6점으로 평균 이상임. 반면 서해구와 검단구는 3.2점으로 가장 낮았음
- 삶의 질 만족도는 연수구가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동구와 계양구도 3.6점으로 높은 수준임. 반면 중구는 3.2점으로 가장 낮았고, 서해구와 검단구도 3.4점으로 낮게 평가됨

[표 3-239] 군·구별 다른 군·구 대비 현재 거주지역 평가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주거환경 만족도	3.6	3.5	3.6	3.5	**3.7**	**3.7**	3.4	**3.7**	3.5	3.6	3.5	3.4
생활환경 만족도	3.6	3.3	3.5	3.4	**3.7**	3.6	3.3	**3.7**	3.2	3.2	3.6	3.5
삶의 질의 만족도	3.5	3.2	3.4	3.4	**3.7**	3.6	3.3	3.6	3.4	3.4	3.4	3.4

(2) 지역 간 불균형 심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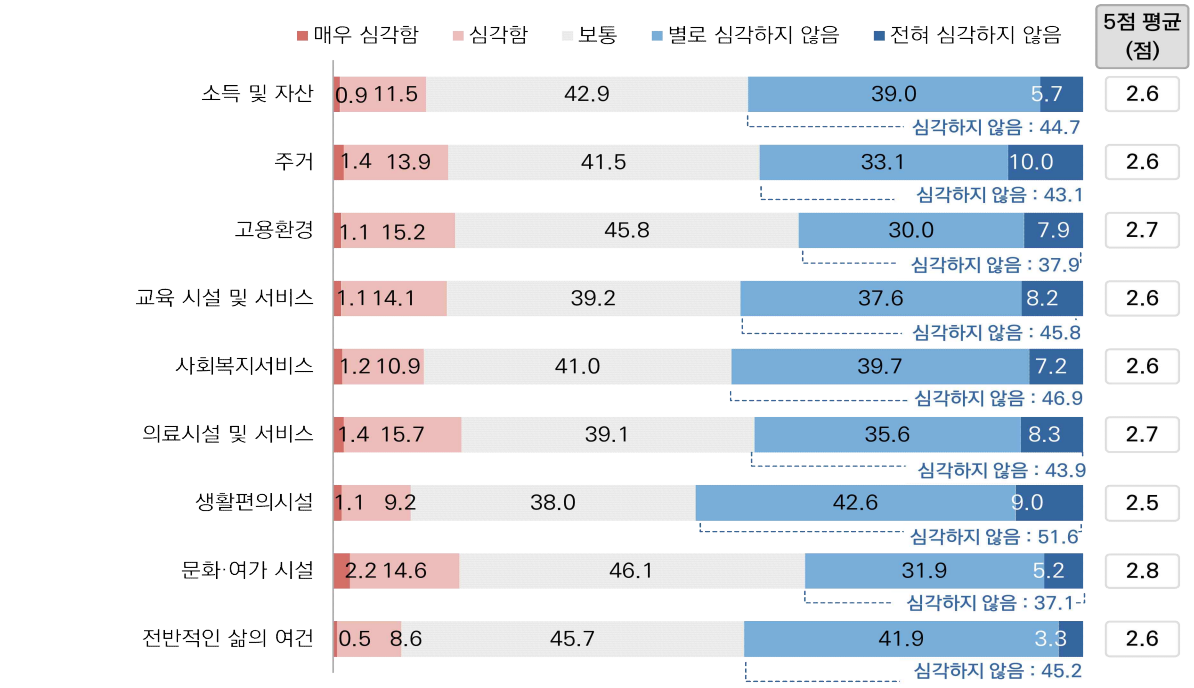
● 사회보장 관련 지역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는데, 1점은 '매우 심각함', 5점은 '전혀 심각하지 않음'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인천 시민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편이라고 인식은 '의료시설 및 서비스'1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여가 시설' 16.8%, '고용환경' 16.3%, '주거'15.3%, '교육시설 및 서비스' 15.2%, '소득 및 자산' 12.4%, '사회복지서비스' 12.1%, '생활편의시설' 10.3%, '전반적인 삶의 여건' 9.1% 순으로 나타남

- 4년 전(5기)에 비해 모든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했는데, 특히 생활편의시설, 교육, 삶의 여건 등에서 불균형이 완화되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8] 지역간 불균형 심각도

(단위 : %)



[표 3-240] 지역 간 불균형 심각도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매우 심각함	심각함	보통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소득 및 자산(지역 평균소득 대비 소득 수준)	0.9	11.5	42.9	39.0	5.7	2.6	3.2
주거 (주택상태, 주거 및 주변시설 낙후정도, 대중교통 편리성 등)	1.4	13.9	41.5	33.1	10.0	2.6	3.3
고용환경(일자리 수 및 질, 임금수준등)	1.1	15.2	45.8	30.0	7.9	2.7	3.2
교육 시설 및 서비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사설학원 등)	1.1	14.1	39.2	37.6	8.2	2.6	3.4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제공 서비스)	1.2	10.9	41.0	39.7	7.2	2.6	3.3
의료시설 및 서비스(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 등)	1.4	15.7	39.1	35.6	8.3	2.7	3.3
생활편의시설(마트,식당, 사우나, 미용실 등)	1.1	9.2	38.0	42.6	9.0	2.5	3.5
문화·여가 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 장 등)	2.2	14.6	46.1	31.9	5.2	2.8	3.2
전반적인 삶의 여건	0.5	8.6	45.7	41.9	3.3	2.6	3.4

- 군·구별 지역별 불균형 심각도
  - 지역 간 불균형 심각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다는 해석됨. 미추홀구, 동구, 검단구, 옹진군이 지역 간 불균형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지역이며, 이에 비해, 연수구, 남동구, 서해구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연수구는 소득(2.4점), 교육(2.4점), 삶의 여건(2.4점), 생활편의시설(2.4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불균형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지역 중 하나로 확인됨
  - 남동구 역시 소득(2.5점), 고용(2.5점), 교육(2.5점) 등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불균형 체감이 강한 지역임
  - 계양구는 생활편의시설(2.3점), 의료(2.4점), 사회복지(2.4점), 삶의 여건(2.4점)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생활 기반과 의료·삶의 질 격차를 크게 인식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 서해구는 의료(2.4점), 생활편의시설(2.4점)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생활 및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뚜렷하게 체감하고 있음
  - 반면 검단구는 의료(3.1점), 문화·여가(3.2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불균형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 강화군과 옹진군은 의료(3.0~3.1점), 문화·여가(2.9~3.0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에서 불균형 체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표 3-241] 군·구별 지역 간 불균형 심각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소득 및 자산	2.6	2.7	2.7	**2.8**	2.4	2.5	**2.8**	2.6	2.5	2.7	2.5	2.7
주거	2.6	2.5	2.7	**2.8**	2.5	2.6	2.5	2.6	2.6	2.6	2.6	**2.9**
고용환경	2.7	**2.9**	**2.8**	**2.8**	2.5	2.5	2.8	2.6	2.7	**2.8**	2.7	2.7
교육 시설 및 서비스	2.6	2.7	2.5	2.7	2.4	2.5	2.6	2.5	2.7	**2.9**	2.7	**2.9**
사회복지서비스	2.6	2.6	2.6	**2.7**	2.5	2.6	**2.7**	2.4	2.5	**2.7**	2.6	**2.7**
의료시설 및 서비스	2.7	2.5	2.6	2.6	2.5	2.6	2.6	2.4	2.4	3.1	**3.0**	**3.1**
생활편의시설	2.5	2.4	2.5	2.4	2.4	2.6	2.5	2.3	2.4	2.5	**2.8**	**2.7**
문화·여가 시설	2.8	2.7	2.7	**3.0**	2.5	2.7	2.9	2.4	2.6	**3.2**	2.9	**3.0**
전반적인 삶의 여건	2.6	**2.7**	**2.7**	**2.7**	2.4	2.6	**2.7**	2.4	2.6	**2.8**	2.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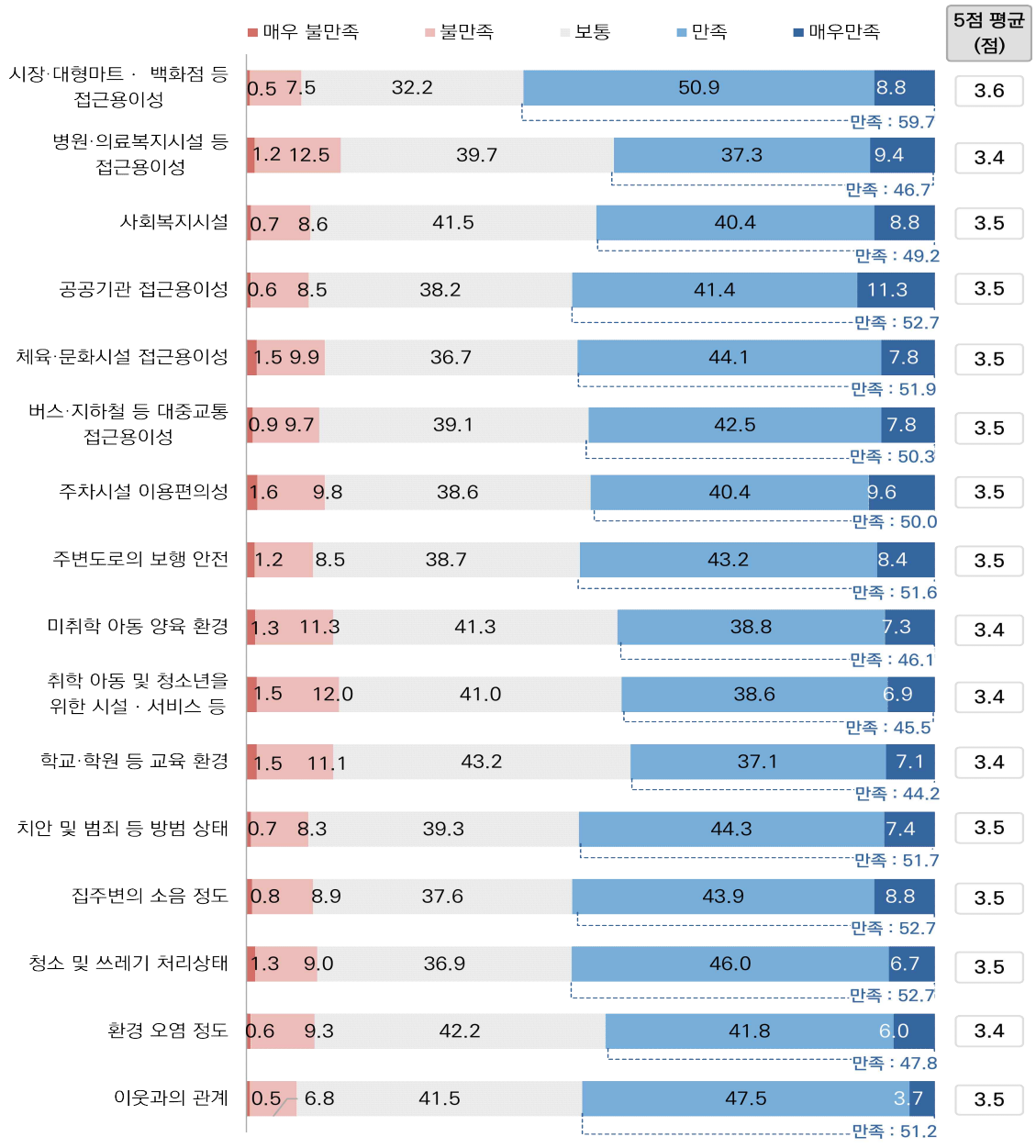
(3)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을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는데, 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 인천 시민의 거주 지역 환경 반족도는 생활편의시설, 공공기관, 대중교통, 치안, 청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시장·대형마트 접근성은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남. 반면, 의료복지시설 접근성과 교육·보육 관련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남. 따라서 의료 인프라와 교육·보육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 수행이 필요함

- '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 접근용이성'에 대한 만족수준은 5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공기관 접근 용이성'과 '집주변의 소음 정도',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가 각각 52.7%, ' 체육 · 문화시설 접근 용이성' 51.9%,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51.6%,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51.6%, '이웃과의 관계' 51.2%, '버스 ·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50.3%, '주차시설 이용 편의성' 50.0%, '사회복지시설' 49.2%, '환경 오염 정도' 46.7%, '병원 · 의료복지시설등 접근 용이성' 46.7%, '미취학 아동 양육 환경'46.1%,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 · 서비스 등' 45.5%, '학교 · 학원 등교육 환경' 44.2% 순임
- 사회복지시설과 환경오염, 의료시설의 접근성, 미취학 및 취학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시설, 교육 시설 등에 대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4년 전(5기)에 비해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환경오염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9]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

(단위 : %)



[표 3-242]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6기(n=6,058)						5기(n=6,290)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평균 (점/5점)	평균 (점/5점)
시장·대형마트 · 백화점 등 접근용이성	0.5	7.5	32.2	50.9	8.8	3.6	3.4
병원·의료복지시설 등 접근용이성	1.2	12.5	39.7	37.3	9.4	3.4	3.4
사회복지시설	0.7	8.6	41.5	40.4	8.8	3.5	3.4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0.6	8.5	38.2	41.4	11.3	3.5	3.5
체육·문화시설 접근용이성	1.5	9.9	36.7	44.1	7.8	3.5	3.5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0.9	9.7	39.1	42.5	7.8	3.5	3.5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1.6	9.8	38.6	40.4	9.6	3.5	3.4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1.2	8.5	38.7	43.2	8.4	3.5	3.5
미취학 아동 양육 환경	1.3	11.3	41.3	38.8	7.3	3.4	3.4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 · 서비스 등	1.5	12.0	41.0	38.6	6.9	3.4	3.4
학교·학원 등 교육 환경	1.5	11.1	43.2	37.1	7.1	3.4	3.4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0.7	8.3	39.3	44.3	7.4	3.5	3.4
집주변의 소음 정도	0.8	8.9	37.6	43.9	8.8	3.5	3.4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1.3	9.0	36.9	46.0	6.7	3.5	3.5
환경 오염 정도(대기, 수질, 토질 오염 등)	0.6	9.3	42.2	41.8	6.0	3.4	3.5
이웃과의 관계	0.5	6.8	41.5	47.5	3.7	3.5	3.5

● 군·구별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

- 지역별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는 계양구와 연수구, 서해구, 남동구, 부평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화군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계양구는 시장·대형마트 접근성(4.0점), 교육·보육(3.7점), 사회복지·공공기관(3.7점), 치안(3.7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높은 생활환경 만족도를 보이는 지역으로 나타남
- 연수구 역시 생활편의시설(3.9점), 교육·보육(3.6~3.7점), 대중교통(3.7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생활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됨
- 서해구는 의료복지시설(3.7점), 대중교통(3.6점), 치안(3.6점) 등에서 강점을 보이며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보임
- 중구·동구·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는 대부분 항목에서 3.3~3.6점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음. 다만 미추홀구 주차(3.1점), 남동구 의료(3.3점) 등 일부 항목은 낮아 개선 필요성이 있음
- 검단구는 소음(3.8점)과 청소(3.7점)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의료복지시설(3.0점), 교육·보육(3.1점) 등은 낮아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 강화군·옹진군은 시장·대형마트 접근성(3.2점, 3.4점), 의료복지시설(2.9점, 3.0점), 교육 환경(3.1점) 등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도서 지역의 생활환경 불균형이 확인됨. 그러나 이웃관계(3.7점, 3.6점), 소음 정도(3.7점), 보행 안전(3.7점) 등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표 3-243] 군·구별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 접근용이성	3.6	3.5	3.6	3.7	**3.9**	3.7	3.6	**4.0**	3.8	3.4	3.2	3.4
병원·의료복지시설 등 접근용이성	3.4	3.4	3.4	**3.6**	**3.6**	3.3	**3.6**	**3.7**	**3.7**	3.0	2.9	3.0
사회복지시설	3.5	3.4	3.5	3.4	**3.6**	3.4	3.4	**3.7**	3.5	3.3	3.5	3.5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3.5	**3.7**	3.4	3.5	**3.7**	3.4	**3.6**	**3.7**	3.5	3.4	3.5	**3.6**
체육·문화시설 접근용이성	3.5	3.5	3.5	3.3	**3.7**	3.5	3.5	**3.7**	**3.6**	3.3	3.3	3.4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3.5	3.3	3.5	3.5	**3.7**	3.5	**3.6**	**3.7**	3.6	3.3	3.3	3.3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3.5	3.5	3.3	3.1	**3.6**	3.5	3.3	**3.7**	3.5	3.3	3.6	**3.7**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3.5	3.4	3.4	3.3	**3.7**	3.4	3.4	**3.7**	3.5	3.4	3.5	**3.7**
미취학 아동 양육 환경	3.4	3.5	3.4	3.2	**3.7**	3.4	3.4	**3.7**	3.5	3.1	3.2	3.3
취학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서비스 등	3.4	3.4	3.4	3.2	**3.7**	3.3	3.3	**3.7**	3.5	3.1	3.2	3.2
학교·학원 등 교육 환경	3.4	3.3	3.4	3.3	**3.6**	3.4	3.4	**3.7**	3.5	3.4	3.1	3.1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3.5	3.5	3.4	3.4	**3.6**	3.3	3.5	**3.7**	3.6	3.5	3.5	3.5
집주변의 소음 정도	3.5	3.4	3.5	3.4	3.6	3.3	3.3	**3.7**	3.5	**3.8**	3.7	**3.7**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3.5	3.4	3.4	3.3	**3.6**	3.3	3.4	**3.7**	3.5	**3.7**	3.5	**3.6**
환경 오염 정도 (대기, 수질, 토질 오염 등)	3.4	3.4	3.4	3.2	3.5	3.3	3.3	**3.7**	3.5	3.5	3.5	**3.6**
이웃과의 관계	3.5	3.5	3.2	3.4	3.4	3.4	3.4	**3.7**	3.4	**3.6**	**3.7**	**3.6**

(4) 임신/출산 경험

- 거주지역 생활 여건과 관련하여 응답가구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2.3%가 최근 3년 내 가구원 중 임신이나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수구(6.3%), 남동구(4.2%), 부평구(3.3%), 강화군(2.8%), 계양구(2.7%)에서 임신과 출산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반면 검단구(0.4%), 서해구(0.6%), 옹진군(0.5%), 중구·동구(각 0.8%)는 경험률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음

-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2%가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함.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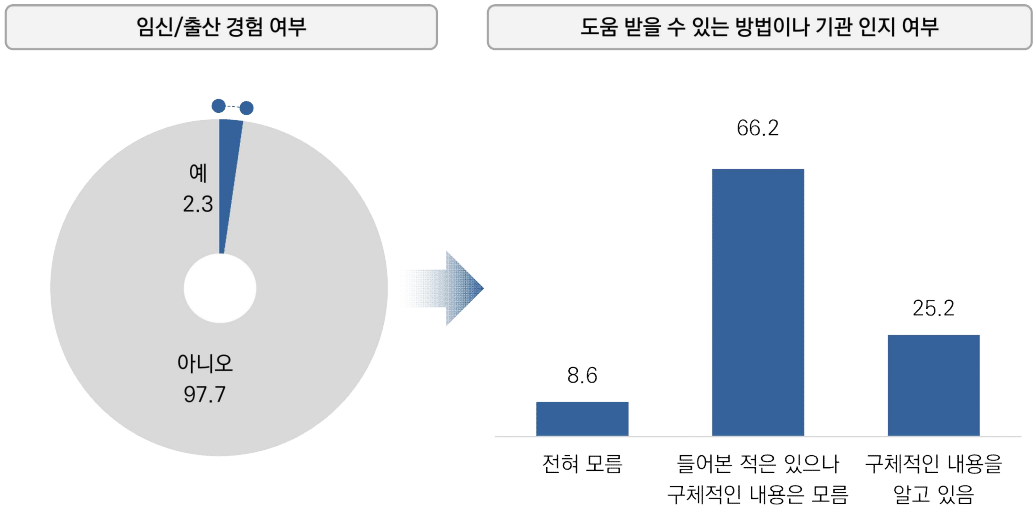
-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이 66.2%,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은 25.2%, '전혀 모름'은 8.6%로 나타남. 이는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줌

- 강화군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응답이 52.9%로 가장 높아, 실제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 그 외에도 중구(40.0%), 옹진군(33.3%), 남동구(32.0%), 연수구(26.3%), 계양구(25.0%)도 구체적 임신과 출산 도움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

- 반면 검단구는 '전혀 모름' 100.0%, 서해구·동구(100.0%)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이 100%로 나타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3-130] 임신/출산 경험

(단위 : %)



[표 3-244] 임신/출산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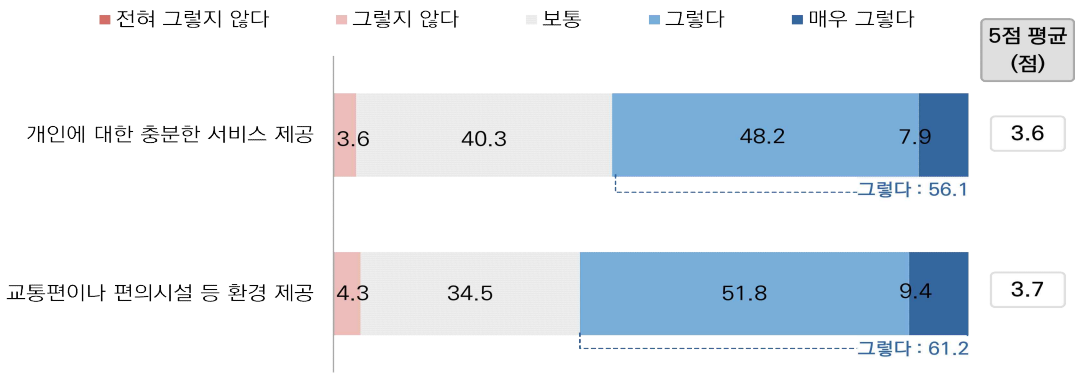
구분	임신/출산 경험 여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 인지 여부			
	사례수	예	아니오	사례수	전혀 모름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전체	6,058	2.3	97.7	139	8.6	66.2	25.2
중구	600	0.8	99.2	5	20.0	40.0	40.0
동구	620	0.8	99.2	5	0.0	100.0	0.0
미추홀구	600	1.2	98.8	7	14.3	71.4	14.3
연수구	600	6.3	93.7	38	5.3	68.4	26.3
남동구	600	4.2	95.8	25	8.0	60.0	32.0
부평구	600	3.3	96.7	20	15.0	85.0	0.0
계양구	600	2.7	97.3	16	6.3	68.8	25.0
서해구	340	0.6	99.4	2	0.0	100.0	0.0
검단구	260	0.4	99.6	1	100.0	0.0	0.0
강화군	600	2.8	97.2	17	5.9	41.2	52.9
옹진군	638	0.5	99.5	3	0.0	66.7	33.3

● 거주지역의 임신·출산 서비스 및 환경 만족도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그렇다가 56.1%로 나타났으며, '교통이나 편의시설 등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이 61.2%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반해, 임신 및 출산 서비스와 환경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5% 미만으로 나타남. 이는 임신과 출산 서비스에 대한 환경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짐

[그림 3-131] 임신/출산 여건

(단위 : %)



[표 3-245] 임신/출산 여건

(단위 : 명, %)

구분	6기(n=139)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개인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	-	3.6	40.3	48.2	7.9	3.6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 환경 제공	-	4.3	34.5	51.8	9.4	3.7

- 군·구별 거주지역의 임신·출산 서비스 및 환경 만족도

- 지역별 임신 · 출산 서비스 및 환경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남동구와 부평구로 나타났으며, '개인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 된다'는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동구, 검단구, 옹진군, 강화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는 연수구, 서해구, 강화군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중구, 동구, 계양구, 검단구, 옹진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46] 군·구별 임신/출산 여건

(단위 : 점)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개인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	3.6	3.8	2.8	3.6	3.7	**3.8**	**3.7**	3.4	3.5	2.0	3.5	3.3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 환경 제공	3.7	3.2	3.0	3.7	3.8	3.7	3.7	3.5	**4.0**	2.0	**3.9**	3.3

제2절 인천시 10개 군·구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결과

-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인천시 지자체별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 일선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한 결과를 10개 군·구 공통점과 지역별 차이를 구분하여 제시

1. 지역특성 및 현안 인식

- 지역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현안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원도심과 구도심간의 공간 구조적 측면과 1인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 핵심적인 위험대상 및 사각지대의 대응 필요성 등이 제시됨

- 공간적 측면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으며, 인구구조는 고령화와 중장년이나 청년 등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위험집단이 형성됨. 이들의 핵심적인 위험으로는 고독사와 고립·은둔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계층이라는 인식이 높음
- 새로운 위험집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복지시스템의 한계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의 필요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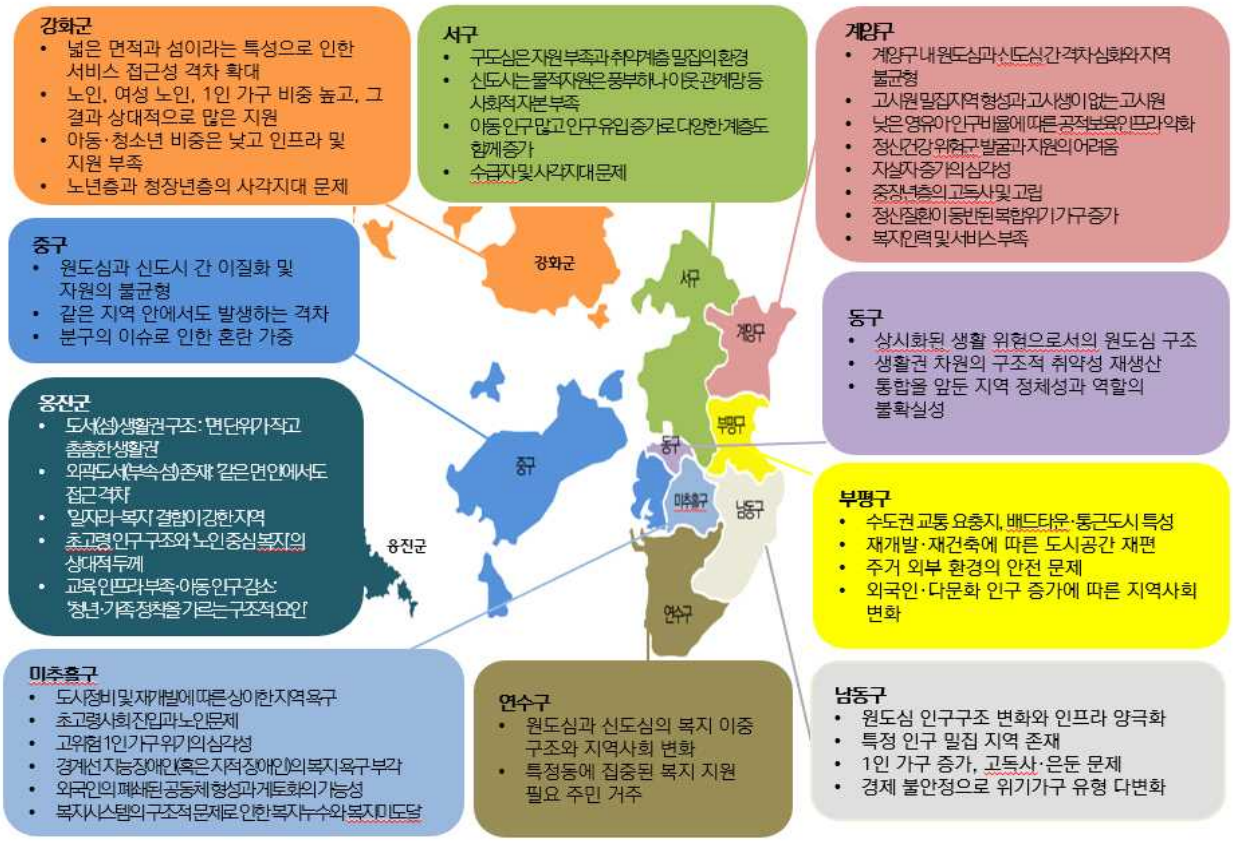
[표 3-247] 10개 군·구 공통적으로 나타난 지역 특성 및 현안 인식

구분	세부 내용
원도심-신도심 간 격차의 구조화	• 중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해구 등 다수 지역에서 원도심의 쇠퇴 문제 심화 ↔ 신도심의 기반시설 부족 이중구조가 공통적으로 확인됨 • 동일 자치구 내에서도 주거환경, 복지 접근성, 생활 인프라의 체감 격차가 확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증가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중장년 단독가구 확대가 전반적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고독사, 은둔·고립, 돌봄 공백 문제가 다수 지역에서 핵심 현안으로 인식됨
취약계층의 공간적 집중과 복합위기화	• 원도심 중심으로 노인, 1인가구, 정신건강 위험군, 저소득 위기가구의 집중화 • 경제·건강·주거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가구 증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남
복지사각지대 및 전달체계의 한계	• 복지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복지인력 부족, 서비스 접근성 한계,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로, 기존의 복지시스템의 대응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됨

- 인천시 10개 군·구별 지역의 특성과 지금 당면한 현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150]과 같음

- 부평구는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라는 특성으로 배드타운 및 통근도시가 갖는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구와 동구, 서구는 202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원도심과 신도심 간 등 공간적 구조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었음
- 부평구와 미추홀구는 다문화가구의 증가에 따른 관심이 필요하며, 계양구와 옹진군은 아동 감소에 대한 대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계양구는 정신건강과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노동인구 감소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그림 3-132] 인천시 10개 군구 지역 특성 및 현안 인식



2. 사회보장욕구 및 현안에 대한 실천, 대응

- 10개 군·구의 사회보장욕구 및 현안에 대한 실천과 이에 대한 대응 등을 살펴본 결과 공동점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이나 예산, 정책으로는 지속적이고 통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이 제시됨

[표 3-248] 10개 군·구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회보장 욕구 및 현안에 대한 실천, 대응

구분	세부 내용
사각지대 구조적 확대	• 법·제도 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경계성 장애인, 비등록·미등록 대상, 차상위·탈락 가구 등)이 모든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됨 • 단순 소득 기준 중심의 제도로는 복합적·위기적 삶의 조건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인식 공유
정신건강 · 돌봄 · 경제 · 주거 등 복합 욕구의 동시 발생	• 정신건강 문제, 중독, 저장강박, 고립, 경제적 위기 등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중첩된 위험이 나타남 • 단일서비스 및 개별 사업중심의 대응 한계가 공통적으로 제기
사각지대 발굴의 어려움과 인적 자원 의존	• 위기가구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읍면동 인력, 민간활동가, 자원봉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체계화 · 지속성 부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
지역간 복지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 격차	• 광역 내에서도 생활권 · 이동권 · 시설접근성 차이로 서비스 불균형 발생 • 특히 도서지역의 고령화가 두드러짐
민관협력의 필요성 공감하지만 한계 인식	• 민관협력, 협의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예산부족, 역할중복, 실무자 역량 차이, 단기사업 중심의 한계가 반복됨

- 차이점으로는 도심이나 외곽, 신도심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정신건강이나 고립, 제도에 대한 접근성, 외국인이나 다문화, 아동 · 청소년, 노인, 인트라 등 우선해서 실행해야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133] 인천시 10개 군·구 사회보장 욕구 및 현안에 대한 실천, 대응



3. 민관협력 기반 복지전달체계 운영방식과 한계

- 읍·면·동협의체와 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 간의 역할과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조사 결과 공통점을 5가지로 구분할 수있음

[표 3-249] 10개 군·구 공통적으로 나타난 민관협력 기반 복지전달체계 운영방식과 한계

구분	세부 내용
협의체 역할 및 정체성의 구조적 한계	• 다수 지역에서 동협의체와 군구 협의체의역할 구분 불명확 • 협의체가 논의 및 자문 기구인지, 현장 실행 주체인지에 대한 공통된 기준 미흡 • 동협의체와 군구 협의체 간 활동 범위가 축소되거나 형식화 되는 문제
행정 주도 구조 속 민간 주체성 약화	• 행정 중심 운영, 즉 공무원 주도 회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제기됨 • 민간 위원이 참여하지만 의사결정 및 기획 주체로 기능하지 못함 • 수직적 민·관 협력 구조가 협업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인력·예산·공간 등 운영 기반의 취약성	• 읍면동 협의체 전담인력의 부재 및 안정적 예산 미확보, 활동공간 부족 등의 한계가 협의체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 저하의 주요 요인
공무원소진과 협업 여력의 한계	• 동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 • 협의체 지원·연계가 등을 추가 업무로 인식 • 적극적 협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

- 민관협력 기반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이는 개별지역보다는 중구와 동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은 행정구역 개편과 원도심과 구도심 등 도심 중심형지역과 미추홀구와 부평구, 연수구는 생활권 밀착형 지역, 강화군과 옹진군은 군 지역 특성을 보임

[표 3-250] 지역별 차별화된 민관협력 기반 복지전달체계 운영방식과 한계

지역	세부 내용
중구와 동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	• 행정 주도, 형식화된 협의 • 민관협력은 있으나 실질적인 협업 체계는 약함 • 협의체 기능의 중복과 논의의 실효성 부족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 협의체를 '지역복지 공동체'로 인식 • 사각지대 발굴, 관계형 돌봄 기능 강조 • 현장활동 의지는 높으나 제도적 뒷받침 부족
강화군, 옹진군	• 인구·자원 규모가 작아 협의체 정체성이 약함 • 공공 주도형 구조가 불가피함 • 지역 특성상 생활기반 발굴이 강점으로 작용

- 10개 군·구의 민관협력 기반 복지전달체계 운영방식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협의체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 정립이 필요하며, 둘째, 민간 주체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전담인력·예산 등 운영기반을위한 구조적 지원, 넷째, 군·구 유형별 맞춤형 협의체 운영 전략 수립 지원이 필요할 것임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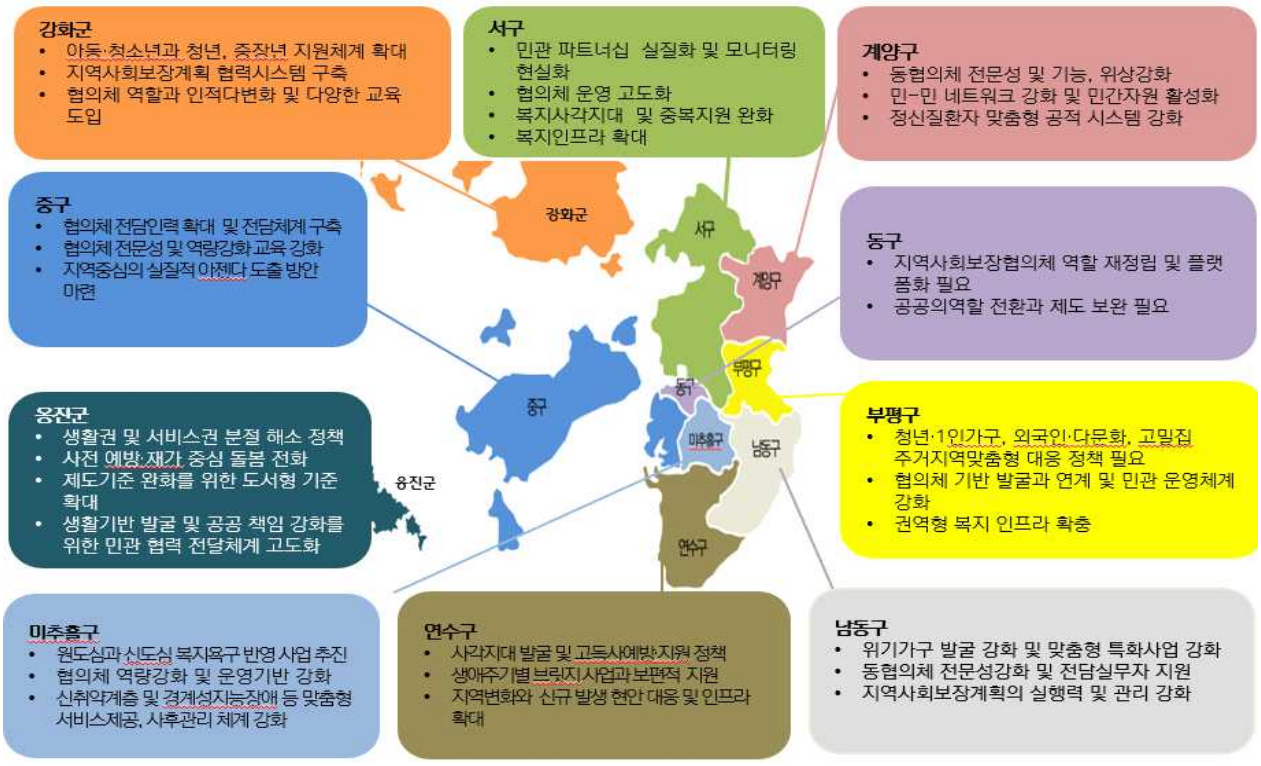
- 10개 군·구 면접 대상별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협의체 역량강화 및 전달체계 실질화, 신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및 실행력 강화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251] 10개 군·구 공통적으로 나타난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방안

구분	세부 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역량 강화 필요	• 협의체의가 단순히 회의나 자문 등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지역복지 전략 플랫폼으로 전환 필요 • 사무국 기능 강화 및 전담인력 확보, 독립적 운영 기반 조정 필요 • 동(洞)협의체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 필요
민 · 관 협력 및 전달체계 실질화 필요	• 위기가구 발굴에서 연계, 사후관리까지의 통합체계 강화 • 민간자원 연계의 책임성과 지속성 강화 • 공공의 책임 강화 및 역할 재정립 필요
복지사각지대 및 복합위험군 대응 강화	• 기존 제도에서 포착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고독사 위험군,1인가구, 정신건강 위기군, 경계선 지능장애, 다문화 · 외국인 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 강화	• 계획 수립 중심에서 이행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실제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강화 • 계획과 예산 및 조직의 연계 강화

- 10개 군·구 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그림 3-152]와 같음

[그림 3-134] 10개 군·구별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방안



제4장

제6기(2027~2030) 인천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보고서

인천시 사회보장조사 주요 특성 및 시사점

제4장 인천시 사회보장조사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 인천시 복지 수요 주요 특성

□ 행·재정 환경 및 복지 예산 현황

- 인천광역시는 지리적으로 168개의 섬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확대될 예정임
- 인천시는 주민등록인구 증가로 인해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행정인력 부담이 증가하는 지역이며, 2024년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16명으로, 서울(509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인천시 군·구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보면, 서구(443명)와 연수구(426명)가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2020년 대비 2024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증가율은 중구(12.8%)가 가장 높았음
- 2025년 특별·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8.6%이며, 서울(73.6%), 세종(54.3%), 인천(49.2%) 순이었음.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 54.0%에서 2025년 49.2%로 −4.8%p 감소함
  - 2025년 인천시 군·구별 재정자립도는 중구(42.1%)가 가장 높았고, 옹진군(10.1%)이 가장 낮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2025년 재정자립도 증감률을 보면, 옹진군(20.2%), 동구(11.3%)와 중구(8.2%)의 재정자립도가 증가하였으며, 남동구(-17.6%), 서구(-11.3%), 계양구(-8.8%), 부평구(-5.4%), 강화군(-4.0%), 미추홀구(-3.6%), 연수구(-1.3%)의 재정자립도는 감소함
-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9.7%에서 2025년 45.7%로 6.0%p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인천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총 5조 1,196억 원 규모임
  - 2025년 인천시의 분야별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37.4%)와 보육(22.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22년 대비 2025년 주택 예산은 86.6% 증가하여,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임
  - 2025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9,511억 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18.6%를 차지하였으나, 2024년 예산액(9,673억 원) 및 점유비(20.0%)보다 감소한 수치임. 2024년 대비 2025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분야 예산도 감소함

□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 인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으로, 인구 300만 명(2025년 9월 기준 3,046,754명) 시대를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이지만, 지역별 인구 증감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2025년 인구 증가율을 보면, 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중구(25.0%), 서구(19.7%), 연수구(5.3%)의 인구는 증가함. 동구(-9.2%), 남동구(-8.4%)와 계양구(-6.4%)는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임
- 인천시 주민의 평균연령은 44.8세로, 전국 평균(45.8세)보다 1살 낮은 수준임. 2020년 대비 2025년 인천시의 노년 부양비 증가율은 38.4%로, 전국 평균(32.8%)보다 5.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인천시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인천시 군·구별 주민의 평균연령은 강화군 55.8세, 옹진군 54.1세, 동구 50.0세로 나타나,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연령(45.8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 지역임을 확인함

- 2020년 대비 2025년 인천시 군·구별 평균연령 증가율을 보면, 남동구(9.3%)와 계양구(9.1%)의 주민 평균연령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인천시 군·구별 고령인구 비율은 큰 차이가 있음. 2025년 10월 기준 강화군(40.3%), 옹진군(35.7%), 동구(28.5%), 미추홀구(21.2%), 남동구(20.1%), 부평구(20.0%)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연수구(13.8%)는 고령화사회에 해당함
- 인천시는 '젊은 도시'이기 보다는 '빠르게 늙는 도시'이므로, 향후 5~10년 내 돌봄·의료·이동 지원 수요가 급증할 수 있음

● 인천시의 합계출생률은 2023년 대비 2024년 9.8% 증가하였으며, 1인 가구의 비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점차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2024년 기준 인천시 군·구별 합계출생률은 옹진군(-8.4%)과 동구(-5.8%)를 제외하고 8개 군·구에서 전년 대비 합계출생률이 증가하였음. 부평구(15.9%), 미추홀구(14.3%), 연수구(10.5%), 중구(10.3%) 순의로 합계출생률이 증가함
- 2024년 기준 인천시 1인 가구 비율은 32.5%이며, 군·구별로 1인 가구 비율의 편차가 큼.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옹진군(48.5%), 중구(41.7%), 미추홀구(37.2%)였으며,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지역은 연수구(26.3%)와 서구(28.4%)였음

● 2023년 대비 2024년 다문화 가구 증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5.7%)보다 인천시 평균(8.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2024년 인천시 군·구별 다문화 가구 증가율은 중구(11.2%)가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10.8%), 옹진군(10.8%), 부평구(9.7%), 연수구(9.3%), 서구(7.6%) 순이었음

□ 취약계층 현황 및 주요 사회지표

● 2024년 기준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6.10%이며, 차상위 수급자 비율은 2.20%임

- 인천시 군·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남동구(7.79%)가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7.47%), 계양구(6.88%)로 순으로 나타남. 연수구(3.32%)와 옹진군(3.54%)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인천시 군·구별 차상위 수급자 비율은 미추홀구(2.82%)가 가장 높았고, 남동구(2.80%), 옹진군(2.72%) 순이었음. 연수구(1.06%)와 중구(1.73%)는 차상위 수급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2024년 기준 인천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이며, 2020년 대비 2024년 등록장애인 증가율은 4.4%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인천시 군·구별 등록장애인 수는 부평구가 27,3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 26,776명, 서구 26,420명, 미추홀구 23,906명 순이었음. 부평구, 남동구와 서구는 등록장애인 수가 2만 명을 초과함에 따라 장애인복지 인프라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2020년 대비 2024년 인천시 군·구별 등록장애인 증가율은 중구(14.4%)와 서구(12.7%)가 높게 나타남

● 인천시의 고용과 노동 환경을 보면, 2024년 기준 인천시의 고용률은 63.5%, 전체 실업률 3.3%, 청년 실업률 7.2%, 경력단절 여성 비율 17.8%로 나타남

- 2024년 전국 평균 고용률은 62.7%이며, 특별·광역시 고용률을 비교했을 때 세종(65.2%)과 인천(63.5%)이 상위권을 차지함
- 2024년 전국 평균 실업률(2.8%)보다 인천시의 평균 실업률(3.3%)이 0.5%p 높았고, 2024년 전국 평균

청년실업률(5.9%)보다 인천시의 청년실업률(7.2%)이 1.3%p 높았음

- 2024년 특별·광역시 경력단절 여성 비율을 보면, 인천시는 17.76%로 세종(19.48%), 대구(18.91%), 울산(18.89%) 다음으로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높았음

● 2024년 인천시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31.2명으로 전국 평균(29.1명)보다 2.1명 많았으며, 인천시 남성 자살률은 45.9명으로 전국 평균(41.8명)보다 높았음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자살률을 보면, 미추홀구(37.4명), 남동구(35.8명), 계양구(33.0명) 순이었음

● 2024년 특별·광역시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을 비교했을 때 인천시(45.1%)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인천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강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을 보면, 동구(39.3%)와 남동구(39.7%)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인천시의 주거와 환경을 보면, 인천시 노후주택 비율은 30.1%로 전국 평균(28.0%)보다 높았고, 인천시 평균 빈집 비율은 7.4%로 전국 평균(8.0%)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음. 인천시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4kg/일로 전국 평균(1.2kg/일)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노후주택 비율은 계양구(40.3%), 동구(36.8%), 부평구(36.7%), 미추홀구(34.2%), 강화군(34.0%), 남동구(3.13%) 순이었음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빈집 비율은 강화군(18.3%)이 가장 많았고, 옹진군(13.0%), 중구(10.5%), 동구(10.1%)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미추홀구(3.0kg/일)가 가장 많았고, 중구(2.2kg/일), 동구(2.2kg/일), 옹진군(2.2kg/일), 강화군(1.5kg/일) 순이었음

● 인천시 군·구별 특성을 보면, 연수구와 서구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동구와 미추홀구는 중·고령층이 밀집되어 있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고령인구 비율과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강화군과 옹진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으므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청·장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인천시의 총 부양비는 2020년 대비 2025년 16.5% 증가하여 전국 평균(14.0%)보다 높았음

- 인천시의 총 부양비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복지,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인천시는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하는 역동적인 도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복지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시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년 부양비 증가하고 있음

- 2025년 10월 기준 인천시 내 6개 군·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므로, 보건 인프라 확대가 더욱 중요해짐

□ 지역복지 인프라 현황

● 인천시는 2025년 1월 기준 종합사회복지관 21개소를 운영 중임

- 인구 10만 명당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설치 기준을 적용하면, 인천시는 최소 3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9개소 이상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족함

- 2025년 1월 기준 종합사회복지관은 남동구(5개소), 연수구(4개소), 미추홀구(3개소), 부평구(3개소), 동구(2개소) 순으로 위치함. 강화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으며, 서구와 계양구는 각 1개소만 있어서 주민등록인구 대비 종합사회복지관 수가 부족한 실정임. 중구는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복지 인프라 격차가 크므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균형적 확충이 필요함
- 인천시 10개 군·구에 자원봉사센터는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사회복지협의회는 서구를 제외하고 9개 군·구에 설치되어 있고, 지역자활센터와 푸드뱅크·푸드마켓은 옹진군을 제외하고 9개 군·구에 설치되어 있음

● 2025년 1월 기준 인천시 내 노인복지시설은 총 102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설 유형은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보호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분류됨. 인천시 군·구별로 노인인구 규모와 노인복지시설 분포 간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남

-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와 미추홀구는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음. 계양구와 강화군은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 밀도가 높은 편임

● 2025년 7월 기준 인천시 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29개소 운영 중이며, 시설 유형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17가지로 구분됨. 인천시 군·구별로 장애인복지시설 개소수 편차가 매우 커서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부평구, 남동구, 서구는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집중도가 높은 편이나,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장애인복지관, 자립주택, 주간보호시설 등이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음
- 옹진군은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2024년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를 보면, 인천시(16.0개소)는 전국 평균(17.3개)보다 적었으며, 군·구별 보육시설 개소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2024년 인천시 군·구별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옹진군(24.1%)과 남동구(20.1%)의 증가율이 높았고, 부평구(-6.6%), 중구(-6.5%), 서구(-5.2%), 계양구(-4.1%)의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감소함
- 2024년 운영 주체별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가정, 협동, 직장 등 민간의 비율이 전국(70.1%)보다 인천시(75.8%)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옹진군(81.8%)과 강화군(50.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사회복지 및 법인/단체 비율은 강화군(8.3%)에서 인천시 평균(1.3%)보다 많았음. 인천시 군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중심, 도심지역은 민간 어린이집 중심의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0년 대비 2024년 유치원 원아 현황을 보면, 전국(-18.6%)보다 인천시(-10.1%)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저출생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천시 내에서 서구(12.7%)와 연수구(6.3%)만 유치원 원아 수가 2020년 대비 2024년에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보임

● 2025년 1월 기준 인천시 내 아동복지시설은 총 287개소로, 유형별로 보면 지역아동센터(178개소)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함께돌봄센터(40개소), 공동육아나눔터(21개소) 순이었음

- 인천시 내 아동복지시설은 남동구(59개소), 서구(52개소)와 부평구(46개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옹진군(2개소), 강화군(13개소), 동구(13개소), 중구(13개소)는 아동복지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 아동상담소(4개소), 아동일시보호시설(1개소), 입양기관(2개소)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전문시설 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위기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취약한 상황임

● 2024년 4월 기준 인천시 내 청소년복지시설은 총 32개소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

- 옹진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청소년복지 시설이 0개소로 나타나, 옹진군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청소년 복지시설 접근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25년 기준 인천시 여성 및 가족 관련 시설 현황을 보면, 가족센터는 10개 군·구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어 있으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여성보호시설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

- 2025년 군·구별 현황을 보면, 동구, 강화군, 옹진군에는 가족센터 1개소, 계양구와 서구에는 가족센터 1개소와 여성보호시설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주민은 여성 및 가족 관련 서비스 접근성이 낮았음
- 예를 들어, 이주여성폭력피해상담/보호시설은 남동구 1개소, 성매매피해 여상상담/보호시설은 미추홀구 2개소, 성폭력피해 여성상담/보호시설 남동구 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어, 관련 피해 발생 시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접근성 및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 · 의료 시설 및 인력 현황

● 2023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국(13.8개)보다 인천시(11.9개)가 적었으며, 군·구별로 보면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강화군의 의료기관 병상 수는 상대적으로 많았고, 옹진군, 연수구와 부평구의 의료기관 병상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 2019년 대비 2023년 인천시 군·구별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증감률을 보면, 계양구(19.2%), 옹진군(16.7%), 남동구(14.4%)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중구(-15.1%), 부평구(-13.1%), 동구(-7.3%) 순으로 감소함
- 2024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는 전국 평균(3.2명)보다 인천시(2.7명)가 적었으며, 군·구별로 보면 남동구(3.5명)와 중구(3.3명)만 전국 평균보다 많았고, 강화군(1.9명), 연수구(2.3명), 서구(2.3명), 미추홀구(2.6명)는 인천시 평균보다 적었음
- 미충족 의료율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2024년 인천시 미충족 의료율은 5.9%이며, 옹진군(19.0%), 미추홀구(8.9%), 서구(8.1%), 중구(7.6%), 강화군(6.7%)의 미충족 의료율이 인천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2024년 미충족 의료율 증가율을 보면, 중구(111.1%)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됨. 동구(-51.6%), 계양구(-49.4%), 부평구(-42.5%)와 연수구(-37.5%)는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었음

□ 교육 및 평생교육 시설 현황

● 2020년 대비 2024년 초등학생 현황을 보면, 전국(-7.4%)보다 인천시(-3.9%)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20년 대비 2024년 재적 학생 현황도 전국은 7.1% 감소하였으나, 인천시는 0.5% 증가함

- 교육 환경에 측면에서, 2024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13.9명)보다 인천시(14.3명)가 많았음. 인천시 군·구별로 보면, 서구(18.8명)가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16.3명), 동구(16.2명), 계양구(14.3명) 순이었음. 옹진군(4.1명)과 강화군(7.5명)은 도서지역 특성상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었음
- 2024년 인구 1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는 인천시 평균 0.804개였으며, 연수구(1.274개), 동구(1.201개)의 평생교육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옹진군에는 평생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인천시 평균 1,782원이고, 군·구별로 보면 강화군(38,104원)과 동구(32,201원)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남동구(752원), 부평구(817원), 미추홀구(842원)의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문화·여가 및 주거 환경 시설 현황

- 2023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를 보면, 인천시(4.4개)는 전국 평균(6.4개)보다 적었음
  - 인천시 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를 보면, 옹진군(19.6개), 강화군(17.4개), 동구(11.8개), 중구(11.3개)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남동구(2.4개), 서구(2.4개), 부평구(2.6개)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 2024년 노후주택 비율은 전국(28.0%)보다 인천시(30.1%)가 많았으며, 2024년 빈집 비율은 전국(8.0%)보다 인천시(7.4%)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노후주택 비율은 계양구(40.3%), 동구(36.8%), 부평구(36.7%), 미추홀구(34.2%), 강화군(34.0%) 순이었고, 중구(16.3%)와 서구(18.4%)의 노후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2024년 인천시 군·구별 빈집 비율은 강화군(18.3%), 옹진군(13.0%), 중구(10.5%), 동구(10.1%) 순이었고, 연수구(5.0%), 서구(6.4%)와 부평구(6.8%)의 빈집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인천시 지역별 특성을 보면, 서구와 연수구 등 신도시 개발지역의 교육 및 아동 관련 인프라 수요가 높음. 강화군, 옹진군, 동구와 미추홀구는 인구 고령화와 주거 노후화에 따른 복지 시설 확충이 필요함. 의료와 평생교육 분야에서 도서지역의 인프라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2. 군·구별 주민 욕구 조사 주요 결과

1)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조사 개요 및 가구 특성

- 조사 대상은 인천시 거주자이며, 표집은 인천시 10개 군·구별 600가구 이상으로 총 6,058가구 조사를 완료함. 일반가구는 3,550가구, 아동·청소년 포함 가구 1,079가구, 노인 포함 가구 2,271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1,148가구, 저소득 가구 1,305가구, 1인 가구 1,623가구, 다문화 가구 504가구를 분석함
- 응답 가구의 인구 · 사회적 특성을 보면,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인 비율이 여성인 비율보다 51.0%p 많았으며, 가구주의 연령대가 장년층(50~64세)인 비율 36.2%, 초기노인(65~74세)인 비율 26.7%였고, 29세 이하 비율은 1.7%로 가장 낮았음. 거주기간은 평균 21.5년이었으며,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비율 45.5%, 아파트 이외 다가구 비율 32.6%, 일반주택 비율 19.9%로 나타남. 응답 가구 중 맞벌이를 하는 가구는 31.6%로, 2024년 전국 평균(48.0%)보다 낮은 수준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상용근로자(41.0%)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20.6%)와 임시/일용근로자(15.7%)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가구 소득수준은 3분위(31.7%)인 중간 소득계층의 비중이 높았고, 2분위(28.6%), 4분위(20.2%), 1분위(13.2%) 순이었음
- 응답 가구의 가구원 특성을 보면,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9.2%,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5.7%였음

□ 인천시 지역별 공통적인 특성 주요 욕구

- 인천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으며, 특히 향후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건강검진(44.8%)이 높게 나타남. 이는 예방 중심의 의료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 돌봄의 사적 책임 의존율이 높으므로, 공공서비스의 홍보 및 정보 접근성 개선, 서비스 대상 조건 완화가 필요함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 75.2%로 가장 높았고,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 발생 시 해결 방법으로 가족의 도움이 40.7~56.4%로 높았음. 한편,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이 있다는 걸 몰라서'가 약 60%로 나타남
- 노인돌봄 관련 욕구를 보면, 응답자의 2명 중 1명이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48.1%), 방문보건관리(44.4%),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배달(43.4%) 순이었음. 한편, 집안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주 돌봄자가 없다는 응답이 68.0%로 나타나, 재가 돌봄 공백의 문제가 심각한 사실일 알 수 있음.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로 나타남
-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은 개인위생 관리와 건강관리의 어려움, 가사활동, 신체·정신적 부담,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필요한 정보확보 및 아동 및 외출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남.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향후 이용 의향을 보면,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가 59.5%로 가장 높았고,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56.1%, 가사지원 서비스 55.9% 순임.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가장 높게 나타남. 거주지역 장애인 복지 분야 중점과제는 의료서비스 제공(52.3%), 소득지원(42.5%), 일자리 및 취업지원(25.3%), 활동지원(20.6%) 순이었음

● 미취학 아동 돌봄 어려움 경험 정도는 양육비 부담(43.8%),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43.8%)이 많았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남

- 아동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은 5기 조사와 비교할 때 전반적인 평균 점수가 낮아져, 양육 관련 어려움 체감이 완화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미취학 아동 돌봄서비스의 홍보,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함

● 청소년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고민(38.7%),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38.7%)이 높게 나타남

-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은 방과후학교(45.0%)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수련관(37.5%), 초등돌봄교실(34.5%) 순이었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영유아 시기는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았고, 아동 및 청소년 시기는 '학원 등 사교육시간과 겹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사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시간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및 심각정도는 제5기 조사 결과보다 제6기 조사 결과에서 낮아졌지만,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제5기 조사 결과보다 제6기 조사 결과에서 높아짐

- 인천시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은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14.9%,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8.6%,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6.5%,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5.4%,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5.3%로 나타남. 정신건강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등으로 나타남
- 자살 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31.4%)이 가장 높았고, 친구, 직장동료 간의 갈등(19.6%),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17.6%), 외로움(13.7%) 순이었음. 우울증, 자살 생각 극복 방법은 '도움 받은 곳 없음(혼자 해결)' 54.9%로, 2명 중 1명은 우울증 및 자살 생각에 대해 혼자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신건강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15.5%)가 가장 높았음. 정신건강 외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등이 있었음

- 정신건강과 관련한 시민의 인식 개선, 공식적인 심리상담 서비스의 연계 체계 강화가 필요함

● 가족폭력, 아동, 노인 학대에 대한 보호, 신고 및 피해자를 위한 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가정폭력 및 가족문제 해결 사회보장 서비스 필요성을 보면, 가족폭력상담소(56.1%), 가족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 신고 112(55.5%)가 가장 높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54.3%), 노인보호전문기관(53.7%), 1366 전화(52.4%) 순이었음. 여성과 아동, 노인 등은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인권과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

3. 지역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17)]

● 인천시에서 시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정책은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순으로 나타났음. 인천시에서 정책의 시급성은 높으나, 노력이 적은 영역은 주거와 고용으로 나타남

- 인천시 군·구별 정책의 시급성을 보면, 강화군은 노인돌봄, 아동돌봄, 장애인돌봄, 기초생활유지, 보호·안전 순으로 정책이 시급함. 강화군에서 정책이 시급하나 군의 노력이 적은 영역은 고용, 주거, 보호·안전으로 나타남
- 옹진군은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순으로 정책이 시급함. 옹진군에서 정책의 시급성은 높으나 군의 노력이 적은 영역은 아동학대 예방 정책, 주거로 나타남
- 중구는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영종구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함. 중구는 장애인돌봄, 노인돌봄, 고용, 기초생활 유지, 아동돌봄 순으로 정책이 시급함. 중구에서 정책의 시급성이 높으나, 구의 노력이 적은 영역은 아동학대 예방 정책, 장애인돌봄, 고용으로 나타남
- 동구는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구(내륙)와 통합하여 제물포구로 개편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함. 동구는 노인돌봄, 주거, 고용, 장애인돌봄,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시급성이 높았음. 동구에서 정책의 시급성이 높지만, 구의 노력이 낮은 영역은 아동돌봄, 고용, 주거로 나타남
- 미추홀구는 아동돌봄, 노인돌봄, 주거, 기초생활유지, 정신건강 순으로 정책이 시급하였음. 미추홀구에서 정책이 시급하나 구의 노력이 적은 영역은 고용, 주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기초생활유지, 정신건강으로 나타남
- 연수구는 노인돌봄, 아동돌봄, 보호·안전, 아동학대 예방 정책, 고용 순으로 정책이 시급함. 연수구에서 정책이 시급하나 구의 노력이 부족한 영역은 교육, 고용, 보호·안전, 아동학대 예방 정책, 정신건강으로 나타남
- 남동구는 아동돌봄, 장애인돌봄, 정신건강,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아동학대 예방 정책 순으로 정책이 시급함. 남동구에서 정책이 시급하나 노력이 적은 영역은 노인돌봄, 1인 가구 정책,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아동학대 예방 정책,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로 나타남
- 부평구는 노인돌봄, 아동돌봄, 장애인돌봄, 아동학대 예방 정책, 고용 순으로 정책이 시급함. 부평구에서 정책의 시급성은 높으로 구의 노력이 적은 영역은 신체건강, 고용으로 나타남
- 계양구는 아동돌봄, 장애인돌봄,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대, 노인돌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순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높음. 계양구에서 정책의 시급성은 높으나 구의 노력이 적은 영역은 고용, 주거, 교육,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로 나타남. 계양구 주민들은 사회복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인식과 욕구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됨
- 서구가 2026년 6월 서해구와 검단구로 개편됨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함. 서해구는 노인돌봄,

17)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은 주민의 욕구조사와 초점 집단 면접결과,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정책과 높은 시급성에 비해 군·구의 노력이 부족한 영역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시함

아동돌봄, 고용, 주거, 보호·안전 순으로 정책이 시급함. 서해구에서는 정책의 시급성이 높으나 구의 노력이 적은 영역은 고용, 주거, 보호·안전, 신체건강,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로 나타남. 검단구는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고용, 주거 순으로 정책이 시급함. 검단구에서는 정책의 시급성이 높으나 구의 노력이 적은 영역은 1인 가구 정책,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의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정책 필요

- 사회보장 영역별 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 등에 관한 조사 결과, 다수의 사회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용 방법, 자격 요건 등 정보 부족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확인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안내가 필요함

[그림 4-1] 군·구별 정책 시급성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한 정책

인천전체	평점
아동돌봄	3.59
노인돌봄	3.60
장애인돌봄	3.50
정신건강	3.36
신체건강	3.35
기초생활유지	3.42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31
보호·안전	3.37
교육	3.33
고용	3.46

시급성 높고, 구의 노력도 낮은 영역
- 주거
- 고용

강화군	평점
노인돌봄	3.92
아동돌봄	3.82
장애인돌봄	3.82
기초생활유지	3.79
보호·안전	3.75
주거	3.74
아동학대 예방 정책	3.74
고용	3.71
신체건강	3.65
1인 가구 정책	3.65

시급성 높고, 군의 노력도 낮은 영역
- 고용, 주거 영역
- 보호안전

옹진군	평점
아동돌봄	3.75
노인돌봄	3.66
장애인돌봄	3.58
신체건강	3.48
기초생활유지	3.45
보호·안전	3.40
아동학대 예방 정책	3.40
정신건강	3.40
주거	3.38
1인 가구 정책	3.38

시급성 높고, 군의 노력도 낮은 영역
- 아동학대예방정책
- 주거

중구	평점
장애인돌봄	3.63
노인돌봄	3.62
고용	3.52
기초생활유지	3.50
아동돌봄	3.48
아동학대 예방 정책	3.44
신체건강	3.42
주거	3.38
보호·안전	3.35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3.35

시급성 높고, 구의 노력도 낮은 영역
- 아동학대예방정책
- 장애인돌봄
- 고용

동구	평점
노인돌봄	3.77
주거	3.67
고용	3.67
장애인돌봄	3.63
아동학대 예방 정책	3.61
교육	3.55
아동돌봄	3.53
기초생활유지	3.50
정신건강	3.47
보호·안전	3.46

시급성 높고, 구의 노력도 낮은 영역
- 아동돌봄
- 고용 , 주거

미추홀구	평점
아동돌봄	3.60
노인돌봄	3.59
주거	3.57
기초생활유지	3.56
정신건강	3.51
장애인돌봄	3.50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48
보호·안전	3.46
아동학대 예방 정책	3.46
고용	3.45

시급성 높고, 구의 노력도 낮은 영역
- 고용, 주거 , 가족및사회적관계
- 기초생활유지
- 정신건강

연수구	평점
노인돌봄	3.48
아동돌봄	3.46
보호·안전	3.43
아동학대 예방 정책	3.41
고용	3.37
교육	3.35
정신건강	3.33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3.32
1인 가구 정책	3.32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	3.32

시급성 높고, 구의 노력도 낮은 영역
- 교육 , 고용 , 보호/안전
- 아동학대예방
- 정신건강

남동구	평점
아동돌봄	3.45
장애인돌봄	3.33
정신건강	3.30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3.30
아동학대 예방 정책	3.28
노인돌봄	3.26
1인 가구 정책	3.25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	3.24
주거	3.23
고용	3.22

시급성 높고, 구의 노력도 낮은 영역
- 노인돌봄 , 1인가구 , 다문화
- 아동학대 예방정책
-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

부평구	평점
노인돌봄	3.80
아동돌봄	3.65
장애인돌봄	3.53
아동학대 예방 정책	3.53
고용	3.51
신체건강	3.48
기초생활유지	3.48
교육	3.44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43
정신건강	3.42

시급성 높고, 구의 노력도 낮은 영역

- 신체건강
- 고용

계양구	평점
아동돌봄	3.32
장애인돌봄	3.15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충	3.15
노인돌봄	3.1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12
주거	3.12
교육	3.12
고용	3.12
기초생활유지	3.11
1인 가구 정책	3.10

시급성 높고, 구의 노력도 낮은 영역

- 고용, 주거 교육 정책
-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충

서해구	평점
노인돌봄	3.77
아동돌봄	3.76
고용	3.51
주거	3.46
보호·안전	3.41
신체건강	3.39
기초생활유지	3.34
정신건강	3.3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31
교육	3.31

시급성 높고, 구의 노력도 낮은 영역

- 고용 , 주거 , 보호안전
- 신체건강
-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충

검단구	평점
아동돌봄	3.96
노인돌봄	3.87
장애인돌봄	3.86
고용	3.78
주거	3.75
아동학대 예방 정책	3.50
기초생활유지	3.43
1인 가구 정책	3.35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충	3.22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3.14

시급성 높고, 구의 노력도 낮은 영역

- 1인가구 정책
-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충

부록

제6기(2027~2030) 인천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보고서

설문조사 질문지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D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
인천광역시 ○○구/군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군/구에서는 「제6기(2027~2030) ○○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군/구 전반의 사회문제를 확인하여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와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군/구 사회보장 부문 정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군/구 사회보장 정책 수립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중한 정책 자료로서 활용됩니다.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확실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분석 자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중이라도 귀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응답을 중단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 ○○○

조사원 기입란

주소	시 도 번 호	2	3			
	군 · 구 번 호				☞ 리스트 참조해 세 자릿수 기입	
	읍 면 동 번 호				☞ 자체적으로 생성하여 기입	
	세부주소	도로명(신)	☞ 세부주소까지 도로명 주소를 우선으로 기입하고 모르는 경우 지번으로 기입 _____(시·군·구) _____(도로명) (세부주소) _____			
		지 번 (구)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_____(도로명) (세부주소) _____			

방문시기		방문결과	미완사유	
1차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코드 ⓪ 비해당(완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 출타 ③ 부재중(원인 미파악) ④ 일부 문항 미완 ⑤ 조사 거부
2차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① 완료 ② 미완		
3차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① 완료 ② 미완		
최종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① 완료 ② 미완		

조사원 이름	(인)	검증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지도원 확인	(인)

A. 가구 일반현황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연락처	– –

A1 가구 일반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아래 <보기>의 응답코드를 참조해 응답해 주십시오.

참고사항

가구원은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하면서 혈연이나 혼인관계 등으로 이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 학업(학생), 유학, 군복무(군인), 입원, 요양(노인 등), 해외 및 지방 근무를 위해 집을 떠나 있는 경우도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가족(사실혼, 비혈연가구 등)이면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 입주도우미 등 함께 살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1-1 **총 가구원 수**(응답자 본인 포함 1인 이상, 동거하는 모든 가구원 수)		명

A1-2 가구원 번호	A1-3 가구주와 관계	A1-4 성별	A1-5 출생년도/월		A1-6 교육수준 (최종학력 기준)	A1-7 경제활동 상태 (지난 1년간)	A1-8 장애 유형	A1-9 장애 정도	A1-10 장기요양 보험 (등급)	A1-11 내/ 외국인 여부	A1-12 돌봄 필요 여부
			연도	월							
1 (응답자 본인)											
2											
3											
4											
5											
6											
7											
8											
9											
10											
응답 코드 <보기>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사실혼 등 포함, 이하 동일) ③ 비혼자녀 ④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⑤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⑥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⑦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⑧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⑨ 기타(직접 내용 기입)	① 남 ② 여 ③ 기타 ④ 밝히지 않음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① 미취학 (만5세이하) ② 무학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대학(4년제 미만) ⑦ 대학(4년제 이상)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 학력 기재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일용 근로자 ③ 고용주/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⑤ 일시휴직 ⑥ 구직활동 ⑦ 주부 ⑧ 학업 ⑨ 무직 ⑩ 해당없음 (만 14세 이하)	① 신체적 장애 ② 정신적 장애 ③ 모름 ④ 해당없음 ☞ 중복장애의 경우는 주장애 기준으로 응답 (장애 정도 포함)	(2019년 6월 이전)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2019년 7월 이후) ⑦ 심한장애 ⑧ 심하지 않은 장애 ⑨ 모름 ⑩ 해당없음	⓪ 해당없음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인지지원등급	(출생국적) ① 내국인 ② 외국인	① 예 ② 아니요

A2 귀댁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가구주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귀댁의 상황		예	아니오	비해당
A2-1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 ①	□ ②	□ ⑨
A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 ①	□ ②	
A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 교육급여를 수급하거나(생계급여 · 의료급여 비해당), 차상위 계층에 해당한다.	□ ①	□ ②	

A3 귀댁은 현재의 거주지역(인천광역시 군/구 기준)에서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	년	□□	월부터

B1. 돌봄서비스

1) 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어려움
2) 긴급돌봄의 어려움(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대상 돌봄)

B1-1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귀댁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돌봄 관련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B1-2 귀 댁이 경험한 돌봄 관련 어려움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1-3 귀 댁이 경험한 돌봄 관련 어려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까?(해결방법을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 주세요.)

구분	B1-1 어려움 경험		B1-2 어려움의 심각정도					B1-3 어려움 해결방법 (아래 보기에서 선택)	
	있음	없음 ☞B1-4	전혀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매우 심각함	1순위	2순위
① 신체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손상되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갑작스러운 질환, 사고, 수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혼자 사는 등 주변에 돌볼 사람이 없었던 경우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주돌봄자가 질환, 사고, 수술, 입원 등으로 돌볼 수 없었던 경우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주돌봄자가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으로 인해 부재하였던 경우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주돌봄자가 가족 경조사 및 주요 행사 등으로 인해 부재하였던 경우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돌봄서비스 이용 중에 문제가 생겨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경우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자격 기준(소득 초과) 등의 제한 사항에 의하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정책이 갑자기 중단 또는 폐지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어서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기타(직접 작성 :)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B1-3 <보기> 돌봄문제 해결방법

① 도움 받은 경험이 없음
② 가족의 도움
③ 가족 외 주변인의 도움(친구, 이웃, 종교단체 등)
④ 정부 및 공공기관 도움(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⑤ 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의 도움
⑥ 영리업체 도움(병원, 사설도우미 등)
⑦ 기타(직접 작성 :)

B1-4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를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지원제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만족

참고사항	**긴급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이 이용가능한 서비스로, 신청 시 조건에 부합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말합니다.** * 선정 조건 : 긴급돌봄 서비스는 긴급성과 돌봄 필요성, 보충성 등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이용 가능 - 긴급성 :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 갑작스러운 돌봄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B1-5 귀 댁에서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상황에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갑작스러운 질병 · 부상
②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신청 후 공백
③ 노화로 인해 갑자기 돌봄서비스 필요
④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⑤ 퇴원 후 돌봄 필요
⑥ 기타(직접 작성 : _____)

B1-6 귀댁에서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신 경험과 인지경로, 이용만족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명	B1-6-1 이용경험								
	① 있음 ☞ B1-6-2	B1-6-2 인지경로 (아래<보기>에서 번호 선택)	B1-6-3 이용 만족도					② 없음 ☞ B1-6-4	B1-6-4 미이용 사유 (아래<보기>에서 번호 선택)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긴급 재가돌봄서비스	①	( )	①	②	③	④	⑤	⓪	( )
② 긴급 가사지원서비스	①	( )	①	②	③	④	⑤	⓪	( )
③ 긴급 이동지원서비스	①	( )	①	②	③	④	⑤	⓪	( )
④ 긴급 방문목욕서비스	①	( )	①	②	③	④	⑤	⓪	( )

B1-6-2 <보기> 긴급돌봄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

① 인천시 홈페이지
②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③ 구청의 안내
④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안내
⑤ 지인의 권유
⑥ 기타(직접 작성 :)

B1-6-4 <보기> 이용을 하지 않은 이유

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②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③ 이용방식(시간, 가격 등)이 나와 맞지 않아서
④ 다른 서비스(예: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를 이용 중이어서
⑤ 기타(직접 작성 :)
⑥ 해당없음(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B2. 아동 · 청소년 돌봄

1) 양육비 부담(아동의 양육과정 및 돌봄서비스 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2)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돌봄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어려움)
3)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직업 등의 이유로 아동돌봄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4)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아동 양육 및 발달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부족)
5) 올바른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 부족(아동에 대한 부모의 독재적, 권위적, 방임적 태도 등 이해 부족)
6)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상 문제로 인한 어려움)

참고사항 B2-1~10 문항은 아동 돌봄과 관련된 내용으로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가구원 현황표(2쪽)를 확인해 주세요.

B2-1 귀댁은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2-2 귀댁은 해당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구분		B2-1 어려움 경험 정도					B2-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아동 양육 부담	① 양육비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양육지원 시설 · 서비스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양육 관련 정보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아동의 발달 지원 서비스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참고사항 B2-3~7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동돌봄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① 양육비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
② 양육지원 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돌봄서비스, 방과후교실, 돌봄센터, 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 보육원, 입양기관
③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 자녀양육에 필요한 육아정책 및 양육서비스 정보제공, 자녀와의 대화법, 가정내 양육환경 및 양육태도 점검, 부모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영유아발달 이해, 아동학대 예방, 발달장애에 대한 양육기술 등에 대한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활동 등
④ 아동의 발달 지원 : 발달이 지연된 영유아의 발달검사를 통한 조기 중재서비스, 정서 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서순화 프로그램, 장애아동의 신체기능과 행동발달 서비스 제공
⑤ 부모교육 지원 : 자녀학습과 진로, 교육정책, 학부모 역량개발 교육 등

B2-3 위에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2-4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2-5 (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B2-6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B2-7 (서비스를 이용하셨거나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향후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2-3 인지여부		B2-4 이용경험		B2-5 이용하지 않는 이유	B2-6 이용 만족도					B2-7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B2-7	있음 ☞B2-6	없음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B2-7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양육비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양육지원 시설 ·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아동의 발달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⑤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2-5 〈보기〉 이용하지 않은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⑥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⑩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⑪ 기타(직접 작성 :) ⑫ 해당없음 (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B2-8 귀댁의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 ① 다니고 있음 ☞ B2-10로 이동 □ ② 다니지 않음

B2-9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낮시간 동안 주로 돌봐주는 사람(주양육자)은 누구입니까?

□ ① 부 □ ② 모 □ ③ 할머니, 할아버지
□ ④ 기타 가족 □ ⑤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 ⑥ 가사도우미(고용인가사도우미 등)
□ ⑦ 이웃(육아공동체 등) □ ⑧ 아이들끼리 지냄 □ ⑨ 기타(직접 작성 : _____)

B2-10 거주지역에서 미취학 아동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시행 강화 □ ②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③ 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 ④ 보육비, 교육비 지원
□ ⑤ 양질의 보육시설 공급 등 보육환경 개선 □ ⑥ 경제적 지원(현금, 물품지원)
□ ⑦ 돌봄서비스의 종류(프로그램) 확대 □ ⑧ 기타(직접 작성:)

참고사항 **B2-11** 만 12세 이하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가구원 현황표(2쪽)를 확인해 주세요.

B2-11 평일 방과 후에 부모나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1시간 이상 집에 아동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혼자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 하루 평균 몇 시간 [ ] 시간

참고사항 **B2-12~13** 초·중·고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가구원 현황표(2쪽)를 확인해 주세요.

B2-12 귀댁의 아동 · 청소년 중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없다 ☞ B2-14로 이동 □ ② 있다

B2-13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이유 □ ② 건강상의 이유(정신적인 어려움 포함)
□ ③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 ④ 스스로 공부하려고(검정고시 준비, 홈스쿨링 포함)
□ ⑤ 유학 준비를 위해서 □ ⑥ 기타(직접 작성 : _____)

참고사항 만 13~18세 청소년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가구원 현황표(2쪽)를 확인해 주세요.
B2-14 , B2-15 는 청소년과 가족이 경험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2-14 귀댁의 청소년 가족은 지난 1년 동안(2024.8.1.~2025.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2-15 귀댁은 해당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B2-14 어려움 경험정도					B2-15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학교폭력, 왕따, 친구 문제, 사이버폭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SNS, 온라인 게임 및 도박, 메신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가족 갈등 및 소통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고민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흡연, 음주, 가출, 외박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정신건강(우울증, 불안, 자해, 약물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외모집착(다이어트, 성형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B2-16~18 귀댁의 청소년은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학습 및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청소년의 사회활동에 대한 도움 정도, 필요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분	B2-16 참여경험		B2-17 도움 정도					B2-18 필요도				
	있음	없음 ☞B2-18	전혀 도움되지 않음	약간 도움되지 않음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감상 등)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과학/정보 관련 활동 (경진대회, 과학실험 등)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 · 등반, 야영 등)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자원봉사활동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탐색 등)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국제 교류 활동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건강/보험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 · 응급처치 등)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자기계발 관련 활동 (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B2-19 귀댁의 청소년은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동안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 학습지 과외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일주일에 총 몇 시간입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 일주일 총 [ ] 시간

참고사항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가구원 현황표(2쪽)를 확인해 주세요.** B2-20~24 문항은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돌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보육 · 유아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② 아이돌봄서비스 :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
③ 드림스타트센터 :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0~12세 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
④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⑤ 초등돌봄교실 : 맞벌이 및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인천시 교육청 운영)
⑥ 방과후학교 :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 이후 시간에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늘봄교실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⑦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교육을 통해 보육과 가정양육을 지원
⑧ 다함께 돌봄센터 :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인천시와 자치구에서 주민센터, 복지관, 아파트커뮤니티 등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상시 · 일시돌봄서비스를 제공
⑨ 공동육아나눔터 :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⑪ 학교위클래스 : 잠재적 위기 학생에 관한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문제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초기에 진단하고 대처하는 학교내 상담서비스
⑫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안전망의 중심기관으로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교육, 보호, 자립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의 역할을 함
⑬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 대상의 수련활동, 취미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
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체험, 배움의 기회를 제공
⑮ 지역사회복지관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학습교실 운영 또는 전문 멘토 및 학습지도 지원, 취미 및 여가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B2-20 위에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2-21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2-22 (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B2-23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B2-24 (서비스를 이용하셨거나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향후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2-20 인지여부		B2-21 이용경험		B2-22 이용하지 않는 이유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B2-24	B2-23 이용만족도					B2-24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B2-24	있음 ☞B2-23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비해당
① 보육·유아교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② 아이돌봄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③ 드림스타트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④ 지역아동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⑤ 초등돌봄교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⑥ 방과후학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⑦ 육아종합지원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⑧ 다함께 돌봄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⑨ 공동육아나눔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⑪ 학교위클래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⑫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⑬ 청소년수련관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⑮ 지역사회복지관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B2-22 <보기> 아동 및 청소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⑥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⑧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⑩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⑪ 학원 등 사교육시간과 겹쳐
⑫ 기타(직접 작성 :)
⑬ 해당없음

B2-25 거주지역에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전문상담지원(스트레스, 가족갈등, 대화법)
□ ② 진학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지원
□ ③ 청소년 여가시설 증가
□ ④ 교육물품 지원(학용품 등)
□ ⑤ 가족여행 및 체험활동 지원
□ ⑥ 경제적 지원(현금, 물품지원)
□ ⑦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 ⑧ 기타(직접 작성: _____)

B3. 노인 돌봄

1) 개인위생 관리 : 세수, 목욕, 구강관리, 용변처리 등
2) 개인 건강관리 : 약물 복용, 의료기관 진료 예약, 방문진료, 병원 이동 등
3) 가사활동 : 집안일, 식사준비, 생활필수품 구매 등
4) 이동 및 외출 : 동주민센터, 병원 등 출타 시 이동과 외출 지원
5) 필요한 정보 제공 : 민간, 공공에서 수행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6) 식사배달 : 기본적인 식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식사 배달 서비스
7) 주거편의 :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점검·확인, 설치·이동 등 소수리, 거주환경개선 위한 청소·방역·세탁 서비스
8) 돌봄자 부재 시 긴급한 돌봄서비스 등 지원
9) 건강 관련 응급상황(심한 출혈, 심장 마비, 의식 상태 변화 등) 시 지원
10) 신체적·정신적 부담(노인가구원 돌봄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겪는 신체·정신적 어려움) 지원
11) 돌봄비용 부담(노인 가구원 돌봄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지원
12)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에 따라 돌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발
13) 타인과의 교제 및 교류 지원
14)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여가문화 시설이나 프로그램 확충 및 정보 제공
15) 지역에 시설이 없거나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지역사회시설 이용 기회 확충

참고사항 **B3. 영역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노인 단독가구, 노부부 가구 등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포함) 가구원 현황표(2쪽)를 확인해 주세요.**

B3-1~2 귀하와 귀댁의 구성원이 노년에도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중요성과 해당 서비스가 실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B3-1 서비스별 지원의 중요성					B3-2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제공되지 않음	대체로 제공되지 않는 편임	보통	대체로 제공되고 있는 편임	잘 제공되고 있음
일상생활	① 개인위생 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개인 건강 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가사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이동 및 외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식사 배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주거편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긴급상황대처	⑧ 돌봄자 부재 시 긴급돌봄서비스 등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건강 관련 응급상황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돌봄부담	⑩ 신체적 · 정신적 부담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돌봄비용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⑫ 돌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사회활동	⑬ 타인과의 교제 및 교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⑭ 문화여가 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⑮ 지역사회시설 이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참고사항	**다음은 노인 일상생활지원 및 요양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노인맞춤돌봄 : 장기요양 등급 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

② 방문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옷 갈아입히기, 취사, 식사도움, 주변정돈,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③ 방문목욕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로, 차량 혹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목욕,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주변 정리 등 서비스 제공

④ 방문간호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⑤ 주·야간보호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및 인지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⑥ 단기보호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로,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⑦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로,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 즉, 휠체어, 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복지기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⑧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과 5명이상 9명 이하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음

⑨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라고도 불리며,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⑩ 노인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 :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을 위해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가정으로 도시락이나 밑반찬 배달

⑪ 방문보건관리 : 보건소 등의 기관에서 의료진이 지역주민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가족 및 가구원의 질병을 예방 및 관리하는 서비스

⑫ 치매안심센터 :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상담, 진단,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B3-3 위에 제시되어 있는 돌봄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3-4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제시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3-5 (돌봄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시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B3-6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B3-7 (서비스를 이용하셨거나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향후 제시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3-3 인지여부		B3-4 이용경험		B3-5 이용하지 않는 이유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B3-7	B3-6 이용 만족도					B3-7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B3-7	있음 ☞B3-6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방문요양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방문목욕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간호사 방문간호, 요양상담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⑤ 주 · 야간보호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⑥ 단기보호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⑦ 기타 재가급여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⑧ 노인요양시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⑨ 특별현금급여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⑩ 노인무료급식 · 도시락배달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⑪ 방문보건관리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⑫ 치매안심센터 이용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3-5 <보기> 이용하지 않은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⑥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⑩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⑪ 기타(직접 작성 :) ⑫ 해당없음

B3-8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가정 내에서 주로 돌보는 가족은 누구입니까?(주 돌봄가족이 다수일 경우 중복응답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의 관계로 응답해주십시오.

□ ① 배우자 □ ② 딸 □ ③ 손자녀
□ ④ 아들 □ ⑤ 사위 □ ⑥ 기타 가족
□ ⑦ 며느리 □ ⑧ 형제자매 □ ⑨ 돌봐주는 사람 없음 ☞ B3-10

B3-9 주돌봄자가 대상 가구원을 돌보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다수일 경우 전체 시간을 합산해서 적어주세요)

하루 평균 몇 시간 [ ][ ] 시간

B3-10 본인 또는 가족이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름 □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 □ ③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B3-11 거주하는 지역의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우리 지역은 노인이 고령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B3-12 양질의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시급한 우선 순위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이용자 자격요건 완화)
□ ② 서비스 보장 수준 확대(지원기간 및 시간, 지원방식 등)
□ ③ 다양하고 세분화된 서비스 지원 (예: 주말돌봄, 식사배달, 주거편의 지원 등)
□ ④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공공성 강화)
□ ⑤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지원 강화
□ ⑥ 원스톱서비스 제공(서비스 지원체계 통합)
□ ⑦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 ⑧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제도 홍보 강화
□ ⑨ 기타(직접 작성 : _____)

B3-13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가사지원(청소, 빨래 등)
□ ② 정서 지원(안부 확인, 말벗 등)
□ ③ 식사 지원(도시락 배달 등)
□ ④ 방문돌봄(간병, 요양서비스 등)
□ ⑤ 복지용구 지원 (휠체어, 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방석, 보행기 등)
□ ⑥ 시설 돌봄(요양시설 등)
□ ⑦ 이동지원(외출 시 동행 또는 차량 지원)
□ ⑧ 의료 및 건강지원(만성질환 예방관리, 물리치료 등)
□ ⑨ 주거 환경지원(집수리 등)
□ ⑩ 안전 지원(학대방지, 치안 등)
□ ⑪ 가족돌봄자 대상 지원(가족돌봄휴가, 가족 상담 등)
□ ⑫ 야간돌봄
□ ⑬ 기타(직접 작성 : _____)

B4. 장애인 돌봄	1)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세수, 목욕, 구강관리, 용변처리 등의 어려움) 2) 개인 건강관리의 어려움(약물 복용, 의료기관 진료 예약 및 이동 등의 어려움) 3) 가사활동의 어려움(집안일, 식사준비, 생활필수품 구매 등의 어려움) 4)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이동 및 외출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필요한 정보확보의 어려움(민간, 공공에서 수행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확보의 어려움) 6) 재난 관련 대처 어려움(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7)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심한 출혈, 심장 마비, 의식 상태 변화 등 건강 관련 응급상황) 8) 신체적·정신적 부담(장애인 가구원 돌봄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겪는 신체·정신적 어려움) 9) 돌봄비용 부담(장애인 가구원 돌봄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10)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돌봄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어려움) 11) 장애아동의 돌봄 부담(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어려움) 12) 경제 및 사회활동 제한의 어려움(장애가 있는 가구원의 돌봄으로 인한 경제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 13) 가족 구성원간의 불화(장애가 있는 가구원의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간의 갈등)

참고사항	**다음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미등록 포함)만 응답합니다. 가구원 현황표(2쪽)를 확인해 주세요.** **B4. 영역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만(미등록 포함) 응답합니다. (장애인 단독가구 등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포함)** **아래 B4-1, B4-2 문항은 장애인 돌봄에서의 어려움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4-1 귀댁에서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장애로 인해 다음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셨습니까?

B4-2 귀댁은 해당 어려움에 관해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구분		B4-1 어려움 경험 정도					B4-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일상생활의 어려움	①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개인 건강 관리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가사활동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필요한 정보확보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⑥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돌봄 부담	⑧ 신체적 · 정신적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돌봄비용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장애아동의 돌봄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⑫ 경제 및 사회활동 제한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⑬ 가족구성원 간의 불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참고사항	다음은 장애인 돌봄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개인위생 관리지원 서비스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등
② 개인건강 관리지원 서비스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③ 가사지원 서비스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④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차량지원, 장애인 콜택시 등
⑤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안부확인 등
⑥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 : 출산비용, 장애아동 수당, 교육비, 의료비, 치료바우처 등
⑦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 긴급돌봄, 방과후 활동, 주간활동, 통합돌봄,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등

B4-3 위에 제시되어 있는 돌봄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4-4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제시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4-5 (돌봄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시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B4-6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B4-7 (서비스를 이용하셨거나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향후 제시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4-3 인지 여부		B4-4 이용 경험		B4-5 이용하지 않는 이유	B4-6 이용 만족도					B4-7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B4-7	있음 ☞B4-6	없음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B4-7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개인위생 관리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개인건강 관리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가사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⑤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⑥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⑦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4-5 <보기> 이용하지 않은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⑥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⑩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⑪ 기타(직접 작성 :)
⑫ 해당없음 (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참고사항 아래 B4-8~12 문항은 외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4-8 귀하는 제시되어 있는 장애 관련 외부지원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4-9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4-10 (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B4-11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B4-12 (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4-8 인지여부		B4-9 이용경험		B4-10 이용하지 않는 이유	B4-11 이용 만족도					B4-12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 B4-12	있음 ☞ B4-11	없음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 B4-12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장애인활동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발달장애인주간활동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자립생활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청소년발달장애 방과후활동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⑤ 발달재활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⑥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⑧ 장애인복지관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⑨ 지역사회복지관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⑩ 직업재활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⑪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⑫ 기타( )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4-10 <보기> 장애인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⑥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⑩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⑪ 기타(직접 작성 :)
⑫ 해당없음 (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B4-13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름 □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 □ ③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B4-14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이 생활하거나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B4-15 귀하는 장애인복지 분야 중 우리 지역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소득지원
□ ② 의료서비스 제공(진료비, 재활치료비, 약값 등)
□ ③ 일자리 및 취업지원
□ ④ 주거지원
□ ⑤ 활동지원
□ ⑥ 보육 및 교육 지원
□ ⑦ 이동권 보장(장애인 교통 및 편의시설)
□ ⑧ 문화, 여가, 체육활동 지원
□ ⑨ 장애인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
□ ⑩ 장애가족의 문화 및 휴식지원(가족캠프, 자조모임)
□ ⑪ 장애가족 상담 및 정보제공(양육 및 지원 관련)
□ ⑫ 장애가족 양육지원(돌보미 및 홈헬퍼 파견 등)
□ ⑬ 장애가족 교육지원(부모교육 및 훈련, 장애아동교육 등)
□ ⑭ 기타(직접 작성 : _____)

B5. 정신건강

1)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진단받지 않은 심리정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
2)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정신질환으로 자립생활이 매우 곤란하다고 진단받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3)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4)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 유가족 문제로 인한 어려움)
5)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영적 안녕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해롭거나 위험한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

참고사항 아래 B5-1, B5-2 문항은 정신건강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5-1 귀댁에서는 본인 혹은 가구원이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다음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셨습니까?

B5-2 해당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구분	B5-1 어려움 경험 정도					B5-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참고사항 B5-3~7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B5-3 귀하는 제시되어 있는 정신건강 사회보장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5-4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5-5 (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B5-6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B5-7 (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5-3 인지 여부		B5-4 이용 경험		B5-5 이용하지 않는 이유	B5-6 이용 만족도					B5-7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B5-7	있음 ☞B5-6	없음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B5-7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교육 및 상담, 조기개입, 재활지원 등)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정신과치료, 사회적응훈련, 재활, 가족지원, 위기개입, 지역사회연계 등)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⑤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5-5 〈보기〉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⑥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⑩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⑪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함
⑫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염려되어
⑬ 기타(직접 작성 :)
⑭ 해당없음(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B5-8~12 다음은 자살 생각과 우울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B5-8 귀하는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우울했다	□ ①	□ ②	□ ③	□ ④
②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B5-9 귀하는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B5-13로 이동

B5-10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
□ ②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
□ ③ 경제적 어려움
□ ④ 외로움
□ ⑤ 배우자 · 가족 · 지인의 사망
□ ⑥ 배우자 · 가족의 건강상태 악화에 따른 돌봄 부담
□ ⑦ 배우자 · 가족 간의 갈등
□ ⑧ 친구, 직장동료 간의 갈등(불화, 따돌림, 괴롭힘)
□ ⑨ 이성문제
□ ⑩ 기타(직접 작성 : _____)

B5-11 우울감, 자살충동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B5-12 최근 1년 간 우울하거나 자살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 ① 가족들의 도움
□ ② 친구, 동료 도움
□ ③ 이웃의 도움
□ ④ 심리상담 및 병원치료
□ ⑤ 기타(직접 작성 : _____)
□ ⑥ 도움 받은 곳 없음(혼자 해결)

B5-13 귀하는 제시되어 있는 외부지원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5-14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5-15 (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B5-16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B5-17 (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5-13 인지여부		B5-14 이용경험		B5-15 이용하지 않은 이유	B5-16 만족도					B5-17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B5-17	있음 ☞B5-16	없음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B5-17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자살예방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정신재활시설(직업재활등)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⑤ 공동생활가정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⑥ 정신요양시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⑦ 기타( )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5-15 〈보기〉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⑥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⑩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⑪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함
⑫ 사회적인 낙인(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염려되어
⑬ 기타(직접 작성 :)
⑭ 해당없음(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B6. 신체건강

1) 신체적 질환(중증 및 만성질환, 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통증, 신체적 기능 저하 등
2)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질병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영양 관리, 금연, 절주 등의 관리)

참고사항 아래 B6-1, B6-2 은 신체건강에서의 어려움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6-1 귀댁에서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다음의 어려움을 어느정도 경험하셨습니까?

B6-2 해당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구분	B6-1 어려움 경험 정도					B6-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참고사항 아래 B6-3~7 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체건강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 정부는 신체증진, 건강검진, 질환관리 등 주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청년을 위한 청년신체 건강 바우처, 청년 신체활동지원, 금연, 절주, 영양관리지원, 질환예방 및 관리지원, 근로자 및 장애인 건강증진지원 등의 사업 진행

B6-3 귀하는 제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지원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6-4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6-5 (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B6-6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B6-7 (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6-3 인지여부		B6-4 이용경험		B6-5 이용하지 않은 이유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 B6-7	B6-6 이용 만족도					B6-7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 B6-7	있음 ☞ B6-6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6-5 〈보기〉 신체지원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자가관리가 가능함
⑥ 혼자하는 것이 편해서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⑩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⑪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함
⑫ 기타(직접 작성 :)
⑬ 해당없음(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B6-8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상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현재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상태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태	매우 나쁨	약간 나쁨	보통	약간 건강함	매우 건강함
① 현재 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현재 모든 가구원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 ①	□ ②	□ ③	□ ④	□ ⑤

B6-9 현재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주치의 건강 관리 서비스 □ ② 건강 검진 □ ③ 알코올, 우울증 상담 및 신경정신과 치료
□ ④ 치과 진료 □ ⑤ 정형외과 진료 □ ⑥ 안과 진료
□ ⑦ 약품 지원 □ ⑧ 기타(직접 작성 : _____)

B7. 기초생활유지지

1) 생계비 부족(식사, 의복 구입 비용 등의 부족)
2) 주거비 부족(임차료 납부의 어려움, 유지수선비의 부족 등)
3) 의료비 부족(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납부의 어려움 등)
4) 교육비 부족(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 도서 구입비, 교육 정보화 지원비 부족 등)
5) 냉난방비 부족(냉방비, 난방비 납부의 어려움 등)
6)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수입대비 과도한 지출, 부채/ 신용불량/압류 등)

참고사항 아래 B7-1, B7-2 문항은 기초생활유지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7-1 귀댁에서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7-2 해당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구분		B7-1 어려움 경험 정도					B7-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기초 생활 해결의 어려움	① 생계비 부족(최소한의 생활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주거비 부족(주택구입비 제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의료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교육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냉난방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참고사항 아래 B7-3~7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초생활유지와 관련된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B7-3 귀하는 제시되어 있는 기초생활유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7-4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7-5 (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B7-6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B7-7 (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7-3 인지 여부		B7-4 이용 경험		B7-5 이용하지 않는 이유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 B7-7	B7-6 이용 만족도					B7-7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 B7-7	있음 ☞ B7-6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생계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주거비 지원(주택구입비 제외)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의료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교육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⑤ 냉난방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⑥ 가계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7-5 <보기>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경제적으로 도움될 것 같지 않음 ②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 ③ 가족이 반대함
④ 타인(정부)의 받고 싶지 않음 ⑤ 타인(친인척, 지인)의 도움이 있음 ⑥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⑧ 남들이 내 사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음 ⑨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움
⑩ 기타(직접 작성 :) ⑪ 해당없음(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참고사항 **다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장지원제도입니다.**
※ B7-3 에서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 각 사업을 설명한 후 B7-8~9를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소득·재산 등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의료특례·자활특례·교육특례 등도 포함)
② 긴급복지지원제도 : 가장의 사망이나 실직, 급박한 수술, 화재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경우 등 급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③ (인천형) 디딤돌안정소득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에게 인천광역시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④ (인천형)SOS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지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75%)을 초과하면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사각지대 가구에 인천광역시가 긴급히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B7-8 위의 보기에서 제시된 사회보장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7-9 귀댁에서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해당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B7-10 서비스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급여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B7-11 귀댁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B7-12 (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7-8 인지여부		B7-9 신청경험		B7-10 신청하지 않은 이유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B7-12	B7-11 이용 급여					B7-12 추후 신청 의향	
	알고 있음	모름 ☞B7-12	있음 ☞B7-11	없음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해당 없음	있음	없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긴급복지지원제도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인천형)디딤돌안정소득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인천형)SOS 긴급복지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7-10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① 경제적으로 도움 될 것 같지 않음 ② 과거 신청했으나 탈락함 ③ 가족이 반대함
④ 타인(정부 등)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음 ⑤ 타인(친인척, 지인)의 도움이 있음 ⑥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모름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⑧ 남들이 내 사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음 ⑨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움
⑩ 기타(직접 작성 :) ⑪ 해당없음(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B8. 가족 및 사회적 관계

1)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가족간 갈등, 관계소원 및 단절)
2)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친인척, 이웃간 갈등, 관계 소원 및 단절, 소속집단 내 관계의 어려움)

참고사항 아래 B8-1, B8-2 문항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8-1 귀댁에서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8-2 해당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구분	B8-1 어려움 경험 정도					B8-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전혀 필요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참고사항 B8-3~7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8-3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8-4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8-5 (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B8-6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B8-7 (서비스를 이용하셨거나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향후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8-3 인지여부		B8-4 이용경험		B8-5 이용하지 않은 이유	B8-6 이용 만족도					B8-7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B8-7	있음 ☞B8-6	없음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B8-7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 역량강화 지원 등)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 (사회적관계 활성화 지원, 상담, 정서지원, 취약계층지원 등)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8-5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가족들이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⑥ 가족끼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⑨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⑩ 기타(직접 작성 :)
⑪ 해당없음(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B8-8~12 귀하는 최근 1년(2024.8.1.~2025.7.31.) 간 다음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 참여하지 않는 이유, 향후 참여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B8-8~12는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8-8 귀하는 제시되어 있는 사회활동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B8-9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제시된 사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B8-10 (사회활동을 알고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시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B8-11 (사회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B8-12 (사회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 모두) 향후 제시된 사회활동에 참여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8-8 인지여부		B8-9 참여경험		B8-10 참여하지 않는 이유	B8-11 참여 만족도					B8-12 향후 참여 의향	
	알고 있음	모름 ☞B8-12	있음 ☞B8-11	없음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B8-12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회의, 통반장 회의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지역 방범활동, 청소년선도, 교통정리와 같은 지역봉사활동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마을 공동체사업(마을주민들이 모여 지역문제 해결 및 문화 활동)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⑤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동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⑥ 주민자치회, 민관협치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⑦ 자원봉사활동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8-10 〈보기〉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① 건강상의 이유
②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부족
③ 수줍음과 내향적인 성격
④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⑤ 여유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두려움
⑦ 혼자 생활하는 것이 편함
⑧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름
⑨ 사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⑩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음
⑪ 기타(직접 작성 :)
⑫ 해당없음 (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B9. 보호 · 안전

1) 가족 내 안전의 어려움(가족 구성원 간 학대, 폭력, 방임 등)
2)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의 어려움(친인척, 이웃, 소속 공동체 내에서의 학대, 폭력, 방임, 착취, 협박 등)

참고사항 아래 B9-1, B9-2 문항은 보호·안전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9-1 귀댁에서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9-2 해당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구분	B9-1 어려움 경험 정도					B9-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가족 내 안전의 어려움										
① 신체적 위협 및 폭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언어적 위협 및 폭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심리 · 정서적 위협 및 폭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경제적 위협 및 폭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성적 위협 및 폭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구성원의 지나친 통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2)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의 어려움										
① 학교, 직장 등에서의 위협 및 괴롭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온라인 · 디지털 공간에서의 위협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사회적 차별 · 혐오 경험 (한부모, 장애, 이주민, 성소수자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3)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① 태풍, 홍수, 폭설 등 기후 재해로 인한 생활공간 침수 · 파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지진, 산사태 등으로 인한 생명 · 신체 위협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재해 발생 시 대피 · 구호 정보 부족 또는 접근성 미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4) 사회적 재난(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① 감염병 유행 시 보호용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확보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격리 · 봉쇄로 인한 생계활동 또는 돌봄 공백 발생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정보 부족 또는 허위정보로 인한 불안과 대응 곤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B9-3 귀하는 현재 동거가족과의 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② 대체로 불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B9-4 귀하는 동거가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 ① 그냥 참는다
☐ ②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③ 취미 · 놀이 · 술 등에 의존하여 잊어버리려고 한다
☐ ④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⑤ 주위 사람(다른 가족, 지인, 친구 등)에게 도움을 받는다
☐ ⑥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 ⑦ 기타(직접 작성 : _____)

B9-5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항목별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종류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전문가를 통한 가족상담 등 정서프로그램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가족관계(부부, 부모-자녀 등) 회복 프로그램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가정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지원(긴급피난)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법률서비스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B9-6 귀하는 가족내 폭력 및 학대가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B9-7~8 가족폭력 및 가족문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여부와 필요정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B9-7 인지 여부		B9-8 필요정도				
	알고 있음	모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가족폭력상담소(가정폭력 피해상담, 신고접수, 임시보호,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 연계)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가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쉼터), 공동생활가정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1366(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24시간 운영)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일시보호 등)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장애인(성인/아동)보호전문기관(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일시보호 등)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성폭력피해자지원(법률, 상담소운영, 치료회복 및 의료지원 등)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안전Dream(여성, 아동,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정폭력 등 위기가구)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B10. 교육

1) 기초학습능력의 부족(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수리계산 능력, 그 외 학습능력 부족 등)
2) 학업유지의 어려움(학업 흥미 상실, 교육비 과부담의 어려움)
3)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교우관계의 어려움, 사제관계의 어려움 등)
4) 평생교육의 어려움(평생교육 기회 부족 등)

참고사항 ①, ②, ③: 초·중·고 취학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④: 모든 가구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B10-1, B10-2 문항은 교육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10-1 귀댁에서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10-2 해당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구분		B10-1 어려움 경험 정도					B10-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학업의 어려움	① 기초학습능력의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학업 유지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평생교육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참고사항 ①, ②, ③: 초·중·고 취학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④: 모든 가구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B10-3~7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 관련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B10-3 귀하는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10-4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10-5 (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B10-6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B10-7 (서비스를 이용하셨거나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향후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10-3 인지여부		B10-4 이용경험		B10-5 이용하지 않는 이유	B10-6 이용 만족도					B10-7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B10-7	있음 ☞B10-6	없음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B10-7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교육비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평생교육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10-5 〈보기〉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⑥ 건강상의 이유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⑩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⑪ 함께 배울 친구가 없어서
⑫ 동기, 자신감 부족
⑬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⑭ 기타(직접 작성 :)
⑮ 해당없음 (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B10-8 **평생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귀하에게 필요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인문교양(문학,독서,철학,역사 등)
☐ ② 문화예술(음악,서예,생활스포츠 등
☐ ③ 직업능력(취업 및 창업 준비 등)
☐ ④ 시민교육(환경,노동,정책,봉사,다문화,사회현안 등)
☐ ⑤ 학력보안 · 인정교육(한글, 수학, 검정고시)
☐ ⑥ 디지털 교육
☐ ⑦ 경제교육(자산관리,노후대비 등)
☐ ⑧ 부모교육(대화,심리상담,교육정보)
☐ ⑨ 기타(직접 작성 : _____)
☐ ⑩ 해당없음

B11. 고용

1)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일자리 발굴의 어려움, 일자리 수의 부족 등)
2) 취업·창업 정보 부족(채용공고 및 일자리 정보, 창업 정보 등 부족)
3)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자격증 취득비용, 학원비, 면접 준비 비용 등의 부족)
4) 창업자금 부족(창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의 어려움)
5) 나이·성별·장애로 취업 어려움(나이·성별·장애의 차별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6)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사업장 여건변화로 인한 고용유지의 어려움)
7)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낮은 임금, 긴 근로시간,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한 어려움)
8)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으로 인한 고용유지의 어려움)
9)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참고사항 ①~④는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창업) 경험을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⑤~⑩는 유급노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아래 B11-1, B11-2 문항은 고용에서의 어려움 경험정도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B11-1 귀댁에서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고용과 관련해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11-2 해당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구분		B11-1 어려움 경험 정도					B11-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취/창업의 어려움	①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취업 · 창업 정보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창업자금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고용유지의 어려움	⑤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 · 창업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사업의 도산 · 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1년 이상 고용유지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참고사항	①~④는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창업) 경험을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⑤~⑧는 유급노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B11-3~7 고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B11-3 귀하는 제시되어 있는 고용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11-4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11-5 (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B11-6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B11-7 (서비스를 이용하셨거나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향후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11-3 인지여부		B11-4 이용경험		B11-5 이용하지 않는 이유	B11-6 이용 만족도					B11-7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B11-7	있음 ☞B11-6	없음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B11-7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취/창업의 어려움	① 일자리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취업 · 창업 정보 제공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재)취업비용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창업자금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고용유지의 어려움	⑤ 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⑥ 근로조건 · 환경개선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⑦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⑧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11-5 〈보기〉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가족들이 반대해서
⑥ 건강상의 이유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⑩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⑪ 함께 배울 친구가 없어서
⑫ 동기, 자신감 부족
⑬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⑭ 기타(직접 작성 :)
⑮ 해당없음 (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B11-8 귀하께서는 다음의 고용 서비스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별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일자리 직접 지원(공공분야 일자리 개발 및 제공)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근로유인을 위한 수당 및 세제(청년수당, 근로장려세제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고용촉진을 위한 서비스(취·창업 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용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고령자 친화기업 발굴 및 연계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B12. 주거

B12-1 귀댁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
☐ ④ 연립주택
☐ ⑤ 다세대주택
☐ ⑥ 주택이 아닌 건물(쪽방, 고시원, 상가, 공장, 여관 등)
☐ ⑦ 오피스텔
☐ ⑧ 기타(직접 작성 : _____)

B12-2 귀댁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지하 ☐ ② 반지하 ☐ ③ 지상 ☐ ④ 옥탑

B12-3 귀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구분	연탄	부탄가스	LPG	도시가스	전기	대체에너지	기타	없음
① 취사연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② 난방연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③ 냉방연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B12-4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4.8.1.~2025.7.31.) 지출한 냉 · 난방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셨습니까?

	전혀 부담되지 않았음	부담되지 않음	보통	약간 부담됨	매우 부담됨
① 지난 여름 지출한 냉방비 부담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지난 겨울 지출한 난방비 부담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B12-5 귀댁에서는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비용에 부담으로 난방이나 냉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비용부담 때문에	예	아니오
①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있다.	☐ ①	☐ ②
② 여름에 냉방을 틀지 못한 경험이 있다	☐ ①	☐ ②

참고사항	B12-6~10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거 관련 사회보장(복지)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임대주택(영구, 공공) :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기위한 사업
② 전세자금(융자) 지원 : 저소득, 근로자, 서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
③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 근로자, 서민을 대상으로 내집마련 주택자금을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
④ 인천형 주택바우처 : 월세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⑤ 인천시 사회주택 : 시민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제도
⑥ 역세권 청년주택 :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
⑦ 행복주택 : 젊은 계층의 거주불안 해소를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
⑧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의 육아·보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
⑨ 청년월세지원 :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대 1년동안 총 24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⑩ 주거상향지원 : 인천시 주거취약계층 거주자(쪽방, 고시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⑪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⑫ 고령화맞춤형집수리 : 인천시 고령자의 노화, 질병, 낙상사고 등 건강상태에 대응하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

구분	B12-6 인지여부		B12-7 이용경험		B12-8 이용하지 않는 이유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 B12-10	B12-9 이용 만족도					B12-10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 B12-10	있음 ☞ B12-9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임대주택(영구, 공공)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전세자금(융자)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주택구입자금(융자)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인천시 주택바우처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⑤ 인천시 사회주택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⑥ 역세권 청년주택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⑦ 행복주택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⑧ 신혼희망타운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⑨ 청년월세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⑩ 주거상향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⑪ 에너지 바우처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⑫ 고령화맞춤형집수리사업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12-8 〈보기〉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③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부담 때문에 ⑤ 집주인에게 허락 및 협조받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⑥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⑦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⑧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⑨ 기타(직접 작성 :)
⑩ 해당없음(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B13. 법률 및 권익보장

1)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혼, 파산/신용불량, 친권상실, 신분상실, 사고보상처리 등의 법률 관련 어려움)
2)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부당한 차별이나 착취, 인권침해로 인한 어려움)

참고사항 아래 B13-1, B13-2 문항은 법률 및 권익보장과 관련된 어려움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13-1 귀댁에서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13-2 해당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구분	B13-1 어려움 경험 정도					B13-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법률문제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참고사항 B13-3~6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법률 및 권익관련 사회보장(복지)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B13-3 귀하는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13-4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13-5 (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B13-6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B13-7 (서비스를 이용하셨거나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향후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13-3 인지 여부		B13-4 이용 경험		B13-5 이용하지 않은 이유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B13-7	B13-6 이용 만족도					B13-7 향후 이용의향	
	알고 있음	모름 ☞B13-7	있음 ☞B13-6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법률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13-5 〈보기〉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③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부담 때문에
⑤ 집주인에게 허락 및 협조받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⑥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⑦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⑧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⑨ 기타(직접 작성 :)
⑩ 해당없음(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B14. 문화 · 여가

1)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참여기회 부족, 문화·여가시설 열악 등)
2)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참여기회 부족, 체육시설 열악 등)

참고사항 아래 B14-1, B14-2 문항은 문화·여가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14-1 귀댁에서 지난 1년 중(2024.8.1.~2025.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14-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구분		B14-1 어려움 경험 정도					B14-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문화 여가	① 문화생활 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문화 · 여가 활동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여가시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연령,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한 문화 참여의 제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체육 활동	① 체육활동에 드는 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지역 내 체육시설 접근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체육활동 시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건강, 장애, 연령 등의 신체적 이유로 인한 제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참고사항 B14-3~7 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관련 사회보장(복지)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B14-3 귀하는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B14-4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B14-5 (서비스를 알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B14-6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B14-7 (서비스를 이용하셨거나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향후 제시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B14-3 인지여부		B14-4 이용경험		B14-5 이용하지 않는 이유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B14-7	B14-6 이용 만족도					B14-7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B14-7	있음 ☞B14-6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문화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체육활동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B14-5 〈보기〉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시설이 낙후되어서
②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③ 가까운 곳에 서비스 이용시설이 없어서
④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⑤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서
⑥ 건강상의 이유로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 정보 및 신청방법을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⑩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⑪ 함께 배울 친구가 없어서
⑫ 동기, 자신감 부족
⑬ 기타(직접 작성 :)
⑭ 해당없음(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C. 복지의식 및 욕구

참고사항 아래 C1, C2, C3 문항은 사회보장 각 영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 시급성 및 이제까지의 정책 마련 노력에 관한 문항입니다.

C1 인천시 · 군 · 구는 사회보장 각 영역에서 전년에 비해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C2 인천시 · 군 · 구가 사회보장 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의 시급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C3 인천시 · 군 · 구가 사회보장 각 영역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C1 전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정도						C2 정책의 시급성					C3 시군 · 구의 노력 정도				
	전혀 좋아지지 않음	좋아지지 않음	보통	좋아짐	매우 좋아짐	비해당	전혀 시급하지 않음	시급하지 않음	보통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혀 노력하지 않음	노력하지 않음	보통	노력함	매우 노력함
① 아동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노인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장애인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정신건강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신체건강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기초생활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보호·안전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고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주거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⑫ 법률 및 권익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⑬ 문화·여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⑭ 아동학대 예방 정책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⑮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⑯ 1인 가구 정책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⑰ 사회복지관련 시설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C4 다음은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복지정책의 방향은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복지대상은 가난한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복지서비스 비용은 능력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혜택을 늘리는게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노인 돌봄(부모 부양)은 본인보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노인 돌봄(부모 부양)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C5 다음은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원 필요성 정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대상별 지원이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5세 이하 영유아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학령기 아동 · 청소년)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청년(19~39세)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노인(65세 이상)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중장년층(40~64세)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장애인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저소득층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여성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1인 가구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한부모 가정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다문화 가정	□ ①	□ ②	□ ③	□ ④	□ ⑤
⑫ 기타( )	□ ①	□ ②	□ ③	□ ④	□ ⑤

C6 귀하는 거주하시는 지역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아동(만 0~18세) 돌봄 □ ② 성인(노인, 장애인 등) 돌봄 □ ③ 보호안전정책
□ ④ 가족돌봄청년 □ 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 ⑥ 건강정책
□ ⑦ 주거정책 □ ⑧ 교육정책 □ ⑨ 고용정책
□ ⑩ 문화여가정책 □ ⑪ 환경정책 □ ⑫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 ⑬ 환경정책 □ ⑭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 ⑮ 기타(직접 작성:_____)

참고사항 **아래 C7-1~5 문항은 지역 내 복지시설의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만족도,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용하지 않지만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영유아 복지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시설
②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 아동보호시설, 아동 여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치된 복지시설
③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 기능회복 및 사회적 향상 도모를 위해 설치된 시설
④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⑤ 지역복지시설 : 지역사회 복지관(종합, 종별) 등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설치된 시설
⑥ 기타 사회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자활센터 등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언어치료센터, 노인돌봄센터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

C7 **다음은 지역 내 주요 복지시설입니다. 각 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구분	C7-1 인지여부		C7-2 이용경험		C7-3 이용하지 않는 이유	C7-4 이용 만족도					C7-5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C7-5	있음 ☞C7-4	없음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C7-5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비해당
① 영유아 복지시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②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③ 장애인 복지시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④ 노인복지시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⑤ 지역복지시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⑥ 기타 사회복지시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⓪

C7-3 〈보기〉 이용하지 않은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⑥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⑩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⑪ 기타(직접 작성 :)
⑫ 해당없음 (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D. 생활 여건 및 지역 불균형

D1 다음은 귀댁의 생활 여건(경제적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D1-1 귀댁의 지난 1년 동안(2024.8.1.~2025.7.31.) 가구 소득 기준이며,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사회보험 본인 부담금 등) 납부 전의 월평균 생활비와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항목								
가구 월평균 소득	월평균	억	천	백	십	일	만원
가구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억	천	백	십	일	만원

D1-2 귀댁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귀 세대의 경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 ☐ ② 어려운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여유로운 편이다 ☐ ⑤ 매우 여유롭다

참고사항 다음은 지역사회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 본인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D2 아래 제시되는 각 영역별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영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현재 거주하고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현재 귀하의 삶의 질의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참고사항 D3는 지역 불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D3-1 (현재 거주하고 있는)OO군/구가 인천광역시의 다른 군 · 구와 비교해볼 때 얼마나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열악하다 ☐ ② 열악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살기좋다 ☐ ⑤ 매우 살기좋다

D3-2 아래 제시되는 각 영역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OO군/구와 인천광역시 내 다른 지역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매우 심각함	심각함	보통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① 소득 및 자산 (지역 평균 소득 대비 수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주거 (주택상태, 주거 및 주변시설의 낙후 정도, 대중교통 편리성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고용환경(일자리의 수, 일자리의 질, 임금 수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교육 시설 및 서비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설학원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제공 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의료시설 및 서비스 (종합병원, 병원/의원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생활편의시설 (마트, 식당, 사우나, 미용실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문화 · 여가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전반적인 삶의 여건	☐ ①	☐ ②	☐ ③	☐ ④	☐ ⑤

D4 귀 세대의 거주지역의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주로 이용하시는 시설이나 장소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불만족함	대체로 불만족함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① 시장 · 대형마트 • 백화점 등 접근용이성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병원 · 의료복지시설 등 접근용이성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시민 등) 접근용이성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시청 · 읍/면/동사무소 • 경찰서 등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체육 · 문화시설(놀이터 • 공원 • 녹지 • 수변 등) 접근용이성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버스 ·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 • 서비스 등 양육 환경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 • 서비스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학교 · 학원 등 교육 환경	□ ①	□ ②	□ ③	□ ④	□ ⑤
⑫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 ①	□ ②	□ ③	□ ④	□ ⑤
⑬ 집주변의 소음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⑭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 ①	□ ②	□ ③	□ ④	□ ⑤
⑮ 환경 오염 정도(대기, 수질, 토질 오염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⑯ 이웃과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참고사항 D5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임신/출산을 경험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D5 본인이나 가족 중, 최근 3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 ① 예 (☞ D5-1 로) □ ② 아니오 (☞ E1 로)

D5-1 본인 또는 가족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 □ ③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D5-2 우리 지역에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 생활이나 활동을 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개인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E. 1인가구

참고사항 다음은 동거가족, 동거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일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으면 F1 으로 이동하십시오

E1 귀하는 혼자서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　　)개월

E2 귀하께서 혼자 생활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 ② 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이민(기러기가족 포함),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 ③ 함께 살던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 ④ 개인적 편의(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 ⑤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 ⑥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 ⑦ 결혼하지 않아서
☐ ⑧ 기타(직접 작성 : _____)

E3 귀하께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중복응답)

☐ ① 가족 및 친인척
☐ ② 이웃
☐ ③ 친구 또는 직장동료
☐ ④ 종교단체 및 기관
☐ ⑤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
☐ ⑥ 지역의 복지기관
☐ ⑦ 거의 없음
☐ ⑧ 기타(직접 작성 : _____)

E4 응급상황 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E5 귀하의 혼자 사는 생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만족함
☐ ⑤ 매우 만족함

E6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택 주변 환경이 혼자 살기에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안감
☐ ② 약간 불안함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안전함
☐ ⑤ 매우 안전함

E7 귀하께서 혼자 생활하시면서 곤란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곤란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경제적 부담(생계비, 주거비 등)
☐ ② 외로움
☐ ③ 몸이 아프거나 위급시 대처의 어려움
☐ ④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 ⑤ 강력범죄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
☐ ⑥ 임종에 대한 불안감(고독사의 문제)
☐ ⑦ 주거관리(댁내 장비 교체 등)의 어려움
☐ ⑧ 지역사회 내 믿고 의지할 사람(이웃 주민)의 부족
☐ ⑨ 식사준비 및 가사의 어려움
☐ ⑩ 기타(직접 작성 : _____)

E8 인천시의 1인 가구 지원 정책과 제도가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약간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E9 1인 가구를 위해 군 · 구가 지원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주거지원정책	1인 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② 생활지원	식사 및 가사지원 등
③ 건강지원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치료비 지원 등
④ 안전정책	안전한 주거환경, 믿고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구축 등
⑤ 경제적 여건 개선 정책	공공부조 등 복지제도 및 취업정책 등
⑥ 취미여가활동 지원	요리, 공예, 스포츠, 문화 체험 등
⑦ 1인 가구 인식 개선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⑧ 응급 상황 대응 정책	질병, 집안 내 사고 등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지원정책
⑨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 정책	지역사회 공동체, 1인가구 연대 등 참여형 프로그램
⑩ 기타	(직접 작성 : _____)

F.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

참고사항 F 영역은 다문화 가구만 응답합니다.

F1 귀댁의 다문화 가구원의 출신 국가는 어디입니까?

☐ ① 중국 한국계(조선족) ☐ ② 중국 ☐ ③ 일본 ☐ ④ 베트남
☐ ⑤ 필리핀 ☐ ⑥ 대만 · 홍콩 ☐ ⑦ 태국 ☐ ⑧ 캄보디아
☐ ⑨ 그 외 동남아시아 ☐ ⑩ 남부아시아 ☐ ⑪ 러시아 ☐ ⑫ 그 외 지역( )

F2 귀댁의 다문화 가구원이 처음 한국에 온 것은 언제였습니까? (한국 입국 시점, 예시 : 2015년 2월)

( )년 ( )월

F3 귀댁의 다문화 가구원이 한국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국제결혼(F비자) ☐ ② 취업(E비자) ☐ ③ 관광(C비자) ☐ ④ 기타( )

F4 귀댁의 다문화 가구원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이해하지 못함
☐ ② 기본적인 단어와 표현을 이해함
☐ ③ 일상 대화가 가능함
☐ ④ 복잡한 내용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음
☐ ⑤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함

F5 다음은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의 경험한 차별에 대한 문항입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을 느낀 정도에 대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차별받지 않음	별로 차별받지 않음	약간 차별을 받음	심한 차별을 받음
① 살고 있는 지역에서(주민과의 관계 혹은 생활 중에서)	☐ ①	☐ ②	☐ ③	☐ ④
② 상점이나 음식점, 은행 등에서	☐ ①	☐ ②	☐ ③	☐ ④
③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경찰서 등)에서	☐ ①	☐ ②	☐ ③	☐ ④
④ 직장/일터에서	☐ ①	☐ ②	☐ ③	☐ ④
⑤ 임금, 승진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에서	☐ ①	☐ ②	☐ ③	☐ ④
⑥ 취업과정에서(입사지원, 면접등)	☐ ①	☐ ②	☐ ③	☐ ④
⑦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 ①	☐ ②	☐ ③	☐ ④

F6 귀댁의 다문화 가구원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심리적 고립과 외로움 ☐ ② 언어문제 ☐ ③ 가족 간의 갈등
☐ ④ 생활양식, 음식 등 문화 차이 ☐ ⑤ 자녀 양육 및 교육 ☐ ⑥ 편견과 차별
☐ ⑦ 은행, 시·군청 등 기관이용 ☐ ⑧ 경제적 어려움 ☐ ⑨ 가치관의 차이
☐ ⑩ 체류 자격과 법적 불안정성 ☐ ⑪ 기타( )

F7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귀하에게 다음의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보통 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주거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가정문제 위기상담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취업(일자리)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문화교육 및 교류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의료 및 건강보험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언어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통·번역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자녀교육 및 언어발달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법률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기타( )	☐ ①	☐ ②	☐ ③	☐ ④	☐ ⑤
⑫ 기타( )	☐ ①	☐ ②	☐ ③	☐ ④	☐ ⑤
⑬ 기타( )	☐ ①	☐ ②	☐ ③	☐ ④	☐ ⑤

F8 다음은 지역 내 주요 다문화 복지시설 및 지원 사업 입니다. 각 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구분	F8-1 인지여부		F8-2 이용경험		F8-3 이용하지 않는 이유	F8-4 이용 만족도					F8-5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F8-5	있음 ☞F8-4	없음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F8-5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이민자통합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다문화일자리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⑥ 종합사회복지관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⑦ 도서관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F8-3 〈보기〉 이용하지 않은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서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⑥ 집에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⑩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⑪ 기타(직접 작성 :) ⑫ 해당없음 (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G. 옹진군 추가 문항

참고사항 G 영역은 옹진군 거주자만 응답합니다.

G1 귀 가구가 옹진군에 거주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옹진군 출생 ☐ ② 직장으로 인한 이주 ☐ ③ 귀농 또는 귀촌
☐ ④ 결혼으로 인한 이주 ☐ ⑤ 기타( )

G2 귀 가구는 어느 정도 주기로 육지에 방문하십니까?

☐ ① 월 2회 이상 ☐ ② 월 1회 정도 ☐ ③ 2개월에 1회 정도
☐ ④ 3개월에 1회 정도 ☐ ⑤ 6개월에 1회 정도 ☐ ⑥ 9개월에 1회 정도
☐ ⑦ 1년에 1회 정도

G3 귀 가구가 육지를 방문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병 · 의원 방문 ☐ ② 약국 방문 ☐ ③ 자녀 및 친 · 인척 방문
☐ ④ 생활용품 구입 ☐ ⑤ 생업 관련 자재(재료) 구입 ☐ ⑥ 친구 등 지인 만남
☐ ⑦ 기타(직접 작성 : _____)

G4 귀 가구가 육지 방문 시 주로 숙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본인 소유의 집 ☐ ② 자녀의 집 ☐ ③ 친 · 인척의 집
☐ ④ 친구 등 지인의 집 ☐ ⑤ 숙박시설 ☐ ⑥ 기타(직접 작성 : _____)

G5 도서지역 거주로 인해 가장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의료 접근성(응급의료체계) ☐ ② 교육 및 문화 기회 ☐ ③ 사회적 관계 형성
☐ ④ 주거환경 개선 ☐ ⑤ 교통 및 통신 인프라 ☐ ⑥ 기타(직접 작성 : _____)

참고사항 **농어촌 노령층의 의료접근성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질문으로 6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응답주세요.**

G6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병 · 의원 진료를 받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주1~2회 ☐ ② 월1~2회 ☐ ③ 3개월 1회
☐ ④ 거의 가지 않음 ☐ ⑤ 기타(직접 작성 : _____)

G7 귀하가 병원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교통 불편 ☐ ② 동행 보호자의 부재 ☐ ③ 의료비 부담
☐ ④ 가까운 위치에 병원이 없음 ☐ ⑤ 기타(직접 작성 : _____)

G8 귀하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도보 15분 이내 ☐ ② 차량으로 30분 이내 ☐ ③ 차량으로 1시간 이내
☐ ④ 차량으로 1시간 이상 ☐ ⑤ 기타(직접 작성 : _____)

G9-1 방문진료(의사 및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G9-2 지난 1년간 (2024.8.1.~2025.7.31.) 방문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G9-3 (방문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G9-4 (방문진료서비스를 이용하셨거나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향후 방문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G9-5 방문진료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개 선택)

구분	G9-1 인지여부		G9-2 이용경험		G9-3 이용만족도					G9-4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 G9-4	있음 ☞ G9-3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건강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투약 및 처방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간단한 의료처치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정신건강 상담(우울, 치매 등)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⑤ 재활 및 운동치료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⑥ 식이요법 및 영양관리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⑦ 치과진료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⑧ 충분한 진료시간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⑨ 방문간호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⑩ 요양관련 상담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G10 방문진료 외에도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방문간호 □ ② 방문 물리치료 □ ③ 정기 건강검진
□ ④ 병원동행 □ ⑤ 건강교육 □ ⑥ 기타(직접 작성 : _____)

참고사항 **아래 G11-1~5 문항은 옹진군 내 재난·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요 서비스들입니다. 현재 이용하지 않지만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병원선 '건강옹진호' : 2025년 6월 취항한 병원선으로, 옹진군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접근성 향상 도모를 위해 설치된 시설
② 닥터 · 소방헬기 : 옹진군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헬기로 육지 병원으로 이송 지원하는 시설
③ 원격화상진료 시스템 : 2009년부터 운영 중인 ICT 기반 화상진료로, 백령 · 덕적 등 진료소에서 의사와 실시간 대면 진료가 가능한 시설
④ 주민대피소 : 대풍 · 해일등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령도와 연평도 서해 5도를 포함하여 총 42곳에 설치한 대피시설

G11 **다음은 지역 내 주요 재난 · 의료시설입니다. 각 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구분	G11-1 인지여부		G11-2 이용경험		G11-3 이용하지 않는 이유	G11-4 이용 만족도					G11-5 향후 이용 의향	
	알고 있음	모름 ☞G11-5	있음 ☞G11-4	없음	(아래 〈보기〉에서 번호 선택) ☞ G11-5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병원선 '건강옹진호'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② 닥터소방헬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③ 원격화상진료시스템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④ 태풍·해일 등 주민대피소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G11-3 〈보기〉 이용하지 않은 이유

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③ 시설 입소 및 서비스 대기 중
④ 비용(자부담) 부담 때문에
⑤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
⑥ 가족이 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⑦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⑧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⑨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⑩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⑪ 기타(직접 작성 :)
⑫ 해당없음 (서비스 및 기관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제6기 (2027~2030)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보고서

발 행 일 ‖ 2026년 초판 발행

발 행 인 ‖ 인천광역시
주 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발 행 처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 (2210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17층
전 화 ‖ (032)721-5544
홈페이지 ‖ https://incheon.pass.or.kr/

인 쇄 ‖ 예림디자인 (032)260-3877

ⓒ 이 책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